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95-10

대한민국 외교문서요약집

(구 외교사료해제집)

1993(1)

외 교 부

| 일러두기 |

1. 본 책자는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록한 것으로, 책자의 성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책자의 제목을 「외교사료해제집」에서 「외교문서요약집」으로 변경하였다.
2. 본 책자는 2024년에 공개된 1993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문서철별 내용을 요약·기술하고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요약문은 각 외교문서철의 주제순(분류번호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요약문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과와 함께 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요약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변경, 표기하였다.
 - 단, 요약문에서 문서철에 수록된 자료 언급 시에는 당시 자료 제목을 그대로 표기
5. 본 책자는 목차, 본문, 부록(1993년 외교일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도

0001	1993년도 연두 업무보고	32
000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외무부 업무보고	33
0003	신정부 출범 대통령 앞 업무보고	34
0004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1993.2.25. 전2권 (V.1 세부 추진계획)	35
000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1993.2.25. 전2권 (V.2 해외동포 초청)	36
0006	법령 질의 및 해석	37
0007	주한 공관원 및 공무원수행자에 대한 국내여행 제한지침 개정	38
0008	국제관계자문대사제도 활성화 방안	39
0009	한국 인권문제 관련 호주 동향	40
0010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10주기 추모 행사 및 기념물 건립 문제	41
0011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미국 반응	42
0012	한국 인권문제 관련 미국 동향	43
0013	한국 인권문제 관련 유럽 동향	44
0014	한·미국 관계 외교문서공개 검토	45
0015	의전행사 간소화 방안	46
0016	1993년도 주한대사 이임 예방	47
0017	대사파견 - 신임장 수여 및 현황	48
0018	대사파견 - 알제리	49
0019	대사파견 - 오스트리아	50
0020	대사파견 - 벨기에	51
0021	대사파견 - 불가리아	52
0022	대사파견 - 미얀마	53
0023	대사파견 - 브라질	54
0024	대사파견 - 칠레	55
0025	대사파견 - 카메룬	56
0026	대사파견 - 중국	57
0027	대사파견 - 체코	58
0028	대사파견 - 도미니카공화국	59
0029	대사파견 - 에콰도르	60
0030	대사파견 - 구주연합	61
0031	대사파견 - 피지	62
0032	대사파견 - 핀란드	63
0033	대사파견 - 독일	64
0034	대사파견 - 가나	65
0035	대사파견 - 그리스	66
0036	대사파견 - 제네바	67
0037	대사파견 - 헝가리	68
0038	대사파견 - 교황청	69
0039	대사파견 - 아일랜드	70
0040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71
0041	대사파견 - 이탈리아	72
0042	대사파견 - 일본	73
0043	대사파견 - 리비아	74
0044	대사파견 - 모로코	75
0045	대사파견 - 멕시코	76
0046	대사파견 - 나미비아	77

0047	대사파견 - 네팔	78
0048	대사파견 - 필리핀	79
0049	대사파견 - 루마니아	80
0050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81
0051	대사파견 - 스웨덴	82
0052	대사파견 - 싱가포르	83
0053	대사파견 - 스리랑카	84
0054	대사파견 - 세네갈	85
0055	대사파견 - 스위스	86
0056	대사파견 - 탄자니아	87
0057	대사파견 - 우크라이나	88
0058	대사파견 - 영국	89
0059	대사파견 - 미국	90
0060	대사파견 - 우루과이	91
0061	대사파견 - 예멘	92
0062	대사부임 - 알바니아	93
0063	대사부임 - 방글라데시	94
0064	대사부임 - 부룬디	95
0065	대사부임 - 보츠와나	96
0066	대사부임 - 브루나이	97
0067	대사부임 - 에콰도르	98
0068	대사부임 - 피지	99
0069	대사부임 - 프랑스	100
0070	대사부임 - 과테말라	101
0071	대사부임 - 레바논	102
0072	대사부임 - 룩셈부르크	103
0073	대사부임 - 말리	104
0074	대사부임 - 말라위	105
0075	대사부임 - 멕시코	106
0076	대사부임 - 네팔	107
0077	대사부임 - 뉴질랜드	108
0078	대사부임 - 필리핀	109
0079	대사부임 - 파나마	110
0080	대사부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111
0081	대사부임 - 스웨덴	112
0082	대사부임 - 수단	113
0083	대사부임 - 미국	114
0084	대사부임 - 베트남	115
0085	대사부임 - 베네수엘라	116
0086	대사부임 - 잠비아	117
0087	영사위임장 발급	118
0088	장영수 주한 지부티 명예영사 접수	119
0089	명예영사 접수 - 아주지역	120
0090	명예영사 접수 - 구주지역	121
0091	명예영사 접수 - 미주지역	122
0092	명예영사 임명 - 구주지역	123
0093	명예영사 임명 - 중미지역	124
0094	무관접수 - 멕시코	125

0095	주한 외교단에 대한 면세문제 및 제도개선 검토	126
0096	각국의 외교관 면세제도 조사	127
0097	국제운전면허 및 교통 관련 법규	128
0098	중국 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 특권면제 문제	129
0099	외교관 차량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조사. 전2권 (V.1 2월)	130
0100	외교관 차량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조사. 전2권 (V.2 3-11월)	131
0101	주한공관 외교차량 번호판 개정	132
0102	외교센터 내 국제외교관하우스(IDH) 기능 연계추진 검토	133
0103	원각사 복원사업 추진	134
0104	광주 소재 미국문화원 이전 요구 민원 및 조치	135
0105	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 소유권 명의 이전	136
0106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인접지역 건물 신축 문제	137
0107	북방정책 관련 보고 및 자료. 전2권 (V.1 1991)	138
0108	북방정책 관련 보고 및 자료. 전2권 (V.2 1992-93)	139
0109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관련 대책 및 조치	140
0110	한국의 대팔레스타인(PLO) 정책	141
0111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142
0112	한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 방안	143
0113	독일의 대아시아·태평양지역 관계 강화	144
0114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 서울, 1993.8.17.	145
0115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 제5차. 제주, 1993.9.10.-11. 전2권 (V.1 기본문서)	147
0116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 제5차. 제주, 1993.9.10.-11. 전2권 (V.2 자료)	148
0117	한·미국·일본 3자 간 외교정책기획협의회. 시즈오카(일본), 1993.9.13.-14.	149
0118	몽골 정세	150
0119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계	151
0120	한·알제리 관계	152
0121	한·앙골라 관계	153
0122	한·호주 정무일반	154
0123	한·방글라데시 관계	155
0124	한·벨기에 정무	156
0125	한·바레인 관계	158
0126	한·불가리아 관계	159
0127	한·미얀마 관계	160
0128	한·브라질 정무일반	161
0129	한·보츠와나 관계	162
0130	한·베냉 관계	163
0131	한·칠레 정무일반	164
0132	한·콜롬비아 정무일반	165
0133	한·캐나다 정무일반	166
0134	한·중국 정무일반. 전2권 (V.1 1-3월)	167
0135	한·중국 정무일반. 전2권 (V.2 4-12월)	168
0136	한·크로아티아 관계	169
0137	한·CIS(독립국가연합) 관계	170
0138	한·체코 관계	171
0139	한·덴마크 정무일반	172
0140	한·에콰도르 정무일반	173
0141	한·엘살바도르 정무일반	174
0142	한·에티오피아 정무일반	175

0143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176
0144	한·핀란드 정무일반	177
0145	한·프랑스 정무일반. 전2권 (V.1 1-6월)	178
0146	한·프랑스 정무일반. 전2권 (V.2 7-12월)	179
0147	한·가봉 관계	180
0148	한·독일 정무일반	181
0149	한·가나 관계	182
0150	한·그리스 정무일반	183
0151	한·과테말라 정무일반	184
0152	한·헝가리 관계	185
0153	한·홍콩 정무일반	186
0154	한·온두라스 정무	187
0155	한·교황청 관계	188
0156	한·아이슬란드 정무일반	189
0157	한·인도 정무일반	190
0158	한·인도네시아 정무일반	191
0159	한·이란 정무일반	192
0160	한·이스라엘 관계	193
0161	한·이탈리아 정무	194
0162	한·자메이카 정무일반	195
0163	한·요르단 정무일반	197
0164	한·케냐 관계	198
0165	한·쿠웨이트 정무일반	199
0166	한·키르기스스탄 관계	200
0167	한·카자흐스탄 관계	202
0168	한·레바논 관계	203
0169	한·레소토 관계	204
0170	한·라이베리아 관계	205
0171	한·리투아니아 관계	206
0172	한·라오스 관계	207
0173	한·라트비아 정무일반	208
0174	한·리비아 정무일반	209
0175	한·말레이시아 정무일반	210
0176	한·몰도바 관계	211
0177	한·몽골 정무일반	212
0178	한·모로코 관계	213
0179	한·모리타니 관계	214
0180	한·모리셔스 관계	216
0181	한·몰디브 관계	217
0182	한·말라위 관계	218
0183	한·나미비아 관계	219
0184	한·네팔 관계	220
0185	한·노르웨이 관계	221
0186	한·네덜란드 관계	222
0187	한·오만 정무일반	223
0188	한·파키스탄 정무일반	224
0189	한·폴란드 정무일반	225
0190	한·파라과이 정무일반	226

0191	한·필리핀 정무	227
0192	한·파나마 정무일반	228
0193	한·포르투갈 관계	229
0194	한·페루 정무일반	230
0195	한·카타르 정무일반	231
0196	한·러시아 관계. 전2권 (V.1 1-6월)	232
0197	한·러시아 관계. 전2권 (V.2 7-12월)	233
0198	한·루마니아 정무	234
0199	한·사우디아라비아 정무일반	235
0200	한·스웨덴 관계	236
0201	한·싱가포르 정무	237
0202	한·스리랑카 정무일반	238
0203	한·슬로베니아 관계	239
0204	한·스위스 관계	240
0205	한·토고 관계	241
0206	한·상투메프린시페 관계	242
0207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관계	243
0208	한·터키 정무일반	245
0209	한·우간다 정무일반	246
0210	한·영국 관계	247
0211	Gregg, Donald 주한 미국대사 활동 동향	248
0212	한·미국 정무일반	249
0213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251
0214	한·베트남 정무일반	252
0215	한·베네수엘라 정무일반	253
0216	한·신유고연방 관계	254
0217	한·예멘 관계	255
0218	한·잠비아 관계	256
0219	국교수립 - 에리트리아, 1993.5.24.	257
0220	국교수립 - 리히텐슈타인, 1993.3.2.	258
0221	국교수립 - 모잠비크, 1993.8.11. 전3권 (V.1 1974-87)	259
0222	국교수립 - 모잠비크, 1993.8.11. 전3권 (V.2 1988-92)	260
0223	국교수립 - 모잠비크, 1993.8.11. 전3권 (V.3 1993)	262
0224	한·시리아 관계개선	263
0225	재외공관 설치 - 상하이(중국)총영사관	264
0226	재외공관 설치 검토 - 온두라스	265
0227	재외공관 설치 - 이스라엘	266
0228	재외공관 폐쇄 - 모리타니, 1992.12.31.	267
0229	재외공관 폐쇄 - Barcelona(스페인)총영사관, 1993.6.30.	268
0230	재외공관 폐쇄 - 주수리남대사관, 1993.6.30.	269
0231	재외공관 폐쇄 - 스와질랜드, 1993.9.30.	270
0232	주한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상주공관 설치 검토	271
0233	재외공관 설치 - 우크라이나, 1992.12.1.	272
0234	재외공관 설치 - 우즈베키스탄, 1993.12.21.	273
0235	주한공관 설치 - 에티오피아, 1992.6.29.	274
0236	주한 자메이카대사관 상주공관 설치 검토	275
0237	주한공관 설치 - 러시아총영사관(부산), 1992.11.10.	276
0238	ASEAN(동남아국가연합)·대화상대국 관계	277

0239	ASPAC(아시아태평양아시아회) 사회문화센터 장래문제 검토	278
0240	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관계 회의	279
0241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Singapore, 1993.7.26.-28. 전3권 (V.1 사전준비)	280
0242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Singapore, 1993.7.26.-28. 전3권 (V.2 회의결과)	281
0243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Singapore, 1993.7.26.-28. 전3권 (V.3 자료)	283
0244	ECO(중아시아 회교권 국가 간의 경제협력기구)	284
0245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제7차. Dacca(방글라데시), 1993.4.10.-11.	285
0246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33차. Noumea(뉴칼레도니아), 1993.10.25.-27.	286
0247	SPF(남태평양포럼) 정상회담, 제24차. 나우루, 1993.8.10.-11.	287
0248	Singh, Ajit ASEAN(동남아국가연합) 사무총장 방한, 1993.11.12.-14.	288
0249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기술센터(ASPAC/FFTC)	289
0250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아세안 산업투자 수요조사	290
0251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291
0252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무역사절단 교환사업	292
0253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아세안 공무원과정	293
0254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아세안 관광전시회	294
0255	ASEAN(동남아국가연합)·유엔 간 평화 및 예방외교 워크숍	295
0256	한·ASEAN 공동기금 관리위원회(JMC) 개최, 제6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3.12.2.	296
0257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V.1 기본문서)	297
0258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V.2 참가자료)	298
0259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V.3 아세안 측 의제 초안)	299
0260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V.4 우리 측 의제 검토)	300
0261	리오 그룹 동향	301
0262	OAS(미주기구) 총회, 제23차. Managua(니카라과), 1993.6.6.-12.	302
0263	OAS(미주기구) 학자교류사업	303
0264	OAS(미주기구) 교육상 및 과학상 심사위원 위촉	304
0265	Council of Europe(구주이사회)	305
0266	EC(구주공동체) 동향. 전2권 (V.1 1-6월)	306
0267	EC(구주공동체) 동향. 전2권 (V.2 7-12월)	308
0268	EU(유럽연합) 출범. 전4권 (V.1 1990-91)	310
0269	EU(유럽연합) 출범. 전4권 (V.2 1992.1-8월)	311
0270	EU(유럽연합) 출범. 전4권 (V.3 1992.9-12월)	312
0271	EU(유럽연합) 출범. 전4권 (V.4 1993)	313
0272	NORDIC(북구협력기구) 회의	314
0273	EU(유럽연합) 정상회담	315
0274	GCC(걸프협력회의)	316
0275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의	317
0276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및 동향	318
0277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EAC) 및 안보문제 상설자문회의	320
0278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사업. 전2권 (V.1 1989-91)	321
0279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사업. 전2권 (V.2 1992-93)	322
0280	한·일본 역사교과서 공동연구회	323
028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1 1992.1월-10.10.)	324
028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2 1992.10.11.-11.19.)	325
028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3 1992.11.20.-12.13.)	326
028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4 1992.12.14.-31.)	327

028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5 1993.1-2월)	328
028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6 1993.3월-5.19.)	329
028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7 1993.5.20.-12월)	330
028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8 대러시아 배상청구 문제 I) ..	331
028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9 대러시아 배상청구 문제 II) ..	332
029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10 ICAO 이사회(제139차) 문서(조사보고서))	333
029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1983년) 재조사. 전12권 (V.11 참고자료 I)	334
029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1983년) 재조사. 전12권 (V.12 참고자료 II)	335
0293	월남전 실종자 관련	336
0294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후유증 대책	337
0295	대미국 주요인사 친서	338
0296	한·미국 간 대통령 서한 교환	339
0297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Seattle, 1993.11.19.	340
0298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중국 정상회담. Seattle, 1993.11.19.	341
0299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추진	342
0300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계기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Bangkok, 1993.4.21.	343
0301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서명식 참석 계기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Paris, 1993.1.13.	344
0302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서명식 참석 계기 한·독일 외무장관회담. Paris, 1993.1.13.	345
0303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서명식 참석 계기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 Paris, 1993.1.13.	346
0304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5.17. 전2권 (V.1 기본문서)	347
0305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5.17. 전2권 (V.2 자료)	348
0306	한·캐나다 고위정책협의회, 제7차. Ottawa, 1993.6.24.	349
0307	한·중국 정책기획협의회, 제1차. 서울, 1993.12.2.	350
0308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3.15.	351
0309	한·인도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93.6.28.	352
0310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제1차. Jerusalem(이스라엘), 1993.11.11.	353
0311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93.10.8.	354
0312	한·폴란드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93.12.1.	355
0313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 기본계획)	356
0314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2 행사준비 및 연회)	357
0315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3 공관장 건의사항)	358
0316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4 그룹별회의)	359
0317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5 자료 - 아주지역 I)	360
0318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6 자료 - 아주지역 II)	361
0319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7 자료 - 미주지역 I)	362
0320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8 자료 - 미주지역 II)	363
0321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9 자료 - 구주지역 I)	364
0322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0 자료 - 구주지역 II)	365
0323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1 자료 - 중동·아프리카지역 I)	366
0324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2 자료 - 중동·아프리카지역 II)	367
0325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3 말씀자료)	368
0326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4 결과보고 I)	369
0327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5 결과보고 II)	370
0328	총영사회의, 1993년도 - 캐나다. Ottawa, 1993.5.13.-14.	371
0329	공관장회의, 1993년도 - EC(구주공동체) 지역. Paris, 1993.10.8.-9.	372
0330	공관장회의, 1993년도 - 일본. 동경, 1993.6.11.	373
0331	미국지역 명예영사회의	374

0332	총영사회의, 1993년도 - 미국. Washington D.C., 1993.5.14.-15.	375
0333	공관장회의, 1993년도 - 중동지역. Tunis(튀니지), 1993.11.8.-9. 전2권 (V.1 기본문서)	376
0334	공관장회의, 1993년도 - 중동지역. Tunis(튀니지), 1993.11.8.-9. 전2권 (V.2 자료)	377
0335	한·일본 간 러시아 전문가 회의. 서울, 1993.3.5.	378
0336	한·일본 조약국장 회의, 제1-3차. 전3권 (V.1 제1차. 서울, 1987.10.23.-24.)	379
0337	한·일본 조약국장 회의, 제1-3차. 전3권 (V.2 제2차. 동경, 1992.7.23.-24.)	380
0338	한·오만 Working Group 회의, 제2차. 서울, 1993.4.29.	381
0339	북미지역 한반도 관련 학술회의	382
0340	제2차 한·미 양자관계 세미나, Washington D.C., 1993.4.15.-17.	383
0341	한·중국 학술회의, 제2차. 북경, 1993.6.18.-19.	384
0342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 제7-8차	385
0343	한·일본 포럼, 제1차. 서울, 1993.12.6.-7.	386
0344	한·영국 미래 포럼, 제1차. 서울, 1993.4.23.-25.	387
0345	한·미국 Wisemen Council	388
0346	한·미국 안보 학술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93.4.29.-5.1.	389
0347	전직 외무장관 회의. St. Petersburg(러시아), 1993.5.26.-28.	390
0348	한·일본 협력위원회. 전2권 (V.1 합동회의 및 심포지움. 나가사키현, 6.1.-2.)	391
0349	한·일본 협력위원회. 전2권 (V.2 합동위원회, 제31차. 나가노, 8.24.-27.)	392
0350	1993년도 외빈방한 접수계획	393
0351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 일정 및 사전준비)	394
0352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2 정상회담)	395
0353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3 해리만 민주주의상(Harriman Democracy Award) 수상)	396
0354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4 아메리칸(American)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397
0355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5 라성(L.A.) 방문)	398
0356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6 앵커리지(Anchorage) 방문)	399
0357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7 각료회의 및 별도 외무장관회담)	400
0358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8 영부인 행사)	401
0359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9 자료 I: 정상회담 자료)	402
0360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0 자료 II: 계기별 대화자료)	403
0361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1 연설문)	404
0362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2 결과보고(종합))	405
0363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3 홍보)	407
0364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4 후속조치)	408
0365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1 사전준비)	409

0366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2 일정)	410
0367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3 수행원 및 선발대)	411
0368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4 숙소)	412
0369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5 경호)	413
0370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6 행정 및 인력지원)	414
0371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7 의전용품 및 선물)	415
0372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8 특별기)	416
0373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9 의전행사)	417
0374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10 환영행사)	418
0375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11 예산)	419
0376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12 자료)	420
0377	미국 내 기관의 김영삼 대통령 방문 초청	421
0378	Philippe 벨기에 왕자 방한, 1993.10.31.-11.7.	422
0379	Monge Alvarez, Luis A.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93.1.11.-17.	423
0380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424
0381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1 사전준비 I: 1992-93.7월)	425
0382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2 사전준비 II: 1993.8-9월)	426
0383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3 의전 I: 일정)	427
0384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4 의전 II: 대외협조)	428
0385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5 의전 III: 연회, 수행원)	429
0386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6 결과보고 및 언론본도)	430
0387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7 자료 I: 말씀자료)	431
0388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8 자료 II: 타부처 자료)	432
0389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9 자료 III: 부내 자료)	433
0390	Goncz, Arpad 헝가리 대통령 방한, 1993.11.3.-6.	434
0391	Henri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방한, 1993.4.22.-24.	435
0392	Bolger, James B.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93.5.9.-12. 전4권 (V.1 기본문서)	436
0393	Bolger, James B.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93.5.9.-12. 전4권 (V.2 의전 I)	437
0394	Bolger, James B.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93.5.9.-12. 전4권 (V.3 의전 II)	438
0395	Bolger, James B.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93.5.9.-12. 전4권 (V.4 자료)	439
0396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1 기본계획)	440
0397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2 의전 I)	441
0398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3 의전 II)	442
0399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4 결과)	443
0400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5 준비자료)	444
0401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6 계기별 말씀자료)	445
0402	Soares, Mario 포르투갈 대통령 방한, 1993.10.15.-18. 전2권 (V.1 기본문서)	446
0403	Soares, Mario 포르투갈 대통령 방한, 1993.10.15.-18. 전2권 (V.2 자료)	447
0404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1 사전준비)	448
0405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2 결과)	449
0406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3 의전 I)	450
0407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4 의전 II)	451
0408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5 의전 II)	452
0409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6 참고자료)	453
0410	Carter, Jimmy 전 미국 대통령 남·북한 방문계획	454
0411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1 사전준비)	455
0412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2 정상회담 준비(통상관계))	456
0413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3 계기별 말씀자료)	457

0414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4 결과보고)	458
0415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5 별도 외무장관회담)	460
0416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6 언론 홍보)	461
0417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의전], 1993.7.10.-11. 전4권 (V.1 영접준비)	463
0418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의전], 1993.7.10.-11. 전4권 (V.2 선발대/만찬)	464
0419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의전], 1993.7.10.-11. 전4권 (V.3 항공기/출입국)	465
0420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의전], 1993.7.10.-11. 전4권 (V.4 경호/차량)	466
0421	Nixon, Richard 전 미국 대통령 방한, 1993.4.7.-8.	467
0422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1 기본계획)	468
0423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2 자료 I(의제 및 참고자료))	469
0424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3 자료 II(각종 말씀자료))	470
0425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6 만찬)	471
0426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7 결과)	472
0427	Laar, Mart 에스토니아 총리 방한, 1993.9.22.-26.	473
0428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1 사전준비 I: 1985-92.9월)	474
0429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2 사전준비 II: 1992.10-93.2월)	475
0430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3 의전 I: 일정)	476
0431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4 의전 II: 영접준비)	477
0432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5 의전 III: 대외협조)	478
0433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6 의전 IV: 연회)	479
0434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7 결과보고)	480
0435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8 언론보도 및 순방보도)	481
0436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9 정상회담 자료, 1992)	482
0437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10 정상회담 자료, 1993)	483
0438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11 정상회담 자료(타부처, 1992-93)	484
0439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12 연설문 및 기타자료)	485
0440	Schmidt, Helmut 전 독일 수상 방한, 1993.5.18.-24.	486
0441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1 사전준비 I(1992-93.7월))	487
0442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2 사전준비 II(1993.8-9월))	488
0443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3 결과 및 후속조치)	489
0444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4 자료 I)	490
0445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5 자료 II)	491
0446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6 의전 I(선발대))	492
0447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7 의전 II(만찬))	493
0448	Chinghishev, Tursunbek C. 키르기스스탄 총리 방한, 1993.8.18.-23.	494
0449	Slezevicius, Adolfas 리투아니아 총리 방한, 1993.9.22.-25.	495
0450	Birkavs, Valdis 라트비아 총리 방한 추진	496
0451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 비공식 방한, 1993.5.23.-25.	497
0452	Prevdorj, Chojjilsrengiin 몽골 부수상 방한, 1993.9.16.-19.	498
0453	Wingti 파푸아뉴기니 수상 방한 추진	499
0454	Shokhin, Alexandr 러시아 부총리 방한, 1993.8.22.-25.	500
0455	Bildt, Carl 스웨덴 수상 방한, 1993.4.6.-8. 전3권 (V.1 기본문서)	501
0456	Bildt, Carl 스웨덴 수상 방한, 1993.4.6.-8. 전3권 (V.2 의전)	502
0457	Bildt, Carl 스웨덴 수상 방한, 1993.4.6.-8. 전3권 (V.3 자료)	503
0458	Goh Chok Tong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93.11.8.-10. 전2권 (V.1 기본문서)	504
0459	Goh Chok Tong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93.11.8.-10. 전2권 (V.2 자료)	505
0460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방한, 1993.5.13.-16. 전3권 (V.1 기본문서)	506
0461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방한, 1993.5.13.-16. 전3권 (V.2 자료)	507

0462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방한, 1993.5.13.-16. 전3권 (V.3 기업체 방문)	508
0463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 방문, 1993.10.27.-31. 전3권 (V.1 사전교섭 및 일정)	509
0464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 방문, 1993.10.27.-31. 전3권 (V.2 활동내용 및 결과)	510
0465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 방문, 1993.10.27.-31. 전3권 (V.3 자료)	511
0466	홍순영 외무차관 중국 방문, 1993.8.20.-25.	512
0467	한승주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93.9.23.-25.	513
0468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93.3.23.-4.2. 전4권 (V.1 사전준비(미국))	514
0469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93.3.23.-4.2. 전4권 (V.2 사전준비(일본))	515
0470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93.3.23.-4.2. 전4권 (V.3 결과)	516
0471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93.3.23.-4.2. 전4권 (V.4 자료)	517
0472	홍순영 외무차관 아프리카 순방, 1993.11.28.-12.9. 전2권 (V.1 기본문서)	518
0473	홍순영 외무차관 아프리카 순방, 1993.11.28.-12.9. 전2권 (V.2 자료)	519
0474	한승주 외무장관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및 동남아 순방, 1993.4.16.-23. 전2권 (V.1 사전준비)	520
0475	한승주 외무장관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및 동남아 순방, 1993.4.16.-23. 전2권 (V.2 결과)	521
0476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1 기본문서)	522
0477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2 러시아/폴란드)	523
0478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3 프랑스/오스트리아/영국)	524
0479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4 자료 I)	525
0480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5 자료 II)	526
0481	Benjamin BOUNKOULOU 콩고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1993.10.11.-13. 전2권 (V.1 기본문서)	527
0482	Benjamin BOUNKOULOU 콩고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1993.10.11.-13. 전2권 (V.2 자료)	528
0483	전기침(錢其琛)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1993.5.26.-29. 전3권 (V.1 기본문서)	529
0484	전기침(錢其琛)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1993.5.26.-29. 전3권 (V.2 의전)	530
0485	Zieleniec, Josef 체코 외무장관 방한, 1993.6.25.-27.	531
0486	Paredes Pena, Diego 에콰도르 외무장관 방한, 1993.9.2.-4.	532
0487	Kinkel, Klaus 독일 외무장관 방한, 1993.7.5.-6. 전2권 (V.1 사전준비)	533
0488	Kinkel, Klaus 독일 외무장관 방한, 1993.7.5.-6.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534
0489	Cohen-Orantes, Salomon 과테말라 외무차관 방한, 1993.11.29.-12.3.	535
0490	Carias Zapata, Mario 온두라스 외무장관 비공식 방한, 1993.3.18.-21.	536
0491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 방한, 1993.10.6.-9. 전2권 (V.1 기본문서)	537
0492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 방한, 1993.10.6.-9. 전2권 (V.2 의전 및 자료)	538
0493	Robertson, Paul 자메이카 외무장관 비공식 방한, 1993.10.27.-31.	539
0494	Holst, Johan J.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1993.10.30.-11.2. 전4권 (V.1 기본문서)	540
0495	Holst, Johan J.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1993.10.30.-11.2. 전4권 (V.2 의전 및 만찬)	541
0496	Holst, Johan J.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1993.10.30.-11.2. 전4권 (V.3 참고자료)	542
0497	Holst, Johan J.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1993.10.30.-11.2. 전4권 (V.4 회담 및 말씀자료)	543
0498	Ene, Constantin 루마니아 외무차관 방한, 1993.4.26.-29.	544
0499	Af Ugglas, Margaretha 스웨덴 외무장관 방한, 1993.3.12.-13.	545
0500	Nilsson, Lars-Ake 스웨덴 외무차관 방한, 1993.2.2.-4.	546
0501	Moravcik, Jozef 슬로바키아 외무장관 방한, 1993.8.4.-7.	547
0502	Omer Yousif BARIDO 수단 외무차관 방한, 1993.9.26.-29.	548
0503	Hurd, Douglas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93.4.7.-9. 전2권 (V.1 기본문서)	549
0504	Hurd, Douglas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93.4.7.-9. 전2권 (V.2 자료)	550
0505	Tarnoff, Peter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93.4.21.-23.	551
0506	Young, Herbert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외무장관 방한, 1993.10.27.-30.	552
0507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 방한, 1993.2.1.-5. 전2권 (V.1 사전준비)	553

0508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 방한, 1993.2.1.-5. 전2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554
0509	Ochoa Antich, Fernando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방한, 1993.10.7.-9.	555
0510	이상욱 대통령 특사 Sanchez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3.8.6.	556
0511	Schmidbauer, Bernd 독일 수상 특사(수상실 국무장관) 방한, 1993.12.6.-8.	557
0512	Ahmed Abdullah AL-RUBEI 쿠웨이트 국왕 특사(교육 및 고등교육부장관) 방한, 1993.3.7.-9.	558
0513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 해외 활동	559
0514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의원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방문, 1993.5.30.-6.6.	560
0515	국회 3당 원내총무단 과테말라 방문, 1993.1.14.-16.	561
0516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의원단 멕시코 방문, 1993.1.22.-26.	562
0517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국회사절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3.1.14.-20.	563
05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 미국 방문, 1993.1.7.-20.	564
0519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93.1.19.-22.	565
0520	이기택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구주 4개국 순방, 1993.6.16.-27.	566
0521	박준규 국회의장 증남미 순방계획	567
0522	오스트리아 국회의원 방한	568
0523	Lucena, Humberto Coutinho 브라질 상원의장 방한	569
0524	왕광영(王光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93.9.5.-12.	571
0525	전기운(田紀雲)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93.6.6.-12.	572
0526	Monory, Rene 프랑스 상원의장 방한, 1993.8.28.-9.1.	573
0527	Mohammad Javad Larijani, 이란 의회 외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93.10.25.-30.	574
0528	카지야마 세이로쿠(梶山 静六)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방한, 1993.4.19.-21.	575
0529	Ahmed Abdulaziz Al-Sadoon 쿠웨이트 국회의장 방한, 1993.9.22.-24.	576
0530	Marut Bunnag 태국 국회의장 방한, 1993.3.8.-13.	577
0531	Stanley, John P. 영국·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1993.11.9.-15.	578
0532	Ackerman, Gary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 소위원장 남·북한 방문, 1993.10.9.-13.	579
0533	Glickman, Dan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 방한, 1993.8.13.-16.	580
0534	Robb, Charles 미국 상원의원 방한, 1993.4.7.-8.	581
0535	Young, Jackie 미국 Hawaii주 하원 부의장 방한, 1993.10.7.-15.	582
0536	미국 의회 보좌관 방한	583
0537	미국 의회 의원 방한	584
0538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585
0539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586
0540	한·중국 의원친선협회	587
0541	한·도미니카공화국 의원친선협회	588
0542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21차. 서울, 1993.9.1.-3.	589
0543	한·일본 의원연맹. 전2권 (V.1 1-5월)	590
0544	한·일본 의원연맹. 전2권 (V.2 6-12월)	591
0545	한·수단 의원친선협회 결성 문제	592
0546	한·구주의회 의원친선협회	593
0547	아시아·태평양 의원포럼(APPF) 창립총회. 동경, 1993.1.13.-15.	594
0548	김갑현 정무 제2장관 중국 방문, 1992.12.3.-8.	595
0549	송정숙 보건사회부장관 헝가리 방문, 1993.4.28.-5.1.	596
0550	한·일본 주요인사 교류	597
0551	러시아 총선 참관단 파견, 1993.12.9.-13.	598
0552	정종욱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미국 방문, 1993.6.18.-23.	599
0553	Madame Khin Win Shwe 미얀마 모성 아동복지협회 공동서기 방한, 1993.6.20.-7.8.	600
0554	Lamer, Antonio 캐나다 대법원장 방한, 1993.9.9.-15.	601
0555	서광적 중국 상해시 상무부시장 방한, 1993.7.15.-22.	602

0556	주목지(朱穆之) 중국·한 우호협회 회장 방한, 1993.9.12.-22.	603
0557	중국 등박방(鄧撲方) 및 등용(鄧榕) 방한	604
0558	중국 주요인사 방한	605
0559	Erwin Teufel 독일 Baden-Württemberg주 수상 방한, 1993.9.26.-28.	606
0560	Sheikh Salem AL-SABAH 쿠웨이트 전쟁포로위원회 의장 방한, 1993.10.16.-21.	607
0561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나미비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1993.2.12.-22.	608
0562	Mikitayev, Abdukhal Kasbulatovich 러시아 공민권 위원장 방한, 1993.10.18.-24.	609
0563	Solovyov, Nikolay Nikolayevich 러시아 외무부 아·태총국장 방한, 1993.11.27.-12.5.	610
0564	스웨덴 주요인사 방한	611
0565	CHULABHORN Didyasarin Mahidol 태국 공주 방한, 1993.3.30.-4.3.	612
0566	SURIN Pitsuwan 태국 외무부 부장관 방한, 1993.10.7.-9.	613
0567	터키 주요인사 방한	614
0568	우간다 주요인사 방한	615
0569	Abramowitz, Morton I. 미국 카네기재단 회장 방한	616
0570	Branstad, Terry E. 미국 Iowa 주지사 방한, 1993.10.6.-9.	617
0571	Ferraro, John 미국 Los Angeles 시의회 의장 방한, 1993.11.27.-12.1.	618
0572	Gregg, Donald 전 주한 미국대사(Korea Society 회장) 방한, 1993.5.14.-19.	619
0573	Hickel, Walter J. 미국 Alaska 주지사 방한, 1993.5.19.-22.	620
0574	Manatt, Charles T. 미국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방한, 1993.3.24.-27.	621
0575	Solarz, Stephen 전 미국 하원의원 방한	622
0576	Watts, William 미국 Potomac Associates 대표 방한, 1993.5.16.-20.	623
0577	Wilder, Lawrence Douglas 미국 Virginia 주지사 방한, 1993.10.13.-15.	624
0578	미국 국무부 주요인사 방한	625
0579	베트남 주요인사 방한	626
0580	Al-Arashi 예멘 내각담당 국무장관 방한, 1992.12.23.-28.	627
0581	잠비아 주요인사 방한	628
0582	강근택 주피지대사 Ganilau, Penaia Kanatabatu 피지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93.12.24.-29.	629
0583	안응모 특사(전 내무장관) Rawlings 가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3.1.4.-12.	630
0584	김덕룡 특사(정무 제1장관) Wasmosy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3.8.11.-24.	631
0585	최상덕 특사(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스와질랜드 독립 25주년 기념식 참석, 1993.9.4.-8.	632
0586	Ackerman, Gary L.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김영삼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1993.2.24.-28.	633
0587	강영훈 특사(대한적십자사 총재) Baudouin 벨기에 국왕 장례식 참석, 1993.8.5.-10.	634
0588	김명윤 민자당 총재 상임고문 Ozal, Turgut 터키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93.4.21.	635
0589	북한·CIS(독립국가연합) 관계	636
0590	북한·방글라데시 관계	637
0591	북한·불가리아 관계	638
0592	북한·브라질 관계	639
0593	북한·카메룬 관계	640
0594	북한·캐나다 관계	641
0595	북한·체코 관계	643
0596	북한·에과도르 관계	644
0597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645
0598	북한·EU(유럽연합) 관계	646
0599	북한·독일 관계	647
0600	북한 선박에 대한 온두라스 임시국적증명서 발급문제	648
0601	북한·인도 관계	649
0602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650

0603	북한·이란 관계	651
0604	북한·이스라엘 관계. 전2권 (V.1 1992-93.6.20.)	652
0605	북한·이스라엘 관계. 전2권 (V.2 1993.6.21.-8월)	653
0606	북한·말레이시아 관계	654
0607	북한·네팔 관계	655
0608	북한·노르웨이 관계	656
0609	북한·네덜란드 관계	657
0610	북한·파키스탄 관계	658
0611	북한·포르투갈 관계	659
0612	북한·카타르 관계	660
0613	북한·러시아 관계. 전3권 (V.1 1-4월)	661
0614	북한·러시아 관계. 전3권 (V.2 5-8월)	662
0615	북한·러시아 관계. 전3권 (V.3 9-12월)	663
0616	북한의 대러시아 50마일 군사수역 침범 항의	664
0617	북한·스웨덴 관계	665
0618	북한·스리랑카 관계	666
0619	북한·스페인 관계	667
0620	북한·스위스 관계	668
0621	북한·태국 관계	669
0622	북한·터키 관계	671
0623	북한·영국 관계	672
0624	미국 국무부의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673
0625	미국·북한 관계. 전3권 (V.1 1-3월)	674
0626	미국·북한 관계. 전3권 (V.2 4-7월)	675
0627	미국·북한 관계. 전3권 (V.3 8-12월)	676
0628	북한의 미국제 쾌속정 구입 문제	677
0629	북한·베네수엘라 관계	678
0630	북한·아프리카지역 국가 관계	679
0631	북한·아주 관계	680
0632	북한·중동 관계	681
0633	북한·구주 관계	682
0634	북한·중미 관계	683
0635	북한·남미 관계	684
0636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아주, 중동, 구주 순방	685
0637	이종욱 북한 부주석 서남아 및 아프리카 순방	686
0638	북한 노동당 대표단 남미 및 구주 순방	688
0639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 관련 동향	689
0640	북한 재외공관 및 공관원 동향	690
0641	북한 휴전기념일 40주년 행사 관련 동향	691
0642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의 밀입북 시도	692
0643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동향	693
0644	북한 인권 동향	694
0645	1992년도 북한 대외교역 현황	695
0646	김정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준 전사상태 선포	696
0647	북한 경제 동향	697
0648	북한 동향. 전3권 (V.1 1-7월)	698
0649	북한 동향. 전3권 (V.2 8-12월)	699
0650	북한 동향. 전3권 (V.3 일일 보고)	700

0651	북한 최고 인민회의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동향	701
065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 통일 관련 회의	702
0653	북한 관련 관계부처 간 회의	703
0654	통일관계 장관회의	704
0655	통일외교 추진 대책	705
0656	남북 평화통일 심포지움, 제2차. San Francisco(미국), 1993.4.16.-17.	706
0657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움, 제9회. 동경, 1993.11.9.	707
0658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미국·일본 국제심포지움. 동경, 1993.5.21.-22.	708
0659	통일 대비 정책연수단 독일 방문, 1993.6.20.-7.3.	709
0660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1 1-4월)	710
0661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2 5월)	711
0662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3 6.1.-13.)	712
0663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4 6.14.-29.)	713
0664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5 7월)	714
0665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6 8월)	715
0666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7 9.1.-10.)	716
0667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8 9.11.-10.4.)	717
0668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9 10.5.-14.)	718
0669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실천계획	719
0670	남북교류 협력	720
067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721
0672	남북한 기상협력사업 추진	722
0673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723
0674	한반도 군비통제 학술협의회. 서울, 1993.4.7.-9.	724
0675	핵사찰 관련 의정서 및 자료	725
0676	북한 미사일 문제. 전2권 (V.1 1-7월)	726
0677	북한 미사일 문제. 전2권 (V.2 8-12월)	727
0678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 1월)	728
0679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 2월)	729
0680	북한 핵 문제. 전30권 (V.3 3.1.-11.)	730
0681	북한 핵 문제. 전30권 (V.4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 3.12.-16.)	731
0682	북한 핵 문제. 전30권 (V.5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 3.17.-22.)	732
0683	북한 핵 문제. 전30권 (V.6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I, 3.23.-31.)	733
0684	북한 핵 문제. 전30권 (V.7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V, 4.1.-13.)	734
0685	북한 핵 문제. 전30권 (V.8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 4.14.-30.)	735
0686	북한 핵 문제. 전30권 (V.9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 5.1.-15.)	736
0687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0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I, 5.17.-31.)	737
0688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1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II, 6.1.-7.)	738
0689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2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X, 6.8.-18.)	739
0690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3 6.19.-30.)	740
0691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4 7.1.-13.)	741
0692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5 7.14.-20.)	742
0693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6 7.21.-31.)	743
0694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7 8월)	744
0695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8 한·미국·일본 3자 협의, 8.11.-12.)	746
0696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9 9.1.-15.)	747
0697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0 Gallucci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9.9.-13.)	748
0698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2 10.1.-8.)	749

0699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4 11.1.-10.)	750
0700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5 11.11.-18.)	751
0701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6 11.19.-30.)	753
0702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7 12.1.-5.)	754
0703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8 12.6.-10.)	755
0704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9 12.11.-21.)	756
0705	북한 핵 문제. 전30권 (V.30 12.22.-31.)	757
0706	북한 핵 문제: 북한 동향 및 자료. 전3권 (V.1 북한 공관 동향)	758
0707	북한 핵 문제: 북한 동향 및 자료. 전3권 (V.2 북한 관련 자료, 3-4월)	759
0708	북한 핵 문제: 북한 동향 및 자료. 전3권 (V.3 북한 관련 자료, 5-11월)	760
0709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1 일일보고, 3.13.-25.)	761
0710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2 일지)	762
0711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3 자료 I, 2월-3.19.)	763
0712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4 자료 II, 3.20.-31.)	764
0713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5 자료 III, 4.1.-9.)	765
0714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6 자료 IV, 4.16.-30.)	766
0715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7 자료 V, 5월)	767
0716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8 자료 VI, 6-11월)	768
0717	북한 핵 문제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769
0718	북한 핵 문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 전2권 (V.1 3-4월)	770
0719	북한 핵 문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 전2권 (V.2 5-12월)	771
0720	북한의 대시리아 미사일 수출문제	772
0721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 1월-3.11.)	773
0722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2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 3.12.-31.)	775
0723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3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 4.1.-9.)	776
0724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4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I, 4.11.-30.)	777
0725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5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V, 5.1.-10.)	778
0726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6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 5.11.-30.)	779
0727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7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 6월)	780
0728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8 7-9월)	781
0729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9 10.2.-27.)	782
0730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0 10.28.-11.2.)	783
0731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1 11.3.-12월)	784
0732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3 안보리 회의 및 총회 관련 지지 교섭, 4.12.-6월)	785
0733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4 안보리 회의 및 총회 관련 지지 교섭, 9월)	786
0734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5 안보리 회의 및 총회 관련 지지 교섭, 10-12월)	787
0735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6 주제네바대표부(CD 등) 교섭활동)	788
0736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 1월)	790
0737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2 2월)	791
0738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4 2월 이사회 I: 기본문서)	792
0739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7 북한의 NPT 탈퇴 I, 3.12.-17.)	793
0740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8 북한의 NPT 탈퇴 II: 특별이사회)	794
0741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9 북한의 NPT 탈퇴 III: 3.18.-30.)	795
0742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0 북한의 NPT 탈퇴 IV: 특별이사회 1)	796
0743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2 북한의 NPT 탈퇴 VI, 4월)	797
0744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5 8월)	798
0745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7 10월)	799
0746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20 자료)	800

0747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JNCC) 재개 추진	801
0748	남북한 군축, 군비통제 대책자료	802
0749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1 북한의 NPT 탈퇴 관련 각국 성명, 논평)	803
0750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2 아주지역 1)	804
0751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3 아주지역 2)	805
0752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4 미주지역)	806
0753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5 구주지역 1)	807
0754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6 구주지역 2)	808
0755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7 중동·아프리카지역)	809
0756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8 기타)	810
0757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1 2월-3.15.)	811
0758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2 3.16.-20.)	812
0759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3 3.21.-31.)	813
0760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4 4-5월)	814
0761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5 6-9월)	815
0762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6 10-12월)	816
0763	북한 핵 문제: 우방국 협조 및 동향. 전11권 (V.8 기타 우방국 1: 영국)	817
0764	북한 핵 문제: 우방국 협조 및 동향. 전11권 (V.9 기타 우방국 2: 독일)	818
0765	북한 핵 문제: 우방국 협조 및 동향. 전11권 (V.10 기타 우방국 3: 프랑스 및 EC)	819
0766	북한 핵 문제: 우방국 협조 및 동향. 전11권 (V.11 기타 우방국 4: 호주 및 캐나다)	820
0767	북한 핵 문제: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1 1-4월)	821
0768	북한 핵 문제: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2 5-7월)	822
0769	북한 핵 문제: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3 9-12월)	823
0770	러시아 내 북한 별목장 탈출 노동자 문제	824
0771	남북관계 및 북한관계 자료	825
0772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3.6.1.	826
0773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제4차. 평양, 1993.6.15.-18. 전2권 (V.1 2월-6.14.)	827
0774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제4차. 평양, 1993.6.15.-18. 전2권 (V.2 6.15.-8월)	828
0775	비동맹 상임 각료위원회, 제2차. Bali(인도네시아), 1993.5.10.-13.	829
0776	한·미국 안보협력	830
0777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831
0778	미국의 국방정책	832
0779	미국의 신 군사전략	833
0780	미국의 전쟁 수행 권한 논의	834
0781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의, 제25차. 서울, 1993.11.3.-4. 전3권 (V.2 공동성명서 문안교섭)	835
0782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의, 제25차. 서울, 1993.11.3.-4. 전3권 (V.3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836
0783	한·미국 정책검토위원회(PRS) 회의, 제16차. Honolulu, 1993.8.2.-5.	837
0784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	838
0785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전4권 (V.1 1992.6월-11.13.)	839
0786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전4권 (V.2 1992.11.14.-12월)	840
0787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전4권 (V.3 1993.1-4월)	841
0788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전4권 (V.4 참관단 초청)	842
0789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843
0790	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SOP) 검토. 전4권 (V.2 1992.11-12월)	844
0791	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SOP) 검토. 전4권 (V.4 자료)	845
0792	용산가족공원 부지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부지 사용문제	846
0793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향	847
0794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848

0795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3.5.20.-21. 전4권 (V.1 개최구상 및 준비 I(1-3월))	849
0796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3.5.20.-21. 전4권 (V.2 개최구상 및 준비 II(4-5월))	850
0797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3.5.20.-21. 전4권 (V.3 회의개최 및 결과)	851
0798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3.5.20.-21. 전4권 (V.4 자료)	852
0799	동북아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전2권 (V.1 1992)	853
0800	동북아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전2권 (V.2 1993)	854
0801	동북아협력대화(NEACD), 제1차. San Diego(미국), 1993.10.8.-9.	855
0802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전2권 (V.1 2-4월)	856
0803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전2권 (V.2 5-10월)	857
0804	제7차 아시아·태평양 Roundtable 및 비공식 정부 간 안보대화.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3.6.7.-10.	858
0805	OPANAL(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금지기구) 회의 동향	859
0806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860
0807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861
0808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 이전 문제	862
0809	미국·일본 SOFA(주둔군지위협정) 운영실태 파악	863
0810	한국전 휴전 40주년 기념사업	865
081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전3권 (V.1 1992)	866
0812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전3권 (V.2 1993.1-2월)	867
0813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전3권 (V.3 1993.3-12월)	868
0814	UNC(유엔군사령부) 연례보고서	869
0815	UNC(유엔군사령부) 현황 자료	870
0816	주한미군 사령관 교체	871
0817	한·러시아 군사 교류	872
0818	Ruhe, Volker 독일 국방장관 방한, 1993.10.31.-11.2.	873
0819	요르단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874
0820	Bjorck, Anders 스웨덴 국방장관 방한, 1993.2.2.-4.	875
0821	Derwinski, Edward 미국 원호장관 방한	876
0822	Perry, William 미국 국방부 부장관 방한, 1993.5.9.-12.	877
0823	미국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878
0824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및 동향	879
0825	각국의 핵실험 동향	880
0826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협정(Tlatelolco) 관련 동향	881
0827	중국의 핵실험	882
0828	일본의 핵 재처리 문제. 전2권 (V.2 Rand Institute 보고서)	883
0829	미국·러시아 간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I, II) 동향. 전2권 (V.1 1991-92.7월)	884
0830	미국·러시아 간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I, II) 동향. 전2권 (V.2 1992.9월-1993)	885
0831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886
0832	미국의 신전략방위계획(GPALS) 추진 동향	887
0833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93.5.24.-6.4.	888
0834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V.1 사전준비)	889
0835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V.2 회의결과)	890
0836	BWC(생물무기금지협약) 신뢰구축조치(CBM) 이행보고서	891
0837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문가그룹 회의	892

0838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Hague(네덜란드), 1993.2.8.-12. 전2권 (V.1 사전준비)	893
0839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Hague(네덜란드), 1993.2.8.-12. 전2권 (V.2 회의결과 및 사무국 고위직 선출문제)	894
0840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2차. Hague(네덜란드), 1993.4.19.-22.	896
0841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3차. Hague(네덜란드), 1993.6.28.-7.2.	897
0842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4차. Hague(네덜란드), 1993.9.27.-10.1.	898
0843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5차. Hague(네덜란드), 1993.12.13.-16.	899
0844	한국인의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기술사무국(PTS) 진출	900
0845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국제 동향	901
0846	한·호주 비핵산 문제 협의. 서울, 1993.5.31.	902
0847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전2권 (V.1 1-6월)	903
0848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전2권 (V.2 7-12월)	904
0849	무기 수출통제 관련 동향	906
0850	핵공급국 그룹(NSG). 전2권 (V.1 1-6월)	907
0851	핵공급국 그룹(NSG). 전2권 (V.2 7-12월)	908
0852	호주 그룹(AG)	909
0853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V.1 기본문서) ...	910
0854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V.2 참고자료) ...	911
0855	한·바레인 군사협력	912
0856	한·이집트 군사협력	913
0857	핀란드 SISU사 군 장비 구입 문제	914
0858	한·프랑스 군사협력	915
0859	한·일본 안보협력	916
0860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울곡사업) 문제 한·미국 간 협조	917
0861	Abshire, David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방한	918
0862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류 협력 및 한국위원회 운영	919
0863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NPCSD). Vancouver, 1993.3.21.-24.	920
0864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11차. Washington D.C., 1993.11.1.-2.	921
0865	UN NRS(국가전문인력총원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워크샵. 북경, 1993.5.16.-31.	922
0866	UN NRS(국가전문인력총원기구) 회의, 제13차. Cairo, 1993.3.29.-4.2.	923
0867	UNDP(유엔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진출 추진	924
086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 한국인 진출	925
0869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제도 검토	926
0870	농림수산부 직원 국제기구 파견	927
0871	재무부 직원 유엔 다국적기업관리국(TCMD) 파견	928
0872	체산부 직원 UPU(만국우편연합) 전문가 파견	929
0873	유엔총회 산하 주요기관 선거 및 입후보	930
0874	한국의 유엔 산하기구 이사국 진출	931
0875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932
0876	한국의 유엔 정규 및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납부	933
0877	유엔개발 활동 기여금 납부	934
0878	유엔사무국 개편. 전2권 (V.1 1991-92)	935
0879	유엔사무국 개편. 전2권 (V.2 1993)	936
0880	각국의 유엔가입	937
0881	마케도니아(FYROM) 유엔가입, 1993.4.8.	938
0882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939
0883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 기본대책 및 의제)	941

0884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 의장단 및 대표단)	942
0885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3 기조연설 I: 일정교섭/각국 연설문)	943
0886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4 기조연설 II: 우리측 문안작성)	944
0887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5 외무장관 참석 I: 사전준비(5-8월))	945
0888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6 외무장관 참석 II: 사전준비(9-10월))	946
0889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7 외무장관 참석 III: 결과보고)	947
0890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8 외무장관 참석 IV: 개별 면담자료)	948
0891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9 외무장관 참석 V: 유엔 현안자료)	949
0892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0 본회의 I: 의제 및 결과)	950
0893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1 본회의 II: 중동/팔레스타인문제)	951
0894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2 본회의 III: 마약문제 특별회의)	952
0895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3 본회의 IV: IAEA 보고서)	953
0896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4 제1위원회 I: 1993.8-10월)	954
0897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5 제1위원회 II: 1993.11-94.5월)	955
0898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6 제1위원회 III: 기조연설/참가보고)	956
0899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7 제2위원회 I: 8-10월)	957
0900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8 제2위원회 II: 11월)	958
0901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9 제2위원회 III: 12월)	959
0902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0 제2위원회 IV: 환경회의 참가)	960
0903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1 제3위원회 I: 8.27.-11.10.)	961
0904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2 제3위원회 II: 11.11.-30.)	962
0905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3 제3위원회 III: 12월)	963
0906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4 제4위원회 I: 10.6.-11.11.)	964
0907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5 제4위원회 II: 11.12.-12월)	965
0908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6 제5위원회 I: 1993)	966
0909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7 제5위원회 II: 1994(속개회의))	967
0910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8 제6위원회)	968
0911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9 결과보고)	969
0912	유엔총회 제1위원회/국제안보문제	970
0913	유엔총회에서 남극 문제 토의	971
0914	유엔공보위원회, 제15차. New York, 1993.5.10.-28.	972
0915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출범 준비. 전2권 (V.1 1991-93.4월)	973
0916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출범 준비. 전2권 (V.2 1993.5-12월)	974
09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전3권 (V.1 논의동향)	975
09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전3권 (V.2 우리 의견서 제출)	976
091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전3권 (V.3 언론보도)	977
09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1993.10.29.	978
0921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979
0922	캄보디아 사태/유엔 논의 동향	980
0923	사이프러스 사태/유엔 논의 동향	981
0924	유엔안보리의 대아이티 제재	982
0925	유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폐기 특별위원회(UNSCOM) 활동	983
0926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	984
0927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조치 국내 이행. 전2권 (V.1 1992.11-93.5월)	985
0928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조치 국내 이행. 전2권 (V.2 1993.6-12월)	986
0929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1 1-2월)	987
0930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2 3-4월)	988
0931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3 5월)	989

0932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4 6-12월)	990
0933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세미나 참석	991
0934	PKO(유엔평화유지활동)/Agenda for Peace. 전3권 (V.1 안보리 본회의 및 비공식 실무그룹 회의)	992
0935	PKO(유엔평화유지활동)/Agenda for Peace. 전3권 (V.2 PKO 특별위원회)	993
0936	PKO(유엔평화유지활동)/Agenda for Peace. 전3권 (V.3 평화유지상비군 설치 추진)	994
0937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1 1992.9-12월)	995
0938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2 1993.1월-2.10.)	996
0939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3 1993.2.11.-28.)	997
0940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4 1993.3월)	998
0941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5 1993.4-5월)	999
0942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6 1993.6.1.-20.)	1000
0943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7 1993.6.21.-7월)	1001
0944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8 1993.8월-10.10.)	1002
0945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9 1993.10.11.-25.)	1003
0946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10 1993.10.26.-12월)	1004
0947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11 재정지원 및 부대교체)	1005
0948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12 유엔 및 각국의 지원)	1006
0949	UNTAC(유엔캄보디아임시행정기구) 선거 요원 파견	1007
0950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 Geneva, 1993.6.28.-7.30. 전3권 (V.1 3-6월)	1008
0951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 Geneva, 1993.6.28.-7.30. 전3권 (V.2 7.1.-20.)	1009
0952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 Geneva, 1993.6.28.-7.30. 전3권 (V.3 7.22.-12월)	1011
0953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국가보고서	1012
0954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기술이전 실무회의. Cartagena(콜롬비아), 1993.11.17.-19.	1013
0955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1 1992.5-8월)	1014
0956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2 1992.9월-10.20.)	1015
0957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3 1992.10.22.-11.6.)	1016
0958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4 1992.11.11.-12월)	1017
0959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5 1993)	1018
0960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 제1차. New York, 1993.6.14.-25. 전2권 (V.1 사전준비)	1019
0961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 제1차. New York, 1993.6.14.-25. 전2권 (V.2 결과)	1020
0962	한국의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 진출. 전2권 (V.1 1992.9-93.1월)	1021
0963	한국의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 진출. 전2권 (V.2 1993.2-3월)	1022
0964	HABITAT II(제2차 유엔인간정주위원회) 준비위 조직회의. New York, 1993.3.3.-5.	1023
0965	UNCHS(유엔인간정주센터) 상주대표회의	1024
0966	UNCHS(유엔인간정주센터), 제14차. Nairobi(케냐), 1993.4.26.-5.5.	1026
0967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9차. New York, 1993.4.5.-15.	1027
0968	UNCPC(유엔계획조정위원회), 제33차. New York	1028
0969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 및 위원국 선출. 전4권 (V.1 조직회의)	1029
0970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 및 위원국 선출. 전4권 (V.2 산하기구 위원국 선출 I: 1992.7-93.2월) ..	1030
0971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 및 위원국 선출. 전4권 (V.3 산하기구 위원국 선출 II: 1993.3월)	1031
0972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 및 위원국 선출. 전4권 (V.4 산하기구 위원국 선출 III: 1993.4-5월)	1032
0973	유엔사무총장 동정	1033
0974	Ganev, Stoyan D. 유엔총회(제47차) 의장 방한, 1993.3.30.-4.4.	1034
0975	Heitor Gurgulino de SOUZA 유엔대학 학장 방한	1035
0976	Ji Chaozhu 유엔 사무처장 방한, 1993.8.22.-26.	1036
0977	Petrovsky, Vladimir 유엔 Geneva 사무처장 방한, 1993.9.21.-22.	1037
0978	Li Zauxing(李肇星) 주유엔 중국대사 방한, 1993.7.28.-30.	1038
0979	Luck, Edward 미국 유엔협회장 방한, 1993.4.1.-2.	1039

0980	유엔 한국협회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한 주요국가 현황 조사	1040
0981	유엔 한국협회	1041
0982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1042
098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남태평양 신탁기금 지원	1043
098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170-179차. Bangkok	1044
098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APCTT(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 집행위원회, 제8차. New Delhi(인도), 1993.11.18.-19.	1045
098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RNAM(농기계지역마사업) 집행위원회 회의, 제15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3.12.9.-11.	1046
098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26차. Manila(필리핀), 1993.11.2.-8.	1047
098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공업개발 및 구조조정을 위한 회의	1048
098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제1차. Bangkok, 1993.12.13.-17.	1049
099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3.2.8.-11. 전4권 (V.1 사전준비 I (1992))	1050
099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3.2.8.-11. 전4권 (V.2 사전준비 II (1993))	1051
099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3.2.8.-11. 전4권 (V.3 결과 및 후속조치)	1052
099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3.2.8.-11. 전4권 (V.4 회의자료 및 언론보도)	1053
099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반근경감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93.9.20.-24.	1054
099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화 각료회의. Bangkok(태국), 1993.10.27.-11.2.	1055
099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대 회의. 북경, 1992.12.1.-5.	1056
099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환경 및 지속개발위원회, 제1차. Bangkok(태국), 1993.10.4.-8.	1057
099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제49차. Bangkok(태국), 1993.4.21.-29. 전3권 (V.1 사전준비)	1058
099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제49차. Bangkok(태국), 1993.4.21.-29. 전3권 (V.2 대표단 및 의제) ..	1059
100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제49차. Bangkok(태국), 1993.4.21.-29. 전3권 (V.3 결과 및 자료)	1060
100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제6차. Bangkok(태국), 1993.2.18.-19. 전2권 (V.1 사전준비)	1062
100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제6차. Bangkok(태국), 1993.2.18.-19.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063
100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 제2-3차	1064
100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Bangkok(태국), 1993.4.19.-20.	1065
100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투자정보센터(RIIPS) 설립 추진. 전2권 (V.1 1988-92.3월)	1066
100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투자정보센터(RIIPS) 설립 추진. 전2권 (V.2 1992.4월-1993)	1067
100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동북아 전환기 경제국가 세미나. 길림성(중국), 1993.6.30.-7.3.	1068
100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세미나 및 기타회의	1069
100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 비공식회의 및 양하세율 변경]	1070
101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 제12차. Geneva, 1993.10.18.-22.	1071
101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9차(2부). Geneva, 1993.3.15.-26.	1072
101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40차(1부). Geneva, 1993.9.20.-10.1.	1073
101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실무그룹 회의	1074
1014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선출. 전2권 (V.1 1월-3.9.)	1075
1015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선출. 전2권 (V.2 3.10.-4.1.)	1076
1016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2.-23.	1077

101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11차. Vienna, 1993.6.28.-7.2.	1078
101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11차(속개). Vienna, 1993.10.28.-29.	1079
1019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비공식협의회	1080
1020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북경사무소 파견 직원 기간 연장 문제	1081
1021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국 공무원 파견	1082
1022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40차. New York, 1993.6.1.-18. 전2권 (V.1 사전준비)	1083
1023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40차. New York, 1993.6.1.-18. 전2권 (V.2 회의 결과)	1084
1024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국 입후보 및 한국 파선	1085
1025	UNEP(유엔환경계획)/UNCUEA(유엔긴급환경원조센터) 정부 간 자문회의. Geneva, 1993.11.22.-24.	1086
1026	UNEP(유엔환경계획)/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3차. Bangkok, 1993.11.10.-12. 전2권 (V.1 기본문서)	1087
1027	UNEP(유엔환경계획)/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3차. Bangkok, 1993.11.10.-12. 전2권 (V.2 자료)	1088
1028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 간 위원회, 제1차. Geneva(스위스), 1993.10.11.-15.	1089
1029	UNEP(유엔환경계획) 주관 환경 관련 회의	1090
1030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제17차. Nairobi(케냐), 1993.5.10.-21.	1091
1031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주한 명예대표 임명	1092
1032	UNICEF(유엔아동기금) 각료회의. Manila(필리핀), 1993.9.27.-29.	1093
1033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New York, 1993.4.26.-5.7.	1094
1034	UNICEF(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설립	1095
1035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일반	1096
1036	한·UNV(유엔봉사단) 관계. 전2권 (V.1 1991-92.6월)	1097
1037	한·UNV(유엔봉사단) 관계. 전2권 (V.2 1992.7월-1993)	1098
1038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제16-17차	1099
1039	WFP(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 및 감사위원 선거	1100
104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 항공항회의, 제3차. Bangkok, 1993.4.19.-5.6. 전2권 (V.2 1993.4-6월) ..	1101
104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30차. Montreal(캐나다), 1993.5.25.-26.	1103
104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 상주대표부 설치 및 활동	1104
1043	IMO(국제해사기구) 해난조사 보고 및 동향	1105
1044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 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제37차. London, 1993.1.11.-15.	1106
1045	IMO(국제해사기구)/런던덤핑협약 당사국회의, 제16차. London, 1993.11.8.-12.	1108
1046	IMO(국제해사기구) 구명설비·수색 및 구조 소위원회, 제22-24차. London	1109
1047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68-69차. London	1111
1048	IMO(국제해사기구) 산적화합물 소위원회, 제21-23차. London	1112
1049	IMO(국제해사기구)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 제24차. London, 1993.3.8.-12.	1114
1050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기타). London	1115
1051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70차. London, 1993.6.14.-18.	1116
1052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1 기본문서)	1117
1053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2 한국의 이사회 입후보 및 지지 교섭 기본대책)	1118
1054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3 국별 지지 교섭: 아주지역)	1119
1055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4 국별 지지 교섭: 미주지역)	1120
1056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5 국별 지지 교섭: 구주지역)	1121
1057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6 국별 지지 교섭: 중동지역)	1122
1058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7 국별 지지 교섭: 아프리카지역)	1123
1059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62차. London, 1993.5.24.-28.	1124
1060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제34차. London, 1993.7.5.-9.	1125
1061	IOPC Fund(국제유류유역 손해보상기금) 총회, 제16차. London, 1993.10.4.-8.	1126

1062	IAEA(국제원자력기구) 행정예산위원회. Vienna, 1993.5.11.-14.	1127
1063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 1993.6.7.-11. 전2권 (V.1 사전준비)	1128
1064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 1993.6.7.-11. 전2권 (V.2 결과보고)	1129
1065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 1993.9.21.-24. 전3권 (V.1 사전준비)	1130
1066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 1993.9.21.-24. 전3권 (V.2 결과보고)	1131
1067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 1993.9.21.-24. 전3권 (V.3 지지 교섭)	1132
1068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Vienna, 1993.12.2.-3. 전2권 (V.1 사전준비)	1133
1069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Vienna, 1993.12.2.-3. 전2권 (V.2 결과보고)	1134
1070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위원회(TACC) 회의. Vienna, 1993.11.23.-24.	1135
1071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1 사전준비)	1136
1072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2 결과보고)	1137
1073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3 총회의장, 부의장, 이사국 선거)	1138
1074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4 지지 교섭 1, 9.21.-28.)	1139
1075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5 지지 교섭 2, 9.29.-10.20.)	1140
1076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6 회의문서(IAEA))	1141
1077	Blix, Hans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한, 1993.10.17.-19.	1142
1078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검토회의, 제3차. Vienna, 1993.10.4.-5.	1143
1079	IAEA(국제원자력기구) 일반	1144
1080	WMO(세계기상기구)/WCP(세계기후계획)에 관한 정부 간 회의. Geneva, 1993.4.14.-16.	1145
1081	WMO(세계기상기구) 기후 전문위원회, 제11차. Havana(쿠바), 1993.2.15.-26.	1146
1082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선출	1147
1083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평화교육상 후보 추천 및 수상	1148
1084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 집행위원 교체문제	1149
1085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총회, 제14차. Paris, 1993.10.5.-8.	1150
108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장관 회의, 제6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3.6.21.-24.	1151
1087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주관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캐나다), 1993.3.8.-11.	1152
108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41차. Paris, 1993.5.10.-28.	1153
108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42차. Paris, 1993.10.11.-22.	1154
1090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7차. Paris, 1993.10.25.-11.16. 전2권 (V.1 사전준비)	1155
109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7차. Paris, 1993.10.25.-11.16.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선거)	1156
1092	한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IP 사업 지원. 전2권 (V.1 1988-90)	1157
1093	한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IP 사업 지원. 전2권 (V.2 1991-93)	1158
1094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개발도상국 방송인 초청 훈련사업 ..	1159
1095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포럼. 서울, 1993.9.20.-22.	1160
109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일반 동향	1161
1097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의	1162
1098	국제식물유전자원 연구소 가입 문제	1163
1099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회의. Rome	1164
1100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20차. Rome, 1993.3.15.-19.	1165
1101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11차. Rome, 1993.3.8.-12.	1166
1102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1167
110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103차. Rome, 1993.6.14.-25.	1168
1104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장래문제 협의 회의	1169
1105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1 사전준비)	1170
1106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2 결과보고)	1171

1107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3 각 의장 및 위원회 입후보 지지 요청)	1172
110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4 한국의 이사국 재입후보)	1173
110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5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아주지역))	1174
1110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미주지역))	1175
111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7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구주지역))	1176
1112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8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중동지역))	1177
111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9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아프리카지역))	1178
1114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10 사무총장 선거)	1179
1115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11 각국의 사무총장 이사국 지지 요청 (아주/미주지역))	1180
1116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12 각국의 사무총장 이사국 지지 요청 (구주/아프리카지역))	1181
1117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헌장 및 법률위원회 입후보 검토	1182
1118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16차. Rome, 1993.1.20.-22.	1183
1119	AI-Sultan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 방한, 1993.11.21.-23.	1184
1120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거	1185
1121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제44차. Manila(필리핀), 1993.9.13.-17.	1186
1122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6차. Geneva(스위스), 1993.5.3.-14.	1187
1123	WHO(세계보건기구)와의 정규협력 사업	1188
1124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	1189
1125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9차. Geneva(스위스), 1992.6.2.-23.	1190
1126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80차. Geneva, 1993.6.2.-22. 전4권 (V.1 2-5월)	1192
1127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80차. Geneva, 1993.6.2.-22. 전4권 (V.2 6-7월)	1193
1128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80차. Geneva, 1993.6.2.-22. 전4권 (V.3 참석자료)	1194
1129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80차. Geneva, 1993.6.2.-22. 전4권 (V.4 이사국 선거)	1195
1130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Bern(스위스), 1993.4.26.-5.14.	1196
1131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제48차. Geneva, 1993.6.21.-7.1.	1197
1132	ITU(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통신회의. Geneva, 1993.11.8.-19.	1198
1133	WTSC(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제1차. Helsinki(핀란드), 1993.3.1.-12.	1199
1134	Tarjanne, Pekka Johannes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방한, 1993.9.22.-25.	1200
1135	UNDC(유엔군축위원회). New York, 1993.4.19.-5.10.	1201
1136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전3권 (V.1 1-4월)	1202
1137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전3권 (V.2 5-8월)	1203
1138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전3권 (V.3 9-12월)	1204
1139	UNDIR(유엔군축연구소) 기어금	1205
1140	아시아 신뢰 구축 전문가 회의. Almaty(카자흐스탄), 1993.8.30.-9.1.	1206
1141	유엔 군축국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세미나. Kathmandu(네팔), 1993.2.1.-3.	1207
1142	유엔 군축회의. 교토, 1993.4.13.-16.	1208
1143	재래무기 이전현황 유엔 등록 관련 아주·대양주지역 워크숍. 동경, 1993.1.26.-27.	1209
1144	국방부 직원 UNIDIR(유엔군축연구소) 파견	1210
1145	유엔 군축훈련 과정 참가	1211
1146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212

1147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1 1월)	1213
1148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2 2.1.-22.)	1214
1149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3 2.23.-28.)	1215
1150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4 3.1.-8.)	1216
1151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5 3.9.-7월)	1217
1152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제출 인권규약 보고서 심의	1219
115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한국 최초보고서 제출, 1993.10.21.	1220
1154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차 보고서 제출 및 심의	1221
1155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V.1 2.18.-5.22.)	1222
1156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V.2 5.23.-6.13.)	1223
1157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V.3 6.14.-10월)	1224
1158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V.4 참고자료)	1225
1159	유엔 세계인권회의 준비회의, 제1-4차. Geneva. 전4권 (V.1 제1-2차)	1226
1160	유엔 세계인권회의 준비회의, 제1-4차. Geneva. 전4권 (V.2 제3-4차)	1227
1161	유엔 세계인권회의 준비회의, 제1-4차. Geneva. 전4권 (V.3 지역회의 I : 아시아지역 준비회의(1991-92))	1228
1162	유엔 세계인권회의 준비회의, 제1-4차. Geneva. 전4권 (V.4 지역회의 II : 아시아지역(1993) 및 기타지역 준비회의)	1229
1163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 워크샵, 제2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3.1.26.-28.	1230



1993년도

1993년도 연두 업무보고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 / 1 / 1-119



1993년도 연두 업무, 국제정세 분석 및 전망 등에 관한 외무부 보고 문서임.

- 1993년도 국제정세 전망 및 분석 보고(안)(1992.12.28.)
 - 세계정세, 동북아정세, 한반도정세
- 1993년도 주요 업무 보고(안)(12.29.)
 - 1993년도 외교환경, 외교기조, 역점 외교시책
- 1993년도 국제정세 분석 및 전망(1차 시안 12.31.)
 - 세계정세,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 1993년도 국제정세 분석 및 전망(2차 시안 12.31.)
 - 세계정세,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 1993년도 주요 외교 업무 계획(1차 시안 1993.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외무부 업무보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 / 2 / 1-100

1993년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외무부의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임.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외무부 업무보고

- 1993.1.12. 노창희 외무부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외무부의 조직, 예산현황,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항 등에 관해 업무 보고 실시
- 외무부는 동 보고를 통해 공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1990년대 중반 선진국 진입과 금세기 내 통일을 목표로 통일외교와 경제외교에 역점을 두는 외교 추진 계획 보고
 - 7개 주요 업무계획으로 4강 외교의 전개, 통일외교의 추진, 경제·통상·기술 등 실리외교의 강화, 능동적인 아·태 외교의 전개,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다자협력 증진, 재외국민 지원강화, 문화외교 및 홍보활동 강화 등 보고
- 콜 독일 수상의 방한 등 정상외교 관련사항을 비롯한 당면 주요 외교현안 보고

2. 국정성과 및 마무리 관련사항 보고(1993.1월)

- 제6공화국 5년간의 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 등

신정부 출범 대통령 앞 업무보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행정관리담당관실

MF번호 2023-1 / 3 / 1-186

1993년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외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 및 실시에 관한 내용임.

1. 업무보고 준비

- 1993.3.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199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계획 시달
 - 시기: 1993.3월 중순~4월 초순
 - 보고 기관: 28개(2원 14부 6처, 정무 1, 2, 비상기획위원회, 평통 사무처, 안기부, 감사원)
 - 보고 내용: 일반현황,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대통령 선거공약 및 지시사항 실천현황
- 대통령 보고 2~3일전 국무총리 사전보고
- 외무부 기획관리실, 각 실국의 업무 관련 자료 취합 및 보고 자료 작성

2. 외무부의 대통령 앞 주요 업무보고 실시

- 1993.3.16.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김영삼 대통령 앞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실시
- 외무부는 평화정착과 통일외교의 추진,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실리 경제외교 강화, 능동적인 아·태지역 외교 전개,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국가위상 제고, 재외국민 지원 및 문화외교 확대 등 외교정책 기조에 역점을 두고 추진 계획 보고
- 또한, 외무부는 북한 핵 문제, 동북아 및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 참가, 군대위안부 문제, 경제협력 회복을 위한 경제 실리외교 추진 방안 등 주요 외교현안 보고

3. 외무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내실 있는 외교 강조
-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조속히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철회 및 핵사찰 요구
- 평화통일외교 추진을 위해 미·일 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소홀히 하지 않음.
- 한국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외교 강화 및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응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1993.2.25. 전2권 (V.1 세부 추진계획)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재외국민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1 / 4 / 1-272

1993.2.25.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관련 외빈 및 해외동포 참석 내용임.

1.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 방침

- 1993.2.25. 거행되는 대통령 취임행사에 외국 경축사절을 일체 초청하지 않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보고(1.13.)와 국무회의 심의(1.14.)로 확정
- 취임식 및 관련 행사는 주한 외교사절이 각국을 대표

2. 재외국민 참석 방침

- 외무부(재외국민영사국),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재외국민 대표 참가 추진계획을 작성
 - 재외공관을 통한 참석 희망자 접수
 - 항공료 및 체재비 자부담 원칙
 - 취임식 참석 희망 동포 파악 지시 전문 재외공관 발송(1993.1.15.)
- 1.27. 외무부, 재외동포 초청대상자 명단 작성 착수
- 대통령 취임행사 세부 시행계획 제출(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
 - 해외동포 숙박 및 행사장 안내, 차량확보 및 수송, 해외동포에 대한 경축공연 참여 관리 등
- 해외교포 참석 관련 보도자료 배포(2.23.)
 - 41개국에서 1,290명의 해외동포 참석 예정

3. 취임식 관련 자료

- 제14대 대통령 취임 및 관련 행사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총무처)
-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실무위원회 회의자료(총무처)

4. 주한 외교단 취임식 참석 안내(외무부 의전실)

- 주한 외교단 참석 현황, 주요 일정, 공항 및 숙소, 행사별 세부계획
-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안내요원 근무(1992.2월, 제14대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1993.2.25. 전2권 (V.2 해외동포 초청)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재외국민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1 / 5 / 1-148

1993.2.25.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관련 해외동포 참석 내용임.

1. 대통령 취임식 해외동포 참석 안내

- 1993.1.30. 외무부, 전 재외공관에 전문으로 취임 행사 주요 일정 및 해외동포들의 행사 참석가능 범위 등 안내
-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해외동포 참석 지원 점검표 작성(1993.1월,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
- 2.5. 외무부,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에 해외동포 참석 희망자 1,327명 명단 제출
 - 일본지역 742명, 미국지역 422명 등
 - 2.8. 이후 수차 명단 추가 제출
- 미국 및 일본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이임대통령 환송연회 및 경축연회 참석 동포 추천 시행

2. 취임행사 해외동포 참석지원 현황

- 취임 행사별 동포 참석 현황
 - 이임대통령 환송연회 및 만찬, 취임식, 경축연회, 경축음악회 등
- 참석인원 제한이 없는 행사(대통령 취임식, 경축연회)와 참석인원 제한이 있는 행사(이임대통령 환송연회 및 만찬, 경축음악회)를 나누어 관리
- 차량동원 관련 해외동포 운송역무에 관한 계약서(외무부와 금호고속관광)
- 취임식 행사 참석 해외동포 비표 번호집(1,319명) 수록(외무부 재외국민1과)
- 외무부, 취임식 행사 참석 해외동포 안내장소 설치, 경찰 에스코트 및 경축공연 전원 초청 조치 등 지원

법령 질의 및 해석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23-1/6/1-299

1990~93년 중 외무부 내 법령 관련 질의 및 해석 내용임.

1.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보 간 서열문제 검토

● 검토

- 기획관리실장과 차관보 두 기관은 각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다른 만큼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동 기관 상호 간의 획일적인 서열관계를 규정함은 곤란
- 차관 유고시 차관 대리는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하도록 명백히 규정(국무총리 지시공문)하고 있음에 비추어, 각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측면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차관의 차하위 직위로 봄이 타당
- 그러나 외무부 직제상 실장 및 차관보는 복수직급(외교직 특1급 또는 특2급)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직위에 보임되는 자연인의 직급서열 고려의 문제 발생
- 외무부의 과거 관례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나, 기획관리실장이 차관보보다 선서열의 경우는 보직된 자연인의 직급이 고려됨.

● 의견

- 업무 또는 기능수행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차관보에 당면 우선
- 기타 의전서열은 직급 순(직급이 같은 경우 승진일자 순)으로 예우함이 바람직

2. 외교관 자녀 외무부 채용방안

● 외무고등고시에 의한 채용

- 많은 외교관 자녀가 외무고시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한 사례는 한 번도 없음.
- 교육적 배경과 환경의 차이로 실제로 외무고시에 합격하기 매우 힘든 실정임.

● 특별채용 시험에 의한 채용

- 기존 특별채용 시험에 의하여 채용이 가능하며 특히 특채제도에 의하여 임용되면 외교직으로 임용되므로 입부 후 불이익 없음.

● 별정직으로의 채용

- 특채에 비하여 선발기준이 완화되어 입부하기는 다소 용이하나, 입부 후 직렬의 상이와 선발 인원의 제한으로 경력 평정, 근무지의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임.

● 특례조항의 개정이나 기존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외교관 자녀들의 입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 국가공무원 조직원리 상 사무관 이상의 임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내지는 공무담임권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봄.

주한 공관원 및 공무수행자에 대한 국내여행 제한지침 개정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 / 7 / 1-57

1. 여행 제한지역에 대한 외국인 여행허가 지침(1993.1월, 법무부)

- 목적: 여행 제한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여행허가 절차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 적용대상자
- 여행 제한지역
- 여행허가
- 여행허가 절차
- 여행경로 지정 등
- 활동범위 제한통지
- 위반자 처리
- 별지: 여행허가 신청서

2. 주한 공관원 및 공무수행자에 대한 국내여행 지침(1993.2월, 외무부)

- 목적: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 공관원 및 공무수행자에 대한 여행제한의 범위, 여행신고 및 허가 절차에 관해 규정
- 적용대상자
- 여행 제한지역
- 여행 제한지역에 대한 여행 허가
- 여행경로 지정
- 제재조치 등
- 별지: 여행허가 신청서

국제관계자문대사제도 활성화 방안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정책총괄과 /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1 / 8 / 1-113

1990~93년 중 국제관계자문대사제도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임.

1. 취지

- 점증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 행정기관의 국제적 감각 고양과 대응 능력 제고
- 외무부 본부대사를 지방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지방행정 기관장의 자문 업무 수행

2. 경위

- 청와대 회의(1990.10.5.) 개최
 - 청와대 내무행정비서관회의 주재하에 외무부, 내무부, 총무처, 청와대 임원 참석

3. 자문대사 회의 개최 현황

- 제1차 국제관계자문대사 회의(1993.2.6.)
 - 외무부차관 주재로 국제관계자문대사 총 9명 참석
 - 국제관계자문대사제도 활성화 방안과 자문대사들의 지역별 국제 업무 추진 현황 설명 및 지방의 발전적 국제화 방안에 대한 협의
- 제2차 국제관계자문대사 회의(1993.8.7.)
 - 외무부장관 주재로 국제관계자문대사 총 9명 참석
 - 주요 외교현안 설명 및 자문대사 업무 지원방안 토의

한국 인권문제 관련 호주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1 / 9 / 1-66

1993년 중 한국 인권문제 관련 호주 동향임.

1. 호주인 14명(국제사회주의 조직), 주호주대사관 앞 시위(1993.1.13.)

- 한국 정부에 의해 구속된 최일봉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
- 최일봉 범죄 사실
 - 노동자 계급 혁명을 지도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선전, 선동하는 'IS(국제사회주의자들)' 결성
 - 반국가 선전, 선동을 목적으로 한 표현물 제작 및 배포

2.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출범 선언문 관련 자료 수록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10주기 추모 행사 및 기념물 건립 문제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 / 10 / 1-291

1990~93년 중 미얀마의 아웅산 암살 폭발사건(1983.10.9.) 10주기 추모행사 및 기념물 건립 문제 관련 문서임.

1. 유가족 청원(1990.4월)

- 아웅산 순국 외교사절 유가족 대표는 유족의 현지 방문, 기념비 건립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미안마 대사 앞으로 보내옴.

2. 유가족 4명 미얀마 방문 계획

- 방문 시기: 1990.10월
- 방문 희망자: 이정희(고 서상철 장관), 이희익(고 이계철 대사), 이명수(고 이재관 비서관), 강민선(고 이중은 기자) 유족 4인
- 현지 활동 계획
 - 아웅산 묘지 참배
 - 추모비 건립에 관하여 미얀마 정부와 협의(미얀마 측 부지 제공 희망)
 - 추모비 건립비용은 한국 정부 지원 기대, 불가능할 경우 유족 자체 모금 예정
 - 1993.10.8.~12. 일정으로 유족 대표들은 현지 방문 후 귀국
- 미얀마 입장
 - 미얀마 정부는 유족들의 현지 방문은 동의하면서도 추모비 건립은 태도 불명
 - 미얀마 측은 동 사건이 자국의 치안 부재를 노출한 사건이고 주권을 침해당한 역사적 치부로 간주

3. 참고자료

- 량군 사건 범인 처리 관련 일지
- 버마 암살폭발사건 및 사후처리 일지 등

4. 아웅산 추모기념물 건립 문제

- 미얀마 정부 측의 미온적인 반응과 적절한 장소 선정이 어려워, 아웅산 사건 10주기 추모행사는 1993.10.9. 국내에서 개최
 - 순국사절 묘역 참배, 국립묘지 현충관 추모식, 세종연구소 추모 동판 제막, 추모 만찬
- 미얀마 내 추모비 건립은 아웅산 묘역 인근 또는 공공장소 내 추모비 건립 추진 예정
- 세종연구소 내 추모비 건립은 임진각 내 위령탑이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미국 반응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1 / 11 / 1-157

1992~93년 중 대통령 선거, 김영삼 대통령 취임 관련 해외 동향(재외공관 보고)임.

- 김영삼 총재의 위성 대담 프로그램 제작 추진
-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정주영 후보 후원회 결성(시애틀)
- 1992년 대선 관련 현지 언론보도
 - 노태우 대통령 민주당 탈당(L.A. 타임스)
 - 한국 대선 관련 사실, 유세 참관 기사(시카고 트리뷴지)
 - Korea Economic Institute 계간지 노태우 대통령 정치적 평가
 - 스칼라피노 교수의 대선 결과 평가(CNN 비즈니스)
 - 노태우 대통령 관련 평가(NYT)
 - 김영삼 후보 당선 평가(시애틀포스트 인텔리젰서)
 - 김영삼 대통령 취임 해설(시카고 트리뷴지)
- 1992년 대선 결과 백악관 성명, 부시 미 대통령 메시지
- 1992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미 행정부 당국자 평가
- 부시 대통령의 김영삼 당선자 앞 축전
- 부시 대통령-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간 전화 통화
- 클린턴 당선자, 김영삼 당선자 앞 축하 메시지
- 한국 대선 관련 미국 신문 논조(WP, NYT, WSJ)
- 부시 대통령, 클린턴 당선자의 김영삼 대통령 앞 축전 및 답신
- 키신저 전 국무장관, 미 외교협회, Lilly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 등 김영삼 대통령 앞 축전
- L.A. World Affairs Council,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를 연사로 초청
- Bill Emerson 공화당 의원, 김영삼 당선자를 국가조찬기도회에 초청
- 아시아 소사이어티, 김영삼 당선자를 1993.9월 코리아 페스티벌 개막식에 초청
- 오클라호마 주지사, 김영삼 당선자 앞 축하 서한 송부
- 김영삼 당선자 CFR 연설 초청 등

한국 인권문제 관련 미국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1 / 12 / 1-211

1993년 중 미국 각계에서 제기한 한국의 인권문제와 대응에 관한 내용임.

1. 1992년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와 연소자 고용을 위한 최저 연령, 기타 근로조건 등 서술

2. 1993년도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 국가보안법 존속, 고문 및 변호인 접견금지 사례, 전노협 및 전교조 사례, 양심수 등 기술

3. 북미지역 한국 공관에 제기된 각종 인권문제

-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 및 복역 중인 인사들이 관심 대상
 - 미국 및 캐나다의 시민단체, 의회인사 등이 석방 및 현황 자료 요구
-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등 한국의 제도 개선 요구

4. 관련 자료

- 1993.11월 정치적 사유 구속자, 재소자 가혹행위, 문제 경찰관 징계, 특정 가혹행위 사례, 한국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명자료(법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요청

한국 인권문제 관련 유럽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서구1과

MF번호 2023-1 / 13 / 1-174



1993년 중 한국 인권문제 관련 유럽 동향임.

1. 반한 시위

- 1993.1.6. 및 1.11./2.24./6.2. 주영국대사관 앞에서 영국 사회주의 단체가 최일봉의 석방을 요구하며 수차례 시위

2. 영국 측 요청사항

- 주한 영국대사관은 최일봉, 강용주에 대한 설명자료 요청
- 법무부, 관련 자료 제출

3. 주한 EC(구주공동체) 국가 인권담당관 면담(1993.7.21.)

-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사노맹 사건 관련 구속 현황 등 설명

4. 기타 유럽 국가 항의 접수

- 1993.8.20. 주핀란드대사관은 양심수로 규정한 장의군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 접수
- 10.20. 주스위스대사관은 황석영 석방 및 김삼석, 김은주에 대한 심문 증지를 촉구하는 ACAT 기관의 서명록 접수
- 10.26. 주영국대사관, 영국 소재 변호사 단체의 노태훈 구속 관련 서한 접수
- 12.16. 독일 외무부, 독일 인권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황석영과 황대권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

한·미국 관계 외교문서공개 검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1 / 14 / 1-188

1. 외무부는 1993.9.25. 제1차 외교문서 공개(1993.12.31.)를 앞두고 30년 이상된 외교문서 (1948~59년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아래 문서에 수록된 사안 중 일부는 그 내용상 관련 부처 및 관련 국가의 입장을 타진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미주국에 통보
 - 미국 측이 생산한 한·미 관계 관련 문서
 - 한국군 감축 및 재편성, 한·미 군사훈련 관련 문서
 - 한국 측이 작성한 면담록
 -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미국 관련 언급내용
 -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일람(1951~59년)
2. 미주국, 관련 부처 및 관련 국가 의견 문의(1993.10.9.)
 - 국방부에 9개 문서에 대한 공개 여부 문의
 - 미국 측에 4개 문서에 대한 공개 여부 문의
3. 외무부는 1993.11.16. 미주국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에 대해 미국 측 및 국방부 측 입장 확인 요청

의전행사 간소화 방안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1 / 1-180

1991~93년 중 각종 의전 간소화 방안 관련 문서임.

1. 신임장 제정식 관련 옥외행사 거행기준 조정(1991.3월)

2. 정부교체기 신임장 제정(1993.1.6.)

3. 의전 간소화 방안

- 국민(국가원수, A급 수상), 국무총리 관련, 대통령 해외방문 관련
- 외교사절 접수, 외교사절 파견, 주한 대사 이임

4. 신임장 제정 절차 개정(안)(1993.3월)

5. 의전 행사 간소화 방안(1993.3월)

6. 의전 간소화 세부 시행계획(안)(1993.3.25. 의전비서실 작성)

- 국민 방한: 국민, 공식, 공식실무 3가지로 구분하되, 국민 및 공식 방한은 연6회 정도 접수
- 대통령 해외 방문: 연례 행사라는 인식 불식, 항공기 기종, 수행원 규모 관련 예산 절감
- 신임장 제정식: 복장, 의장대, 국기병, 배석자 등 관련 간소화

7. 외빈방한 계획 보고

8. 1993년도 외빈방한 계획 및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1993.5.11., 국무총리 보고)

9. 외무장관 공식 방한, 정부수반 공식실무 방한 시 Information Notes(영문 설명자료)

10. 1993 하반기 외빈 접수계획(안)(1993.7월, 의전장실)

11. 외빈 영접기준 및 체크리스트 자료

12. Explanations on Major Official Events(영문자료)

1993년도 주한대사 이임 예방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2 / 1-79

1993년도 주한 대사 이임 예방 관련 내용임.

1. 이임 일정

- 2.12. 오마르 주한 브루나이대사 이임
- 2.28. 후안 렌돈 주한 과테말라대사 이임
- 2.28.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이임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3.4. 크리스토퍼 버틀러 주한 뉴질랜드대사 이임
- 3.6. 루돌프 카센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이임
- 3.8. 마수드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이임
- 3.20. 누네즈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이임
- 4.22. 까시오 페르난데스 주한 멕시코대사 이임
- 6.10. 라울 라베 주한 필리핀대사 이임
- 7.3. 아니발 카살 주한 파라과이대사(외교 단장) 이임
 - 대통령 예방 및 대법원장 예방

2. 의전 관행

- 이임 대사의 경우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이임 예방 의전조치

대사파견 - 신임장 수여 및 현황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

MF번호 2023-2 / 3 / 1-286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신임장 발급 및 수여에 관한 기록임.

1.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발급청: 대통령)

- 1992.12.11. 박태진 주우루과이대사 등 2명에 대한 신임장 및 기존 대사 2명 소환장
- 12.24. 이창수 주필리핀대사 등 10명에 대한 신임장 및 기존 대사 8명 소환장
- 12.30. 이시용 주스웨덴대사 등 2명에 대한 신임장 및 기존 대사 2명 소환장
- 1993.1.11. 김중록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등 2명에 대한 신임장 및 기존 대사 2명 소환장
- 1.26. 박노수 주베트남대사 등 2명에 대한 신임장 및 기존 대사 1명 소환장
- 4.9. 한승수 주미국대사 등 17명에 대한 신임장 및 기존 대사 12명 소환장
- 5.4. 채익석 주스웨덴대사 등 5명에 대한 신임장 및 기존 대사 4명 소환장
- 5.13. 키리바시 및 투발루 겸임대사(강근택 주피지대사) 등 3명에 대한 겸임 신임장
- 5.2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겸임대사(손훈 주카메룬대사) 등 2명에 대한 겸임 신임장
- 5.27. 장선섭 주프랑스대사 등 4명에 대한 신임장 및 기존 대사 3명 소환장
- 6~8월 아르메니아 및 벨라루스 겸임대사(김석규 주러시아대사) 등 8명 겸임 신임장
- 8월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이상옥 전 외무부장관) 및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김덕룡 정무 제1장관)에 대한 신임장
- 10월 이원호 주덴마크대사 등 신임장 및 겸임 신임장, 그리고 기존 대사 8명 소환장

2. 신임장 수여식

- 1993.1.8. 이창수 주필리핀대사 등 11명
- 1.21. 박종상 주루마니아대사 등 3명
- 1.28. 박노수 주베트남대사 등 2명
- 4.16. 한승수 주미국대사 등 11명
- 5.12. 채익석 주스웨덴대사 등 5명
- 5.29. 장선섭 주프랑스대사 등 4명
- 11.2. 이원호 주덴마크대사 등 7명

대사파견 - 알제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2과

MF번호 2023-2 / 4 / 1-26

1. 알제리 정부는 1993.3.24. 권인혁 주알제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권인혁 대사는 1993.5.11. 알제리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권인혁 대사는 1993.9.14. Ali Kafi 알제리 최고회의의장(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권 대사, Ali Kafi 의장에게 김영삼 대통령의 문안인사를 전달하고 국교수립 3년 만에 눈부신 양국관계 발전(경제 및 기술협력) 평가 및 관계 증진을 위한 향후 주요계획을 설명함.
 - 합작사업(힐튼호텔 개관, 유전개발), 전문가 파견, 기술연수생 초청, 컴퓨터 무상공여, 양국 TV 프로그램 교환, 한국 음악회, 민속무용 발표, 영사회, 미술전시회 계획 등
 - Kafi 의장은 양국 간 공식관계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권 대사의 설명 내용에 각별히 주목함.

대사파견 - 오스트리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5 / 1-110



1. 한국 정부는 1991.12.30. 이시영 외무부 외교정책실장을 주오스트리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 1992.1.31. 아그레망 발급
2.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92.4.10.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이시영 대사는 1992.4.14.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1995년에 EC(구주공동체)에 가입 예정임을 언급
4. 겸임국(슬로베니아)
 - 1993.3.4. 아그레망 부여
 - 6.23.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벨기에

생산연도 1991-1992

생산과 서구1과 / 총무과

MF번호 2023-2 / 6 / 1-85

1. 한국 정부는 1992.1.6. 김이명 외무부 연구위원을 주벨기에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벨기에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벨기에 정부는 1992.3.11. 김이명 주벨기에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이명 대사는 1992.7.2. 보두앵 벨기에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겸임국(룩셈부르크)
 - 1992.6.19. 아그레망 부여
 - 7.3. 겸임 발령
 - 9.24.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불가리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2 / 7 / 1-33

1. 한국 정부는 1993.3.10. 김흥수 외무부 연구관을 주불가리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불가리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불가리아 정부는 1993.5.12. 김흥수 주불가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흥수 대사는 1993.6.30. 불가리아 외무장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김흥수 대사는 1993.7.6. Zhelev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미얀마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총무과

MF번호 2023-2 / 8 / 1-30

1. 외무부는 1992.11.7. 김정환 국방정보 본부장 특보를 주미얀마대사로 내정하고, 미얀마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미얀마 정부는 1992.11.30. 김정환 주미얀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정환 대사는 1993.2.4. 탄쇄 SLORC 의장(수상)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탄쇄 수상은 한국 측 경제협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의 경험과 미얀마의 잠재력이 결합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으로부터의 활발한 투자 진출을 요망한다고 함.
 - 김정환 대사는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심화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가 양국관계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브라질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 남미과 / 총무과

MF번호 2023-2 / 9 / 1-94

1. 한국 정부는 1993.3.9. 변정현 외무부 연구위원을 주브라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브라질 정부는 1993.3.24. 변정현 주브라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변정현 대사는 1993.6.16. Itamar 브라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Itamar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와 교육면에서 브라질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고, 동인의 부통령 재직 시 방한 초청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필히 방한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양국 간의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칠레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총무과 / 남미과

MF번호 2023-2 / 10 / 1-37

1. 한국 정부는 1993.8.17. 강신성 재외국민영사국장을 주칠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칠레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칠레 정부는 1993.9.8. 강신성 주칠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강신성 대사는 1993.12.9. Aylwin 칠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강 대사는 칠레 정부에 북한의 핵 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어떠한 대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
 - 동 대통령은 한국이 칠레산 신선과일 수입 금지를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대사파견 - 카메룬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3-2 / 11 / 1-97

1. 한국 정부는 1992.7.13. 손훈 의전관을 주카메룬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카메룬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카메룬 정부는 1992.11.12. 손훈 주카메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손훈 대사는 1992.12.29. 카메룬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손훈 대사는 1993.1.6. Paul Biya 카메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Biya 대통령은 한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이 모든 제3세계 국가들의 귀감이 된다고 하고, 남북한 관계 진전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 남북한이 평화적 대화를 통해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손 대사는 재임 기간 중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및 남북한 간 기본합의서에 대해 설명함.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민은 평화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5. 겸임국

- 차드
 - 1993.2.10. 아그레망 부여
 - 5.15. Idress Deby 차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993.5.6. 아그레망 부여
 - 7.30.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적도기니
 - 1993.2.2. 아그레망 부여
 - 10.7. Obiang 적도기니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중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12 / 1-26

1. 한국 정부는 1993.3.8. 황병태 전 민자당 국회의원을 주중국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중국 정부는 1993.3.18. 황병태 주중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황병태 대사는 1993.5.30. 베이징에 부임하여 5.31. 중국 외교부 의전국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황병태 대사는 1993.6.2. 중국 외교부 당가선 부부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하고, 6.4. 왕영범 아주국장을 면담함.
5. 황병태 대사는 1993.6.5. 강택민 중국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황 대사는 강택민 주석을 방한 초청하고, 강 주석은 방한 의사를 표명함.
 - 강 주석은 한국 경제 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대사파견 - 체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3-2 / 13 / 1-84

1. 한국 정부는 1992.11.10. 민병석 대통령 외교안보비서관을 주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체코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체코 정부는 1992.11.30. 민병석 주체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한국 정부는 1993.1.1.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에 따른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국가 승인과 수교 방침을 결정함.
4. 민병석 대사는 1993.2.23. 하벨 체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하벨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문의하고, 한·체코 간의 관계 증진에 기대를 표명함.
 - 민 대사는 하벨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신임장을 제정하게 된 것은 영광이며 취임 초기 바쁜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게 배려해 준데 사의를 표명함. 또한 노 대통령의 안부와 대통령 취임에 관한 축하의 말씀을 전달하고 체코의 현금체제 전환의 어려움 가운데 정치적·경제적 안정 및 동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함.
5. 겸임국(슬로바키아)
 - 1993.3.23. 겸임 발령
 - 5.13.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도미니카공화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2 / 14 / 1-23

1. 한국 정부는 1993.8.23. 조기일 대구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1993.9.10. 조기일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조기일 대사는 1993.12.8. Balagu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동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과 문민정부의 개혁 및 민주주의 신장을 찬양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안부를 전달함.

대사파견 - 에콰도르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총무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15 / 1-29



1. 한국 정부는 1992.11.5. 오채기 외무부 본부대사를 주에콰도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에콰도르 정부는 1992.12.1. 오채기 주에콰도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오채기 대사는 1993.1.26. Duran Ballen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동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게 평가하고 자국의 도로, 발전소, 항만시설 건설 등 개발사업 분야에 한국이 협력해줄 것을 희망함. 이에 오 대사는 자신의 재임기간 중 양국 간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동 대통령은 아울러 방한 희망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오 대사는 가까운 시일 내 대통령의 방한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구주연합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2023-2 / 16 / 1-27

1. 한국 정부는 1992.11.7. 장만순 주EC(구주공동체)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EC 집행위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EC 집행위는 1993.1.4. 장만순 주EC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장만순 대사는 1993.4.23. EC 집행위 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피지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총무과 /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2 / 17 / 1-119



1. 한국 정부는 1992.11.9. 강근택 외무부 제3정책심의관을 주피지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피지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피지 정부는 1992.12.8. 강근택 주피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강근택 대사는 1993.2.19. Ganilau 피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동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강 대사는 대사로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4. 겸임국
 - 키리바시
 - 1993.4.30. 아그레망 부여
 - 9.6. 신임장 제정
 - 마셜제도
 - 1993.3.10. 아그레망 부여
 - 5.20. 신임장 제정
 - 미크로네시아 연방
 - 1993.3.11. 아그레망 부여
 - 5.26. 신임장 제정
 - 투발루
 - 1993.3.29. 아그레망 부여
 - 7.26.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핀란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총무과 / 서구2과

MF번호 2023-2 / 18 / 1-77

1. 한국 정부는 1993.3.10. 김내성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주핀란드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핀란드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핀란드 정부는 1993.4.2. 김내성 주핀란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내성 대사는 1993.5.28. 코이비스토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겸임국(에스토니아)
 - 1993.5.26. 아그레망 부여
 - 8.26.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독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총무과 / 서구1과

MF번호 2023-2 / 19 / 1-44

1. 한국 정부는 1993.3.10. 김태지 외무부 연구위원을 주독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독일 정부는 1993.4.1. 김태지 주독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태지 대사는 1993.5.7. Seemann 독일 외무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6.30. 폰 바이체크 독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통령은 양국 간 통상과 경제협력 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가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2 / 20 / 1-22

1. 한국 정부는 1993.3.9. 황부홍 외무부 문화홍보심의관을 주가나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가나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가나 정부는 1993.3.19. 황부홍 주가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황부홍 대사는 1993.5.20. 가나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전달함.
4. 황부홍 대사는 1993.6.8. Arkaah 가나 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그리스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총무과

MF번호 2023-2 / 21 / 1-49



1. 한국 정부는 1991.12.30. 이승환 특허청장을 주그리스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그리스 정부는 1992.1.24. 이승환 주그리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승환 대사는 1992.6.1. 카라말리스 그리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동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대화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하루속히 통일이 성취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이 대사는 그리스의 한국전 파병에 사의를 표하고, 남북관계 등에 관해 답변함.
4. 겸임국(알바니아)
 - 1993.2.16. 아그레망 부여
 - 5.12.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제네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22 / 1-17

1. 한국 정부는 1993.3.8. 허승 외무부 차관보를 주제네바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제네바사무처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허승 대사는 1993.5.6. Petrovsky 유엔 제네바 사무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허승 대사는 한국이 신규 유엔 가입국으로서 국제 문제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기여 의지 천명
 - 동 사무처장은 최근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과 아울러 남북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이에 허 대사는 사무처장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대사파견 - 헝가리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구2과 / 총무과

MF번호 2023-2 / 23 / 1-80

1. 헝가리 정부는 1991.6.25. 박영우 주헝가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박영우 대사는 1991.9.2. Goncz 헝가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통령은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3. 겸임국(크로아티아)
 - 1993.3.2. 아그레망 부여
 - 5.25.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교황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2 / 24 / 1-44

1. 한국 정부는 1992.11.6. 박노영 주교황청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교황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교황청 정부는 1992.12.11. 박노영 주교황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박노영 대사는 1993.2.22.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교황은 1989년 방한을 회상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냄.

대사파견 - 아일랜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총무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25 / 1-17

1. 한국 정부는 1992.11.11. 박남균 주아일랜드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아일랜드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아일랜드 정부는 1992.12.9. 박남균 주아일랜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박남균 대사는 1993.1.27. Robinson 아일랜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총무과

MF번호 2023-2 / 26 / 1-38

1. 한국 정부는 1992.11.9. 장명관 외무부 연구위원을 주인도네시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2.12.12. 장명관 주인도네시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장명관 대사는 1993.2.15.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장 대사는 양국관계가 21세기를 맞아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동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의장국으로 남북대화 활성화는 물론 남남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이탈리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총무과 / 서구1과 / 중동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27/1-125

1. 한국 정부는 1991.12.30.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를 주이탈리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이탈리아 정부는 1992.1.16. 이기주 주이탈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기주 대사는 1992.4.30. Spadolini 이탈리아 대통령 권한대행(상원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이 대사는 동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현재 신장되고 있는 한국의 국력 및 통일한국의 잠재력 등에 비추어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72

4. 겸임국

- 몰타
 - 1992.5.19. 아그레망 부여
 - 8.13. 신임장 제정
- 이스라엘
 - 1992.11.10. 아그레망 부여
 - 1993.1.7.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일본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2 / 28 / 1-20

1. 한국 정부는 1993.3.9. 공로명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주일본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일본 정부는 1993.4.1. 공로명 주일본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공로명 대사는 1993.5.6. 오와다 일본 외무성 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공로명 대사는 1993.5.25. 아키히토 일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리비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총무과 / 중동2과

MF번호 2023-2 / 29 / 1-25

1. 리비아 정부는 1993.4.12. 김승호 주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김승호 대사는 1993.7.13. Mountasser 리비아 외무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모로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총무과 / 중동2과

MF번호 2023-2 / 30 / 1-36

1. 모로코 정부는 1991.6.21. 허리훈 주모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허리훈 대사는 1992.1.13. Hassan 2세 모로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국왕은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돈독한 양국관계를 기쁘게 여기며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3. 겸임국(모리타니)
 - 1993.5.11. 아그레망 부여
 - 8.13.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멕시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총무과 / 중미과

MF번호 2023-2 / 31 / 1-53

1. 한국 정부는 1992.11.11. 이상진 외무부 연구위원을 주멕시코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멕시코 정부는 1992.12.4. 이상진 주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상진 대사는 1993.2.24. Salinas 멕시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동 대통령은 1990.9월 노태우 대통령의 멕시코 공식 방문 이후 양국관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1993.11월경 한국을 공식 방문하겠다고 말함.
4. 겸임국(벨리즈)
 - 1993.3.2. 아그레망 부여
 - 6.21.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나미비아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3-2 / 32 / 1-221

1. 한국 정부는 1990.4.28. 송학원 외무부 서구·아중동 연구부장을 주나미비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나미비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주유엔대사를 통해 요청함.
2. 나미비아 정부는 1990.8.7.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90.8.18.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를 인사 발령함.
4. 송학원 대사는 1990.10.17. Nujoma 나미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Nujoma 대통령은 남북통일이 독일의 경우처럼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함.
 - 송 대사는 나미비아의 독립을 축하하고 번영을 축원하는 한국 대통령의 문안을 전달하고 남남협력 정신에 따라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경제협력 의사를 표명함.
5. 겸임국
 - 보츠와나
 - 1991.6.13. Masire 보츠와나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레소토
 - 1991.9.3. 아그레망 부여
 - 11.28. King Letsie III 레소토 국왕에게 신임장 제정
 - 앙골라
 - 1992.12.16. 아그레망 부여
 - 1993.2.26. 앙골라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네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총무과

MF번호 2023-2 / 33 / 1-16

1. 한국 정부는 1993.3.8. 성정경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을 주네팔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네팔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네팔 정부는 1993.4.21. 성정경 주네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성정경 대사는 1993.6.18. 네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네팔 국왕은 김영삼 대통령께 문안 인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임 기간 중 양국관계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함.

대사파견 - 필리핀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34 / 1-48

1. 한국 정부는 1992.11.9. 이창수 주필리핀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 12.16. 아그레망 부여
2. 이창수 대사는 1993.1.20. 마닐라에 부임하여 1.22. 로무로 필리핀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이창수 대사는 1993.2.4.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이 대사는 라모스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양국관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루마니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 / 35 / 1-28



1. 한국 정부는 1992.11.11. 박종상 주루마니아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루마니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루마니아 정부는 1992.12.8. 박종상 주루마니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박종상 대사는 1993.2.9. Melescnu 루마니아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박종상 대사는 1993.2.10. Iliescu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Iliescu 대통령은 체제 전환기에 있는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많이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동1과

MF번호 2023-2 / 36 / 1-34

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92.2.8. 나중배 주사우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나중배 대사는 1992.4.29. Sultan 사우디 부수상 겸 국방장관(외무장관 대리)에게 신임장 사본을 전달함.
3. 나중배 대사는 1993.5.25. Fahd 사우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Fahd 국왕 사정으로 신임장 제정식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신임장 제정을 하지 못한 다른 나라 대사들을 포함하여 총 14개국 대사들이 함께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스웨덴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총무과 / 서구2과

MF번호 2023-2 / 37 / 1-85



1. 한국 정부는 1992.11.12. 이시용 주스웨덴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스웨덴 정부는 1992.12.23. 이시용 주스웨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시용 대사는 1993.2.10. Gustav 스웨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한국 정부는 1993.3.10. 채의석 주스웨덴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스웨덴 정부는 1993.4.5. 채의석 주스웨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채의석 대사는 1993.5.26. Gustav 스웨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 겸임국(라트비아)
 - 1993.5.25. 아그레망 부여
 - 8.5. Ulmanis 라트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싱가포르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총무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2 / 38 / 1-20

1. 싱가포르 정부는 1993.4.7. 손명현 주싱가포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손명현 대사는 1993.5.24. 싱가포르에 부임함.
3. 손명현 대사는 1993.6.3. 워킴위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스리랑카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3-2 / 39 / 1-36



1. 한국 정부는 1993.8.16.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을 주스리랑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스리랑카 정부는 1993.10.1. 홍정표 주스리랑카대사에게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구두로 통보해옴.
3. 홍정표 대사는 1993.12.9. Wijetunga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홍 대사,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요청함.
 - Wijetunga 대통령은 최근 양국관계가 꾸준히 증진되고 다수의 한국기업이 투자 진출함으로써 경제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함.
4. 겸임국(몰디브)
 - 1993.12.23. 아그레망 부여
 - 1994.1.27. 겸임 발령

대사파견 - 세네갈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3 / 1 / 1-151

1. 한국 정부는 1991.12.27. 양동철 주호주공사를 주세네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세네갈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세네갈 정부는 1992.2.4. 양동철 주세네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양동철 대사는 1992.4.3. 세네갈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양동철 대사는 1992.4.15. Diouf 세네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양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면서 Diouf 대통령의 세네갈 민주화를 치하하고 양국 간 제반관계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함.
 - 세네갈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민주화 및 한국 경제발전에 경의를 표시하면서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간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세네갈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함.
5. 겸임국
 - 감비아
 - 1992.7.30. 아그레망 부여
 - 10.28. Jawara 감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말리
 - 1992.6.10. 아그레망 부여
 - 11.20. Alpha Oumar Konare 말리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카보베르데
 - 1992.5.8. 아그레망 부여
 - 11.11. Monteiro 카보베르데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기니비사우
 - 1992.5.18. 아그레망 부여
 - 1993.1.29. Vieira 기니비사우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스위스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2 / 1-60

1. 한국 정부는 1992.1.6. 강대완 주스위스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스위스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스위스 정부는 1992.1.31. 강대완 주스위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강대완 대사는 1992.3.26. Felber 스위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겸임국(리히텐슈타인)
 - 1993.3.5. 아그레망 부여
 - 6.13. 리히텐슈타인 대공 Hans Adam 2세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탄자니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총무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3 / 3 / 1-15

1. 한국 정부는 1992.11.6. 박부열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을 주탄자니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탄자니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탄자니아 정부는 1992.12.24. 박부열 주탄자니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박부열 대사는 1993.2.2. Mwinyi 탄자니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박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축원을 전달하고 양국 간 외교관계를 강조한 데 이어, 탄자니아 정부의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에 사의를 표명함.
 - Mwinyi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찬사와 비결을 묻고, 탄자니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함.

대사파견 - 우크라이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4 / 1-53



1. 한국 정부는 안현원 주독일공사를 주우크라이나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함.
2. 우크라이나 정부는 1992.12.2. 안현원 주우크라이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안현원 대사는 1993.1.26.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크라프추크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다할 것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한국 기업이 대우크라이나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아울러 양 국민 간의 역사, 전통,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다짐함.
 - 안 대사는 양국 간 제반관계 발전을 위하여 대사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함.
4. 겸임국(몰도바)
 - 1993.2.3. 아그레망 부여
 - 5.20. M. Sbnegur 몰도바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영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5 / 1-24

1. 한국 정부는 1993.3.9. 노창희 전 외무부차관을 주영국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영국 정부는 1993.4.2. 노창희 주영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노창희 대사는 1993.7.13.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노 대사는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영국 방문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함.
 - 동 여왕은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대사파견 - 미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6/1-74



1. 한국 정부는 1993.3.8. 한승수 전 상공부장관을 주미국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미국 정부는 1993.3.26. 한승수 주미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한승수 대사는 1993.6.23.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한국이 30여년 만에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것을 축하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함.
 - 88 올림픽 직전에 아칸소 주지사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음.
 - 한·미 간 협조관계에 만족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4. 겸임국(바하마)
 - 1993.6.24. 아그레망 부여
 - 12.14. Clifford Darling 바하마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우루과이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7/1-15

1. 우루과이 정부는 1992.11.18. 백태진 주우루과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백태진 대사는 1993.1.27. Abreu 우루과이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전달함.
3. 백태진 대사는 1993.1.28. Lacalle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백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정중한 안부를 전달한바, 동 대통령은 이에 감사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달해 줄 것을 요망함.
 - 동 대통령은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될 것과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1995년 개방 예정인 남미공동시장 관련 동 대사의 우루과이 부임이 거대한 남미공동시장의 대사로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함.

대사파견 - 예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총무과

MF번호 2023-3/8/1-51



1. 한국 정부는 1993.3.8. 조규태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을 주예멘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예멘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예멘 정부는 1993.4.3. 조규태 주예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조규태 대사는 1993.6.6. 예멘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조규태 대사는 1993.7.6. Ali Abdulla Saleh 예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조 대사는 한국 대통령의 Saleh 대통령에 대한 안녕과 예멘의 번영을 축원하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Saleh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양국관계 증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5. 겸임국(지부티)
 - 1993.6.20. 아그레망 부여
 - 9.27. Hassan 지부티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부임 - 알바니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9 / 1-87

1. 알바니아 정부는 1992.11.2. Tahir Elezi 주한 알바니아대사(중국 상주)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11.17. Tahir Elezi 주한 알바니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Tahir Elezi 대사는 1993.4.28.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방글라데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3 / 10 / 1-75

1.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3.6.6. Fazlur RAHMAN 주한 방글라데시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6.28. RAHMAN 주한 방글라데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Fazlur RAHMAN 대사는 1993.9.24.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부룬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11 / 1-83

1. Tharcisse Ntakibirora 대사(초대, 중국 상주)

- 1991.10.15. 아그레망 요청
- 11.19. 아그레망 부여
- 1992.5.26. 신임장 제정

2. Proce Bigirimana 대사(제2대)

- 1993.10.8. 아그레망 부여

대사부임 - 보츠와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12 / 1-49

1. 한국 정부는 1992.10.6. Edwin T. Matenge 주한 보츠와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Edwin T. Matenge 대사는 1993.1.26.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Edwin T. Matenge 대사는 1993.1.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브루나이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13 / 1-95

1. 브루나이 정부는 1993.3.3. Mustapha 전 외무부 의전 및 영사국장을 주한 브루나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3.26. Mustapha 주한 브루나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Mustapha 대사는 1993.12.16.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에콰도르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MF번호 2023-3 / 14 / 1-124

1. 에콰도르 정부는 1992.10.22. Luis Ortiz Teran 에콰도르 외무부 대외정책상설위 위원을 주한 에콰도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11.17. Teran 주한 에콰도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Teran 대사는 1993.1.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대통령은 한·에콰도르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온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그간 에콰도르가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 Teran 대사는 본인이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으로서 근무할 당시 주에콰도르대사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엔에 상정되는 한국문제를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한국 부임 시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언급함.



대사부임 - 피지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15 / 1-80

1. 피지 정부는 1992.8.6. Robin H. Yarrow 피지 외무차관을 주한 피지대사(도쿄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8.28. Robin H. Yarrow 주한 피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Robin H. Yarrow 대사는 1993.6.29.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프랑스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16 / 1-108



1. 프랑스 정부는 1993.3.5. Olivier Gaussoz 주한 프랑스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4.2. Olivier Gaussoz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6.14. 프랑스 정부는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 포기 통보
3. 프랑스 정부는 1993.6.18. Dominique Perreau 주한 프랑스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4. 한국 정부는 1993.7.23. Dominique Perreau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5. Dominique Perreau 대사는 1993.12.16.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김영삼 대통령, 양국 간 동반자 관계 발전 언급
 - Perreau 대사는 대법원장,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면담
 - 양국관계 발전방안 협의

대사부임 - 과테말라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3 / 17 / 1-97

1. 주과테말라대사는 1993.1.13. 과테말라 정부가 Jacob Coyun 주로스앤젤레스 과테말라 총영사를 주한 과테말라대사로 내정, 한국 정부에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Rendon 주한 과테말라대사는 1.16. 의전장을 예방, Jacob Coyun 주로스앤젤레스 과테말라 총영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2.16. Jacob Coyun 신임 주한 과테말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oyun 대사는 1993.11.2.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Coyun 대사는 대통령 예방 시 양국관계의 발전, 특히 경험 및 통상증진을 요망함.


대사부임 - 레바논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동1과

MF번호 2023-3 / 18 / 1-65

1. 한국 정부는 1987.10.28. Samir El Khoury 주한 레바논대사(일본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Samir El Khoury 대사는 1993.1.26.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전달함.
3. Samir El Khoury 대사는 1993.1.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룩셈부르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19 / 1-91

1. 한국 정부는 1993.1.28. Francois Bremer 주한 룩셈부르크대사(도쿄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Francois Bremer 대사는 1993.3.20. 방한하여 외무부장관과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전달함.
3. Francois Bremer 대사는 1993.11.2.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말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20 / 1-40

1. 말리 정부는 1993.1.28. Kafouguna Kone 주한 말리대사(중국 상주)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5.18. Kafouguna Kone 주한 말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말리 정부 정권의 성향 불투명 및 북한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3개월 이상 보류했다가 아그레망 부여
3. Kafouguna Kone 대사는 1993.12.16.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말라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21 / 1-38

1. 한국 정부는 1993.6.28. Zimani D. Kadzamira 주한 말라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Zimani D. Kadzamira 대사는 1993.12.16.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멕시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3 / 22 / 1-74

1. 멕시코 정부는 1993.2.3. Manuel Uribe Castaneda 주한 멕시코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3.3. Uribe 주한 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Uribe 대사는 1993.6.29.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네팔

생산연도 1986-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3 / 23 / 1-111

1. Narayan P. Arjal 주한 네팔대사(제3대: 도쿄 상주)

- 1986.12.9. 신임장 제정
- 1991.4.8.~10. 이임 인사차 방한
 - 외무부차관 예방, 아주국장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예방(수교훈장 흥인장 전수)

2. Bharat P. Dhital 주한 네팔대사(제4대)

- 1992.2.15. 아그레망 부여
- 1993.1.27. 신임장 제정

대사부임 - 뉴질랜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24 / 1-54

1. 뉴질랜드 정부는 1992.9.8. Peter Kennedy 국제문제보좌관을 주한 뉴질랜드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10.6. Peter Kennedy 주한 뉴질랜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Peter Kennedy 대사는 1993.4.28.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필리핀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25 / 1-55

1. 한국 정부는 1993.4.2. Francisco Benedicto 주한 필리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Francisco Benedicto 대사는 1993.6.29.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김영삼 대통령 언급요지
 - 전통우방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기대
 - 1993.5월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방한이 양국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음을 강조
 - 한·아세안 간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며,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 협조 요청

대사부임 - 파나마

생산연도 1986-1990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미과

MF번호 2023-3 / 26 / 1-204

1. Jean A. Estripeaut Cordovez 주한 파나마대사(제4대)

- 1986.8.5. 아그레망 부여
- 11.26. 신임장 제정
 - 전두환 대통령은 1962년 한·파나마 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훌륭히 발전되어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파나마 측 지지에 사의 표명

2. Ali Alvarez Sucry 주한 파나마대사(제5대)

- 1988.9.15. 신임장 제정
- 1990.2월 이임
 - 1989.12월 파나마 신정부 출범으로 노리에가 정권에서 파견한 대사 소환계획에 따라 이임

대사부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27 / 1-53

1.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992.12.2. Alexander Van Zyl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1.18. Alexander Van Zyl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Alexander Van Zyl 대사는 1993.4.28.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스웨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구2과

MF번호 2023-3 / 28 / 1-142

1. 스웨덴 정부는 1992.3.18. Hans Gronwall 주한 스웨덴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4.9. Hans Gronwall 주한 스웨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Hans Gronwall 대사는 1992.11.25.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수단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 / 29 / 1-39

1. 수단 정부는 1993.2.13. 이타야 아콜 드 두트 (Yithaya Acol De Dut) 수단 외무부 문화국장을 주한 수단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3.12. 두트 주한 수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두트 대사는 1993.9.24.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미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북미1과

MF번호 2023-3 / 30 / 1-287

1. 미국 정부는 1993.6.30. James Laney 주한 미국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7.2. James Laney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James Laney 대사는 1993.11.2.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베트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4 / 1 / 1-48

1. 베트남 정부는 1993.4.23. 구엔 푸 빈 (Nguyen Phu Binh) 주한 베트남대사대리를 주한 베트남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3.5.6. Binh 주한 베트남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구엔 푸 빈 대사는 1993.6.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베네수엘라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MF번호 2023-4 / 2 / 1-206

1. Gaudi Eli Gimenez Rodriguez 주한 베네수엘라대사(제2대)

- 1985.11.28. 한국 정부, 아그레망 부여
- 1986.5.2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2. Julio Cesar Pineda 주한 베네수엘라대사(제3대)

- 1992.10.29. 한국 정부, 아그레망 부여
- 1993.9.24.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부임 - 잠비아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4 / 3 / 1-178

1. 잠비아 정부는 1990.9.11. Boniface Salimu Zulu 주일본 잠비아대사를 주한 잠비아대사 (도쿄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0.10.26. Zulu 주한 잠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Zulu 대사는 1991.2.21.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잠비아 정부는 1992.6.18. Joe Mwale 주일본 잠비아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92.7.2. Mwale 주한 잠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Mwale 대사는 1993.4.28.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영사위임장 발급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4 / 4 / 1-118

1. 영사위임장 발급 현황

- 최근배 주마이애미총영사, 손상하 주리아드총영사, 강신무 주나고야총영사, 박명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1993.1.7.)
- 이정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정태익 주카이로총영사, 김항경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2.3.)
- 양세훈 주호놀룰루총영사, 박경태 주하깃나총영사, 윤해중 주상하이총영사, 우종호 주후쿠오카총영사, 황길신 주함부르크총영사(3.17.)
- 남홍우 주홍콩총영사, 이창호 주시카고총영사(4.8.)
- 김형필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영사(8.4.)
- 이현홍 주뉴욕총영사, 강종원 주벤쿠버총영사, 김재규 주베를린총영사(8.27.)
- 허방빈 주호치민총영사, 김영식 주앵커리지총영사(8.31.)
- 박양천 주휴스턴총영사(10.11.)
- 임대택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12.17.)

2. 한·일본 간 영사위임장 제출 폐지

- 일본 외무성은 그간 영사위임장을 제출하고 일본 외무성이 영사 인가장을 교부해오던 관행에서 해당 공관과 일본 외무성간 공한 교환으로 대체할 것을 한국 측에 1993.5.26. 제의
 - 한국 외무부는 의견 간소화 차원에서 일본 측 제의를 즉시 수락

장영수 주한 지부티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4 / 5 / 1-24

1. 한국 정부는 1992.6.1. 장영수 대우건설 사장을 주한 지부티 명예영사로 임명하기 위한 임명 동의 및 인가장을 발급함.
 - 3.27. 지부티 정부, 주일본대사관 앞 구상서로 임명 요청
2. 지부티 정부는 1993.3.10. 장영수 사장의 명예영사직 계속 수행 의사 여부 확인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확인 결과, 장영수 사장은 명예영사 임명 이후 지부티 측으로부터 관련 업무지침이나 연락이 전무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일본 주재 지부티대사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

명예영사 접수 - 아주지역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4 / 6 / 1-69

1992~93년 중 아주지역의 주한 명예영사 임명 관련 문서임.

1. 주부산 방글라데시 명예영사 임명

- 임명 배경
 - 부산지역 소재 한국업체들의 대방글라데시 경제 진출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측은 주부산 명예총영사로 부산 거주 경제인 1인 임명을 추진
- 1992.10.1. 김상년 부산시 역도연맹 회장에 대해 부산 주재 방글라데시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 방글라데시 측은 현 서울 주재 명예총영사의 활동이 부진, 교체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인을 명예총영사로 격상시켜줄 것을 요청해옴.
 - 동 명예총영사(대진건업 회장)는 11.2.부터 명예총영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부산상공회의소는 1993.7.22. 동인이 사적인 이유로 더이상 명예총영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외무부에 알려옴.

2. 주한 솔로몬제도 명예영사 임명

- 1992.11월 서울 주재 솔로몬제도 명예영사관 개설 및 1993.1월 박영주 이견산업 사장에 대해 주한 솔로몬제도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3. 주한 몰디브 명예영사 추진

- 몰디브 정부는 1993.6월 주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주한 몰디브 명예영사관 개설 및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에 대해 주한 몰디브 명예영사 임명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 요청
 - 추후 동 명예영사의 태도와 능력 등에 의문이 제기되어 보류

명예영사 접수 - 구주지역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4 / 7 / 1-69

1992~93년 중 유럽 국가의 주한 명예영사 임명 관련 내용임.

1. 주한 스웨덴 명예영사

- 1992.8.6. 주한 스웨덴대사관은 부산 주재 명예영사관 설치 결정 및 신임 명예영사 내정 통보
- 1993.2.8. 주한 스웨덴대사관은 유재진 신임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요청
- 2.10.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2. 주한 스페인 명예영사 임명

- 1993.6.3.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부산 주재 자국 명예영사를 내정하고 외무부에 임명 동의를 요청
- 6.7.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기존 명예부영사를 명예영사로 승격 의사 통보
- 7.9. 외무부는 명예영사 승격과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 회신
- 7.29.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양용치 신임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요청
- 8.4.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3. 주한 스위스 명예영사 임명

- 1993.5.14.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부산 주재 명예영사관 설치 및 명예영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 요청
- 6.28. 외무부는 명예영사관 설치 및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 회신
- 9.6. 스위스 정부는 강수현 신임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요청
- 9.9.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명예영사 접수 - 미주지역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3-4 / 8 / 1-139



1. 트리니다드토바고

-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는 1993.9.28. 최승웅 주한 트리니다드토바고 명예영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11.29. 동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을 발급함.

2. 과테말라

- 과테말라 정부는 1993.8.23. 이종균 동아대 의과대학 교수를 부산 주재 과테말라 명예영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11.11. 동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을 발급함.

122

3.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빈센트 정부는 1993.7.29. 김재기 주한 세인트빈센트 명예영사의 임명을 알려오면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11.29. 동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을 발급함.

4. 볼리비아

- 볼리비아 정부는 1992.12.2. 엘림교회 담임목사 유영일을 광주 주재 볼리비아 명예영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명예영사 임명 - 구주지역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4 / 9 / 1-126

1. 핀란드

- Seppo Juha Horsti 주헬싱키 명예총영사
 - 1985.7.22. 임명
 - 1989.10.26. 지병으로 사망
- Juhani Ahvenainen 주라티 명예영사
 - 1985.7.22. 임명
 - 1990.11.16. 소급 발령하여 1991.11.15. 임기 종료
- Seppo Olava Kovala 주탐페레 명예영사
 - 1990.2.2. 임명

2. 에스토니아

- Pritt Maran 주탈린 명예영사
 - 1993.2.15. 임명
 - 임기: 1993.3.1.~98.2.28.(5년)
 - 탈린 명예영사관 개관(4.29.)

명예영사 임명 - 중미지역

생산연도 198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4 / 10 / 1-235



1. 바하마

- 주미국대사는 1987.7월 겸임국인 바하마 출장 시 Maynard 바하마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은 사위인 Maxwell Gibson을 주바하마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요청해 왔으며, 동인을 주바하마 명예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10.17. 동인에 대한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2. 온두라스

- 주과테말라대사는 1992.6.8. 겸임국인 온두라스 내 산페드로술라 주재 명예총영사로 유력 상공인 Juan Kattan을 임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10.27. 동인을 주산페드로술라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3. 수리남

- 주수리남대사는 1993.6.28. Reinier Jozef Van Ommereren을 수리남 파라마리보 주재 명예영사로 임명하기 위한 동의 공한(6.21.자)을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7.19. 동인을 주파라마리보 명예영사로 임명함.

4. 니카라과

-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93.6.14. 니카라과 마나구아 주재 명예영사로 Enrique Deshon을 추천해옴.
- 니카라과 정부는 7.13.자 공한으로 Enrique Deshon의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 외무부는 8.31. 동인을 주마나구아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무관접수 - 멕시코

생산연도 1989-1992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4 / 11 / 1-11

1. 주한 상주무관 설치

- 주멕시코대사는 1989.5.16. 주재국 국방부가 초대 주한 상주무관으로 Jaime Castaneda Bravo 중령을 임명, 동인은 5.15. 부임 예정임을 보고함.

2. 주한 무관 파견 관련 멕시코 정부 입장

- Hurtado 주한 멕시코대사관 서기관은 1991.1.31. 외무부 중미과장을 면담하고, 아래 내용을 전달함.
 - 멕시코 정부는 서울 주재 무관으로 Jose Jorge Rodriguez Carbajo 육군 대령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 또한, 멕시코 정부는 상기 Rodriguez 대령 외에 해군장교 1명을 무관으로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통보 예정임.
- 외무부는 2.2. 주멕시코대사관에 주재국 정부가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무관 2명을 파견하려는 계획의 사실 여부와 동 계획 추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주한 해군무관 임명

- 주멕시코대사는 1992.9.18. 주재국이 Elias Padilla Salazar 해군 부제독을 주한 해군무관으로 임명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주한 외교단에 대한 면세문제 및 제도개선 검토

생산연도 1985-1993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3-4 / 13 / 1-336

1. 주핀란드대사관 관저 매입 관련 인지세 면제 문제 검토(1986.10월, 외무부 국제법규과)

- 주핀란드대사관 관저 매입 관련, 핀란드 정부는 관계 법규상 부동산 매입 시 매입가액 6%의 인지세를 면제 받으려면, 향후 핀란드 정부가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면세 혜택이 부여되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
- 주핀란드대사관 관저 매입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상호주의 적용이 아니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관계규정에 근거를 둔 권리로서 주장할 필요
 - 핀란드 정부도 동일한 근거에서 한국 내 공관 청사 또는 관저 매입 시 인지세 면제 요구 가능
 - 한국의 인지세법상 외국공관 및 공관장 관저에 대해 명시적인 면제 규정은 없으나, 그 동안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면제를 부여

2. 외교관 유희음식요금 등에 대한 과세문제 검토(1990.1월, 외무부 특전담당관실)

- 문제 사례
 -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하얏트호텔 레스토랑)
 - 주한 독일대사관 직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주 팔레스호텔 레스토랑)
- 향후 조치
 - 면세제도 지정제도 실질화를 재무부에 요청
 - 해당공관에 대해 면세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현행법상 면세가 불가함을 설명
 - 동시에 면세업체 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안내

3. 수입차량 완전 면세매도 제한기간 단축에 관한 검토(1992.8월, 외무부 의전장실)

- 현행 한국 관세법은 외교관이 외제차를 면세로 수입한 경우 5년 경과 후 완전 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
 - 주한 외교관들은 한국 근무기간이 통상 3년 전후임과 여타 대다수 국가의 상대적으로 짧은 제한기간에 비추어 동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문제 제기
- 외무부는 관련 조사를 통해 주한 외교단의 상기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제한기간을 3년으로 단축

각국의 외교관 면세제도 조사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3-4 / 14 / 1-170

1989~93년 중 외국의 외교관 면세와 외교특권 면제제도를 파악한 내용임.

1. 외교관 면세제도에 대한 파악

- 1989.1월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외교관의 면세제도 관련 아래 사례 파악을 지시
 - 외교관이 받는 각종 세금의 종류, 세율 및 면세 범위
 - 면세카드 발급 대상자와 사용 범위
 - 면세 방법
 - 유희, 음식행위에 대한 별도의 세금 유무 및 동 세金的 명칭, 세율 및 면세 범위
- 1989.1~90.1월 다수 공관에서 주재국의 면세제도를 보고

2. 외교관에 대한 특권 면제에 관한 각국의 제도 파악

- 외교관 음주 운전 시 특권면제 여부 등 포함 파악 지시
- 1992.10~93.9월 영국, 독일, 러시아 등 공관에서 파악 보고

국제운전면허 및 교통 관련 법규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3-4 / 15 / 1-118

1989~93년 중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외교관 면책 적용 및 외국 운전면허 인정 관련 내용임.

1. 외교관 면책 적용 검토 사례

- 각국의 교통법규 위반 처리 동향
 - 1989.12.1. 교통법규 위반 관련, 호놀룰루 법원은 외국영사에 대해 외교관 면책 미적용
 - 프랑스 당국은 외교관을 일반인과 차별하지 않으나, 법 적용 시 관대한 경향

2. 한국 내 외국 운전면허 인정

- 외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여 한국면허증 발급
 - 거주증명서, 외국 운전면허증(번역 포함), 여권 사본 등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신체검사 완료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외교관은 면제) 한국면허증 발급
- 국제면허증은 1년 유효 한시적 면허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국면허증 발급 불가
- 외국 운전면허 인정으로 발급된 한국면허증에 근거한 국제면허증 발급은 불가
 - 일본, 태국, 벨기에, 미국, 브라질, 인도, 독일, 싱가포르 등은 국제면허증 발급

중국 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 특권면제 문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3-4 / 16 / 1-178

1991~93년 중 한·중국 간 대표부 교환개설 합의에 따라 서울에 설치된 CCOIC(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의 특권면제에 관한 내용임.

1. 한·중국 간 대표부 교환 개설에 따른 특권면제 부여

- 1990.10.20. 한·중국 양국은 영사 기능을 갖는 대표부 교환개설에 합의하고, 동 대표부 및 그 직원에 대해 외교 특권면제에 준하는 대우 상호 부여 합의
- 주한 중국대표부로 설치된 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 관세 면제, 세관 검사 면제, 내국세 및 공과금 면제, 은행구좌 개설 등 특권면제 부여
 - 1991.2월부터 코트라에 동 대표처 사무실 입주 및 서대유 대표 등 정식 직원 13인, 고용원 3인 등 부임
- 1991.4월 CCOIC 주서울대표부 개설

2. CCOIC 주서울대표부 관련 특권면제 문제

- 자동차 등록 문제
 - 정식 외교관계가 아닌 관계로 동 대표부 및 그 직원의 자동차의 등록은 “외”가 아닌 “협”으로 별도 분류된 자동차 번호판으로 등록
- 임차료 부가세 면제 문제
 - 중국 내 한국대표부가 임차료에 포함된 공상통일세를 납부하는 관계로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대표부의 부가세 면제 거부
- 외교관 면세점 이용 및 면세카드 부여
 - 외교특권 향유자에 대해 외교관 면세점 이용 허용 및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면세카드 부여
- 동 대표부 및 그 직원의 면세유 구입 허용, 김포공항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 등 혜택 부여

3. CCOIC 주서울대표부에 대한 특권면제 종료

- 1992.8월 한·중국 수교로 정상 외교관계가 이행됨에 따라 동 중국대표부의 특권면제 종료를 추진
 - 코트라와 중국국제상회 간 체결된 설치협정, 양해각서 및 그 시행세칙 등 3개의 공식 문서를 종료시키는 별도 합의 검토
- 1993.4.22.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에 양 대표부가 수교로 인해 코트라-CCOIC 명으로 상호 설치한 대표부는 민간기구가 되어, 더 이상 면세대우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외교공한을 전교한바, 4.30. 한국 측은 중국 측 의견에 이견 없으며, 기구입된 자동차 및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상호 면제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회신

외교관 차량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조사. 전2권 (V.1 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4 / 17 / 1-194

1993.2월 중 외교관 차량 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를 조사한 문서임.

1. 외무부, 전 재외공관에 1992.12월 개정된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 차량의 취득, 등록 및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호주의 적용 원칙을 통보하고, 주재국의 상세한 차량 규칙과 상호주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2. 1993.2월 각국 공관은 상기 관련 내용을 보고함.

외교관 차량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조사. 전2권 (V.2 3-11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4 / 18 / 1-187

1993.3~11월 중 외교관 차량 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제도를 조사한 내용임.

1. 공관별 현황보고(1993.3~11월)

- 각 공관별 차량 규칙 및 상호주의 적용 의견 보고

2. 불법사용 외교관 차량 수배

- 1993.2.15. 주한 독일대사관, 전 주한 독일대사관 주재관의 개인용 차량 번호판 회수, 차량 운행 중지 요청
 - 3.3. 외무부, 경찰청에 상기 사실 통보하고 필요 조치 요청

3.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및 직원의 특권면제 부여 범위

- 대표부 및 직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면제 부여
- 한·대만 간 합의사항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편의 제공

주한공관 외교차량 번호판 개정

생산연도 1987-1993

생산과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5 / 1 / 1-76

1987~93년 중 주한공관 외교차량 번호판 개정 관련 내용임.

1. 1987년도 주한공관 차량 번호판 개정 검토(안)

- 국산 차량(1)과 외국산 차량(0)의 구분을 폐지하고, 차종별(승용차, 버스, 화물) 구분을 두 자리로 함.
- 차량 소유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외, 영, 국, 준)을 폐지하고 '외' 로 통일
- 5자리 번호(공관별 고유번호 2자리, 차량 고유번호 3자리)를 4자리로 단축
- 사용자 지위, 공용/사용 등에 따라 구분하던 바탕과 글자를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통일함.
- 기타 변경사항
 - 뒷면 번호판 1매는 반사체로 의무화
 - 번호판의 위치를 제작 시부터 고정화
 - 번호판의 규격 확대(600mm*280mm), 문자 폭 확대(12mm)
 - 교체 시기: 1987.7월 이후 일시 교체

2. 1993년도 주한공관 차량 번호판 개정 검토

- 개정 사유: 국내 상주공관 및 국제기구 증가(1993.1월 현재 92개, 등록 차량 1,791대)
- 개정 내용
 - 차종별 구분 존치
 - 자동차 등록관청(서울, 부산, 제주) 기호 폐지
 - 외교관 번호표 일련번호 체계를 5자리로 함.
 - 야간 반사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을 시험 운영하기 위해 외교관용 자동차 등록 번호표를 야간 반사 번호판으로 교체
 - 번호판 색상: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
 - 용도표시 기호: 외교, 영사, 준외, 국기, 협정, 준영
 - 시행 시기: 1993.9.1.부터 시행, 번호판은 1993.12.31.까지 교체

외교센터 내 국제외교관하우스(IDH) 기능 연계추진 검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5 / 3 / 1-48

1993년 중 외교센터 내 IDH(국제외교관하우스) 설립을 검토한 내용임.

1. 주한 외교단의 IDH 설립 건의(1992.5.1.)

- 51명의 주한 외교단은 원활한 외교활동 수행과 외교관 상호 간의 친선 유지를 위해 IDH 설립을 건의
- IDH에 대해 주한 외교사절에 준하는 편의 제공 요청

2. IDH에 대한 외무부 입장(1993.9.7.)

- 외무부는 1991년부터 현 외교안보연구원 옆 부지 8,060평에 외교센터 건립을 추진 중
- 현재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우나, 민자나 정부예산으로 외교센터를 설립하면 IDH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외교센터는 IDH보다 포괄적인 기능 수행 가능
-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외교센터 건립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여, 외교센터가 IDH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원각사 복원사업 추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5 / 4 / 1-40

1992~93년 중 원각사(정동극장) 복원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문화체육부가 1992.4월 주한 미국대사관저 인접지역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할 계획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사전협의를 요청함.

2. 복원계획 개요

- 위치: 서울 중구 정동 8-11번지(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접속)
- 시설규모: 지하 2층, 지상 1층, 객석 수 400석
- 부지: 158.6평
- 공사기간: 약 1년
- 소요예산: 약 50억 원

3. 협의 과정

- 외무부는 1992.12.4. 주한 미국대사관을 접촉, 한국 측의 원각사 복원계획 통보
 - 대사관저의 보안 및 주변 경관에 대한 배려, 공사 중 예상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 등 노력을 설명하고, 동 사업 추진에 대한 미국 측의 양해를 촉구
- 미국 측은 동 계획에 원칙적으로 이견은 없으나, 도로 주차난과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착공 전에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 건물 완공 후 실제 사용 목적, 공연 시간, 공연 빈도 등을 통보해줄 것을 요망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3.1.12.자 공한으로 아래사항 요청
 - 대사관저와 원각사 부지 사이에 담장 설치
 - 대사관 소속 차량에 대해 양방 통행 허가
- 문화체육부, 1993.3월 미국 측 요청사항을 수용, 검토한다는 입장 전달

광주 소재 미국문화원 이전 요구 민원 및 조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5/5/1-89

1993년 중 광주 미국문화원 이전 요구 민원 관련 내용임.

1. 민원 접수 및 처리 요청

- 정부합동민원실은 1993.6.17. 대통령비서실에 “광주직할시 소재 미국문화원의 이전 요구”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면서 외무부가 동 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 내 담당부서 지정

- 외무부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은 부내 업무 분장에 관한 이견 관련, 1차적으로 해당 지역국 소관으로 하되, 관련 실·국이 공동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정함.

3. 민원에 대한 회신

- 외무부 북미1과는 1993.7.24. 민원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광주시장에게 전달함.
 - 외무부는 광주시 등에 현지 실태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바, 동 시설 이용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동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광주시 의견을 참작하여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임을 첨언함.

4. 민원에 대한 의견 제출

- 광주시는 1993.7.31. 아래 내용을 외무부에 전달함.
 - 광주시가 민원인 대표의 의견 청취,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미국문화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문화원 이전이 어려운 실정임을 설득함.
 -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로 하고, 동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함.

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 소유권 명의 이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5 / 8 / 1-41

1992.12.31.자로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분리에 의하여 구 체코슬로바키아연방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한 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 명의로의 변경(외국인 토지권리 취득 변경 허가) 허가 관련 내용임.

1. 외국 소유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 요청

- 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은 1993.2.10. 서울 용산구 한남동 389-1 외 2필지(면적 412평방미터)의 토지소유권을 주한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대사관에서 주한 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2. 내무부는 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의 명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 1993.2.19. 외무부에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 2.24. 이의 없음 통보

3. 내무부는 1993.3.5.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에 대한 토지권리 취득 변경 허가를 통보함.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인접지역 건물 신축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3-5 / 10 / 1-98

1993년 중 주한 사우디대사관 인접지역에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문제 관련 협의 내용임.

1.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1992.6.8.자 외무부에 보낸 공한을 통해 대사관과 인접한 지역에 신축될 상가 건물이 대사관 사무실과 직원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통보함.
2. 주한 사우디대사관은 1993.4.9.자 공한을 통해 아래 문제점들에 대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함.
 - 동 대사관 인접지역 내 4층 건물 신축으로 동 대사관 내부가 투시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
 - 지하 굴토공사 등으로 인해 대사관 건물의 벽 및 지하 수도관 등이 손상된 데 대한 수리 및 안전조치 요망
3. 외무부는 1993.6.19.자 공한을 통해 관련 조치사항을 주한 사우디대사관에 전달함.

북방정책 관련 보고 및 자료. 전2권 (V.1 1991)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구1과 /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5 / 12 / 1-249

1991년 중 북방외교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자료임.

1. 주요 내용

- 냉전 구도 종식으로 주변질서 변화
 - 1989년 헝가리와 수교함으로써 북방외교 시작, 소련·중국 간 관계 개선으로 발전
 -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 외교의 새로운 과제 등장 및 대응
 - 새로운 질서에 주도적 대응, 주변 4강과의 전 방위 외교, 미국·일본의 대북한 관계 개선 대응
 - 국제적 여건 활용 통일 문제 접근, 북한 변화 유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
 - 안보외교 지속과 실리 경제외교 추구

138

2. 보고서 및 자료

- 외무부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외정책 방향(1991.1월)
 - 중·동구권 국별 경제 현황 및 전망(1991.6월)
 - 대동구권 관계 현황(1991.7.2.)
 - 북방외교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1991년 여름)
 - 북방정책의 평가보고서(1991.11월)
 - 북방외교 추진 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1991.11월)
 - 북방외교 내실화(1991.11월, 12월)
 - 한·중·동구 국가 관계
 - 1991년 외무장관회담 결과 후속조치 현황
 - 북방외교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 경제기획원
 - 북방정책의 효과분석 작업계획(1991.11월)
 - 북방정책의 성과와 전망 작업계획(1991.11월)

북방정책 관련 보고 및 자료. 전2권 (V.2 1992-93)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구1과 /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5 / 13 / 1-346

1992~93년 중 북방외교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자료임.

1. 경제기획원

- 북방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장기발전 전망(1992.2.10.)
-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협력사업 지침 개정(1992.8월)

2. 외무부

- 북방외교의 내실화(1992.2월)
- 북방정책의 외교적 성과와 추진방향(1992.2월, 6월)
- 통일과 북방외교(1992.9월)
- 북방정책의 외교적 성과와 추진방향(1992.9월, 11월)
- 한·소련 간 외무장관급 이상 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 한·중·동구 간 외무장관급 이상 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 북방외교(1993.1.14.)

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 제6공화국 5년 동안의 국정 성과 보고 및 마무리 계획(1992.12.28.)

4. 북방정책보고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2.11.24. 청와대
- 참가자: 대통령, 정부, 정당, 기업, 언론, 학계,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 대표 220여 명
- 기관별 보고 내용
 - 외무부: 북방정책의 외교적 성과와 전망
 - 통일원: 통일정책 추진성과
 - 경제기획원: 북방경제정책의 성과와 추진방향
 - 연세대학교: 북방외교정책의 전망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방경제협력의 중장기 전망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환경의 전망과 과제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관련 대책 및 조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 북미1과

MF번호 2023-5 / 16 / 1-120

1993년 중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이라크 공습 동향 및 한국 입장 표명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93.1.13. 미·영·프랑스 3국 항공기, 이라크 남부 지대공미사일 기지 및 부대시설 8개 지점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 단행
 - 1993.1.14. 주한 미국대사관, 동 공습 사실을 외무부에 공식 통보
 - 1993.1.14. 외무부 중동아국장 명의 구두 논평 발표
- 1993.1.18. 미국, 이라크 바그다드 근교 핵 농축 시설 부품제조 공장에 약 40발의 크루즈미사일 발사
- 1993.1.18. 미·영·프랑스 3개국, 이라크 남부 비행금지구역 내 지대공미사일 기지 및 북부 방공포대에 대한 공습 단행
- 1993.6.29. 미국, 이라크 정보본부 공격(6.27.)에 이어 이라크 대공포대 레이더 기지에 미사일 발사

2. 사태 분석

- 미국 전투기의 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초계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사건
- 이라크의 대미 군사대응 능력 한계 고려 시 보복 가능성 희박

3. 한국 입장

-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하나, 이라크가 국제법에 입각한 관련 유엔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

한국의 대팔레스타인(PLO) 정책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동2과

MF번호 2023-6 / 2 / 1-88

1992~93년 중 한국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관련 내용임.

1. 팔레스타인과의 외교관계 수립 문제

- 팔레스타인 측, 한국 측에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한다는 입장 전달
 - 주예멘대사는 1992.12.10. 팔레스타인 측이 Rabah 주예멘 팔레스타인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워싱턴 D.C. Palestine Information Center), 일본(팔레스타인 사무실) 등 서방국에서 부여하고 있는 수준의 대우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비공식적으로 한국 상주를 원할 경우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왔다고 보고
 - 주튀니지대사는 12.28. Yahya 팔레스타인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을 통해 팔레스타인 측 구체적 입장을 재확인
- 한국 정부는 외교관계 수립이나 국가승인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국익에 합치되는 경우, 국제법상 요건 구비에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으나, 당시 제반 여건상 팔레스타인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2. 대응 방침

- 팔레스타인 측이 한국과의 수교를 재차 요청했을 경우, 우선 비정치적 성격의 이익대표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허용을 검토하되, 이후 중동평화회담 진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속성 있게 대응함.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6/4/1-128



1992~93년 한국 및 각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관련 문서임.

1. 한국 외무부 및 주재공관의 평가

- 아프리카 정세
 - 지역분쟁, 민주화, 경제개발, 지역협력 등 분석
 - 제반 분야에서 상황이 열악하다고 평가
- 대아프리카 정책 방향
 -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 남북한 대결 탈피
 - 경제협력 증대
 - 기업진출 지원
 - 지역 및 다자 협력 도모

142

2. 각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동향

- 냉전 종식 후 구주 및 북미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
 - 미국·소련 대결 관점에서 탈피하여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검토하나, 미국의 관심은 저하
 - 영국 및 프랑스는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 독일은 새롭게 시도
 - 다수가 인권 및 민주화, 개발협력 및 지속발전, 분쟁해결 및 평화정착 등을 위한 기여 약속
- 일본이나 중국은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마련을 시도
 - 일본은 1993.10월 TICAD(아프리카개발을위한도쿄회의) 발족
 - 중국은 고위인사 교류 지속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유지 및 강화 노력 지속

한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 방안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3-6 / 5 / 1-84

1993년 중 한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방안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임.

1. 대중남미 관계 강화방안(1993.1월, 미주국)

- 중남미의 국제적 위상 변화
- 주변국의 대중남미 관계 동향
-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 필요성
- 한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방안

2. 남미지역 1993 업무계획(1993.1월, 남미과)

- 남미지역 정세
- 업무 추진 방향

3. 대중남미 관계 강화방안(1993.2월, 미주국)

- 중남미의 국제적 지위 부상
- 주요 관련국 및 북한의 대중남미 동향
-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 필요성
- 대중남미 관계 강화 대책 건의

독일의 대아시아·태평양지역 관계 강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3-6/6/1-188

1993년 중 독일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 수립 및 추진 동향임.

1. 새로운 아·태 정책 추진

- 독일 정부 조치
 - 1993.10.20. 각의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보고서 채택
 - 독일 정부는 12.2. 하원에서 동 보고서 승인 추진
- 새로운 정책 기본 방향
 - 독일과 아·태지역 간 새로운 차원으로 상호 유익한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 기존의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사건위주 대응에서 탈피하여 관심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 중점사항 및 실천방안
 - 중점사항: 우호관계 유지·발전, 아·태 국가들의 유럽에 대한 인식 제고 유도,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동참 요구, 아·태지역 내 개방 및 협력 촉구,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및 예방, 캄보디아 등에서 유엔 활동 참여
 - 실천방안: 고위인사 상호교류, EC(구주공동체)·아세안 지역협력, 의원외교 병행, 외교당국 간 정책 협의 및 국제기구에서의 대화 등

2. 분석 및 평가

- 아·태지역 진출에 있어 미국 및 일본의 대응 세력으로 주도적 위상 확보 시도로 평가
 - 경제계 주도로 1993.9.24. '아·태 위원회' 발족
 - 독일 총리는 2~3월 아시아 순방, 11월 중국 방문
- 아·태지역에 대한 적극적 진출 시도로 시장개방 및 무역규제 등으로 마찰 불가피 전망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 서울, 1993.8.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6/7/1-189

1992~93년 중 개최된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회의의 공식, 비공식 회의 관련 내용임.

1. 비공식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1993.5.3.)

- 수석대표
 - 한국 측: 권병현 외교정책실장
 - 일본 측: 스즈키 정보조사국장
- 의제
 - 역내 다자안보대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구상, ASEAN PMC-SOM(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고위실무회의)
 - 역내 경제협력: 역내 자유무역지대화 논의
- 일본 측 관심사항 및 한국 측 대응 입장
 - 미국의 지속적인 역내참여 확보 필요: 일본 측이 제시한 APEC(아태경제협력체) 참여 강화, 미국을 제외하는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반대, 미국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대화채널 조성 필요에 대하여 한국 측은 공감 표명
 -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에 논의하는 포럼 필요: 한국 측은 APEC 정상회담 및 5자 정책기획협의회 활용안 언급
 - 한·미국·일본 3자 정책기획협의회 활성화(정치안보대화 추진): 일본 측의 군사·정보 관계관의 참여 희망에 대하여 한국 측은 군사·정보 관계관의 추가 참여는 신중 검토 표명
 - 중국의 군사증강 우려: 일본 측의 중국의 독자노선 억지 필요 언급에 대하여 한국 측은 중국의 역내 제반협력 참여를 통해 중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 등 공동가치 공유 희망

2.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1993.8.17.)

- 수석대표
 - 한국 측: 권병현 외교정책기획실장
 - 일본 측: 야나이 순지 총합외교정책국장
- 의제
 - 한·일본 양국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및 양국 정책실국 간 협의, 협조 방안
 - 양국 간 글로벌 문제 협력관계: 유엔평화유지 기능 강화, 개도국 원조, 환경, 핵 비확산, UR(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경제 문제, EAEC
 - 지역문제 현안: 아·태 및 동북아지역 다자안보대화, 북한 정세와 통일문제



- 관찰 및 평가

- 양국 신정부의 외교방향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 및 아·태 질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상호인식을 같이하면서 지역협력을 위한 협조 방안 모색
- 일본 측은 신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한국 측과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책기획 부서 간 지속적인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 제5차. 제주, 1993.9.10.-1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6/8/1-183

정부는 1993.9.10.~11. 제주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에 권병현 외교정책기획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의제

- 세계 정치·안보 동향 및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
- 아태지역 경제협력 방향

2. 회의 결과

- 아태지역 정치정세
 - 상호의존과 다원주의의 신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5자 협의회 같은 정책협의회의 중요성과 필요성 점증
 - 아태지역 최대 불안정 요소인 북한에 대한 정보 교환 필요성 공감
- 역내안보협력
 - 양자 안보체계 보완 차원에서 다자안보대화 추진
- 지역경제협력
 -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는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고려가 배경
 -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구조적 활성화 추진 바람직
- 기타
 - 유엔의 기능 강화를 지지하나 재정적 부담 문제가 관건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 제5차. 제주, 1993.9.10.-11.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6/9/1-219

1993.9.10.~11. 제주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 관련 참고자료임.

1. 제5차 정책기획협의회 자료(정책총괄과)

- 회의 개요
- 회의 자료
 - 모두 발언
 - 회의 의제

148

2. 한·미국·일본 안보협의회 자료(안보정책과)

- 일정 및 각국 대표단
- 말씀자료
 - 의제 1: 한·미국·일본의 외교정책 방향
 - 의제 2: 동북아 안보의 방식
 - 의제 3: 북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 참고자료
 - 지역안보대화 참가 현황 및 계획
 - 동북아 안보대화 구상 관련 미국·일본의 입장
 - 지역안보대화에 관한 각국 입장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 일반 등

한·미국·일본 3자 간 외교정책기획협의회. 시즈오카(일본), 1993.9.13.-1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6 / 10 / 1-95

1993.9.13.~14.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된 한·미국·일본 간 3자 정책기획협의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3.5.4.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과 스즈키 일본 정보조사국장이 한·미·일 3자 간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해 역내 안보 및 북한 문제를 중점 논의하기로 합의
- 1993.5.20. 아세안 PMC(계획관리위원회)/SOM(고위급회의)에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은 W. Lord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동북아 미니 CSCE(구주안보협력회의)에 관한 구상을 설명하고, 우선 한·미·일 3자 간 고위관리 레벨의 협의를 가진 뒤 단계적으로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의 참여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
 - 미국 측은 이에 공감 표시

2. 정부 대표

- 한국 측: 권병현 외교정책기획실장 및 외무부 관계관 2인
- 일본 측: 야나이 외무성 총합정책국장 등
- 미국 측: P. Tomsen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3. 주요 의제

- 한·미·일 각국의 외교정책 방향, 동북아 안보의 Modality, 북한 정세 변화 대응 등

4.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중국 방문(1993.10.14.~17.)

-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방안 협의

몽골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6 / 11 / 1-95

1993년 중 몽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외 정세

-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 러시아 공식 방문(1993.1.19.~21.)
 - 소련연방 붕괴 후 소원화된 상호 관계 및 경제협력 복원,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개정한 기본관계조약 및 농업, 경제 및 문화 협력협정 등 체결
 - 열친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선언문 채택, 스탈린 압제로 인한 몽골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 유감 표명
-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위원회, 1992.6.16.자 서명된 EC·몽골 간의 통상 및 경제협력협정 승인(2.8.)
- 북한 대외문화 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몽골 방문(1993.2.14.~23.)
- Jasrai 몽골 수상, 미국 방문(1993.6.15.~26.)
 - 대몽골 합작투자 등 미국과 경제협력활동
- 몽골 내 러시아 군대, 1992.10월 완전 철수 확인
- 북한 해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 몽골 방문(1993.6.25.~7.3.)
 - 몽골의 북한선박 임차, 청진항 이용, 몽골화물의 해외 수송 및 해운합작사 설립 등 교섭
- 미국 정부는 오치르바트 대통령의 1992 유엔총회 연설 시 몽골 영토의 비핵지대화 선언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10.15.)

2. 국내 정세

- 몽골 국회는 1993.2.16. 대통령 선거일을 6.6.로 결정하는 등 대통령선거법 채택
 - 주몽골대사관은 국회 내 다수당인 인민혁명당(MPRP) 후보의 당선 가능성 예상
- 몽골 집권여당인 인민혁명당은 4.11. 당 대회에서 당 기관지 편집장인 L. Tudev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
 - 4.12. 야당연합은 Tudev 후보와 당 후보 경선에서 패한 현 대통령 오치르바트를 후보로 선출
- 6.6. 몽골 대통령 선거 결과, 현 대통령 오치르바트가 57.5%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
 - 김영삼 대통령의 축전 송부(6.10.)
- 6.18. 오치르바트 대통령 공식 취임
 - 취임사를 통해 민주화 정책, 국민경제 및 민생 안정, 사유재산제도 강화 등 시장경제 정책 추진과 대외개방협력 정책 추진 등 기존정책 재강조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6 / 12 / 1-78

1993년 중 한·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제11회 아시안컵 본선대회 유치

- 대한축구협회, 제11차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 추진
- 1993.1.19. 주한 UAE대사, 외무부 중동아국장을 예방하여 한국축구협회가 동 대회 유치 신청을 철회하도록 종용해줄 것을 요청

2. 대우원양(주) 부도 발생

- 이란 해역에서 조업하던 대우원양(주) 소속 어선 6척에 승선 중인 선원 104명 UAE 항구에 정박
- 1993.6.20. 동 사의 부도로 조업을 중단하고 체불 임금, 귀국여비 문제 관련 주UAE대사관에 청원

3. UAE 항만청장 방한(1993.7.11.~13.)

- 서울시장, 해운항만청장 예방,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4개 해운회사 방문

4. UAE 정부, 한국의 국제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 1993.10.26.자 공한으로 한국의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의사 표명
- 1993.11.2.자 공한으로 한국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의사 표명
- 1993.11.29.자 공한으로 한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의사 표명

한·알제리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6 / 13 / 1-191



1993년 중 한·알제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국의 날” 행사 개최

- 일자 및 장소: 1993.1.25. 알제리 국립행정대학원
- 한국 홍보영화 상영,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관한 강연회로 구성
- 1,000여 명의 학생, 교수 외에 정부 인사 등 참석

152

2. 경제전문가 파견

- 1993.1.11.~28. 정해구 단국대학교 교수 파견
- 1993.11.6.~19. 마케팅 전문가 파견

3.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입후보 상호 지지

- 제18차 총회(1993.10.25.) 시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

4. 알제리 연수생 초청사업

- 주관: KOICA
- 농촌개발과정 및 자동차정비과정, 연수생 2명

5. 알제리 전대자금 요청

- 1990.10월 알제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5백만 달러 규모의 전대자금 공여 요청
- 알제리 정계 상황 불안으로 자금상환이 불투명하여 수출입은행 측이 협정 체결 보류

한·앙골라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6 / 14 / 1-114

1993년 중 한·앙골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앙골라 무상지원 동향

-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 앙골라 출장(1993.2.26.)
 - Santos 앙골라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앙골라지원 국제 공여국회의 개최(1993.6.3., 제네바)

2. 대앙골라 지원 현황

- 1991년
 - 가축용 의료장비 및 의약품(20만 달러 상당)
- 1992년
 - 자동차 및 팩스기(35만 달러 상당)
 - 컴퓨터 등 사무기기(14만 달러 상당)
 - 한발 구호금(3만 달러)
 - 국제기아대책기구 양수기(1만 달러 상당)
 - 양자차원에서 물품 지원(15만 달러 상당)
- 1993.6.23. '앙골라 구호물자 보내기 운동' 기획단 구성
 - 30피트 컨테이너 물량 구호물자 목표
 - 라면, 밀가루, 의약품, 생필품 등

3. 주요인사 방한

- Dias 앙골라 상무장관(1993.6.19.~23.)
 - 대통령 친서 전달, 외무부차관 예방
- Cadete 주한 앙골라대사(인도 상주)(1993.8.14.~20.)
 - 신임장 제정
 - 주한 앙골라 명예영사관 개소식 참석, 대전 엑스포 관람

한·호주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6 / 15 / 1-134

1993년 중 한·호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정무 관계

- 주호주대사관, 주한 호주대사의 국제문제협회 초청 연설 요지 보고(1993.1.21.)
 -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 동향 및 남·북한 관계, 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 노태우 대통령 퇴임 전, 호크 전 호주 수상 앞 감사 서한 전달(12.22.)
- 최호중 전 통일원장관, 한국·호주재단의 초청으로 호주 방문(1993.3.18.~25.)
 - 에반스 외무장관 예방 시,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 및 양국관계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
- Allan Gyngell 수상보좌관, 유병우 아주국장 면담(3.24.)
 - 양국 정상 상호방문, 아·태지역에서 협력 문제에 관해 협의
- 한·호주 외무장관 간 서한 교환(5월 초)
 -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공식방문 초청 및 에반스 외무장관의 8~9월 중 방한 희망 등
- 주호주대사, 에반스 외무장관 면담(6.14.)
 - 5.24. 서울 개최 제26차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시 김영삼 대통령 연설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지지에 대한 평가
 - 북한 핵 문제 및 아·태지역 관련 안보
- 한승주 외무부장관, 호주 방문(1993.8.19.~22.) 추진 및 연기
 - APEC 정상회담 추진 전략 논의, 북한 핵 문제 공동대응, 키팅 수상 방한 후속조치 강구 필요성
- Davis 주한 호주대사대리, 유병우 아주국장 부임 인사차 예방(8.24.)
- 한·호주재단 활동계획 시행(8월)
 - 사업계획, 임원 명단, 재단기금 출연(10만 달러)
- Miller 정보분석처장 방한(1993.9.1.)
 - 외무부장관 및 차관, 통일원장관, 외교안보수석 예방
 - 외무부 미주국장, Merchant 정보분석처 전략분석국장 면담(9.1.)
- Cook 통상장관, 김영삼 대통령 예방(9.17.)
 - 키팅 수상 친서 전달, APEC 회원국 확대 문제,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문제,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 협의

2. 경제 관계

- 호주 관세청, 한국산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 반덤핑 조사 착수
 - 주호주대사, 한국기업 8개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대응하도록 외무부에 건의

한·방글라데시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6 / 16 / 1-288

1993년 중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경제 분야 공관활동 보고임.

1. 방글라데시의 1993년 대전 엑스포 참가 유치

- 방글라데시 EPB(무역진흥청) 협의단 방한, 전시관 설치, 국가의 날 행사 참가, 민속공연 등 협의

2. 정무 관계

- 주방글라데시대사, Shaikh Razzak Ali 방글라데시 국회의장 면담(1993.3.4.)
-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결성 문제 협의

3. 경제·통상 관계

- 방글라데시 주재 기관 경제협의회 개최(1993.7.21., 11.10.)
- 참가자: 주재 상사, 건설업체, 한인회, 봉제회, 업체협의회 등 대표 11명
- 대전 엑스포 참가 지원, 방글라데시 경제 전반 브리핑, 수출실적 점검, 노무관리 등 협의
- 김우중 대우 회장, 방글라데시 방문(1993.12.25.~26.)
- Zia 총리 예방, 경제부처 6개 장관 면담에서 투자계획 협의, 방글라데시 재무장관 방한 추진

4. 군사 분야 협력

- 방글라데시, 수교 20주년 기념 해군순항훈련부대 방글라데시 기항
- 1993.10.6.~8. 리셉션 개최
- 방글라데시 측은 중고 함정 구매, 해군 간 교류, 방글라데시 함정의 한국 내 건조 문제 협의 희망
- 1991년 창설된 국방참모대학의 방글라데시 지휘참모대학 친선 방문계획
- 방글라데시 측은 한국 군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희망했으나, 무관부 개설 국가에 한해 시행하므로 시행 곤란
- 제18차 태평양지역 육군관리세미나(1994.1.14.~23., 다카) 참가 추진

5. 문화 분야

- 제6회 아시아 미술전(Asian Art Biennale Bangladesh)(1993.11.2.~30.) 참가
- 한국 작가 이열이 일본, 방글라데시 작가와 공동으로 최고상 수상(상금 1,250달러)
- 한국미술협회는 경비 문제로 불참
- 방글라데시 태권도협회 결성(1993.6.24.)

한·벨기에 정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7 / 1 / 1-193

1993년 중 한·벨기에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양국 관심사항

-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벨기에의 기여를 희망
 - 1993.10.18. 파리 주재 북한대표는 벨기에 외무부 아시아국장을 면담, IAEA(국제원자력기구) 불공정성 제기
- 벨기에 일부 인사는 한국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 표명
 - 12월 R. Gillet 전 벨기에 상원의원은 한국 대통령 앞으로 개고기 식용 금지입법 요구 공개서한 발송

156

2. 벨기에 주요인사 방한

- 1993.5.23.~6.1. 겐트 주재 한국 명예영사 방한
- 1993.6.29.~7.1. 플랑드르 지방정부 총리 방한
 - 세미나 참석, 외무부차관 면담
- 1993.9.10.~14. 왈롱 지방정부 총리 방한
 - 대전 엑스포 참관, 통일원 및 외무부장관 면담
- 1993.9.12.~15. 왈롱 의회사절단 방한
 - 대전 엑스포 참관, 비원 시찰, 대우중공업 방문, 교류재단 만찬
- 1993.10.11.~17. 피에르 시장 방한
 - 강남구청 방문

3. 양국 정부 간 협력 및 민간 교류

- 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및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 입후보 상호 지지
- 재무부는 벨기에 자본거래 자유화 사례 조사
- 7.7. 벨기에 주재 무관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 7.12.~16. '1993년 국제 한국학 및 비교학 학술토론회' 루뱅대학 개최

4. 벨기에 정세

- 쟁점사항
 - 프랑스어 및 플레미쉬어 사용권 간 대립 해소
 -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해소



● 주요 동향

- 1993.3.23. 예산조정 실패로 내각이 사퇴했으나, 3.30. 국왕은 사표 반려
- 연방제를 향한 국가개혁: 4.23. 벨기에 상·하원은 개헌안 통과, 7.5. 3개 지방정부 총리 협의
- 7.31. 전 국왕 서거, 8.9. 신국왕 즉위

한·바레인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7 / 2 / 1-67

1992~93년 중 한·바레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바레인대사의 코트라 사무소 재개설 건의 배경(1992.1월)

- 바레인 정부 및 경제계가 1989년 코트라 사무소 철수로 인한 양국 업계 접촉 창구가 단절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재개설 요청
- 바레인 측은 걸프지역 내 금융, 교통, 통신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겠다는 것으로 코트라 재개설 요청도 이러한 입장의 일환
- 한국기업의 이란 및 이라크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

158

2. 주한 바레인대사 임명 문제

- 주바레인대사, 1992.6월 Mohamed 바레인 외무차관 면담 시 주한 바레인대사 임명 검토를 요청 - 바레인 측은 현재 주재국 인력 및 예산 사정상 상주공관 개설은 어려우며, 비상주대사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 8월 베이징 주재 바레인대사는 주바레인대사에게 한국 겸임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며, 1993년 상반기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한·불가리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7 / 3 / 1-96

1993년 중 한·불가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Zhelev 불가리아 대통령 면담

- 주불가리아대사는 1992.12.26. Zhelev 대통령을 연말 인사차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동 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면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남북 통일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경직되어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 곧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음.
 - 양국 간 현안인 각종 협정을 1993년 중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함.
 - 한국 정부가 승용차 13대를 기증하여 준 데 대해 감사함.

2. 외무부 구주국장과의 주한 불가리아대사 간 면담 시 양국 간 주요 현안(1993.2.8. 현재)

- Zhelev 대통령 방한
 - 불가리아 측, 1993년 중 방한 희망
- 이종과세방지협정
 - 1991.5월 가서명, 국내 절차 추진 중
- 투자보장협정
 - 1990.1월 한국 측 안 제시
 - 1991.5월 소피아에서 실무회담 개최: 내국인대우, 보상 및 송금 3개항 미합의
 - 1993.1.19. 경협2과장, Petkov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참사관 면담: 보상, 송금조항에 관하여 의견 접근, 중재조항에 대해 이견 존재, 불가리아 측 입장 회보 예정
- 무역협정
 - 1992.6월 한국 측 협정안 제시
 - 불가리아 측 사정으로 불가리아 정부 회신 지연
- 항공협정
 - 1991.3월 불가리아 측 초안 제시, 4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3년 상반기 실무회담 소피아 개최 추진
- 문화협정
 - 1991.12월 불가리아 외무성 공한으로 협정문안 합의, 가서명 추진 중

한·미얀마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7 / 4 / 1-110



1993년 중 한·미얀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얀마 인권문제

- U Ohn Gyaw 미얀마 외무장관은 1993.1.5.자 주한 미얀마대사관 공한을 통해 제4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미얀마 인권문제 토의 시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외무부장관 앞 공한 발송
- 3.4. 미얀마 외무부 측은 주미얀마대사에게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미얀마 인권결의안 관련 자국 지지 요청
 - 주미얀마대사는 한국은 그간 서방 측의 공동 데마쉬에 참여하지 않고 최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등 각종 경험을 통해 대미얀마 우호 협력관계 증진 요지로 설명

160

2. 한·미얀마 관계 일반

- 1993.1.28. 주미얀마대사의 미얀마 외무장관 부임 인사차 면담 시, 한국은 서방 측과 달리 독자적으로 양국관계 증진 노력 표명
 - 동 장관은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 및 개발 잠재력과 한국의 자본·기술을 결합하는 호혜적 경제협력 기대
- 2.4.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 탄쇄 SLORC(국가질서회복위원회) 의장은 다른 나라보다 인종, 문화 등 상호 공통점이 많은 미얀마에 한국의 보다 활발한 투자 기대
- 3.4. 미얀마 외무부는 탄쇄 의장 명의의 김영삼 대통령 및 황인성 국무총리 앞 취임 축전 송부
- 4.30. 주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 정부가 4.23. 해상석유탐사(M-13 구역) 결과 경제성 전망이 있는 석유와 가스 발견 발표 및 외국업체의 석유개발 참여 현황 자료를 외무부에 보고
 - 한국의 유공, 허가된 광구에서 1992년 말 철수, AMOCO와 합작, 시추 및 개발에 자본참여
-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표단, 미얀마와 자원협력 분야 협의를 위해 1993.11.27.~30. 미얀마 방문
- 12.15. 주미얀마대사관, 1994년도 외교전망 및 계획 보고를 통해 미얀마 대내 정세, 아세안 가입추진 등 대외관계, 대남북한 관계, 1994년도 대미얀마 관계강화를 위한 업무계획 보고

한·브라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7 / 5 / 1-124

1993년 중 한·브라질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브라질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앞 답신(1993.1.12.)

- 노태우 대통령의 브라질 대통령의 취임 축전(1992.12.31.)에 대한 회신

2. 올리베이라 브라질 신임 외교장관 취임(1993.4.21.)

- 국민투표 후 민심수습 차원의 개각
- 조치사항
 -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발송

3. 변정현 신임 브라질대사, 신임장 제정(1993.6.16.)

- 이타마르 브라질 대통령은 환담 시 방한 희망 의사 표명

4. 신임 아모림 외무장관 취임(1993.8.27.)

- 현 외무장관 내정자의 건강상 사의 표명
- 조치사항
 -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발송

5. 겸임국 수리남 출장(1993.11.17.)

- 신임장 제정, 주요인사 면담 및 교민 간담회
 - 신임장 제정 계기 무상원조 물자지원: 앰불런스 3대
- 협의사항
 - 투자보장협정 조속 체결, 한국 수산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한·보츠와나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7 / 6 / 1-100



1992~93년 중 한·보츠와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2년도 보츠와나에 대한 무상원조 내역

- 연수생 3명(수출진흥, 농촌개발, 국토개발 계획)
- 기자재 공여(10만 달러 상당)
 - 백신 운반용 냉동차량 1대
 - 대동 트랙터 2대
 - 대동 파워틸러 2대, 포크리프트 1대

162

2. Edwin Tjakabaka Matenge 초대 주한 보츠와나대사, 신임장 제정(1993.1.27.)

- 베이징 상주대사로서 한국 겸임
- 1.26.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 제출
 - 보츠와나는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개발 패턴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만큼 기업 간 협력을 포함한 호혜적인 관계구축을 기대

3.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보츠와나 겸임), 보츠와나 출장(1993.2.7.~11.)

- 보츠와나 대통령 주치 외교단 리셉션 참석, 외무장관, 상공부 간부 등 면담
 - 보츠와나 측은 보츠와나 대통령의 국민 방한 희망의사를 전달하고, 대전 엑스포 참가 관련 재정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협의를 희망

한·베냉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7 / 7 / 1-169

1993년 중 한·베냉 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베냉 올로구두 외교차관 방한(1993.8.24.~28.)

- 방한 목적: 대전 엑스포 '베냉의 날'(8.27.) 행사 참석
- 주요 일정: 대전 엑스포 참관,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2. 베냉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

- 1993.8.25. 올로구두 차관의 외무부차관보 면담 시, 섬유공장 건설 등 3개 사업 진행 요청
-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미비로 추진이 어려워, 기자재 제공으로 대체

한·칠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7 / 11 / 1-141

1993년 중 한·칠레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칠레 내무부차관 방한

- 주칠레대사관은 교포 체류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칠레 내무부차관을 KOICA 명의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KOICA는 예산상 이유로 초청이 어렵다는 입장

164

2. 베닝거 칠레 대통령실 장관 방한(1993.5.25.)

- PBEC(태평양경제위원회) 서울 총회 참석
- 외무부장관 면담
 - 양국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방안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칠레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가입에 대한 한국의 협조 요청

3. Frei 칠레 여당 대통령 후보 방한 초청

- 1993.8.20. 주한 칠레대사는 국회 외통위원장과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시 동인의 대통령 당선을 강력 시사하면서, 방한 초청을 제의함.
- 추진 경과
 - 정재문 외통위원장 명의의 초청 서한 발송
 - 동 후보 측은 분주한 유세 일정으로 12.11. 대선 이전 방한이 어려움을 알림.
 - 대통령 선거에서 동 후보가 당선된바, 동인의 취임식 참석차 대통령 특사 파견 시 Frei 대통령의 방한 실현 여부와 초청자 변경 여부를 칠레 측과 협의할 예정

한·콜롬비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7 / 12 / 1-89

1993년 중 한·콜롬비아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보수계 신민주세력 당수 파스트라나 방한(1993.3.9.~12.)

- 1993.2.1. 파스트라나 당수는 주콜롬비아대사에게 방한 의사 표명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동인 일행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와 국회에 건의
- 국회 측은 여타 행사 중첩으로 동인 일행의 접수가 어려움을 통보
- 그러나 3.9. 동 당수 일행은 한국에 도착한바, 외무부는 귀빈실 사용 및 만찬 등 제공

2. 여당 대통령 후보 Samper 방한(1993.11.22.~25.)

- 초청 경위: (주)대우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모델로 하는 정책개발 구상
- 방한 일정: 한국의 생산 분야, 기술, 고용정책에 관한 인사 면담 및 현장 방문
 - 국무총리 예방을 희망하였으나, 미성사

3. 주콜롬비아대사관과 주재국 외무부 간 양자협약(1993.11.31.)

- 양국 교역 관련, 콜롬비아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방안
- 한국의 대콜롬비아 투자 확대방안
- 무상원조 사업 확대 문제

한·캐나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7 / 13 / 1-259

1992~93년 중 한·캐나다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1992년도

- 외무부차관, L. Edwards 주한 캐나다대사 예방
 - 한·캐나다 간 양국관계 및 캐나다·북한 간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 경제·통상 협력관계 발전방안 및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 추진 등
-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 캐나다 방문(4월)
 - 남북한 관계 및 지역 정세, 한·캐나다 경제·통상 관계, 중남미 정세 등 협의
- 주캐나다대사, 캐나다 주요인사 면담
 - 뉴펀들랜드주 공식 방문: 주 수상 및 의회 관계자와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 조업 문제를 중점 제기(4월)
 - 맥두걸 외무장관 오찬: 북한 핵 문제 및 남북 고위급회담 관련 설명(4월)
 - 앨버타주 방문: 관광 및 에너지 분야 경제통상협력 방안 협의(5월)
 - C. Lavertu 정치안보 담당 차관보 면담: 남북관계, 북방정책 및 국방장관회담 등 의견 교환
 - Moher 외무부 국제안보국장 오찬: 양국 정치·안보 분야 협력 관련 협의

2. 1993년도

- 미주국장, Edwards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
 - 맥두걸 외무장관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 협의
- 외무부, 맥두걸 캐나다 외무장관 예방
 - 일본, 홍콩 등 방문(2월) 관련, 한·캐나다 관계 강화방안 검토
- 캐나다 국방대학원생 44명 등 field trip차 방한(3월)
- 노태우 대통령 퇴임 계기 멀루니 캐나다 수상 앞 감사 서한 송부
- 캐나다 정부의 대아시아 및 대한민국 정책 동향에 대한 검토
-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 추진
- 주캐나다대사, 캐나다 주요인사 면담
 - 외무부 H. Balloch 아태차관보 면담: 신정부의 개혁정책, 북한 정세 및 북한 핵 관련 입장 설명
 - 외무부 정치안보 담당 차관보 면담: G-7 정상회담 준비 및 북한 핵 관련 의견 교환

한·중국 정무일반. 전2권 (V.1 1-3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7 / 14 / 1-227

1993.1~3월 중 한·중국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앞 축전(1992.12.19.)

- 김 대통령 당선자 답신(12.22.)

2. 주중국대사, 전기침 외교부장 초청 만찬(1993.2.9.)

- 주요 대화 내용
 - 남북관계 및 북한 핵 문제
 - 양국 최고 지도자의 상호방문
 - 외교부장 방한
 -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중국 인민외교학회 간 교류

3. Korea into China 세미나(1993.2.22.)

- 홍콩 Asia Society 및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주관
- 발표자: 노재원 대사, Nichas Lardy 미국 워싱턴대학 교수, Jiamming Zhou 중국 상해과학원 아·태연구소 부소장, 서장원 KIEP 부원장, Herbert Behrstock UNDP(유엔개발계획) 아·태지역 과장

한·중국 정무일반. 전2권 (V.2 4-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7 / 15 / 1-219

1993.4~12월 중 한·중국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한승주 외무부장관, Yuan Ming 북경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만찬 면담(1993.4.3.)

- 한 장관 언급요지
 - 최근 미국, 일본, 유엔 방문 시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북한의 NPT 복귀 시 얻을 수 있는 이득(팀스피리트 문제 관련) 등을 강조하였다고 소개
- Yuan Ming 부소장 언급요지
 - 현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은 북한과의 우호 협력관계 유지, 한국과의 지속적인 접촉,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 시 거부권 행사, 북한의 극단적인 고립화 방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중국이 현재 북한의 NPT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해 너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음.

2. 황병태 주중국대사, 중국 외교부장 신임 인사차 예방(1993.6.10.)

- 중국 측 협조 감사(부임 1주일 만에 신임장 제정), 장쩌민 주석 방한 문제, 북한 핵 문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문제, 양국 의회 간 교류, 민간친선협회 구성, 항공협정 등 관련 논의

3. 요녕 중·한 경제문화촉진협회 발족(1993.5.31.)

- 참가자
 - 요녕성 부성장, 당 부서기, 요녕대학 총장, 요녕성 각 기관 및 업체, 요녕성 진출 한국업체 등
- 의의
 - 요녕성과 한국과의 통상 진흥, 경험 강화, 과학기술 및 문화 교류 촉진

한·크로아티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7 / 16 / 1-150

1993년 중 한·크로아티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크로아티아 수교

- 외무부는 주헝가리, 유고, 오스트리아대사관에 1992.12.2. 평양중앙방송이 주크로아티아 북한 총영사와 켈로 우르 크로아티아 외무차관 간에 11.30.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함을 통보

2. 크로아티아 경제사절단 방한(1993.11.14.~17.)

- 방한 목적
 - 한·크로아티아 경제협력 및 통상 확대 방안 모색
- 방한 인사
 - 상공회의소 회장, 무임소 장관, 경제부 국장, 상공회의소 이사 등
- 주요 일정
 - 현대종합상사 및 삼성전자 수원공장 견학,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코엑스 전시장 관람, 상공부 예방 등
- 방한 결과
 - 한국업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크로아티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의 대크로아티아 인식 제고
 - 양국 간의 경제·무역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협의를 통한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계기 마련
 - 한국업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사절단 상호교환 파견 등 양국 기업인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한·CIS(독립국가연합)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8 / 1 / 1-129



1992~93년 중 한·CIS(독립국가연합)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벨라루스

- 1993.2.11. 벨라루스 외무성, 슈스케비치 최고회의 의장의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앞 축전 송부
- 주러시아대사관, 벨라루스 주요인사 면담자료 송부

2. 아르메니아

- 1992.10.2. 아르메니아 외무성,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의 10월 말 방한 희망 의사 전달
- 1993.2.1. 주미국대사, 미 국무부 과장 면담 시 아르메니아 동절기 난방 사정으로 한국산 난로 5천 개를 구입할 시 한국 정부의 수송 지원 여부 문의

3. 아제르바이잔

- 1992.6.7.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선거에서 엘치베이 후보가 당선
 - 6.12.자 한국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 1993.8.20.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긴급 인도적 구호 요청 공한 송부
 - 아르메니아 측의 공격으로 발생한 난민지원

3.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부수상, 1993.1월 구소련 경협차관의 일부를 금성이 계약한 마이크로웨이브 및 컬러TV 생산 공장 건설 사업에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

4. 투르크메니스탄

- 대전 엑스포 조직위, 1993.9.5.을 투르크메니스탄의 날로 확정하고 엑스포 참가 요청

한·체코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8/2/1-76

1993년 중 한·체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구체코연방 분리(1993.1.1.) 이후 국명 표기(외래어 공동심의위 결정)

-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
- 슬로바키아공화국(Slovak Republic)

2. 노태우 대통령 축전 발송

- 하벨 체코 대통령 취임(1993.2.2.)
- 코바츠 슬로바키아 대통령 취임(2.15.)

3. 한·체코 경제공동위 개최 문제

- 1991.11월 서울에서 제1차 공동위 개최
- 체코연방의 분리 독립 및 공동위 개최 근거인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승계문제로 후속회의 개최 지연
 - 1993.2월 주한 체코대사의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시, 체코 측은 제2차 회의를 1993년 중 프라하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체코 측이 구연방 당시 체결 협정에 대한 승계 의사를 확인해 오면서, 한국 정부는 1994년 중 제2차 공동위 개최를 긍정적 검토

4. 체코 외무부 아주국장, 한국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1993.3.31.)

- 체코 외무장관의 대전 엑스포 기간 중 방한 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대표단 철수 문제, 주상하이 체코영사관 건물의 대한민국 매각 가능성 등 협의

한·덴마크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8/3/1-173

1993년 중 한·덴마크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Anne B. Lundhold 덴마크 산업동력장관 방한(1991.9.6.~11.)

- 이봉서 통상산업부 장관, 임인택 교통부장관, 주한 EC(구주공동체) 상공회의소 대표 등 면담, 현대 중공업 방문 등
- 이봉서 장관 면담 시 제기사항
 - 한국의 시장개방 관련, 조선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지적
 - 비관세장벽으로서 한국의 가격표시제 문제 제기
 - 합작투자 시 외국인 참여비율 제한, 국내 광고에 대한 제한 등 지적

2. Bjoern Westh 덴마크 농수산장관 방한 추진

- 대전 엑스포 기간 중에 거행될 덴마크 National Day 참석차 1993.10.30.~11.3. 방한 희망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예방 희망

3. Benedikte 덴마크 공주(여왕 동생) 방한 계획

- 현대조선소에서 거행될 선박 명명식 참석을 위해 1993.9.6.~9. 방한 계획

한·에콰도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8 / 4 / 1-37

1993년 중 한·에콰도르 간의 정무 관계임.

1. 오채기 신임 주에콰도르대사, 1993.1.26. 에콰도르 대통령 앞 신임장 제정
2. 에콰도르 정부, 1993.3.1. Paredes 외무장관 명의 한승주 외무부장관 취임 축전 발송
3. 한·에콰도르 의원친선협회 구성
 - Mauricio Larrea 의원, 주에콰도르대사 면담(1993.10.5.)
 - 한·에콰도르 의원친선협회 구성 제의

한·엘살바도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8 / 5 / 1-60

1993년 중 한·엘살바도르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Pacas Castro 외상, 1993.한승주 외무부장관 앞 친서 송부

- 1993.3.20.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통과된 “평화구축을 위한 사면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 요청
- 6.12.자 한승주 장관 명의 답신 송부

174

2. Salaverria 신임 외무장관 앞 축전 발송

- 1993.11.30.자 한승주 장관 명의 축전 발송

3. 구자두 주한 명예영사, 엘살바도르 방문 계획

- 방문 기간: 1994.1.5.~9.
- 1993.10월 말 방한한 엘살바도르사절단 측 초청에 의한 사적 방문
- 엘살바도르 체류 일정은 수출진흥위원회에서 주선중

한·에티오피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8/6/1-127

1993년 중 한·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에티오피아 정부, 1993.2월 한국의 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입후보 지지 입장 표명
2. 한국 정부, 1993.6.12. 에티오피아의 세계인권회의 부의장국 입후보 지지 입장 표명
3. 한국전 참전 전사자 추도식(1993.8.1., 아디스아바바)
 - 금년 정식 발족한 참전용사회는 주에티오피아대사관과 협조하여 상기 행사를 Trinity 성당에서 개최함.
 - 참가자: Emailu Worede 회장 등 참전용사 100여 명과 그 가족, 참전국 주재 대사 및 무관 등 총 600여 명
 - 평가: 전 Menguistu 정권하에서는 북한 편향의 외교노선으로 동 단체의 구성 등 한국 관련 행위를 불허하였으나, 신정부는 동 단체의 수립허가 뿐 아니라, 동 행사를 위한 군악대(100명 대형악단)를 파견하여 적극 협조한바, 이는 에티오피아 신정부의 한·에티오피아 간 친선강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4. 한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지
 - 1993.10.28. 에티오피아 정부, 한국의 IMO(국제해사기구)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유네스코 이사국 입후보 지지
5. 에티오피아 Addis Zemen지 편집장 방한(1993.11.4.~10.)
 - 외무부 중동아국장 면담, 대전 엑스포 관람
 - 울산,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 산업시설 견학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8/7/1-281

1. 한·EC(구주공동체) 관계 보고서 채택

- EC의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관한 EC 집행위원회 최초의 공식문서로 1993.6.8. EC 일반이사회에서 채택
 - 동 채택 이후 종전 통상 위주에서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파트너로 관계 격상 의미
- 보고서 요지
 - 한국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 평가
 - 주변 4강과의 관계발전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 내 역할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인식
 -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이어 한반도 통일이 필연적이라고 이해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발전과 지속성장 잠재력 평가
 - 한국의 대EC 관계증진 노력(한·EC 기본협정 체결 제안 등) 평가
 - EC 측 관심사항(특히, 대EC 차별, 비관세장벽, IPR(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인 투자제한 등)의 조속한 해결 촉구

2. 한·EC 관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1993.8월, 외무부)

- 한·EC 관계 재정립
 - 기본관계 선언 또는 기본협력협정 체결
 - 한·EC 간 정무협의체 구축
 - 구주의회와의 관계 강화
 - 정상 간 상호 교류 추진
 - 주요 국제문제 해결 과정 및 다자외교에서 상호 협력
- 한국의 대EC 경제 진출 확대
 - 시장개척 활동 강화
 - 산업협력 활성화 및 경제협력 분야 다변화
 - 통상마찰 사전 예방
 - 대EC 투자진출 지원
- 한·EC 간 상호인식 제고
 - 각 분야 인사교류 확대(문화예술, 스포츠 등 교류 확대)
 - Europalia(EC 주최 특정국가 초대 문화전) 개최
 - Wisemen's Club 구성 추진, EC 내 한국학 진흥

한·핀란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8/8/1-78

1992~93년 중 한·핀란드 간의 의회교류 관계 동향임.

1. 핀란드·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 주핀란드대사는 1993.5.12. 핀란드 국회 내 친한 의원협회가 Matti Lahtinen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 및 사무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하였다고 하면서 관련사항을 보고함.
- 명칭: 핀란드·한 의원친선협회(Finnish-R.O.K. Parliamentarian Friendship Association)
- 회장단
 - 회장: Matti Lahtinen(4선, 보수당)
 - 부회장: Hannele Luukainen(여, 초선, 녹색당)
 - 이사: Raimo Liikanen(초선, 중도당)
 - 간사: Vesa-Pekka Kangaskorpi(국제국 차장)
- Kangaskorpi 간사에 의하면 국회 일정 등으로 4월 중 창립총회를 갖지 못하고 이날 총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며, 창립총회 참석의원들 외에도 중진의원을 포함한 7~8명의 의원들이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1~2주 내 17~18명에 달할 것이라고 함.

2. 한·핀란드 의원친선협회 결성

- 외무부는 1993.7.2. 최근 한국 측의 의원친선협회가 아래와 같이 결성되었음을 알려왔다고 하면서 핀란드 의회 측에 통보할 것을 주핀란드대사관에 지시함.
- 명칭: 한·핀란드 의원친선협회(Korean-Finnish Parliamentarian Friendship Association)
- 결성: 1993.5.14.
- 임원 및 회원(총 42명)
 - 회장: 김진재(민자당)
 - 부회장: 서수종(민자당) 및 김영일(민자당)
 - 회원: 39명(인선중)

한·프랑스 정무일반.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8/9/1-163

1993년 중 한·프랑스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 친서

- 1993.1.25. 주프랑스대사를 통해 전달
-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 재임 기간 업적 평가
-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앞 친서
 - 대통령 당선 축하
 - 양국 간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희망
 - 고속철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

2. 상공부, 프랑스 상공부 간부 방한 초청 추진

- 통상 관련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93.3월 중 프랑스 상공성 경제협력총국 부국장 방한 초청
 - 동인은 한국담당 국장인 만큼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양국 간 협력기회 확대를 기대
 - 특히, EC(구주공동체) 국가 중 프랑스가 가장 보호주의 색채가 강하다는 점 고려

3. 프랑스 외무부 극동담당 부국장 방한 계획

- 프랑스·일본 정책협의회 참가 계기 1993.5.11.~16. 방한 희망
 - 한국 외무부 간부와 면담하여 외무부장관의 프랑스 방문을 포함한 양국관계 협의
 -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관계자 면담 추진
- 동인은 과거 4년간 주한 프랑스대사관 참사관으로 재직한 인물임.

한·프랑스 정무일반.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8 / 10 / 1-81

1993년 중 한·프랑스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미테랑 대통령 친서

- 한국의 개천절을 맞이하여 김영삼 대통령 앞 친서 발송(1993.10.3.)
 - 지난 9월 방한 시 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며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심화·발전을 기원
- 이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 답신 발송(10.19.)
 -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 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양국 및 양국민 간 우호협력 증진을 기원

2.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방한 계획

- 희망 방한 시기: 1993.12.7.~9.
- 한승주 외무부장관,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정종욱 외교안보수석 등 예방 희망

한·가봉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아프리카과

MF번호 2023-8/11/1-171



1992~93년 중 한·가봉 간의 경제협력 동향임.

1. 승용차 지원

- 1992.1.30. 가봉 외상은 차량 50대 지원 요청
 - 9월 가봉이 개최할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 시 의전 차량용으로 요청
- 8월 외무부는 의전용 승용차 5대 지원 의사 통보

180

2. 가봉 외상 방한(1992.8.3.~7.)

- 협의 의제
 - 가봉의 도로망 정비, 식수공급 사업
- 가봉 외상, 한국 외무부장관을 공식 초청

3. 무상원조 기자재 공여

- 1993.11.23. 외무부, 가봉에 승용차 전달

4. 가봉 외상, 한국 외무부장관 가봉 방문 초청(1993.12.15.)

한·독일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8 / 12 / 1-167

1992~93년 중 한·독일 간의 정무관계 동향임.

1. 인적 교류

- 겐서 외무장관, 한국 방문 추진(1992.1월)
- 권영민 외무부 구주국장, 주한 독일대사대리 면담, 현안 협의(2월)
- 통일원, 한스 자이델재단 이사장에 감사패 수여(4월)
- E. Diepgen 베를린 시장, 이상배 서울시장 방문, 양 도시 간 교류 협의(11월)
- J. Koenen 신부에 대한 국민훈장 동백장 서훈 추진(1993.1월)
- 주한 독일대사, 김영삼 차기 대통령 면담(2월)
- 박준규 국회의장, 독일 등 순방 추진(5월, 취소)
- 원혜대학교 킨더만 교수, 한승주 외무부장관 강연 초청(7월)

2. 주독일대사관 활동

- 주독일대사, 부임 예방차 독일 고위인사 면담,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
 -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 경부고속전철 등 의견 교환(1993.5월)
 - U. Seiler-Albring 국무장관 면담, 북한 핵 문제, 경부고속철 등 협의(7월)
 - 외무부 유엔 총국장 면담, 유엔에서의 양국 협력방안 협의(7월)
- 재독일 한인연합회 주최 제48회 광복절 행사 참석, 대통령 경축사 대독(8월)
- 국경일 리셉션 개최(10월)

3. 기타

- 주한 독일대사, 한국의 동물보호 관련 법규 및 동물학대 관련 정부조치 등 문의(1993.7월)
- 재독 한인연합회 분규 발생(11월)

한·가나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8 / 13 / 1-146



1993년 중 한·가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Amissah 주한 가나대사(도쿄 상주) 이임

- 1985.6월 제2대 주한 가나대사로 부임
 - 1993.1월 이임
- 이상옥 외무부장관, 1993.1.19. Amissah 대사에게 수교훈장 흥인장 전수

182

2. 한국기업의 가나 진출 현황(1993년 현재)

- (주)대우
 - 연장 140km 도로 복구 건설 참여: 일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금 약 4천만 달러 규모
 - 일본 가지마·시미조 합작사의 하청형식으로 참여
 - 인력: 한국인 35명, 필리핀인 14명, 가나인 550명
- 선경건설
 - 3개 지역에 21만 6천 바렐 규모 석유탱크 9기, 6백 입방미터 LPG 탱크 7기 및 부대시설 건설
 - 한국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89억 7천만 원 규모
 - 인력: 한국인 22명, 태국인 16명
- AFKO(교민업체)
 - 어선 14척 총 톤수 7천 톤, 한국인 200여 명 고용
 - 주업종은 수산업이나, 냉동창고업, 건설, 농업 분야에도 종사
 - 산하 무역회사(AFKO-IMEX)가 한국의 대가나 수출에 크게 기여
- INFICTO(교민업체)
 - 어선 4척 총 톤수 2천 톤, 라스팔마스 소재

3. 신호현 주가나대사, Rollings 가나 대통령 이임 예방(1993.4.7.)

- 가나 대통령은 EDCF 차관 지원을 통한 석유저장시설 건설, (주)대우의 도로건설 참여 등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에 대해 각별한 기대를 표명
 -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무상원조 확대를 희망

한·그리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8 / 14 / 1-81

1990~93년 중 한·그리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아주국장 대리 면담

- 주그리스대사는 1990.4.25. 동 대사관의 김 참사관이 Manolopoulos 외무부 아주국장 대리와 면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국장 대리는 4.24. 아침 Samaras 신임 외무장관에게 소관사항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동 장관이 그리스의 현 경제난국이 심각함을 피력하면서, 한국과 대만 등의 경제협력 또는 투자유치 실적이 별무한데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함.
 - 이에 대해 동 국장 대리는 한국에 그리스 상주공관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 내 투자 유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동 장관은 신정부가 국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한국 내 상주공관 설치의 조속한 실현과 한국 등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 국가들이 동구보다 그리스에 투자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을 시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함.
 - 동 국장 대리는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주그리스대사의 신임장 제정 전 외무장관 면담 시 상기 사항을 참조하여 주한 그리스대사관의 조속한 설치와 양국 간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언급해 주기를 희망함.

2. 그리스 총선(1993.10.10.)

- 총선 결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집권 신민당을 누르고 승리
- 결과
 - 사회당(169석), 신민당(112석), 정치의 봄 당(10석), 공산당(9석)
- 평가
 - 신민당 정부의 긴축경제정책 실패 및 마케도니아의 유엔가입 저지 실패에 따른 국민 불안이 신민당 패배의 주요인
 - Samaras 전 외무장관의 신당 창설에 따른 보수세력 표 분산도 신민당 패배의 원인
- 전망
 - 1981~89년 사회당 집권 시보다는 실용적이고 온건한 사회주의 노선 채택 예상
 - EC(구주공동체)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 예상

한·과테말라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8 / 15 / 1-47

1993년 중 한·과테말라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과테말라 대통령 평화제의 발표에 대한 지지 선언

- 1993.2.4.자 외무부장관 명의 지지 전문 발송

2. 1993.3.15.자 과테말라 외상 명의 외무부장관 취임 축전

3. 1993.6.3.자 김영삼 대통령 명의 De Leon 신임 과테말라 대통령 앞 축전 발송

4. 1993.6.17.자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 신임 과테말라 외상 앞 축전 발송

한·헝가리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8 / 16 / 1-99

1993년 중 한·헝가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헝가리 문화세미나

- 주헝가리대사는 1993.6.15. 한·헝가리 문화세미나가 6.14. 미시콜치시에서 Szabo Baz 주지사, Nemeth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 Bodo 문화성 문화국장, 학자, 언론인 등 양측 발표자, 주헝가리 대사관 직원 및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을 보고함.
 - 동 대사와 주지사 면담 시, 주지사는 문화세미나가 양 국민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현지 TV, 라디오 및 일간지는 상기 세미나 개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

2. 주헝가리대사, 외무성 정무차관보 면담(1993.11.23.)

- Zoltan Pereszlenyi 정무차관보는 주헝가리대사로부터 신임장 사본을 접수 후 Goncz 헝가리 대통령의 방한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함.
 - Goncz 대통령은 11월 초 방한 시 한국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돈독히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고 있음.
 - 또한 한국 측이 대전 엑스포 주최국으로서 차기 부다페스트 엑스포 참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대전 엑스포 개최의 경험과 기술을 헝가리에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헝가리에게 특히 고무적인바,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에 사의를 표함.
 - 헝가리는 베트남, 몽골, 우크라이나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고급의 산업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면에 대한 전문가 및 기술자도 많이 양성해 놓았으므로 한국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희망함.

한·홍콩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8 / 17 / 1-86

1993년 중 한·홍콩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Vieira 마카오 총독 방한(1993.10.14.~17.)

- 목적: 방한 중인 Soares 포르투갈 대통령 일행에 합류하기 위함.
- 주홍콩총영사는 10.12. 마카오 총독의 방한 예정을 알려면서 동인의 체한 중 편의 제공을 건의함.

186

2. 한승수 외무부장관, 홍콩 방문(1993.10.26.~27.)

- 주요 일정
 - 중국 심천 시장 면담, 삼성 화리전자 방문
 - 홍콩 주재 한국상사 대표와 조찬
 - Asia Society 오찬 연설
 - 홍콩 주재 한국특파원과 간담회
 - 홍콩 FEER지 회견

한·온두라스 정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8 / 18 / 1-41

1993년 중 강용식 주과테말라대사의 겸임국 온두라스 출장 관련 내용임.

1. 1993.5.14.~19. 출장

- 주요 일정
 - 산 페드로 솔라 산업체 협의회 간담회
 - 교민 및 업체 관리자와의 간담회
 - 한인회와의 만찬
 - 외교장관 예방
 - 외교부 간부 초청 오찬

2. 1993.12.13.~17. 출장

- 주요 일정
 - 한인회 및 산업체 협의회 임원과의 면담 및 만찬
 - 노사분규 업체 및 수해를 입은 한국업체 방문
 - 한국업체에 고용된 현지인 관련 노사실태 파악

한·교황청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8 / 19 / 1-68

1993년 중 한·교황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교황청·이스라엘 관계

- 주교황청대사는 1993.12.14. 교황청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는 “교황청·이스라엘 12.30. 협정 체결” 제하 보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교황청과 이스라엘은 12.30.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됨.
 - 동 협정 추가의정서는 교황청 국무성과 이스라엘 의회가 동 협정의 인준 후 4개월 내에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스라엘 외무성 측은 이스라엘 의회의 긴 절차를 고려할 때, 대사관의 교환 설치는 1994.5월 이후로 보고 있음.
 - 양측은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 이전의 잠정기간 동안 상호 특별대표를 임명할 것임.
 - 이스라엘 측은 교황청대사관이 예루살렘에 개설되기를 원하지만, 교황청은 국제사회의 관례를 따라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기확정한 것으로 알려짐.

2. 교황의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

- 주한 교황청대사는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에게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제27회 ‘세계평화의 날’ (1994.1.1.) 메시지를 전달하여 옴.
- 제목: 가정은 인류평화를 창조한다(The family creates the peace of the human family)
- 주요 내용
 -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의 중요성 강조
 - 폭력과 향락주의에 의한 현대 가정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 표명
 - 국가의 가정보호 노력 촉구
 - 각 가정에 평화에 봉사하는 가정이 될 것을 당부

한·아이슬란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7-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8 / 20 / 1-53

1987~93년 중 한·아이슬란드 간의 주요 정무관계 동향임.

1. 아이슬란드 출장

- 송성한 주노르웨이대사 외 1인
 - 출장 기간 및 장소: 1987.5.20. 케프라빅 미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기지
 - 출장 결과: 케프라빅 미군기지 방문 소감, 미군기지의 지위 등이 담긴 출장보고서 제출
- 김정훈 주노르웨이대사 내외 외 1인
 - 출장 기간: 1993.6.16.~20.
 - 주요 활동: 아이슬란드 국경일 행사 참석, 외무장관 예방, 미국대사, 외교단장, 명예영사 등 면담
- 김병연 주노르웨이대사(3회)
 - 1992.6.15.~19.: 국경일 행사 참석
 - 1993.7.5.~7.: 국제기구 진출 지지 교섭
 - 1993.10.17.~19.: 이임 인사

2. 명예영사 활동 지원

- 레이카빅 명예총영사 M. Arni Gestsson에 대한 명예영사 보조금(연 2,500달러) 지원
 - 1993년도 상·하반기 명예영사 활동보고서 제출(첨부)

한·인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8 / 21 / 1-70

1993년 중 한·인도 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통령의 인도 방문 검토 문서

- 인도 측, 한국 대통령 방문 계속 희망(1990~91년)
- 방문 의미: 인도의 성장 잠재력 평가,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 유엔과 비동맹에서의 협조 기대

2.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대지진 발생

- 피해 현황: 3만 5천 명 이상 사망, 1개 시와 12개 마을 완전 폐허화
 - 한국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 한국은 현금 8만 달러와 구호품 전달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의 라오 수상 앞 위로 전문 발송
 - 국회의장의 위로 전문 발송

3. Shama 인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인도 공식방문 초청(1993.11.5.)

- 서한 내용
 - Rao 수상의 방한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 김 대통령의 조속한 인도 방문 초청
- 검토 의견: 익년도 대통령 해외 순방 계획 수립 시, 인도 방문 필요성 검토
- 11.30. 김 대통령의 답신 서한 발송

한·인도네시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8 / 22 / 1-51

1993년 중 한·인도네시아 간의 주요 정무 관련 내용임.

1. 한·인도네시아 정무관계

- 1992.1.2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1992년 중 방한 가능성 타진
 - 외무부는 한국의 주요 외교일정 및 국내 정치 일정에 비추어 외빈 방한 추가 접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적극 추진은 만류
- 한·인도네시아 범죄인인도조약 교섭
 - 1993.2.25. 인도네시아 외무부 측은 1992.4월 개최 교섭회담 시 한국 측이 제의한 초안에 대한 일차 검토의견 제시
- 1993.3.10.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수하르토 대통령 재선, 김영삼 대통령 축전 송부
 -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3.11. 트리 수트리스노 전 통합군사령관을 부통령으로 선출, 국무총리 명의 축전 송부
- 제3회 동계아시아대회 한국 개최 지지
 - 11.23. Kaphi 체육회 사무총장이 쿠웨이트 개최 아시아올림픽위원회 회의 시 지지 약속

2. 인도네시아 대내외 정세

- 1993.9.26. Alatas 인도네시아 외상과 Pinheiro 포르투갈 외상은 유엔본부에서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주선 하에 동티모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수용 가능한 해법 모색 합의
- 12.12. 인도네시아 East Nuas Tenggara주 Flores섬 지역에서 강도 6.8의 강진과 해일 발생, 1천 3백 명의 사상자 발생(추후 사망자 2,484명으로 확인)
 - 12.16.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위로전을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송부
 - 12.17. 한국 정부, 2만 달러 구호금 전달(한인회 및 진출기업들도 구호금 기부)

한·이란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8 / 23 / 1-43

1993년 중 한·이란 간의 교류 및 협력 관련 내용임.

1. 교류 증진

- 이란 인사 방한
 - 1993.2월 국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 10월 외무장관, 광산금속부 차관
 - 11월 중공업부 차관 겸 산업발전조직위 의장
- 한국 인사 이란 방문
 - 이란 노동차관은 한국 노동부차관의 방문 초청
 - 9월 기아그룹 회장은 이란 대통령 예방
- 한·이란 공동위원회 개최 추진

2. 협력 증진

- 1993.2월 홍수피해 복구 지원
 - 정부구호금 3만 달러 지원, 기아자동차는 앰블런스 5대 기증
- 9월 기아그룹 회장 이란 방문 시 앰블런스 10대 기증
- 잠비아에서 이란의 이익보호국 역할 요청(1993.4.1.)
 - 변종규 외무부 중동아국장과 Nowfarasti 주한 이란대사 간 면담 시, 이란대사는 잠비아의 대이란 단교조치 관련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 잠비아 내에 남아있는 이란 재산 보호 및 이란·잠비아 간 연락 중계역할, 즉 이익보호국으로서의 역할을 한국이 맡아주기를 희망
 - 4.2. 한국은 이란 측 요청에 대해 한·잠비아 간 관계 수립이 일천한바, 이란 측이 기대하는 역할을 맡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내용 회신
- 이란 고등교육부 산하 문화연구원에 한국어 강사 파견 검토

한·이스라엘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2과

MF번호 2023-8 / 24 / 1-140

1993년 중 한·이스라엘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이스라엘 간 도시 교류

- Asher Naim 신임 주한 이스라엘대사가 1992.10월 서울시장 예방 시 처음 제의
- 외무부 의견(1993.2월)
 - 한국 정부는 대이스라엘 관계를 단계적으로 조정
 - 걸프전 이후 중동평화회담 개최 → 1992.1월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관 허용 → 주이스라엘 겸임대사 파견
 - 문화, 음악, 예술 등 비정치 분야에서 양국 간 도시교류는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한 원칙적으로 무방함.
 - 다만, 아랍·이스라엘 간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못한 현실과 아랍 국가가 한국의 절대적인 해외 건설시장 및 원유 도입처라는 점에서 한·이스라엘 관계 발전은 대아랍 기존 우호 협력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Naim 주한 이스라엘대사 면담(1993.8.4.)

- Naim 대사 언급 요지(Peres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친서 전달)
 - 이스라엘은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판매 때문에 북한과 접촉하였으나, Peres 장관은 북한과의 모든 접촉 결과를 한국 측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방산협력 3가지 프로젝트(지대공미사일, 레이더시스템, K1 탱크주포개발 사업) 타결을 희망하며, 여타 첨단무기 분야에서 한국 측의 관심을 기대함.
 - Peres 장관이 연중 방한하여 고위급회담 개최를 희망함.
- 한승주 장관, Peres 장관 방한을 환영하고, 접수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

3. 변종규 아중동국장과 Naim 대사 면담(1993.11.26.)

- 중동 경제개발회의 한국의 참가 문제, 양국 간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 항공협정 체결 문제, 주이스라엘대사관 개설, Peres 외무장관 방한 접수 여부 등 협의
- 한국 측은 12월경 주이스라엘대사관 창설요원이 파견될 것이라고 통보

한·이탈리아 정무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9/1/1-117

1992~93년 중 한·이탈리아 간의 정무 관계임.

1. 한·이탈리아 관계 강화 필요성 증대

- 볼비첼리 주한 이탈리아대사는 1993.4.29. 외무부차관과의 면담 시 북한의 대이탈리아 관계 개선 추진 동향 관련 한국 측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함.
- 주한 이탈리아대사 언급 내용
 - 북한은 이탈리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종혁 주로마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대표부대사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임. 외무성의 경우 PINI 아주국장(처: 한국인, 한국인 자녀 2명 입양)을 비롯해서 친한적인 분위기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정계 및 재계에 대한 북한의 로비활동이 활발함.
 - 최근 국민투표 이후 신내각(비관료출신 인사 다수 입각) 출범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책동 및 친북한 인사들의 로비활동이 더욱 적극화될 우려가 있는바, 한국 측이 4강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기울여 줄 것이 요망됨.
- 향후 조치방안
 - 양국 정부 간 고위인사 교류 적극 추진
 - 양국 정부 간 협의 채널 적극 활용
 - 양국 의회인사 교류 증진 등

2.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한·이탈리아 수교 100주년 기념 주요행사 추진

- 주요 내용
 - 1993.11.18. 이탈리아 포도주 시음 리셉션
 - 11.7.~8. 주한 이탈리아대사 강연회(주제: 2000년대에 즈음한 한·이탈리아 관계)
 - 12.3. 이탈리아 음악과 시의 밤
 - 12.7. 한·이탈리아 관계 주제 세미나
 - 12.8. 한·이탈리아 수교 100주년 기념 음악연주회 만찬
-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의 협조 요망사항
 - 12.8. 음악연주회 만찬에 한국 정부 고위인사(대통령, 외무부장관, 외무부 주요 간부) 참석 요청

한·자메이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9/4/1-71

1992~93년 중 한·자메이카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주자메이카대사의 주요인사 접촉 결과

- Coore 외무장관(1992.10.13.)
 - Coore 장관은 한·중국 수교에 관심을 표명한바, 동 대사는 한국 대통령의 방중 배경과 성과 등 설명
 - 동 장관은 자메이카 내 한국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한국업체의 투자진출 기대, 또한 추진 중인 투자보장협정, 비자면제협정의 조기 체결의 중요성 강조
- 문교장관(10.15.)
 - 신임인사차 방문, 양국 교육문제 등 대화
 - 동 대사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 인적자원개발과 국가발전에 관해 설명
- 농업부장관(1993.1.8.)
 - 농업 현황, 협력방안에 관하여 특히 새우양식사업, 새마을 운동 경험, 농기계 협력 등 관련 협의
- Horace Dalley 상공차관(4.1.)
 - 금번 총선에서 재선된 Dalley 차관은 본인의 선거비용 1만 5천 달러가 채무상태로 남게되었다고 하면서 공관의 선처를 희망
 - 동인은 현 집권당 PNP당에서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과거 친북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친한 세력으로 적극 협조

2. 자메이카·일본 관계 및 비자면제(1992.11.30.)

- 1991년 일본인 관광객 2만 명,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이 없는데도 자메이카는 일본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자면제
 - 일본 정부는 해안고속도로 개수, 상하수도 시설개선, 하천·부두 확장 등에 개발원조 또는 차관 제공

3. 주한 자메이카대사(도쿄 상주), 신임장 제정 계기 방한(1992.12.7.~12.)

- 주요 일정
 - 12.8. 외무부장관 예방, 미주국장 주최 오찬, 대한상공회의소장 예방
 - 12.9. KOICA 부총재 예방, KOICA 부총재 주최 오찬, 코트라 사장 예방



- 12.10. 신임장 제정, 민속촌 관람, 주한 자메이카 명예영사 주최 만찬
- 12.11. 대법원장, 국회의장 예방
- KOICA 부총재와의 면담 결과(12.9.)
 - 동 대사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고, 자메이카의 투자지로서의 매력, 자유무역지대에는 전기 공급이 중요함을 설명
 - 내년 3~4월경 각료들과 한국 투자유치 활동 검토 예정
 - KOICA 부총재는 일본의 대자메이카 지원 현황에 관심 표명

4. Coore 외무장관 초청 만찬(1993.2.4.)

- Coore 외무장관, 이임하는 러시아대사 내외를 관저에 초청, 만찬 행사
- Coore 외무장관은 투자유치세미나단을 이끌고 방한하려 했으나, 국내 정치 일정상 실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전 엑스포 기간 중 방한 고려 언급

한·요르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9/5/1-64

1993년 중 한·요르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요르단 국왕 즉위 40주년 축하 서한

- 1993.5.2. 요르단 국왕 즉위 40주년을 맞이하여 김영삼 대통령 명의 축하 서한 송부
 - 1962.7월 양국 수교 이래 우호관계 유지
 - 1983.9월 후세인 국왕의 방한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 심화 발전
 - 1993.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시 요르단 국왕 명의 축전 접수

2. 한·요르단 과학기술협력 현황(1993년도)

- 양국 간 과학기술협정(1977.12월 서명)에 따라 전문가 상호 교환방문 실시
 - 1993년도 한국 전문가 3명 요르단 방문(1993.3.30.~4.7.), 요르단 전문가 3명 방한(1993.10.7.~16.)
- 1993.11월 요르단 측은 과학기술협력 사업 일환으로 요르단 학생의 과학기술대 유학 추진을 희망

3. 요르단 유력인사 방한 계획

- 요르단 전 하원의장이며, 현 Mustakbal 당 총재인 Sulaiman Arar가 1993.11.29.~12.3. 방한 예정
 - 동인은 요르단 정계 요인일 뿐만 아니라, South Electronics 회장으로서 재계 실력자임.
- 방한 기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한국의 유력 재벌 총수들과 면담 예정

한·케냐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9/6/1-43



1993년 중 한·케냐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케냐 대선 및 총선(1992.12.29.)

- 케냐는 1991.12.10. 일당제 헌법조항을 철폐, 각종 선거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992.12.29. 복수정당제하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
-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1993.1.4. 아래와 같이 선거 결과를 발표함.
 - 현 Moi 대통령이 전 투표자의 36% 지지를 획득하여 당선
 -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이 188석 의석 중 집권당 KANU가 100석을 차지하고, 그 외 정당들은 31석 이하 차지
- 정부는 1.7. 주케냐대사관을 통해 1.5.자 노태우 대통령 명의 축전을 전달함.

2. 국회의장 선출(1993.1.26.)

- 케냐는 26년 만의 다당제하 국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의장으로 집권당 KANU가 지명한 후보 Kaparo를 선출함.
- 정부는 2.4. 주케냐대사관을 통해 동 국회의장에게 2.3.자 박준규 국회의장 명의 축전을 전달함.

3. 참고자료

- 대동남부 아프리카 외교정책(1993.1월, 주케냐대사관)

한·쿠웨이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9/7/1-70

1993년 중 한·쿠웨이트 정무일반 관련 내용임.

1. ROPME(해양환경보호지역기구), 걸프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국제적 지원 요청

- ROPME 사무총장은 1993.1.14. 주쿠웨이트대사관으로 걸프전으로 오염된 동 지역 해양환경 복구를 위한 한국 측 협조를 요청함.
 - 원유 유출, 유전지대 방화, 파괴 등으로 인해 황폐화된 환경복구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희망
 - 제47차 유엔총회는 동 지역 환경문제가 개별 국가 능력의 범위 이상임을 인식, 국제사회에 환경복구를 위하여 ROPME와 그 회원국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2. Razouky 주인도 쿠웨이트대사, 한승주 외무부장관 면담(1993.7.21.)

- 동 대사는 걸프전 당시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쿠웨이트 외무장관의 서한을 수교, 쿠웨이트·이라크 간 국경 설정 문제를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 특히 한국 정부가 금년 가을 유엔총회 연설 시, 새롭게 확정된 국경선 관련 유엔결의 제833호 지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한바, 한국 측은 유엔결의가 준수될 것을 희망하며 한국의 유엔연설문에 포함될 사안이 많으나 쿠웨이트 측의 요청을 유의하겠다고 답변함.
- 7.22.자 쿠웨이트 국영통신 KUNA는 Razouky 대사의 한승주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 장관이 쿠웨이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고 언급함.

한·키르기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동구과

MF번호 2023-9/8/1-102

1990~93년 중 한·키르기스스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0.9.10. 쥬마굴로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강영훈 국무총리 앞으로 우호협력증진 의향 서한을 보내음.

- 정부는 소련 내 연방정부와 개별공화국 간 권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음에 유의하여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0

2. 외무부는 1990.10.5. 주일본대사에 일본 정부와 소련 내 구성공화국 정부 간 협력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10.11. 주일본대사는 아래 내용을 보고함.

- 일본 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사업은 연방정부를 창구로 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각 공화국과 정치 또는 경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식적인 인사교류는 하지 않고 있음.

3. 외무부는 1990.10.12. 국무총리실에 키르기스스탄 총리의 서한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송부함.

- 키르기스스탄 총리가 제안하는 양국 간 협력증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따라 추진해 볼 가치가 있으나, 사업 추진 주체가 양측 정부차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키르기스스탄에서 추진할만한 유망한 사업이 있을 경우, 한·소련 경제협회나 전경련, 상의, 무역협회 등 한국 내 민간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차원의 대응은 한·소련 관계 진전추이, 소련연방과 구성공화국 간의 관계정립 방향 등을 보아가면서 추후 대처할 것을 건의함.

4. 1990.10.29. 강영훈 국무총리는 쥬마굴로프 총리의 서한에 대해 정부 간 위원회 구성보다는 먼저 양국 기업 및 기관(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간 접촉을 제안하는 답신을 보냄.

5. 쥬마굴로프 총리 방한(1990.11.26.~12.3.)

- 방한 경위
 - 금성사 초청
- 주요 일정
 - 상공부차관 면담



6. 1991.9~92.1월 공로명 주러시아대사의 키르기스스탄 관련 보고 주요 내용

- 1991.9.19. Akaev 대통령 면담
 - 동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에 대한 답신 기대 및 키르기스스탄 방문 요망, 한국의 총영사관 및 무역대표부 설치, 일간지의 상주특파원 파견 등 요청
- 11.5. 공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회답 친서 전달 차 Akaev 대통령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협의
 - 9.7. Akaev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및 10.4. 노 대통령 답신
- 1992.1.17. 공 대사는 Akaev 대통령과 양국 간 수교, 공관 설치, 경험 등 협의
 - 이원영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는 상사지사 대표 12명과 1992.1.26.~29.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고, 1.27. Akaev 대통령과 면담, 외교공관 설치, 차관 공여 등 협의

7.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

- 한·키르기스스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가 1992.1.31. 모스크바에서 공로명 주러시아 대사와 아크마트베크 카심쿨비치 나나예프 키르기스스탄 전권대표 간에 서명되고 발효됨.

8. 기타

- 키르기스스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 1991년, 구미·Bishkek 도시 간 자매결연

한·카자흐스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9/9/1-197

1993년 중 한·카자흐스탄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내용임.

1. 인사 교류

- 1993.11.26.~12.1. 노동장관 방한
- 1993.2.10.~11. 김창근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카자흐스탄 방문
- 1993.10.9. 김만제 전 부총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면담

2. 우호증진 조치

- 1993.2.8. 카자흐스탄 외무장관, 한국 외무부장관 앞 감사 서한 및 선물 송부
- 2월 카자흐스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앞 당선 축하 서한 송부
- 9.30.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앞 개천절 축하 서한 송부
- 한·카자흐스탄 외무장관회담(1993.10.1., 뉴욕)
- 12.7. 주카자흐스탄대사, 슐레이마노프 외무장관 예방, 부임인사

3. 협력 증진

- 개발협력
 - 주러시아대사관 공사의 1993.2.10.~11. 카자흐스탄 방문 시, 의약품 및 무상원조 기자재 전달
 - 6.28. 카자흐스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앞 서한으로 아랄해 복구 지원을 요청
 - 9.14. 카자흐스탄 외무부, 아랄해 복구 지원을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
- 통상투자
 - 8.2. 삼성전자 냉장고 출하식 개최(카라간다)
 - 9.15. 털보네(주)는 제2TV공장 가동 축하식 개최
 - 11.8.~10. 민간경험 사절단, 카자흐스탄 방문
- 문화교류
 - 7.22.~8.2. 국내 국악인 단체, 알마티 방문 공연
 - 11.21.~26. 송파구청장,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카라간다시와 자매결연 합의
 - 12.7. 금강제화(주), 국립어린이도서관 내 알마아타 인표 도서관 개관식 개최
 - 12.16.~17. 주카자흐스탄대사, 한인 강제이주 첫 정착지 방문

한·레바논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9 / 10 / 1-80

1993년 중 한·레바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베이루트 무역관 재개 문제

- Demerdjan 레바논 상공장관은 암만 주재 무역관의 1993.4.22. 베이루트 상담회 주최와 관련, 베이루트 출장 무역관 직원을 초치하여 한·레바논 양자 무역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베이루트 무역관의 재개를 촉구한바 있음.
- 이시호 주레바논대사대리는 베이루트 주재 한국상사의 재건 계획 입찰 참가에 따른 협조 요청을 위해 5.7. 동 장관을 예방하고자 하는바, 상기 문제 관련 정부 입장을 요청함.
- 상공자원부는 4.29.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면서 한·레바논 무역증진에 기여할 구체적 사업이 발생할 경우 요르단 암만 무역관을 통해 출장지원하겠다고 답변함.

2. 주레바논대사대리, 베이루트 출장(1993.11.29.~12.3.)

- 외무성 경제국장 대사 면담 시, 동 대사의 주요 언급 내용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협정 서명 이후 지역 정세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바, 1994년 중 이스라엘·시리아, 이스라엘·레바논 관계에 진전이 있고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가 완화된다면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재건 및 개발 계획에 비추어 중동 붐이 올 것으로 예상함.
- 베이루트 공항 재건사업(3억 5천만 달러 규모)에 한국의 현대, 대림 및 대우가 입찰에 참가하여 1994.2월 말 낙찰이 예상됨.
- 외무성 정무국장, 경제국장 및 국제기구국장대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공관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함.
-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후보 지지 교섭
 - 북한 핵 문제 관련 레바논은 유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한국 입장 지지

한·레소토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9 / 11 / 1-70



1992~93년 중 한·레소토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3.3.27. 레소토 총선 실시

- 16개 정당 난립
- BCP 당이 65개 선거구 중 51개 지역에서 승리하여 압승
- 4.9. 신임 총리에 한국 대통령 축전 발송

204

2. 1993.4.23. 레소토, 대전 엑스포 참가 발표

- 10.26. 레소토의 날 행사 개최

3.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신임장 제정차 레소토 출장(1993.11.16.~19.)

- 신임장 제정, 국왕, 수상, 외교장관 면담, 교민 만찬

한·라이베리아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9 / 12 / 1-94

1992~93년 중 한·라이베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라이베리아 외상 방한 희망

- 주유엔대사는 1992.1.3. 유엔 주재 라이베리아대사로부터 Matthews 라이베리아 외상이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를 대동하여 1월 초 대만(구 중화민국)을 방문예정이며, 이 기회에 1992.1.10.~12. 비공식 방한하여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국 정세를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한국 측이 이를 호의적으로 검토하여 1.8.까지 타이베이 주재 라이베리아대사관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함.
- 이와 관련, 외무부는 1.4. 주유엔대표부에 1월 중 방한이 확정된 외빈이 많아 라이베리아 외상 일행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라이베리아 측에 적절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는 지침을 송부함.

2. 라이베리아 국방장관 방한

- 외무부는 1992.6.29.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주)대우 초청으로 Edward Kesselly 라이베리아 임시정부 국방장관이 1992.7.1.~5. 비공식 방한하여 대우 측과 경비정 수출(200만 달러 상당) 관련 협의할 예정임을 통지함.

3. 라이베리아에 대한 지원

- 외무부는 1993.5.6.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라이베리아에 배정해 놓은 기자재 공여 예산 5만 달러를 주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대사관을 통하여 구호물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품목, 전달 방법, 시기 등에 관해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의견을 문의함.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7.14. 라이베리아 난민구호 물품 관련 앰블런스 1대는 국제난민기구를 통해 전달하고, 삽, 괄이 등 농기구는 라이베리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건의함.

한·리투아니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9 / 13 / 1-81



1993년 중 한·리투아니아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내용임.

1. 교류 증진

- 리투아니아 인사 방한
 - 1993.2.8. 외무부,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의 방한 초청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회신
 - 4.7. 상공자원부, 1992.7월 리투아니아 경제장관 방한 초청이 유효함을 재확인
 - 1993.9.22.~24. 총리 방한
 - 1993.9.22.~28. 상공장관 방한
- 한국 인사 리투아니아 방문
 - 1993.2.25.~27. 주덴마크대사, 리투아니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문
 - 1993.9.14.~18. 주덴마크대사, 이임인사 차 방문
- 우호증진 조치
 - 3.15. 국무총리 명의 리투아니아 신임 총리 앞 축전 발송
 - 12월 리투아니아 대통령, 한국 대통령 앞 선물을 주한 명예총영사를 통해 전달

2. 협력 증진

- 1993.10.21. 리투아니아 외무부, 투자보호협정 및 무역협정의 국내절차 완료를 한국 측에 통보
- 상공자원부의 협력증진 검토
 - 대한상익과 협의하여 민간경협위원회 설치 검토
 - 기업들로 하여금 발트 해 연안 항구 물품창고 건립 참여 유도
 - 코트라 무역관 설치는 우선 추진 곤란
- 리투아니아 관할 코트라 무역관 조정
 - 당분간 모스크바 주재 무역관에서 관할 유지

한·라오스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9 / 14 / 1-84

1992~93년 중 한·라오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라오스 수교 관련 양국 입장(1992.12월)

- 라오스 측 입장
 -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는 '선 경험, 후 수교' 원칙하에 추진
 - 1991.10월 유엔총회 계기 한·라오스 외무장관회담 시 라오스 측은 단계적 관계발전을 희망하고, 방콕 주재 양국대사관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을 제의
- 한국 측 입장
 - 수교를 전제로 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제공 및 무역대표부 설치와 같은 중간단계 지양
 - 직접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대베트남 수교와 동시 진행

2. 수교 관련 추후 협의 동향

- 주태국 라오스대사는 1993.8.19. 한국과의 수교는 북한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라오스 고위층의 의향임을 한국 측에 전달
- 주유엔 라오스대사는 10.20. 라오스 외무성에서는 한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한·라오스 간 수교는 시간문제라고 언급
 - 한편, 북한·라오스 간 관계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12월에 라오스 총리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다고 언급

한·라트비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2과

MF번호 2023-9 / 15 / 1-40

1993년 중 한·라트비아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내용임.

1. 라트비아 인사 방한

- 1993.7.31.부터 2주간 대외무역장관, 대전 엑스포 참석차 방한

2. 한국 인사 라트비아 방문

- 1993.11.16.~19. 주스웨덴대사, 공화국 선포 75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문

3. 우호증진 조치

- 1993.7.9. 대통령 명의 신임 라트비아 대통령 앞 축전 발송
- 7.15. 신임 라트비아 대통령, 한국 대통령 앞 감사 답전 발송
- 10.18. 라트비아 총리, 대전 엑스포 관련 방한 통상장관 등에 배훈 호의에 감사 서한 발송

한·리비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동2과

MF번호 2023-9 / 16 / 1-109

1992~93년 중 한·리비아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리비아 정세

- 팬암기 폭파 사건
 - 1988.12월 런던발 뉴욕행 팬암 여객기가 영국 상공에서 폭발하자, 리비아 요원을 피의자로 지목
 - 리비아 정부는 동 사건 연루를 부인하면서 국제적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천명
 - 1992.4.15.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결의 발효
- 리비아 전 재무장관 망명
 - 1993.2월 Bukhari 리비아 전 재무장관이 런던으로 망명하여 기자회견 개최
- 리비아의 대아시아 투자
 - 1993.5월 리비아 외무장관 말레이시아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 대아시아 투자확대 발표

2. 한·리비아 간 관계

- 리비아 반정부 인사의 제5차 세계평화정상회의(1992.8.22.~27., 서울) 참석
 - 리비아 정부는 동 회의에 반정부 인사인 Bakoush 전 리비아 수상이 초청된 데 대해 주리비아 대사관에 항의를 검하여 초청 배경 등 문의
 -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
- 팬암기 폭파 사건에 따른 국제 동향 주시
 - 주한 리비아대사는 자국의 사건 연루 부인 및 조사 협조 등 리비아 입장 설명
 - 한국 정부는 한·리비아 간 경제협력을 고려하여 국제적 비난 동참에 최대한 신중한 입장 견지
-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리비아 방문(1993.9.4.~5.)

한·말레이시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9 / 17 / 1-47

1993년 중 한·말레이시아 간의 주요 정무 관련 내용임.

1. 한·말레이시아 정무관계

- 1993.1.26. 노태우 대통령의 이임 서한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앞 송부
- 2.22. 마하티르 수상의 김영삼 대통령 및 황인성 국무총리 취임 축전 송부
 - 3.3. Badawi 외상의 한승주 외무부장관 취임 축전 송부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는 8.10. 외무부차관을 예방, 말레이시아 국왕의 김영삼 대통령 말레이시아 방문을 초청하는 공한 전달
 - 4월 외무부장관의 말레이시아 방문, 5월 마하티르 수상의 방한 등 고위급 인사교류 활발
 - 김영삼 대통령은 답신에서 말레이시아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 희망

2.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 1993.7.16. 주말레이시아대사,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면담 시 한국기업 제작 장갑차 수출 관련 협의
- 9.3. 말레이시아 국방부 사무차관 명의의 주말레이시아대사 앞 구매의향서 접수
 - 총 45대의 장갑차 차종 및 수량 명기
 - 동 건은 말레이시아의 대보스니아 파병을 계기로 상담이 급진전, 10월까지 동 장갑차를 요구 조건에 맞추어 인도해야 함에 따라 동 대사는 말레이시아 측이 요구하는 단기간 내 납품을 위한 특별조치 건의
- 10.1.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대우산 장갑차 42대 구매 결정
 - 대우 측은 10.25. 선적 예정
- 말레이시아 측은 10.19. 구매 장갑차 운전 숙달 및 정비교육 훈련차 71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견
- 10.27. 말레이시아 국방부 차관과 대우 부회장 간 동 장갑차 구매계약 체결

한·몰도바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9 / 18 / 1-91

1992~93년 중 한·몰도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몰도바 대통령 방한 추진(1992.9월)

- 한국 국내 정치 일정상 외국 원수의 추가 접수 불가 이유로 접수 연기

2. Nicolai Koshkodan 몰도바 부총리 방한(1993.10.5.~10.)

- 대전 엑스포 '몰도바의 날' 참석(10.7.)
- 대표단
 - 국무장관 및 대외경제장관 등 수행
- 주요 일정
 - 렉키금성사 방문, 대전 엑스포 참관 등

한·몽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9 / 19 / 1-205

1993년 중 한·몽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인사 교류

-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5명의 대표단, 몽골 방문(1993.6.1.~4.)
 - 몽골 총리 및 국회의장 예방, 의약품 등 구호품 전달 등
- 몽골 헌법위원회 위원장 일행 3명 방한(1993.6.20.)
- 한·몽골 및 한·러시아 의원친선협회 사절단(5명의 국회의원), 몽골 방문(1993.7.26.~28.)
-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몽골 방문(1993.7.21.~24.)
 - 몽골 국회의장 및 총리 면담, 몽골국립대 및 과학아카데미 방문 등
- 몽골 평화친선협회 소속 5명 방한(1993.9.26.~10.3.)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력협정 서명 및 문화센터 설립 문제 등 협의

2. 양자관계

- 외무부 아주국장, 주한 몽골대사 면담(1993.1.21.)
 - 1992년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몽골 방문 시 서명한 한·몽골 간의 이종과세방지협정 비준서 교환에 합의
- 몽골 Jasrai 총리와 Gombosuren 외상, 2.27. 황인성 국무총리 및 한승주 장관 취임 축전 발송
- 우르진훈데브 주한 몽골대사, 외무부 아주국장과 긴급 면담(4.6.)
 - 몽골의 폭설로 인한 재난에 대해 긴급지원 요청
- 외무부, 몽골 대통령 선거 참관단으로 초청받은 주몽골대사 및 동 대사관 담당관 참관 지시(5.24.)

3. 기타 동향

- 주몽골대사, 1993.1.20. 몽골의 대학 입학 전 교육 연한이 10년인 관계로 몽골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 한국대학 입학자격 부여 건의
 - 외무부는 이를 교육부에 통보 및 검토 요청
- 주한 몽골대사, 1.21.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교육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해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인 문제를 제기
 - 외무부 측은 교육부 및 주몽골대사관을 통해 입국 목적에 맞는 활동 계도
- 7월 연세대, 경희대 및 고려대 의료봉사단 몽골 의료봉사 활동 관련 외무부 및 주몽골대사관의 행정적 지원 제공
- 외무부 및 주몽골대사관, MBC의 몽골 환경 관련 취재(8.21.~25.) 지원

한·모로코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중동2과

MF번호 2023-9/20/1-109

1991~93년 중 한·모로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모로코 수산회사 Somamer(한국 선원송출회사 (주)진성) 소속 한국인 선원(90명) 분규(1992.6월)

- 모로코 선주사는 3개월 기본임금 체불, 출항 없이 대기상태에서 기본 식수, 주·부식 제공 불량, 상륙비, 만선비 등을 제공하지 않은바, 한국인 선원들은 이에 항의하여 연좌 농성 중임.
- 주모로코대사는 6.5. 라홀로 수산부차관을 방문, 상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바, 동 차관은 한국선원 등에 대한 임금체불 현실을 시인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수산부가 적절히 개입할 것을 약속함.
- 카사블랑카 법원은 송출회사 측 대리변호인에 의하여 제출된 한국인 선원 임금 지불 소송에 대하여 Somamer사가 진성해운에 대하여 채무, 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7,119,043.50디람을 지불하도록 8.17.자로 판결함.

2. 변종규 아중동국장, Sefiani 주한 모로코대사 면담(1993.5.7.)

- 한국 주재 11개 아프리카국가 대사들의 외무부장관 면담 요청, 아프리카 주재 한국대사관 폐쇄 재고 요망 입장 전달

3. 홍순영 외무부차관, 주한 모로코대사 면담(1993.6.9.)

- 주한 모로코대사는 홍 차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모로코 간 관계 발전에 노력 희망
- 홍 차관은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로코의 협조를 희망
- 주한 대사는 모로코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혹은 민간차원의 대표단 파견을 희망함. 홍 차관은 어떤 대표단을 구성할지는 향후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서 민간 분야로 하여금 합작투자 등 투자진출을 장려하겠다고 언급

한·모리타니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9 / 21 / 1-66

1992~93년 중 한·모리타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원철 주모리타니 대사대리, Yahi 신임 외상 면담(1992.3.16.)

- 동 외상은 한국 외무부장관의 취임 축전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양국관계 발전 강화를 기대하고, 특히 아래 부분에서의 현 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청함.
 - 문맹퇴치운동, 사막화 방지계획, 자급자족운동, 기술협력 지원, 자원개발 참여, 행정 공백 및 예산부족에 따른 재정지원 분야 등
- 이에 동 대사대리는 5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결핵치료제,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유아 질병, 주사기 등 위생기구 및 재료) 및 분무기 등 특별지원을 외무부에 건의함.

2. 모리타니 비행 허가 관련 문제

- 모리타니 외무성은 1992.8.5.자로 영공 통과 등 아래와 같은 비행 허가 관련 내용을 알려온바, 외무부는 이를 교통부에 송부함.
 - 민간 항공기든 군용 항공기든 모리타니 영공을 통과하거나 착륙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한 15일 전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취하여 줄 것
 - 영속적 이용허가를 받은 비행물체의 영공 통과나 착륙 업무도 동 업무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함께 15일 전에 공한으로 요청하여 줄 것

3. 대이라크 공습 시 공관원, 교민 안전대책

- 주모리타니대사대리는 1992.8.18. 주모리타니 미국대사대리, 8.19. 외무성 차관대행, 의전장, 장관 보좌관 등을 각각 면담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한국 공관원 및 선원, 교민의 안전보호 협조를 요청함.
- 이와 관련, 주모리타니 미국대사대리는 긴급사태 발생 시 주모리타니대사관과 즉각 접촉, 한국 공관원 및 선원, 교민 안전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함.
- 주모리타니대사대리는 만일 대이라크 공습이 강행되더라도 모리타니 내에서는 지난 걸프전 때와는 달리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함.

4. 주모로코대사, 겸임국 모리타니 출장(1993.8.11.~15.)

- 외무부는 7.23. 주모로코대사의 겸임국 신임장 제정을 위한 모리타니 출장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할 것을 지시함.



- 공관 폐쇄의 불가피성 설명: 1993.1월 예산 및 인력사정으로 인해 모리타니 공관 폐쇄가 불가피했음.
-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지속 희망 표명: 공관 폐쇄 후에도 양국 간 기존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무상원조 제공, 기술연수생 방한 초청 등 실질 협력관계 계속 예정임.
- 신외교정책, 북한 핵 문제 및 검임국의 협조 요청, 선원 및 교민 보호대책, 명예영사 활동 강화 요청 등 설명
- 주요 일정
 - 8.12. 외무장관 예방, 기자재 공여식 개최(대우 승용차 8대)
 - 8.13. 신임장 제정, 수산장관, 대법원장, 내무장관 예방
 - 8.14.~15. 누아디브 교민회 방문
- 관찰 및 건의사항
 - 모리타니 측은 한국 공관 폐쇄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들인 무상원조 등 대외협력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Hamahoullah 명예영사는 9월 중 대전 엑스포 참관 차 방한 예정이라고 함.
 - 한국 정파의가 병원장으로 근무 중인 누악쇼트 소재 모자보건병원을 방문한바, 동 병원은 의료 시설과 의약품 부족으로 원활한 의료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모리타니 정부와 금년도 기자재 관련 협의 시 일부를 동 병원에 지원하도록 할 예정임.

한·모리셔스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9 / 22 / 1-51

1992~93년 중 한·모리셔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P. R. Berenger 모리셔스 외무장관의 한승주 외무부장관 취임 축전(1993.3.15.)

- 주요 내용
 - 장관 취임 축하, 면담 희망(방한 초청 시사)
 - 1992.1월 한국 측의 재정 사정으로 폐쇄된 주모리셔스대사관 재개 강력 희망
- 3.21. 외무부장관의 답전 송부

2. 모리셔스 정부의 산업훈련 분야 자문관 추천 요청(1993.9.10.)

- 모리셔스 정부는 한국 주재 명예영사를 통해 모리셔스 산업 및 기술훈련원이 세계은행의 지원하에 산업훈련계획 및 제도개발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자문관으로 채용할 계획임을 알려오면서 9.30.까지 인사 추천을 요청해옴.
- 주요 업무
 - 훈련계획 검토 및 개선방안, 산업계 훈련계획 진행사항 점검, 이행방안 수립 및 평가 등

3. 남상정 주케냐대사관 1등서기관, 모리셔스 출장(1993.12.14.~16.)

- 출장 목적
 - 겸임국인 모리셔스의 최근 정세 파악
- 주요 일정
 - 외무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협의, 한국 명예영사 면담, 현지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
- 관찰 및 건의
 - 1992년 상주공관 철수로 인해 다소 소원해진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유지·발전 시키려는 양측 입장이 확인됨.
 - 양국 간 주요 현안은 없으나, 기존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기적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함.
 - 현지 기업인들에 의하면, 정치정세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바, 이는 각 정당 간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경제정책에 관하여 거의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한·몰디브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9 / 23 / 1-53

1993년 중 한·몰디브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스리랑카대사, Saleh Shihab 몰디브 외무차관 면담(1993.1.5.)

- 동 대사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한 데 사의 표명
- 동 차관은 한국의 대몰디브 원조액이 연간 10만 달러 상당에서 1992년부터 반액(5만 달러)으로 삭감된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하며 몰디브에 대한 원조를 건의
 - 동 대사는 4.2. 몰디브가 한국의 유엔가입 및 국제기구 입후보 시 적극 지지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1993년도부터는 종전과 같이 10만 달러 원조를 외무부에 건의

2. Jameel 몰디브 외상 비공식 방한(1993.6.12.~13.)

- 동원산업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동원산업 회장의 명예영사 임명 문제에 관해 협의

3. 주스리랑카대사의 몰디브 출장(1993.7.25.~27.)

- 독립기념일 행사 및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외상 및 해운·교통장관 접촉
 - Jameel 외상은 방한 의사를 표명

4. 주스리랑카대사, Gayoom 대통령 취임식(4선)(1993.11.11.) 참석

- 취임식 및 리셉션에 참석, 주요인사 면담
 -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도 참석
-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한·말라위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9 / 24 / 1-119

1991~93년 중 한·말라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말라위 홍수 및 구호요청

- 1991.3.10. 말라위 Mulanje 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홍수 발생
 - 약 500명 사망, 도로 및 교량 파괴, 가옥 및 494km² 전답 피해, 약 3만여 명의 이재민 발생 등 건국 이래 최대의 재난
-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원조를 시작하고 있고, 말라위 거주 한국 교민들은 3.19. 약 2천 달러의 수재민구호기금을 기증
- 한국 정부는 4.2. 대통령 명의 위로 전문(3.25.자) 및 6.4. 홍수 재해구호금 1만 달러를 전달

2. 주말라위대사관 폐쇄 관련 문제

- 주독일대사는 1992.5.6. 주독일 말라위대사 면담 시 주말라위대사관 폐쇄 관련 아래 요지의 실망감을 청취, 보고함.
 - 작년 한국이 예산 등의 이유로 주말라위대사관을 폐쇄하였으나, 최근 한국이 말라위 인근국가인 짐비아와 국교를 수립, 상주공관 신설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주말라위대사관을 폐쇄한 점에 비추어 동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움.
 - 공관을 완전히 폐쇄한 후 다시 공관 재개는 어려울 것인바, 한국이 말라위에 한 명의 직원을 남겨두더라도 공관 유지 방안을 권유하고자 함.
- 외무부는 5.9. 상기 관련 아래의 설명을 주독일대사에게 송부함.
 - 주말라위대사관은 1992.3.31.자로 폐쇄되었으며, 주짐비아대사관은 동 조치 이전인 1991.3.5.에 설치(1990.9.4. 수교)된바, 주말라위대사관 폐쇄를 예정하고 주짐비아대사관을 개설한 것은 아님.
 - 한국 정부는 현재 변화하는 국제환경, 북방정책의 결실 및 유엔가입 등을 감안, 재외 외교망을 재정비하고 있는바, 이러한 외교망 재정비 일환으로 최근 말라위뿐만 아니라 시에라리온, 모리셔스, 아이티 등 공관을 폐쇄한 바 있음.
 - 주말라위대사관 폐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말라위와의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명예영사 임명 추진, 겸임대사 임명, 무상원조, 연수생 초청사업 등 실질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3. 주짐비아대사, 겸임국 말라위 출장(1992.12.14.~22.)

- 12.16. 신임장 제정
- 12.18. 무상원조품 코란도 지프차 5대 기증
- 12.19. 재외국민 간담회

4. 주짐비아대사, 겸임국 말라위 방문(1993.11.10.~14.)

- 무상원조 기자재 기증, 외무장관 면담, 재무부 사무차관, 외무부 사무차관 등 접촉

한·나미비아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9 / 25 / 1-70

1992~93년 중 한·나미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교 축전 교환

- 1992.2.8.자 Sam Nujoma 나미비아 대통령 친서 접수
 -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내용의 축하 친서
 - 2.28.자 노태우 대통령 명의 답신 발송
- 1993.3.24.자 나미비아 외무장관 명의의 한국 외무부장관 임명 축하 서한 접수
 - 4.13.자 외무부장관 명의 답신 발송

2. 송학원 신임 주나미비아대사 부임 예방

- 1993.11.23. 송 대사, 부임 인사차 나미비아 의전장 예방

한·네팔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9 / 26 / 1-112

1993년 중 한·네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네팔대사관 주요 활동 보고

- 부임 인사차 네팔 국왕 및 수상 예방
- 1994년도 문화·홍보 외교활동 계획
- 네팔 60년 내 최대 수해 발생에 위로전문 발송 및 수재의연금 전달
- 국경일 리셉션 개최
- 네팔 정부의 식량원조 요청
 - 네팔 정부는 주네팔대사관과 주일본 네팔대사관을 통해 한발로 인한 식량 원조를 요청

2. 정부 간 기술협력 사업

- 내무부에 대한 기자재 무상제공 기증식: 1993.1.26. 자동차 및 복사기 지원
- 창업개발 사업: 사후 관리로서 연수초청 및 창업 전문가 2명 추가 파견
- 1993년도 연수생 초청 사업
 - 광물자원 탐사훈련 과정을 시장경제 관리 및 한국 경제개발 경험 과정으로 변경
 - 여성 지도자 과정 연수생 2명 파견
 - 부가세 전문가 네팔 파견 검토
- Modi Khola 수력발전소 실시 설계 양해각서 서명(4.15.)
- 기자재 공여사업 필요성 검토 보고
- 의료협력 양해각서 서명(8.22.)

3. 영사 및 인적교류 지원

- 한국 여성 에베레스트 등반대가 1993.5.10.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한 것에 대하여 5.11. 김영삼 대통령 축전 전달
- 불교 조계종 관음사 측은 9.7. 룸비니지역 내 조계종 사찰 건립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

한·노르웨이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10/1/1-44

1992~93년 중 한·노르웨이 간의 주요 관계(주요인사 교류) 동향임.

1. Holst Johan 노르웨이 국방장관 방한(1992.9.10.~13.)

- 방한 목적
 - IISS(국제전략연구소) 서울 총회 참석
- 주요 일정
 - 권영해 국방부차관 조찬

2. Kari Nordheim-Larsen 경제개발협력장관 방한(1993.10.26.~30.)

- 수행원
 - Anne Marie 정치보좌관 외 2명
- 주요 일정
 - 국제협력단 총재 면담

한·네덜란드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10/2/1-98



1. 네덜란드 주요인사 방한(1993.10월)

- A. Pillinini 공군 참모총장(10.3.~8.)
 - 양국 공군 간 우호협력증진
- A. Peper 로테르담 시장(10.9.~13.)
 - 한국 지방정부와의 상호 협력증진
 - 농림수산부장관 면담 시(10.12.) 네덜란드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입후보자 지지 요청
- Ad. Greelhoed 경제성 차관(10.9.~11.)
 - 대전 엑스포 참석

222

2.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경기도에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 교환 제의(1993.4월)

- 경기도, 북홀란드주, 네덜란드 한국무역클럽 3당사자 간 약정
- 경기도- 북홀란드주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수출입, 투자, 관광, 기술이전 및 기타 분야에서 상호 접촉 및 협력증진

3. 주네덜란드대사, 6·25 참전용사를 위한 리셉션(1993.9.28.) 개최

- 주재국 참전용사회 연례기념식 참석 계기
 - 네덜란드 국방부 고위관료, 현역장병, 참전용사회 회원 및 유가족 등 750여 명 참석

한·오만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10/3/1-70

1993년 중 한·오만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Shaban Salim Mohamed 오만 석유광물차관 방한(1993.5.21.~22.)

- 당초 Al Sanfari 장관이 방한 예정이었으나, 동인 사정으로 계획 변경
 - 한국의 제2위 석유공급국으로서 향후 LNG 판매 목적
 -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면담

2. 오만 상공장관 방한 연기

- Maqbool Bin Ali Sultan 상공장관의 1993.9.24.~28. 방한 추진
 - 코트라 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KOICA 총재 등 면담 계획
- 1993.9.21. 오만 측은 카부스 오만 국왕의 10월 초 예멘 방문을 이유로 Maqbool 장관 방한 연기를 요청

한·파키스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0/4/1-118

1993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파키스탄 대외정책

- 국제정세 평가
 - 단일 슈퍼파워 등장,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어려움, 유럽 및 아시아의 분쟁, 독일 및 일본의 부상,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 인도의 국내 정세 불안정
- 관심사항
 - 카슈미르 분쟁, 대미국 관계 개선, 대중국 관계, 러시아의 중요성, 일본의 역할, 중앙아시아에서 기회 모색,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 이슬람과의 유대 강화, 지역 및 다자 협의회를 통한 평화 증진 기여, 경제통상외교 강화 등

224

2. 한국의 대파키스탄 외교 평가

- 서남아지역 평가
 - 거대 시장, 발전 잠재력, 유망 투자대상, 지역차원 협력, 다자차원 협력, 북한 핵 문제 협력
- 한국 측 관심사항
 - 파키스탄 총리 방한, 북한 핵 문제 협력, 정부 간 협의회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다자차원 협력 증진, 대전 엑스포 참여

3. 한·파키스탄 관계 동향

- 1993.10.6. 총선으로 친북 성향의 Bhutto 총리 연립정부 출범
 - Nawaz 정부하에 추진되었던 한국의 건설 분야 진출사업에 차질 우려
 - 정부 발주 공사는 축소하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은 지속 전망
- 한국 정부는 정상 포함 고위급 인사교류를 증대하고 정부 간 협의회 활성화 추진
 - 한·파키스탄 수교 10주년 계기를 활용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 증대 추진

한·폴란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10/5/1-32

1993년 중 한·폴란드 간의 주요 정무관계 동향임.

1. 주한 폴란드대사,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1993.4.27.)

- 한국 외무부장관의 구주 순방 시 폴란드 방문 가능성 문의
- 폴란드 방문 검토
 - 폴란드는 중·동구지역에서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자 중점 경제협력대상국임.
 - 1989.11월 수교 이래 한국 측 각료급 고위인사 방문 전무

2.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 일행, 폴란드 방문 추진(1993.5.16.~18.)

- 폴란드 국영기업 민영화 현황 파악

3. 주한 폴란드대사,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1993.5.20.)

- 한·폴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및 외무부장관 폴란드 방문 협의

4. 김우중 대우 회장, 폴란드 방문(1993.9.7.~8.)

- 폴란드 경제담당 부수상, 상공장관 등 면담

한·파라과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0/6/1-115

1993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파라과이 총선 참관 지원 문제

- 파라과이 정부, 1993.5.9. 실시되는 총선에 OAS(아프리카단결기구) 옵서버국으로 한국의 참관단 파견을 요청
 - 한편, OAS 참관단 부대경비(약 60만 달러) 가운데 일부 지원 요청
- 한국 정부는 당초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였으나, 멕시코, 브라질 등 OAS 핵심 회원국들이 부대경비 부담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OAS 옵서버국으로서 재정 부담을 포함한 파견에 명분이 적다고 판단

226

2. Oviedo 파라과이 육군 총사령관 방한(1993.10.25.~30.)

- 국방부장관 면담, 육군본부, 삼성전자, 대우중공업, 럭키금성 방문, 판문점 시찰 등
- 동인은 1989.2월 당시 Rodriguez 대통령을 앞세워 혁명을 주도하고 Wasmosy 현 정부에서도 군부 실력자로서 영향력이 비교적 큰 편이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점쳐지는 인물임.

한·필리핀 정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0/7/1-35

1993년 중 한·필리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노창희 외무부차관, Raul Rabe 주한 필리핀대사 면담(1993.1.15.)

- 필리핀의 IOM(국제이민기구) 사무차장 입후보 지지 요청
- 필리핀의 대한국 무역역조 시정 노력 요청
- 양국 정상 교류 가능성 협의
 - 한국전 참전 경력의 라모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 관련 협의 계속하기로 함.

2. 필리핀 식물검역관 방한(1993.2.1.~4.)

- 필리핀산 과일 수입개방 관련 한국 검역당국 측이 제기한 검역문제 협의

3. 라모스 대통령 방한 추진

- 주한 필리핀대사,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1993년 하반기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기간 중 라모스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 협의
- 홍순영 외무차관, 동 대사 면담(4.29.) 시 라모스 대통령 방한 관련 준비 협의
 - 방한 시 범죄인인도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서명 추진
 - 무역역조 시정 및 투자증진 등 주요 협의 이슈

4. 한·필리핀 현안 수록

- 라모스 대통령 방한 시 김영삼 대통령 필리핀 방문 초청
- 필리핀 불법체류 근로자 문제
 - 1993.9월 현재 약 1만 명 한국 거주 추산
- 필리핀·북한 수교 문제
 - 필리핀은 1991.6월 북한과의 수교에 원칙 합의
 - 다만, 한국 측의 북한 핵 문제 해결 시까지 수교연기 요청에 따라 수료 보류 중

한·파나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5-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0/8/1-124



1985~93년 중 한·파나마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주한 파나마대사, 1988.3.9.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 최근 파나마 정세 설명 및 솔리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요청하는 공한 전달

2. 엔다라 파나마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접수

- 1990.7.10.자 친서 요지
 - 한국에 도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노리에가 장군 및 추종자들의 은닉재산 확인 동결 및 환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
- 9.17. 한국 정부 조사 결과 통보
 - 관계부처에서 노리에가 장군이 은닉 도피한 재산의 유무를 조사했으나 여사한 도피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통보

3. 알론소 페르난데스 파나마 국회의장 일행, 비공식 방한(1991.2.13.~16.)

- 방문단
 - 국회의장 부부
 - 엘리세오 알바레즈 의원 부부 등

한·포르투갈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10/9/1-84

1992~93년 중 한·포르투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고위급 인사 교류

- 1992.5.25. 노창희 외무부차관, Barroso 포르투갈 외무차관 면담(1992.5.25.)
 - 한·EC(구주공동체) 정무협력, 남북한 관계, 국제 정세 및 한·포르투갈 양자관계 등 협의
 - Barroso 차관, Soares 대통령의 1993년 중 방한 가능성, 한·EC 외무장관회담 정례화, 남북한 관계 현황, 동티모르 문제 등 협의
-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부부 동반 및 수행원 3명), 포르투갈 방문(1993.4.29.~5.4.)
 - 포르투갈 시민당 주최 세미나 참석, 포르투갈 대통령 예방 등 활동 수행
- M. Raposo 한·포르투갈 친선협회장 방한(1993.8.1.~5.)

2. 양자관계

- 주한 포르투갈대사관, 임진왜란 참전 포르투갈인 관련 자료 외무부에 제공(1992.1.16.)
- 상기 Barroso 외무차관이 외무장관으로 취임,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송부(11.12.)
 - Barroso 장관, 감사 답신 송부(11.18.)
- 포르투갈 외무성 경제담당 부총국장, 주포르투갈대사 면담(12.17.)
 - 1985년 경제협력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경제공동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음을 지적하며 1993년 봄 개최를 희망
- Barroso 포르투갈 외무장관, 주포르투갈대사에게 1993년 중 방한 희망 표시(1993.1.11.)

3. 기타 동향

- Mario Soares 포르투갈 대통령, 신년 기념사(1993.1.8.)
 - 앙골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티모르의 인권보장 등 국제문제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1992년 상반기 포르투갈의 성공적인 의장국 임무 수행 평가

한·페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0 / 10 / 1-27



1993년 중 한·페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Sobero 페루 수산장관 방한(1993.3.22.~26.)

-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지시
 - 한·페루 수산협력증진 모색(한국 수산청장 면담)
 - 어선조선소, 양식장, 해상어장 시찰, 페루 진출 오징어선단 대표 접촉 등

230

2. 페루 정부, 한승주 외무부장관에게 훈장 수여

- 후지모리 대통령의 방한(1993.6.2.~4.) 계기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
 - 1993.8.7. 주한 페루대사가 페루 태양 대십자 훈장을 한승주 장관에게 직접 수여
 - 최동진 외무부 의전장, 장재룡 미주국장에게도 각각 공로훈장 수여

한·카타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10/11/1-91

1992~93년 중 한·카타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Jabor Al-Thani 카타르 외상 방한 접수 거부 결정

- 카타르 측의 동 외상 방한(1993.4.12.~15.) 제의에 대해 외무부는 북한·카타르 간의 갑작스러운 수교 발표(1993.1월)에 대한 유감 표시, 양국 간 현안 부재 등을 이유로 동 제의를 완곡하게 거부
- 한국 측, 추후 입장을 바꿔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계기 카타르 외상 면담 시(1992.10.2.) 구두로 방한 초청

2. 양국 간 여타 현안(1993년도)

- 북한·카타르 간 수교 이후, 한·카타르 항공협정, 카타르 국정자문회의 의장 방한, 주한 카타르대사관 신축 부지 문제 등에서 소원한 양국관계 양상 계속 표출

한·러시아 관계.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0 / 12 / 1-226



1993년 상반기 중 한·러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민족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국제회의 참석 요청

- 미국 시애틀 소재 국제협력개발재단은 1992.12.30.자 Swanson 회장 명의로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송부
 - 1993.5.17.~21. 모스크바 개최 제1차 회의에 대표단의 참석 요청
- 회의 목적
 - 민족국가 간 분쟁원인과 그 해결책 및 소수민족 보호 문제를 논의하며 이에 대한 의정서 채택
- 1993.5월 개최 예정이던 동 회의는 재정확보 문제 등으로 1993.9.13.~18.로 연기 조치

232

2. 열친 러시아 대통령 명의 서한

- 1993.5.6.자 열친 대통령 명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열친 대통령 앞 국민투표 승리 축전에 대한 사의 전달

3. 외무부차관, 주한 러시아대사 면담

- 1993.4.27.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결과 등에 관해 한국 입장 설명

한·러시아 관계.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10/13/1-244

1993년 하반기 중 한·러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원주민 문제 국제회의 참석 요청

-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민족원 의장 명의 한국 국무총리 앞 서한 발송
 - 1993.9.13.~18. 모스크바 개최 예정
- 동 회의에 한국 전문가 및 원주민 대표단 초청

2. 제2차 한·CIS(독립국가연합) 종교회의(1993.9.13., 서울)

- 목적
 - 다종교 국가인 한·CIS 종교인 간 화해와 협력 및 양국의 종교 교류를 통해 지역 간 발전에 기여

3. 외무부 구주국장, 러시아 방문(1993.12.14.~17.)

-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예방, 벨리 국장 면담 등

4. 프리마코프 러시아 대외정보부장, 안기부 초청으로 방한(1993.11.30.~12.5.)

- 안기부 초청
- 옐친 러시아 대통령 친서 전달
 - 옐친 대통령 방한 이후 한·러시아 양국관계에 긍정적인 측면 표시
 -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를 위해 양국 간 적극적인 협력 희망

한·루마니아 정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10 / 14 / 1-68

1993년 중 한·루마니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루마니아 간 인사 교류 및 주요 현안

- 최성홍 외무부 구주국장, Urian 주한 루마니아대사 면담 시 양국 현안 협의(1993.3월)
 - Iliescu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문제, 대전 엑스포 참석, 박준규 국회의장 루마니아 방문 등
- 한·루마니아 간 공관 신축부지 상호교환 문제 협의(4월)
- Andrei Chirica 루마니아 체신부장관 방한 초청(7월)
 - 초청 목적: 한·루마니아 통신협력위 개최, TDX 등 통신기기 수출 추진 지원
-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및 관저 이전 문제 협의(7월)
 - 정부는 주한 루마니아대사관과 관저가 위치한 남산 외인주택을 1994.6월 말 철거하기로 확정, 이에 주택공사는 동부이촌동 소재 한강외인아파트에 주한 루마니아대사관이 이전하도록 대책 마련
 - 루마니아 측은 상호주의에 입각, 대사관용 부지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방안 제의
- C. Ionescu 루마니아 무역부장관 방한(1993.10월)
- 루마니아 외무부 한국담당관, KOICA 한국어 연수과정 참여(9~12월)

2. 주루마니아대사관 활동

- 박종상 주루마니아대사, 루마니아 하원의장 및 대통령실 대변인 부임 인사차 예방(1993.2월)
- 의회 의전용 현대자동차(소나타) 10대 기증 문제 협의(3월)

한·사우디아라비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10/15/1-57

1993년 중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사우디아라비아 관계

- 사우디아와는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나, 대외적 표명은 신중
 -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하며, 중동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지를 희망
 - 경제개발에 있어 한국의 기여 증대를 희망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자제
- 한국은 도입 원유의 3/4를 사우디에 의존하나, 경제협력은 점차 감소 추세
 - 한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시장 진출은 감소하고, 상품수출은 증가

2. 양국의 관심사항

- 한국 측
 - 사우디·북한 간 접근 및 수교
 -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 지지
- 사우디 측
 -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 한국의 투자 진출
 - 문화·스포츠 교류
 - 자국의 인권문제 제기 불원

한·스웨덴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10 / 16 / 1-58



1991~93년 중 한·스웨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스웨덴 간 인사교류

- Goran Wide 주북한 스웨덴참사관 방한(1992.5.25.~27.)
 - 사적 여행
- Lars Wargo 스웨덴 외무부 한국과장 방한(1992.9월), 현안 협의
 - 한·스웨덴 양자관계 현안, 한·중국 수교 경위 및 전망, 남북대화 현황 및 전망 등
- 한국 과학기술 분야 우수학생 노벨상 시상식 초청 중단
 - 1985~91년간 매년 2명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였으나, 1992년 중단
- 노태우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즈음하여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에 대한 감사 서한 전달
- 외무부 1차관보, H Gronwall 주한 스웨덴대사 면담 시 현안 관련 의견 교환
 - 북한 핵 문제, 중립국 감독위 문제, 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스웨덴 군함 방문 추진(1994.3월)
 - 스웨덴 해군 생도 훈련 목적, 스웨덴 군함으로서 최초의 방한

2. 주스웨덴대사관 활동

- NNSC(중립국감독위원회) 교체요원 5명에 대한 오찬 및 브리핑 실시(1992.6월)
- 제48주년 국경일 행사(1993.8.16.) 개최
- 채익석 주스웨덴대사, Hafstrom 스웨덴 수상실 외교담당 보좌관 면담(9월)
 - 북한 핵 문제 관련 입장 설명, 김영삼 대통령 스웨덴 방문 등 협의

한·싱가포르 정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0/17/1-63

1993년 중 한·싱가포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요 외교·국방 협력 동향

- Wong 주한 싱가포르대사,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1993.1.20.) 시 고축동 수상 방한 희망 등 싱가포르 측의 관심사항 전달
 - 기타 팀스피리트 훈련 참관단 파견 희망, 유엔지속개발위원회 입후보 한국 지지 요청
- 동 대사는 1.18.자 공한으로 이필섭 합참의장에게 동 참관단 파견 공식 통보
- 노태우 대통령의 리관유 전 수상 앞 퇴임 친서 전달(2.22.)
- 고축동 수상의 황인성 국무총리 앞 축전 발송(3.1.)
- 신임 주싱가포르대사, 6.2. Wong Kan Sen 외무장관과 양국관계 발전 방안, 북한의 NPT(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문제 등 북한 정세, PMC(확대외무장관회담) 개최 시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게스트 초청 등 협의
- 김영삼 대통령 12.1.자 친서로 고축동 수상의 싱가포르 방문 초청에 감사 표시

2. 고축동 수상의 방한 추진

- 1993.3.9. Wong 대사는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고축동 수상의 방한 추진에 관해 협의
 - 5월 방문 가능성에 대해 한국 측은 어려움 설명
- 싱가포르 측의 1993.11.8.~10. 방한 희망에 대해 한국 측 동의

3. 기타 동향

- 리관유 전 수상, 한국사회과학원 주최 학술회의 초청 수락
- 1993.12.21. 싱가포르 수상실의 개각 발표
 - Lee Hsien Loong 부총리, 상공 및 국방 관장 임명
 - Lee 부수상의 1990년대 후반부 수상직 수임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관찰

한·스리랑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0/18/1-50

1993년 중 한·스리랑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요인사 면담

- A. J. Ranasinghe 공보담당 국무장관 방한 초청 추진
 - 한국기업 활동 소개 및 문화교류증진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대전 엑스포 기간 중(1993.8월 경) 방한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 Hameed 외무장관 면담
 - 유엔총회 기간(1993.9.27.~30.) 중 한승주 외무부장관 면담 요청
- Wijetunge 대통령 이임 예방
 - 스리랑카 정부의 한국 유엔가입 공동 제안, 국제기구 입후보에 지지, 북한 핵 문제 관련 협조에 감사
 - Wijetunge 대통령은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을 희망

2. 주스리랑카대사관 경제 관련 활동

- 분기별 수출·관광 진흥회의 개최
 - 수출증대 방안 협의, 네팔 근로 법규 준수 등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 청취
- 투자진흥청 방문,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면세기간 폐지 조치 등 투자유치 정책 동향 파악
- 1996년 제3회 동계 아시아대회 유치를 위한 지지 교섭 활동

3. 해군 순항 훈련함 기항

- 스리랑카 해군은 한국 군함의 콜롬보항 기항 시 스리랑카 해군장교 수 명을 다음 기항지까지 탑승시켜줄 것을 요청

4. Amara Piyaseeli Ratnayke 국가서비스 장관 방한(1993.11.3.~6.)

- 대전 엑스포 참관 및 어학교육 실태 시찰 등
- 총무처장관 예방
 - 총무처의 기능, 역할 및 상호 공통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한·슬로베니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10 / 19 / 1-38

1993년 중 한·슬로베니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슬로베니아 간 인사교류

- 슬로베니아 재무장관, 한국은행 총재 면담 추진(1993.1월)
- 주교황청대사, 슬로베니아 방문(1993.6.8.)
 - 유고연방에서 갓 독립한 슬로베니아 정부 초청으로 교황청 주재 15개국 대사와 함께 방문
- 주오스트리아대사(슬로베니아 겸임),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차 슬로베니아 방문(1993.6.25.)
- 한·슬로베니아 외무장관회담 개최 추진
 - 주유엔 슬로베니아대표부를 경유, 유엔총회 기간 중 외무장관회담 개최 제의

2. 한국대사관(주오스트리아대사관 겸임) 활동

- 이시영 주슬로베니아대사 신임장 제정차 슬로베니아 방문(1993.6.21.~28.)
 - 실질 협력관계 증진방안 협의
 - 통상증진을 위한 5개 항목 건의(수출보험 부분 인정, 신용장 수취, 전대차관 할당, 특급우편협약, 한국자동차 수입제한 대비)

한·스위스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0 / 20 / 1-100

1993년 중 한·스위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스위스 정부, 대한민국 PC-9 훈련기 20대 판매 승인(1993.9.27.)

- 한국이 이미 군사대국으로 동 판매가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승인
- 스위스는 당초 중립국 감시위원국으로서 북한을 고려하여 동 판매에 대해 소극적 입장 견지
 - 이후 수출증진을 위한 훈련기 제조사(PILATUS)의 대정부 청원을 수용하고, 동 훈련기를 전투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판매하는 쪽으로 선회

240

2. 스위스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단(7명) 방한(1993.7.23.~31.)

- 방한 목적
 - 한국전 휴전협정 조인 40주년 계기
- 주요 일정
 - 휴전협정 조인 40주년 기념식 참석,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서울아트센터 방문 등

3. 신임 스위스 대통령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1994.1.1.)

- 1993.12.8.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Otto Stich 현 스위스 부통령 겸 재무장관이 1994년도 연방 대통령(1년 임기)으로 피선

한·토고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0/21/1-53

1991~93년 중 한·토고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토고 정부, 한국 측에 Lome 주재 상주대사관 개설 희망

- Cheaka 토고 외무장관, 주유엔대사 면담 시(1992.6.10.) 동 개설을 희망
 - 주토고 북한대사관 철수계획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설명
- 한국 정부는 외교망 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나, 토고에 대해서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겸임하도록 한다는 기존입장 견지

2. 토고 정부, Adodo 전 토고 외무장관 방한 초청 희망

- 1991.1월 한·토고 간의 재수교 교섭 당시 한국 정부는 당시 Adodo 외무장관의 방한을 초청한 바 있으나, 토고 측 사정(국내정세 불안)으로 무산
 - Cheaka 외무장관은 주유엔대사 면담 시 1992년 중 Adodo 전 장관의 방한 성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 한국 정부, 토고 국내 정세의 불안 장기화(군부 중심의 현 정부와 야권 간 충돌 심화)를 이유로 1992년 중 외빈 접수대상에서는 일단 배제
 - 향후 토고 측 민주화 추이를 고려해 재협의한다는 방침

3. 가나 내 토고 난민 지원

- 1993.1월 주가나대사, 토고 소요사태로 인해 발생된 토고 난민에 대해 가나 정부의 구호지원을 보고하면서, 인도적 견지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건의
 - 한국 정부, 1993년도 기자재 공여 유보액에서 1만 달러 지원 결정

한·상투메프린시페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 / 22 / 1-43

1991~93년 중 한·상투메프린시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가봉대사, 상투메프린시페 출장 방문(1991.4.2.~5.)

- Trovoada 신임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 취임식 참석, Alda Bandeira 장관 등 외무부 고위간부 면담
 - 상투메프린시페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입장을 재확인하고, 무상원조 지원 관련 가족계획에 필요한 기구와 각종 의약품 제공을 희망
- Trovoada 대통령은 1975.7월 상투메프린시페 독립 이래 최초로 다당제하에서 자유선거로 선출되어 시장경제 도입, 국영기업 민영화, 서방권과의 경제협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

242

2. Trovoada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 방한 문제

- 1992.2월 이후 3차례 상투메프린시페 측은 Trovoada 대통령의 방한 희망의사 전달
- 한국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 내실화 방침에 따라 동 접수를 보류(1993.9월)
 - 상투메프린시페 측에 이러한 의사와 함께 현지 공관을 통한 현안 협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설명
 - 아울러 2만 달러 상당의 특별 무상원조 계획 통보
- 1988.8월 양국 수교 이래 한국은 총 4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지원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10 / 23 / 1-40

1991~93년 중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트리니다드대사의 겸임국 출장

- 대상국
 - 바베이도스(1991.6.9.~11.), 세인트키츠네비스(1991.6.12.~14.), 앤티가바부다(1991.6.14.~15.), 도미니카연방(1991.6.16.~18.), 그레나다(1991.6.19.~21.)
- 주요 일정
 - 겸임국 외무장관, 교민 면담, 각 겸임국과 양자 간 현안 협의
- 사안별 주요 교섭, 활동 내용(5개국 공통)
 - 한국 유엔가입 지지 문제
 -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 지지에 사의 표명과 향후 지속적인 지지 협력 당부
 - 각국은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 시기, 남북한 동시기입 신청 여부, 남북관계 진전, 북한 내부정세 변화 가능성, 남북통일 전망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유엔가입 문제 관련하여 계속적 지지 약속
 - 한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교섭
 - 유네스코 집행위원,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관련(IMO의 경우 세인트키츠네비스 및 그레나다는 제외), 한국의 입후보 배경을 상세 설명하고 적극 지지 요청
 - 각국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약속
 - 무상원조
 - 한국의 무상원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이 기요청한 금년도 무상원조 희망품목을 조속 제시하기로 언급함.

2.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대전 엑스포 참가유치를 위한 출장

- 대상국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993.6.24.~27.), 세인트루시아(1993.6.27.~30.), 몬트세랫(1993.6.30.~7.2.)
- 주요 일정
 - 수상 및 외교장관 등 주요인사 등 면담
- 결과
 - 3국의 대전 엑스포 불참 결정에 대한 반복교섭을 한바, 3국 모두 참가계약서에 서명함.



- 한반도 정세 설명, 경제협력 가능성 모색, 국제기구에서의 지지 요청 및 친선 우호협력 분위기 증진에 노력함.
- 3국 모두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국내 개혁조치에 호의적인 관심을 표하고, 남북대화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 지지를 약속함.

한·터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10/24/1-68

1993년 중 한·튀르키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튀르키예 외무장관 방한 초청 추진(1993.4월)

- 1993.4.22. 김명윤 조문특사(Ozal 튀르키예 대통령 장례식 참석)의 Hikmet Cetin 튀르키예 외무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이 방한 희망의사를 표명
 - 주튀르키예대사, 튀르키예가 한국전 참전국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해 온 전통우방이라는 점과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 서한 발송을 건의

2. Suleyman Demirel 신임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1993.5.17.)

- 1993.5.16. 실시된 국회 간선투표를 통해 Suleyman Demirel 전 총리가 제9대 튀르키예 대통령으로 취임
 - Demirel 신임 대통령은 4차례 총리를 역임한 민주주의자로서, 그간 연정을 주도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온 인물

3. 주튀르키예대사,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재개설 건의(1993.11월)

- 주이스탄불총영사관은 1977년 개설되었다가 1982년 재외 공관망 축소계획에 따라 폐쇄하고 그 동안 명예총영사를 임명
- 재개설 근거
 - 수도 앙카라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반해, 이스탄불은 인구 1000만의 튀르키예 최대 도시이자, 경제·통상·문화·교통·언론 등 제반 기능에서 명실상부한 중추도시로서 국내교통 뿐만 아니라 국제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중요성 계속 확대 중
 - 무역관, 7개 자상사, 교민 60% 거주 등으로 교민들이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재개설을 강하게 염원
 - 앙카라에 상주대사관을 두고 있는 75개국 중 41개국이 이스탄불에 상주 총영사관을 운영 중
 - 명예총영사로 활동해온 인물이 최근 사망함으로써 총영사관 재개설 검토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 대두

한·우간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0/25/1-77

1993년 중 한·우간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우간다 치안 불안 대책(1993.4월)

- 동부아프리카에 위치한 주우간다대사관의 안전 침해사례 연쇄 발생
 - 1992.12~93.3월간 한국 공관원들 및 공관 고용원이 주택 침입, 노상강도 등 4차례 피해 경험
 - 반군의 도심 출몰, 제대군인의 실직에 따른 무장강도화 등으로 우간다의 범죄율 급증
- 외무부는 케냐에 우간다담당관을 주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주우간다대사의 건의에 따라 기존대로 상주대사관을 유지하기로 결정
 - 대신 주재국 외무성 및 경찰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최신 통신기기를 이용한 비상 연락망체제 강화 등에 역점

2. Museveni 우간다 대통령 방한 희망(1993.7월)

- 우간다 측, 주우간다대사를 통해 1993.10월 중 또는 1994년 상반기 방한 희망 의사를 전달
- 한국 정부, 중동·아프리카 정상외의 경우 연 1명의 방한 접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유보적 입장 견지
 - 양국 간 실질협력이 크게 신장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로 오히려 한국의 부담만 가중될 소지가 크다는 점 우려

3. 대한민국 정책기조에 관한 우간다 각료회의 메모(1993.11월)

- 주우간다대사관이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
- 메모 요지
 - 남북한 모두 우간다에 중요
 - 특히 한국의 경제력이 우간다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고려, 한국과의 관계 증진 필요
 - 한국으로부터 경제원조 획득에 주력하며, 양국 간 고위급 접촉(특히, 방한) 강화
 - 한국으로부터 군사원조(군복, 비전투용 장비) 접수는 물론 한국기업의 우간다 군복, 군화, 의약품 입찰에 참여 허용
 - 남북한 문제 유엔결의 시 특정 일방에 불리한 표결 시에는 기권

한·영국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10/26/1-120

1993년 중 한·영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Hum 영국 외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방한(1993.1.28.~2.1.)

- 방한 목적
 - Field Trip 일환
- 주요 일정
 - 외교안보연구원장, 외무부 구주국장 및 아주국장,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등 면담

2. 김대중 전 민주당 총재 강연

- 1993.5.10. 캠브리지대학(St. John's College) 개최 세미나
 -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 저해요인, 한국민의 민주화 투쟁 과정, 자신의 정치노선 등 요지
- 1993.6.2.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 한·영 양국관계, 한·EC(구주공동체) 협력, 한반도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 등 강연

3. 영국 상원 부의장 방한(1993.9.6.~8.) 추진

- Caroline Anne Cox 영국 상원 부의장, 국제기독교공동선교회(CSI) 동료 자격으로 방한
- 주요 일정(안)
 -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장관 등 면담 희망

4. David Hunt 영국 노동장관 방한(193.9.15.~18.) 추진

- 주요 일정(안)
 - 정무 제2장관, 교육부장관, 국회 노동위원장 및 노동부장관 면담
 - 대전 엑스포 참관, 경기기계공고 및 동양공업전문대 방문 등

Gregg, Donald 주한 미국대사 활동 동향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10 / 27 / 1-239

1. Gregg 주한 미국대사 활동

- 김재순 국회의장 예방 및 면담(1989.10.27.)
- 외무부장관 면담(1990.1.31.)
 - 체니 미 국방장관 방한 및 파나마 신정부 지원 문제 협의
- 노태우 대통령 면담(5.29.)

2. Gregg 대사의 대외 활동

-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PAAC(태평양·아시아문제회의)에서 강연(1989.11.3.)
 -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 및 한·미 간 관계 설명
- 광주 방문(1990.1.7.~9.)
 - 광주 미국문화원 이전 관련 현지 시찰 및 광주사태 관련 미국의 역할 주장 등에 관한 광주시민과 대화 및 미국 측 입장 설명
- 한국 외교협회 초청 오찬(7.21.)
 -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 남북한 관계, 한·미 경제관계 등 연설
- Asia Society 워싱턴 지부가 마련한 조찬 행사(7.26.)
 - 'Beyond the Security Relations' 제하 연설, 한국의 시장개방 역행에 대해선 미국의 강력 대응 경고 및 한·미 관계의 군사동맹에서 경제·정치적 동반자로 발전 노력 필요 언급
- 미국 National Press Center에서 주미국 특파원들과 간담회 및 기자회견(11.29.)
 - 한국 내 반미 감정, 통상 마찰 등에 관한 의견 개진
- 미국 Korea Society에서 연설(11.30.)
 - '한국의 해방, 한국전쟁 및 동맹을 통한 한·미 관계와 그 미래 전망' 설명
- 단국대학교 미·소 문제연구소 '이해관계의 합치'라는 제하 연설 시(1991.4.9.) 한·미 관계의 과거, 현재 및 미래 관련 소견 발표

한·미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11 / 1 / 1-298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미국대사,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 면담(1993.1.7. 제10차 전직 국무장관회의 리셉션 시)
 - 미국의 안보 공약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에 사의 표명
2. 외무부장관,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오찬(1993.1.19.) 시 주요 협의 내용
 - 팀스피리트 훈련 발표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
 - 1.27. 미국 상륙정이 도착하므로 1.26. 발표 희망하나, 한국 측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미국 측 의견을 고집하지 않겠음.
 - 한국 측은 2월 초 발표 희망
2. 주미국대사, 1993.1.20. 클린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주요인사들과 협조관계 구축을 위해 집중적인 접촉 활동 전개
 - Anthony Lake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 면담(2.11.)
 - 한·미국 정상회담, 대한민국 안보 공약 및 북한 핵 문제, 반도체, IPR(지식재산권) 등 통상문제 협의
 - William Clark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면담(2.12.)
 - 북한 핵 문제 반도체 문제 협의
3. 김영삼 대통령 취임 관련, 미국 국무부의 언론 발표 요지(1993.2.24.)
 -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김 대통령의 취임은 한국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달성과 번영을 위해 김 대통령과 그의 실행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양국 간 긴밀한 유대관계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함.
4. 클린턴 대통령의 와세다대학 연설(1993.7.7.) 및 국회 연설(7.10.)에서 밝힌 'NPC(신태평양 공동체)' 구상
 -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교수는 7.23. 상기 NPC 구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함.
 - NPC는 APEC(아태경제공동협력체) process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 및 군사 안보 측면을 포괄하는 지역협력을 추진하려는 장기 구상임.



-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나, 향후 미국은 NPC의 틀 속에서 경제·군사안보의 연계성을 활용하는 정책 수단의 종합화를 추구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해 나가고자 할 것임.
- NPC 추진 기초로서 미국은 APEC 회원국 정상회담을 제의하였으나, 1993.11월로 예정된 동 회합의 실현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세안 국가 및 중국의 반대·유보태도 등으로 불투명함.
- 장기적으로 역내 국가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NPC가 가시화될 경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APEC,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쌍무관계와 이를 보완하는 지역 다자 간 안보체제를 포괄하는 정치적 성격의 협의체로 제도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임.

5. 주미국대사, Black Caucus 소속 의원단 간담회(1993.8.4.)

- 최근 한·미 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동 대사는 Black Caucus 의원들이 양국관계가 긴밀한 시점에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한·미 정상회담 및 최근 양국관계,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LA 사태는 미국 내 소수민족인 한·흑 간의 우호증진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었는바, 금번 방한이 한·흑 간의 이해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함.
 - 간담회 참석 의원 및 보좌관들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방안 및 한·흑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합동 세미나 개최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함.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11 / 2 / 1-193

1991~93년 중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우즈베키스탄 정세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독립 선포(1991.8.31.)
- 대통령 선거 실시, 현 Karimov 대통령 당선(12.29.)
 - 노태우 대통령의 Karimov 대통령 당선 축하 서한 발송 및 감사 서한 접수(1992.1월)

2. 한·우즈베키스탄 간 인사교류

-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공식방한 초청(1991.12.4.)
 - 공로명 대사, Karimov 대통령 예방 및 방한초청장 전달
- 한·우즈베키스탄 수교(1992.1.29)
 - 주모스크바 우즈베키스탄대표부에서 공로명 대사와 A. Saidov 대표 간에 수교의정서 서명
- 타슈마토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차관 방한(1992.5월)
 - 국내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경찰 군복 및 장비 구입 상담 목적
- 우즈베키스탄,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5월)
- 홍순영 주러시아대사에 대한 겸임국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8월)
 - 홍순영대사 우즈베키스탄 겸임 신임장 제정(12월)

3. 기타

- 한국 소개 사진전시회 및 공연단 파견 추진(1991.12월)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설립 추진(1992.6월 목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해외교민 간담회 실시(8월)
- 제44차 북방경제실무위원회, 대우전자의 우즈베키스탄 투자 사업에 대한 심의(1993.2월)
- 타슈켄트 동방학대학 한국학 학부에 대한 한국학 지원(4월)
- 민간 경제문화사절단, 우즈베키스탄 방문(1993.10월)
 - 한·우즈베키스탄 친선협회, 합작투자설명회, 문화전시회 등 개최

한·베트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1/3/1-75

19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양국 정무관계 동향

- 1993.2.2. 서울 개최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
 - 국제기구에서 양국 대표부 간 긴밀 협조 합의
- 3.8. 주한 베트남대사대리,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한국의 주호치민총영사관 설치, 5월경 Kiet 베트남 수상 방한,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개최, 양국 간 공관 재산권 문제 등 협의
- 3.22. Binh 주한 베트남대사,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한국의 주호치민총영사관 개설 승인, 크메르 루즈의 캄보디아 내 베트남계 주민학살 관련 한국 측의 비난성명 발표 요청, Kiet 수상 방한, 경험 문제, 재산권 문제 등 협의
 - 동 대사관 및 외무부 실무자 간 Kiet 수상 방한 시 항공협정 및 무역협정 서명, 투자협정 및 이종과세방지협정 서명을 위한 실무교섭 강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계획 등 협의
- 5.12. 외무부장관, 주한 베트남대사 접견
- 주태국 국방무관부의 베트남 측 무관부 접촉을 통해 한·베트남 무관부 설치 협의
- 7.20. Cam 베트남 외무장관은 외무부장관 앞 친서로 IMF(국제통화기금)의 대베트남 지원 재개 결정 관련 한국 측 지지에 사의 표명

2. 주베트남 한국 재외공관의 활동

- 1993.5.25. 초대 주베트남대사, Le Duc Anh 베트남 대통령 예방
 - 동 대통령은 베트남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찬양
- 베트남 문공부 측은 주베트남대사관을 통해 SBS가 제작중인 드라마 '머나먼 송바 강'의 내용 중 인민해방전선의 묘사 일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수정을 요청
- 11.1. 주호치민총영사, 베트남 외무성 호치민 사무소 Vu-Hac-Bong 대사에게 영사인가장 사본을 제출해 공식 업무 개시

3. 북한·베트남 관계

- 1993.7.7. 베트남 외무부는 북한·베트남 관계 악화 상황에 관해 한국 측에 설명
 - 한국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평화적 통일 의지 확인, 베트남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견지함을 설명
 - 6월 중순 북한 외교부는 평양 주재 베트남대사를 초치, 베트남 외무부가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도외시키고 한국 측에 편중된 입장이라고 강력 항의

한·베네수엘라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11 / 4 / 1-65

1993년 중 한·베네수엘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베네수엘라 간 인사교류

- Velasquez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앞 축전 송부(1993.6월)
- 전 주한 무관에 대한 보국훈장 삼일장 수여(11월)
- Caldera 베네수엘라 신임 대통령 앞 김영삼 대통령 축전 발송 및 답전 접수(12월)
- Caldera 대통령 취임식에 박정수 의원 특사파견 추진(12월)

2. 베네수엘라 정세 및 한국대사관 활동

- 윤태현대사,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1993.3월)
 - 북한 핵, 통상관련 협정 등 현안 협의
- R. Caldera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동향 보고(4월)
- 주한 베네수엘라 무관 아그레망 동의 요청(6월)
- 대통령 선거 결과 및 향후 정책 전망 보고(12월)
 - 무소속 Rafael Caldera 후보가 31% 획득하여 당선 확정
 - 안정 속의 지속적 경제성장 정책 추진 및 다양한 이념과 체제의 국가들과 공존 추구 전망

한·신유고연방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1 / 5 / 1-100

1993년 중 유고 사태 이후 한·신유고연방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신유고연방 관계 기본지침 마련(1993.1월)

- 필요성: 유고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대유고연방 관계에 관한 기본지침 및 업무처리 실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유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
- 기본지침의 유효기간: 공식 국가승인 때까지
- 내용: 신유고연방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 공식 인사교류, 공식행사 초청 및 참석, 외교문서 및 축전 교환, 국명 호칭, 여권, 주한 유고대사관에 대한 외교특권, 기타 사항을 서방 주요국의 시행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침 작성

254

2. 기타 한·유고연방 소속국과의 관계

- 구유고연방 5개국행 우편물은 1992.6.10.부터 접수 중지
 -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행 우편물은 7.29.부터 접수 재개
 - 세르비아-몬테니그로, 마케도니아행 우편물 1993.3.19.부터 재개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항공노선 폐쇄 및 내전으로 계속 접수 중지
- 유정희 동구2과장, 베오그라드 출장(1993.7월)
 - 베오그라드 생활환경 점검 및 주유고대사관 유지 문제 등 검토
- 구유고연방 국가 입국 절차 조사 보고(10월)
- 세르비아 과학기술대표단 방한(1993.11월)

한·예멘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11 / 6 / 1-107

1993년 중 한·예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한 예멘대사관 존속 결정

- 1993.2.24. 예멘 각의는 주한 예멘대사관을 존속시키되 규모는 축소하기로 결정
 - 1992.12월 예멘 정부는 걸프 사태 이후 심각한 경제난 타개방안의 일환으로 주한 예멘대사관을 포함하여 14개 재외공관 폐쇄를 결정한 바 있음.
 - 최종적으로 7개 공관만 폐쇄하고, 남·북한 등 10개 대사관은 인원 축소로 결정

2. Mohamed Abdullah Saleh 예멘 중앙보안국 사령관 방한(1993.7.4.~8.)

- 통일원 정책실장, 안기부 국제국장, 경찰청 외사국장 등 면담, 경찰특공대(대테러서범) 및 경찰대학 견학
- 동 사령관은 현 정부 내 실력자(현직 예멘대통령의 이복형)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임.

3. 예멘 통일사례 연구를 위한 현지 출장

- 1993.6.28.~7.8.
 - 한상진 통일원 과장 등 2명, 예멘 외무부, 내무부, 의회, 사나대학 등 방문·면담
 - 예멘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총선 결과에 대한 전반적 상황 및 향후 정책 전망 등 파악
- 1993.11.25.~30.
 - 김국신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예멘 내무부, 외무부, 정당 및 언론기관, 사나대학 등 방문
 - 예멘 통일사례 연구 및 자료 수집

한·잠비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1 / 7 / 1-79



1993년 중 한·잠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잠비아대사, 기자재 공여사업의 필요성 보고(1993.6.17)

- 대개도국 기자재 공여의 중요성 및 필요성
 - 후진개도국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빈곤, 질병퇴치 등 사회복지를 거의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잠비아 정부 측이 한국의 기자재 공여를 강력 희망하고 있음.
 -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개도국 원조증대가 요망됨.
- 대개도국 기자재 공여가 주는 경제·외교적 실익
 - 자동차, 컴퓨터, 사무기기 공여는 한국 상품의 우수성 홍보 및 수출증대에 기여함.
 - 잠비아의 경우, 한국의 기자재 공여로 정부인사 및 일반 국민들도 외교관계 수립이 자국에 실익을 주었다는 인식을 갖게 됨.
- 일본 및 여타 국가의 관행 및 효과
 - 일본은 대잠비아 최대 원조국으로 매년 4~5천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시행하며, 기자재 공여는 1991년도에 1천만 달러 규모임.
 - 기타 선진국도 경제개발원조 외에 인도적 및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소규모라도 물자지원을 하고 있음.

2. 잠비아 전문가 파견

- 경위: 한·잠비아 간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KOICA에서 파견
 - 경제협력(무상원조): 10만 달러(컴퓨터 62세트)
 - 연수생 초청훈련: 2명
 - 전문가 파견: 수산증식 전문가 1명
- 파견기간: 1993.11.1.~12.6.(46일간)
- 파견전문가: 김형배 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사

국교수립 - 에리트리아, 1993.5.24.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2 / 1 / 1-224

1992~93년 중 한·에리트레아 간의 국교수립 및 에리트레아 지원 관련 문서임.

1. 국교수립

- 1993.5.26. 수교의정서 서명
 - 김승영 주에티오피아대사와 Mahmud Ahmed Mahmud 외무장관 간 서명
 - 에리트레아 요청에 따라 현금 2만 달러 및 차량 4대 제공
 - 수교일자는 독립일인 5.24.로 소급
-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을 에리트레아 겸임공관으로 지정

2. 교섭 경위

- 1992.9월 주에티오피아대사의 에리트레아 출장 중 Afewerki 임시정부 수반으로부터 한국과의 수교의사 확인
- 1993.4.23.~25. 실시된 에리트레아 주민투표에서 에티오피아로부터의 분리 독립 확정
- 1993.5.11.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발송
- 1993.5.24. 김승영 주에티오피아대사, 에리트레아 독립 경축행사 참석

3. 에리트레아 지원 서약회의(1993.7.6., 제네바)

- 에리트레아 난민 귀환과 정착을 위해 한국 정부 5만 달러 지원 표명
 - 주제네바대사가 참석, 난민 송환 및 정착지원 계획에 기여금 제공 의사 표명
- 한승주 외무부장관, 9.28.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Afewerki 에리트레아 대통령 면담

국교수립 - 리히텐슈타인, 1993.3.2.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12 / 2 / 1-60

1992~93년 중 한·리히텐슈타인 간의 국교수립 추진 관련 문서임.

1. 수교 추진

- 한국은 1991.9월 유엔 가입 이후, 수교국 확대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 모색
 - 경제통상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 지지 기반 확충 필요
- 리히텐슈타인도 독자적 외교권을 행사하면서 외교망 확대 추진
 - 스위스 재외공관을 통해 외교권을 행사하여, 1990.9월 유엔 및 1991.9월 EFTA(유럽자유 무역연합) 가입

258

2. 진전 사항

- 스위스 베른 주재 리히텐슈타인대사관과 수교 협상 진행
- 1992.11.3. 리히텐슈타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
- 1993.2.3. 강대완 주스위스대사의 리히텐슈타인 겸임대사 아그레망 요청
 - 3.2. 아그레망 부여
 - 6.14. 신임장 제정

3. 특이사항

- 주스위스 북한대사관은 한국과 수교하는 경우 북한과도 수교해줄 것을 지속 요청

국교수립 - 모잠비크, 1993.8.11. 전3권 (V.1 1974-87)

생산연도 1974-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2 / 3 / 1-290

1974~87년 중 한·모잠비크 간의 관계 개선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74.9.23. 한국 정부, 모잠비크 과도정부 수립(9.20.) 관련 국무총리 명의 축전 발송
- 1975.6.25. 한국 정부, 모잠비크 독립(6.25.) 관련 국무총리 명의 축전 발송
- 1977.5.16.~21. '짐바브웨 및 나미비아 인민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단 3명(단장: 김창훈 주가봉대사) 모잠비크 방문
 - 마푸토에서 개최된 유엔 주관 회의로 한국대표단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 1981.8월 Falldin 스웨덴 수상의 모잠비크 방문 시 한국의 수교 및 경험제공 의사 전달 요청
- 1983.1월 고정훈 의원,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대통령 고문과 친분관계에 있는 실업인 접촉
- 1985.10월 R. B. Alves 재무장관 등 6명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서울 총회 참석차 방한
- 1986.4월 F. Ganhao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A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회의 참석차 방한
- 1987.3월 한국 정부, 미국 국무부에 대모잠비크 관계 개선을 위한 Contact Point 선정 협조 요청
 - 모잠비크 정부, 기존 북한과의 관계를 가급적 저해하지 않으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한다는 전향적 태도 표명

2. 양국 통상관계(1986년)

- 대모잠비크 수출 주요 품목
 - 섬유류, 인쇄품, 철강제품, 고무제품, 합판비료
- 대모잠비크 수입 주요 품목
 - 목제품, 염색 식물성 재료, 광물성 연료

국교수립 - 모잠비크, 1993.8.11. 전3권 (V.2 1988-92)

생산연도 1974-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2 / 4 / 1-407

1988~92년 중 한·모잠비크 간의 수교 교섭 관련 내용임.

1. 겸임대사 출장

- 1988.2.23.~26.
 - Americo Magaia 모잠비크 상공회의소 회장 초청 형식
 - 양국 간 관계 개선 방안과 수산 분야 협력 등 실질협력 증진방안 협의
 - 모잠비크는 한국과의 관계정상화 당위성을 인식하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1988.6.8.~11.
 - 수산협력 교섭단 파견 합의
 - 한국 측이 제공한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공여 수락
 - Magaia 모잠비크 상공회의소 회장과 양국 협력의정서 체결 합의
 - 모잠비크 서울올림픽 선수단 지원

2.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 모잠비크 출장(1991.7.23.~28.)

- 이상욱 외무부장관 명의 친서 전달
- 양국 간 수교 문제 협의

3. 성필주 주잠비아대사, 모잠비크 출장(1992.6.18.~24.)

- 양국 간 수교 교섭
- Veloso 협력장관 면담, Moiane 외무성 차관 면담, 국제투자진흥청장 면담 등
- 모잠비크 측은 수교를 전제로 한발 및 복구사업을 위한 한국의 원조 희망

4. Carlos P. Klint 모잠비크 국회의원 방한(1992.7.4.~11.)

- 방한 경위
 - 동인은 모잠비크 내 TV 조립공장을 가진 친한 사업인인 동시에 국회의원으로 삼성전자와의 투자상담 목적
- 외무부 아프리카과장 면담(7.8.) 시, 동 의원 주요 언급요지



- 동 의원은 방한 전, 치사노 대통령과 모콩비 외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방한 시 모잠비크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 통상 및 외교관계를 수립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타진하도록 지시받음.
- 모잠비크 정부는 금년 9월 유엔총회 시 양국 간 수교 문제 등 관계 증진 방안 논의를 위해 외무장관회담을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양국 실무자 간 접촉 추진 용의가 있음.

국교수립 - 모잠비크, 1993.8.11. 전3권 (V.3 1993)

생산연도 1974-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2 / 5 / 1-104

1993년 중 한·모잠비크 간의 수교 관련 문서임.

1. 국교수립 체결

- 1993.6.14.~18. 성필주 주잠비아대사 모잠비크 출장
 - 외무차관, 외무부 아주국장, 내무장관, 협력부 총괄국장 등 면담
 - 1992년도 기자재 공여 기증식 거행
- 1993.8.3. 모잠비크 정부, 모콰비 외무장관 요청으로 모잠비크 방문 중인 주잠비아대사에게 한국과의 수교 결정 통보
- 1993.8.11.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서명(뉴욕)
 - 유종하 주유엔대사 및 Afouso 주유엔 모잠비크대사 간 서명

262

2. 수교 의의

- 문민정부 출범 후 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레아에 이어 3번째 추가 수교국
 - 한국의 총 수교국 수는 174개국에 도달
- 양국 간 외교 강화는 물론 실질협력 발전 도모
- 제3세계 국가(특히 대아프리카)와의 외교 강화

한·시리아 관계개선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12/6/1-132

1991~93년 중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관계 개선 관련 동향임.

1. 대시리아 관계개선 동향

- 교섭 과정
 - 1991.10.3. 한·시리아 외무장관회담(유엔총회 기간 중) 시, 시리아 측은 외교특권 향유 및 영사기능을 갖는 통상대표부 우선설치 후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수교 추진을 제의
 - 1991.12.18. 주이란대사, 상기 시리아 측 제안에 따른 한국 측 비망록 수교

2.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시리아 방문(1992.6.8.~10.)

- 방문 경위
 - 쿠웨이트 방문 후 시리아 방문
- Ash Shara 시리아 외무장관 면담
 - 시리아 외무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양국 외교관계 수립 용의 표명
 - 양국 간 무역대표부 설치 및 양국관계에 관한 협의

3. 기타

- 시리아 유력 언론인 방한 초청
 - Al Wadi Tishreen 재단 사장의 방한 추진 중 연기

재외공관 설치 - 상하이(중국)총영사관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2 / 7 / 1-146

1991~93년 중 주상하이총영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중국 내 총영사관 설치 검토

-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설치 동향, 한·중국 경제교류 증진 기여 등 필요성에 따라 설치지역 검토
 - 상하이, 선양, 광저우 등 3개 도시에 총영사관 설치 추진
- 중국 측 입장을 감안하여 상하이에 우선 설치하고, 추가 설치는 점진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

264

2. 주상하이총영사관 설치 경위

- 1992.12.30. 주중국대사관, 중국 외교부와의 구상서 교환을 통해 주상하이총영사관 설치 확정
 - 중국 측은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설치 확정
- 1993.5.4. 중국 정부, 윤해중 신임 주상하이총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 1993.7.14. 주상하이총영사관 개관식

재외공관 설치 검토 - 온두라스

생산연도 1986-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12/8/1-54

1986~93년 중 정부는 주온두라스대사관 설치 문제를 검토함.

1. 설치 필요성

- 정치적 측면
 - 온두라스는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전통우방국임.
- 경제적 측면
 - 온두라스는 CBI 수혜국으로 현재 15개 한국업체가 진출 조업 중이고 더욱 증가될 예정이므로 한국업체의 보호 및 육성 필요
- 외교적 측면
 - 1990.8월 온두라스 정부가 주한 상주대사관을 개설함에 따라 중남미 국가 중 주한 공관이 있는 상대국에 한국은 상주공관을 개설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됨.
 - 온두라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 공관의 조속 개설을 희망함.

2. 외무부 검토 의견

- 온두라스와의 정치·경제적 유대 강화와 한국에 온두라스가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상주대사관 개설이 바람직함.
- 상주공관 개설 시까지 주과테말라대사관 직원(서기관급 1명)을 보강함으로써 대온두라스 관련 업무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온두라스 외무장관, 서한 송부

- Carias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1992.11.27. 주온두라스대사관 개설을 요청하는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송부함.
- 외무부 미주국장은 1993.1.29. 주한 온두라스대사를 초치하여 예산 및 인력사정상 현재 상주대사관 개설은 어려운 상황이나 온두라스 측 요청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함.

재외공관 설치 - 이스라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12/9/1-94

1992~93년 중 주이스라엘 상주공관 설치 과정에 관한 내용임.

1. 설치 경위

- 1977.6월 외교안보연구원 발간, 주이스라엘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건의
- 1992.1월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재개 허용
- 1993.1월 주이스라엘 겸임대사(로마 상주) 신임장 제정
- 1993.12.27. 주이스라엘대사관 설치

2. 상주공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

- 상호주의 고려
 -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설치
- 동서 냉전종식 및 걸프전 이후 중동지역 질서 재편과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 강화 고려
 - 중동, 일본 등 61개국의 대사관 상주
- 이스라엘·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평화협정 서명 이후 동 지역 내 한국 정부 대표의 상주 필요성 증대
- 과학기술협력 및 교역 등 실질협력 대상국으로서의 잠재력 고려
 - 1993.9.29. 한·이스라엘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 1992년 양국 간 교역량 2억 달러 수준
- 상주공관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단계의 협력 수준으로 보아 상주공관 설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1993.11월 개최하는 양국 간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1994년 중에 우선 대사대리급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3. 상주공관 개설

- 1993.12.26. 김성엽 참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개설차 현지 부임
 - 외무부장관 명의 소개 서한 전달
- 1994.4.11. 주이스라엘대사관 창설 기념리셉션 개최
 - 외무부 차관보 등 간부, 재무부, 국방부 인사, 국회의원 등 참석

재외공관 폐쇄 - 모리타니, 1992.12.31.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동2과

MF번호 2023-12 / 10 / 1-85

주모리타니대사관 폐쇄 조치 관련 문서임.

1. 경위

- 1992.10.11. 한국 정부, 주모리타니대사관 폐쇄 결정 통보
 - Aide Memoire 전달
 - 유엔가입 후 외교망 재정비 계획에 따라 철수대상 공관으로 선정
- 1992.12.31. 주모리타니대사관 폐쇄
 - 주모로코대사관을 겸임공관으로 지정

2. 폐쇄 이유

- 통상관계 미약
 - 한국의 대모리타니 수출은 연 100만 달러 정도에 불과
- 수산관계 약화

3. 공관 폐쇄 관련 대책

- 양국 간 협력관계 유지
 - 무상원조 제공, 기술연수생 방한 초청,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 등 기존 우호관계 지속
- 겸임공관 지정
 - 주모로코대사를 모리타니 겸임대사로 지정
- 한국 선원 및 교민 보호 대책
 - 주모로코대사관 직원의 정기 및 부정기 순회영사 활동 실시
 - 주모리타니 명예영사 활동 강화
 - 한인회 활성화 지원

재외공관 폐쇄 - Barcelona(스페인)총영사관, 1993.6.30.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12 / 11 / 1-186

1993.6.30.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폐쇄 관련 내용임.

1. 공관 폐쇄 경위

- 바르셀로나올림픽 대비 및 대스페인 경제협력 증진 목적으로 1987.12월 개설한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을 1992년 외교망 정비계획에 따라 1992.12월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1.11. 스페인 외무성 측에 통보
- 중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재외공관 개설이 필요하고, 올림픽 종료 이후 바르셀로나총영사관의 역할이 감소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1992.12월 폐쇄하기로 결정
-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바르셀로나지역이 74개 외국 총영사관이 주재하는 뉴욕 다음으로 외국 공관이 많은 도시로 향후 한국기업의 대유럽 진출 교두보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쇄를 재고할 것을 건의
 - 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에게 동 총영사관 존속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 최종적으로 외무부는 올림픽 직후 바로 폐쇄하는데 따른 부정적 여론 등 여러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공관 폐쇄를 6개월 연장하여 1993.6.30. 폐쇄하기로 결정

2. 공관 폐쇄조치 추진

- 공관 폐쇄 공식 통보
 - 주스페인대사가 스페인 외무성에 공식 통보
 - 관할지역 주정부 및 영사단에도 동 취지 공한 발송 및 구두 설명
- 행정 조치
 - 차량 등 국유재산처리
 - 고용원 해고 및 근로 보상
 - 청사 및 관저 임차 종료
 - 예산 및 문서 정리
- 공관 운전수 등 2명의 전직 고용원들이 불법 해고를 이유로 주스페인대사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

재외공관 폐쇄 - 주수리남대사관, 1993.6.30.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12 / 12 / 1-260

1993.6.30. 주수리남대사관 폐쇄 관련 내용임.

1. 공관 폐쇄 배경 및 경과

- 유엔가입 후 외교조치 계획
 - 유엔가입을 계기로 1991.10월 교민 수, 교역규모, 현지 상주공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적,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 6개 공관을 1992.3월 말 추가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
 - 상기 6개 공관 안에 수리남이 포함되었으며, 인접국가 대사가 겸임하기로 함.

2. 외교망 정비 추진 현황

- 1992.3월 작성된 외교망 정비 추진 현황에 주수리남대사관은 1992년 말 폐쇄 대상으로 지정
- 대사관 폐쇄 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겸임하기로 잠정 결정

3. 주수리남대사관 폐쇄 계획 시행

- 1993.4월 외무부는 동 폐쇄계획 시행을 위한 장관 재가를 받음.
 - 지리적 인접성, 교통편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브라질대사관을 겸임공관으로 지정
 - 5.3. 주수리남대사는 수리남 외무장관에게 공관 폐쇄 결정 통보
 - 6.23. 주수리남대사관저는 현지 유력 부동산회사 및 한국 명예영사 내정자에게 매각을 의뢰
 - 6.25. 주수리남대사는 수리남 대통령을 면담, 공관 폐쇄 결정을 통보
- 주수리남대사관은 대사관 업무를 주브라질대사관에게 인계

재외공관 폐쇄 - 스와질랜드, 1993.9.30.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2 / 13 / 1-188

1993.9.30. 주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대사관 폐쇄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주에스와티니대사관 폐쇄

- 1993.6.10. 최상덕 외무부 아중동국장이 주한 에스와티니대사를 초치하여 '작은 정부' 시책에 따라 9.30.부로 주에스와티니대사관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공식 통보
 - 조속한 시일 내 에스와티니 겸임대사 임명계획 및 주한 에스와티니대사관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 의사 표명
- 주한 에스와티니대사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서운함을 표시하였으나, 번복이 어려운 문제로 이해한다면서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언급

2. 한국 정부의 공관 재정비계획

- 7·7 대통령 특별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남북한 간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 지양차원에서 추진된 1989.5월 제1차 외교망 정비계획에 따라 아프리카 주재 4개국 대사관을 폐쇄함.
 - 제2차 정비계획에 따라 1992년 중 10개국 추가 폐쇄
 - 주에스와티니대사관은 제2차 정비계획에 따라 1993년 중 폐쇄조치

주한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상주공관 설치 검토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3-12 / 14 / 1-18

1992~93년 중 주한 트리니다드토바고 상주공관 설치 검토 관련 내용임.

1. 검토 경위

- 1992.11.3. Spencer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차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에게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 고조로 동 지역에 관할 상주공관 설치 고려 중임을 통보
 - 5인 공관을 기준으로 청사 임차료, 직원주택 임차료 및 현지고용원 급여 등을 포함한 개략적인 총액경비 자료를 요청
- 1992.12.9.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주최 만찬에서 Maraj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장관은 1993년 중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중임을 통보

2. 진행 상황

- 1993.5.19. Maraj 외무장관은 송영식 대사를 초치하여 주한 겸임대사 임명, 주한 명예영사 임명, 비자면제협정 체결, 혼성위원회 구성 등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취할 계획임을 통보
 - 송 대사, 주한 상주공관이 곧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재외공관 설치 - 우크라이나, 1992.12.1.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12 / 15 / 1-51



1. 우크라이나 외교단 현황(1992.10월 기준)

- 외교단
 - 대사관 31개국, 총영사관 1개국, 대표부 1개국

2. 개설 경위

- 1992.10.21. 주러시아대사관 구상서로 주우크라이나대사관 개설계획을 우크라이나 측에 통보
- 1992.12월 창설요원 선발 및 파견
 - 참사관 및 행정관 각 1명
- 1993.2월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직원 증원 건의
- 임시청사 확보, 관저 물색, 외교행랑 운영계획 수립, 공관 은행구좌 개설, 통신장비 설치 등
- 겸임국 조정: 인접 몰도바 겸임

3. 특이사항

- 북한도 직원 2명을 파견하여 공관개설 준비를 진행

재외공관 설치 - 우즈베키스탄, 1993.12.21.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12 / 16 / 1-40

1. 개설 경위

- 1992.11.26. 외무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설치 건의
 - 인구면에서 CIS(독립국가연합) 가운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다음이며, 약 20만 명의 고려인 거주
 - 창설요원을 1993년 2/4분기 파견 예정
- 1993.5월 대통령 재가 획득

2.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개설

- 1993.9.7.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신설(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겸임)을 관보에 게재
- 12.20. 박노벽 참사관 등 2명을 공관 창설요원으로 발령
- 12.21.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개설

주한공관 설치 - 에티오피아, 1992.6.29.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2 / 17 / 1-58



1. 개설 경위

- 1991.10월 아라고 에티오피아 대통령특사 방한 시, 주한 상주공관 개설 계획 통보
- 1992.1.2. 에티오피아 정부, Desta Erifo Anore 초대 주한 에티오피아대사 임명자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
- 1992.5.8. 주한 에티오피아대사관 창설요원 방한
- 1992.6.29. Desta Erifo Anore 초대 대사 부임

274

2. 주한 에티오피아대사, 노창희 외무부차관 면담(1992.7.3.)

- 면담 요지
 - 부임 환영 및 양국관계 증진 방안 협의
 - 북한 핵 개발 문제 및 한반도 평화통일방안 협의

주한 자메이카대사관 상주공관 설치 검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12 / 18 / 1-10

1. 상주공관 검토 배경

- 주자메이카대사는 1993.5.20. Boothe 자메이카 외무차관과 주한 상주공관 설치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협의를 가졌다고 보고함.
 - Boothe 차관은 자메이카 정부가 한국,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을 상주공관 설치 대상국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며, 우선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 공관을 설치하는 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시사함.
 - 주자메이카대사는 공관설치 시 예상되는 운영경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자메이카 측이 이미 일본에 대사관을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 물가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소요경비를 추산하면 큰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2. 공관의 관찰 및 평가

- Boothe 차관은 상주공관 설치 여부가 각의에서 곧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공관설치 안이 실무선에서 건의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수상실 고위층에서 지시함에 따라 급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음.
 - Patterson 수상은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임.

3. 주미국대사는 1993.5.19. 워싱턴 주재 자메이카대사관의 Ransford Smith 공사가 주미국대사관의 이용준 서기관을 접촉하여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치 시 소요되는 월간 공관유지비에 관해 문의하여 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사무실 빌딩, 단독주택, 이태원 청화아파트, 한강 외인아파트 등의 임차료 수준과 현지 고용원 급여, 차량 및 공공요금 등을 파악하여 주미국대사관에 통지함.

주한공관 설치 - 러시아총영사관(부산), 1992.11.10.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3-12 / 19 / 1-34

1. 개설 경위

- 1992.11.10. 주부산 러시아총영사관 개설

2. 지역 승인

- 주부산 러시아총영사관 설치 이후,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총영사관의 관할지역 승인 요청
 - 부산, 대구, 광주를 포함 경남, 경북, 전남 등을 관할지역으로 추진
- 1992.12.9. 외무부, 주부산 러시아총영사관이 요청한 관할지역 승인 회신
 - 아울러,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내무부에 주부산 러시아총영사관의 관할지역 통보

ASEAN(동남아국가연합)·대화상대국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1 / 1-125

1993년 중 아세안의 확대를 위한 대화상대국(뉴질랜드, EC(구주공동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의 관계 관련 등 내용임.

1. 외무부는 1993.2.11. 아세안 주재 대사에 아세안·대화상대국 간에 최근 기개최되었거나, 앞으로 개최될 예정인 아래 공동위원회 의제를 대화조정국별로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함.

- 11th 아세안·New Zealand Dialogue(주말레이시아대사관)
- 아세안·EC JCC(주필리핀대사관)
- 11th 아세안·US Dialogue(주브루나이대사관)
- 13th 아세안·Japan Forum(주싱가포르대사관)
- 15th 아세안·Australia Forum(주태국대사관)
- 8th 아세안·Canada JCC(주인도네시아대사관)

2. 외무부는 1993.2.16. 아세안 주재 대사에게 1993.2월 현재 아세안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아래 자료를 각 대사관별로 입수, 송부할 것을 지시함.

- 아세안 기구표(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아세안 사무국 직제표(주인도네시아대사관)
 - Singh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국장 상세 인적사항
- 주재국 외무성 아세안국 직제표 및 국장 인적사항(공통)
- 아세안과 개별 대화상대국 간의 대화체제 운영 현황(공통)
 - 아세안·대화상대국 간 대화 형식
 - 양측 수석대표
 - 회의 개최 주기
 - 대화상대국별 대아세안 협력자금 지원 현황
 - 매년 지원 규모 및 1993.2월 현재 총 지원 규모
 - 기금설치 유무
 - 협력사업 시행 분야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장래문제 검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 문화협력과

MF번호 2023-13 / 2 / 1-28

1993년 중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의 장래에 관한 외무부 아주국의 검토 문서임.

1. 현황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국가 상호 간의 유대와 결속 강화를 위해 한국 주도로 창설된 ASPAC 사회문화센터는 최초 아·태 9개국이 참가함.
- 1970년대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1973~80년 중 6개국이 탈퇴하고,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으로 운영해오다가 1991.6.30. 일본이 탈퇴, 한국과 대만 2개국만 잔류
- 1992.4월 동 센터의 장래문제를 재검토했으나, 1993.6.30.까지 현상 유지하고 그 이전에 재검토하기로 함.

278

2. 해체 여부, 시기 재검토

- 한국은 한·대만 단교에 따라 새로운 비공식 관계 설정을 위하여 대만과 교섭을 시행중이나, 대만 측의 강경태도로 교섭에 진전이 없음.
 - 1992.9.15.~17. 김재순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 사절단, 1992.10월 김태지 대사를 단장으로 한 실무사절단이 대만을 방문했으나 성과 별무
- 1992.8.22. 외무부는 아래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대비하되, 상황전개에 따라 신축 대응하기로 결정
 - 한·대만 비공식관계가 정식 설정된 이후 자연스럽게 동 센터를 해체시키고 센터 자산을 향후 설립될 민간대표사무소로 전환
 - 후속조치 없는 해체
- 1993.2.17. 외무부장관은 한·대만 간 기본관계 설정 교섭에 대비하여 해체방안과 현상유지방안을 중심으로 문화협력국이 아주국과 재협의, 보고하도록 지시

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관계 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3 / 1-89

1992~93년 중 아세안 경제관계 회의와 한국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1992년도

- 아세안 경제장관회담(10.22.~23.)
- 아세안·일본 확대경제장관회담(10.24.)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제블럭화에 대한 우려 표명
 - UR(우루과이라운드) 조기 타결
 - 일본의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구상 지지 표명
 - 일본의 대아세안 협력분야 제시
 - 일본·아세안 경제장관회담 정례적 개최 합의
- 아세안 고위관리회담(10.27.)
- EC(구주공동체)·아세안 합동회의(10.28.)
- EC·아세안 각료회의(10.29.~30.)
 - AFTA 창설이 개방적인 다자 간 교역체제 강화를 통해 EC·아세안 간 교역, 투자 증진 기대
 - 무역증진, 산업협조, 유럽투자은행 설립 문제, 시장접근, 정보교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문제, 과학기술협력, 환경보호 등 47개항의 공동선언문 발표
- 관찰 및 한국의 대책
 - 북미지역 자유무역지대화, 유럽 단일시장 추진 등에 대응하여 아세안이 국제경제의 블럭화에 대응하는 분위기
 - 한국의 대아세안 접근을 위하여 경제장관회의 대화채널 마련 필요, 자유무역지대화 확대방안 유도, 아세안의 산업 합작투자 계획에 적극 참여 등 필요

2. 1993년도

- 아세안 경제장관회담(10.7.~8.)
 - AFTA(ASEAN Free Trade Area)
 -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
 - APEC(아태경제협력체)
- 아세안·일본 확대경제장관회담(10.9.)
- 관찰 및 한국의 대책
 - 진전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Singapore, 1993.7.26.-28.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4 / 1-287

1993.7.26.~28.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참가를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승주 외무부장관

2. 참가 목적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들은 확대외무장관회담 틀 내에서 역내 정치·안보 문제의 토의 범위와 방향 등을 조율
 -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 행사 참석 계기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 캐나다, EC(구주공동체), 호주 등과의 개별 양자 외무장관회담 추진

3. 일정

- 1993.7.25. 싱가포르 외무장관 주최 비공식 만찬
 -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 참가국, 아세안 외무장관회담 옵서버국 및 게스트국의 외무장관 및 각국 고위관리 참석
- 7.26. 고축통 싱가포르 수상 예방
- 7.26. 오전 및 오후 6+7 전체회의
- 7.26. 한국과 아세안 대화조정국(말레이시아) 대표단 간 양자 오찬
- 7.27. 오전 6+7 전체회의, 오후 6+1 회의 (한국은 15:15~16:15에 배정)
- 7.27. 싱가포르 외무장관 주최 만찬
- 7.28. 오전 6+1 회의
- 7.28. 12:00~13:00 공동기자회견(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참가 외무장관 전원)

4. 준비 자료

- 6+7, 6+1 연설문, 회의자료, 한반도정세 발표문, 비공식 만찬 대화자료, 한·말레이시아 오찬 대화자료, 개별 외무장관 회담자료(7개국), 여타 외무장관과의 대화 참고자료, 싱가포르 총리 예방 자료, 공동 기자회견 자료
- 선물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Singapore, 1993.7.26.-28. 전3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5 / 1-263

정부는 1993.7.26.~28.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 한승주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 활동

- 회의 참석
 -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6+7)
 - 한·아세안 외무장관회담(6+1)
 - 범아·태지역 18개국 외무장관 회동(6+12)
- 개별 외무장관회담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C(구주공동체), 캐나다,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 싱가포르 수상 예방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와의 회견

2. 회의 참석 결과

- 핵확산 방지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촉구
 - NPT(핵확산금지조약) 무기한 연장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아태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
 - 1994년부터 범아·태지역 18개국 외무장관 간 '아세안지역협의회' 개최 합의
 - 동북아시아 등 소지역별 다자안보대화 필요성 확인
-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 아세안은 APEC(아태경제협력체) 내의 협의체로 추진하기로 합의
 - 한국의 참가 여부는 구체적 추진 방안이 제시되면 검토 후 결정 예정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연내 타결의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도쿄 G7 정상회담이 연내 타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인식
- 한·아세안 관계
 - 경제, 통상, 관광 및 문화 분야 교류 증진 합의
 - 아세안 측은 서울에 '아세안진흥센터' 설립 제의
- APEC 정상회담
 - 역내 국가 간 협력증진 위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제기



3. 개별 외무장관회담 결과

-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미국 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 강조
 - APEC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의견교환
 -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 협의
-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 군대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의 성실한 대응 촉구
 - 북한 핵 문제 대처방안 협의
-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 북한 핵 문제 관련, 중국 측의 대북한 영향력 확보
 - 한·대만 비공식 관계 수립 교섭 상황 설명(중국 측의 양해)
-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
 - 북한 핵 문제 해결 위해 공동노력 다짐
 - KAL기 사건 배상 문제, 러시아 공관부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협의
- EC, 캐나다,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및 브루나이와 외무장관회담
 -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 아·태지역의 다자협력방안 협의

4. 주요 성과

- APEC 정상회담 실현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북한 핵 문제 해결 중요성에 관한 국제적 인식 확대 및 공조체제 조성
- 한·아세안 관계 강화 기반 공고화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Singapore, 1993.7.26.-28.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6 / 1-315

1993.7.26.~28.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참석을 위한 준비자료임.

1. 외무부 아주국의 준비자료

- 대표단
- 일정(안)
 - 날짜별, 시간대별 일정(항공일정 포함)
- 회담진행순서 및 의제
 - 전체회의(6+7)
 - 한·아세안회의(6+1)
 - 9개국과 개별 외무장관회담
- 개별 외무장관회담
 - 일시, 장소, 배석자, 회담자료
- 준비자료 목록
- 언론 관련사항
 - 대외발표, 수행기자단 14명, 사진 전송 계획
- 참가국 외무장관 명단
- 주싱가포르대사관 현황
- 싱가포르 참고자료

2. 관련부처 및 부서 작성 자료

- 경제기획원, 재무부, 교통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의 작성 자료
- 외무부의 관련 실·국 작성 자료

ECO(중앙아시아 회교권 국가 간의 경제협력기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3 / 7 / 1-80

1993년 중 ECO(중앙아시아 회교권 국가 간의 경제협력기구)의 주요 동향 내용임.

1. ECO 개요

- 1985년 이란, 튀르키예, 파키스탄 3개국 간 협력기구로 발족
 - 회원국 간 종교 및 역사적 유사성과 지리적 인접성 등 고려
-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신규 가입

284

2. ECO 각료회의(1993.2.6.~7., 파키스탄 퀘타)

- 주요 결과
 - 퀘타 행동계획 채택: 교통, 통신, 에너지, 농업, 관광, 학술, 특별기금 등
- 평가
 - 1992.11월 ECO 확대 개편 이후 첫 번째 회의
 - 풍부한 자원과 3억 인구의 거대 세력권으로 부상 잠재력 보유
 - 시장경제 경험 부족, 일부 국가의 내전,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난관 존재

3. ECO 정상회의(1993.7.6.~7., 튀르키예 이스탄불)

- 참가국
 - 10개 회원국 및 OIC(이슬람협력기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기구
- 주요 결과(공동성명 주요 내용)
 - 이스탄불 선언(1993.7.5.) 및 퀘타행동계획(1993.2월) 승인
 - 역내 협력 강화방안 강구
 - 타지역 협력체 및 국제기구 등과 호혜협력관계 강화 추진
 - 무역개발은행, 해운·항공회사, 재보험회사 등 ECO 산하기관 설립 승인
 - 정상회의 연례 개최 결정

4. 특이사항

- 1993년 각료회의 개최국인 파키스탄은 대ECO 관계 증진을 강조
 -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 필요성, 일본 및 말레이시아 등의 대ECO 협력 관심에 유의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제7차. Dacca(방글라데시), 1993.4.10.-11.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3 / 8 / 1-226

1993.4.10.~11.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제7차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가 개최됨.

1. 참가자

-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7개 회원국 정상

2. 주요 성과

- SAPTA(무역특혜제도) 기본문서 서명
 - 회원국 간 교역물품에 대한 관세 10% 인하 원칙적 합의
- SADF(남아시아개발기금)에 관한 정부 간 임시 그룹설치 승인
- 기타
 - 핵무기 감축 노력 지지 및 핵무기 완전 폐기를 위한 공동노력 추구
 - 환경 AGENDA 21 시행을 위한 대개도국 지원 문제 검토
 - 향후 SAARC 회담 시 옵서버 지위 부여 문제 검토

3. 평가 및 건의

- SAPTA 체결로 회원국 간 실질경제협력 증진 합의 도출
 - 회원국 간 상호 불신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예상
- SAP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서남아시아 지역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으로 역내 통상 증진에 많은 어려움 예상
- SAARC의 지역 블록화에 대비, 한국기업의 대서남아시아 투자 증진 요망
- 대SAARC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SAARC지역 공관장회의 정례 개최 추진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33차. Noumea(뉴칼레도니아), 1993.10.25.-2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3 / 9 / 1-204

정부는 1993.10.25.~27. 뉴칼레도니아 누메아에서 개최된 제33차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에 강근택 주피지대사를 정부대표(옵서버자격)로 파견함.

1. 참가 필요성

- 남태평양 국가들의 결속 추세에 따른 SPC, SPF(남태평양포럼)의 지역 내 영향력 증대
- 남태평양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 동향 및 자원개발 추이 등 파악
- SPF 회의에 이어 남태평양 어업자원 규제 문제 동향 파악
- 원조공여국의 일원으로 여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공여정책 파악

286

2. 회의 결과

- 영국의 SPC 탈퇴, 일본의 가입 문제 진전, 칠레의 가입 의사 표명
 - 일본에 대한 가입 절차 방식에 탄력성 부여 및 1994년 SPC 총회 시 가입 확실히 전망
- 1993년도 예산(2천 2백만 달러) 확정
 - 호주,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 선진공여국과 일본, 캐나다, 독일 등의 프로젝트 원조로 총당
- 차기 총회는 1994.10월 투발루에서 개최 예정

3. 한국대표 활동

- 주피지대사, FFA(남태평양도서국어업기구) 사무국장 및 주요 연안국 대표 접촉
 - 남태평양상의 어업규제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일본, 대만의 양자 어업협정 체결 동향 및 다자 협정 체결 관련 움직임 파악

SPF(남태평양포럼) 정상회담, 제24차. 나우루, 1993.8.10.-1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3 / 10 / 1-96

제24차 SPF(남태평양포럼) 정상회의가 1993.8.10.~11. 나우루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회의 일정
 - 본회의(각국 지도자들의 회합): 1993.8.10.~11.
 - Post Forum Meeting(대화상대국과의 회의): 1993.8.12.~13.
 - 대만과의 회의: 1993.8.14.
- 참가국
 - 총회: 12개 도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 Post Forum Meeting: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중국, 대만
- 회의 의제
 - 경제 및 통상 문제: 인구 문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문제
 - 어업 문제: 핵실험 및 플루토늄 해상운송 문제, 소도서국의 상황, 독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

2. 회의 결과

- 역내·외 경제협력 증진
 - 남태평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 교역 확대 및 아·태 국가와의 경쟁 노력
 - 파푸아뉴기니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회원 가입 추진을 지지
- 남태평양 환경 보존
 -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핵실험 중지 입장 지속, 미국, 프랑스, 영국의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선언 서명을 촉구
 - 일본은 역내 해상 경유 플루토늄 수송계획을 재고하고, 역내 국가들에 플루토늄 관련 정보 제공
 - 세계 환경파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역내 도서국가의 생존위협에 대한 국제적 관심 촉구

3. 한국 관심 사항

- 원양 어업 문제
 - 남태평양수역에서의 유자망조업 강력 반대, 해양순찰 강화를 통한 어업규제 적극 실시
- APEC 가입 문제
 - SPF는 파푸아뉴기니의 APEC 정식회원국 가입을 지지, SPF의 APEC 옵서버 자격 희망

Singh, Ajit ASEAN(동남아국가연합) 사무총장 방한, 1993.11.12.-1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11 / 1-75

Ajit Singh 아세안 사무총장의 1993.11.12.~14.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한국의 EAEC(동아시아경제공동체) 결성 지지

2. 주요 일정

- 면담: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상공자원부장관
- 행사: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주한 아세안대사 주최 만찬, 자유연맹 총재 주최 친목행사

288

3. 주요 협의내용

- Singh 사무총장의 중국 및 일본 방문 결과 청취
 - 중국은 대만 및 홍콩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EAEC 지지
 - 일본은 미국의 우려를 감안하여 EAEC 결성에 유보적 입장
- EAEC 설립에 대해 의견 교환
 - 아세안은 APEC(아태경제협력체) 내 동아시아 국가 모임 결성을 희망
 - 한국은 별도의 폐쇄적 그룹 결성에 유보적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기술센터(ASPAC/FFTC)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경제지구과

MF번호 2023-13 / 12 / 1-44

1991~93년(중국과의 수교 전후 시기) 중 한·대만 간의 ASPAC/FFTC(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기술센터)를 통한 농업협력 추진 내용임.

1. ASPAC/FFTC 농업전문가 교체 파견

- 명칭: Foo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for Asian Pacific Council
- 교체 농업전문가
 - 김용덕 박사(농협중앙회 소속, 1992.6.30. 임기종료) 후임으로 최찬호 박사(농협중앙회 소속)
- ASPAC/FFTC 현황 및 농촌진흥청과의 협력관계
 - 설립일 및 소재지: 1970.4월, 대만 타이페이
 - 설립 목적: 아·태지역 국가의 식량 증산 및 비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비료에 관한 정보 수집
 - 회원국: 한국, 일본, 대만 등 당초 10개국이었으나 7개국은 탈퇴
 - 분담금(1991년): 한국 43,000달러, 일본은 133,400달러
 - 조직: 주대만대사가 이사회 부의장, 농촌진흥청장이 기술자문위원회 의장
 - 농촌진흥청과의 협력(1972~91년): 국제회의 27회 공동 개최, 한국 연구원의 대만 파견 101명, 대만전문가 방한 15명

2. 제65차 ASPAC/FFTC 이사회(1993.3.25., 타이페이)

- 참가자
 - 민병규 주대만대표부 공사, Ling Shiang-Nung 대만 농업위원회 부주임, Yoshio Nomoto 일본 교류협회, Gualberto Lamauig 필리핀 대표부
- 주요 결과
 - 이사회 의장 선출: 손명현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
 - 1992년도 연간활동 보고서 채택 및 1994년도 활동계획서 채택
 - FFTC 로고 변경
 - FFTC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전문화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아세안 산업투자 수요조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13 / 1-36

1993년 중 한·아세안 협력사업 중 아세안 산업투자 수요조사 사업에 관한 내용임.

1. 전자산업 분야

- 아세안 측 전문가 추천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산업진흥 관련 부처 소속 전문가들 추천
- 아세안 산업투자 수요조사 사업(전자 부문) 진전 현황
 -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설문조사서 작성(1993.5~6월)
 - 아세안 현지 출장 연구 참여자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8월)
 - 선진국 관계전문가 면담조사 및 자료수집(9월)
 - 아세안 현지기업 설문조사(7월 이후) 및 국내전자업계 설문조사(9월 이후)
 - 아세안 측 참가자들은 각국별 보고서 작성
- 향후 사업 추진 계획
 - 10~11월 설문서 통계처리 및 분석
 - 11.23.~27. 아세안 각국 전문가 참석하에 서울회의 및 산업 시찰
 - 1994.1월 아세안 현지 실태 조사
 - 2.22. 산업연구원 아세안 산업투자 수요조사 사업(전자부문) 최종보고서 제출

2. 2단계 아세안 주요산업의 투자수요에 관한 조사사업 계획안

- 산업연구원은 1993.2.4. 동 사업 계획안을 외무부 및 상공부장관에게 송부
 - 아세안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대로 2단계 사업으로 섬유 및 화학 산업에 대한 조사 추진
 - 소요예산으로 섬유 및 화학 산업 부문에 각각 16만 6천 달러 책정
- 섬유산업 분야 조사계획안
 - 한국기업의 아세안 섬유산업 투자방안, 신전략 등 제시
 - 아세안 섬유산업 현황부터 투자수요,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정부정책 등 조사연구
- 화학산업 분야 조사계획안
 - 한·아세안 화학산업 분야 협력방안 연구
 - 7명의 아세안 각국 전문가로 하여금 아세안 화학산업의 장단점 분석 연구, 아세안의 관심 분야 발굴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14 / 1-186

1993년 중 한·아세안 협력사업 검토 및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중인 협력사업

- 언어연수 2단계 사업, 판매자·구매자 교류, 투자수요 조사, 생명공학 워크숍, 인력개발, 농업개발 기술 전수, 과기 및 R/D 기초연구, 아세안 관광박람회
- 전체사업의 2/3 정도는 순조롭게 진전

2. 한국 제안 협력사업(1992.6월)

- 한국 통상진흥전략 연수, 아세안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아세안 산업투자 수요조사 2단계 사업 (섬유 및 화학), 관광전문가 교류 및 연수, 청소년 교류 및 협력
- 1993년 중 아세안 측의 의견을 접수하여 국내 담당기관과 협의하고 결과 회신

3. 한국 제안사업(1993.5월)

- 제3차 한국어 관광가이드 연수, 전기 분야 국가표준기술협력, 무역정보통신망 상호 연결, 기술개발형 기업의 개발·촉진 및 금융지원

4. 한국 제안 문화 분야 협력사업(1993.10월)

- TV 프로그램 제작, 문화 전문기관 교류 증진, 현대 단편소설집 발간
- 아세안 측의 문화 분야 협력 제안에 따라 한국 측이 발굴

5. 기타 아세안 측 제안 신규사업

- Freight Tariff 체계 마련 및 해운사·선주 간 협의체제 수립 연구, 아세안만을 위한 연수사업, 한·동남아 통상·투자관계 연구
- 개별 국가 또는 기관이 협력 제안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무역사절단 교환사업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15 / 1-265

1993년도 한·아세안 무역사절단 교환사업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과

-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코트라를 통해 상호교환 방문으로 교역상담 및 투자진출 방안 추진
 - 소요예산은 한·아세안협력기금에서 약 4만 5천 달러 지출, 정부공무원이 민간기업인을 인솔
- 1992.9월 동 사업 조정국인 말레이시아 측은 한국 측에 사업실시 통보 및 11.24. 한·아세안 JMC에서 소요예산 승인
- 코트라는 1993.2월 및 8월 한국무역사절단의 아세안 방문 및 아세안무역사절단의 방한사업 계획안을 외부부에 제출

2. 한국무역사절단, 아세안 방문(1993.3.28.~4.11.)

- 파견 국가
 - 아세안 6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 사절단 구성
 - 코트라 기획조사부 수입조사과장(단장) 외 8개 민간기업 대표 총 10명
- 아세안 현지 6개 유관기관 방문, 투자 간담회 및 무역상담 등 개최, 원부자재의 수입가능성 타진, 한국산 유망 품목 대아세안 수출 추진, 투자기회 발굴 등 한·아세안 경제협력 증진 기여

3. 아세안무역사절단 방한(1993.9.13.~19.)

- 사절단 구성
 - 아세안 5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10명 및 대한민국 수출입 유망업체 대표 22명
- 수출입상담회 개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방문, 산업 시찰 등
- 동 사절단을 인솔한 말레이시아 외교부 Mohamad Sani 아세안 부국장은 별도 일정으로 9.13. 유병우 외무부 아주국장과 면담, 한·아세안 협력 및 한·말레이시아 관계 관련 협의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아세안 공무원과정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16 / 1-135

1993.8.2.~26.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아세안 공무원 연수과정 관련 내용임.

1. 연수대상

- 아세안 회원국 중견 공무원 19명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6개국 출신

2. 연수 과정

- 1주: 한국 소개 및 현장 견학
- 2주: 행정관리능력개발 훈련 및 현장 견학
- 3주: 인적자원 개발 강좌, 실무 수습 및 현장 견학
- 4주: 산업 시찰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사업: 아세안 관광전시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17 / 1-54

1992~93년 중 한·아세안 협력사업 중 아세안 관광전시회 관련 내용임.

1. 아세안 관광전시회 개요

-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하나로 아세안 관광 증진을 위해 실시
 - 1990~94년간 제공하는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 8백만 달러로 한·아세안 협력사업 실시
- 아세안 측 간사: 주한 아세안대사로 구성된 '아세안 서울위원회'
 - 1993.3.25. 이후 6개월간 의장은 주한 태국대사

294

2. 아세안 관광전시회(1993.4.15.~18.)

- 개막식에 외무부장관 참석
- 한국 여행업체 참가

ASEAN(동남아국가연합)·유엔 간 평화 및 예방외교 워크숍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 / 18 / 1-43

1993년 중 아세안·유엔 평화 및 예방외교 협력에 관한 워크숍 개최 및 참석에 관한 내용임.

1. 워크숍 개최 경위 파악

- 외무부는 1993.2.23.자 Far Eastern Review지 보도로 태국 정부의 아래 내용의 다자외교 구상을 인지함.
 - 3월 태국 ISC(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유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ADB(아시아개발은행), 아세안 및 기타 역내 관계 인사, 학자 참석하에 방콕에서 제1차 워크숍을 개최, 다자적 분쟁예방 외교 추진을 협의함.
- 주태국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동 워크숍 배경은 1992.10월 이래 사라신 비라폰 태국 외무부 미주국장이 냉전 이후 아세안이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창한 것에서 기인함.

2. 제1차 워크숍(1993.3.22.~23., 방콕)

- 냉전 이후 남사군도와 같은 역내 문제를 유엔 및 미국 등 역외 참여를 통한 다자적 접근방식, 아세안 PMC(확대외무장관회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등을 통한 역내 신뢰 구축 필요 의견 대두

3. 제2차 워크숍(1993.7.5.~7., 싱가포르)

- 참가자
 - 아세안 6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뉴질랜드의 정부관리 및 학자, 유엔사무국, ESCAP, 포드 재단 인사 등
- 한국 측 참가
 - 주싱가포르대사는 Tommy Koh 싱가포르 외무성 대사 면담(6.7.) 시, 지난 제1차 워크숍에 한국의 불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며 참석을 타진
 - 송민순 주싱가포르대사관 참사관이 옵서버로 참석
- 주요 의제
 - 캄보디아 문제, 자원경쟁, 영토 및 국경 분쟁, 아세안우호협력조약, 유엔과 협력하의 지역그룹의 역할 등
- 회의 결과
 - 예방외교의 지역적 적용, 캄보디아 재건 문제 관련 역내 경제 및 금융기구의 참여, 영토 및 국경 분쟁은 양자차원의 해결전통 유지 의견, 아세안우호협력조약의 역내국 전원 가입 및 역외 국가 가입 개방을 통한 지역평화장치로서 활용 등 협의

한·ASEAN 공동기금 관리위원회(JMC) 개최, 제6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3.1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 / 1 / 1-160

제6차 한·아세안 JMC(공동기금관리위원회) 회의가 1993.12.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1. 회의 목적 및 의제

- 회의 목적
 - 신규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선정 및 예산배정을 위한 회의
- 주요 의제
 - 한·아세안 협력기금 결산, 1994년 회계연도 신규 사업 예산 배정검토 등

2. 한국 측 참가자

- 정영구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 최원선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참사관, 정연두 외무부 동남아과 사무관

3. 한·아세안 JMC 회의 의제 및 대책 검토(1993.12월, 외무부 동남아과)

- 한·아세안 협력기금 결산
 - 1992년도 이월액 감안, 1993년도 지출액 추계
- 1993년도 신규협력 사업 예산 배정 안
 - 경제개발 경험전수, 무역연수생 초청,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제2단계 및 제3단계 투자수요 조사, 관광 전문인력 교환연수, 청소년 교류 등 총 8개 사업 예산 배정안 작성

4. 회의 결과

- 신규 한·아세안 협력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
 - ISEAS(싱가포르동남아학회) 제안 'Research Proposal on Emerging Issues in Korea's Trade & Investment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 사업 등 총 8개 사업
 - Exchange and Training of Experts in the Field of Tourism 사업 관련 한국 제안부처인 교통부에서 상세한 연수일정을 제시한 후 예산배정을 검토
- 한·아세안 협력기금 결산
 - 1993.11월 현재 가용재원은 약 250만 달러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 / 2 / 1-188

1993.5.11.~13.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Dialogue 회의 준비 및 개최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개최 준비

- 일정 확정
 - 한국 측은 당초 1992.3월경 한·아세안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아세안 측은 자체 일정 등의 이유로 1993.5월경 개최 제의
 - 양측 간의 조정으로 1993.5.11.~13.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서 개최 확정
- 당초 제3차 한·아세안 공동위에서 한국이 아세안의 전면적 대화상대국이 된 계기로 논의 분야를 확대하고 한·아세안 Dialogue로 명칭을 변경
 - 아세안 측은 화물운송 분야 등 신규 사업 제안
- 의제
 - 한·아세안 경제·통상협력, 개발협력, 신규협력사업 등 협의
 - 동 회의는 한·아세안 협력에 중점을 두고 정치·안보 분야 문제는 의제에 불포함

2. 제1차 한·아세안 Dialogue(1993.5.11.~13., 말레이시아 쿠칭) 결과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아세안: Hasmy Agam 말레이시아 외무부 아세안담당 차관보
- 회의 결과
 - 한·아세안 전면적 대화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 발전 평가
 - 양측 간 경제협력 문제에 국한되었던 회의를 국제 및 지역경제 이슈와 정치·안보 문제를 포함하여 의제를 확대할 것을 논의
 - 아세안 측은 관계 증진을 위해 서울에 아세안 Promotion Center 설립을 제안,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좋은 제안으로 평가
 - 동남아와 무역·투자관계 관련 문제 연구 등 특별협력사업 선정
 - 교역, 투자, 관광, 과학, 기술, 인적자원개발, 건설 분야에서의 양측 관심 사항 토의 및 발전 방향 협의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V.2 참가자료)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 / 3 / 1-163

1993.5.11.~13.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Dialogue 관련 회의 준비 자료임.

1. 관계부처 대책회의(1993.5.4.) 자료

- 한·아세안 관계 전반, 제1차 한·아세안 Dialogue 회의 개요, 의제별 대책 등
 - AKBC(한·아세안 민간경협위) 활동보고, 대화관계 일반, 통상·투자협력, 관광협력, 1차 산품 및 가공품 관련 문제, 과학기술협력, 인적자원개발협력, 협력기금 결산, 기존 및 신규 협력사업 등 의제별 대책안 제시

2. 공동 기자회견 질의 및 답변자료

-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에 대한 한국의 입장,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및 투자,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 아세안 농산물 등 1차 산품 수입증대를 위한 한국의 조치, 한국의 동남아 관광여행 제한조치,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 등 이슈별로 답변안 작성

3. The First ROK-ASEAN Dialogue(영문)

- 회의 의제 및 의제별 영문 자료 및 발언자료
- 개회사 및 공식만찬 답사
- 회의개최 보도자료

4. 회의 참가자료

- 대표단, 일정, 의제, 의제별 회의자료
 - 한국이 아세안의 제2위 투자국(미국 1위), 아세안 지역 건설 수주가 한국 전체 해외건설 수주의 71%로 1위 건설시장

5. 아세안 국가별 통상 자료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의 통상 현황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V.3 아세안 측 의제 초안)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 / 4 / 1-125

1993.5.11.~13.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Dialogue 회의를 위해 아세안 측이 제공한 의제 관련 검토 자료임.

1. 1993.3월 한·아세안 Dialogue 준비위원회에 제출된 아세안 측의 의제별 검토 초안

- 한·아세안 관계 조망(의제3), 무역(의제5.1), 투자(의제5.2), 관광(의제5.3), 1차 상품(의제5.4), 과학기술협력(의제6.1.), 공동위원회보고서(의제7.1), 신규 사업(의제7.5) 등

2. 의제별 아세안 측의 검토 자료

- 한·아세안 관계조망
 - 1989.11.2. 자카르타에서 부문별 대화상대자로 공식 인정된 한·아세안 관계는 1991년 들어 전면적 대화상대자로 격상, 그간 수행되어온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통상면에서 그간 미국 및 일본에 편중된 상황을 한국과의 무역확대로 균형을 잡고 있으며, 한국의 원자재 관련 산업의 아세안지역으로 이전 등 투자확대 및 새로운 협력사업에 관심 표명
- 한국은 아세안의 8번째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며, 아세안은 한국의 기술적 수입규제 장벽, 관세 등 문제 제기
- 투자
 -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전체 아세안에 대한 투자의 2%를 차지, 1992년 1/4분기에만 36.6% 증가 등 증가 추세
- 관광
 - 한국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 한국어 교육사업의 연장, 항공편 증설 및 전세기 운용 필요성 등
- 1차 상품 무역
 - 한국의 1차 상품 가공품의 수입자유화 필요 지적
- 과학기술협력
 - 연구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강화 및 기업의 아세안지역 기술협력 필요성 제기
- 신규 사업 제안
 - 하천 재생 및 미화 사업, 토양침식위험 지도사업 등

3. 아세안 측이 준비한 인력개발사업 등에 관한 검토 자료 수록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Dialogue, 제1차. Kuching(말레이시아), 1993.5.11.-13. 전4권 (V.4 우리 측 의제 검토)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 / 5 / 1-199

1993.5.11.~13.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Dialogue 회의 관련, 한국 측의 의제별 검토 자료임.

1. 한·아세안 통상·투자협력의 추진방향(1993.4월, 산업연구원)

- 아세안과 통상·투자 협력관계가 역동적으로 확대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특성
- 향후 통상·투자협력 방향으로 상호 보완적 실질협력 증대를 위한 통상·투자 및 인프라 건설 진출 등 제시

300

2. 아세안 산업투자 수요조사 사업 검토(1993.4월, 산업연구원)

- 동 사업은 제2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에 한국 측이 제안하여 1992.10월 아세안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함.
 - 진행 중인 1단계 전자 산업에 이어 섬유 및 화학산업 제안

3. 부처 및 기관의 동 회의 관련 의견 제시

- 과학기술처, 한국국제협력단, 경제기획원, 관광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교통부, 농림수산부, 외무부, 상공자원부 등 의견 및 자료 송부
- 경제기획원
 - 아세안의 관세인하 요청 관련, 한국이 5개년 관세인하 계획을 추진하며, 국내의 고임금에 대응하여 아세안지역 투자 장려 및 아세안 측의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필요 의견
- 대한상공회의소
 - 대아세안 투자는 1987년 본격화된 이후 1992년까지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 추세임. 다만, 대베트남 투자는 대중국 투자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처
 - 연수생 초청, 기관 간 협력 등 대아세안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아세안 제기 사항 검토 자료 제시
- 교통부
 - 아세안 측이 제기한 한국의 해외여행 제한에 대해 건전관광의 계도로 설명하고, 항공편 증편을 위해서는 태국, 싱가포르 및 필리핀의 반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을 제시
-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물 관세인하 계획을 설명하고, 일부 품목은 농가보호 목적상 인하 불가 상황 설명
- 외무부 통상국
 - 위생 및 검역 규제, 원산지표시제도 등 통상 의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검토
- 상공자원부
 - 아세안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현지화 등 투자전략, 자원협력 등에 관한 의견 제시

리오 그룹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14 / 6 / 1-64

1993년 중 중남미 지역기구인 리오그룹의 동향 관련 내용임.

1. EC(구주공동체)/리오그룹 외상회의(1993.4.23.~24., 덴마크 코펜하겐)

- 참가자
 - 양측그룹의 외상 또는 외무차관
 - 집행위원회: 개도국 담당 집행위원
- 회의 결과
 - 회의 계기 EC와 Cartagena 협정국 간에 1983년도 협정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기본협력협정이 4.23. 서명됨.

2. 리오그룹 정상회의(1993.10.15.~16., 칠레 산티아고)

- 참가자
 -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등 11개국 대통령 및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외무장관
- 주요 의제
 - 역내 민주주의 강화, 인권증진, 마약거래 및 테러근절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자유무역 증진, 중남미 경제통합
 - 1995년도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 지원
- 회의결과
 - 리오그룹 산티아고 선언 채택
 - 리오그룹은 연례 정상회담을 통해 지역 문제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 및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가장 비중 있는 중남미지역 기구로서의 위상 확립

OAS(미주기구) 총회, 제23차. Managua(니카라과), 1993.6.6.-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4 / 7 / 1-119

정부는 1993.6.6.~12. 니카라과 마나구아에서 개최된 제23차 OAS(미주기구) 총회에 반기문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미주지역 통합, 마약 퇴치 및 환경 보전, 인권 보장
- OAS 역할 강화, UR(우루과이라운드) 등

302

2. 한국대표단 활동

- 옵서버 자격으로 특별 외무장관회의 및 총회 전체회의 참석
- 니카라과,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각국 대표 접촉
- 니카라과의 제23차 OAS 총회 개최 관련 니카라과 요청으로 행사용 의전차량 10대 기증

3. 주요 관찰

- OAS가 그간 정치·경제 통합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진함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
- 아이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과 공동으로 노력 중이며, 과테말라 헌정 중단사태에 대해서도 긴급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신속하게 대응

OAS(미주기구) 학자교류사업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14 / 8 / 1-287

1989~93년 중 OAS(미주기구)의 학자교류사업 관련 내용임.

1. 대OAS 협력사업

- 외무부는 1990.12.18. 미주대륙발견 500주년 기념을 위한 한국의 OAS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한국 측 외무부장관과 OAS 사무총장 간에 1990.12.3. 서명되었다고 하면서, 동 양해각서 사본을 한국국제문화협회장에게 송부함.
- 양해각서 내용 중 OAS 회원국 국민에 대한 한국학 Fellowship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사업기간 축소: 1990~92년(3년 간)을 1991~92년(2년 간)으로 축소
 - 대상인원: 9명을 6명으로 축소
 - 지원기간: 6개월

2. 한국·OAS 학자교류 사업

- 외무부는 1991.9.27. 한국 OAS 학자교류사업과 관련, OAS 사무국이 1992년도 학자초청사업의 후보자 3명과 대체후보자 2명의 신청서를 송부해왔음을 한국국제문화협회장에게 알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대OAS 협력사업

- 교육부는 1992.5.27. 대OAS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에서 한·중남미 관계증진 방안을 연구할 교수 3명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를 OAS와 협의하여 줄 것을 외무부 문화협력 국장에게 요청함.

OAS(미주기구) 교육상 및 과학상 심사위원 위촉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14 / 9 / 1-77

1993년 중 OAS(미주기구)가 수여하는 교육상 및 과학상 심사위원 위촉 관련 내용임.

1. 교육상 심사위원 위촉

- 주미국대사는 1993.4.28. OAS 사무국이 중남미 교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5명의 심사위원단에 OAS 옵서버 순번에 따라 한국이 포함되었음을 알리며, 한국인 중 교육계의 권위 있는 인사 1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OAS 측에서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부담
- 외무부는 6.8. 교육계의 권위 있는 인사 1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함.
- 교육부는 7.15. OAS 교육상 심사위원으로 김란수 광주대학교 총장을 추천하였으며,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동인 추천사실을 전달함.

2. 과학상 심사위원 위촉

- 주미국대사는 1993.7.8. OAS 사무국이 중남미지역의 과학계에 공로가 있는 중남미 과학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5명의 심사위원단에 OAS 옵서버 순번에 따라 한국이 포함되게 되었음을 알리며, 한국인 중 과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 1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OAS 측에서 왕복항공료와 일비 부담
- 외무부는 9.27. 동 심사위원으로 적임인사 1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요청함.
- 서울대학교는 10.14. OAS 과학상 심사위원으로 박상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교수를 추천하였으나, 이후 박 교수는 불가피한 학내일정으로 동 심사위원 패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

Council of Europe(구주이사회)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4 / 10 / 1-50

1989~93년 중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동향 관련 내용임.

1. 유럽평의회

- 1949.5월 런던에서 범유럽 경제·사회 발전 촉진 및 상호 협력, 유럽의 점진적 통합과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10개국으로 창설
- 스위스, 핀란드 및 일부 소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가입, 21개국으로 확대
-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위원회, 의원 총회, 18개의 정부 간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
- 특히 유럽인권보호규약에 의한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활동 부각

2. 핀란드의 유럽평의회 가입

- Paasio 핀란드 외상은 1989.5.5. 코이비스토 핀란드 대통령이 서명한 회원 가입서를 Oreja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22번째 회원국이 됨.
 - 동 평의회 각료회의의 위원장인 Van Den Brock 네덜란드 외상 및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환영
- 핀란드는 전통적인 친소련 중립정책 및 동 평의회 인권규약과 핀란드 형법과의 상이점으로 인해 그동안 가입에 소극적
 - 그러나 서유럽과 관계 강화 필요 및 일부 동구국가들의 가입 추진에 고무되어 가입

3. 유럽평의회 동향 보고

- 포르투갈이 1989.11월부터 의장국이 되고, 11.16. 스트라스부르크 개최 각료위원회는 Pinheiro 포르투갈 외상 주재하에 포르투갈에 남북센터 설치 결정
- 동 각료위원회에서 헝가리 및 폴란드가 문화협정에 서명하고, 헝가리는 동 평의회 가입 신청
- 1990.3.17. 리스본 개최 외상회의에 소련 참석 의사 표명
- 1992.9.10.~11.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특별 외상회의에서 유고 사태와 관련, 세르비아를 main aggressor로 지목
- 1993.6.30. 동 평의회는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정회원 가입 승인, 9.28. 루마니아 가입 승인
- 1993.10.8.~9. 비엔나에서 정상회의 개최,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를 포괄하는 새로운 역내 인권 선언을 채택하고, 유고 내전 관련 토의 및 유럽인권재판소를 상설화

EC(구주공동체) 동향.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4 / 11 / 1-159

1993.1~6월 중 EC(구주공동체)의 대내외 정책 및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EC의 대외정책 동향

- EC의 ISTC(국제과학기술센터) 설립 추진 동향
 - 주EC대사는 1993.1.5. EC집행위원회 대외총국 Bozzola ISTC 담당관을 면담한바, 현재 EC와 일본이 협정비준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했고 미국과 러시아도 1월 중으로는 모든 내부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6. 외무부에 보고함.
- EC 의장국 덴마크 Ellemann-Jesen 외상은 1993.1.18.~22.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된 본 회의에서 1993년도 상반기 추진 주요 업무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과 EC 가입 교섭을 개시하며, 신속한 교섭 완료를 위해 가급적 공동(In Parallel) 교섭을 시도, 필요 시 개별 교섭 추진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역점을 둠.
 - 유고사태의 평화적 노력을 강화하고, 중동평화과정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의 분규 해결에 적극 기여 등
- EC의 1.22. 보고서에 따르면, EC 단일 시장 출범에 따라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으나, 사람의 자유이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함.
- EEA(유럽경제지역) 추진 동향
 - EC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는 1992.12월 스위스의 EEA 조약 비준 거부로 야기된 EEA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 조약 부속의정안에 합의, 동 조약상 할당된 스위스의 결속기금 부담분을 잔류국가들에 할당하여 당초 결속기금 규모 유지
- EC의 통상문제로 미국과의 통신협상 결렬, 국영무역국가와의 교역 문제 등
- EC와 러시아 간 신탁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1993.2.17.~18.) 개최
 -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 노동력 이동 등의 세부 분야별 협의
 - 러시아 측은 EC에 대해 금번 협정 내용의 주안점으로서 양측 간 자유무역지대의 점진적 설치를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EC 집행위는 이사회의 협상권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함.
- EC 트로이카(덴마크, 영국, 벨기에) 외상과 Visegrad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외상 간에 정치협력회담(1993.3.8.) 개최, EC 가입조건 등 협의
- Delors EC 집행위원장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 간 회담(1993.3.18.), 통상마찰 문제 등 협의



- 동구경제개혁 지원에 관한 유럽회의(1993.4.13.~14., 코펜하겐)
 - 동구와 서구 간 협력 협의
- EC 외무장관 비공식회의(1993.4.24.~25., 덴마크)
 - 유고사태, 특히 보스니아 세르비아 제재 관련 협의
 - EC 회원국들은 무력분규의 확대 및 기존 유엔평화군의 신변위협과 인도적 원조의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여 군사적 개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측이 고려하고 있는 보스니아 회교 측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에 반대함.
 - EC는 비군사적 제재조치와 EC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이 발표 예정인 대보스니아 정책을 주시하고 있음.

2. EC 일반이사회 및 대내 정책

- 1993.2.1. EC 일반이사회는 의장국 덴마크의 업무계획, EEA 조약 개정, EC 확대 교섭(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루마니아와 제휴협정 서명 등 협의
- 3.8. 동 이사회는 불가리아와 제휴협정 서명, 유고사태, EEA 협정 체결 등 협의
- EC 결속기금 설치 추진
 - 회원국 일인당 GDP 평균의 90% 미만 회원국의 사회경제개발 지원 기금
- 3.17.~19. EC 구주의회 내무위원회 국경통제 철폐 등 협의
- 4.5. 동 이사회는 노르웨이와의 EC 가입 교섭 결정

EC(구주공동체) 동향.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4 / 12 / 1-192

1993.7~12월 중 EC(구주공동체)의 대내외 정책 및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역내 동향

- 쟁쟁 그룹(9개국) 각료회의(1993.6.30.)
 - 12.31.까지 인적이동에 대한 역내 국경통제 철폐 합의
- EC 일반이사회(1993.7.2.)
 - 구조조정기금 개발낙후지역 지원자금 수혜대상지역 선정 및 회원국 간 자금배분기준 등 논의
- EC 일반이사회(1993.7.19.~20.)
 - 구주시민권 제도, 사이프러스 등 EC 가입 문제, 유럽안정협약, 대동구 시장접근 개선, 유고사태, 대CIS(독립국가연합) 관계 등 협의
-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1993.7.26.~28., 싱가포르)
 - EC와 아세안 개별회의 개최, 양자관계 증진 및 미얀마 인권 및 유고사태 등 제3국 문제 협의
- EC 외상 회의(1993.9.11.~12.)
 - 유고사태, 대중동 지원, EC 확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협의
- EC 법무장관 회의(1993.9.28.)
 - 범죄인 상호인도 문제 협의, 정치범, 자국민 불인도 등 이슈 협의
- 쟁쟁 협약국 장관회의(1993.10.18.)
 - 회원국 간 국경통제 철폐시한을 1994.2.1.로 연기하기로 결정
- 차기 EC 집행위원장 전망(11월)
 - Delors 집행위원장 임기가 1994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Lubbers 네덜란드 수상, Brittan EC 부집행위원장, Etienne Davignon 벨기에은행 총재 등 인사가 거론되고 있음.

2. 대외관계

- EC 집행위원회는 제휴협정을 체결한 동구 국가의 대EC 시장접근 개선 조치 관련 법안을 1993.7월 일반이사회에서 채택 예정
- EC·우크라이나 신흥력협정 교섭회의(1993.7.8.~9., 브뤼셀)
 - 우크라이나 측은 장기적인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표 제시
- EC의 공동외교안보 추진 현황 보고(7.19.)
 - 구주동맹 회원국 간 결속강화, 포괄적 안보개념 수립, 구주동맹의 안보기능 강화, 구주동맹과 WEU(서유럽연합)와의 관계발전, 전 유럽의 안보강화 등 5개 원칙 채택



- Delors EC 집행위원장과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상 면담(9.2.)
 - 새로운 중동평화안을 위해 정치·경제적 지원 약속
- EC 집행위원회(9.29.)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점진적인 관계정상화 및 민주화 지원을 위한 전략보고서 채택
- EC 트로이카와 미 국무부 실무협의 시, 북한 핵 문제 관련 논의 동향(11.24.)
 - 미국 측은 북한 핵 문제 관련 별다른 진전이 없으며,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타결책의 하나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핵사찰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방안이 가장 용이하고 빠른 해결방법이라고 평가
 - EC 측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핵 개발 가능 국가들에 대해서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과 완전히 일치되는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전달

EU(유럽연합) 출범. 전4권 (V.1 1990-91)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14 / 13 / 1-332

1990~91년 중 EU(유럽연합) 창설 초기 동향 관련 문서임.

1. EU 논의 배경 및 진전

- 배경
 - 1990년 전후 냉전체제 붕괴로 인해 EC(구주공동체) 강화 및 확대 필요
 - 역외국에 대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EC의 효율성 제고 및 결속 강화 필요
- 진전 사항
 - 1990.12월 로마 정상회의에서 정부 간 협의 개시 결정
 - 매주 외무장관이 임명하는 전문가 협의 개최
 - 매월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EC 각료이사회 협의 개최
 - 연 2회 정상 참여 유럽이사회 협의 개최
 - 1991.12월 마스트리히트 정상회의에서 정치통합 명문화 및 단일통화 협의 일정 합의

2. 마스트리히트 정상회의 결과(1991.12월)

- 정치통합 명문화: EU 창설조약 채택
 - 통합의 목표를 연합(Union)으로 합의
 - 공동외교안보정책 추진 체계 확립
 - 입법권 및 임명동의권 등 유럽의회의 권한 확대
- 단일통화 포함 경제통합 가속화
 -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시장 지향
 - 늦어도 1999.1월까지 단일통화 실시 및 ECB(유럽중앙은행) 창설 합의
 - 영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단일통화 참여 선택권 부여

EU(유럽연합) 출범. 전4권 (V.2 1992.1-8월)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14 / 14 / 1-210

1992년 상반기 EU(유럽연합) 창설조약 비준 동향 등 관련 문서임.

1. EU 창설조약 확정

- 1992.2.7. EC(구주공동체) 외무장관들은 EU 창설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정식 서명
 -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서명식 개최
- 1993.1.1. EU 창설조약 발효를 위한 회원국의 국내절차 진행

2. EU 창설조약 비준 동향

- 1992.6.2. 덴마크 국민투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반대
 - 다수 EC 회원국 정부는 마스트리히트조약 개정 협상 불가 입장
- 6.18. 아일랜드 국민투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찬성(비준절차 완료)
- 6.23. 프랑스 상·하원,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위한 헌법 개정안 가결
- 7.2. 룩셈부르크 의회,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7.17. 벨기에 하원,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
- 7.21. 그리스 의회,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7.30. 스페인 상원, 하원에서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위한 헌법개정안 가결

EU(유럽연합) 출범. 전4권 (V.3 1992.9-12월)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14 / 15 / 1-227

1992년 하반기 EU(유럽연합) 창설조약 비준 동향 관련 문서임.

1. EU 창설조약 비준 동향

- 1992.9.20. 프랑스 국민투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찬성(비준절차 완료)
- 10.29. 이탈리아 하원, 상원을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1.4. 벨기에 상원, 하원을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1.17. 포르투갈 의회,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
- 11.25. 스페인 상원,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2.10. 포르투갈 의회,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2.15. 네덜란드 상원, 하원을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 12.18. 독일 상원, 하원을 통과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동의(비준절차 완료)

2. 특이 동향

- 권한이 확대된 EU로 인해 주권 상실 인식 등이 확산되어 거부감 존재
 -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부결한 덴마크 처리 문제로 이견 표출
- 각국의 조약 비준 동향에 따라 역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

EU(유럽연합) 출범. 전4권 (V.4 1993)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15 / 1 / 1-184

1993년 EU(유럽연합) 창설조약 비준 동향 관련 문서임.

1. EU 창설조약 비준 동향

- 1993.5.18. 덴마크 제2차 국민투표는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찬성(비준절차 완료)
- 7.22. 영국 하원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심의 절차를 종료(비준 동의 절차 완료)
- 10.12. 독일 헌법재판소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헌법 합치를 결정함에 따라 의회의 비준 동의 유효

2. EU 창설조약 발효

- 1993.11.1. 회원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EU 창설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NORDIC(북구협력기구) 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5 / 2 / 1-173



1992~93년 중 NORDIC(북구협력기구) 회의 관련 내용임.

1. 북구 협력(Nordic Cooperation) 개요

- 1952년 창설
- 회원국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개국
- 주요 기구
 - 북구 이사회
 - 북구 각료이사회
 - 이와 별도로 북구 수상회의 및 외상회의 수시 개최

314

2. 개최 현황

- 1992년
 - 북구 외상회의(1992.1.20.~21., 아이슬란드)
 - 북구 수상회의(1992.3.2.~3., 핀란드)
 - NORDIC Council 창설 40주년 기념총회(1992.3.3.~6., 핀란드)
 - 발틱해 10개국 외무장관회의(1992.3.5.~6., 덴마크)
 - 노르딕 외상회의(1992.5.4.~5., 핀란드)
 - 북구 5개국 수상회의(1992.8.17.~18., 덴마크)
- 1993년
 - 제42차 NORDIC Council(1993.3.1.~4., 노르웨이)
 - 북구 외상회의(1993.5.3.~4., 스웨덴)
 - 북구 수상회의(1993.5.25., 스웨덴)
 - 북구 각료회의(1993.11.8.~10., 스웨덴)

EU(유럽연합) 정상회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5 / 3 / 1-127

1.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1993.6.21.~22., 코펜하겐)

- 주요 결과
 - 실질적인 경기부양 및 실업대책 수립 기대
 - EC 확대, 회원국 주권의 존중, 공동외교안보 정책 추진, 유럽의회 권한 강화 등에 긍정적

2. EC 특별 정상회담(1993.10.29., 브뤼셀)

- 배경: EU(유럽연합) 창설조약의 1993.11.1.자 발효에 대비하여 소집
- 주요 결과
 - EU 창설조약 시행 확인: 통화통합, 공동외교안보 정책 등
 - EC 확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보스니아 문제 등 논의

3. EC 정상회담(1993.12.10.~11., 브뤼셀)

- 주요 결과
 - UR 협상 대책 및 경기회복 방안 협의
 - 정치·경제 통합 강화 논의: 공동외교안보 정책, 통화동맹, 내무사법 협력 등

GCC(걸프협력회의)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5 / 4 / 1-54



1991~93년 중 GCC(걸프협력회의) 기구의 주요 동향임.

1. 제13차 GCC 정상회담(1992.12.21.~23., UAE 아부다비)

- GCC 안보체제 구축 및 주변 정세에 대한 공동 입장을 천명하는 공동성명 채택
 - GCC 연합군의 확대 개편을 위한 지원 합의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추방 비난
 - 이란의 걸프 해상 3개섬 영유권 주장 포기 촉구
 - 이라크의 유엔 결의 완전 준수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 행사 촉구

316

2. 제14차 GCC 정상회담(1993.12.20.~22.,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참가자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국왕, UAE 대통령
- 토의 내용
 - 유가 안정을 위한 산유량 감산
 - Abu Musa 섬 등 이란·UAE 간 영유권 분쟁
 - GCC 집단안보체제 및 경제통합 문제
 - 이라크·쿠웨이트 분쟁 등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5 / 5 / 1-208

1993년 중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의 개최 등 관련 동향임.

1. OIC 개요

- 설립배경
 - 1969.9월 모로코에서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동 기구 설립 결정
- 조직
 - 1970.3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개최 제1차 외무장관회의에서 OIC 사무국 설치를 결의
- 목적
 - 회교권 유대강화
 - 회원국 간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타 분야 협력 및 국제기구 협력
 - 인종차별, 식민주의 철폐
 - '성지'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팔레스타인 민족 투쟁 지지 및 주권·영토 회복 원조

2. 제21차 OIC 외무장관 회의(1993.4.25.~29., 파키스탄 카라치)

- 카슈미르 사태와 보스니아 사태에 관한 결의문 채택

3. OIC 특별 외무장관 회의(1993.7.12.~13.,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3개 행동계획 채택
 - 보스니아 파견 유엔평화유지군 병력 지원
 - 평화협상의 성공을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추진
 - 보스니아 회교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물적 지원 제공 추진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및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5/6/1-213

1993년 중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동향임.

1. 제57차 OAU 각료회의(1993.2.15.~19., 아디스아바바)

- 재정 문제, 지역정세 등에 관한 결의사항 채택
- 앙골라, 라이베리아, 남아공 사태 등 역내정세와 경제협력 문제 논의

2. 제58차 OAU 각료회의(1993.6.21.~26., 카이로)

- 제30차 OAU 정상회의(1993.6월) 준비를 위한 외무장관회의
- 참가국: 11개국
- 주요 토의내용
 - 아프리카 분쟁 처리를 위한 신체제 설립
 - OAU 재정 문제
 - 경제통합 문제

3. 제29차 OAU 정상회의(1993.6.28.~30., 이집트 카이로)

- 참가자
 -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장), 동 기구 52개 회원국 원수 및 대표, 유엔 및 아랍연맹, 이슬람 회의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만델라 남아공 ANC(아프리카국민회의) 의장 및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 주요 의제
 - 대외채무, 경제개발, 아프리카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구 및 아프리카평화유지군 창설 문제 등
- 주요 결과
 - 에리트레아를 5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결정
 -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의장으로 선출
 - 카이로 선언 채택
- 카이로 선언 요지
 - OAU 테두리 내에서 역내 분쟁 방지와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에 원칙적 합의
 - 1991년 아부자 정상회의 시 서명된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설치조약의 발효 촉구
 -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G7 등 주요 채권국들과 아프리카 외채 삭감 문제를 협의할 권한을 일임
 - 유엔안보리에 대리비아 경제제재의 조속한 해제 건의



4. 제1차 아프리카 분쟁해결기구 각료회의(1993.11.17.~19., 아디스아바바)

- 개최 배경
 - 제29차 OAU 정상회의 시 채택된 '분쟁예방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선언'에 따라 동 기구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주요 협의 내용
 - 기금모금 방법, 아프리카 분쟁지역 정세 등
- 아래 요지의 성명 발표
 - OAU 평화기구 창설: OAU 정상예산(연 2천 8백만 달러)의 5%(최소 1백만 달러 이상)을 '평화기금'에 배당할 것을 각료위원회에 권고함.
 - OAU 사무국의 강화: 분쟁조정을 위한 OAU 사무국의 능력 제고(선거인단 및 데이터뱅크의 설치, 군사고문을 포함한 직원 증강)
 - 분쟁지역의 정세: 앙골라 정부에 대한 지지 재확인 등

5. OAU 분쟁해결기구 정상회담(1993.12.7., 카이로)

- 아프리카 분쟁해결을 위한 평화기금 설치, OAU 사무국 내 분쟁조정 전담기관 설치, 부룬디, 앙골라 등 회원국 분쟁 해결 방안 협의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EAC) 및 안보문제 상설자문회의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5/7/1-40

1990~93년 중 CEEAC(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상설안보협의체 개최 현황임.

1. 개요

- 창설 경위
 - 1992.5월 CEEAC 11개 회원국 발의로 유엔 후원하에 창설
- 회원국(11개국)
 - 가봉, 차드, 상투메프린시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르완다, 부룬디,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카메룬, 앙골라
- 목적
 - 중부아프리카 역내 군비통제 및 안보체제 구축

2. 제1차 회의(1992.7.27.~31., 카메룬)

- 회의 목적 및 계획에 관한 원칙 합의
- 의장국으로 카메룬, 제1, 2부의장국으로 가봉, 부룬디 선출

3. 제2차 회의(1993.8.30.~9.3., 가봉)

- 18개월 내 국제 군축조약 가입 촉구
- 협상과 대화를 통한 민주화 추진 지지
- 군축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에 관해 유엔에서 검토하도록 의뢰
- 역내 평화군 창설을 위한 합동참모 본부 설치 지속 검토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사업. 전2권 (V.1 1989-91)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동북아2과 /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15 / 8 / 1-174

1989~91년 중 작성된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사업 관련 문서임.

1. 상하이 임시정부 구청사가 상하이시 도시계획에 따라 조만간 철거 예정이라는 1989.3.20.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라 외무부와 주홍콩총영사관은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 등 유적지 보존대책 마련에 착수

● 추진방향

- 1단계: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의 수집 및 검토
- 2단계: 관계부처 대책회의 소집
 - 대중국 협조 요청방안
- 3단계: 관·민 합동조사단 파견(필요시)

2. 대학생 공산권 연수 사전답사를 위한 중국 출장(1989.5.5.~15.)

- 출장자: 황정일 외무부 동북아2과 사무관
- 출장 지역: 상하이 시내 독립운동 유적지 및 연변조선족 자치주 방문 중심
- 건의사항
 - 초기 임시정부 청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자주 이사를 한 까닭에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바, 국내 관련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독립운동 유적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조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 문제에 관해서는 상하이시 정부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의 한·중 관계에 비추어 공식적인 교섭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민간단체를 통해 중국 학술 기관과의 협조하에 상하이시 정부 측과 교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관계부처 대책회의(1989.8.8.)

- 참가자: 외무부, 문공부, 문교부, 독립기념관 등 실무관계자 및 전문연구 교수 등
- 사업대상: 임시정부 청사 복원 및 이전사업, 독립운동 지사 묘지 정비 사업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사업. 전2권 (V.2 1992-93)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동북아2과 /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15 / 9 / 1-126

1992.2.19.~93.11.25. 작성된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사업 관련 문서임.

1.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전시 및 개관행사 협의 회의(1993.2.4.)

- 참가자: 문화부, 외무부, 독립기념관, 삼성물산 관계자
- 임시정부 청사 복원공사는 삼성물산 출연금(30만 달러)으로 전체 공정의 80% 진척
- 전시계획: 독립기념관이 사진, 액자 등 전시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측이 가구를 제공하기로 합의

322

2. 임시정부 청사 복원 기념식(1993.4.13.)

- 주관
 - 한국 측: 삼성물산(주), 독립기념관
- 참가자
 - 정부인사 6명
 - 민간인사 40여 명
- 양측 입장 요지
 - 중국 측: 한국측 요청에 따라 임시정부 청사의 역사성, 상징성을 인정하여 1992.3.19.자로 이를 시급 문화재로 지정, 재개발 예정지인 임시정부 청사 보존 결정에 따라 청사의 보수 복원 소요경비 2백만 달러가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임.
 - 한국 측: 해외소재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소요경비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한·중 양측 민간의 공동모금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 혹은 전부 복원 여부 결정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 요망

한·일본 역사교과서 공동연구회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16 / 6 / 1-164

1991~93년 중 한·일본 역사교과서 공동연구회 관련 신문기사 자료가 수록됨.

1. 조선일보(1991.3.5.자)

- 한국·일본 역사학자 간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제학술모임(1991.3.27.~28.) 개최에 관한 내용

2. 일본 신문(1991.3.7.자)

3. 일본 신문(1991.3.29.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1 1992.1월-10.10.)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6 / 8 / 1-251

1992년 중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1983년) 관련한 진상규명 동향 및 추진, 블랙박스 등 러시아 측이 보유한 자료 제공 내용임.

1. 한·러시아 수교 이후 KAL기 사건 진상규명 움직임

- 정부는 러시아와 수교 이후 KAL기 사건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1990.12월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시 공식 거론, 이후 계기마다 진상규명 지속을 요구함.
 - 1992.3월 한·러 외무장관회담 시 KAL기 블랙박스의 러시아 군 기관 보관설 등 당시 이즈베스티야지의 보도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러시아 측은 사실이 아니지만 재확인 노력을 언급함.
 - KAL기 격추 진상 관련하여 전문가 견해를 포함한 취재가 국제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진상규명 분위기가 고조됨.
- 한국 측은 각종 계기마다 러시아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동 사건의 실질적 해결이 양국관계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함.
 - 6.17. 열친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KGB, 소련 공산당 중앙위 문서 등 기밀문서 공개 등 KAL기 사건 전모 공개 약속 관련하여 직접 당사국인 한국에 대해 우선 공개하도록 요구
 - 8.5.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은 주러시아대사에게 갖가지 추측에 종지부를 찍길 원하며, 동년 예정된 열친 대통령 방한 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언급

2. 열친 대통령의 방한 관련 KAL기 사건 자료 제공 추진

- 1992.9.10. 열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화, 자신의 방한에 앞서 KAL기 블랙박스 내용을 포함한 동 사건의 관계자료 공개 의사를 피력함.
 - 러시아 측은 블랙박스 회수 및 보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KAL기 진상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여 방한효과 극대화 및 당시 러시아의 외교적 신뢰 회복 기도로 평가
- 러시아 측은 동 자료 인수를 위한 한국 측 특사파견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러시아 측 자료 전달은 진상규명 및 사과의 성격도 있는 만큼 국내여론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 측의 특사 파견을 요청
- 11월 열친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자료의 내용을 사전 파악하여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교통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자료 인수
 - 자료 인수 즉시 교통부 및 KAL에 의한 동 자료 해독 및 파악 착수
 - 자료 인도일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미국 측에도 자료 제공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2 1992.10.11.-11.19.)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6 / 9 / 1-227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던 KAL기 격추 자료 관련하여 1차적으로 1992.10.14.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대표단에 전달하고 이후 블랙박스를 포함한 잔여자료는 11.19. 옐친 대통령 방한 시 한국 측에 교부함.

1. 러시아 측의 1차 자료 전달

- 1992.10.14. 크레믈린 궁에서 옐친 대통령이 KAL기 사건 관련 자료를 한국 대통령 앞 친서와 함께 한국대표단에 전달
 - 친서에서 사건 진상규명 및 인도주의적 고려에 입각하여 자료 전달 결정 설명
 - 자료는 블랙박스 자체와 아닌 승무원 간 대화내용 등 해독자료 및 항적도 등
- 한국대표단은 블랙박스 자체와 유해·유품 등 발견 시 인도해줄 것을 요청
- 한국과 미국에는 직접 전달하였으나, 주요 피해국 중의 하나인 일본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 전달
 - 일본 측은 러시아 측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것이라고 판단(당시 옐친의 방일 연기 상황)

2. 상기 자료 분석 및 대응

- 한국 교통부 등에서 자료 분석 결과, 기존 ICAO 조사와 항적 등에서 일치하는 등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
 - 다만, KAL기 내부 녹음 및 교신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피격 당시 항로 이탈 등 상황 자료가 없음에 따라 소련 측이 주장한 첩보 비행설, 소련기의 경고신호 등 근거 미발견
- 한국 측은 항로 이탈 원인 등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자체 및 비행기록(FDR) 등 잔여 자료 제공을 지속 요청

3. 옐친 대통령 방한 시 블랙박스 전달

- 한국 측의 추가 자료 요청에 따라 옐친 대통령은 1992.10.30.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비행기록 테이프 제공 의사를 표명
 - 한국 측은 블랙박스 등 자료를 일차적 당사자인 한국 측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
 - 미국은 ICAO 등 중립적 기관에 제공 희망
- 11.19. 옐친 대통령 방한 시 블랙박스(2개)를 한국 측에 전달
 - 한국 측의 일차적 검토를 거쳐 ICAO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3 1992.11.20.-12.13.)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6 / 10 / 1-22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의 재조사 추진 관련, 1992.12월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내용임.

1. 한·러시아 정상회담 시 전달된 블랙박스의 자료 누락 문제

- 1992.11.19. 열린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블랙박스 내용물 중 비행경로기록(FDR)이 누락되고 조종석음성녹음(CVR)도 원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러시아 측의 해명을 요청
- 12.1. 주러시아대사의 크레믈린 행정실장 면담 시, 러시아 측은 블랙박스 인도 당시 사전 명세서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KAL기 사건 규명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및 러시아 및 ICAO로 구성되는 국제위원회 회의를 1992.12.8.~10. 모스크바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한국 측은 CVR 원본과 함께 FDR을 한국 측에 넘겨줄 것과 동 자료 인수 후 공동조사를 위해 동 국제위원회 측에 인도할 것이라고 제의한바, 러시아 측은 공동조사를 위해 동 자료를 한국 측에 인도하기 어렵다고 답변

2.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추진

- 러시아 외무부는 1992.12.2.자 성명을 통해 ICAO 주관하에 사건 관계국들이 국제전문가회의를 구성, 독립적으로 KAL기 사건관계 조사를 추진 발표
- 상기 러시아 측의 다자 간 국제위원회 개최 제의와 관련,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FDR 등 블랙박스 본체를 한국 측에 인도하여야 하며, 1983년 당시 ICAO 조사가 미결인 점을 감안, ICAO가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미국 및 일본과 조율을 거쳐 모스크바에서 4개국 대표 및 ICAO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합의
 - ICAO의 경우, 이미 1984년 조사가 완결된 관계로 재조사에 소극적, 동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

3.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결과

- 1992.12.8. 모스크바에서 한국을 포함, 러시아, 미국, 일본 및 ICAO 대표가 향후 규명 방안에 협의한 결과, ICAO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4개국의 공동성명 발표
 - 블랙박스 내용물의 경우 러시아가 ICAO 조사개시 시 ICAO에 인도하고 조사 종료 후 한국에 반환 결정
- 이에 한국 포함 4개국은 ICAO에 조사 재개를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4 1992.12.14.-31.)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6 / 11 / 1-16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재조사를 위한 ICAO 차원의 결정 및 조사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임.

1. ICAO의 KAL기 격추사건 조사 재개 결정

- 1992.12월 모스크바 개최 국제전문가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 미국, 러시아 및 일본의 요청으로 ICAO 이사회 안건으로 동 재조사 추진 회부
- ICAO 이사회(1992.12.18., 캐나다 몬트리올) 개최
 - 참석한 28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ICAO가 KAL기 사건조사를 재개한다는 결의를 채택
 - 관련국에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비행경로기록(FDR) 및 조종석음성녹음기록(CVR) 등 관련 자료 해독 등 필요조사 긴급 실시
 - 조사재개에 따른 경비 문제는 추후 ICAO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 조사방식은 ICAO에 의한 독립적 조사이며, 한국, 미국, 러시아 및 일본은 이에 협력하되, 조사 참여는 ICAO와 러시아 간 협의 등에 의해 옵서버 방식으로 함.

2. ICAO 측의 조사재개 계획 및 추진

- 상기 ICAO 이사회 결의에 따라 ICAO 사무국은 조사단(단장: 핀란드인 C. E. Frostell)을 구성하고 조사 계획 작성
 - 조사재개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는 FDR 해독 등 지원 제공 용의 표명, 이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프랑스 파리 소재 ICAO 사무소로 FDR 인수를 추진
 - 동 조사단은 한국 포함 4개국 순방, 면담 등 조사 수행
 - 미국 시애틀에서 최종 비행 시뮬레이션 실시 및 몬트리올에서 평가
- 동 조사재개에 따라 1993.1.8.~11.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상기 자료 원본 인수 및 해독 작업 시행 추진

3. KAL기 사건 관련 제2차 모스크바 회의 추진

- 외무부는 제1차 모스크바 회의 시 결의한 대로 1993.1월에 개최할 제2차 회의에 유족 대표도 초청해 관련 문제를 토의하기로 한 바에 따라, 1992.12.17. 주미국 및 주일본대사관에 구체적인 회의시기, 방법, 대표단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지시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5 1993.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6 / 12 / 1-199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1993년 블랙박스 자료 등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재조사 시행에 관한 내용임.

1. 블랙박스 원본 인도 및 해독

- 1992.12월 모스크바 국제전문가회의 및 ICAO의 조사 재개 결정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1993.1.8.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경로기록(FDR) 및 조종석음성녹음기록(CVR) 원본을 ICAO 측에 인도
 - 이를 위해 ICAO와 러시아 간에 자료인도협정 체결 및 조사종료 후 동 자료 한국반환 규정
- 1993.1.11.~21. 프랑스 사고조사국에서 동 자료 해독 작업 실시
 - 한국 정부는 주프랑스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참관단 파견
 - 밀봉된 작업실에서 세척 및 복사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해독 실시

2. ICAO 조사 관련 비용 부담 문제

- 1993.1.19. 개최 ICAO 재정위원회에서 총액 14만 7천 달러의 조사비용 조달 협의
 -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조사로 유발되는 비용은 사건 관계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주장
 - 미국은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러시아는 조사단의 자국 방문 비용 이외 기여금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한국 측은 조사비용 부담을 확약

3. ICAO 조사단 방한(1993.2.3.~7.)

- C. E. Frostell 단장 등 4명의 조사단이 방한하여, 교통부, 대한항공 등 유관기관 인사들과 면담 조사를 실시, 추가 자료 제공을 요청

4. 유족대표 참여 제2차 모스크바 회의 개최 문제

- 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을 둘러싸고 4개국 간 협의 결과, 1993.3.10.~11. 개최 결정
 - 4개국 정부 간 회의(1993.3.10.), 유족회의(1993.3.11.) 개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6 1993.3월-5.19.)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7 / 1 / 1-272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1993년 제2차 모스크바 회의 및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재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임.

1. 제2차 모스크바 회의(1993.3.10.~11.)

- 정부 간 회의(3.10.)
 - 한국, 미국, 러시아 및 일본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KAL기 사건 관련 주로 인도주의적 내용을 토의하고, 배상문제 제기
 - 유해, 유품 회수 문제 등 주로 토의
 - 한국 등 배상문제 제기예 대해 러시아 측은 ICAO 사고조사 종결 후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배상문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유족 참가 회의(3.11.)
 - 유족대표들이 참석하여 격추 및 잔해 수거에 관련된 당시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응답 실시

2. ICAO의 KAL기 모의실험비행 추진 결과

- 프랑스 측의 블랙박스 원본자료 재생 및 해독작업 결과에 의거하여 시애틀 보잉사에서 1993.3.16.~18. 일정으로 모의실험비행 추진
- 비행경로기록(FDR) 해독 결과 사고기는 앵커리지 이륙 직후 관성항법장치(INS)를 사용하지 않고 자성항법장치로 일체의 방향수정 없이 245도 각도로 사고지점까지 비행한 것으로 추정
 - 이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200km 차이가 나는 문제가 러시아 측에 의해 제기되고, 러시아 측은 247도의 방위각으로 입력해야 한다고 주장, 모의실험비행 무산
- 한국 정부는 모의실험 실시는 진상규명에 긴요하다는 입장에 대한항공에 의한 모의실험을 대안으로 제시한바, ICAO 측은 6.1.~4. 대한항공의 시설을 이용한 모의실험에 동의

3. ICAO 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초안 협의 등

- KAL기 사건 최종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협의(1993.5.18.~19., 캐나다 몬트리올)
 - 대표단: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 등
 - 초안 주요 내용: 앵커리지 이륙 이후 자성항법장치로 방향수정 없이 계속 비행, 캄차카 반도 및 사할린 섬의 상공 및 인접 영공 침범, 승무원 부주의로 인한 항로 이탈, 소련 측은 민간기 요격에 관한 국제절차 준수 미이행 등
- 5월 한국 정부는 ICAO 재조사 관련 비용 15만 달러 중 5만 달러를 자발적으로 기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7 1993.5.20.-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7 / 2 / 1-238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1993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재조사 최종보고서 토의 및 조사보고서 발표에 관한 내용임.

1. ICAO의 사건조사 최종보고서 초안 토의(1993.5.18.~19., 캐나다 몬트리올)

- 참가자: 한국, 러시아, 미국 및 일본 대표
- KAL기의 항로이탈이 의도적이 아님을 확인, 첩보비행설 부인
- 1983년 ICAO 조사보고서에서 소련 측이 ICAO 규정에 따른 요격절차 미이행의 가능성만 제시한 데 비해, 동 조사보고서는 미이행을 확인
- 정확한 격추지점 규명 문제 제기
 - ICAO 조사단의 초안은 격추지점을 명시하지 않음.
- 국내 인천 소재 KAL 시설에서 모의실험비행 실시 추진

2. 모의실험비행 실시

- 항적 및 격추지점의 확인 및 항로이탈 원인 규명을 위한 관찰과 실험
- 항로이탈 원인 규명은 어려우나, 조종사의 항로이탈 사실 불인지 및 소련 영공 침범에 고의성 없음.

3. ICAO 보고서 채택

- 1993.6.14. ICAO 이사회가 사건 재조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사건 진상규명 노력은 공식적으로 종결
- 항로이탈 원인을 적절한 관성항법장치(INS) 사용절차 미이행 및 고정나침방위 비행으로 단정
- 소련의 격추 전 요격절차 미이행 확인
- 외무부 대변인은 ICAO 및 사건관계국 협조 평가, 유족의 인도적 문제, 보상문제 조기해결 노력 언급

4. KAL기 블랙박스 내용물 원본 인수

- 1993.7.8. ICAO 측은 주몬트리올총영사를 통해 비행정보기록(FDR) 및 조종석 음성녹음기록(CVR) 원본을 한국 측에 전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8 대러시아 배상청구 문제 I)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7 / 3 / 1-185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1992~93년 중 희생자 유족회의 활동과 배상 문제 등에 관한 내용임.

1. 희생자 유족회 활동

- 1992.7월 열린 러시아 대통령 앞 서한 송부
 - 블랙박스 공개 등 진상규명, 유해와 유품 반환, 공식 사죄와 배상, 희생자 추모 등 요구
- KAL기 사건 9주년 계기 성명서 발표(9.2.)
- 한국 정부에 대해 사건 해결 전까지 대러시아 경험 중단 요구
- 9.7. 노태우 대통령에게 희생자 가족 공동서한 발송, 해결 촉구
 - 외무부 동구1과장 명의의 화신 발송,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블랙박스 음성기록, 비행항로 기록 해독자료 등 전달
- 11.19. 국회에 청원 제출
 - 외무부는 답변 제출
- 미국 유족회와 협의, 1993.3.12. 한국과 미국 유족회 명의의 공동입장문 작성, 러시아에 전달
- 6.5. 김영삼 대통령 앞 유족회 청원 제기, 유해 및 유품 발견 및 반환 관련 협조 요청
 - 교통부는 KAL로 하여금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 예정 화신

2. 대러시아 배상 청구 추진 문제

- 1993.6.14. ICAO의 KAL기 격추 사건 최종보고서에서 소련의 동 격추가 국제법상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을 근거로 대러시아 배상청구를 위한 내부 검토
 - 동 사건으로 인한 한국 국민 및 대한항공의 피해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 배상청구를 추진하며, 이 문제를 러시아 측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구체적 액수는 유족회와 대한항공 등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9 대러시아 배상청구 문제 II)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7 / 4 / 1-166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1993년 대러시아 배상 청구 및 사건 10주기 추도행사 관련 내용임.

1. 대러시아 배상청구

- 외무부는 1993.6.29. 교통부 및 대한항공과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구소련의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정부에 배상청구를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이어 KAL기 유족회와도 7.5. 협의
- 배상청구의 기본방향
 - 인도주의 원칙 위반, 무력사용 제한 원칙, 과잉방위 금지, 항공기 구호의무 위반, 시카고협약상 민간항공기 보호 및 요격절차 위반 등 구소련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승계국인 러시아가 배상의무
 - 한·러시아 간 양자협의를 통해 구체적 배상액 산정 제기 및 배상 청구
- 8.10. 동 배상청구 추진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결재 및 1993.8.19. 김석규 주러시아대사가 외교 공한으로 러시아 외무성 아태총국장에게 배상청구 공식 제기
- 8.30. KAL기 사건 조사 국가위원회(위원장: 필라토프 러시아 대통령실 행정실장)의 조사결과 발표, 9.3. 카라신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
 - 비극은 KAL기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며 당시 격추는 적법한 것이라는 논지로 배상책임 부인

2. KAL기 격추 사고 10주기 추도행사 개최

- 1993.9.1. 사할린 현지 및 국내에서 KAL기 피격 10주기 추모제 거행
 - 국내 추모제는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개최
- 사할린 현지 추모제
 - 한국 측을 대표하여 주러시아대사와 유족대표 6명, 러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스테파노프 대통령 행정실장 보좌관, 사할린 주지사, 네벨스크 시장, 일본 유족대표 등 참석
- 러시아 정부 및 유족대표 추모사, 추모판 제막, KAL기 잔해 및 희생자 유품 최초 공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983년) 재조사. 전12권 (V.10 ICAO 이사회(제139차) 문서(조사보고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7 / 5 / 1-300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재조사 보고서 요약과 참고자료임.

1. 항로이탈 원인

- KAL 007기는 앵커리지 공항 이륙 후 나침방위 245도로 피격 시까지 계속 비행
- 고정나침방위 비행으로 항로를 이탈하게 된 것은 비행승무원들이 자동조정장치가 나침방위비행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등에서 기인
- 승무원들이 항법장치 선택 과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한 표시 때문일 가능성 있음.

2. 피격 상황

- 소련 측은 KAL기를 미국의 첩보기로 오인한 나머지 민간기에 대한 철저한 식별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특히 민간기 요격에 관한 ICAO의 표준요격절차 및 권고방식을 미준수
- 소련의 비행금지공역을 허가 없이 침범 비행하는 항공기는 사전 경고 없이 격추할 수 있다는 비행정보를 승무원이 취득 불가

3. ICAO 조사경위 및 평가

- 사건 이후 ICAO에서 직접조사를 수행하여 1983.12.2. ICAO 제110차 이사회에서 1차 조사 보고서 채택 및 발표
- 1992.12월 러시아 정부의 블랙박스 원본 제공의사 표명에 따라, 한국, 러시아, 미국 및 일본 4개국의 재조사 요청으로 ICAO 조사팀(Frostell 단장 등 5명)이 구성되어 최종보고서 채택
- 동 조사는 그 동안 의도적인 소련영공 침범 첩보비행설 등 루머를 일축하고, 동 KAL기의 항로이탈 영공침범 비행에 대해 소련당국이 군용기로 오인해 충분한 식별노력 없이 격추한 냉전시대의 불행 한 비극이라고 판단

4. 앵커리지 및 도쿄의 무선통신기록, 사할린 소재 소련 방공사령부 통신기록 등 참고자료가 수록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1983년) 재조사. 전12권 (V.11 참고자료 I)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7 / 6 / 1-243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재조사를 위해 제출된 각종 관련 자료임.

1. ICAO 제출 자료

- 대한항공 및 교통부가 제출한 자료
 - KAL 007기 항로이탈 추정 시나리오
 - 조종석음성녹음기록(CVR)/DFDR 확인 및 개조
 - 타이항공의 항로이탈 사례
 - KAL 007기 비행계획서상의 수기 기록 등

2. 항로이탈 원인 검토

- 동 기의 피격까지 나침방위 245도 유지 관련 원인 추정 가능
 - 관성항법장치(INS) 결함, 관성항법장치 미가동에 의한 나침방위방식 비행 등 검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1983년) 재조사. 전12권 (V.12 참고자료 II)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7 / 7 / 1-162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세미나, 논문, 언론보도 등 자료임.

1. 논문

- B. Craiger가 작성한 Destruction of Korean Air Lines Boeing 747 Flight KE007 over Sea of Japan, 31 August 1983, Recovery and Analysis of Information from the Flight Recorder and Ground Tapes(1993.5.17.)
- 항공법 권위자이며 전직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국장인 Michael Milde 캐나다 맥길대학교 교수의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Law and Practice(KE007-Ten Years Later) 제하의 논문
 - 민간기 요격에 관한 ICAO 표준 및 권고방식 미 이행에 대한 법적 평가 등 ICAO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법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 지적

2. 기타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 ICAO의 최종보고서에서 대한항공(조종사)의 과실 및 소련 당국 여객기 식별 및 요격 절차 무시로 판명한 내용 관련 보도

월남전 실종자 관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7/8/1-62

1992~93년 중 월남전 실종자 관련 문서임.

1. 실종자 문제 제기

- 1992.2.29.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소재 월남참전용사 단체인 타이한 클럽이 미국 재향군인회 회장으로부터 월남전 실종 한국병사 수명의 월남 생존 사실을 통보받은바,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상세 파악 지시
 - 3.3. 주미국대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동 병사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며 단지 실종자 명단을 생존자 명단으로 국내여론 환기 목적으로 과장
- 3.9. 국방부는 동 보도에 의거해 외무부 등에 월남전 실종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등 확인 요청
- 12.24. 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해 월남 파견 기술인력 피랍 및 실종 관련 생존 여부 확인 요청 민원 접수

2. 베트남 측에 협조 요청

- 주베트남대사관 측은 1993.4.8.~10. 호치민지역 순회영사 계기에 호치민시 국제협력부에 동 실종자 생존 여부 확인 협조를 요청한바, 추후 베트남 측은 실종자에 대해서 구체적 수색결과가 없는 상태라고 답변
- 6.14. 외무부는 한·베트남 수교 이후 과거 월남전 참전 한국군 포로 및 행불자 문제에 관해 베트남 측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향후 대응방향 수립을 위해 국방부 측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및 입장 문의
 - 6.22. 국방부 측은 실종자 8명의 명단과 함께 생존사실이 확인되면 귀국 조치 요망 의견 송부

3. 월남전 미군포로 북한 억류 문제

- 1992.3.9. 미국 워싱턴타임스가 월남전 미군포로의 북한 억류를 보도함에 따라 주미국대사관 측에서 미국 의회 Robert Smith 상원의원을 접촉 파악한 결과, 이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부재하며, 1980년 북한 귀순장병으로부터 그러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한국 측의 확인 요청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후유증 대책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17/9/1-217

1991~93년 중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agent orange) 후유증 문제 제기 및 처리 관련 내용임.

1. 고엽제보상기금 수혜 문제

- 1991.6.25. 재호주 한인월남참전협회는 대통령비서실 및 주시드니총영사관을 통해 미국 당국으로부터 고엽제보상기금(Orange Fund) 수혜 획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
 - 미국의 고엽제보상기금 조성 경위: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1978~79년경부터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고엽제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각종 질환을 주장하는 20만 명 이상의 월남 참전자가 Dow Chemical 등 7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뉴욕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제조회사 측은 피해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소송 집행경비 절감 및 기업 이미지의 손상을 우려, 보상에 합의함으로써 1984.5월 소송이 종결됨.
- 상기 건 관련, 외무부의 처리 요청에 대해 국방부 측은 10.17.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등 조치
- 1992.2월 피해자 단체로서 대한해외참전전우회는 환자를 파악, 고엽제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 추진

2. 정부 대책

- 관계기관 대책회의(1992.3.19.)
 - 목적: 월남 참전자 고엽제 중독 후유증 표출에 따른 문제점 검토
 - 참가자: 외무부, 국방부, 보훈처, 기무사, 재향군인회 관계관, 청와대 국방비서관(주재)
 - 결과
 - 보훈처 주관 하에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분담 배정
 - 대미 손해배상소송 등은 피해 당사자 및 파월 친목단체에서 제기하도록 유도(대한해외참전전우회와 대한파월유공전우회 2개 단체 간의 사전협조로 대미 소송 창구 일원화)
 - 고엽제 피해자의 보훈병원 치료 등 지원 대책 추진
- 관계기관 대책회의(1992.9.19.)
 - 목적: 월남 참전자 고엽제 후유증 대책 검토
 - 결과
 - 종합적 대책 수립 및 집행부서 불명확
 - 난립하는 민간단체 등 문제점, 추가 제기 가능한 보상 요구 및 대책 등 협의
 - 후속조치
 - 한국의 경우 고엽제 피해에 관한 연구가 없으므로 우선 연구 실시 필요
 - 1400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적격 보상대상자 270명을 보훈처에 등록
 - 미국 내 민사소송 제기 시 측면지원 사항 검토

대미국 주요인사 친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17 / 10 / 1-50

338

1. 부시 미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보낸 감사 서한 사본(1992.11.30./12.8.)
 - 부시 대통령 모친상에 즈음하여 보낸 노 대통령의 위로 서한 및 조화에 대한 감사
2. 부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보낸 유엔의 소말리아 인도적 지원 작전 지지를 요청하는 친서(무서명)(1992.12.22.)
3. 노태우 대통령의 1993.1.20.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 스코우크로프트 안보보좌관에 대한 감사 편지 사본(원문 및 영문)
 - 부시 대통령의 감사 서한 사본
4.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시기에 클린턴 대통령, 레이건 전 대통령, 닉슨 전 대통령, 솔츠 전 국무장관, 피터 칸 월스트리트저널 회장, 리처드 알렌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앞으로 보낸 감사 서한 (1993.2.22.)
5. 퇴임하는 Lawrence S. Eagleburger 미 국무장관의 이상옥 외무부장관 앞 감사 서한(1993.1.19.)
6. 기타 미국 인사가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

한·미국 간 대통령 서한 교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17 / 11 / 1-192

1993년 중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간 서신 교환 등 관련 내용임.

1.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간 서신 교환

- 1993.2.21. 클린턴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 전달
 - 한·미국 간 긴밀한 유대 강조 및 더욱 강력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협력 기대
- 1993.3월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앞 답신, 해밀턴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 길만 하원의원, 카터 및 레이건 전 대통령 앞 서한 발송
- 1993.3.22.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클린턴 대통령 앞 서한 발송
 - 북한에 대한 규탄,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대한민국 방위공약 과시, 한국 정부의 비핵화 공약 등 언급
- 1993.8.27. 클린턴 대통령 방한에 대한 감사 서한 및 광복절 축전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 답신 발송
 - 동년 9월 초 갈루치 차관보 파한 및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평가 및 시애틀 APEC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신태평양공동체 형성 기대 언급
- 1993.10.8. 김영삼 대통령의 클린턴 대통령 앞 서한 발송
 - 미국 측의 소말리아에 대한 한국군 전투부대 증파 요청에 대해 국회 동의 필요 등 사유로 완곡히 거절

2. 김영삼 대통령과 기타 미국 인사들 간 서신 교환

- 1993.3.1. 카터 전 대통령, 김 대통령 앞 서한 송부
 - 동인의 남북한 방문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자신은 남북한의 직접대화를 지지한다고 언급
- 1993.3.1. 솔라즈 의원, 김 대통령 앞 서한 송부
 - 자신이 클린턴 대통령의 도쿄 G-7 정상회의 계기 방한할 것을 건의하였음을 전달
- 김 대통령, 1993.4.15. 동포 소녀 Julie Lee 앞 친서 송부
 - 이 양의 L.A. 타임스 게재 '나도 너처럼 멀리서 온 아이지'를 읽은 소감 전달
- 1993.6.13. 김 대통령, Kim Campbell 신임 캐나다 총리에 대한 축전 송부
- 1993.6.23.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부인 사망에 대한 김 대통령의 조전 송부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Seattle, 1993.11.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17 / 12 / 1-140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1993.11.19. 시애틀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개최됨.

1. 개최 필요성(1993.10.5.)

- 캐나다의 경제적 중요성
- 양국 간 실질관계의 중요성
- 캐나다의 외교전략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
- 태평양협력체 건설에 있어 한·캐나다 간 협력의 중요성

340

2. 주요 내용

- 양국관계 일반
 - 양국 간 제분야 협력관계 증진 희망
- 북한 핵 문제
 - 한국 측, 캐나다가 핵심우방국의 일원으로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준 데 대한 사의 표명 및 향후 계속 협조 당부
 - 캐나다 측, 핵 문제 관련 단호한 입장 견지 및 한국 측의 해결 노력 계속 지지 다짐. 향후 국제기구에서의 핵 문제 결의안 채택 등에 적극 참여 용의
- 경제·통상관계
 - 캐나다 측, 한국 시장의 추가 개방 등을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고, 기술훈련 분야 협력 확대 희망 표시
 - 한국 측, 무역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기조 설명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을 실무진에 지시할 것임을 언급
- APEC 정상회담
 - 한국 측, 금번 정상회담이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질서 형성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한·캐나다 간 긴밀 협조를 통한 성공적 개최 기여 기대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캐나다 측, NAFTA 체결은 한·캐나다 기존 협력관계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것임. 캐나다 의회 승인을 앞두고 보조금, 덤핑문제 등 관련 보완협정 추진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금년 말까지는 양해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 한국 측, NAFTA 이후 양국 간 교역 및 협력 증대 희망
- 상호 방문 초청
 - 캐나다 측, 한국 대통령의 가까운 장래 캐나다 방문 초청
 - 한국 측, 초청에 감사 및 캐나다 수상의 방한 초청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중국 정상회담. Seattle, 1993.11.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7 / 13 / 1-263

1.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중국 정상회담(1993.11.19., 시애틀) 개최

- 김영삼 대통령, Jiang Zemin 국가주석 회담 요지
 - 국가 경영과 국내 개혁정책(주로 반부패)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 한국 측이 자동차, 전자교환기, 항공기 분야 협력을 제의한 데 대해, 중국 측은 협력 분야를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정해 나갈 것을 희망
 - 한국 측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신념이며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
 - 중국 측은 김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하였으며, 김 대통령은 Jiang 주석의 1994년 중 방한을 초청

2. 정상회의 계기, 한·대만 고위급회담(1993.11.16.) 개최

- 김철수 상공부장관과 장빙쿤 대만 경제부장 간 회담 결과
 - 한국 측은 여러 현안(자동차 수출 재개, 과일 교역,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항공운항 재개, 공공입찰 제한 등) 해결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양측 간 대표부 설치 등 관계정상화 이전이라도 조속히 개최하자고 언급
 - 대만 측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양측 간 차관급 정도의 경제·통상관계 회의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반덤핑 조사와 관련 미국의 ITC(국제무역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소개하면서 보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추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8 / 4 / 1-87

1993년 중 시애틀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추진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993.11.18.~21. 시애틀 방문
- 인도네시아가 1993년 비동맹 의장국이며, 1994년 APEC 의장국이라는 위상 고려
 -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중요성 점중

342

2. 추진 경위

- 1993.10.14. 김영삼 대통령의 시애틀 방문 기간 중 인도네시아 측에 회담 개최 제안
- 1993.11.8.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11.20.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 의사 표명
 - 단,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숙소에서만 회담이 가능하다고 강조
- 1993.11.15. 한국 측은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기로 인도네시아 측에 통보
 - 직전 양국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숙소에서 개최되었으므로, 1993년 정상회의는 최소한 제3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계기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Bangkok, 1993.4.2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8/1/1-74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계기 1993.4.21. 방콕에서 개최된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회담 결과

- 중국 측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
-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1993.5월 하순 방한 시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
- 장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방한을 추진하되 구체적 방한 시기는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
- 북한 핵 문제 관련 한국 측은 평화적 해결 희망 및 중국의 역할 강조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착 및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희망 등 기존입장 천명
- 미·북한 간 접촉 관련 중국 측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중국이 미·북한 간 대화 권고 수준의 간접 역할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중개자 역할은 불가하다고 언급

2.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양국 간 입장차

- 한국 측은 유엔안보리의 1차 결의 채택의 중요성 강조
- 중국 측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입장 반복
 - 안보리 제재조치 시 중국의 어려운 입장 설명
 - 안보리 1차 결의 채택 이전 미·북한 간 대화 희망
- 한국 측이 제재조치 이전에 문제 해결을 희망한데 대해, 중국 측은 전기침 외교부장의 1993.5월 방한 시까지 긍정적 상황 전개 기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서명식 참석 계기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Paris, 1993.1.1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18 / 2 / 1-47

1.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식 계기, 한·중국 외무장관회담(1993.1.13., 파리) 개최

- 이상욱 외무부장관, 전기침 외교부장 회담 결과
 - 이 장관이 2.25.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한 데 대해, 전 부장은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관계가 김영삼 신임 대통령 정부하에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이 장관이 남북한 상호 핵사찰 문제와 관련, 진전이 없을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의 연내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5~6월경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상호 핵사찰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 부장은 남북대화가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한 것은 일단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 이 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CWC에 북한이 서명하기를 기대한 데 대해, 전 부장도 중국 역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2. 참고자료

- 한·중 외무장관회담 자료(1993.1월, 아주국)
- 한·중 외무장관회담록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서명식 참석 계기 한·독일 외무장관회담. Paris, 1993.1.13.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구주2과

MF번호 2023-18/3/1-85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식 참석 계기 1993.1.13.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독일
외무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3.1.13.~15. 파리에서 개최된 CWC 서명식에 양국 외무장관 참석 계기 외무장관회담 추진

2. 주요 의제

- 남북한 관계, 독일통일 관련사항, 군축문제, 양자관계 증진방안 등

3. 회담 결과

- 킨켈 독일 외상은 독일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1993.3.1.~3. 콜 수상의
방향이 양국관계 증진의 계기로 본다고 언급
 -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한국 정부로서는 콜 독일 수상의 방향이 독일 수상으로서 최초 방한인
만큼 큰 의의와 성공적 방한 기대를 표명
- CWC 서명식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 장관은 북한이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언급하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동 협약 조속 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독일을
위시한 다른 나라도 이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
 - 동 외상은 당연한 일로 본다고 언급
- 킨켈 외상은 1993.7월 G-7 정상회의에 수상을 수행해 참석하는 기회에 방한 고려 언급
 - 이 장관은 동 외상의 방한을 크게 환영 표명

4. 한·독일 외무장관회담 자료(외무부 구주국 작성)

- 군축문제, 독일통일 관련사항, 남북한 관계, 양자관계 등 의제 관련 발언 및 참고자료 수록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서명식 참석 계기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 Paris, 1993.1.13.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18/6/1-50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식 참석 계기 1993.1.13.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3.1.13.~15. 파리에서 개최된 CWC 서명식에 양국 외무장관 참석 계기 외무장관회담 추진

2. 주요 의제

- 북한 핵 문제
- 열린 러시아 대통령 방한 후속조치 점검

3. 회담 결과

- 코지레프 러시아 외상이 한국의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 축의를 표시한 데 대해,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도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러시아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이 장관은 북한이 CWC 서명식에 불참한 것을 지적하며,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조속한 서명을 촉구할 예정임을 언급
 - 코지레프 외상은 모든 나라가 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양국 외상이 모든 미서명국의 서명 촉구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 추진
- 구러시아공관 부지 문제 관련, 코지레프 외상이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열린 대통령 방한 시 합의한 대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다소 시간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자고 언급

4. 러시아 외무장관 면담자료 작성(외무부 구주국)

- 열린 대통령 방한 평가,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 대북 유출, 한국전 사료 인도, 구 러시아공관 부지 문제, 경험차관 재개, 러시아의 아·태지역 협력 과정 참여 등 의제별 발언 및 참고자료 수록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5.1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8/7/1-65

1993.5.17.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호주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3.1월 호주 측은 1987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된 양국 정책협의회가 상호 이해증진과 외교 정책 협력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옴에 따라 제5차 한·호주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1993.5.17. 서울 개최 확정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기복 외무부차관보
- 호주 측: Ric Smith 외무통상차관보

3. 주요 협의내용

- 북한 핵 문제
- 냉전종식 후 주변 국가의 외교 전략 등 국제정세
- 아태지역 협력
- Keating 호주 수상 방한 사전 협의
- 무역불균형 시정 등 양자관계

4. 회의 결과

- Keating 수상 방한 사전 협의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호주 측의 지지와 협조 확보
-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호주 측의 노력 다짐
- 아태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상호 협력 등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5.17.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8/8/1-119

1993.5.17.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호주 정책협의회 관련 자료 내용임.

1. 동 정책협의회 관련 외무부 내 외교정책기획실 등 관계국·실에 자료 및 발언요지 요청

- 북한 핵 문제, UR(우루과이라운드) 진행 전망, 한·호주 통상현안, 사증면제협정 체결 등 협의사항별 자료 작성 추진
- 호주 총독의 방한 제의 등 호주 측이 제기 가능한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348

2.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 교통부, 농림수산부 등 정부 부처 협의사항 관련 자료

- 무역역조 시정, 관세율 인하, 반덤핑 남발 자제 등 통상 현안
- 한·호주 항공협정상 이원권 설정을 통해 한국 국적기 뉴질랜드 취항 추진
- 소고기 시장 개방 관련 양자협상, 남태평양 참치보존협약 가입 문제 등

한·캐나다 고위정책협의회, 제7차. Ottawa, 1993.6.2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18/9/1-230

1993.6.24.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7차 한·캐나다 고위정책협의회 준비 관련 자료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캐나다 측: Balloch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2. 의제 합의 및 한국 입장 정립

- 국제 정세 및 한반도 정세 논의
- 지역안보와 국제 안보
 - 대량살상무기 및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 문제
 - 유엔에서의 양국 간 협력
- 지역 경제 협력
 - APEC(아태경제협력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동향
- 양자 간 협력
 - 캐나다산 소나무 수입관세 부과 문제, 이중과세방지협정 중 원천과세 문제
 - 한국 국민의 캐나다 이민 문제, 원자력 협력 문제 및 대전엑스포 협력

한·중국 정책기획협의회, 제1차. 서울, 1993.1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8 / 10 / 1-106

제1차 한·중국 정책기획협의회 회의가 1993.12.2.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한·중국 외무장관회담(1993.5월, 서울)에서 개최 결정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실장
- 중국 측: 배원영 외교부 정책연구실 주임(대사)

3. 의제

- 국제정세 개관: 국제안보, 국제경제
- 동북아시아 안보: 동북아 안보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 아태지역 안보·경제협력: 안보협력, 경제협력

4. 회의 결과(중국 측 언급 특기사항)

- 냉전 후 정세 요동의 이면에 패권주의가 있음.
- 북한 정세는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 핵 문제는 미국·북한 협상, 남북대화, 북한·IAEA(국제 원자력기구) 협상 등 3개 경로로 해결되어야 함.
- 미국이 외교 중심을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환영하며, 미국의 참여 없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은 생각하기 어려움. 안보협력 메커니즘에는 북한의 참가가 필수적이며, 한·미국·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중요함.

5. 평가(1993.12.3.)

- 중국 측은 아태지역, 동북아 안보 메커니즘 추진 시 역내 각국의 다양성 수용, 동북아지역의 특수성 감안(다른지역 모델의 기계적 원용 곤란), 주권국가만 참여(대만 배제), 점진적 추진, 평화 공존 5원칙(반패권, 강권주의 배척 등) 공동천명 필요, 북한의 참가 필수 등을 강조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3.3.1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18 / 11 / 1-130

1993.3.15.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노창희 외무부차관
- 프랑스 측: S. Boidevaix 외무차관

2. Boidevaix 차관의 주요 언급내용

- 북한 핵 문제
 - 프랑스는 북한의 전례 없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맹렬히 비난하고, 동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유엔안보리 등에서 한국 정부와 공동입장을 취할 것임.
- 한·프랑스 관계
 - 양국 간 지속적인 정례 정책협의를 희망
 -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기업 및 관계부처(외무부, 산업부, 과기처 등)와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 framework 마련 제의
 - 프랑스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우주, 항공 분야, 원자력에너지 분야 및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첨단기술 분야가 협력가능한 분야가 될 것이며, 기존 양국 간 과학기술협정을 보완하는 동 Framework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 시 서명될 수 있기를 희망, 이를 위해 프랑스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
 - 양국 간 교역증진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는 이미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며, 최근 한국산 컬러 TV, 라디오 및 카라디오 등에 대한 모든 잔존 수입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
 - 양국 간 문화협력증진 희망

3. 후속조치

- 잔존 수입규제 철폐
 -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의 특별관계를 고려하여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국별 쿼터 유지에 관한 EC 지침이 상금 폐지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 대한 잔존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함.
- 한·프랑스 과학기술협력 Framework 제정
 - 프랑스 정부는 미테랑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포괄적이면서도 의욕적인 양국 간 경제협력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상기 Framework 제정을 한국 측에 제의
 - 프랑스 측은 동 제의 관련 주체적인 복안은 갖고 있지 않으나 한국 측이 일단 호의적인 입장을 표시함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프랑스 측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할 예정

한·인도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93.6.28.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8 / 12 / 1-98

1993.6.28.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인도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차관
- 인도 측: Haidar 외무차관

2. 사전 준비

-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 주한 인도대사 면담(1992.12.4.)
 - 양국 관심사항 협의: 한·인도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대인도 투자증대,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 이정빈 주인도대사, 인도 외무차관(12.11.) 및 아시아태평양양국장(12.10.) 면담
 - Rao 인도 수상 방한 문제 및 정책협의회 등 협의

3. 회의 결과(주요 협의사항)

- Rao 수상 방한 문제
- 북한 핵 문제
- 인도의 대외정책
- 한국기업의 인도 경제개발계획 참여 확대 추진
- Haidar 차관의 외무부장관 예방
- 인도 국내정세 평가
- 인도의 대중국, 미국, 파키스탄 정책 파악
- 유엔안보리 개편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 SAARC 발전 전망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제1차. Jerusalem(이스라엘), 1993.11.1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18 / 13 / 1-154

1993.11.11.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이스라엘 측: Uri Savir 외무부 사무차관

2. 주요 결과

- 경제·문화·정치 분야 협력 증진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방안 협의
-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 공동협력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
- 이스라엘 측, 한국의 중동평화회담 적극 참여 및 한국기업의 중동 역내 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요청
- 한국 측, 가까운 장래에 텔아비브 주재 상주대사관 개설 계획을 통보
- 양국 간 문화협력협정 체결 추진 합의
-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 가능성 파악 및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 검토 합의
- 북한 핵 문제 및 북한의 대중동 대량살상무기 수출의 위험성에 관한 의견 교환
- 정책협의회 매년 정례 개최에 합의

3. 정책협의회 계기 Peres 이스라엘 외무장관 예방(1993.11.11.)

- Peres 장관,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조속한 이스라엘 방문을 기대
- 이스라엘 측은 북한의 대이란 및 시리아 미사일 수출이 이스라엘 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함.
 - 한국 측은 이스라엘 측 우려는 이해하나, 북한의 그릇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임을 강조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93.10.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8 / 15 / 1-47

1993.10.8.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뉴질랜드 측: Nottage 외무차관

2. 핵심 의제

- 북한 핵 문제
- 아·태 안보협력, 유엔에서의 협력
- 통상투자 확대, 문화협력 증진

3. 주요 결과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뉴질랜드의 지지와 협조 확보
- 한국의 유엔안보리 진출에 대한 뉴질랜드의 호의적 검토 약속
-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 양국의 역할 증대 및 상호 협력 추진
- 무역역조 시정 및 투자확대 노력

한·폴란드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93.12.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18 / 16 / 1-89

1993.12.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폴란드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낙한 외무부 구주국장
- 폴란드 측: Pomianowski 외무성 아주국장

2. 주요 협의내용

- 폴란드 측, 별도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설 제의
-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노력 다짐
-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996~97년) 진출에 대한 협조 요청
- 북한 핵 문제 관련 국제공조체제 유지 필요성 재확인
- 양국 간 경제공동위 조속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폴란드 측, 경험자금 공여조건 개선 및 기술협력 확대 희망
- 폴란드 측, 바르샤바에 한국문화원 개설 희망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8 / 17 / 1-163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임.

1. 참가자

- 공관장 79명(아주 18, 미주 20, 구주 20, 중동 11, 아프리카 10)

2. 주요 일정

- 4.9.(금): 국립묘지 참배, 개회식(청와대), 1차 전체회의(국내외 정세설명), 총리주최 오찬, 제2차 전체회의(정무), 장관 내외 주최 리셉션
- 4.10.(토): 제3차 전체회의(정무, 문화, 홍보 및 교민)
- 4.12.(월): 제4차 전체회의(경제, 통상), 제1차 지역회의
- 4.13.(화): 제2차 지역회의, 제1차 그룹별 회의(북한 핵 문제 그룹, 재외국민 문제 그룹, APEC (아태경제협력체), 환경문제 그룹), 제2차 그룹별 회의,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 4.14.(수): 제5차 전체회의(외무행정) 및 폐회식,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3. 주요 논의내용

- 1993년도 주요 정부시책 시달 및 외교정책 기조 토의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에 대한 대응 방안
 -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경제, 통상외교 강화 방안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2 행사준비 및 연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8 / 18 / 1-88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의 준비 중 행사 및 연회 관련 문서가 수록됨.

1. 회의 진행 순서 관련 문서
2. 행사별 회의장 배치도
3. 공관장회의 숙소 관련 문서
 - 숙소: 롯데호텔
4. 행사별 대표 공관장 선정 문서
5. 총리 주최 오찬 세부 진행 문서
6.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계획 문서
7.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리셉션 문서
8. 오만찬 시 건배사 문서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3 공관장 건의사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8 / 19 / 1-270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시 제기된 공관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결과 통보 관련 문서가 수록됨.

1. 외무부 각 지역국 부서에서 관할 공관의 건의를 취합한 문서
2. 공관장(37명)의 외무부장관 개별 면담 결과 문서
3. 재외공관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실국의 검토 요청 문서
4.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실국의 검토 결과 문서
 - 조치 및 조치 예정 사항으로 구분 검토
5. 공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공관에 종합 통보하는 문서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4 그룹별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8 / 20 / 1-166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의 관련 그룹별 회의에 대한 문서임.

1. 북한 핵 문제 그룹회의

- 일시: 1993.4.13. 15:00~17:00
- 참가자: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 주재 공관장

2. APEC(아태경제공동체) 그룹회의

- 일시: 1993.4.13. 13:30~15:00
- 참가자: 10개 APEC 회원국 소재 공관장

3. 환경문제 그룹회의

- 일시: 1993.4.13. 13:30~15:00
- 참가자: 주유엔, 제네바, 일본, 독일 등 17개국 공관장

4. 재외국민 문제 그룹회의

- 일시: 1993.4.13. 10:30~12:30
- 의제: 재외국민 보조금 개선 방안, 재외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93-0317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5 자료 - 아주지역 I)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1 / 1-219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아주지역 회의 관련 자료 제출 공관임.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주몽골대사관, 주네팔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파키스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피지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브루나이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6 자료 - 아주지역 I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2 / 1-225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아주지역 회의 관련 자료 제출 공관임.

-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네팔대사관, 주홍콩총영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일본대사관

93-0319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7 자료 - 미주지역 I)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3 / 1-239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미주지역 회의 관련 자료 제출 공관임.

- 주멕시코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페루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자메이카대사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미국대사관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8 자료 - 미주지역 I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4 / 1-186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미주지역 회의 관련 자료 제출 공관임.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수리남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주자메이카대사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에콰도르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볼리비아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엘살바도르대사관
- 정무관계 토의 결과 문서
 - 국가위상 제고, 대북정책, 지역안보대화, 통일 접근 방법,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문제 등

93-0321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9 자료 - 구주지역 I)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5 / 1-230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구주지역 회의 관련 자료 제출 공관임.

- 주폴란드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체코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불가리아대사관, 주교황청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아일랜드대사관, 주그리스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루마니아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제네바대표부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0 자료 - 구주지역 I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6/1-197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구주지역 회의 자료 관련 내용임.

1. 자료 제출 공관

- 주스위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헝가리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루마니아대사관, 주그리스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2. 주EC(구주공동체)대사의 발표 자료

- 주제: EC 경제 통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구주지역 회의 자료(구주국)

- 의제: 대EC 협력증진 방안, CIS(독립국가연합), 유고 사태 평가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1 자료 - 중동·아프리카지역 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7 / 1-189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중동·아프리카지역 회의 자료 관련 내용임.

1. 자료 제출 공관

- 주알제리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예멘대사관, 주수단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주나미비아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가봉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가나대사관

366

2. 회의 자료(중동아프리카국)

- 중동진출 재도약 방안, 실리외교로의 전환과 아프리카에서의 대응 방안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2 자료 - 중동·아프리카지역 I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8 / 1-240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중동·아프리카지역 회의 관련 자료
제출 공관임.

-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요르단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가나대사관, 주바레인
대사관, 주오만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파키스탄대사관, 주이라크대사관, 주레바논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카타르대사관,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나미비아
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예멘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3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9 / 1-106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준비자료 중 대통령 만찬사 등에 관한 내용임.

1. 대통령 주최 만찬(1993.4.13.) 시 칵테일 장에서의 환담자료

- 환담대상 공관장: 주이란, 케냐, 미국, 유엔, 일본대사 등 23명

2. 4.9. 재외공관장의 귀국인사 시 대통령 말씀

- 당당한 외교, 북한 비핵화에 총력, 경제실리외교 추진을 강조

3. 제4차 전체회의(경제, 통상) 진행 자료

- 토의 주제: 경제통상외교 추진 방향 및 전망,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재외공관의 경제통상활동 활성화 방안

4. 대통령 주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1993.4.13.) 시 대통령 만찬사

- 변화와 개혁 강조, 고통 분담을 통한 신한국 창조, 실리외교 강조

5. 구주지역회의의 경제 통상 분야 토의 내용

6. 공관장회의 시 장관 개회사, 만찬사, 회의 종합평가 및 폐회사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4 결과보고 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10 / 1-138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결과 문서임.

1. 공관장 전체회의의 결과

- 성과
 - 고통분담 정신에 부합되는 회의 준비
 - 형식적 행사 지양
 - 외교체제 정비: 재외공관 정비문제 검토, 경제 활력 지속을 위한 외교지원 추진, 경제협력과 통상증진에 인적·물적 자원 집중 투입 추진
- 주요 행사: 전체회의의 5회, 지역별 회의 2회, 그룹별 회의 4회
- 주요 논의사항: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철회를 위한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 방안, 재외공관의 경제통상 활동 활성화 방안, 현지 실정에 맞는 문화외교 추진 등

2. 공관장회의 환경그룹 회의 결과

- 논의 내용: 환경외교 추진 현황 및 국내 대책 동향, 각국의 대응 동향 파악

3. 아주지역 공관장회의의 결과

- 논의 내용: 일본의 역할 증대 대응 방향, 바람직한 한·중 관계, 아시아지역과의 경험 확대

4. 재외국민 분야 전체회의의 결과

- 논의 내용: 재외국민 보조금 등 개선, 재외국민 불편해소 방안

5. 중동·아프리카지역 회의, 구주지역 회의, 미주지역 회의, 문화홍보 분야 회의의 결과 수록

공관장회의, 1993년도. 서울, 1993.4.9.-14. 전15권 (V.15 결과보고 II)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9 / 11 / 1-183

1993.4.9.~14. 서울에서 개최된 1993년도 공관장회의 결과 문서임.

1. 경제통상 분야 전체회의 결과

- 의제: 선진 경제통상 외교 추진방향 및 전망,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재외공관의 경제통상 활동 활성화 방안

2. 구주지역 회의 요약

- 의제: EC(구주공동체)와 협력증진 방안,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정세 및 유고 사태

3. 아주지역 회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공관장 그룹회의 결과

- 의제: 일본의 정치적 역할 증대에 대한 대응 방향, 바람직한 한·중 관계 발전 방안, 향후 중국의 역내 역할 강화 움직임에 대한 인도의 시각, 아시아지역과의 경험 및 교역 확대 방안, 한국의 대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협력 방안

4. 공관장회의 세부 일정 자료

- 주요 일정, 세부 일정, 토의 의제, 회의별 참가자 명단, 연회별 참가자 명단 등 포함

총영사회의, 1993년도 - 캐나다. Ottawa, 1993.5.13.-1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19 / 12 / 1-44

1993년도 캐나다지역 총영사회의가 1993.5.13.~14.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주캐나다대사, 주몬트리올총영사, 주밴쿠버총영사, 주토론토총영사 및 캐나다지역 공관 관계관

2. 주요 의제

- 최근 북미지역 및 캐나다 정세 토의
- 대캐나다 수출증진 대책 등 한·캐나다 경제통상협력증진 방안 협의
- 동포정책 검토 및 협의

3. 토의내용

-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내의 정세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한·캐나다 협력증진 방안 협의
- 한·캐나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남북한 상호 핵사찰 실현과 유엔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캐나다 정부와 협조 강화 문제
- 3년 연속 감소현상을 보여 온 한·캐나다 통상무역고가 전자·전기 제품 및 운반기계류, 자동차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다소 증가세를 보였으나, 섬유, 신발, 철강, 금속 제품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한·캐나다 무역의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 문민정부 수립에 발맞추어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민정책을 수행하기로 하고, 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한국 건설에 동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4. 참고자료

- 정무관계: 1993년도 주요 외교시책, 한·캐나다 관계강화 방안, 총영사관 정무활동 강화 방안 등
- 경제통상: 1993년도 캐나다 경제 및 통상정책 전망, 한·캐나다 경제통상관계
- 교민영사관계: 교민사회 현황, 교민사회의 주류사회 참여촉진,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대교민 정책 발전 방안 등

공관장회의, 1993년도 - EC(구주공동체) 지역. Paris, 1993.10.8.-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9 / 13 / 1-130

1993년도 EC(구주공동체) 지역 공관장회의가 1993.10.8.~9. 파리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주EC대사, 주제네바대사 및 EC 회원국 주재 대사 등 13명

2. 주요 건의사항

- 1994년 중 대통령의 유럽 및 EC 방문 추진
- 한·EC 기본협정 체결 기반 조성
- 한국기업의 대EC 진출 확대
-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한국 자동차 진출 확대를 위해 EC산 자동차 구매 증대 조치 필요
- 대EC 협력 확대

3. 참고자료

- 구주동맹 추진현황 평가 및 전망
- 한·EC 경제통상관계 증진 방안
- 한·EC 관계 주요 현안
- EC 단일시장 추진현황 및 한국의 대EC 경제진출에 미치는 영향
- 한·EC 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 방향
- 대EC 자동차 수출
- 일본기업의 대EC 진출 현황

공관장회의, 1993년도 - 일본. 동경, 1993.6.1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19 / 14 / 1-58

1993년도 일본지역 공관장회의가 1993.6.11. 도쿄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주일본대사 및 일본지역 주재 총영사

2. 토의자료

- 새로운 재외국민정책 방향 이행
- 재일거류민단의 재정자립 촉구방안
- 거주여권발급 및 영사확인업무의 민단경유 관행 개선
- 조총련 모방사업 추진의 애로사항과 금후 추진 방향
- 사할린동포 모국방문사업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 촉구 및 보상문제

미국지역 명예영사회의

생산연도 1988-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19 / 15 / 1-76



1988.12월 및 1993년 미주지역 명예(총)영사회의 개최 관련 내용임.

1. 1988년도 미주지역 명예영사회의

- 일시 및 장소
 - 1988.12.2. 워싱턴 D.C.
- 참가자
 - 명예영사 17명
 - 주산후안, 주뉴올리언스 명예영사 불참
- 건의사항
 - 구매사절단 방미계획 등 사전 통보 요망
 - 업무 관련 주미국대사관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 요망

2. 1993년도 미주지역 명예(총)영사회의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
 - 1993.9.17. 주미국대사관
- 참가자
 - 명예(총)영사 13명
- 개최 필요성
 - 문민정부 출범 계기 명예영사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 필요
 - 1988년 이후 개최 실적 전무
- 외무부 예산 사정상 개최 보류

총영사회의, 1993년도 - 미국. Washington D.C., 1993.5.14.-1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0 / 1 / 1-155

1993년도 미국지역 총영사회의가 1993.5.14.~15.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주미국대사 및 미국지역 주재 총영사 13명

2. 주요 의제

- 한·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양국관계 증진방안
- 한·미국 경제통상 관계 강화 및 현안문제 대응방안
- 대미 홍보활동 방향
-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대교민 정책 발전방안

3. 토의내용

- 정무 및 홍보관계
 - 대미국 접촉 저변확대 및 대의회 외교활동 강화방안 토의
 - 북한 관련 최근 영상자료 상영 등
- 영사교민관계
 -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 내 흑인지도자들과의 접촉 강화 필요성 강조 등
- 경제통상 분야
 - 최근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동향, 한·미국 경제통상문제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
- 무역진흥회의
 - 뉴욕 주재 코트라 미주지역 본부장이 대미무역 동향, 대미 수출상의 문제점 및 수출확대방안에 관해 설명
 -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 방문 활동 시 소요되는 코트라 등 관계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안내 책자와 최신 통계자료의 충분한 공급 필요

4. 참고자료

- 1993년도 주미국 및 주캐나다 총영사회의 자료

공관장회의, 1993년도 - 중동지역. Tunis(튀니지), 1993.11.8.-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20 / 2 / 1-235

1993.11.8.~9. 튀니지에서 개최된 1993년도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중동·마그레브지역 공관장회의(1993.11.8.~9., 튀니지)

- 회의 주제
 -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참가자
 - 중동 및 마그레브지역 15개 공관장(중동지역 9명, 마그레브지역 6명)
 - 제1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1993.11.11., 예루살렘)와 연계
- 주요 의제
 - 중동지역 주요 정세 및 현안 평가와 대응방안
 - 대중동지역 경제·통상 협력 확대방안
 - 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 확보방안
 - 교민진출 확대 및 활동 지원방안
 - 공관장 제안사항

2. 중동 및 이스라엘 진출방안 관계부처 협의회(1993.11.23., 외무부 회의실)

- 회의 주제
 - 외무부 제1차관보
- 참가자
 - 관계부처 국·과장급 인사
- 개최 목적
 -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및 제1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중동 및 이스라엘 진출방안 협의

3. 참고자료

-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결과 보고서
- 중동 및 이스라엘 진출방안 협의회 자료

공관장회의, 1993년도 - 중동지역. Tunis(튀니지), 1993.11.8.-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20 / 3 / 1-275

1993.11.8.~9. 튀니지에서 개최된 중동·마그레브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공관 및 외무부 실국 자료임.

1. 주리비아대사관 등 참석 공관별 보고 자료

2. 참고자료

- 기본자료
 - 주재국 정세, 양국 간 교류현황
- 의제별 토의자료
- 공관별 현안자료

한·일본 간 러시아 전문가 회의. 서울, 1993.3.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20 / 4 / 1-39

1993.3.5.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본 간 러시아 전문가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한국 측: 김일수 외무부 동구과장 외 3명
- 일본 측: 고치마 외무부 러시아과장 외 3명

2. 주요 협의내용

- 러시아 국내정세에 관한 일본 측 견해
 - 1993.3.10.부터 개최되는 인민대의원대회에서는 정부, 의회가 국민투표 연기 및 권력분점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
- 일·러시아 관계
 - 일본 정부는 서방의 대러시아 지원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 시행은 북방영토 문제를 포함한 러·일본 간 관계정상화 정도에 비례하여 확대한다는 방침
 - G-7 정상회담(1993.7월, 도쿄)에 열린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는 일·러시아 양국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G-7과 협의 중

3. 건의사항

- 1984~91년간 5차례 걸쳐 한·일 외무부 국장급 러시아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으나, 1992년도에는 일본 국회 일정 등으로 과장급회의로 대체
- 향후 상당 기간 러시아 정세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하여 기존 미국, 일본과의 협의회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도 러시아 관계 전문가회의 개최를 추진

한·일본 조약국장 회의, 제1-3차. 전3권 (V.1 제1차. 서울, 1987.10.23.-24.)

생산연도 1986-1993

생산과 국제법규과 / 조약과

MF번호 2023-20 / 5 / 1-158

1987.10.23.~24.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본 조약국장 회의와 관련된 방한 일정 내 일본 조약국장의 연설 개최 및 차기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세택 국장
- 일본 측: 사이토 구니히코 국장

2. 사이트 조약국장 연설(1987.10.24., 외교안보연구원)

- 주관: 대한국제법학회
- 제목: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관계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 참가자: 국제법 분야 교수, 전문가, 외무부 내 조약업무 분야 직원 등

3. 일본 측은 제2차 한·일 조약국장 회의를 1988.10.21.~22.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1998.9월 한국 측에 제의한 바 있으나, 양측 간 일정이 맞지 않아 연중 개최는 무산됨.

- 다만, 11월 일본 외무부 조약과장 방한 시 양국 간 조약집(외무부 발간)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

한·일본 조약국장 회의, 제1-3차. 전3권 (V.2 제2차. 동경, 1992.7.23.-24.)

생산연도 1986-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 조약과

MF번호 2023-20 / 6 / 1-80



1992.7.23.~24.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본 조약국장 회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87년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중단됨.
 - 1991.12월 일본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1992년 중 회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 전달
- 외무부는 주요국과의 정기·부정기협의체 확립을 통한 조약 및 국제법 업무의 발전 도모 차원에서 일본 측 제의에 동의함.

380

2. 수석대표

- 한국 측: 이창호 국장
- 일본 측: 탐바 미노루 국장

한·오만 Working Group 회의, 제2차. 서울, 1993.4.29.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20 / 8 / 1-204

1993.4.29.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오만 Working Group 회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오만 정부는 서울 개최 순서인 제2차 한·오만 Working Group 회의를 1992.9월 하순 내지 10월 상순에 개최할 것을 제의
- 외무부는 사정상 개최 일자를 익년 4월 초로 수정 제의하고, 양측의 협의를 거쳐 1993.4.29.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2. 수석대표

- 한국 측: 변종규 외무부 중동아국장
- 오만 측: Hamod Al Toobi 외무부 아주국장

3. 회의 의제

- 지역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 양국 현안 협의

4. 회의 결과

- 중동평화회담, 걸프지역 안보 정세, 이란의 군비확장 동향, 동북아 정세 및 북한 핵 개발 문제 등 지역 정세 협의
- 오만산 천연가스 도입 문제, 원유 도입 증대, 한국기업의 오만 진출 및 기술협력 등 협의

북미지역 한반도 관련 학술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0 / 9 / 1-134



1993년 중 미국 내 한반도 관련 학술회의 내용임.

1. 동서문화센터 학술회의(1993.1.4.~7.)

- 주제: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정치, 경제, 문화 등 3개 분야)
- 참가자: R. Scalapino 교수, 김경원 원장, 안병준 교수, H. Harding(부루킹스연구소) 등 25명

2.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학술회의(1993.1.13.~15.)

- 주제: 미국 선거 이후의 대동아시아 정책
- 참가자: Lilley 국방부차관보, 한승수 전 상공부장관, 임성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3. 아메리칸대학 한반도 통일관계 세미나(1993.2.18.)

- 주제: 한국의 통일(문제와 전망)
- 참가자: 고려대 강성학, 황익각 교수 등

4. 일본 게이오대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공동주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워크숍(1993.3.16.~17.)

5. 몬타나주립대학 학술회의(1993.4.26.~28.)

6. 세종연구소·부루킹스연구소 공동 학술회의(1993.6.14.)

7. 미주리대학 크루만 동아연구소 주최 세미나(1993.8.30.~31.)

8. 시카고 대외관계연구소 Scalapino 교수 초빙 연설회(1993.10.13.)

제2차 한·미 양자관계 세미나, Washington D.C., 1993.4.15.-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0 / 10 / 1-83

1993.4.15.~17.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국 양자관계 세미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한국 측
 -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이상우 서강대 교수,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 유장희 국제경제연구원장, 이성미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미국 측
 - N. Platt 아시아협회장, W. Clark, Jr. 미 국무부 전 동아태차관보, W. Pendley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 T. Hubbard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D. Gregg 전 주한 미국대사, R. Scalapino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

2. 주요 토의내용

- 정치·안보 분야
 - 냉전 종식으로 안보 의제가 한국방위 문제에서 지역적·국제적 문제로 확대됨.
 - 한·미 양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북한 핵사찰은 한반도 안보에 필수임.
 - 한국군 지휘 능력의 향상과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한·미국 간 방위책임(분담)은 재조정되어야 함.
- 경제 분야
 - 미국은 정부지출의 감소를 위해 한국 내 미국시설에 대하여 더 큰 부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며, 미국 내 한국인 기업 등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부과를 강화할 것임.
 - 한·미 양국 간 경제관계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지식재산권 문제, 통신산업, 소고기, 쌀시장 개방 문제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임.
- 문화 분야
 - 미국 내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에도 이를 위하여 장학위원회 설립이 필요함.
 -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문화행사보다는 대중매체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양국 간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교환 교육이 필요함.

3. 권고사항

- 주한미군의 추가 철군은 연기함이 적절하나, 한국 측이 더 큰 몫의 방위비를 분담해야 함.
-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사찰이 필요함.

한·중국 학술회의, 제2차. 북경, 1993.6.18.-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23-20 / 11 / 1-150

1993.6.18.~19.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국 학술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한·중국 학술회의

- 수석대표
 - 한국 측: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
 - 중국 측: Yang Chengxu 국제문제연구소장
- 회의 순서 및 내용
 - 1부: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동북 아시아(6.18.)
 - 2부: 한반도 정세의 현상과 전망(6.18.)
 - 3부: 한·중 관계의 발전방향(6.19.)
 - 4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지위와 역할(6.19.)

2. 박수길 원장, Tang Jiaxun 중국 외교부 부부장 예방(1993.6.18.)

- 중국 측 언급요지
 - 최근 황병태 신임대사 신임장 제정 시 Jiang Zemin 중국 주석은 김영삼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수락한 바 있으며, 중국 정부도 김영삼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함.
 - 중국은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제한적 역할이며 따라서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큼.
- 한국 측 언급요지
 - 최근 북한의 조치는 사태의 완결이 아니라 원점 복귀에 지나지 않으므로, 북한 핵 문제의 완전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 제7-8차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23-20 / 12 / 1-128

1. 제7차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1992.7.2.~4., 하코네)

- 지역 문제, 북한 핵 개발 저지 등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조 지속 필요성에 견해 일치
- 한국 측, 전후 독일 사례에 비견될 만한 과거사 청산 문제 관련 일본 내 합의 기대
-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관련, 경제적 영향력 증대에 공감하나, 군사대국화 여부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주목할 필요성에 공감
- 아·태지역 내 미국의 역할 지속과 이를 위한 한·일본 양국 간 협조 필요성에 공감
- 북한 핵 개발 의혹의 해소 없이 일·북 수교와 경협제공 등은 불가하다는 데 의견 일치
- 일본 측,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2+4」 방식의 검토 필요성 제시

2. 제8차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1993.7.20.~22., 경주)

- 미래지향적 한·일본 관계의 장애요인 극복과 이를 위한 양국 정상회담 조기 실현 필요성에 공감
- 일본 측 주요 발언요지
 -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핵 개발과 경제재건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외교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핵 개발 포기가 어려울 것임.
 -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통일 자체가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임.
 -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일·북 수교교섭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을 것임.
 - 최근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책을 비롯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당분간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임.
 - 기존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담) 등 다자 간 안보대화의 적극 모색이 필요함.

한·일본 포럼, 제1차. 서울, 1993.12.6.-7.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20 / 13 / 1-324

1993.12.6.~7.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본 포럼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11.2.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아사오 일본 국제교류기금 이사장 간 협의
 - 차원 높은 민간포럼 개최 필요
- 1993.7.13.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오와다 일본 외무차관 간 면담
 - 한·일 포럼 개최에 관한 구체사항 협의
- 1993.10.1. 도쿄에서 양국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제1차 포럼(1993.12.6.~7., 제주) 개최 합의
 - 1994.7월 제2차 포럼 개최 추진

2. 개최 목적

- 미·일 시모다 회의와 같이 한·일 민간차원의 의견 교환 및 토의를 통해 상호 이해관계 증진방안 모색

3. 참가자

- 양국 국내 여론 주도층 지도급 인사 각 25명

4. 토의 의제

- 한·일 국내 개혁과 외교정책
- 아태지역의 정치·안보 상황과 한·일 관계
- 아태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한·일 관계
- 한·일 협력 분야

5. 포럼 운영

- 한·일 포럼이 민간 주도의 행사인 만큼 정부의 개입 배제
- 회원 인선 문제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한국 측 운영위원회와 국제교류재단이 주관

한·영국 미래 포럼, 제1차. 서울, 1993.4.23.-25.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20 / 14 / 1-75

1993.4.23.~25.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영국 미래 포럼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주영국대사의 Needham 의원(1991.2월), Caithness 국무장관(1992.2.17.) 면담 시 영국 측은 한·영국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 한·영국 포럼 발족을 제안
- 1992.1.28. 영국 측 자체모임, 6.4. 양측 회합을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 협의
- 1992.10.20. 및 1993.3.19. 두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한·영 포럼 준비사항 협의

2. 포럼 목적 및 기본활동

- 21세기를 앞두고 한·영국 간 대화의 장 및 협력의 기반을 마련
- 양국 정책 결정자 및 여론 주도층에게 회의 결과를 공유하여, 양국 간 상호이해 제고 및 21세기 협력기반 조성

3. 참가자

- 양국 정관계·재계·언론계 인사 40여 명

4. 회장단

- 한국 측: 강영훈 대한적십자 총재(회장), 김경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의장)
- 영국 측: Anthony Farrar-Hockley 한·영 참전용사회 고문(회장), John Morgan 전 주한 영국 대사(의장)

5. 주요 내용

- 양국 및 주변 정세, 경제협력 및 교육·과학·문화 교류 증진방안 논의

한·미국 Wisemen Council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0 / 15 / 1-206

1991~93년 중 한국 정부 제의로 1991.7.9. 결성된 한·미 와이즈맨회(Wisemen Council)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회의(1991.10.3.~4., 미국 버지니아주)

- 대표단(사무총장)
 - 한국 측: 금진호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회장
 - 미국 측: Amos A. Jordan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회장
- 주요 의제
 - 와이즈맨회 목표, 절차, 의제 등 협의
 - 세계화 시대의 한·미국 관계, 지역경제협력 협의

2. 제2차 회의(1992.5.23.~24., 서울)

- 주요 의제
 - 한·미국 양자문제 협의
 - 동북아 안보·남북대화 현황
 - 국제경제의 한국 및 대미국 영향
 -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전망과 문제점

3. 제3차 회의(1992.12.20.~21., 워싱턴 D.C.)

- 주요 의제
 - 한·미 양국의 국내정치적 변화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장래와 한·미 교역관계에 미치는 영향
 - 남북 관계, 북한 핵 문제

4. 제4차 회의(1993.5.9.~10., 서울)

- 주요 의제
 - 북한 핵 문제
 - 지역 정세 및 기타 대외정책 논의
 -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과 아태지역
 - 국제경제통상문제: UR(우루과이라운드)와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전망

한·미국 안보 학술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93.4.29.-5.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21 / 1 / 1-70

세종연구소와 미국 IFPA(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공동으로 1993.4.29.~5.1. 워싱턴 D.C.에서 '변화의 시대에 한·미 관계' 제하의 한·미국 안보 학술회의가 개최됨.

1. 경위

- 세종연구소는 1992년부터 미국 IFPA와 공동으로 한·미 관계에 관한 학술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해옴.

2. 정부 대표

- 한국 측: 정일영 세종연구소 박사
- 미국 측: Pendley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

3. 주요 의제

- 한·미 신정부 하에서의 양자 간 안보관계
-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
- 동북아 지역정세와 한반도
- 새 시대에 있어 동맹관계와 신뢰구축

4. 토의 결과

-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일부 한국 인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미국 측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이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성을 강조함.
 -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력은 북한 정권 강화와 북한 내 민족주의 고조를 유발
 - 과거 미국의 대북 강력 대처 시 북한도 강하게 대응하여 해결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북한 내 온건파를 설득시키기 위한 제반수단 동원 필요
-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에 대한 한국 인사들의 우려에 대해 미국 참가자들은 반대 의견 표명
 - 미국이 일본의 역할 증대를 고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이며, 한국이 대일본 관계를 국론 통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
 - 한·일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양국이 공동이익을 위해 협조 필요

전직 외무장관 회의. St. Petersburg(러시아), 1993.5.26.-2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21 / 2 / 1-48

1993.5.26.~2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전직 외무장관 세계협의회 설립을 위한 전직 외무장관회의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년 Alexander Bessmertnykh 전 소련 외무장관과 타라 나카야마 전 일본 외상이 전직 외무장관 세계협의회(World Council of Former Foreign Ministers) 설립 합의
- 1993.5.26.~2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협의회 설립을 위한 '전직 외무장관회의' 개최
 - 최광수 전 외무부장관, 발기인으로 동 회의 참가
 - 동 협의회 기초문서와 각국의 전직 외무장관들에 대해 동 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문서 채택

2. 세계협의회 목적

- 국가 간 이해증진
- 유엔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세계적, 지역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협력 제고
- 인류의 복지와 평화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 경주 등

한·일본 협력위원회. 전2권 (V.1 합동회의 및 심포지움. 나가사끼현, 6.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21 / 3 / 1-106

1993.6.1.~2. 나가사끼현에서 개최된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및 심포지움 관련 내용임.

1. 회의 일정

- 합동간부회의(1993.6.1.)
- 합동심포지움(1993.6.2.)

2. 주요 토의내용

- 한·일 남서부지역 경제권 개발과 협력에 대한 협의
- 역사 및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남해연안지역과 일본의 남서권지역의 공동 발전 전략 협의

3. 신현확 한·일 협력위원회 한국 측 회장, 일본 방문(1993.6.7.~8.)

- 후쿠다 일본 측 위원장의 환영 오찬 간담회
- 일본사회당 위원장 면담
 - 북한 핵 문제 등 협의

한·일본 협력위원회. 전2권 (V.2 합동위원회, 제31차. 나가노, 8.24.-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21 / 4 / 1-116

1993.8.24.~27. 나가노에서 개최된 제31차 한·일본 협력위 합동위원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

- 한국 측: 신현확 회장 외 20명
- 일본 측: 후쿠다 다케오 회장 외 40명

2. 회의 결과

- 김영삼 대통령은 메시지 송부를 통해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역내 안정과 번영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말함.
 - 호소가와 일본 총리도 메시지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 협력관계 유지 및 파트너십을 일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
- 기조발언 및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일본 양국의 역할, 양국 경제협력 과제, 냉전 이후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 등 토론

3. 신현확 회장, 호소가와 일본 총리 예방

- 김영삼 정부의 외교기조 및 미래지향적 한·일본 관계 구축 메시지를 1993.8.30. 호소가와 총리에게 전달
- 호소가와 총리는 일본 신내각으로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 노력과 양국관계 증진이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하다고 언급

1993년도 외빈방한 접수계획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5 / 1-173

1993년도 외빈(국가원수, 수상 및 외상급) 방한 영접계획 관련 내용임.

1. 1993년도 외빈 영접계획

- 1992.11월 외무부 의전실, 지역국에 1993년도 외빈 영접계획 제출 요청
 - 아중동국, 미주국, 구주국 및 아주국 제출
- 의전실, 1993년도 외빈 영접계획 및 국민 영접사항 검토
 - 당면 현안으로 Kohl 독일 수상 내외 공식 방한(1993.3.1.~3.), Bolger 뉴질랜드 수상 방한 희망 등
 - 방한 가능성이 높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등 외빈 영접 횟수 및 시기 등 검토
- 1993년도 외빈 방한계획 대통령 보고 및 재가(4.22.)
 - 전반기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등 방한 접수 및 후반기 계획 포함
- 1993년도 하반기 외빈 방한 접수계획의 대통령 보고 및 재가(5.22.)
 - 동 연도 국민 및 정부 수반급 공식 방한 외빈접수는 의전 간소화 방침에 따라 연 6회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2~3회 정도 추가 접수 검토
 - 특히 신정부 들어 프랑스,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 14개국 정상이 방한을 희망하여 하반기 계획에 포함
- 외빈 방한 접수일자 조정계획 작성(5.31., 의전실)
 - 미국 대통령(1993.7.10.~11.), 태국 수상(1993.8.28.~31.) 등 6개 외빈 접수 일자 조정

2. 1993년도 하반기 외빈 접수계획

- 국가원수 및 수상
 - 인도 수상, 프랑스 대통령, 싱가포르 수상, 폴란드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 세네갈 수상, 자메이카 수상 등
- 외무장관급
 - 슬로바키아, 이란,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캐나다, 코스타리카, 스페인 등

3. 외빈 영접 관련 각종 자료 수록

- 각 시기별 외빈 방한계획 및 업무 추진계획 등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 일정 및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6 / 1-165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일정 및 사전준비 내용임.

1. 미국 방문 희망 전달 및 진전 동향

- 미국 측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으며, 미국 방문 일정이 한국 측 제의대로 1993.11.15.~16.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 영접의 격식 관련, 클린턴 행정부는 '국민 방문'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김 대통령에게 최대의 예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강조

394

2. 대통령 방문 일정 추진 현황

- 워싱턴 주요 일정
 - 11.21.(일) 워싱턴 D.C. 도착(시애틀발), 국무장관 접견, 교민 리셉션
 - 11.22.(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미 주요인사 접견, 해리만 민주주의상 시상식 참석
 - 11.23.(화)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클린턴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
 - 11.24.(수) 아메리칸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 정상회담 및 공식만찬
 -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순으로 1시간 여에 걸쳐 진행
 -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공동기자회견 준비
- 해리만 민주주의상 수상식
 - 아시아지역 지도자로 파키스탄의 부토 여사에 이어 김 대통령이 두 번째 시상자
- 아메리칸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 동 대학은 김 대통령의 기념 식수 희망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2 정상회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7 / 1-314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정상회담 내용임.

1. 한·미 정상회담 결과

- 개요
 - 양국 정상은 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35분간의 단독회담을 갖고, Cabinet Room으로 이동하여 관계 각료들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의 확대회담을 가짐.
 - 이어서 양국 정상은 East Room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합동기자회견을 가짐.
- 한·미 관계 전반
 - 양 정상은 한·미 동맹 관계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아태지역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클린턴 대통령은 이 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전진배치 전략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김 대통령은 이러한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환영함.
- 북한 핵 문제
 -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간 양국이 추구해 온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무엇보다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수락하고 남북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 특사 교환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안보 관계
 -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천명하고,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주한 미군의 추가 감축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함.

2. 공동기자회견 요지

- 클린턴 대통령 모두발언
 - 한국은 역내에서 경제 및 민주발전의 모델로 성장하였으며, 양국 간의 역사적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과 협력할 예정임.
- 김영삼 대통령 모두발언
 - 미국의 대한안보공약 재확인 및 북한 핵 문제 해결 전까지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은 없을 것임을 확인함.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3 해리만 민주주의상(Harriman Democracy Award) 수상)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8 / 1-187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해리만 민주주의상 시상식 관련 내용임.

1. 행사 개요

- 일시: 1993.11.22.(월) 18:30~19:30 리셉션 후 만찬 및 시상식 개최
- 장소: 워싱턴 D.C. 힐튼호텔
- 참가자
 - 수상식에는 민주주의상 공동수상자인 Mitchell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비롯한 Folley 하원의장 등 고위인사 총 800여 명

396

2. 김 대통령 수상 연설 요지

- 연설 제목
 - 나와 한국 국민의 꿈(My Dream, Korean People's Dream)
- 내용
 - 한국 국민은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문민정부를 세웠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30여년의 갈망이 이루어진 것임.
 - 한·미 양국은 이미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동맹인바,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한·미 간의 튼튼한 협력관계는 새로운 세계 공동체의 창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함.
 - 우리 모두의 꿈,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바람.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4 아메리칸 (American)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9 / 1-146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아메리칸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관련 내용임.

1. 행사 개요

- 일시: 1993.11.22. 15:30~16:55
- 장소
 - 학위수여식: 대학 체육관 내 Bender Arena
 - 리셉션: 동일 체육관 내 Palmer Kettler 라운지

2. 학위수여 배경 및 의미

- 배경
 - Milstein 아메리칸대학 총장은 1993.7월 주미국대사관 경유 김영삼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김 대통령이 30여 년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과 대통령으로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여, 김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기에 동 대학의 국제관계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옴.
- 의의
 - 아메리칸대학으로서는 100년 역사상 외국 국가원수에 대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음.
 - 동 수여식에는 우수 언론사들이 초청되어 취재하며, 유선TV 방송회사인 C-Span사가 수여식 전체를 녹화하여 수차례에 걸쳐 미국 전역에 방송할 예정

3. 김영삼 대통령 연설

- 연설 제목: '평화와 번영의 아·태 시대로'
- 내용
 - 미국에서 공부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오늘 아메리칸대학이 준 영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국제적인 기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일 것임.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5 라성(L.A.) 방문)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10 / 1-137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로스앤젤레스 방문 관련 내용임.

1. 로스앤젤레스 교민 초청 리셉션(1993.11.17.)

- 참가자: 약 700여 명의 한인 동포
- 대통령 연설 요지
 - 정부는 한층 성숙된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교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교민들의 안전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임.
 - 교민들이 본국과의 관계에서 겪는 불편을 시정하기 위해 법규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임.

398

2. 로스앤젤레스 시청 환영행사(1993.11.18.)

- 시청 도착 후 리오단 시장 접견
 - 김 대통령은 흑인 학생들이 한국 정부 지원으로 6개월~1년 정도 유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시장실과 총영사관이 협의할 것을 제안, 이에 리오단 시장은 크게 환영함.
 - 접견 후 시의회 의사당에서 리오단 시장, Ferraro 시의회 의장, Yvonne Burke 카운티 정부대표의 환영사 및 김 대통령의 답사
 - 환영 행사 후 김 대통령은 한인상가를 둘러 동포 상인들을 격려함.
- 김 대통령 답사 요지
 -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는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는 중심에 있는바,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미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믿고 있음.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6 앵커리지(Anchorage) 방문)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11 / 1-112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앵커리지 방문 관련 내용임.

1. 앵커리지 공항 도착행사

- 미국 측 환영인사와 인사교환: 알래스카 주지사 내외, 앵커리지 시장 내외, 한·알래스카 경제인 협회장, 앵커리지 공항청장
- 한국 측 환영인사와 인사교환: 주앵커리지총영사 내외, 한인회장 내외 등

2. 알래스카 주지사 및 앵커리지 시장 접견

- 참석 범위
 - 외무부장관,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총영사 내외

3. 교민 다과회

- 참석 범위
 - 교민 대표(20명) 및 공식수행원 전원

4. 앵커리지 언론 반응

- Anchorage Daily News지는 김영삼 대통령 내외 방문 관련 '친우들과의 악수' 제하로 주지사 부부, 시장 부부 등 영접 인사와의 악수 교환 사진을 게재 보도함.
- 앵커리지 3개 TV방송국은 11.24. 저녁 뉴스에 대통령 내외분의 앵커리지 방문 사실을 보도함.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7 각료회의 및 별도 외무장관회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12 / 1-134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각료회의 및 외무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1993.11.18.~19., 시애틀)

- APEC 각료회의 개최 및 오전회의
- APEC 각료 업무 오찬(미 국무장관 주최)

2. 한·미 외무장관회담(1993.11.23.)

- 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주 외무부장관
 - 미국 측: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등
- 회담 결과
 - UR(우루과이라운드) 문제
 - 미국 측: 농산물 문제 관련 전 품목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화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함.
 - 한국 측: 한국이 제반 분야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농산물 문제 관련 극히 민감한 분야에 있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 북한 핵 문제
 - 한국 측: 미국 측이 'Comprehensive Approach'라고 개념화한 것이 한국 국내에서 다소 해석상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양 정상이 동의하며, 앞으로는 '완전하고 광범위한(Through, Broad)' 접근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을 재차 설명함.
 - 미국 측: 양 정상 간 협력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전술을 확립시켜 주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협의였다고 평가함.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8 영부인 행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13 / 1-104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영부인 행사 관련 내용임.

1. Lowell 초등학교 방문(1993.11.19.)

- 학교 개요
 - 정규교육 이외에 지진아, 신체 부자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시설을 완비함.
 - 취학 전 아동(유치원 교육대상)부터 5학년까지의 아동을 교육대상으로 함.
 - 다운타운 초교로서는 가장 조직화되고 규모가 큰 학교임.

2. 공관 간부 부인과의 오찬 간담회(1993.11.22.)

3. 힐러리 영부인 면담(1993.11.23.)

4. 한글학교 교사 간담회(1993.11.23.)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9 자료 I: 정상회담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14 / 1-195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정상회담 준비자료임.

1. 정상회담 자료

- 한·미 정상회담 자료(경제·통상 관계)(외무부 통상국)
-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기본 대응방안(경제기획원)
- 한·미 정상회담 말씀자료(단독회담)
-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말씀요지
- 한·미 정상회담 자료(외무부 미주국)
- 한·미 정상회담 자료(외교안보)

2. 공동기자회견 자료

- 공동기자회견 모두말씀
- 한·미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시 모두발언(안)
- 공동기자회견 시 한국 측 모두발언(국·영문)(외무부가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 공동기자회견 예상 질의 답변자료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0 자료 II: 계기별 대화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15 / 1-197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계기별 대화자료 내용임.

1. 태평양 교포 관련 행사 말씀자료
2. 클린턴 대통령 근황 관련 대화자료(주미국대사관의 외무부 앞 보고)
3. 폴리 하원의장 오찬 시 대화자료(외무부)
4. 폴리 하원의장 초청 오찬 시 대담자료(청와대 외교안보)
5. 국무장관 접견 말씀자료(외무부)
6.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접견자료(청와대 외교안보)
7. 고어 부통령과의 오찬 시 대화자료
8. 고어 부통령 조찬 시 대화자료(청와대 외교안보)
9. 클린턴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 시 대화자료(외무부 미주국)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1 연설문)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16 / 1-117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연설문 준비 자료임.

1. 자료(외무부 미주국)

- 의회 연설 골자(안)
- 해리만 민주주의상 수상식 연설 골자(안)

2.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 및 미합중국 방문 출국인사(안)

3. 출국인사 대통령 연설문(청와대 공보 및 외교안보)

4. 백악관 공식만찬사(안)

5. 폴리 하원의장 초청 오찬 시 김영삼 대통령 오찬사

6. 고어 부통령 주최 오찬 시 김영삼 대통령 오찬사

7. 시애틀 교민 초청 리셉션 대통령 연설문(청와대 공보 및 외교안보)

8. 클린턴 대통령 내외 주최 백악관 만찬(만찬사)

9. APEC 정상회담 및 미합중국 공식 방문 귀국인사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2 결과보고(종합))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1 / 17 / 1-132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결과 보고내용임.

1. 미국 방문

- 성과
 - 강력한 한·미 동맹 결속 확인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화 및 금후 대처방안 협의
 - 호혜적 경제관계 발전 및 협력 의지 확인
- 정상 간 회동 시 주요 협의내용
 -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
- 공동기자회견
 - 클린턴 미 대통령,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구체적 조율은 양국 간 입장이 완전히 일치된 반증이라고 설명
 - 양 정상,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 천명
- 공식만찬
 - 정상 내외 간 친분 강화를 위해 가벼운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
 - 미국의 지도적 역할, 지역적·세계적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력, 한·미 우호 저변확대 문제 등 의견교환

2.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1993.11.19.~20., 시애틀)

- 아태 공동체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제고
- 아태 공동체 비전 제시
 - 지역 및 세계경제의 도전에 대한 공동해결 모색
 - 광대한 아태지역 시장 창출
 - 역내 무역투자 장애요인 제거
 - 교육과 훈련 증진을 통한 인력자원개발 및 문화 교류 증진
 - 환경보호, 지속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UR(우루과이라운드) 연내 타결에 최대 노력 합의
- 제2차 APEC 정상회담 내년도 인도네시아 개최 합의



3. 후속조치

- 북한 핵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 협의 지속
- APEC 발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긴밀화 방안 강구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3 홍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1 / 1-362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홍보 분야 준비내용임.

1. 김 대통령 방미 특별 홍보 문제(1993.9월, 주미국대사관 보고)

- 필요성 검토
 - 김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국의 개혁정책 등에 관한 직접적인 홍보의 좋은 계기이므로 적극 활용 필요
- 클린턴 대통령 방한 시 홍보활동 실적
 - 클린턴 대통령 방한 계기 1993.6.1.~7.15. Burson-Marstella사와 특별 홍보활동 계약, 동사를 통해 홍보활동 실시
- 홍보회사 선정(Burson-Marstella 사)
 - 동사는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 계기 특별 홍보를 주미국대사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

2. 행사 계기 홍보 계획(1993.10.25., 주미국대사관 건의)

- 대통령 기자회견 추진
 - 백악관 공동기자회견
 - 시애틀 기자회견 추진
- 워싱턴포스트 조찬 간담회 추진
- 월스트리트저널 간부 접견 추진
- 대통령과 PBS TV 단독회견 추진 등

3. 태평양 홍보 대책회의(1993.11.9.)

- 공보처차관 주재
- 홍보 기초 및 초점
- 구체 홍보계획
 - 언론 간담회
 - 보도 및 해설자료 제작, 배포(방미 관계는 외무부, APEC(아태경제협력체)은 상공부 담당)
 - TV 홍보는 기존 시사토론프로그램 활용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제1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1993.11.17.-24. 전14권 (V.14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2 / 1-159

1993.11.17.~24.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후속조치 내용임.

1. 대통령 방미에 관한 현지 교민 조사계획

- 조사 목적
 -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 대해 현지 동포들의 반응을 점검하여 향후 정상외교 또는 교민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시애틀지역, 로스앤젤레스지역, 워싱턴지역, 뉴욕지역
- 조사 일시
 - 대통령 방미 종료와 동시 실시

408

2.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계기 해외정상 앞 대통령 서한 송부

- 한·중 정상회담 관련: 강택민 국가주석 앞 서한
- 한·미 정상회담 관련: 클린턴 대통령 앞 서한

3. 대통령 방미 후속조치 건의(1993.12.7.,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동포들의 미 주류사회 진출 지원
- 흑인 학생 국내 유학 추진
- 로스앤젤레스 코리타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국 진출기업과의 경제협력 강화
- 교포 언론의 과당경쟁 방지 및 교포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4.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친서 송부

- 대통령 명의 친서
 - 고어 부통령, 폴리 하원의장, 미첼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 등
- 영부인 명의 친서
 - 힐러리 여사 등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3 / 1-290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방미 행사(태평양행사) 관련 종합 점검회의(1993.10.6.)

- 논의 내용
 - 시애틀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워싱턴 D.C. 방문(미국 공식 방문, 정상회담 등 일정), 로스앤젤레스 일정 등 준비

2. 태평양행사 점검을 위한 자료 수록

- 태평양행사 점검자료(1993.10월, 외무부 의전장실)
- 태평양행사 추진 점검표: 공관준비 및 보고사항(10월, 외무부 의전장실)
- 태평양행사 사전준비 체크리스트(10.19., 외무부 의전장실)
- 태평양행사 추진 점검표(10.19.,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
-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dministrative Guide(10.18., APEC Secretariat 안내 회람)
- 태평양행사 점검사항(11.5., 외무부 의전장실)
 - 날짜별 일정(안), 일정별 검토사항, 예비비, 행사별 양측 참석범위 등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2 일정)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4 / 1-246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의전 분야 내용임.

1.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일정 및 진행 구상

- Fauver 백악관 특별보좌관이 방한하여 8.31.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진행 관련 미국 측 구상 설명

2. 태평양행사 일정(안)(1993.11.10., 외무부)

- 11.17. 로스앤젤레스 도착, 교민 리셉션
- 11.18. 로스앤젤레스 시청 환영행사, 교민 리셉션, APEC 지도자회의 및 개별 정상회담 대책회의 겸 만찬
- 11.19. CNN 회견, 한·중국, 한·호주, 한·캐나다 개별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과의 개별 환담, 시애틀 시장 및 워싱턴 주지사 주최 리셉션,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
- 11.20. APEC 정상회담, 한·인도네시아 개별 정상회담
- 11.21. 워싱턴 D.C. 도착, 국무장관 접견, 교민 리셉션
- 11.22. 워싱턴포스트지 회장 조찬 환담,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하원의장 주최 오찬, 아메리칸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NDI 해리만 민주주의 상 수상식 및 만찬
- 11.23. 한·미국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고어 부통령 주최 만찬, 미국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 11.24. 워싱턴 특파원 조찬, 알래스카 주지사 접견, 교민 다과회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3 수행원 및 선발대)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5 / 1-275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수행원 및 선발대 내용임.

1. 수행원 구성

- 공식수행원: 한승주 외무부장관 등 15명
- 비공식 수행원: 청와대 30명, 외무부 16명, 상공부 1명, 동시통역사 2명 등 49명

2. 정부합동 답사반(선발대)

- 외무부는 1993.10.9. 최동진 의전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정부합동 답사반(선발대)을 파견하여 일정 협의 및 행사장 답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주시애틀총영사, 주미국대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게 통보함.
 - 파견 지역 및 시기: 시애틀(10.13.~26.), 워싱턴 D.C.(11.14.~17.), 로스앤젤레스(11.17.~18.)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4 숙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6 / 1-219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숙소 내용임.

1. 외무부 및 해당 재외공관은 미국 국무부 및 현지 호텔 측과 접촉하여 아래 일정을 위한 객실과 행사 공간을 확보함.

- 정부합동 답사반
- 로스앤젤레스 방문(11.17.~18.)
-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11.18.~19.)
- APEC 정상회담: 각료회의, SOM(고위실무회의), 정상회담(11.19.~20.)
- 워싱턴 D.C. 방문(11.21.~24.)

2. 고려요소

- 한국 측 대표단 공식수행원, 의전수석실, 비공식 수행원, 기자단, 경호(선발), 경호(잔류), 경호CP, 의전CP, 행사용 공간 등 감안
- 상기 외에도 호텔 당 확보 가능한 객실 수, 적절한 행사 공간 여부, 숙소와 회의장 또는 행사장과의 거리, 교통편 소요시간, 소요예산 등 감안 필요

3. 숙소 확보(예약) 결과

- 로스앤젤레스: 센츨리 플라자 호텔(11.17.~18.)
- 시애틀: 웨라톤 호텔(11.18.~21.)
- 워싱턴 D.C.: Capital Hilton 호텔(11.21.~24.)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5 경호)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7 / 1-202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경호 내용임.

1. 대통령 경호실의 항로 답사(10.31.~11.5.)

- 항로 답사자: 3명
- 관계관 회의 및 공항 답사
 - 앵커리지,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앤드류 기지
- 관계관 회의 참석대상
 - 대사관(직원, 주재 무관), 공항 책임자(공항관제, 공항운항, 공항경비) 각1명, 대한항공 현지직원
- 공항답사
 - 활주로, 유도로, 행사장 및 특별기 주기장

2. 경호 선발대

- 선 선발대, 선발대 숙소, 차량 등 관련 협의

3. 행사 관련 자료

- 숙소, 공항, 행사장 관련 경호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협의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6 행정 및 인력지원)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8 / 1-211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행정 및 인력지원 내용임.

1. 미국 국무부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행정지원

- 시애틀 지원반: 사무실, 숙소, 회의실, 전화 FAX 회선, 사무실 집기, 통역 부스 및 장비
- 워싱턴 소재 지원반: 대표 등록, 본회의장 관리, 의전, 경호, 행사계획
- 워싱턴 US/APEC 사무국: 의제 및 회의 실질 문제

414

2. APEC 지원반 주관 행사 장소 답사

- 한국 측: 의전, 공보, 경호 각 1인 참석

3. 행정지원 협의

- 태평양행사 의전용품, 통신기기(임차)
- 항공기 이착륙, 주파수 사용 허가, 항공기 영공통과 허가, 경호용 무기 및 통신장비 반출입
- 전용기 도착 시 이민국 수속 및 화물통관
- 차량, 통신기기, 각종 사무집기 소요현황
 - 외무부(의전, 공관), 청와대(의전, 부속, 경호), 청와대 공보 및 프레스 센터, 의전CP, 경호CP 등 각 소요현황
- 차량 운전인원, 교민 리셉션 참가자 신원조회
- 기자단 휴대장비(통관)

4. 인력지원 협의

- 외무부 직원, 재외공관 근무 직원 차출, 행사 현지 파견 등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7 의전용품 및 선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9 / 1-150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의전용품 및 선물 내용임.

1. 의전용품

- 의전용품
 - 의장기, 차량기, 태극기 수기, 성조기 수기, 비표, 리셉션 초청장, 입장카드, 명찰, 비표리본, 마이크, 포디움, 한국 주요 가곡, 민요 및 카세트테이프, 오·만찬용 Place Card, Your Seat Card, 명찰, 애국가 카세트테이프
- 행사 관련 용품 및 인력 임시채용
 - 차량, 무선전화기, 각종 사무집기 임차, 지원요원 임시채용

2. 미국 측 주요 인사 면담, 접촉 시 선물 목록 수록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8 특별기)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10 / 1-92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특별기 내용임.

1. 특별 전세기 임차

- 임차 견적가격 요인
- 운항 구간, 사용 항공기 B747-400
- 총 임차기간(11.14.~22.): 정비개조 작업, 전세 비행기간, 복원 작업 기간
- 총 비행시간: 35시간
- 항공기 개조: 전용실, 집무실
- 전세기간 중 고정비, 정상 변동비 계상, 정비·복원 작업 시 인건비
- 기내식 추가비용
- 시험시승 이동비행 비용

2. 공항 착륙, 영공통과 허가

- 착륙 허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앤드류 공군기지, 앵커리지
- 영공통과 허가: 캐나다, 일본

3. 전세기 임차 계약

- 외무부 의전담당관과 대한항공 서울여객지점장 간 체결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9 의전행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2 / 11 / 1-266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의전행사 내용임.

1. 세부 계획

- 의전 기본원칙
- 행정 준비사항 점검
- 수행원 조찬 메뉴는 콘티넨탈 뷔페로 확정
- 영부인 통역
- 태평양행사 중요 검토사항(11.5.)
- 주미국대사 관저 비공식만찬 계획(11.8.)
- 태평양 행사별 참석범위

2. 오·만찬

- NDI(미국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 만찬, 하원의장 오찬, 백악관 만찬 등 참가자, 복장, 메뉴 등 협의 또는 확인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10 환영행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1 / 1-213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환·송영 등 공항행사 내용임.

1. 로스앤젤레스(11.17.~18.)

- 공항 환영행사
 - 환영 인사명단(교민 환영단 300명), 도열병, 기수단, Band, 기상영접, 미국 측 환영인사와의 인사교환, 한국 측 환영인사와의 인사교환, 교민 환영단 격려
- 교민 리셉션(11.17.): 800명
 - 초청장, 비표(명찰), 안내문, 메뉴, 이동계획, 진행순서, 교민 환영사, 대통령 격려사, 헤드 테이블, 현수막 설치 및 문안, 사회자, 연단 설치, 태극기 비치, 마이크 설치, 배경 음악, 명찰 교환 장소, Security Check 설치 장소, 리셉션 장 안내 표지판, 주차장 안내 불순시위 대비계획
- 로스앤젤레스 시청 환영행사
- 애국가 연주, 환담자료, 대통령 답사자료
- 공항 환송행사
- 환송 교민단(교민 100명), 환송 교민단 이동계획, 미국 측 환송인사 명단 등

2. 시애틀(11.18.~20.)

- 교민 리셉션(11.18.): 500명

3. 워싱턴 D.C.(11.21.~24.)

- 교민 환·송영 행사(11.21., 11.24.)
- 공항 도착, 출발 행사
- 교민 리셉션(11.21.): 1,000명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11 예산)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2 / 1-216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예산 내용임.

1. 예산 확보, 배정

- 외무부 의전장실이 태평양행사 관련 외무부 각·실국, 재외공관, 기관의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확보, 배정
 - 주미국대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앵커리지총영사관
 - 대통령 경호실

2. 태평양행사 관련 예산 자료

- 행사 소요예산 신청 내역
- 일반 예산 검토 의견서
- 출장 여비 내역
- 연회비 소요액 내역
- 국외여비 지급명세서
- 지원인원 출장비 내역 등

김영삼 대통령 미국 방문[의전], 1993.11.17.-24. 전12권 (V.1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3 / 1-76

김영삼 대통령의 1993.11.17.~24. 미국 방문 관련 각종 장소 도면 등 자료임.

- 리셉션 장(Seattle Museum of Art) 행사장 도면
- 정상회담 장(Tillicum Village) 실내 도면
- APEC(아태경제협력체) 개황 책자
- 로스앤젤레스 기후, 일·출몰
- 회담장, 행사장 등 컬러 사진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의사당 도면
- 이착륙 각 공항 도착, 출발 공항 도면
- 알링턴 국립묘지 도면
- 공동기자회견장 도면
- 각 행사장 사진 등

미국 내 기관의 김영삼 대통령 방문 초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3 / 4 / 1-29

1993년 중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방문 초청기관과 초청일자 관련 내용임.

1. 세계경제개발회의(1993.2.24.)

- 1993.9.23.~25.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금년도 회의에서 개막 기조연설 요청

2. NDI(1993.3.29.)

- 해리만 민주주의상 수여 희망

3. 아이오와주 상·하의원 3인(1993.5.13.)

- 방미 기회에 풍산금속공장이 위치한 Cedar Rapid시 방문 요청

4. Lehigh University(1993.7.8.)

-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희망

5. American University(1993.7.15.)

- 금년 중 방미 기회에 명예국제관계학박사 학위 수여 희망

6.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1993.7.30.)

- 레이건 대통령 기념도서관 방문 초청요청

Philippe 벨기에 왕자 방한, 1993.10.31.-1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유럽과

MF번호 2023-23 / 5 / 1-102

Philippe 벨기에 왕자의 1993.10.31.~11.7. 비공식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대전 엑스포 '벨기에 National Day' 행사 참석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대전 엑스포 참석
- 부산(한·벨기에 합작투자회사), 창원 직업훈련원, 경주 방문
- 외무부장관 면담, 판문점, 비원 방문

3. 방한 결과

- 작고한 벨기에 선왕 보두앵 1세 내외의 1992.10.12.~19. 공식 방한과 현 국왕 알베르 2세 (Philippe 왕자의 부친)의 1989.6.26.~30. 비공식 방한에 이어 왕위 계승권자인 왕자의 방한은 큰 의미가 있음.
- 한국전 참전국, EC(구주공동체)의 창립 멤버인 벨기에와의 무역 증진(대전 엑스포 계기) 등 양국 간 우호관계 발전의 계기가 됨.

Monge Alvarez, Luis A.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93.1.11.-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23 / 6 / 1-16

Monge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1993.1.11.~17. 방한함.

1. 경위

- 코스타리카에 진출 중인 백성학 (주)영안모자 회장 초청

2. 주요 일정

- 전두환 전 대통령 면담, (주)영안모자 공장 및 지방 시찰
- 동인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두 차례 방한한 친한 인사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1-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23 / 7 / 1-68

1981~89년 중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1.6.17. 일본 NHK 인터뷰에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981년 말 또는 1982년 초 일본 방문 희망
- 1981.6.22.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에 미테랑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회에 방한 희망 입장 구두 전달 지시
 - 공식 방한초청장은 외무부장관의 프랑스 방문 기회에 직접 전달 추진
- 프랑스 측은 1982.4.13. 미테랑 대통령 명의 서한으로 방한 의사가 있음을 회신
- 8월 초 방한한 프랑스 외무장관은 외무부장관에게 미테랑 대통령의 1983.5월경 방한 계획을 구두 통보

2. 진전사항

- 프랑스 측의 국내사정 및 외교일정 등으로 미테랑 대통령의 1983년 방한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검토함.
 - 이후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은 계속 연기
-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 미테랑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방한 의사 피력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1 사전준비 I: 1992-93.7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8 / 1-144

1992~93.7월 중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 추진 및 협의 관련 내용임.

1. 방한 추진 경위

-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시 미테랑 대통령을 방한 초청
- 1992.10월 미테랑 대통령은 방한을 추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연기

2. 방한 시기 확정

- 프랑스 측의 1993.9.14.~16. 방한 제안을 한국 측이 수용함으로써 확정
- 7.19. 양국 대통령실은 미테랑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발표

3. 관심사항

- 프랑스 측: 한국이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참여
- 한국 측: EU(유럽연합) 출범을 앞둔 시점에 EU 주도국인 프랑스 대통령의 최초 방한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2 사전준비 II: 1993.8-9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9 / 1-131

1993.8~9월 중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한국 측 준비 활동

- 미테랑 대통령 성향 파악
 - 미테랑 대통령의 이력, 기호, 소개책자, 대표 저서 등 파악 및 입수
- 프랑스 측 관심사항 파악
 - 프랑스 알스통의 경부고속철도 사업 참여
 - 대우전자의 프랑스 내 TV 브라운관 공장 건설
- 한국 측 관심사항 전달
 - 외규장각 도서 반환 진전
 - 북한 핵 문제에서 프랑스의 역할

2. 프랑스 측 준비 활동

- 관심 이슈 동향 파악
 - 남북대화 전망, 북한의 경제사정 평가, 미국·북한 회담 전망 등
- 일정 관련 협의
 - 방한 수행원, 정상회담 및 공식만찬의 진행과 참가자, 방한 일정
 - 수행 장관의 개별 면담일정

3.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 의미 및 홍보전략 수립

- 프랑스 국가원수의 최초 방한
- 양국의 상호 관심 및 위상 평가
- 경제 및 문화 분야 협력 증진의 계기

4. 미테랑 대통령 방한 준비사항 정리

- 대통령실에 준비사항 보고
 - 방한 의의 및 일정, 인적사항, 프랑스 정세, 양국관계, 정상회담 시 언급요지 등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3 의전 I: 일정)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10 / 1-234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1993년 중 방한 일정 협의 등 문서임.

1. 방한 기간 확정 및 선발대 사전 점검

- 미테랑 대통령 방한 시기 확정: 1993.9.14.~16.
- 방한 일정 점검 선발대 방한: 7.22.~25.
 - 단장: 프랑스 외무부 의전장

2. 선발대 점검 일정

- 1993.7.22.: 1차 합동회의, 주한 프랑스대사 주최 만찬
- 7.23.: 현장 답사, 한국 의전장 주최 만찬
- 7.24.: 현장 답사, 2차 합동회의

3. 방한 일정

- 1993.9.14.: 도착행사, 국립묘지 헌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민만찬
- 9.15.: 참전 기념비 헌화, 엑스포 참관, 국회연설, 재한 프랑스 교민 리셉션, 미테랑 대통령 주최 리셉션
- 9.16.: 환송행사
 - 대통령 부인 별도 일정 마련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4 의전 II: 대외협조)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11 / 1-171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1993년 방한 관련 국내 기관별 업무협조 관련 문서임.

1. 방한 행사 업무협조 대상기관

- 국방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문화체육부, 내무부, 법무부, 공보처, 총무처, 관세청, 경찰청, 서울 시청, 엑스포 조직위원회, 국회사무처, 한국공항관리공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항공

2. 방한 행사 업무협조 사항

- 기능별: 영공통과, 특별기 이착륙 및 주기, 출입국 및 통관, 경호원 총기류 반입, 임시전화 개설, 비상의료진 편성, 영접 의례, 사이드카 지원, 장소이동 수단 확보, 행사홍보 및 취재 협조, 예술 공연, 국기 게양
- 행사별: 공항 도착 및 출발, 공식 환영식, 국회방문, 엑스포 방문, 참전 기념비 헌화, 고궁 관람

3. 업무협조 요청 절차

- 외무부는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에 협조요청 공문 각각 발송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5 의전 III: 연회, 수행원)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12 / 1-168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1993년 방한 관련 환영만찬 계획 및 수행원에 관한 문서임.

1. 미테랑 대통령 환영만찬

- 초청 대상자 확정 및 초청장 발송
 - 프랑스 측: 수행원 등 38명, 외교단 2명
 - 한국 측: 3부요인 및 헌법재판소장, 정당 및 국회, 대통령실 및 행정부, 전직 대사, 재계 등 109명
- 초청자 좌석배치, 만찬 메뉴, 만찬사 포함 식순 확정

2. 대통령 수행원

- 공식 수행원, 실무 수행원, 기타 수행원, 통역 등으로 구성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6 결과보고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13 / 1-196

1993.9.14.~16.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결과 문서임.

1. 프랑스 대통령 방한 평가

- 새로운 차원으로의 한·프랑스 간 포괄적 협력관계 발전 기반 구축
 -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의
 -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 협의
 - 교역의 확대 발전, 상호투자 및 산업인력 교류 확대 협의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인

2. 정부부처별 성과

- 외무부: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의 추진, 한국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확보
- 상공자원부: 한·프랑스 산업협력 약정 체결, 중소기업인력 프랑스 연수 추진
- 교통부: TGV(프랑스고속철도) 및 에어버스 관련 기술이전 협력 기반 조성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과학기술 전문가 교류 확대 추진
- 체신부: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증진 추진

3. 방한 후속조치 추진

-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의
 - 프랑스 측은 반환형식으로 교환방식에 의한 영구임대 제의
- 첨단기술 이전 극대화
 - TGV 핵심기술 이전 및 국산화 극대화 확보 노력 경주
 - 한·프랑스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 통상증진, 상호투자 및 산업협력 확대
 - 프랑스 민간구매, 투자사절단 방한 추진
 -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1993년 내 개최 및 경제공동위원회 1994년 개최

4. 양국 언론의 동향

- 한국의 정치발전 및 경제성장 평가, 한·프랑스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 남북관계 동향 등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7 자료 I: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14 / 1-254

1993.9.14.~16.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관련 각종 자료임.

1. 미테랑 대통령 방한 시 활용 자료

- 한·프랑스 정상회담 자료
- 한·프랑스 정상회담 참고자료
- 환영만찬 시 만찬사
- 환영만찬 시 대화자료
- 프랑스 영부인 접견자료
- 환영만찬 시 영부인 대화자료
- 대언론 브리핑 참고자료
- 한·프랑스 외무장관 면담 참고자료

2. 외무부 작성 자료의 주요 내용

- 미테랑 대통령 개인 및 프랑스 소개
- 국제정세,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평가
-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 및 대유럽정책 설명
- 한·프랑스 관계 및 프랑스의 외교정책 평가
 - 양국의 관심사항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
 - 고속철도사업, 외규장각 도서, 북한 핵 문제, 유럽통합,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8 자료 II: 타부처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15 / 1-161

1993.9.14.~16.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관련 분야별 관계부처 자료임.

1. 관계부처에 대한 외무부 조치사항

- 한·프랑스 정상회담 시 협의 사항 요청
- 프랑스 측의 관심사항 소개
- 분야별 장관회담 주선

432

2. 부처별 양국 간 협의사항

-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교통부, 과학기술처 의견 취합
- 상공자원부
 - 시장접근 장애 해소, 반덤핑 규제완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지속, 자동차 수출 증대, 선박 수출, 투자확대, 구매사절단 한국 파견, 산업협력 증진 등 제기 희망
 - 프랑스 측 제기 예상: 원산지제도, 가격표시제, 모직물 품질표시, 전기용품 한글표시, 자동차 수입장벽, 위조상품 등
- 재무부: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금융시장 개방계획 등 소개 희망
- 교통부: 고속철도 관련 협의, 양국 간 관광교류 활성화 거론 희망
- 농림수산부: 프랑스 측이 프랑스산 자비육의 수입위생조건 협정 체결, 수출가금육의 작업장 승인, 우제품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협정 체결 등 제기 예상
- 과학기술처: 고속철도 기술이전, 항공우주·해양·정보통신 기술이전, 한·프랑스 과학기술재단 설립 희망
- 체신부
 - 한국 통신장비의 프랑스 진출 협조 희망
 - 프랑스 측 제기 예상: 멀티미디어 분야 협력, 고선명 TV 공동개발, 프랑스 교환기의 한국 통신시장 참여 등
- 환경처: 환경협력 증진 희망
- 법무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희망
- 문화체육부: 파리 소재 한국문화종합센터 건립 희망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1993.9.14.-16. 전9권 (V.9 자료 III: 부내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3 / 16 / 1-126

1993.9.14.~16.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관련 외무부 내 부서 간 협의 자료임.

1. 외무부 내 준비 과정

- 외무부 구주국은 부내 각 부서 및 주프랑스대사관의 의견을 요청하고 취합

2. 주프랑스대사관 의견

- 지역 및 국제정세
 - 한반도, 동북아, 유럽 등
- 양국 간 협력
 - 정무: 북한 핵 문제 공조, 방산협력
 - 경제: 분야별 공동위원회, 통상증진, 과학기술협력, 경부고속철도사업
 - 문화: 문화교류 증진, 한국문화종합센터 건립
- 다자간 협력
 - 국제기구 협력,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한·EC(구주공동체) 관계, 한국의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가입

3. 외무부 각 부서 의견

- 외교정책실: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체제, APEC(아태경제협력체)
- 아주국: 한·중국 관계, 한·일본 관계, 한·동남아 협력
- 미주국: 미국·북한 관계
- 국제기구국: 국제무대 협력,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 조약국: 군사비밀보호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등 체결
- 국제경제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치, 환경협력협정 체결, 연구기관 협력, 경부고속철도사업
- 통상국: 통상현안(모직물, 자동차, 지식재산권),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 문화협력국: 한국관 시정, 청소년, 관광, 지자체 교류 증진

Goncz, Arpad 헝가리 대통령 방한, 1993.11.3.-6.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23 / 17 / 1-246

곤츠 헝가리 대통령의 1993.11.3.~6. 방한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헝가리 정부는 1993.9월 대전 엑스포 '헝가리의 날'(11.4.) 행사 참석을 위해 곤츠 헝가리 대통령의 방한 검토
 - 비공식 양국 정상회담이 가능한 경우 적극 추진 의사 표명
- 1993.9.17. 주헝가리대사관은 외무부 지시에 따라 양국 비공식 정상회담 수용 의사 전달
- 1993.10.8. 헝가리 측은 곤츠 대통령의 방한 결정을 주헝가리대사관에 구두 통보

434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대전 엑스포 '헝가리의 날' 행사 참석
- 한국 문학인 초청 리셉션

3. 비공식 정상회담 요지

-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논의에 있어 헝가리의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 표명
- 곤츠 대통령은 한국을 아태지역의 주요 동반자로 인식하고, 기술과 자본 도입 희망 피력
 - 특히 한국을 모델로 개혁 추진 언급

Henri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방한, 1993.4.22.-2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24 / 1 / 1-61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세자의 1993.4.22.~24.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및 목적

-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도교 상주)은 1993.2.15. 앙리 대공세자가 괴벨스 경제장관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1993.4월 방한 예정임을 주일본대사를 통해 알렸음.
- 방한 목적: 경제협력 및 투자 유치

2. 주요 일정

- 앙리 대공세자
 -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SKC 방문
- 괴벨스 경제장관
 - 교통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면담

3. 괴벨스 경제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 간 면담(4.24.)

- 상공자원부장관은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5개 한국계 은행이 모행과 자본금을 합산하는 대우를 받아 오고 있는데 1994년 이후에는 룩셈부르크의 규정이 변하여 동 대우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 모행과의 자본금 합산폐지 재고를 요청함. 이에 괴벨스 장관은 EC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최대 여신 한도율을 자본금의 4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귀국 후 재무부와 금융감독원(IML)에 한국 측 뜻을 전달하겠다고 함.
- 또한 괴벨스 경제장관은 동북아시아와 유럽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국 간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서 서울-룩셈부르크 간 전세기 및 직항로 개설을 희망함.

4. 앙리 대공세자 기업체 방문

- 대공세자는 룩셈부르크는 파업이 없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으므로 대룩셈부르크 투자는 유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계획이 있을 시 룩셈부르크 정부와 접촉을 바란다고 말함.
- 한국기업체는 인건비가 비싸고 노동자 수가 적어 제조업보다는 유럽지역의 물류센터 등으로 투자 고려가 가능하다고 언급함.

Bolger, James B.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93.5.9.-12.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1과

MF번호 2023-24 / 2 / 1-194

Bolger 뉴질랜드 수상의 1993.5.9.~1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뉴질랜드 정부, Bolger 수상의 1993.5.9.~12. 방한 제의
 - Bolger 수상은 한국 방문 후 일본 및 중국 방문 예정
- 외무부, 뉴질랜드 측의 방한 제의 수락
 -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는 전통우방국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및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심화 발전

436

2. 주요 일정

- 정상회담,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국무총리 면담, 비원 관람
- 상공자원부장관 주최 조찬, 뉴질랜드 식품전 개막식 참석 등

3. 방한 결과

- 뉴질랜드의 단기 방문 목적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 발표
- 한국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 초청 및 수락

Bolger, James B.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93.5.9.-12. 전4권 (V.2 의전 I)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1과

MF번호 2023-24 / 3 / 1-232

Bolger 뉴질랜드 수상의 1993.5.9.~12. 방한 관련 의전 내용임.

1. 영접 준비

- 주요 점검사항(1993.4.22.)
 - 정상회담 시간은 확대정상회담이 없음을 감안, 1시간 20분으로 할당
 - 경제관계 각료 접견
 - 수상 부인 별도 일정(영부인 별도 환담, 남대문 쇼핑 등)
 - 외무부차관 별도 일정
 - 행사별 참가자 명단(정상회담, 영부인 별도 환담, 공식만찬)
 - 체재비 부담(숙소)
 - 차량 지원, 의료, 총기류 및 무전기 반입 허가, 출입국 및 화물통관 등

2. 불저 수상 내외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외무부 의전장실)

- 방한 개요
- 영접 준비사항(영예 수행, 서훈, 선물, 경호 등)
- 공식 방한 일정(수상 내외 일정, 수상 부인 별도 일정)
- 주요 행사 세부계획
- 외무부차관 별도 일정

3. 타부처 협조

- 경호 및 통신장비 반입 허가(대통령 경호실장)
- 지방 방문 시 광주공항 사용 협조(한국공항공단 이사장)
- 공항 환·영송 행사 지원(국방부장관)
- 비원 관람(문화체육부장관) 등

Bolger, James B.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93.5.9.-12. 전4권 (V.3 의전 II)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1과

MF번호 2023-24 / 4 / 1-103

Bolger 뉴질랜드 수상의 1993.5.9.~12. 방한 관련 의전 내용임.

1. 뉴질랜드 수상 내외를 위한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 일시 및 장소: 1993.5.10. 청와대 본관 총무실
- 복장: 평복(한국 측 부인: 한복)
- 메뉴: 미정(케이터링: 롯데호텔)
- 초청 범위(부부 동반): 75명
 - 뉴질랜드 수상 내외 및 공식수행원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외교단: 주한 호주대사, 파푸아뉴기니대사, 일본대사, 중국대사
 - 한국 3부요인 대표, 정당 대표, 국회, 행정부, 청와대, 양국 각종 단체장(윤석순 명예영사, 유준상 한·뉴질랜드 의원친선협회장), 경제계, 교육계

2. 뉴질랜드 수상 내외 광주 방문계획

- 방문 일시: 1993.5.11. 12:30~16:50
- 방문 목적: 한·뉴질랜드 치즈공장 및 낙농가 시찰
- 주요 행사
 - 공장 시찰(한·뉴질랜드 치즈공장, 매일유업)
 - 낙농가 시찰(호산나 목장)
- 수행(32명)
 - 공식 수행원, 비공식 수행원, 외무부 등

Bolger, James B.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93.5.9.-12.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1과

MF번호 2023-24 / 5 / 1-321

Bolger 뉴질랜드 수상의 1993.5.9.~12. 방한 관련 자료임.

1. 방한자료

- 볼저 수상 방한자료(주뉴질랜드대사관)
- 한·뉴질랜드 주요 통상현안(상공자원부)
- 한·뉴질랜드 항공협력 현황 및 계획(교통부)

2. 말씀자료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자료(청와대 외교안보)
- 볼저 수상 내외를 위한 공식만찬 시 환담자료(대통령)
- 뉴질랜드 수상 부인 예방 시 영부인 말씀자료(청와대 외교안보)
- 볼저 뉴질랜드 수상 예방 시 국무총리 말씀자료(외무부)

3. 참고자료

- 볼저 뉴질랜드 수상 방한 관련 참고자료(언론 배포용)
- 볼저 뉴질랜드 수상 내외를 위한 만찬 시 김영삼 대통령 만찬사
- 볼저 수상방한 준비 보고(외무부장관 앞 보고)
- 볼저 뉴질랜드 수상 부인 예방 시 말씀자료(영부인)
- 볼저 뉴질랜드 수상 내외를 위한 만찬 시 환담자료(대통령)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6 / 1-130

Ramos 필리핀 대통령의 1993.5.23.~26. 방한 관련 기본계획 문서임.

1. 방한 경위 및 일정 협의

- 1993.1.15. Rabe 주한 필리핀대사, 외무부차관 예방 시 Ramos 대통령 방한 및 동 시기 협의
- 1993.2.18. 구평희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국제회장, Ramos 대통령 예방 시 방한 타진
- 1993.2.25. 필리핀 국경일 계기 김영삼 대통령 축하 메시지 전달
- 1993.3.12. 외무부, 주필리핀대사에게 1993.5.23.~26. Ramos 대통령 방한 초청 제의 지시
- 1993.3.23. 주필리핀대사, Romulo 외무장관으로부터 방한 일정 확인
- 1993.4.15. 외무부, 주필리핀대사에게 김영삼 대통령 명의 Ramos 대통령 방한초청장 송부
- 1993.4.21. 주필리핀대사, Romulo 외무장관 통해 방한초청장 전달

2. 방한 시 추진 사업 등 협의

- 1993.3.24. 유병우 아주국장, Rabe 대사와 Ramos 대통령 방한 시 추진 현안 협의
-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혹은 Press Guide Line
-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범죄인인도조약, 양국 간 교역문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등
- 1993.4.1. 주필리핀대사, Rabe 대사와 Ramos 대통령 방한 계획 의견교환
- 국방부, 해군전역함정을 필리핀에 이양 추진
- 1993.4.14. 유병우 아주국장, Rabe 대사와 방한 의제 등 협의
- 1993.4.15. Ramos 대통령 공식 방한 관련 대통령 건의 재가문
- 1993.4.30. 주필리핀대사의 Ramos 대통령 방한 준비 관련 공관 의견 보고
- 1993.5.8. Ramos 대통령 내외 방한 발표문
- 1993.5.18. 주필리핀대사, 방한 필리핀 기자단 50명(일반기자 30명, 정부소속 20명) 보고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2 의전 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7 / 1-145

Ramos 필리핀 대통령의 1993.5.23.~26. 방한 시 의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의전과, 1993.4.29. 주필리핀대사관에 방한 일정한 송부

- 5.23.: 한국 도착, 주한 필리핀 교민을 위한 리셉션
- 5.24.: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개회식 및 Leaders Forum 참석 등
- 5.25.: 국립묘지 헌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국회방문 연설 등
- 5.26.: 이한

2. 외무부, 1993.5.13. 관련부처와 면담, 일정 등 협의

- 국회: 국회의장, 정계지도자 면담, 국회의장 주최 오찬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 서울시: 가로기 계양
- 내무부: 경기도 소재 필리핀 참전기념비 헌화 관련 고양시장의 영접·영송
- 공보처: 기록앨범, 기록영화 제작
- 문체부: 공식만찬 시 실내악단 준비
- 경호실, 관세청, 경찰청: Ramos 대통령 경호관 무기 휴대 반입 관련 협조
- 법무부, 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대한항공, 한국공항공단: Ramos 대통령 탑승기의 한국 영공통과, 이·착륙, 입출국, 화물하역 협조 등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3 의전 II)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8 / 1-158

Ramos 필리핀 대통령의 1993.5.23.~26. 방한 시 의전 관련 내용임.

1. 정부 부처 간 협조

- 1993.5.20. 주필리핀대사, 외무부에 Ramos 대통령 방한 공식 대표단 명단 보고
- 1993.5.20. 외무부는 법무부, 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대한항공 등과 필리핀 대통령 방한 예비기 영공통과 및 이착륙 관련 협조 요청
- 1993.5.20. 총무처, 정부 주요행사 업무분담 통보
- 1993.5.21. 교통부, 필리핀 항공기 운항 허가

2. Ramos 대통령 내외를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 준비(1993.5.25., 외무부 의전장실)

- 리셉션, 진행, 좌석배치도 등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4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9 / 1-70

Ramos 필리핀 대통령의 1993.5.23.~26. 방한 결과임.

1. 한·필리핀 정상회담(1993.5.25.)

● 단독회담

- Ramos 대통령: 한국전 참전 때 비가 많고 날씨도 추웠음을 상기하고, 필리핀이 현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립경찰 63명을 퇴임시켰는바, 군 개혁, 경찰 책임자와 지방장관에 대해서도 부정 혐의 조사 중임을 언급
- 김영삼 대통령: 32년간 성역 시 되어온 군, 검찰 등 권력층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복, 사회기강 확립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
- Ramos 대통령: 경제개혁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통상·투자·관광분야에서 투자를 증대시켜 부를 재분배하고자 함. 한·필리핀 무역 관련 한국이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길 기대함.
- 김 대통령: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관련 협조에 감사 표명하고 필리핀 노동자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며 기술 분야 협력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설명
- Ramos 대통령: 합정 12척 이양에 감사 표명하고, 한·미국·필리핀 3국이 안보관계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확대회담

- 김 대통령: 단독회담에서 외무, 상공,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정기적 협의 필요성에 합의했음을 언급하고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이 없음을 강조함.
- Ramos 대통령: 필리핀의 경제·정치적 민주화 후 경제개발, 한국은 경제 발전 후 민주화 추진을 하고 있는바 지향하는 것은 하나임을 언급함.
- Ramos 대통령: 필리핀의 에너지 산업분야, 특히 전력분야 참여를 기대하고, 그밖에 고속도로, 철도건설 분야에서도 협력을 요청함.
- 김 대통령: 노동문제는 대외적으로 아직 말하기 어려우나 여러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함.

2. Ramos 대통령 방한 계기 여타 면담 또는 합의

- 한·필리핀 외무장관 회담(1993.5.24.)
- 한·필리핀 의원친선협회 결성 합의문
 - Freddie Webb 상원 체육청소년위원장과 정재문 외무통일위원장 간 합의

3. 감사서한

- 1993.6.3. 외무부, 주필리핀대사에게 양국 국방장관(5.24.), 상공장관(5.24.) 회담 결과 요약 송부
- 6.7. 이만섭 국회의장 명의 Ramos 필리핀 대통령 앞 감사 서한
- 6.16. 주한 필리핀대사관의 김영삼 대통령, 최동진 외무부 의전장 앞 서한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5 준비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10 / 1-134

Ramos 필리핀 대통령의 1993.5.23.~26. 방한 관련 준비자료임.

1. 한·필리핀 통상현안(1993.4.5., 주필리핀대사 보고)

- 필리핀산 Floppy Disk Drive 원산지 규정 완화 희망
- 신선 망고 및 파파야 수입제한 완화 요망
- 코코넛오일 관세 인하 희망
- 필리핀 무역수지 적자 감축 희망

444

2. 한국해군함정의 대필리핀 이양 합의서(안)

- 고속정 12척 및 소요 장비, 수리부속품, 기술교범, 참고자료 등 이양

3. 한·필리핀 투자보장협정,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관련 현안(1993.4.27., 주필리핀대사 보고)

- 한국 측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희망 관련 필리핀 관계부처에 재전달 예정
- 필리핀은 자국의 복잡한 행정절차 및 매칭 펀드 부족으로 외국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활용이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자금 활용방안 문의

4. 한국 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 관련 현안

- 주한 필리핀대사, 노동부장관 면담(1993.5.11.)
 - 필리핀 근로자의 특별훈련에 관한 합의각서(안)를 체결하는 방안
 - 12,000명의 필리핀 불법체류, 취업자 문제 등 협의
- 불법체류 필리핀인 분야별 현황 및 한국 측 입장(5.12., 법무부)
 - 5.11. 현재 불법체류 필리핀인 11,848명 중 9,324명은 지난해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중 제조업체의 신고로 출국유예 조치되어 근무 중이며, 불법체류자의 지위를 합법화하거나 산업기술연수생으로 활용하는 방안임을 외무부에 통보

Fidel V. Ramos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93.5.23.-26. 전6권 (V.6 계기별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11 / 1-164

Ramos 필리핀 대통령의 1993.5.23.~26. 방한 시 계기별 말씀자료임.

- 필리핀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만찬 시 대화자료
- 필리핀 대통령 내외를 위한 김영삼 대통령 만찬사(안)
-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시 Ramos 대통령 답사
- Ramos 대통령 내외를 위한 환영사
- Ramos 대통령의 환영식 답사
- 한·필리핀 외무장관회담 자료(1993.5.24., 외무부 아주국)
- 한·필리핀 정상회담 자료(5.25., 외무부)
- 필리핀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만찬 시 각하 말씀자료(5.25., 외무부)
- Ramos 대통령 내외분 공식만찬 시 영부인 말씀자료(5.25., 외무부)
- 필리핀 대통령 부인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5.25., 외무부)

Soares, Mario 포르투갈 대통령 방한, 1993.10.15.-1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12 / 1-193

Mario Soares 포르투갈 대통령의 1993.10.15.~1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포르투갈의 일본 기항 450주년 기념을 위한 일본 공식 방문 직전에 방한하여 대전 엑스포 '포르투갈의 날'(10.16.) 행사 참석

2. 방한 목적

- 양국 간 유대강화 및 대전 엑스포 참관

3. 방한 일정

- 김영삼 대통령 예방 및 오찬, 판문점 시찰
- 대전 엑스포 '포르투갈의 날' 행사 참관, 경주 시찰

4. 양국 정상 간 면담(10.15.)

-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한 지도자로서 각기 경의 표명
- 양국 간 경제협력 희망
-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방안 협의

5. 방한 성과

- 문민정부의 민주주의와 개혁 추진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산
- 한·포르투갈 간 새로운 차원으로의 협력관계 기반 구축
- 남북통일 문제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인

Soares, Mario 포르투갈 대통령 방한, 1993.10.15.-18.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13 / 1-178

Mario Soares 포르투갈 대통령의 1993.10.15.~18. 방한 관련 자료임.

1. 포르투갈 대통령 비공식 방한 관련 자료 준비

- 외무부 국제기구국
 -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포르투갈의 지지 확보 희망
- 외무부 통상국
 - 양국 간 무역협정에 따라 포르투갈 측의 무역실무위원회 조기 개최 제의에 동의하고, 대전 엑스포 참가를 통해 포르투갈의 상품과 문화가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널리 소개되기를 희망
- 한·포르투갈 양자 간 수출입 현황 등 자료 제공

2. 접견자료 내용

- 1984년 수상 재임 시 1차 방한 경험을 가진 Soares 대통령의 방한 환영, 1961년 수교 이후 최초의 양국 원수 간 만남의 의의 강조
-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설명
- 포르투갈의 EC(구주공동체) 가입 및 동티모르 문제 등에 관한 자료
-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관계 발전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14 / 1-218

Alberto Fujimori 페루 대통령의 1993.6.2.~4. 방한 관련 사전 준비 내용임.

1. 방한 희망 의사 접수

- 1990.7월 Fujimori 페루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노신영 특사는 동 대통령에 대해 구두로 방한 초청
- 페루 정부, 주페루대사를 통해 1993.5~6월 중 한국 공식 방문 희망 의사를 전달
- 외무부는 한국을 경제개발의 귀감으로 찬양하는 동 대통령의 방한 희망 의사를 한·페루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관계 심화와 경험관계 등 필요성에 따라 1993.6.2.~4. 일정으로 방한을 접수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

448

2. 1993년도 외빈 방한 계획 확정

- 외무부는 1993.4.22. 1993년도 외국 수상급 이상 외빈의 공식 방한 접수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 상반기 중 실적 및 계획에 페루 대통령의 방한이 6.2.~4.으로 계획됨.

3. 정상회담 준비 등

- 외무부는 1993.5.12. 정상회담 의제로 국제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중남미 및 페루 정세, 양국관계 등을 페루 측에 제시하도록 주페루대사관에 지시함.
 - 공식 환영사, 청와대 만찬사 등의 각종 연설문 작성
 - 자료작성 시 반드시 언급 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방한 이후의 여타국 방문 일정 등

4. Fujimori 대통령 방한 준비 보고(1993.5.31., 외무부 남미과 작성) 수록

- 방한 개요
- 인적사항
- 주요 방한 일정
- 정상회담 주요 의제
- 의제별 말씀요지 등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2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15 / 1-112

Alberto Fujimori 페루 대통령의 1993.6.2.~4. 방한 결과임.

1. 경위

- Fujimori 대통령,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한 희망
- 외무부, 대중남미 통상 및 경제협대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페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초청 결정
- 1993.5.4. 대통령 명의 초청장 발송
 - 페루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 비공식 방문(5.30.~6.2.)

2. 방문 형식

- 대통령 초청에 의한 국민 방문

3. 한·페루 정상회담(1993.6.2., 청와대)

- 페루 대통령으로서의 최초의 방한
- 북한 핵 문제 관련 주요 언급 내용
 - 한국 측: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 될 것임. 북한은 반드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수락해야 함.
 - 페루 측: 페루는 한국 입장을 전폭 지지함.
- 한·페루 경제협력 관련 주요 언급 내용
 - 페루 측: 페루 내 한국공업단지 조성 희망, 쿠스코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한국기업의 참여 요청 등
 - 한국 측: 매우 도움 되는 제의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외무장관회담에서 논의 희망

4. 페루 대통령 방한 의의

- 기존의 우호협력관계 심화
 - 수교 30주년을 맞아 최초의 페루 대통령 방한
- 무역, 투자 및 경제협력 증진
 - 특히 자원개발 및 수산분야 협력
- 한국의 발전상과 신한국 창조 노력 관찰

5. 후속조치

- 페루 대통령, 한국 대통령 앞으로 친서 송부
 - 방한 시 환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방한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
- 한국 대통령 답신은 추후 준비하여 송부 예정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3 의전 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4 / 16 / 1-145

Alberto Fujimori 페루 대통령의 1993.6.2.~4. 방한 시 의전 관련 내용임.

1. 방한 일정

- 외무부는 1993.4.29. 페루 대통령의 잠정 방한 일정(안)을 타전하고, 페루 측 추가 희망이 있을시 보고할 것을 주페루대사관에게 지시함.
 - 6.2(수): 김포도착, 청와대 공식 환영식 및 훈장 교환식, 정상회담, 청와대 공식 만찬
 - 6.3(목): 국립묘지 헌화, 국회의장 주최 오찬,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 시찰, 김우중 대우회장 주최 만찬
 - 6.4(금):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수원 삼성전자 시찰

2. 공동발표문, 공식 수행원 및 비공식 수행원 관련 한국 측 관례

- 주페루대사는 1993.4.30. 한국 측이 제시한 공동발표문에 대해 페루 외상이 원칙적으로 동의함을 알려왔다고 하면서, 공동발표문의 발표 시기는 대통령에게 보고 후 5.4.까지 회보하겠다고 하였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5.3. 대통령 방한 시 대통령의 숙소 내 제반경비와 공식 수행원에 한해 호텔 내 식사비 (국제전화 등 사적경비는 제외)만을 부담하고, 기타 수행원은 공식 행사와 관련한 차량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 측 관례임을 주페루대사관에 통지함.

3. 환영사 및 만찬사

- 외무부는 1993.5.17. 한국 측 환영사 및 만찬사 요지를 통보하면서, 페루 측 환영답사 및 만찬 답사를 조속 입수 보고하도록 주페루대사관에 지시함.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4 의전 I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1 / 1-113

Alberto Fujimori 페루 대통령의 1993.6.2.~4. 방한 시 의전 관련 내용임.

1. 행정사항

- 외무부는 1993.5.6. 페루 대통령 방한 시 경호원들이 지참할 총기 관련 자료를 조속 보고할 것을 주페루대사관에 지시함.
 - 총기 종류(제조국, 총기번호, 휴대 실탄 수)
- 주페루대사관은 5.26. 페루 측이 비공식 수행원을 추가로 통보해왔다고 보고함.

2. 의전사항

- 주페루대사관은 1993.5.21. 한국 국회의장 주최 오찬 시 시행할 페루 측 연설문을 타전함.
- 주페루대사관은 5.27. 한국 대통령 주최 만찬 시 페루 대통령의 답사 후미 촉배 문구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김영삼 대통령 각하, 본인은 한국 국민의 번영을 기원하고, 각하 재임 중 한국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친구로서 열망하며, 아울러 이번 회동으로 이루어진 우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국문)

3. Fujimori 페루 대통령 국민방한 영접계획(안)(외무부 의전실 작성자료) 수록

- 방한 개요
- 영접 준비사항
- 공식 방한 일정(안)
- 주요행사 세부계획 등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5 의전 II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2 / 1-146

Alberto Fujimori 페루 대통령의 1993.6.2.~4. 방한 시 의전 관련 자료임.

1. 페루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 주최 만찬 초청대상(안)(1993.5.18., 외무부 미주국 작성)
2. Fujimori 대통령을 위한 공식 만찬 시 환담자료(대통령 용)(외무부 작성)
 - 대통령 인적사항
 - 대통령 주요 방한 일정
 - 말씀 요지
3. Fujimori 대통령을 위한 만찬 시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 만찬사(안)(한글)
 - 동 환영사에 대한 Fujimori 대통령 답사(한글)
4. Fujimori 대통령을 위한 국민만찬 시 환담자료(영부인 용)(외무부)
 - 대통령 인적사항
 - 대통령 주요 방한 일정 등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1993.6.2.-4. 전6권 (V.6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3 / 1-236

Alberto Fujimori 페루 대통령의 1993.6.2.~4. 방한 관련 각종 참고자료임.

1. 말씀자료

- 한·페루 정상회담 자료(외교안보)
- 페루 대통령을 위한 국민 만찬 시 영부인 말씀자료
- 한·페루 정상회담 참고자료
- Fujimori 페루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 시 환영사(안)
- Fujimori 대통령 오찬사
- 한·페루 외무장관 회담자료

2. 각 실국 및 관계부처 송부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페루 투자 타당성 검토 내용
- 페루 대통령 방한자료
- 재무부, 페루 대통령 방한 관련 자료
- 상공자원부, 페루와의 통상 자료
- 농림수산부, 한·페루 현안 자료
- 대페루 통상증진 방안

Carter, Jimmy 전 미국 대통령 남·북한 방문계획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25 / 4 / 1-189

1991~93년 중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남북한 동시 방문 추진 관련 내용임.

1. 카터 전 대통령의 남북한 동시 방문 제기

- 1991.6.7. 한시해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 카터 전 대통령을 방문하여 방북 초청 의사 전달
- 1991년 10월 카터 전 대통령, 뉴욕에서 김영삼 북한 외교부장을 만나 방북 초청장을 접수
 - 카터 전 대통령 측, 한국 입장을 감안, 사전 답사반의 남북한 파견을 추진
- 1992.4.30. 조순승 민주당 의원, 애틀랜타에서 Spencer 교수를 면담하고 진전사항 협의

454

2. 남북한 동시 방문 사전 답사

- 1992.7.15.~19. Spencer 교수 일행, 카터 전 대통령의 남북한 동시 방문 사전답사 차 방한
 - 외무부 제1차관보, 교류재단 이사장,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민주당 총재 등 면담
- 7.21.~25. Spencer 교수 일행, 한국에 이어 북한 방문
 - 8.13. 주애틀랜타총영사, Spencer 교수를 만찬에 초청하여 방북 소감 청취

3. 남북한 동시 방문 진전사항

- 1993.2.15. 주미국대사, 카터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 입장 설명
 - 2.16. 주미국 북한대사, 카터 전 대통령 면담
- 3.1. 카터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앞 친서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송부
 - 자신의 남북한 동시방문은 남북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
- 3.4. 카터 전 대통령,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상황 청취
- 4.9.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무기한 연기 사실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 6.14. 외무부장관, 비엔나 개최 인권회의 계기에 카터 전 대통령 예방
 - 카터 전 대통령, 한국 정부와 협의 하에 적절한 시기 북한 방문 희망 피력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5 / 5 / 1-155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3.7.10.~11.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및 의의

- 1993.7.7.~9. 일본 도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직후 방한
- 1993.1월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과 1993.2월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래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2. 주요 일정

- 정상회담 및 공식만찬
- 김 대통령과 조깅 및 조찬
- 주한미군 방문 및 전방 시찰

3. 방문단

- 클린턴 대통령 내외,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에스핀 국방장관, 켄터 무역대표 등

4. 정상회담 형식 및 주요 의제

- 단독회담(20분)
 - 민주주의 및 인권 등 공동의 가치, 개혁정책 등 정치 철학에 관해 견해를 나누면서 양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 구축 기회로 활용
- 확대정상회담(60분)
 - 안보 문제, 북한 핵 문제, 통일정책, 경제 및 통상 문제 등 대부분의 실질 의제 협의
- 조깅 및 조찬
 - 가급적 사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2 정상회담 준비(통상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5 / 6 / 1-144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3.7.10.~11. 방한 관련 경제 분야 국내 회의 및 대미 접촉 문서임.

1.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1992.6.2.)

- 경제기획원 주재
- 경제 분야 대응방향 논의
 -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제도·관행의 개방·국제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향 언급
 - UR(우루과이라운드), APEC(아태경제협력체) 등 국제 자유무역질서 형성에 능동 참여 및 기업 활동의 세계화 지원
 - 지식재산권, 금융시장 개방, 수입 밀 검역, 소고기 시장 개방 등에서 미국 측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

2. 제11차 한·미 경제협의회(1993.6.24., 서울)

- 참가자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차관 외 관계부처 국장
 - 미국 측: 스페로 국무부 경제차관 외 통상대표부, 상무부 재무부 등 경제부처 관계관
- 양국 간 동반자 관계 강화방안으로 DEC(한미경제협력대화) 설치, 정상회의 준비,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3. 한·미국 정상회담 대비 관계장관회의(1993.6.29.)

- 참가자
 - 경제부총리(주재),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자원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장관, 경제수석, 총리행정조정실장
- 토의 내용(한·미국 정상회담 시 경제 분야 기본 대응방안)
 - 한·미국 관계 전반 평가
 - DEC, UR, APEC 등 한·미국 간 공동 관심사항
 - 한·미국 과학기술 협력방안 등 한국 측 제기사항
 - 미국 측에서 제기한 개별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3 계기별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5 / 7 / 1-203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3.7.10.~11. 방한 관련 회담 자료임.

1. 정상회담(1993.7.10.) 말씀자료

- 단독회담
 - 신정부의 개혁정책, 미국의 세계적 지역적 역할 평가, 한·미 관계의 중요성 및 동맹·동반관계 발전, 북한 지도체제에 대한 평가,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등

2. 한·미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자료

- 대통령 말씀자료(국문, 영문)
- 미국 대통령 모두말씀(비공식 국문)

3. 대화자료

- 조깅 및 조찬 대화자료
- 야구관람 시 대화자료
 - 양국 대통령이 프로야구를 함께 관람하는 일정을 검토하였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취소됨.
- 공식만찬 시 대화자료
 - 사전 협의에 따라 민주주의 확산과 실천을 위한 한·미 협력,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지역안보 협력 문제를 중점 논의하기로 함.
- 정상회담 각료 별도 대기 시 대화자료

4. 영부인 말씀자료

- 클린턴 미 대통령 부인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25 / 8 / 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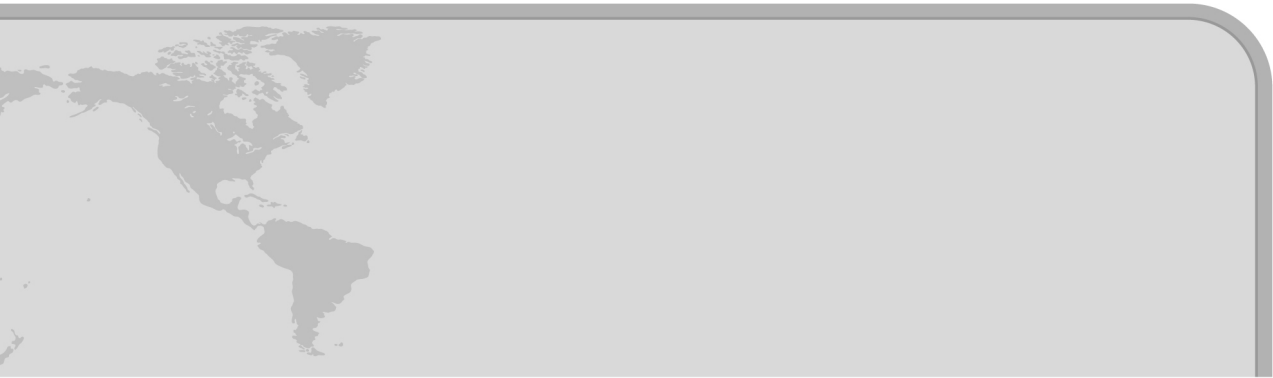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3.7.10.~11. 방한 결과임.

1. 주요 일정

- 국회 연설, 공식만찬
- 주한 미군기지 방문 및 전방 시찰

2. 주요 협의내용

- 한·미국 간 동맹·동반관계의 발전
 - 한·미국 간 포괄적 동맹·동반관계의 장기적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확인
 - 미국 측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한·미국 관계의 항구적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양자 안보협력
 - 양자 안보협력 관계가 굳건히 유지되어야 하며, 동 협력관계의 강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에 긴요한 요소라는 공동인식 확인
- 북한 핵 문제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및 한·미국 양국 공히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 영구 잔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의무 이행, 효과적인 상호 사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실천)이라는 목표와 원칙에 합의
 - 양측은 한·미국 공조체제를 평가하고, 특히 한국 측은 미국의 대북한 대화 등 제반 노력에 신뢰 표시
 - 미·북한 간 접촉은 생산적인 한계 내에서만 계속될 것이며, 미·북한 간 접촉 시 한국과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해 나갈 것임을 확인
- 한반도 통일
 -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핵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함을 재확인
- 남북한 관계
 - 미국 측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미·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됨을 재확인
- 양자 경제·통상협력
 - 미래지향적, 다원적 경제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합의
 - 미국 측은 양국이 무역수지 균형 등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만족 표명



-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 신태평양 공동체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
 - 아·태지역의 경제발전 지속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 김 대통령 방미 초청

3. 방한 의의 및 평가

- 태평양시대의 새로운 동맹 관계 구축
- 확고한 한·미국 안보협력관계 확인
- 다차원적인 경제협력관계 출범
- 양국 정상 간의 협력관계 형성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5 별도 외무장관회담)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25 / 9 / 1-91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3.7.10.~11. 방한 시 별도로 개최된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1993.7.11.) 관련 내용임.

1. 주요 의제

- 한·미국 정상회담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2. 주요 협의내용

- 세계화, 지역협력, 미래지향의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신외교정책 설명
 - 한·미국 관계가 한국의 대외관계, 특히 안보협력의 기초임을 재확인
 - 한반도 중심에서 세계 전체로 시각 확대(인권, 군축, 환경,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등)
 - APEC(아태경제협력체) 발전, 지역 다자안보대화 추진 등 지역협력 증진에 적극 참여
 - 통일과 그 이후를 바라보는 정책 추진
 - 한국 사회의 개방화, 국제화 관련 과제
- 북한 핵 문제
 - 미·북한 대화 추진,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등과 관련한 한·미국 간 공조체제 지속 필요성
 - 미·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재확인
- 아·태 협력 발전 및 동북아 등 지역차원에서의 협력 강화
 - 클린턴 대통령의 '신태평양 공동체' 제안 환영
 - 아·태지역 내 협력의 구체화(APEC의 발전) 추진
 - 지역차원의 안보대화 증진에는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담)를 활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동북아지역 차원에서도 다자안보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 제시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 1993.7.10.-11. 전6권 (V.6 언론 홍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5 / 10 / 1-113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3.7.10.~11. 방한 관련 한국 정부의 홍보계획 관련 문서임.

1. 주미국대사관, '특별홍보 계획' 건의

- Burson-Marsteller 홍보회사를 활용, 아래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계획 수립
 -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민주화 추진 실적 홍보
 - 미국의 중요 통상파트너로서의 한국의 경제 발전상 소개
 - 양국 대통령의 도덕적 청렴과 정치개혁 의지 부각
 - 한·미국의 확고한 안보동맹 관계 재조명

2. 주미국대사관의 현지 홍보활동

-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 목표 하에 홍보 계획을 추진
 - 한·미 관계의 중요성 인식 등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최대한 확산
 -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내 친밀도 증진 및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 양국관계를 세계와 미래를 향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
- 미국 언론 대상 사전 배경 설명회 개최(9개사 10명 대상)
- 한·미 정상회담 의의 및 신한국 창조 부각 보도·해설자료 배포 10종
- 백악관 출입기자단에 대한 특별회신 대책(자료 배포 및 설명회 추진)
- 주미국대사의 National Press Club 연설 등 다수

3. 김영삼 대통령의 Mike Chinoy CNN 기자 대담 방송(1993.7.9.)

- International Hour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
- 북한 핵 문제와 한국의 개혁 정책에 관한 내용

4.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인터뷰

- 한승주 장관의 인터뷰를 사전 제작, 미국 내 각 라디오 방송사에 클린턴 대통령 방한 계기에 방송되도록 배포

5. Warren Christopher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언론 5개사 초청 기자회견

- 동 국무장관은 클린턴 대통령 방한 및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주 언론 5개사를 선정,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



- 일시 및 장소: 1993.7.1., 국무부 회의실
- 참석: MBC, 한국일보, NHK, 아사히신문, FEER 등 5개사
- 예상 질문 내용
 - 한·미 정상회담 의제,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 내용
 -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 및 시한 설정 여부
 - 미·북한 관계 전망 및 한·미·북한 3자 관계
 - 한·미 경제·통상협력 전망
 - 아시아 안보전략, 주한미군의 위상, 지역안보협력기구 구상 방향
 -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추진 방향 등
- 동 회견 내용은 7.2. MBC 아침뉴스 시간에 방영 예정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의전], 1993.7.10.-11. 전4권 (V.1 영접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11 / 1-279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3.7.10.~11. 공식 방한 관련 외무부의 영접 계획임.

1. 방한 영접 계획 보고

- 외무부는 1993.7.8. 클린턴 미국 대통령 내외 방한 영접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함.

2. 세부 계획

- 한·미국 간 일정 조정
 - 미국 측은 미 국민에 대한 안보 메시지 전달을 위해 DMZ 방문을 중요한 행사로 간주
 - 미국 측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효과 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의 연설을 희망하나, 연설시간이 토요일 오후이므로 대학에서의 연설도 검토
- 정상회담 시간을 한국 측의 희망대로 1시간 20분으로 20분 연장
-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 성격을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합의
- 힐러리 여사를 위해 여성대표 접견, 문화 또는 보건 분야 별도 일정을 검토
- 양국 대통령이 프로야구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전방 미군부대 방문 등 시간 제약으로 취소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의전], 1993.7.10.-11. 전4권 (V.2 선발대/만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12 / 1-143

클린턴 대통령의 1993.7.10.~11. 한국 공식 방문 관련 미국 측 선발대와의 협의 내용임.

1. 미국 측 선발대 방한(1993.5.18.~20.)

- 선발대 구성: Bev Lindsay 팀장 포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성 등 소속 관계자 24명
- 활동 내용
 - 한·미국 합동회의 참석
 - 사전 답사: 청와대, 국회, 국립묘지, 주한 미국대사관저, 창덕궁 후원, 경복궁, 서울 프레스센터, 조선히otel, 잠실야구장, 미8군(용산), 미군기지(캠프 케이시, 캠프 그리브스), 민속촌 등
- 주요 협의 사항
 - 방한 일정 조정: 한국 측은 7.9.(금) 저녁 도착을 희망하였으나, 미국 측은 G7 정상회의 후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일정 등을 들어 7.10.(토) 오후 도착의 불가피성을 설명
 - 정상회담 소요시간 연장: 한국 측 요청대로 1시간 20분으로 하고, 회담은 단독회담 및 확대 회담으로 구분, 개최하기로 합의
 - 기타 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 국회 연설, 한·미 정상 간 조깅 및 조찬, 숙소 문제 등에 관해 협의

2. 청와대 공식 만찬 계획

- 일시 및 장소: 1993.7.10.(토). 19:30~21:30
- 메뉴: 한식
- 초청 범위(부부 동반)
 - 미국 측(21명): 클린턴 대통령 내외, 공식수행원 중 13명, 주한 미국대사대리, 주한 미군사령관 등
 - 한국 측(61명): 3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 행정부, 청와대, 언론계, 경제계, 학계 인사, 전직 주미국대사 등
- 참고자료
 - 예비 초청자 명단, 메뉴(안), 만찬 세부진행 절차(안), 행사장 배치도, 만찬 좌석표, 초청장, 만찬 입장카드 등 의전 관련 비표, 관현악 준비 곡, 관현악단 등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의전], 1993.7.10.-11. 전4권 (V.3 항공기/출입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13 / 1-144

클린턴 대통령의 1993.7.10.~11. 공식 방한 관련 외무부 의전실의 출입국 및 의전 관련 문서임.

1. 서울공항 이용 및 출입 허가

- 미국 대통령 전용기 기착 관련, 미국 측 선발대 공항 사전답사 등
 - 전용기의 영공 통과, 입·출국 시 수속 및 통관 지원, 항공기 정비 및 지상조업 지원 등
 - 한·미국 양측 행사 관계자 공항 출입, 환송행사 기자단 출입, 환송 민간인 공항출입 허가 등

2. 방한 수행원 사증발급 지원

- 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및 기술진 포함 133명

3. 미국 대통령 전용 차량 통관 지원

4. 사증발급 신청자 명단, 공항 출입 허가자 명단 등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방한[의전], 1993.7.10.-11. 전4권 (V.4 경호/차량)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14 / 1-104

클린턴 대통령의 1993.7.10.~11. 공식 방한 시 행사 관련 문서임.

1. 각종 장비 반입·출

- 통신 장비 반입 및 주파수 사용 승인
- 경호용 장비 반입 승인

2. 행사 계획

- 행사 관련 일정
- 행사 참가자 명단
- 외빈 차량 지원계획

Nixon, Richard 전 미국 대통령 방한, 1993.4.7.-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25 / 15 / 1-58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1993.4.7.~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 목적

- 1993.4.4.~15.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지역의 상황 파악을 위한 사적 여행

2. 주요 일정

- 노태우 전 대통령 주최 조찬
- 김영삼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오찬

3. 방문 결과

-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방문 소감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16 / 1-116

키팅 호주 수상의 1993.6.20.~23. 방한 관련 양측 간 방한 준비과정 내용임.

1. 방한 추진 경위

- 호주 노동당 정부가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키팅 수상 재집권 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방문을 추진
 - 1992.9월 일본, 싱가포르 순방 시 한국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한국 측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한국은 호주가 전통 우방국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아·태 협력 문제의 주요 파트너이자 같은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

468

2. 방한 기간 및 주요 일정 협의

- 방한 기간: 1993.6.20.~23.(6.23.~27. 중국 공식 방문 예정)
- 주요 일정
 - 공항 환영식, 국립묘지 헌화
 - 김영삼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대통령 주치 공식만찬
 - 판문점 시찰, 경주 방문, 포항제철 시찰

3. 주요 의제(한국 측 제안)

- 지역 문제
 - 지역안보, 북한(북한 핵 포함), 러시아, 중국, 한국과 호주의 대외정책(아태지역)
- 국제 경제 및 무역 문제
 - 글로벌 경제 전망, UR(우루과이라운드), APEC(아태경제협력체)
- 양자 관계
 - 호주와 한국의 경제 및 개혁 정책, 양자 무역관계, 여타 경제 이슈(투자 포함)

4. 기타

- 공식 방한초청장은 별도로 발송하지 않기로 함.
- 키팅 수상 방한 사실을 1993.5.27. 공식 발표하기로 함.
- 별도의 선발대는 파견하지 않으며, 경호팀이 3일 전에 방한하여 행사장을 사전에 답사 예정임.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2 자료 I(의제 및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5 / 17 / 1-183

키팅 호주 수상의 1993.6.20.~23. 방한 관련 정상회담 의제 협의 등 외무부 작성 문서임.

1. 주요 의제(외무부장관 앞 보고)

- 신한국 및 신외교
- 국제정세 및 경제외교
- 북한 핵 문제
- 아태지역 협력
 - 정상회담, 역내 무역자유화
-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 2000년 올림픽의 시드니 유치 문제

2. 정상회담 자료

- 회담 자료(주호주대사관 작성)
 - 호주의 대외정책 기초, 주요 외교시책 및 전망
 - 이창범 주호주대사의 양국관계 전반에 관한 연설문 9건
 - 만찬사에 포함 시킬 내용
- 키팅 수상 방한 자료(통상국 작성)
 - 한·호주 통상 현안,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현황과 전망, 한·호주 항공관계 현황
- 키팅 수상 방한 자료(외교정책실 작성)
 - 아태지역 협력 말씀 요지, APEC(아태경제협력체) 현황 및 양국 입장, 아태지역 정세 및 안보 문제, '지역안보대화' 대응 방안
- 키팅 수상 방한 자료(국제기구국 작성)
 - 북한 핵 문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선출
- 키팅 수상 내외 공식 방한 관련 장관 보고(아주국 작성)
- 키팅 수상 내외 공식 방한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외무부 작성)
- 한·호주 정상회담 참고자료(외무부 작성)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3 자료 II(각종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1 / 1-147

키팅 호주 수상의 1993.6.20.~23. 방한 관련 정상회담 및 각종 말씀자료, 만찬사 등 준비자료임.

- 폴 키팅 호주 수상 내외를 위한 만찬 시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 만찬사(대양주서남아과)
- 호주 수상 내외분을 위한 만찬 시 영부인 대화자료(외교안보, 외교)
- 호주 수상 내외분을 위한 만찬 시 대화자료(외교안보, 외교)
- 호주 수상부인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외교안보, 외교)
- 한·호주 정상회담 자료(외교안보, 외교)
- 한·호주 정상회담 자료(외무부)
- 폴 키팅 호주 수상 예방 시 국무총리 말씀자료(외무부)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6 만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4 / 1-82

키팅 호주 수상의 1993.6.20.~23. 공식 방한 관련 만찬 준비 내용임.

- 자료 목록
 - 김영삼 대통령 만찬사, 키팅 수상 답사
 - 만찬 메뉴
 - 만찬 세부 진행절차(안)
 - 접견 관련 도표
 - 접견 시 리시빙 라인 및 내빈 정열도
 - 만찬장 테이블 배치도
 - 헤드 테이블 좌석 배치도
 - 실내악 연주계획, 연주곡목 및 악기편성
 - 만찬 참가자 명단
 - 만찬 비표 리스트
 - 만찬 시 입장계획(차량 정보)

Keating, Paul John 호주 수상 방한, 1993.6.20.-23. 전7권 (V.7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5 / 1-66

키팅 호주 수상의 1993.6.20.~23. 공식 방한 관련 방한 결과 및 후속 조치 문서임.

1. 키팅 수상 방한 결과(장관 보고사항)

- 주요 일정
 - 정상회담,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 총리 예방, 상공자원부장관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포항제철 방문, 불국사, 석굴암 관람 등
- 주요 협의 사항
 -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기구 활성화 공동 노력, APEC 정치·안보대화 필요성 인식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및 사찰 수용을 위한 공동 노력
 -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경제공동위원회 설립 합의, 산업기술협력 약정 서명, 호주 관세율 인하 계획 통보
- 방한 결과 및 의의
 -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아·태 정상회담 추진 및 안보대화 협력 합의
 - 북한 핵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으로 경제 분야 협력 강화 추구, 호주의 관세율 인하 계획에 따른 대호주 수출환경 개선
 -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방한 후속 조치 예정
 - 정부 고위인사 호주 방문 추진, 제1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준비

2. 후속조치

- 키팅 수상의 대통령 앞 감사 서한과 김영삼 대통령의 답신 교환
- 주호주대사관은 외교정책기획실, 미주국에 방한 결과보고서를 배포
- 주호주대사관의 수상실 외교보좌관 면담 방한 결과 평가 보고

3. 참고자료

- 한·호주 정상회담 면담요록(외무부)
- 국무총리·키팅 수상 면담요록
- 키팅 수상 방한 관련 호주 언론 보도 기사

Laar, Mart 에스토니아 총리 방한, 1993.9.22.-26.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6 / 1-100

Mart Laar 에스토니아 총리의 1993.9.22.~26.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대전 엑스포 조직위, 발트 3국의 엑스포 참가 및 고위인사 방한 적극 교섭
 - 방한 경비(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지원, 주한 명예영사관 측에서도 추가경비 지원

2. 방한 인사

- Mart Laar 에스토니아 총리 및 경제장관, 상공장관 등 수행원 4명

3. 주요 일정

- 주한 명예영사 만찬
- 엑스포 '발트 3국의 날' 행사 참석
- 엑스포 조직위원장 주최 오찬, 에스토니아 총리 주최 만찬
- 기아자동차 시찰, 국무총리 면담, 국무총리 주최 만찬 등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1 사전준비 I: 1985-92.9월)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7 / 1-172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9.12월 노태우 대통령 명의 친서를 통해 방한 초청
- 1992.4월 Kohl 독일 수상의 고속전철사업 관련 노 대통령 앞 친서에 대한 답신에서 1992년 중 방한 요청
- 1992.6월 독일 측은 주한 독일대사를 통하여 1992.10.13.~14. 방한 희망 의사 전달
- 1992.8월 말 독일 측 선발대 답사 및 협의 실시
- 1992.9.4. 양국 정부, 공식 방한 발표

2. 방한 연기

- 1992.9.22. EC(구주공동체) 특별정상회의 긴급 소집 결정으로 동 정상회의(1992.10.13.~14.)와 기간이 대부분 겹치는 Kohl 수상의 아시아 순방계획을 일단 취소함.
 - 독일 측은 추후 아시아 순방 시기를 잠정적으로 1993.2월 말로 고려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2 사전준비 II: 1992.10-93.2월)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8 / 1-238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10.1. 주한 독일대사, 외무부 방문 시 Kohl 수상의 친서(방한 연기 통보) 전달
 - 본국 훈령에 따라 차기 방한 희망 시기(1993.2.25.~27. 또는 2.22.~24.) 제시
 - 추후 독일 측은 한국 측의 신정부 출범(2.25.)을 고려하여 1993.3.1.~3.로 수정 제시
- 1993.1.29. 양국 정부, Kohl 수상 방한 공식 발표

2. 주요 일정

- 3.1. 오후 도착
- 3.2. 국립묘지 헌화, 정상회담 및 수행 경제인 접견, 국무총리 면담, 기자회견, 판문점 시찰,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
- 3.3. 경제4단체장 주최 조찬, 국회 방문 연설, 이한(오전)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3 의전 I: 일정)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9 / 1-191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의전 내용임.

1. 독일 측, Helmut Kohl 수상의 방한 희망 시기 전달

- 1992.11.17. Hartman 독일 총리실 외교수석, 주독일대사 면담 시 독일 수상 방한 희망 시기 제시
 - 당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계획이 EC(구주공동체) 통합 문제와 관련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정된 아시아 순방계획(안)을 전달
 - 1993.2.18.~3.3.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을 방문하며, 방한 시기는 한국 측 입장을 감안하여 1993.3.1.~3.로 제의한다고 설명
 - Kohl 수상의 방한 계획 관련하여 격변하는 아시아 정세(한국의 대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양국 간 경제, 통상, 과학기술 협력 등에 관심이 크다고 언급

2. 독일 측 선발대 사전답사(1993.2.9.~10.)

- Heinrich Seeman 독일 외무부 의전장 일행
 - 한·독일 합동회의 개최
 - 국립묘지, 청와대, 국회, 판문점, 김포공항 등 답사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4 의전 II: 영접준비)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10 / 1-139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영접준비 내용임.

1. 공식 방한 영접 계획(안)(1993.2.27., 외무부 의전장실)

- 영접 준비사항
- 공식 제한 일정
- 주요 행사(공항 도착 행사, 정상회담 및 수행 경제인 접견, 국무총리 예방,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 경제4단체장 주최 조찬, 국회 방문 및 연설, 공항 환송 행사)
- 공식 수행원 별도 일정(상공부차관 주최 조찬 간담회, 외무차관회담, 한·독일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오찬)

2. 상기 영접 계획(안)에 따른 자료

- 행사 계획
 - 제한 주요 일정, 행사별 참석대상 등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5 의전 III: 대외협조)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11 / 1-116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대외협조 및 지원 계획 내용임.

1. Kohl 독일 수상 방한 관련 주요 기관별 협조

- 문화부
 - 공식 만찬 시 실내악단 준비
- 통일원
 - 판문점 및 대성동 마을 방문 준비
- 공보처
 - 수행기자단 안내, 취재 협조 등
- 국회사무처
 - 국회의장 면담, 국회 본회의장 연설 등 준비

2. 행사 관련 보도 지원 계획

- 공보처 작성
 - 행사별 취재진 구성 운영, 한국 소개 책자 제공, 수행 외신기자 취재 안내 등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6 의전 IV: 연회)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12 / 1-189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시 연회 관련 내용임.

- Kohl 수상 수행 독일 기업인을 위한 조찬 간담회 계획
 - 1993.3.2. 08:30~10:30, 롯데호텔 연회장
 - 경제기획원장관 주최
 - 독일 측 21명(정부 4명, 기업인 17명)
 - 한국 측 10명(정부 7명, KIEP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 참석
 - 독일 측 관심사항에 대해 한국 측이 브리핑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 독일 측 관심사항: 한국의 경제, 산업, 무역정책, 남북한 경제협력 전망, APEC(아태경제협력체) 등 지역협력 및 한·독일 간 협력 가능성 등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7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13 / 1-144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결과임.

- Kohl 독일 수상 국회연설(1993.3.3.) 요지
 - 한국의 통일이 머지않아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남북이 서로 인내하며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
 - 통일 노력에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강조
 - 통일독일의 경제재건 및 정신적 갈등 극복 노력이 한국인들에게 희망적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일의 우선적인 경험 파트너이며,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 강화 여지가 큼.
 - 한국기업의 대동유럽 투자는 동 지역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구동독지역은 한국의 좋은 투자 대상지역임.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8 언론보도 및 순방보도)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14 / 1-116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언론 및 순방 보도 내용임.

1. Kohl 독일 수상 아시아 순방(1993.2.18.~3.1.) 결과

- 인도(2.18.~22.)
 - 인도 동부지역 수도개발에 8,500만 DM 제공
 - 인도 2개 화력발전소 건설에 20억 DM 투자
 - 통상 확대
- 싱가포르(2.22.~23.)
 - 제3세계에서 합작투자 증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 구동독지역에 대한 싱가포르 투자 권고
- 인도네시아(2.24.~26.)
 - 조선 분야 협력 합의(소형: 인도네시아, 대형: 독일 건조)
 - 동 제련공장(연산 15만 톤) 건설에 4억 5천만 달러 지원
 - 1천만 DM 차관공여(발리, 수마트라 등 에너지 공급 사업, 수마트라 상수도 사업)
- 일본(2.26.~3.1.)
 - 일·독일 포럼 개최 합의
 - EC(구주공동체) 및 아태지역의 요새화 지양 합의
 - 대러시아 지원 관련, 일·러시아 관계 정상화 기대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관련 논의

2. Kohl 수상 방한 관련 한국 내 언론보도

- Kohl 수상 방한의 의미(1993.3.1., 중앙일보)
 - 비중 높아진 한·독 경험
- 한·독 정상회담, '북핵 아·태 평화위협 공동인식'(3.2., 동아일보)
- Kohl 수상 방한, '고속전철 따기가 핵심 안건'(3.2., 조선일보)
- 한·독 정상회담, '남북 핵 상호사찰 필수'(3.2., 국민일보)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9 정상회담 자료, 1992)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15 / 1-223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정상회담 자료 내용임.

1. Kohl 독일 수상 방한/신상 관련 자료(1992.9월, 주독일대사관)

- 수상 내외 공식 약력 및 공식 사진(흑백 및 컬러)
- 수상의 세계관, 종교관, 생활철학, 정치이념, 통치 스타일, 취미, 음식 기호
- 한국 관련 주요 발언내용
- 독일 통일 이후 주요 외교활동
- 수상 부인의 주요 경력, 경력상 특이점, 사회활동 중 관심 분야, 취미, 음식 기호
- 수상 내외에 관한 자서전류 서적(최근 발간)

2. Kohl 수상 방한/참고자료(1992.9월, 주독일대사관)

- 정무
 - 독일 정세 현황 및 전망
 - 구주 정세 현황 및 전망
 - 구주동맹 추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독일 및 EC(구주공동체)의 대북한 관계
- 경제·통상
 - 한·독 경제 관계, 통상 관계
 - 독일 측 관심사항
 - 한국 측 관심사항
- 과학기술
 - 1986년 '한·독 기술협력협정'에 따른 양국 간 공동 연구사업
 - KOSEF(한국과학재단)과 DFG(독일연구협회) 간의 과학기술협력
- 노무
 - 파독 광부 적립금 관련사항
- 교육
 - 한·독일 문화공동위 내실화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10 정상회담 자료, 1993)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6 / 16 / 1-189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정상회담 자료임.

1. 한·독 정상회담 자료(1993.3.2., 외무부)

- Kohl 수상 인적사항
- 대통령 말씀 요지
 - 한반도정세 및 통일문제
 - 국제정세
 - 동북아정세 및 주변 4강과의 관계
 - 구주정세
 - 양국관계

2. 한·독 정상회담 자료(1993.3.2., 외교안보수석실)

- Kohl 수상 인적사항
- 대통령 말씀 요지
 - 모두말씀
 - 한국 측 제기사항
 - 독일 측 제기사항(예상)
 - 맺음말씀
- 첨부자료
 - 국제 정세 및 동북아 정세
 - 한국과 주변 4강의 관계

3. 한·독 정상회담 참고자료(1993.3.2., 외교안보수석실)

- Kohl 수상 신상 자료
- 독일 개황 및 한·독 관계
- 기타 참고자료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11 정상회담 자료(타부처), 1992-93)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1 / 1-149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정상회담 자료 내용임.

1. 한·독 정상회담/부처별 자료 제출(1992.9월)

- 경제기획원, 통일원, 과기처, 국방부, 재무부, 교육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등
- 주독일대사관 보고(독일 측 특별 관심 분야)에 기초하여 해당 부처의 추가 자료 제출
 - 고속전철 등 양국 간 High-Tech 분야 협력(교통부)
 - 한·독일 간 방산협력(국방부)
 - 삼성전관의 구동독 전자회사(WF사) 인수 관련사항(재무부, 상공부)

484

2. Kohl 수상 방한 연기에 따른 부처별 자료 제출(1993.1월)

- 경제기획원, 통일원, 과기처, 국방부, 재무부, 교육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등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1993.3.1.-3. 전12권 (V.12 연설문 및 기타자료)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2 / 1-172

Kohl 독일 수상의 1993.3.1.~3. 방한 관련 연설문 및 기타자료 내용임.

1. Helmut Kohl 독일 수상 방한/공식 만찬

- 대통령 만찬사
- 대통령 말씀자료
 - 판문점 방문 소감
 - 서울 인상
 - 양국관계
 - 정치 철학
 - 취미 활동

2. 독일 측 수행원 접견자료

- 독일 측 경제인(15명), 3.2. 오전 한·독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 예방

3. 독일 경제인 조찬 간담회 자료

- 독일 측 관심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위주
 - 상공부: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 자동차 수입 장벽 완화, 모직물에 대한 품질표시제도, 한국공장 자동차 사업 참여, 유해물질 신고
 - 교통부: 경부고속철도 건설 참여
 - 경제기획원: 과소비억제운동
 - 재무부: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시 실명 요구 폐지, 이종과세방지협약상 주식 양도소득

Schmidt, Helmut 전 독일 수상 방한, 1993.5.18.-2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27 / 3 / 1-161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수상의 1993.5.18.~24.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주한 독일대사관은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수상이 1993.5.18.~24. 아래 사유로 방한함을 알려 오면서 통일원, 경제기획원 및 외무부장관 예방을 희망
 - 제11차 전직 국가수반 회의(1993.5.13.~16., 상하이) 참석 후, 제28차 동남아 중앙은행장회의 참석차 한국은행 초청으로 방한

486

2. 주요 일정

- 동남아 중앙은행장회의 기조연설
- 외무부장관, 통일원 및 경제기획원 부총리 예방
- 대통령 예방 등

3. 사전 준비

- 독일 통일 관련 한반도 통일에 관한 슈미트 전 수상의 평가와 전망 파악
 - 방한 직전 참가한 제11차 전직 국가수반회의(1993.5.13.~16.)에서 ‘독일 통일 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 제하의 보고서 채택(5.16., 주상하이총영사 보고)
- 외무부장관 예방 등 대비, 슈미트 전 독일 수상 면담자료 작성(외무부 구주국)
 -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통일 문제, 구주지역 정세, 한·독일 관계 등에 관한 발언 및 참고자료

4. 방한 결과

- 통일원장관 면담(5.20.)
 - 독일의 경우 통일독일에 대한 준비 소홀과 환율 문제, 사유화 분규 등 어려움이 야기된바, 사전준비 철저 필요 조언
- 제28차 동남아 중앙은행장회의 공동발표문 채택(5.21.)
 - 슈미트 전 수상은 “1990년대의 정치·경제 조망” 제하의 기조연설
 -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투기적 금융거래 증대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임을 경고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1 사전준비 I(1992-93.7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4 / 1-109

라오 인도 수상의 1993년 방한 관련 시기 조정 등 사전준비 내용임.

1. 방한 초청 및 시기

- 1983년 한국 대통령 인도 방문이 아웅산 사건으로 연기된 이후 인도 측은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지속 희망
 - 인도 정부가 1992.1월 주인도대사를 통해 라오 수상의 방한에 대한 관심을 표명, 한·인도 수교 이후 최초의 인도 수상의 방한 및 정상회담 추진
 - 1월 하순 Solanki 외무장관 방한 시 방한 초청장 수교
- 방한시기와 관련 1992.6월 하순이 최초 검토된 이래, 라오 수상의 바쁜 국내 정치 일정상 1993년으로 연기하고 신정부 출범 시 협의 추진
- 1993.2월 인도 측은 주인도대사를 통해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고려해 여러 방한 시기를 제시한바, 라오 수상의 중국 방문(9.6.~9.)과 연계하여 9.9.~11.로 방한 시기를 협의, 최종 조정

2. 일정 등 사전 준비

- 기본일정으로 1993.9.9. 도착, 9.10. 국립묘지 헌화,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 9.11. 이한 등 인도 측에 협의 개시
 - 인도 측은 추가로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및 인도의 개혁정책 설명, 국무총리 면담, 삼성전자 등 산업시찰, 불국사 등 불교유적지 시찰 등 포함을 희망
- 동 방한 시 투자보장협정,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관광협력협정 등 검토
- 주한 인도대사는 인도 측의 선발대 방한(8.16.~19.)을 통보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2 사전준비 II(1993.8-9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5 / 1-110

라오 인도 수상의 1993년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방한 일정 협의

- 1993.8.3. 주인도대사는 인도 외무성 차관과 방한 일정 협의
 - 라오 수상의 차녀가 First Lady 자격으로 동반, 영부인 예방 등 별도 일정 준비
 - 정상회담 운영 방식은 한국 측의 관례 존중
 - 협정 서명은 국무총리 예방 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추진
 - 서명 추진 협정으로 관광협력협정, 무역협력협정, 문화교류협력의정서, 과학기술협력의정서 등 제시
 - 한·인도 공동민간경제협의회 참석 및 경제4단체장 오찬 시 인도의 신경제정책에 관한 연설
 - 수원 삼성전자 시찰 추진, 경주 방문은 취소하되 경복궁 등 문화재 시찰 추진
- 라오 수상의 한승주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희망에 따라 면담 실시 추진
 - 한국기업인들과 조찬 행사도 추진

2. 사전 준비

- 1993.8월 이래 주인도대사관의 한·인도관계 자료, 라오 수상 자료, 방한행사 관련 자료 등 보고
- 인도 의전 및 경호 선발대 8.21. 서울 도착, 방한 관련 세부 협의
- 주인도대사관 주도로 인도 측과 서명 추진 협정 관련 협의
 - 관광협력협정: 관광홍보물에 대한 관세면제 문제 등 협의
 - 과학기술협력의정서: 정부간 협정으로 추진 시 시간상 촉박하므로 기관 간 약정으로 추진
 -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한국 측의 실익 부재로 미 추진 결정
 - 투자협정: 필요성은 인정, 서명 여부 검토
- 라오 수상의 방한을 8.20. 대외 발표하기로 하고 발표문 준비
 - 인도 측도 8.19. 한국 측에 발표문 안 전달
- 방한한 인도 외무성 아주국장과 8.23. 정상회담 의제 안에 관한 협의 개최
 - 양국 정부의 개혁정책 설명, 냉전종식 이후 국제정세 의견교환, 양자관계 발전 방안 등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3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6 / 1-95

라오 인도 수상이 1993.9.9.~11. 방한함.

1. 방한 결과

- 주요 성과
 - 양자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 한국기업의 인도 개발사업 참여확대(항만, 도로, 조선, 통신 등)
 -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핵 확산 방지의 공동목표 추구, 남북통일을 위한 인도의 역할 증진
 - 아태지역에서 인도의 역할 확대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공동대처
 - 양국의 개혁정책 평가 등
- 한·인도 관계의 새로운 도약,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 기회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동반자 관계 구축 등 성과로 평가

2. 후속조치

- 라오 수상 방한 후속조치로서 한·인도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한국기업의 인도 개발사업 참여 및 경제협의회 설립 추진 등 관계부서에 검토 요청
- 주인도대사는 1993.9.13. 라오 수상 방한 관련, 실질 성과 거양 측면의 홍보활동 보고
- 주인도대사는 후속조치로 투자보장협정 문안 교섭 등 인도 정부 측과 협의 실시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4 자료 I)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7 / 1-188

라오 인도 수상의 1993.9.9.~11. 방한 관련 회담 및 참고자료임.

1. 회담자료

- 라오 수상 방한 회담자료(1993.7월, 주인도대사관)
 - 정상회담 및 외무·상공장관회담 의제 안에 대한 자료
 - 한국 측 언급사항 및 인도 측 제기 예상 의제로 구성
- 외무부 아주국 주도로 관계실국의 라오 수상 방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 문화협력국: 한·인도 관광협력협정과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서명 추진 계획, 장학생 교류 계획 등
 - 국제기구과: 북한 핵 문제, 국제기구 협력 관련 자료
 - 통상국: 양국 통상 일반 현황, 대인도 선박·플랜트 수출 관련 금융지원 등 자료
 - 교통부: 한·인도 항공, 관광 및 해운 관련 자료
- 한·인도 정상회담 자료(9.10., 외무부)
 - 라오 수상 인적 사항 및 일반사항, 국제 정세, 지역 협력 및 안보, 양자관계에 관한 말씀 요지 등
- 라오 수상 예방 자료(외무부장관용, 외무부 아주국)
 - 말씀 요지, 인적사항, 주요 사안별 참고자료, 인도 개황 및 한·인도 관계 등 자료 수록

2. 참고자료

- 라오 수상 관련 자료(1993.7.22., 주인도대사관 작성)
 - 라오 수상의 경력, 정치성향
- 홍보 참고자료(8.31. 외무부)
 - 최초의 인도 수상 방한이며,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방한 의의를 중심으로 작성
- 참고자료(9월, 외무부)
 - 방한 의의, 주요 일정, 라오 수상 인적사항, 인도 개황 및 한·인도 관계 등
- 한·인도 정상회담 참고자료(외무부)
 - 공식 체한 일정, 인도 수상 인적사항, 인도 개황 및 한·인도 관계, 의제별 보충자료 등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5 자료 II)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8 / 1-189

라오 인도 수상의 1993.9.9.~11. 방한 관련 각종 발언 자료와 언론보도 등임.

1. 발언자료

- 라오 인도 수상 예방 시 국무총리 말씀자료(외무부)
 - 라오 수상 인적사항, 주요 체한 일정, 인도 개황 등 참고 자료 포함
 - 인사말씀, 양국 개혁정책 평가, 북한 핵 문제 및 남북대화, 양국관계, 지역협력, 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카슈미르 분쟁 등 각 사안별 말씀자료 작성
- 바니 데이 인도 수상 영애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청와대)(외교안보)
 - 양국관계, 인도에 대한 인식, 영애의 예술활동, 방한 일정 언급, 인도의 건축, 영화, 여성의 사회활동 문제, 한국과 인도의 결혼풍습에 관한 말씀자료 작성
- 바니 데이 인도 수상 영애 예방 시 환담 자료(영부인용)(외무부)
 - 라오 수상 및 영애 인적사항, 주요 체한 일정, 수상 및 영애와 대화 시 말씀자료
- 라오 인도수상을 위한 만찬 시 말씀자료(대통령용)(외무부)
 - 라오 수상 및 영애 인적사항, 주요 체한 일정, 수상 및 영애와 대화 시 말씀자료

2. 언론보도

- 1993.8.11. 인도 Independent지: 'India must go East' 제하의 언론기고 및 'Rao to visit Seoul' 제하의 기사
- 8.14. 인도 Pioneer지: '동쪽으로 향해' 제하의 기고문
- 8.16. 인도 Hindustan Times: 'Talks with Kim Expect to Boost Ties' 제하 논평기사
- 인도 Economic Times지 인터뷰 답변 안 작성(8.19., 외무부 서남아대양주과)
 - 특집 취재차 방한한 Sinha 기자, 귀국 후 수차례 기사 작성 및 보도
- 기타: 인도 Business and Political Observer지, Times of India지, Patriot지 등 보도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6 의전 I(선발대))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9 / 1-287

라오 인도 수상의 1993.9.9.~11. 방한 시 선발대에 관한 내용임.

1. 인도 선발대 방한 결과(1993.8.21.~25.)

- 대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
- 정상회담 관련 진행순서 및 장소, 배석범위 협의
- 공식만찬 관련 참석범위(인도 측 20명) 확정, 채식주의자 라오 수상을 위한 별도 메뉴 준비
- 재한 인도교민 리셉션, 기업인 개별접견, 한·인도 협회 조찬, 외무부장관 접견, 동북아주재 인도 공관장 오찬, 삼성전자 시찰, 불교지도자 면담, 국립박물관 관람 등 행사 점검
- 라오 수상 영애 일정 협의
 - 경복궁 관람, 국립민속박물관, 비원 관람, 쇼핑 등
- 기타 무전기, 입출국, 차량편성, 숙소 등 행정사항 협의
- 기자단 약 45명 취재 지원 방안 협의
- 경호 및 공보 선발대 방한(9.2.) 준비
- 특별기 경비 및 정비 협의

2. 1993.8.31. 주한 인도대사관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으로부터 온 상당수의 불법체류 노동자 등의 동향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

- 외무부는 라오 수상의 방한 전후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감시 등을 법무부, 경찰청 등에 요청

Rao, Narasimha 인도 수상 방한, 1993.9.9.-11. 전7권 (V.7 의전 II(만찬))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7 / 10 / 1-110

라오 인도 수상의 1993.9.9.~11. 방한 관련,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에 관한 내용임.

1. 공식만찬 계획(1993.8.20., 외무부 의전실 작성)

- 일시
 - 1993.9.10. 19:00~21:00, 청와대
- 초청 범위
 - 공식수행원, 주한 인도대사관, 경제인 등 인도 측 20명
 - 한국 측 3부요인, 정당대표, 국회, 행정부, 청와대, 경제계 등 47명
- 만찬 실내악 연주 계획
 - 양국 국가, 아리랑, 도라지타령, 몽금포타령, 경북궁타령, 비베르티멘토(모차르트), 다뉴브 강의 잔물결, 세레나데, 미뉴에트, 그리운 금강산 등 연주

2. 만찬 행사 시행

- 김영삼 대통령의 만찬사를 1993.9.3. 인도 측에 송부
 - 라오 수상의 만찬사 초안 사전 교환
- 만찬 참가자 입장 계획 작성 및 시행

Chinghishev, Tursunbek C. 키르기스스탄 총리 방한, 1993.8.18.-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28 / 2 / 1-80

Tursunbek C. Chinghishev 키르기스스탄 총리의 1993.8.18.~2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금성사 초청으로 대전 엑스포 '키르기스스탄의 날' 행사 주관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시 한국의 경제적 지원 여부 문의와 함께 전문가 파견 요청
- 대전 엑스포 '키르기스스탄의 날' 행사 주관(8.22.)
- 산업 시찰(금성사 창원 공장 등), 업계 면담

Slezevicius, Adolfas 리투아니아 총리 방한, 1993.9.22.-2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8 / 3 / 1-122

Adolfas Slezevicius 리투아니아 총리의 1993.9.22.~2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대전 엑스포 'Baltic National Day'(9.23. 공동개최) 행사 참석
- 방한 경비 한국 측 지원 예정(왕복항공권, 체재비)

2. 주요 일정

- 주한 교황청대사 주최 만찬
- 대전 엑스포 '발트 3국의 날' 행사 참석, 오명 엑스포 조직위원장 주최 오찬, 발트 3국 총리 주최 만찬
- 삼성전자 시찰 및 오찬, 국무총리 면담 및 주최 만찬, 투자보장협정 및 무역협정 서명식 임석

Birkavs, Valdis 라트비아 총리 방한 추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23-28 / 4 / 1-70

1993년 중 Valdis Birkavs 라트비아 총리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라트비아 정부는 1993.8.24. 대전 엑스포 Baltic National Day(9.23. 공동개최)에 Birkavs 라트비아 총리가 참석 예정임을 주라트비아대사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93.8.25. 동 수상을 비공식 방한으로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라트비아대사관에 통보함.
3. 라트비아 외무성은 1993.9.16.자 공한으로 Birkavs 총리가 국내 일정으로 방한이 불가하다면서, Ojars Kehris 부총리가 대신 방한할 예정임을 통보함.
 - 외무부는 9.18. 라트비아 부총리 방한 시 국무총리 예방 및 총리 주최 만찬이 어려움을 주라트비아 대사관에 통보함.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 비공식 방한, 1993.5.23.-2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28 / 5 / 1-190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의 1993.5.23.~25. 비공식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PEB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참석
 - 외무부는 기확정된 외빈 일정으로 공식 방한 접수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공식 방한 추진 희망

2. 방한 목적

- PEBC 총회 정상포럼 참석
- 대통령 예방
- 한·말레이시아 간의 관계 증진

3. 주요 일정

- 대통령 면담 및 오찬(5.24.)
 - 마하티르 수상은 동아시아 간 협력 문제에서도 양국 간 협력 필요성 언급
- PEBC 정상포럼 참석
- 주요 경제인 면담

Prevdorj, Choijilsrengeen 몽골 부수상 방한, 1993.9.16.-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28 / 6 / 1-172

Choijilsrengeen Prevdorj 몽골 부수상의 1993.9.16.~1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93.4.22. Jasrai 몽골 수상, 대전 엑스포 행사 시기인 9월 중·하순 방한 희망
- 사정상 부수상이 대전 엑스포에 참석하기로 결정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 협의) 및 재무부장관(유상, 무상차관 협의) 면담
- 대전 엑스포 '몽골의 날' 행사 참가

Wingti 파푸아뉴기니 수상 방한 추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28 / 7 / 1-13

1993년 중 Wingti 파푸아뉴기니 수상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Wingti 파푸아뉴기니 수상의 대전 엑스포 기간 중 방한 희망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은 동 수상의 방한 초청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

2. 엑스포 조직위는 1993.6.4. 동 수상의 방한 초청을 결정함.

3. 파푸아뉴기니 수상실은 1993.8.4. 동 수상의 연내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Shokhin, Alexandr 러시아 부총리 방한, 1993.8.22.-2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러시아·CIS과

MF번호 2023-28 / 8 / 1-127

Alexandr Shokhin 러시아 부총리의 1993.8.22.~25.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요 일정

- 대전 엑스포 '러시아 날' 행사 참관, 리셉션 주최
- 김영삼 대통령 예방, 오찬 강연회(한·러시아 극동협회 주최), 외무부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등

500

2. 주요 협의내용

- 양국 간 경험 증진(가스전 개발, 공단 개발, 기술협력 등)
- 6·25 관련 문서
- KAL기 사건
- 한·러시아 경제공동위 개최
- 러시아 무기판매 문제

Bildt, Carl 스웨덴 수상 방한, 1993.4.6.-8.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8 / 9 / 1-78

빌트 스웨덴 수상의 1993.4.6.~8.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요 일정

- 한·스웨덴 정상회담
- 경제 4단체장 오찬
- 국무총리 예방
- 김종필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예방
-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 금성사 평택공장
- 경제기획원장관과 경제정책 토의
- 프레스클럽 연설

2. 관련 문서

- 스웨덴 칼 빌트 수상 내외 공식 방한 준비 보고
- 한·스웨덴 정상회담 요약(4.7. 오전) 등

3. 언론 보도

- 북 핵 해결 협력 등에 관한 중앙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기사 등
- 빌트 수상의 방한 결과에 대한 스웨덴 언론 보도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및 핵 개발
 -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기대

Bildt, Carl 스웨덴 수상 방한, 1993.4.6.-8. 전3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8 / 10 / 1-258

빌트 스웨덴 수상의 1993.4.6.~8. 방한 관련 의전 내용임.

1. 의전

- 항공 일정
- 방한 일정
- 숙소
- 공항 행사
- 선물 등

502

2. 타기관 협조 및 행사

- 출입국 통관, 공항 이용료 면제, CIQ 출입 협조
- 김포공항 도착, 출발 지원(출입국 대리 수속, 화물통관 지원)
- 판문점, 중립국위원회 캠프 방문,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 국무총리 예방
- 국회의장 예방
- 호위 차량 지원
- 공항도착 행사 관련 국방부 기수단, 도열병, 의장대 등 지원 등

Bildt, Carl 스웨덴 수상 방한, 1993.4.6.-8.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8 / 11 / 1-256

빌트 스웨덴 수상의 1993.4.6.~8. 방한 관련 각종 자료임.

1. 대통령 만찬사
2. 칼 빌트 수상 만찬 답사
3. 한·스웨덴 정상회담 자료
4. 한·스웨덴 정상회담 참고자료
5. 빌트 수상 내외를 위한 공식만찬 시 말씀자료
6. 빌트 스웨덴 수상 부인 예방 시 말씀자료(영부인)
7. 스웨덴 수상 내외를 위한 공식만찬 시 영부인 말씀자료
8. 빌트 스웨덴 수상 예방 시 말씀자료(국무총리)
9. 빌트 스웨덴 수상 방한 관련 참고자료(언론 배포용)
10. 한·스웨덴 정상회담 관련 각 부처의 소관사항 회답자료

Goh Chok Tong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93.11.8.-1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8 / 12 / 1-228

고축동 싱가포르 수상의 1993.11.8.~10.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한국 정부 초청에 의한 공식 방한

2. 방한 목적

- 기존 우호 협력관계 심화, 한국의 신한국 창조 노력 확인, 경제·통상 분야 실질 협력 증진 등

504

3. 주요 일정

- 정상회담 및 만찬
- 국무총리 예방
-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4. 정상회담 결과

- 한국의 개혁정책 설명
 - 싱가포르 정부의 청렴정책 청취
- 양국관계 평가 및 실질 협력 증진방안 논의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5. 언론보도

-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 등은 1993.11.10. 양국 간 자유무역 확대 협력 모색, 제3국 공동투자 논의 등 정상회담 결과 보도

Goh Chok Tong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93.11.8.-1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28 / 13 / 1-171

고축동 싱가포르 수상의 1993.11.8.~10. 방한 관련 자료임.

1.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자료

- 고축동 수상 인적사항
- 말씀요지
- 맺음말씀

2. 고축동 싱가포르 수상 접견자료(총리용)

- 인적사항
- 주요 일정
- 말씀요지

3. 만찬사 및 답사

- 고축동 수상 내외분을 위한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 만찬사(영문 및 국문)
- 고축동 수상 답사

4. 만찬 시 영부인 대화자료

5. 한·싱가포르 외무장관회담 자료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방한, 1993.5.13.-16.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8 / 14 / 1-277

Vo Van Kiet 베트남 수상의 1993.5.13.~16.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및 의의

- 키에트 베트남 수상은 주베트남 연락사무소 관계 수립(1992.4.2.) 이후 수차례 방한 희망의사를 표명하였으며, 1992.8월 포항제철 측에서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동 수상의 일정상 부인한 1992.10월 방한함.
- 키에트 수상은 1992.12.22. 한·베트남 수교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이며, 키에트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한·베트남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506

2. 수행원

- 공식 수행원인 웬 만 캄 외무장관 등 베트남 고위관리 11명, 비공식 수행원 14명, 수행 경제인 25명 등

3. 주요 일정

- 김영삼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한·베트남 총리회담
- 베트남 경제정책 및 투자설명회 개최
- 한국 경제계 인사 면담 및 산업 시찰(안양, 부평, 수원, 울산, 포항 등)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방한, 1993.5.13.-16. 전3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8 / 15 / 1-194

Vo Van Kiet 베트남 수상의 1993.5.13.~16. 방한 관련 자료임.

1. 베트남 수상 접견자료(1993.5월, 외무부)
2. 베트남 수상 접견 시 환담자료(1993.5.13., 외무부)
3. 베트남 수상 방한 관련 보고(초안)(1993.5.13., 외무부)
4.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 자료(1993.5.14., 외무부 아주국)
5. 베트남 수상을 위한 공식오찬 시 대화자료(1993.5.14., 외무부)
6. 베트남 수상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외무부 의전장실)
7.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배포한 베트남 수상 발표문(1993.5.14., 베트남 경제 및 투자설명회)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방한, 1993.5.13.-16. 전3권 (V.3 기업체 방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1담당관실

MF번호 2023-29 / 1 / 1-107

Vo Van Kiet 베트남 수상의 1993.5.13.~16. 방한 관련 기업체 방문을 위한 의전자료임.

1. 베트남 수상 연구소 방문계획(안)(럭키금성 작성)
2. 베트남 수상 대우 방문계획(대우(주) 작성)
3. 베트남 수상 영접계획(삼성전자 작성)
4. 베트남 수상 일행 영접계획(안)(현대중공업 작성)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 방문, 1993.10.27.-31. 전3권 (V.1 사전교섭 및 일정)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29 / 2 / 1-190

1993.10월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교섭 및 준비 문서임.

1. 한승주 외무부장관 중국 방문 계획

- 기간 및 지역
 - 1993.10.27.~10.31. 중국
 - 10.26.~27., 10.31.~11.1. 홍콩
- 방문 목적
 - 한·중국 수교 이후 한·중국 관계 발전 방안 협의
 -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 협의
 - 중국 지도층과의 유대관계 강화 도모
- 주요 일정
 - 중국: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중국 지도자 예방
 - 홍콩: Asia Society 연설(아·태지역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역할)

2. 각종 행정사항 준비

- 일정, 대표단 숙소, 차량 배차, 회담 배석자, 오·만찬 및 간담회 일시, 장소, 참가자, 대상자별 선물, 수행 기자단 취재 관련 협조사항, 환경보호 협정 서명식 등

3.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희망 의제

- 각종 협정 추진,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 한·중국 정상회담, 영사협정 체결, 한·대만 관계, 총영사관 설치문제 등 양자협약과 북한 핵 문제 집중 협의, 지역정세, 국제정세 협의 희망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 방문, 1993.10.27.-31. 전3권 (V.2 활동내용 및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29 / 3 / 1-156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1993.10.27.~31. 중국을 방문함.

1. 주요 일정

-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 강택민 국가주석, 이붕 총리 예방, 오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면담
- 홍콩 Asia Society 오찬연설

510

2. 한·중국 외무장관회담(10.28.) 주요 내용

- 한·중국 정상회담
 - 시애틀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계기 11.19. 오전 개최하기로 합의
- 양자관계
 - 환경협력협정 서명, 무관부 상호교환 설치 합의, 총영사관 추가 설치 합의
 - 항공협정, 이종과세방지협약, 영사협약, 문화협정 조속 추진
 - 1993년 내 어업실무회담 개최,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교섭 추진 등
-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 한국 측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중국 측은 관련 국가 간의 이해가 다르므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 표명
- 북한 핵 문제
 - 중국의 대북한 설득 역할을 요청한데 대해, 중국 측은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해결 가능성을 강조
- 국제 문제
 - 미국·중국 관계 유지 개선 필요성 공감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 방문, 1993.10.27.-31.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29 / 4 / 1-347

1993.10월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위한 각종 자료임.

1. 한·중국 외무장관 회담을 위한 외무부 각 실국 자료

2. 한승주 외무부장관 중국 방문 세부계획(수행원용)

- 방문 개요
- 방문 세부일정, 장관부인 일정
- 참고사항: 숙소배치, 공관현황, 특파원현황
- 홍콩 한국학교 개요
- 삼성화리전자공장 개요
- 방문국 개황

3. 외무부장관 내외 방중계획(1993.10월, 아주국)

- 방중 일정, 수행원
- 외무장관 회담 의제 및 주요 현안사항
- 행사별 중점사항, 언론관계
- 중국 및 홍콩 방문 상세 일정

4. 주요 자료

- 외무부장관 홍콩 방문 일정(1993.10.26.~27., 주홍콩총영사관)
- 외무부장관 방중 일정(10.27., 주중국대사관)
- 강택민 국가주석 예방자료
- 이봉 총리 예방자료
- 한·중국 외무장관 회담자료
- 오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면담자료
- 홍콩 주재 상사대표 간담회 말씀자료
- 북경 주재 상사대표 간담회 말씀자료

홍순영 외무차관 중국 방문, 1993.8.20.-2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29 / 5 / 1-133

홍순영 외무부차관의 1993.8.20.~25. 중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경위

- 한·중국 수교 1주년 계기 당가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초청

2. 주요 일정

- 외교부장 예방 및 외무차관회담
- 서안,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방문

512

3. 방문 결과(외교부장, 외교부 부부장, 상하이시장 등 면담 시 협의사항)

- 수교 1년간 한·중국 간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 확인
- 중국 측에 안중근 의사 묘소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에 관한 협조 요청
-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은 비핵지대화 주장
- 서울-베이징 간 직항로 개설 등 항공협정 체결 문제 협의
- 시애틀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 개최 시 중국 지도자의 참석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 외무부장관 방중, 무관부 개설,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 및 한국의 조정관세 부과 등 협의
- 상하이·광저우에 총영사관 개설, 상하이 독립운동 유적 보전 및 기념사업 등 협의
- 중국 측, 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에 관한 의견 표명

한승주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93.9.23.-2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29 / 7 / 1-260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9.23.~25.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장관 방문 기본계획(안) 중 주요 일정

- 외무장관회담
- 고노 자민당 총재 예방
- 무토 전 외상 예방
- 일본지역 총영사들과의 오찬 간담회 개최

2.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하타 츠토무 부총리 겸 외무대신 간 외무장관회담 결과(1993.9.24.)

- 양국 외교정책 방향
 -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
 - 한국 측: 한국의 1996~97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희망 및 일본 측의 지지와 협력 요청
- 북한 핵 문제
 - 북한의 핵 안전 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양국 인식 확인
 - 일본 측: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북한 간의 관계정상화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
- 양국 경제 관계
 - 한국 측: 대일본 신경제정책 설명 및 대일본 수출 증대노력에 대한 적극적 협력 기대 강조
 - 일본 측: 신경제정책 높이 평가, 협력 언급
- 어업문제
 - 일본 측: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한국 측 단속 요망
 - 한국 측: 어업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지속으로 양국 주변수역의 질서 있는 조업을 위해 노력
- 과거사 문제
 - 양측 모두 과거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병행
- 사할린동포 문제
 - 한국 측: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양측: 이에 관한 양국 실무협의 10월 중 개최 합의
-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시 한·일 정상회담
- 일본 소재 문화재 반환문제
 - 한국 측: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목록 작성을 위한 일본 측 협력 제의
 - 일본 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무적 협의 방안 검토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93.3.23.-4.2. 전4권 (V.1 사전준비(미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3-29 / 8 / 1-198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3월 유엔 및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내용임.

1. 추진 배경 및 진전사항

- 한·미 양국의 공감대 형성
 - 한·미 양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고위급 외교당국자 간 대화 필요
 - 세계적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 공동대처 필요
- 준비 협의
 - 외무부 지시에 따라 주미국대사관 및 주유엔대표부에서 일정 및 관심사항 지속 협의

514

2. 유엔 방문 준비

- 추진 시기: 1993.3.23.~25.
- 활동 계획
 - 유엔사무총장 면담
 - 안보리 의장국 대사 면담
 - 유엔 주재 주요 우방국 대사 접촉

3. 미국 방문 준비

- 추진 시기: 1993.3.25.~30.
- 방문 목적
 - 양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협조체제 정립
 - 북한 핵 문제 공동대처 방안 협의
 - 한·미 통상 및 경제 현안 협의
- 활동 계획
 - 클린턴 대통령 예방
 - 한·미 외무장관 회담
 - 주요 장관 면담
 - 의회·언론·학계 주요인사 접촉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93.3.23.-4.2. 전4권 (V.2 사전준비(일본))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3-29 / 9 / 1-105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3월 일본 방문을 준비하는 내용임.

1. 방문 시기 및 사전 활동

- 방문 시기: 1993.3.31.~4.2.
- 사전 활동
 - 1993.3.5. 한승주 장관, 고토 주한 일본대사 예방 접수

2. 활동 계획

- 미야자와 총리 예방
- 한·일 외무장관회담, 외무성 사무차관 면담
- 주요인사 면담: 스노베 전 주한 일본대사, 가토 전 관방장관, 사토 전 도쿄대 교수 등
- 민단 간부 접견
- 일본 주재 특파원 조찬간담회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93.3.23.-4.2. 전4권 (V.3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3-29 / 10 / 1-233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3.23.~4.2. 유엔, 미국, 일본 방문 결과임.

1. 방문 성과

- 북한 핵 문제 대처 공조체제 수립
 - 한국의 기본 구상과 전략에 대한 공감과 지지 확보
 - 한국의 제안을 기초로 한 한·미국·일본 3국 공동 대처 방향 설정
 - 유엔사무총장, 안보리 의장국 및 이사국의 협조 확보
- 미국, 일본, 유엔과 협조체제 강화
 - 미국: 정상회담 조기 추진, 양국 간 동맹관계 재확인, 통상증진 노력 확인
 - 일본: 정상 간 조기회동 추진, 북한 핵 문제 관련 공조 확보, 통상증진 노력 합의
 - 유엔: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등 협력 강화

2. 주요 활동

- 유엔 방문(1993.3.23.~25.)
 - 사무총장 및 유엔 주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뉴질랜드대사 면담
- 미국 방문(1993.3.25.~30.)
 - 백악관: Gore 부통령 예방, Lake 안보보좌관 면담
 - 국무부: Wharton 부장관 및 Clark 동아태차관보 면담
 - 정부 부처: Kantor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표, Aspin 국방장관 면담
 - 의회: Mitchell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Robb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Ackerman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 주요인사: 브레진스키 박사, Solaz 전 하원의원, Myers 카네기이사회 회장 면담
 - 언론접촉: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LA타임즈
 - 기타 활동: 주요인사 초청 만찬, 학계인사 초청 조찬, 수행기자 간담회, 미국 주재 특파원 오찬
- 일본 방문(1993.3.31.~4.2.)
 - 미야자와 총리 예방, 와타나베 외상 회담, 오와다 외무성 차관 면담
 - 가토 전 관방장관, 스노베 전 주한 일본대사, 사토 전 도쿄대 교수 면담
 - 재일 거류민단 간부 면담, 언론초청 기자회견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93.3.23.-4.2.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3-29 / 11 / 1-263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3.23.~4.2. 유엔, 미국, 일본 방문 관련 자료임.

1. 미국 방문 자료

- 양자관계 공통 대화자료
 - 한·미 동맹 및 동반 관계
 - 한·미 안보협력 관계
 - 한·미 통상 관계
- 인사별 자료
 - 한·미 외무장관회담, 클린턴 대통령 예방

2. 유엔 방문 자료

- 유엔사무총장 면담자료
 - 인적사항 및 관심사항
-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 면담자료
 - 중국, 일본, 파키스탄,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대사

3. 일본 방문 자료

- 인사별 자료
 - 미야자와 총리 예방, 한·일 외무장관회담, 오와다 외무차관 만찬, 민단 간부 조찬
- 면담인사 인적사항
 - 정부: 미야자와 총리, 와타나베 외상, 오와다 외무차관
 - 주요인사: 스노베 전 주한 일본대사, 가토 전 국방장관, 사토 전 도쿄대 교수, 마츠나가 국제문제 연구소장
 - 기타: 일본 주재 특파원 명단

4. 유엔, 미국, 일본 방문 참고자료

홍순영 외무차관 아프리카 순방, 1993.11.28.-12.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29 / 12 / 1-174

홍순영 외무부차관의 1993.11.28.~12.9. 아프리카 순방 준비 내용임.

1. 순방 목적

- 역내 정세 분석
-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 실리외교 추구방안의 일환으로 외교적 투자의 활용방안 강구
- 협력·통상 확대의 기반 확보
- 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518

2. 주요 일정

- 코트디부아르(11.29.~12.1.)
 - 외무장관 면담
 - 서부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11.30., 아비장) 주재
- 케냐(12.2.~3.)
 - 외무장관 면담
 - 동부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12.2.~3., 나이로비) 주재
- 소말리아(12.4.)
 - 유엔군 사령부 방문
 - 상륙수부대 방문
- 남아프리카공화국(12.5.~7.)
 - 외무부 부장관 면담
 - ANC(아프리카민족회의) 국가의장 겸 국제부장 면담
 - 남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12.6., 프리토리아) 주재

홍순영 외무차관 아프리카 순방, 1993.11.28.-12.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29 / 13 / 1-195

홍순영 외무부차관의 1993.11.28.~12.9. 아프리카 순방 관련 면담 및 공관장회의 자료임.

1. 순방 관련 부서별 소관 업무 취합자료

2. 지역별 공관장회의 시 토의를 위한 공관별 건의사항 및 외무부 검토의견 취합자료

3. 외무부 작성 아프리카 공관장회의 자료

- 순방 일정 및 국별 체류 일정
- 1993 아프리카 공관장회의 토의자료
- 공관장회의 계기 본부 실국별 관심사항
- 주요인사 면담자료
 - 코트디부아르 외무장관 면담자료
 - 케냐 외무장관 면담자료
 -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차관 면담자료
-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자료

한승주 외무장관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및 동남아 순방, 1993.4.16.-23.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30 / 1 / 1-208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1993.4.16.~23.)
참석 및 동남아 순방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순방 일정

- 싱가포르(1993.4.16.~18.)
 - 고축통 수상 예방 및 외무장관회담
- 말레이시아(1993.4.18.~20.)
 - 마하티르 수상 예방 및 외무장관회담
- 태국(1993.4.20.~23.)
 - ESCAP 총회 기조연설
 - 한·중국 외무장관회담, 북한 핵 문제 해결 논의
 - 추안 태국 수상 예방 및 외무장관회담

2. 순방 목적

- ESCAP 연차총회 기조연설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 중국의 대북한 설득방안 협의
- 아세안과의 우호협력 증진
 - 경제·통상교류 증진을 통한 한국경제 활력 회복 도모
 - APEC(아태경제협력체) 발전방안 논의 등

한승주 외무장관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및 동남아 순방, 1993.4.16.-23. 전2권 (V.2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30 / 2 / 1-82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4.16.~23.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및 동남아 순방 결과 내용임.

1. 한·중국 외무장관회담(1993.4.21.)

-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국 간의 협력 기반 마련
 - 중국의 대북한 설득 노력 당부
 -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틀 속에서 문제 해결 가능성 타진

2.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방문(1993.4.16.~23.)

- 활동 내용
 - 3국 수상 및 외무장관 면담
- 주요 성과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협조체제 확보
 - 한·아세안 협력 증진 분위기 조성
- 제49차 ESCAP 총회 참석
 - 기조연설에서 아·태 무역투자 증진방안 제시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30 / 3 / 1-146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6.6.~17. 구주 순방 관련 내용임.

1. 순방계획 일정

- 러시아(6.6.~8.), 폴란드(6.8.~10.), 프랑스(6.10.~13.), 오스트리아(6.13.~15.), 영국(6.15.~17.)

2. 순방 목적

- 적극적인 인권외교
-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신외교 기조 설명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확인 및 강화
- 대중·동유럽 외교 내실화 및 대EC(구주공동체) 외교 강화

3. 순방 결과

- 정상 예방
 -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영국
- 외무장관회담(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영국)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 한국 정부의 신외교 기조 설명
 - 남북 접촉 및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
 - 신경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방안 모색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참석 연설
 - 문민정부의 인권증시정책 천명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2 러시아/폴란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30 / 4 / 1-237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구주(러시아 및 폴란드) 순방 관련 내용임.

1. 러시아(1993.6.6.~8.)

- 옐친 러시아 대통령 예방
 - 옐친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 초청
 - 옐친 대통령에게 김영삼 대통령 친서 전달
 - 옐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 입장 확인
- 외무장관회담
 - 4강 외교 추진을 위한 한·러시아 간 외교정책 협의체제 확립
 - 아태지역 내 신국제 질서 형성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촉진

2. 폴란드(1993.6.8.~10.)

-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예방
 - 김영삼 대통령의 바웬사 대통령 방한 초청 친서 전달
 -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의사 확인
- 외무장관회담
 - 외무부 고위급 정책협의회 정례화 합의
 - 북한 핵 문제 관련 폴란드와 공조체제 확인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3 프랑스/오스트리아/영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30 / 5 / 1-230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구주(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순방 관련 내용임.

1. 프랑스(1993.6.10.~13.)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예방
 - 미테랑 대통령 방한 시기 협의
 - 미테랑 대통령은 경부고속전철사업 수주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대프랑스, 대EC (구주공동체) 정책에 만족감 표시
- 외무장관회담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프랑스 측의 협력을 확인하고, 포괄적인 협력관계 계기 마련
 - 프랑스는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참여 희망

2. 오스트리아(1993.6.13.~15.)

- 외무장관회담
- 세계인권회의 참석

3. 영국(1993.6.15.~17.)

- 메이저 영국 수상 면담
 -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한국 입장 적극 지지
- 외무장관회담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유보, 양국 간 통상현안 협의
- 대처 전 수상 등 면담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4 자료 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30 / 6 / 1-296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6.6.~17. 구주 순방 관련 자료임.

1. 러시아 외무장관회담 자료(요지)
2. 러시아 외무장관회담 말씀자료
3. 열친 대통령 예방 시 말씀자료
4. 러시아 공식 방문자료
5. 폴란드 외무장관회담 자료(요지)
6. 폴란드 외무장관회담 말씀요지
7. 폴란드 대통령, 총리 면담 말씀요지
8.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면담자료
9.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장 환담자료
10. 참고자료: 한·러시아 기본조약 의정서 등

한승주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93.6.6.-17. 전5권 (V.5 자료 II)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30 / 7 / 1-239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6.6.~17. 구주 순방 관련 준비자료임.

1. 외무장관회담 자료

- 양국관계에 대한 한국 측 언급사항, 상대국 측 제기 예상사항
 - 주프랑스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자료
 -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의전실, 아주국, 미주국, 국제기구국, 국제경제국 자료

526

2. 기타 면담 및 예방자료

- 인적사항
- 한국 측 언급 요망사항
- 상대 측 제기 예상사항 및 답변 요지

3. 오·만찬 시 장관 연설에 포함될 요소 등

Benjamin BOUNKOULOU 콩고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1993.10.11.-1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30/8/1-184

Benjamin Bounkoulou 콩고공화국 외무장관의 1993.10.11.~1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92.8월 콩고 신민주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과 수상 등이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기존 추진 상황 및 방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외무장관 방한을 1차적으로 추진
- Bounkoulou 외무장관이 아프리카개발회의(1993.10.5.~6., 도쿄)에 참석 후 방한하기로 합의

2. 주요 일정

- 외무장관회담 및 투자보장협정 서명
- 국무총리 예방
- 대우 본사 방문 및 부평 대우자동차 시찰
- 한국국제협력단 방문
- 중소기업협동조합 방문

3. 방한 의의

- 1992.8월 콩고 민선 정부 출범 및 양국관계의 진전에 기초하여 실현된 최초의 고위급 인사 방한

4. 방한 결과

-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Bounkoulou 외무장관은 이번 가서명된 투자보장협정 이외에 제반 경제 관련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기존 무상원조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청
- 외무부장관은 콩고 신정부의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한 이해 및 지지를 표명하고 콩고에 특별원조 1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였음을 설명

93-0482

Benjamin BOUNKOULOU 콩고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1993.10.11.-13.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30 / 9 / 1-64

1. 한·콩고 외무장관회담 자료

- 콩고 최근 정치·경제 정세
- 한반도 및 중서 아프리카 정세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양국관계 현안 등

2. 콩고 외무장관의 국무총리 접견 브리핑 자료

전기침(錢其琛)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1993.5.26.-29.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0 / 10 / 1-175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의 1993.5.26.~29. 방한 시 외무장관회담 내용임.

1. 제1차 외무장관회담(1993.5.26.)

- 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주 외무부장관
 - 중국 측: 전기침 외교부장
- 협의 내용
 - 북한 핵 문제

2. 제2차 외무장관회담(1993.5.27.)

- 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주 외무부장관
 - 중국 측: 전기침 외교부장
- 협의 내용
 - 국제정세
 - 양국관계
 - 양국의 총영사관 설치 문제
 - 중국의 올림픽 개최 문제 등

전기침(錢其琛)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1993.5.26.-29. 전3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0 / 11 / 1-230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의 1993.5.26.~29. 방한 시 의전사항임.

1. 전기침 외교부장 방한 일정(안)

- 외무부는 1993.5.1. 전기침 외교부장의 방한 관련 잠정 일정(안)을 주중국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중국 측과 협의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
- 잠정 일정(안)
 - 5.26. 서울 도착, 외무장관회담, 주한 중국대사 주최 만찬
 - 5.27. 국립묘지 참배, 대통령 예방, 재한 화교 단체장 접견, 경제단체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5.28. 이상옥 전 외무부장관과 조찬, 포항제철 시찰
 - 5.29. 서울 출발

2. 전기침 외교부장 방한 관련 대외발표 등 한국 측 입장(1993.5.8.)

- 방한 관련 대외발표
 - 중국 측 요청을 감안, 한국 측은 5.13. 대외발표에 동의
- 외무장관회담은 축소 및 확대 형태의 2차례 회담 개최에 동의
 - 확대외무장관회담 시 외무장관 간 해운협정 서명

3. 외무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간 협의(1993.5.10.)

- 한국 측은 김영삼 대통령 예방 및 이상옥 전 외무부장관 조찬 주선 예정
- 한국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 예방은 주선하지 않을 예정
- 한국 측은 중국 측이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의 기자회견 주선 가능

Zieleniec, Josef 체코 외무장관 방한, 1993.6.25.-2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30 / 13 / 1-285

Zieleniec 체코 외무장관의 1993.6.25.~27.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요 일정

- 외무장관회담, 기자회견(양국 기자단 참석),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 대통령 예방, 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대우 회장 주최 만찬

2. 주요 문서

- 하벨 체코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 앞 친서
- 김영삼 대통령 명의 답신
- 한·체코 외무장관회담 자료
- 한·체코 외무장관회담 요약

3. 외무장관회담 대화 요지

- 한국 측
 - 아시아, 한반도 정세, APEC(아태경제협력체), 문민정부 등 설명
- 체코 측
 - 1989년 탈공산화, 민주화, 사유화, 시장경제로의 전환, 체코의 기존조약 승계
 - 중감위(NNSC) 역할 감사 및 계속 건설적 역할 기대
 - 체코 내 코트라의 법적지위 문제
- 양국 간 정책협의회 개최, 비자면제협정, 문화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 대전 엑스포 참가, 체코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한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지 문제 등

Paredes Pena, Diego 에콰도르 외무장관 방한, 1993.9.2.-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31 / 1 / 1-103

Diego Paredes Pena 에콰도르 외무장관의 1993.9.2.~4.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한승주 외무부장관 초청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장관회담
- 삼성물산 사장 면담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대우그룹 부회장 주최 만찬

3. 외무장관회담 주요 내용

- 에콰도르 측, 한국과의 경제·통상관계 활성화 기대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및 문제 해결 노력 설명
- 에콰도르 대통령 방한 희망
- 에콰도르 측, 주한 에콰도르 명예영사 임명 희망

Kinkel, Klaus 독일 외무장관 방한, 1993.7.5.-6.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31 / 2 / 1-190

Klaus Kinkel 독일 외무장관의 1993.7.5.~6.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방한 경위

- 외무부는 1993.4월 공한을 통해 G7 정상회담(1993.7월, 도쿄) 참석 계기 Kinkel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회담
- 독일 기업인 면담, 판문점 시찰 등

Kinkel, Klaus 독일 외무장관 방한, 1993.7.5.-6.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31 / 3 / 1-152

Klaus Kinkel 독일 외무장관의 1993.7.5.~6. 방한 결과임.

1. 대통령 면담

- 독일 통일의 제반 문제 및 교훈에 대한 의견 교환
- 북한 핵 문제 관련, G7 도쿄회의에서 독일 측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 한·EC(구주공동체) 협력 증진방안 협의
- 구동독지역 투자,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방안 등 협의

534

2. 외무장관회담

- 통일 문제
 - 독일 측은 독일 통일의 후유증과 내적 통일의 어려움 등 설명
- 북한 핵 문제
 - 독일 측은 G7 정상회담 정치 선언에 강력한 대북한 메시지 포함 노력 약속
- 유엔안보리 개편
 - 독일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논의
- 한·독일 간 관계
 - 경부고속전철 발주, 제3국 공동 진출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논의

Cohen-Orantes, Salomon 과테말라 외무차관 방한, 1993.11.29.-12.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31 / 4 / 1-79

Salomon Cohen-Orantes 과테말라 외무차관의 1993.11.29.~12.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일정

- 외무부 1차관보, KOICA 총재 면담
- 판문점 시찰 및 명예영사 주최 만찬 참석

2. 주요인사 면담 결과

- 외무부 제1차관보
 - 과테말라 측은 한국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을 희망하고, 이에 앞서 Fajardo 외무장관의 1994년 방한 문제 제기
 - 과테말라 측이 섬유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의 과테말라 투자진출 확대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체결 필요성을 강조
 - 양국 간 수산협정 체결 문제 관련 과테말라 측은 후속 논의 시사
 - 과테말라 측은 한국의 중미 빈곤퇴치기금 지원 희망
 - 과테말라 측이 자국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가입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회원국들이 신중한 입장에 비추어 보다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 설명
- KOICA 총재
 - 과테말라 측이 수산협력 사업을 위한 관련 타당성 조사 가능성을 문의한데 대해 KOICA 측은 추후 주과테말라대사관을 통해 요청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변
- 섬유산업연합회
 - 한국 업체 대표들이 과테말라 정부의 지원, 특히 한국 근로자의 체류비자 및 노동허가 발급 편의 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Cohen 차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

Carias Zapata, Mario 온두라스 외무장관 비공식 방한, 1993.3.18.-2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31 / 5 / 1-61

Mario Carias Zapata 온두라스 외무장관이 1993.3.18.~21.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 미주국 심의관이 1993.2.16. 주한 온두라스대사를 면담한바, 동 대사는 3월 Carias 외무장관의 방한을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Carias Zapata 외무장관은 도쿄에서 개최되는 중미 민주개발협의회(1993.3.15.~17.) 참석 후 귀로에 방한 희망
 - 한국 측 사정으로 공식 방한이 어려울 경우, 비공식 방한 형식도 무방
- 외무부는 1993.3.6. 비공식 방한으로 접수 가능함을 온두라스 측에 통보
 - 동 장관은 우방국 외무장관이고 일행이 부인뿐 임을 고려하여 체재비 한국 측 부담 적극 검토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수출입은행 은행장, 삼성물산 부사장 면담

3. 외무부장관 면담(3.19.) 시 주요 언급내용

- 온두라스 측
 - 도쿄회의 후속조치로 1993.6월에 온두라스에서 개최되는 중미 투자 관련 회의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
 - 도로건설을 포함한 기간시설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기대
- 한국 측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철회와 핵사찰 수락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 공동 노력을 설명
 - 온두라스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온두라스 측의 관심과 지원 당부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 방한, 1993.10.6.-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31 / 6 / 1-161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의 1993.10.6.~9.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요 일정

- 외무장관회담
- 국회의장 예방
- 대통령 예방,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상공자원부장관 면담
- 대전 엑스포 전시관 시찰
- 대한상의회장 주최 오찬, 한·이란 경험위원장 주최 만찬

2. 방한 결과

- 국회의장 면담
 - 양국 의원 교류, 의원친선협회 등 의견 교환
 - 국회의장은 이란과의 협력하에 중앙아 진출 의지 피력
- 외무장관회담
 - 한국 측: 한국의 흡수 통일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희망을 설명함.
 - 이란 측: 이란의 중앙아 CIS(독립국가연합),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동향을 설명하고, 케숨 섬 자유무역지대에 한국의 투자 확대를 희망함.
- 상공부장관 면담
 - 이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 10개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 참여, 케숨섬 자유무역지대 투자 확대, 한·이란 공동위 개최 희망, 무역대금 결제지연 문제 해결 노력 등 언급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 방한, 1993.10.6.-9. 전2권 (V.2 의전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31 / 7 / 1-227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의 1993.10.6.~9. 방한 관련 자료임.

1. 준비사항

- 방한경비, 경호, 대통령 앞 선물, 호텔 꽃바구니, 홍보 책자, 국기, 회의장 다과, 각종 연회용 인쇄물, 선물, 비표

2. 방한 일정(안), 출입국, 면담 및 오·만찬 행사장, 참가자 좌석배치, 메뉴

3. 외무장관회담 자료

-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및 주변 4강 관계, 이란 및 중동 정세, 한·이란 양자관계 등

Robertson, Paul 자메이카 외무장관 비공식 방한, 1993.10.27.-3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31 / 9 / 1-124

Paul Robertson 자메이카 외무장관의 1993.10.27.~31. 비공식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대전 엑스포 참석 계기 자메이카의 대아시아 관계 강화 노력의 일환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면담 및 오찬,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
- 판문점 시찰, 주한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 대전 엑스포 참관 등

3. 방한 결과

- 한국 측
 - 북한 핵 문제를 위요한 최근 한반도 정세 설명
 - 199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당부
- 자메이카 측
 - 카리브 정세 일반, 특히 아이티 및 쿠바 정세 설명
 - 적당한 기회에 Patterson 자메이카 수상의 방한 희망 언급

Holst, Johan J.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1993.10.30.-11.2.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23-31 / 10 / 1-104

Johan J. Holst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1993.10.30.~11.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의의

- Holst 장관은 중동평화협정을 중재한 바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
- 한·노르웨이 간 수교 이래 노르웨이 정부 고위인사의 최초 공식 방한

2. 방한 결과

- 외무장관회담(1993.11.1.) 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유럽 정세, 양국관계 증진방안 등 토의
- 대통령 예방 시 한반도 평화,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에 관해 집중 협의

Holst, Johan J.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1993.10.30.-11.2. 전4권 (V.2 의전 및 만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2과

MF번호 2023-31 / 11 / 1-51

Johan J. Holst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1993.10.30.~11.2. 방한 관련 의전 내용임.

1. 동 장관의 방한 기간 중 귀빈실 사용 등 공항 입출국 편의, 의전차량 제공, 강연 및 지방 시찰 관련 일정 주선 등 행정적 지원
 -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1993.11.1. 장관 공관에서 환영 만찬 주최
 - Holst 장관이 중동평화협상 관여 등 국제적 주목 인물임을 고려, 2명의 경호원 입국 등 지원
2. 1993.11.1. 오전 고려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Holst 장관의 강연 지원
 - ‘중동평화협상 과정’ 제하 강연에서 자신의 중동평화협상 중재 경험 등 설명

Holst, Johan J.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1993.10.30.-11.2. 전4권 (V.3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23-31 / 12 / 1-70

1. 외무부 내 아주국, 통상국, 국제기구국, 국제경제국 등 회신, 자료 및 의견 개진(1993.10월)
 -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 등 회신(아주국)
 - 섬유협정 연장 문제에 관한 의견 제시(통상국)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및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 관련 한국 입후보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 확보 요청(국제기구국)
 - IWC(국제포경위원회) 포경 관련 한국 입장 및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조사 등 환경 관련 협력방안 등 회신(국제경제국)
2.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93.10월 노르웨이의 군축, EC(구주공동체) 가입 등 주요 대외정책 조사 보고

Holst, Johan J.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1993.10.30.-11.2. 전4권 (V.4 회담 및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23-31 / 13 / 1-75

1. 한·노르웨이 간 외무장관회담 및 말씀 자료

- 모두발언 자료
 - 자유와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되고 있는 새로운 역사의 진운 속에서 양국이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려는 공동 이상 실현에 기여하기를 희망
- 회담 자료
 - 냉전 종료 후 새로운 질서에 관한 국제정치 및 경제 정세 일반, 유엔개혁 문제, 중동평화 문제, 군축 문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참고자료 및 발언요지

2. Holst 장관 접견 자료

- 노르웨이 외무장관으로서 최초 방한을 환영하는 요지의 인사말씀, 국제정세 평가, 중동평화 협상의 성공적 중재 치하, 북한 핵 문제, 평화통일 추진 등

Ene, Constantin 루마니아 외무차관 방한, 1993.4.26.-29.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31 / 14 / 1-83

Constantin Ene 루마니아 외무차관이 1993.4.26.~2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0.3월 수교 이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홍순영 외무부차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

2. 방문단 구성

- C. ENE 외무차관, N. Cotlogut 외무부 한국담당관

3.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회담, 외교안보연구원 방문, 판문점 시찰, 문화탐방 등

4. 주요 협의사항

- 수교 이후 양국관계 평가 및 향후 협력 증진 방안
- 일리에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의 1993년 중 방한 문제 협의
- 대전 엑스포 참가, 루마니아의 시장경제 전환, 북한 핵 문제 관련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Af Ugglas, Margaretha 스웨덴 외무장관 방한, 1993.3.12.-1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31 / 15 / 1-203

Margaretha Af Ugglas 스웨덴 외무장관이 1993.3.12.~13.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1993.3월 일본 방문 계기에 한국 방문을 희망
- 중립국감시위원회 정상화 및 북한 핵 문제 관련 협력 필요성으로 방한 접수

2. 주요 일정

- 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내외신 기자회견, 국립박물관 관람, 판문점 시찰

3. 주요 협의사항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 한국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 중립국감시위원회 정상화
- 지역 안보체제
- 양국 간 통상증진

Nilsson, Lars-Ake 스웨덴 외무차관 방한, 1993.2.2.-4.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31 / 16 / 1-148

Lars-Ake Nilsson 스웨덴 외무차관의 1993.2.2.~4. 방한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3.6. 주한 스웨덴대사는 외무부 구주국장에게 자국 외무차관의 1993.10.1.~3. 방한 희망 전달
 - 일본, 한국, 중국 등 3개국 순방계획의 일환
- 1992.10.7. 스웨덴 외무차관은 스웨덴 주재 3개국 대사를 오찬에 초청하여 일정 조정을 설명
 - 1993.2.2.~4. 방한 예정 설명

546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및 통일원차관 면담
- 외교안보연구원 강연

3. L. Nilsson 스웨덴 외무차관 초청 세미나(1993.2.3., 외교안보연구원)

- 주제: Sweden in a Changing Europe(변화하는 유럽에서의 스웨덴)
- 내용
 - 구주정세 변화로 종전의 중립주의 변경 불가피
 - 발트3국 및 동구 국가들의 민주개혁 및 시장경제체제 정착 노력 적극 지원 예정
 - 신구주안보체제 구축시 미국의 구주지역 내 잔류지지 입장
 - 1995년 EC(구주공동체) 가입 실현 예상
 -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역할 강화 필요

Moravcik, Jozef 슬로바키아 외무장관 방한, 1993.8.4.-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31 / 17 / 1-160

Jozef Moravcik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1993.8.4.~7. 한국을 공식 방문함.

1. 방한 경위

- 슬로바키아 측이 대전 엑스포 개막식 참석 계기에 동 장관의 방한을 제의, 한국 측은 슬로바키아가 동구권 내 한국기업의 주요 투자국이며 양국 수교 이래 첫 외무장관 방문인 점을 감안, 공식 방문으로 접수함.
 - Moravcik 장관은 한국 방문에 이어 태국, 인도 등을 순방할 계획

2. 방문단 구성

- Jozef Moravcik 외무장관, I. Luluha 의회 외무위원장, 외무부 아주국장 등 5인

3.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
- 외무부장관 회담 및 공식만찬
- 삼성전자 사장 주최 만찬, 대전 엑스포 개막식 참가

4. 주요 협의내용

- 1993.1월 구 체코 연방 분리 후 한국·슬로바키아 간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 한반도 정세 및 북한 핵 문제 설명
-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 노력 합의
 - 슬로바키아 측, 통상교류 및 투자확대 희망
 - 한국 측, 수출기업 주재원 출입국 편의요청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한국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재입후보 지지
- 슬로바키아 측,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 요청

Omer Yousif BARIDO 수단 외무차관 방한, 1993.9.26.-2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23-31 / 18 / 1-73

Omer Yousif Barido 수단 외무차관의 1993.9.26.~2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일정

- 외무부차관 면담, 대우 사장 주최 오찬, 대우 방문, 대우자동차 산업 시찰,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 국제협력단 총재, 무역협회 부회장 면담

2. 방한 결과

- 외무부차관 면담
 - 중동평화, 수단 내정 상황, 한국 경제기술 지원, 한·수단 공동위, 전화시설 개선용 EDCF(대의 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가능성, 대우를 포함한 한국기업의 대수단 진출, 북한 핵 문제 등
- KOICA 총재 면담
 - 450만 달러 규모의 직업훈련원 지원사업(건축, 훈련, 운영), 기자재 공여(15만 달러에서 익년 부터 20만 달러로 증액 예정) 등 협의

Hurd, Douglas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93.4.7.-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31 / 19 / 1-126

Douglas Hurd 영국 외무장관의 1993.4.7.~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한승주 외무부장관 초청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장관회담,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 국방부장관 면담, 옥포조선소 제작 선박 명명식 참석 등

3. 대통령 예방 시 언급 요지

- 대통령
 -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거부 및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같은 비이성적인 결정을 반복하여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함.
 -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면담 시 중국 정부에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도록 당부해 두었으며,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이 모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에 결국에는 동참할 것으로 기대함.
 - 영국 정부의 일관된 한국 측 입장 지지에 사의 표명
- Hurd 장관
 - 최근 유엔안보리 의장국 성명이 채택되었는바, 비록 동 내용이 약한 수준이지만 중국 가담은 하나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음.

Hurd, Douglas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93.4.7.-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31 / 20 / 1-92

Douglas Hurd 영국 외무장관의 1993.4.7.~9. 방한 관련 자료임.

1. 한·영 외무장관회담 자료(외무부)

- 양국관계 발전(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
- 북한 핵 문제 및 남북관계
- 한·영 미래포럼 발족에 대한 기대
- 한·영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평가 등

550

2. 타부처 제출자료

- 통일원
 - 북한의 핵 개발, 남북 상호 핵사찰 및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
 - 한국의 통일정책과 대북전략
 -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등
- 상공자원부
 - 한국 측 제기사항: EC(구주공동체)의 반덤핑 규제 완화,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지속
 - 영국 측 제기사항: 원산지제도, 가격표시제, 모직물에 대한 품질표시제도, 전기용품에 대한 한글 표시제도, 자동차 수입장벽 완화 등
- 과기처
 - 한·영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Tarnoff, Peter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93.4.21.-2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1 / 21 / 1-93

Peter Tarnoff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1993.4.21.~2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한국 정부 주요인사와의 업무 협의

2. 주요 일정

- 김영삼 대통령 예방
- 외무부차관, 국방부장관, 통일원장관 면담
- 외교안보수석 주최 조찬, 판문점 시찰 등

3. 방문 결과

- 한국 주요인사와 Tarnoff 정무차관 간 주요 현안 협의
 - 한·미 정상회담
 - 한·미 통상 문제

Young, Herbert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외무장관 방한, 1993.10.27.-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31 / 22 / 1-30

Herbert Young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외무장관이 1993.10.27.~30.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의의

- 대전 엑스포 조직위 초청으로 유엔총회 참석 후 방한한바,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장관급으로는 1988년 이후 첫 방한임.

2. 주요 일정

- 삼성전자 시찰, 외무부차관 면담
- 대전 엑스포 참관, 주한 명예영사 주최 만찬 참석

3. 방문 결과

- 한국 측은 남북한 관계 및 북한 핵 문제를 설명하고, 한국의 안보리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요청함.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측은 한국의 경험 증진에 대해 협의함.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 방한, 1993.2.1.-5.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2 / 1 / 1-161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의 1993.2.1.~5.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92.12월 외무부장관의 베트남 공식 방문 시 방한 초청

2. 방한 의의

- 1992.12월 수교 이후 베트남 최고위인사의 방한

3.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차기 대통령 예방
- 외무장관회담
- 경제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장 면담
- 경제과학기술협정 서명
- EDCF(경제개발협력기금) 제공
 - 베트남 측은 도로 보수 및 상하수도 정수시설 분야에 지원 희망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 방한, 1993.2.1.-5. 전2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32 / 2 / 1-89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의 1993.2.1.~5. 방한 결과 내용임.

1. 고위인사 교류 촉진

- Kiet 수상 방한 환영

2. 주호치민총영사관 설치

- 금년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설치 합의

3.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4.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합의

- 양국 외무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연례 개최 합의

5. 경제기술협력 강화

- 기술훈련 및 조사 사업 지원
- 베트남 경제개발 사업 참여
- 베트남 자원개발 참여

6. 양국 간 재산권 처리 문제

- 양측이 우선적으로 사용권만 상호 인정하고, 소유권은 추후 협의하기로 원칙적 합의

Ochoa Antich, Fernando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방한, 1993.10.7.-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32 / 3 / 1-144

Fernando Ochoa Antich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1993.10.7.~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및 의의

- 한승주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유엔총회 참석 후 방한한바, 1965년 국교수립 이래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문임.

2. 주요 일정

- 김영삼 대통령 예방
- 한승주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장관회담
- 현대중공업 시찰

3. 주요 결과

- 과학기술협정 체결, 문화협정 및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가서명
-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한·베네수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 문제 논의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한국 입장 지지 재확인

이상옥 대통령 특사 Sanchez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3.8.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32 / 4 / 1-145

이상옥 전 외무부장관이 Sanchez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1993.8.5.~7. 볼리비아를 방문함.

1. Sanchez 대통령 당선

- 1993.6.6. 실시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우익 성향의 민족혁명운동당(MNR) Gonzalo Sanchez de Lozada 후보가 33.8%를 얻어 당선이 확정됨.

556

2. 파견 목적

- 볼리비아는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볼리비아 양국 간의 기존 우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로 활용함.
 - 특사파견 기회에 경제, 통상협력 증진 및 양국 간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1,300여 명의 교민에 대한 볼리비아 신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활동

- 전임 대통령에 신임장 제정 및 면담, 환영 리셉션 참석
- 국회 개원식 및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경축 리셉션 참석
 - 중남미 5개국 대통령을 포함한 66개국 특사 참석
- 신임 대통령 면담
- 교민대표 간담회

4. 주요 결과

- 이상옥 특사는 Sanchez 대통령 면담 시 김영삼 대통령의 축의와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설명함.
- Sanchez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볼리비아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한국 대기업의 참여를 희망함.
 - Sanchez 대통령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이룩한 성공을 언급하고, 한·볼리비아 간 특별한 협력관계를 통한 볼리비아의 성공 가능성을 언급함.

Schmidbauer, Bernd 독일 수상 특사(수상실 국무장관) 방한, 1993.12.6.-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32 / 5 / 1-180

Bernd Schmidbauer 독일 수상 특사의 1993.12.6.~8. 방한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프랑스 기업이 선정된 이후, 한·독일 간의 관계 증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슈미트바우어 수상실 국무장관이 독일 수상 특사로 방한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면담

3. 양측 협의사항

- 경제협력 증진 협의
-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Ahmed Abdullah AL-RUBEI 쿠웨이트 국왕 특사(교육 및 고등교육부장관) 방한, 1993.3.7.-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32 / 7 / 1-117

Ahmed Abdullah Al-Rubei 쿠웨이트 교육 및 고등교육부장관의 1993.3.7.~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1993.1월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등 서방 측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회의적인 국제여론이 일어남에 따라 우방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왕 특사를 파견한 것으로 관측
 - Al-Rubei 특사는 한국 외에도 10개 아시아 국가 순방

558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 면담(쿠웨이트 국왕 친서 전달)
-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환영 만찬

3. 방문 결과(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요지)

- Al-Rubei 특사는 쿠웨이트 국왕의 친서를 전달
- 유엔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위협 설명
- 이라크와의 국경선 획정 문제 및 이라크가 억류 중인 쿠웨이트인의 석방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요청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 해외 활동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 북미1과

MF번호 2023-32 / 8 / 1-87

1993년 중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의 해외 활동 관련 내용임.

1. 베를린(1993.2.24.~26.)

-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강연회
- 삼성전관 인수 업체 방문 및 동독 출신 직원 간담회, 동독 출신 가정 방문
-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통일에 관한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제하 연설, 3단계 점진적 통일방안 설명

2. 이스라엘(1993.7.1.~3.)

- Weizman 이스라엘 대통령 예방
- 히브루대학 강연
- 이스라엘 국영 TV 회견

3. 독일(1993.9.21.~26.)

- Genscher 독일 외상 면담, 에버트재단 방문, Klose 사민당 원내의장 면담
- Thierse 사민당 의원 면담, 나우만재단 방문
- 외신기자 간담회, 바이츠제커 독일 대통령 예방

4. 러시아(1993.9.26.~29.)

- 외교아카데미 강연, 특파원 만찬
- 모스크바대학 강연
-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예방 및 오찬

5. 미국(1993.10.3.~11.)

- 애틀랜타(10.3.~5.): CNN 회견, Atlanta Journal/Constitution 일간지 회견, 마틴루터킹센터 방문, Laney 에모리대학 총장 및 Carter 전 미 대통령 면담
- 워싱턴 D.C.(10.6.~7.): Korea Society 주관 조찬 연설, Thomas M. Foglietta 미 하원의원 주최 오찬,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주최 조찬, 조지워싱턴대학 시거센터 주최 오찬
- 로스앤젤레스(10.9.~11.):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통일 문제 강연회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의원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방문, 1993.5.30.-6.6.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재외국민2과

MF번호 2023-32 / 10 / 1-168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소속 안무혁, 이부영 의원이 1993.5.30.~6.6.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를 방문함.

1. 출장 목적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동포 실태 조사, 동포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회 차원의 교섭

2. 주요 일정

- 카자흐스탄
 - 동포지도자 간담회, 문화부장관 면담, 외무부차관 면담,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간담회 등
- 우즈베키스탄
 - 대통령 민족문제 담당 수석비서관 면담, 의회 국제외교위원장 면담, 한인동포지도자 간담회 등
- 러시아
 - 대통령실 공민권위원장 면담, 한인지도자 간담회

3. 방문 결과

- 우즈베키스탄은 북한이 집중 공략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즈베키스탄 내 공관 개설을 앞당겨 8~9월 중에 설치할 것을 촉구
- 중앙아시아지역은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한인교회의 선교활동은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국회 3당 원내총무단 과테말라 방문, 1993.1.14.-16.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32 / 11 / 1-25

이철 의원(민주당 원내총무), 김정남 의원(국민당 원내총무), 김길홍 의원(민자당 부총무) 등 국회 원내총무단이 1993.1.14.~16. 과테말라를 방문함.

1. 경위

- 과테말라 의회 Lobo Dubon 의장 당선자는 1993.1.5. 박준규 국회의장 앞 서한을 통해 양국 간 실질관계 심화 및 의회 교류 증대방안 협의를 위해 한국 3당 원내총무의 1월 중 주재국 방문을 초청함.

2. 주요 일정

-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예방
-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
- 동포 간담회 겸 만찬
- 안티구아 시찰

3. 방문 결과

- 국회의장 예방 시 한국 업체 기술자들의 입국비자 협조를 요청
 - 국회의장은 큰 관심을 나타내고, 한국 업체의 투자진출 확대 및 업종 다변화에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
- Serrano 과테말라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 우호관계가 크게 증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사증협정의 조속 체결을 요청
 - 동 대통령은 외상에게 전화하여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과테말라 측 협정 초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임을 언급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의원단 멕시코 방문, 1993.1.22.-2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32 / 12 / 1-78

1993.1.22.~26. 정재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의원단이 멕시코를 방문함.

1. 주요 일정

- Solana 외무상 면담, 상원의장 예방
- 한·멕시코 외무위 간담회(상원)
- 동포 초청 만찬(외무위원장 주최)
- 피라미드, 멕시코 문화 3천 년 전 등 관람
- 주멕시코대사 주최 관저 만찬

2. 방문 결과

-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증진 협의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국회사절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3.1.14.-2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32 / 13 / 1-93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국회사절단이 1993.1.14.~20. 스위스를 방문함.

1. 방문단

- 민자당: 정시채(단장), 이영문, 민태구 의원
- 민주당: 김영진, 김장곤 의원
- 국민당: 조일현 의원

2. 주요 활동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면담(1.15.)
 - 한국 측은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농업 여건상 쌀 등 기초식량은 관세화 외 MMA(최소시장접근)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농협의 서명운동과 국회의 3차례에 걸친 결의안 채택 등이 동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함.
 - Dunkel 사무총장은 UR 협상이 세부적인 협상안을 마련하는 등 타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하고 한국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유사한 입장을 보여 왔던 핀란드도 관세화 원칙을 받아들였음에 비추어 GATT 체제의 이익을 더 받은 한국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Lavorel 미국대사 및 John Beck EC(구주공동체) 부대표 면담(1.15.)
 - Lavorel 대사는 한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미국도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언급
 - John Beck 부대표는 EC가 한국의 쌀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다고 하면서, 이익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 Howes 호주대사, Shannon 캐나다대사, Endo 일본대사 각각 면담(1.18.)
- Carlisle GATT 사무차장 오찬 면담(1.18.)

3. 1993.11.18. 국회 본회의에서는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을 채택

- UR 협상 타결 시한이 12.15.인 점을 감안하여 결의문 채택 직후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 미국 방문, 1993.1.7.-2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32 / 14 / 1-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찰단의 1993.1.7.~20. 미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현경대(단장), 강신옥, 강재섭, 함서재(민자당), 강철선, 정기호(민주당)

2. 방문 일정

- 호놀룰루(1.7.~9.), 로스앤젤레스(1.9.~12.), 뉴욕(1.14.~17.), 워싱턴 D.C.(1.17.~20.)

564

3. William Rehnquist 미 연방 대법원장 예방(1.9.)

- 미국의 위헌 법률심사제도와와의 비교 등 양국 사법제도의 차이, 장·단점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Rehnquist 대법원장은 각국의 역사, 전통에 따라 제도는 상이하기 마련이나, 미국은 200년 이상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서 행사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른 나라에 모델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설명함.
 - 또한 그간 미국 제도에 대하여도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헌법 개정에 의하여 제도를 고치기 보다는 바람직한 관행을 확립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왔다고 설명하고, 어느 제도든지 정착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견해를 피력함.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93.1.19.-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32 / 15 / 1-146

국회의원단의 1993.1.19.~22. 미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대표단

- 정재문 위원장(민주자유당)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 10명 및 전문위원 1명

2. 방문 목적

- 클린턴 미 대통령 취임식 및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 동북아 세미나 참석

3. 주요 일정

- 브루킹스연구소 조찬 간담회 및 카네기재단 간담회 참석
-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및 기념 무도회 참석
- CSIS 주관 동북아 안보 세미나 참석, 폴리 미 하원의장(민주당, 워싱턴) 및 액커만(민주당, 뉴욕) 하원 아·태 소위원장 면담

4. 방문 결과

- 폴리 의장 및 액커만 위원장 면담 시 주요 논의 요지
 - 북한 핵 문제 관련, 액커만 위원장은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북 압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한국 측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위해 남·북한 상호사찰제도 확립 필요성 강조
- CSIS 주관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지역안보 정세”와 “국내 정치발전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의

이기택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구주 4개국 순방, 1993.6.16.-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23-32 / 16 / 1-137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1993.6.16.~27. 유럽 4개국(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순방 관련 내용임.

1. 순방 목적

- 유럽 주요국 정부 및 의회 지도자와 유대 구축 및 강화

2. 순방 결과

- 독일(6.16.~19.): 사민당 원내의장, 전 자민당 당수, 하원의장 면담
- 영국(6.19.~21.): 김대중 전 대표 초청 만찬, 캠브리지대학 총장 및 상원의장 면담
- 이탈리아(6.21.~24.): 대통령, 하원의장, 법무장관, 양국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 프랑스(6.24.~27.): 사민당 당수 면담

3. 특이사항

- 독일 방문 시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관심 표명 및 북한 핵 문제 해결 협조 요청
- 이탈리아 방문 시 한국의 개혁정책 설명 및 이탈리아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 표명

박준규 국회의장 중남미 순방계획

생산연도 1992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23-32 / 17 / 1-84

1992년 중 박준규 국회의장의 중남미 순방 추진 관련 내용임.

1. 방문 기간

- 1993.1.13.~2.1.(20일간)

2. 방문국

- 공식 방문국
 -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 비공식 방문국
 - 칠레, 아르헨티나(미국 경유)

3. 방문단

- 박준규 국회의장 외 수행의원 5인, 수행원 4인, 수행기자 4인

4. 외무부에 대한 국회 측 협조 요망사항

- 정부 및 의회지도자 예방인사 확정 시 한국 측 거론 희망사항 및 상대 측 거론 예상사항
- 한국 측 주최 오·만찬 또는 리셉션 개최 시 이에 대한 건의, 연설을 필요로 하는 행사명 및 연설 요지
- 유적지 방문 안내책자 및 화보 송부
- 호텔 예약 및 한국 측 부담 경비내역, 호텔 전화번호, 공관·관저 및 직원 전화번호
- 선물 증정 대상자 및 선물 목록

5. 행사 취소

- 외무부는 1992.12.24. 국회사무처가 신정부 출범 준비 등 국내 정치일정 관계로 동 순방계획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왔다고 하면서, 이를 주재국 측에 적절히 설명하도록 순방국가 주재 대사관에 지시함.

오스트리아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32 / 18 / 1-170

1991~93년 중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91.9.1.~6. 방한

- 방문 경위
 - 김용채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 방문단
 - Neisser(단장), Heinrich 국민당 원내총무(한·오 협회장) 등 10명
- 주요 일정
 - 한·오스트리아 의원 친선협회장 및 국회의장 예방
 - 임진각, 판문점 방문, 경주 관광
 - 경주 시장 주최 만찬, 포철 시찰, 포철 사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수원공장 및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시찰
 -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신민당 총재,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외무부장관 예방
- 방한 결과
 - 양국 간 의원 교류 및 이해 증진에 기여
 - 방문단은 외무부장관 면담 시 한·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시기, 한국의 통일정책, 대소련 경험 자금 집행, APEC(아태경제협력체) 향후 형태 등 문의

2. 1993.9.12.~17. 방한

- 방문단
 - Neisser(단장), Heinrich 국민당 원내총무, 오스트리아·한 의원친선협회장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예방,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연세대 총장 주최 오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세미나 참석, 경주 및 대전 엑스포 시찰, 독립기념관 관람,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등
- 방한 결과
 - 한반도 정세, 북한 핵 문제, 한·오스트리아 협력관계 증진 등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증진, 대전 엑스포 시찰, 국회 간 협력 증진 등

Lucena, Humberto Coutinbo 브라질 상원의장 방한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32 / 19 / 1-76

1988~93년 중 Lucena 브라질 상원의장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88.11.14. 주브라질대사는 Lucena 브라질 상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회사절단이 중국의회 초청으로 11.29.~12.6.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귀로에 방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바, 동 사절단의 방한초청을 건의함.
- 1988.11.22. 주브라질대사는 동 사절단의 중국 방문 일정이 1989.1월로 변경되어 1월 중순경 동 사절단의 방한 접수 가능을 문의함.
- 1988.11.30. 국회사무처는 동 사절단의 1989.1월 중순 방한을 수락함.
- 1988.12.13. 주브라질대사는 동 사절단이 1989.1.9.~16. 중국 방문이 결정되어 1.17.~21.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함.
- 1988.12.14. 외무부는 국회사무처에서 동 사절단의 1.17.~21. 방한 접수를 수락했음을 주브라질 대사에게 송부함.

2. 방한 결과

- 기간: 1989.1.17.~21.
- 방문 인사: Lucena 상원의장 일행 11명 등 23명 방한
-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각 당 총재, 외교부장관 면담
 - 국립박물관, 판문점 시찰

3. Lucena 상원의장과 외무부장관 간 면담 주요 내용(1989.1.19.)

- 외무부장관은 브라질이 전통적인 한국의 우방국으로 국제무대, 특히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는 것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함.
- 상원의장은 브라질은 내정불간섭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비결에 대해 문의함.
- 외무부장관은 한국은 교육에 치중하여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였고,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근면함으로 모아졌으며, 마지막으로 자원대국인 브라질을 포함한 우방국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덕분에 오늘날의 성장이 가능하였다고 답변함.
- 상원의장은 환대에 사의를 표함.



4. 1993년도 Lucena 상원의원 방한 추진 경위

- 1993.3.25. 주브라질대사는 한국 국회 측의 Inocencio 하원의장 일행 방한 초청의사를 전달 하였음을 보고하면서, Lucena 상원의장의 방한 초청에 관한 조속 회시를 요청함.
- 1993.5.12. 외무부는 국회에서 Lucena 상원의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재검토, 하원의장 초청과 같은 조건으로 동 상원의장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브라질대사에게 송부함.
 - 5.15. 외무부는 브라질 상·하원의장 방한초청장을 송부함.

왕광영(王光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93.9.5.-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2 / 21 / 1-36

왕광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1993.9.5.~12. 방한함.

1. 경위

-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소 회장의 방한 초청
 - 아태경제문화연구소는 1993.8.31. 외무부에 한·중 수교 1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민간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왕광영 부위원장의 방한 초청을 알리면서 국무총리 예방 등 동인의 방한 초청 관련 협조를 요청함.

2.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면담, 전경련회장 면담, 국무총리 예방, 민자당 대표 면담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면담, 무역협회 회장 면담, 엑스포 참관

전기운(田紀雲)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93.6.6.-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2 / 22 / 1-76

전기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1993.6.6.~12. 방한함.

1. 경위

- 박세직, 김현규 국회의원은 중국 방문 후 황낙주 국회 부의장의 명의를 빌려 전기운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한 초청하는 서한을 1993.4.28. 발송함.
 - 국회사무처 측도 동 방한 초청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향후 여사한 경우 외무부와 사전협의 약속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측은 주중국대사관 측에 동 방한 초청에 따라 전기운 부위원장의 6.6.~12. 방한 결정 통보
 - 총 17명의 방한단 파견, 동 부위원장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희망
 - 주중국대사관 측은 부총리(경제담당)를 역임한 중국 정계의 주요 인물인 동 부위원장의 방한 희망 일정 배려를 외무부에 건의
- 주중국대사는 6.4. 전기운 부위원장과 면담한바, 동 부위원장은 방한을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계 인사들과 폭넓게 만나고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이해 촉진 및 경제무역 분야 협력 추진 의향을 표명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 한국기업인 대상 연설: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
- 철강업체 등 산업시찰
-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예방, 경제기획원장 면담

Monory, Rene 프랑스 상원의장 방한, 1993.8.28.-9.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32 / 23 / 1-47

르네 모노리 프랑스 상원의장이 1993.8.28.~9.1. 방한함.

1. 방한 경위

- 르네 모노리 상원의장은 1993.3.20. 주프랑스대사와 한국 특파원단 등을 오찬에 초청, 프랑스 현 시국과 양국관계에 관하여 환담함.
 - 모노리 의장은 프랑스 미래과학관의 대전 엑스포 참가 관계로 9월 중 방한 계획이라고 언급
- 국회사무처는 6.9. 모노리 상원의장이 희망하는 엑스포 기간 중(8월말~9월초) 이만섭 국회의장 명의로 동인을 공식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오면서, 동 상원의장에 대한 이만섭 국회의장 명의의 6.8.자 방한초청장을 송부함.
 - 동 상원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직위
 - 국회 측은 동 상원의장을 포함하여 5명까지 4박 5일간 체재비 부담 예정
- 주프랑스대사관은 6.23. 이만섭 국회의장 명의 방한초청장 전달

2. 주요 일정

- 대전 엑스포 방문, 국회의장 예방 및 오찬

3. 결과

- 동 상원의장은 1993.9.2. 이만섭 국회의장 앞 감사서한을 송부함.
 - 체한 시 환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방불 초청 내용

Mohammad Javad Larijani, 이란 의회 외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93.10.25.-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32 / 24 / 1-44

Mohammad Javad Larijani 이란 의회 외무위원회 부위원장의 1993.10.25.~30.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93.2월 대우 초청으로 방한하였으나, 부친 사망으로 중도에 급히 귀국함.
- 그 후 수차례 재방한 희망을 표시하였고, 대전 엑스포 계기 대우 측 초청으로 재방한

574

2. 주요 일정

- 정재문 외무통일위원장, 외무부차관, KDI 원장 예방
- 옥포, 창원, 경인지역, 대전 엑스포 시찰

3. 방문 결과

- 이란·한 간 의원친선협회를 통한 의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Velayati 이란 외무장관의 방한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경험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이란의 경제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요청
- 한국 측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란 정부의 협조 당부
- 미국·이란, 이란·사우디, 이란·이라크 관계 등 이란 관련 주요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카지야마 세이로쿠(梶山 靜六)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방한, 1993.4.19.-2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33 / 1 / 1-95

카지야마 세이로쿠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1993.4.19.~21.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김영삼 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일본 간 협력관계 논의
 - 신정부 출범 이후 일본 집권당 대표단의 최초 방한
- 김영삼 대통령을 방일 초청하는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친서 전달

2. 주요 일정

- 민자당 방문, 국립묘지 참배, 경제계 초청 만찬
- 대통령, 국무총리,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예방
- 언론계 인사 초청 조찬, 국회의장 대리 예방

3. 방한 결과(주요인사 면담 요지)

- 김영삼 대통령
 - 카지야마 간사장은 미야자와 총리 명의로 친서를 전달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방일 초청함.
 - 친서 내용은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 천명
 - 한국 정부가 군대위안부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함.
 -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이 무역역조 해소와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해 주도록 촉구함.
- 국무총리
 - 카지야마 간사장은 김영삼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한·일본 간 관계 구축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자 방한했다고 설명함.
 - 한국 측은 새 시대에 맞는 한·일본 간 관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 협력관계 증대를 희망함.

Ahmed Abdulaziz Al-Sadoon 쿠웨이트 국회의장 방한, 1993.9.22.-2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23-33 / 2 / 1-103

Al-Sadoon 쿠웨이트 국회의장의 1993.9.22.~24.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Al-Sadoon 쿠웨이트 국회의장 일행이 제90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1993.9.13~18.) 참석 계기 아시아 6개국(한국, 뉴질랜드, 중국, 몽골, 일본 및 인도) 순방
 - 쿠웨이트 국회는 이라크 관련 자국 입장 지지 확보를 위해 11개 국회사절단을 90여 개국에 파견

576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당 대표위원 면담

3. 국무총리 면담(9.23.) 요지

- Al-Sadoon 의장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쿠웨이트에 대한 지지,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숭고한 역할, 쿠웨이트 재건사업 적극 참여 등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함.
 - 쿠웨이트 해방이 2년 이상 지났음에도 이라크는 유엔안보리 결의(국경 확정, 포로송환 문제 등) 이행을 거부하며, 국경 확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결의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결정을 고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국무총리
 - 쿠웨이트·이라크 분쟁이 유엔 결의 준수를 토대로 해결되기를 희망함.
 - 쿠웨이트 재건과 건설 사업에 한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 정부의 호의적인 배려를 요청함.
 - 한국은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앞으로 유엔안보리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 관련 논의 시 쿠웨이트의 협조를 기대함.

Marut Bunnag 태국 국회의장 방한, 1993.3.8.-1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33 / 3 / 1-72

Marut Bunnag 태국 국회의장이 1993.3.8.~13. 방한함.

1. 경위

- 박준규 국회의장의 태국 공식 방문(1992.12월)에 대한 답방으로 1993.3.8.~13. 방한하기로 합의
 - 방한 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초청으로 4월 방북 초청을 수락한 상태
 - 공식 방한 인원은 13명이나, 태국 국회 부담으로 사무처 직원 5명 비공식 추가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국회의장 면담
- 시찰: 부산항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경주 일원
- 오·만찬: 국회의장 주최 만찬, 국회부의장 주최 오찬, 한·태국 경제협력위원장 주최 오찬, 주한 태국 명예총영사 주최 오찬, 현대중공업 주최 오찬, 부산시장 주최 만찬 등

3. 자료

- Marut 태국 국회의장 접견자료
- Marut 태국 국회의장의 박준규 국회의장 등 7인의 국내인사에 대한 감사 서한

Stanley, John P. 영국·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1993.11.9.-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3-33 / 4 / 1-110

John Stanley 영국·한 의원친선협회장이 1993.11.9.~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한국 국회 초청으로 방한

2.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회외무통일위원장, 한·영 의원친선협회장,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 민족통일연구원, 전경련, 상공회의소 방문, 현대자동차, 대우전자(구미공장) 등 시찰, 경주 관광 등

3. 외무부차관 면담(11.10.) 시 Stanley 의원 언급 요지

-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한·영 미래를 위한 포럼'의 기여 희망
- EC(구주공동체)의 주요 관심품목(모직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세율 인상 검토와 관련 재고 요청
- 영국 ICI사 현지법인(ICI Kore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세무조사 중단을 포함한 선처 희망
- 한국기업들의 대영국 투자 확대 기대

Ackerman, Gary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 소위원장 남·북한 방문, 1993.10.9.-1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3 / 5 / 1-158

Gary Ackerman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1993.10.9.~13. 남·북한을 방문함.

1. 북한 방문(1993.10.9.~12.)

- 방북 결과
 - Ackerman 위원장은 10.11. 김일성과 오찬 포함 2시간 20분 면담하고, 10.10. 김영남과 2시간, 강석주와 4시간 면담을 가짐.
 - 김일성은 연령에 비해 건강하게 보였으며, 노령에 따른 장애 현상도 별로 없었으나, 다만 청력은 상당히 나빠 보였다고 함.
 - 북한 측은 핵 문제는 미국·북한 간에만 해결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자존심에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IAEA와는 대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함.
- 한국 정부의 평가
 - 한국 정부의 예상대로 Ackerman 위원장의 방북을 핵 문제 관련 국제적 압력을 희석시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

2. 한국 방문(1993.10.12.~13.)

- 주요 일정
 - 판문점 통과 후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10.12.)
 - 외무부장관, 대통령 예방
- Quinones 미 국무부 한국·북한담당관, 한국 측 실무진에게 북한 방문 결과 설명
 - 북한 측은 핵 문제 관련 현 상황의 시급성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3단계 미국·북한 접촉 일정 확정, 분위기 개선을 위한 사전조치 등 기존 요구를 반복

Glickman, Dan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 방한, 1993.8.13.-16.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3/6/1-93

Dan Glickman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1993.8.13.~16.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Dan Glickman 하원 정보위원장(민주, 캔사스) 외 하원의원 4명

2. 방한 목적

- 아주지역 정세 시찰

3. 주요 일정

- 주한 미 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 청와대 예방
- 외무부장관 면담
-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
- 주한미군 사령관 면담, DMZ 방문 등

4. 방한 결과

- 한국이 이룩한 민주 발전과 인권 신장을 아시아의 모범으로 높게 평가
- 한·미 양국이 최상의 안보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을 높게 평가
 - 아울러 안보협력에 비해 한·미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은 미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투자환경 개선 등 보다 개방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Robb, Charles 미국 상원의원 방한, 1993.4.7.-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3 / 7 / 1-23

Charles Robb 미국 상원의원의 1993.4.7.~8.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면담
- 안기부장,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면담

2. 김영삼 대통령 면담 결과

- Robb 위원장은 자신이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 간 회동을 권유
 - 이에 대해 김 대통령도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 위원장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
- 김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해 한·미 양국 간 공동보조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
 - 동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적인 공감 표시
- Robb 위원장은 4.7. 이붕 중국 총리 및 외교부 부부장(유화추일 것으로 추정) 면담 시 중국 측은 대북한 압력행사에 대해 상당히 거북해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

93-0535

Young, Jackie 미국 Hawaii주 하원 부의장 방한, 1993.10.7.-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33 / 8 / 1-12

Jackie Young 미국 하와이주 하원 부의장의 1993.10.7.~1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공보처의 1993 해외 유력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미국 의회 보좌관 방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 통상2과

MF번호 2023-33 / 9 / 1-180

외무부는 대미국 의회 외교의 일환으로 1993년 미국 의회 보좌관 및 전문위원 방한 초청사업을 3회에 걸쳐 실시함.

1. 방한 초청사업 배경

- 대미국 의회 경제·통상 홍보 강화 목적으로 1982년 이래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미국 정책 수립에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보좌관의 전문성과 기여 등을 고려한 사업으로 미 의회 의원들의 한국의 대내외 정책과 정치·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

2. 제1차 방한(1993.4.11.~18.)

- 방문단(8명)
 - 미국 상원의원 보좌관 3명, 하원의원 보좌관 3명, 하원 정보위원회 전문위원, KEI(한국경제연구소, 워싱턴 소재) 직원 1명
- 주요 일정
 - 외무부 주관 안보 브리핑 및 판문점 시찰, 국회 방문, 국회의원 면담
 - 대외경제연구원 방문 통상관계 간담회, 중소기업 방문, 산업 시찰, 경주 방문

3. 제2차 방한(1993.8.29.~9.4.)

- 방문단(6명)
 - K. O'Callagan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외 미국 상·하의원 보좌관 5명
- 주요 일정
 - 외무부, 국방부, 통일원, 해외공보관 방문 브리핑 청취 및 간담회, 판문점 시찰
 - 국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등 방문
 - 대전 엑스포 관람, 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등

4. 제3차 방한(1993.10.18.~25.)

- 방문단(8명)
 - S. Blumenthal 하원 에너지·상공위원회 고문 외 미국 상·하의원 보좌관 6명, KEI 의회 담당관 등
- 주요 일정
 - 정치·경제계 인사 면담, 국회의사당 방문, 대전 엑스포 관람, 경주 관광 등
 - 산업현장 방문: 중소기업(영원무역), 한·미 합작회사(삼성·HP), 포항제철, 경주 교외 농가

미국 의회 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3 / 10 / 1-148

1993년 중 미국 의회 의원 방한 관련 내용임.

1. Ted Stevens 상원의원(1993.2.6.~8.)

- 한·미국 안보협력 증진방안 협의
- 주한 미군기지 사찰,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와 조찬, 합참의장 면담, 오산 미 7공군 방문 등

2. Thomas M. Foglietta 하원의원(1993.4.30.~5.3.)

- 외무부장관 면담(5.1.)
 - 폴리에타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위협요소인 핵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 의회 및 언론 등의 주요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하원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
 - 동 장관은 6.12. 전에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미국 측으로서는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던 바, 동 의원은 6.12. 이전에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겠으며 대북 설득을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북한 고위접촉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

3. 상원 의원단(1993.12.6.~8.)

- Thad Cochran/Hank Brown/Larry Pressler 상원의원
- 외무부장관 면담
 - 북한 핵 문제 진전 전망(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준 문제), 북한의 핵보유가 한국, 일본, 중국에 핵 개발 야기 가능성, 북한 위협 관련 한국 내 미 군사력 증강 문제 등에 관한 의견 교환

4. Frank Murkowski 상원의원(1993.12.6.~8.)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면담
 - 북한 핵 문제에 관한 IAEA 사찰 문제 등 협의

5. Robert Torricelli 하원의원, 남북한 방문 추진

- Torricelli 하원의원은 1993.12.14.~19. 도쿄, 서울, 평양(판문점 통과) 방문을 추진하다가,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33 / 11 / 1-53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1993.1.9.~22. 호주 방문 관련 내용임.

1. 사절단

- 황윤기, 허재홍, 이영창, 유준상, 김병오, 정태영 의원 내외, 이권우 입법조사관

2. 주요 일정

- Sobraa 상원의장 예방
- Jull 하원의원(호·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주최 오찬
- Evans 외무장관 예방
- 전쟁기념관 헌화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23-33 / 12 / 1-68



1985~93년 중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관련 내용임.

1.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캐나다 측 의원단 재구성

- 1986.10월 말 현재 캐나다 측 의원단 명단 수록
 - 회장단: 명예회장, 부회장, 상원부회장, 재정 간사, 간사 등 총 10명이며, 회장직은 공석 중으로 1986.11월 말 선임 예정임.
 - 회원: 60명

586

2.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한국 측 의원단 명단 통보(1993.8.11.)

- 회장: 나웅배(민자)
- 부회장: 권해옥(민자), 한화갑(민주)
- 이사: 박우병, 안무혁, 박지원(민자), 유인태(민주)

3.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캐나다 측 회원 명단 통보(1993.8.13.)

- Bill Vankoughnet 회장 등 회장단 14명 등 총 57명

한·중국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3 / 13 / 1-68

1992~93년 한·중국 의원친선협회의 결성 및 양국 의회인사의 상호방문 관련 문서임.

1. 한·중국 의원친선협회 구성(1992.12월)

- 목적: 한·중 양국 국회의원 간의 교류 증진
- 회장: 김용태 민자당 의원
 - 부회장 2명, 이사 4명, 회원 28명 등 총 35명

2. 중국·한 의원친선협회 구성(1993.6월)

- 경위
 - 1993.2월 주중국대사는 팽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접촉 시, 한·중국 의원친선협회 결성 사실을 알리고 중국 측도 이에 상응하는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도록 제의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1993.3월 말 제8기 전인대 구성 후, 적극 검토 예정임을 언급
- 회장: 주량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 전인대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3. 국회 국방위원단 방중(1993.6.25.)

- 단장: 신상우 위원장
- 진기위 전인대 부위원장 면담
 - 진 부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중국이 당의 영도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동 정책을 심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
 - 양측은 향후 아·태지역 시대에 대비하여 양국이 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위해 양국 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함.
 - 신 위원장은 진 부위원장의 방한을 권유한바, 진 부위원장도 방한 희망 피력
- 주량 외사위원회 주임위원과 면담 및 오찬
 - 중국 측은 전인대 교석위원장 명의의 이만섭 의장에 대한 방중 초청을 상기시키면서 조속한 방중 실현을 기대
 - 한국 외무통일위원회 대표단 방중 초청
 - 한국 측은 북한이 동북아 정세에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한바, 중국 측은 대북한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으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한국 측은 주량 위원장이 중국·한 의원친선협회장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하고, 양국 간 우호친선을 위한 동 위원장의 역할을 희망함.

한·도미니카공화국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3-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33 / 14 / 1-75

1983~93년 중 한·도미니카공화국 간 의원친선협회 발족 및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도미니카 간 의원친선협회 공식 발족(1984.2.16.)

2. 한·도미니카 간 의원친선협회, 도미니카 의원협회 간부의 방한 추진 경위

- 1989.12월 Rojas 도미니카·한 의원친선협회회장에게 한국 국회의장 명의 방한초청장 전달
- 1991.8월 동 회장 사망
- 1993.1.6. 주도미니카대사, Francisco Torres 도미니카·한 의원협회장 및 Albuquerque 부회장
방한 초청 건의(항공료, 체재비 한국 측 부담 건의)
- 1993.3.31. 주도미니카대사, 신임 한·도미니카 친선협회장 명의 초청장 발송 건의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21차. 서울, 1993.9.1.-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33 / 15 / 1-115

1993.9.1.~3.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일본 측
 - 다테시타 노보루 일·한 의원연맹 회장, 하라다 켄 회장 대행 등 대표단 40명
- 한국 측
 - 김윤환 회장 등 95명

2. 주요 의제

- 동북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 정립
- 청소년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 추진
-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과 사할린동포 문제 등 전후처리 문제 해결방안

3. 회의 결과(공동성명 발표)

- 양국 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거사를 합리적으로 청산하고 진정한 미래 우호를 향해 출발할 것을 다짐.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한반도 및 역내 긴장완화에 저해요인이라는 공동인식하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한편 일·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로 함.
- 양국 간 경제협력은 시장경제원리의 바탕 위에서 추진하고, 아·태 국가 간 경제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
- 재일 한국인의 법적·사회적 지위 개선과 사할린동포 문제 등 전후처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함.

한·일본 의원연맹.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33 / 16 / 1-188

1993.1~5월 중 한·일본 의원연맹 관련 내용임.

1. 일·한 의원연맹 및 협력위원회 측 인사 방한

- 일·한 의원연맹 하라다 켄 회장 대행 등 9명의 대표단과 협력위원회 소속 사쿠라우치 요시오 중의원 의장 등 5명
- 노태우 대통령 및 김영삼 차기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예방 및 정계인사 접촉

2. 김재순 한·일 의원연맹 회장 방일 활동

- 한국 측 회장이었던 박태준 회장의 사퇴로 1993.2.8. 김재순 전 국회의장을 회장으로 선출
- 신임 인사차 1993.3.3.~6. 방일하여 미야자와 일본 총리, 다케시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정·재계 유력인사 예방
 - 김영삼 대통령의 미야자와 총리 앞 친서 전달
- 미야자와 총리 면담
 - 한국 정부가 미국과 더불어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정책 방향임을 설명하고,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 동 총리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공감을 표시하고, 김 대통령과 가까운 시일 내 회동을 기대
- 야마하나 일본 사회당 위원장 및 사토 부위원장 면담
 - 일·한 의원연맹 가입과 동 위원장 방한을 위해 사회당이 북한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당 정책을 전환해 한국을 정식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사회당 측은 대한민국 정책 전환 검토 추진을 언급
- 정계인사 예방 및 일본 경단련 회장단 회동

3. 일·한 의원연맹 방한(1993.5.3.~4.)

- 하라다 켄 회장 대행 등 대표단
- 대통령 예방
 - 하라다 회장 대행 등 5명, 대통령 취임 축하 및 의련 활동 보고차 김영삼 대통령 면담
- 김윤환 신임 한국 측 회장 면담

4. 한·일 의원연맹 회장단 방일(1993.5.24.~27.)

- 김윤환 회장 등 14명의 대표단
- 미야자와 일본 총리 예방, 무토 외상 주최 만찬 참석
- 카지야마 자민당 간사장, 다케시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 등 면담

한·일본 의원연맹.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33 / 17 / 1-191

1993.6~12월 중 한·일본 의원연맹 관련 내용임.

1. 일·한 의원연맹 방한 지원

- 후쿠시마현 일본 의원 방한단(1993.5.10.~13.)
 - 목적: 국제선 취항 협조 요망
 - 인원: 가와다 마사나리 현의원 등 5명
- 오사카부 의회 일·한 의원연맹 방한단(1993.5.13.~16.)
 - 목적: 한·일 우호 증진
 - 인원: 아즈마 타케시 부의원 등 21명
- 도야마현 정기향로 개설 감사 사절단, 도오고오 학예대학 교수 일행, 가나가와현 일·한 친선협회, 미에현 츠시 일·한 의원연맹, 니가타현 친선협회, 오이타현 일·한 의원연맹, 도쿄 타치카와 의회 자민당의원 등 방한 지원

2. 한·일본 의원연맹 회장단 방일(1993.8.19.~21.)

- 김윤환 회장, 나웅배 간사장 등 회장단
-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대비한 사전 협의

3. 공노명 주일본대사, 일·한 의원연맹 지도부 접촉(1993.8월)

- 다케시다 의련 회장 면담 시 동 회장은 사회당이 공명·민사당과 연정 파트너가 된 만큼 사회당의 의련 가입을 낙관
- 도츠카 신야 의련 전 운영위원장 면담 시 사회당의 의련 가입 관련 대한민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언급

한·수단 의원친선협회 결성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33 / 18 / 1-26

1992~93년 중 한·수단 의원친선협회 결성 관련 내용임.

1. 주수단대사관은 외무부 지시에 따라 1993.8.23. 수단 국회 외무위원장을 면담하고, 한국 국회의원 친선협회 구성 제의를 전달함.
2. 한국 국회사무처는 1994년도 국회의원 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위하여 1993.11.19. 개최된 국회의원 외교활동운영협의회 회의 결과 향후 의원친선협회 운영은 상대측 국가에서 의원친선협회를 미결성한 국가 및 상호 교류가 없는 국가와의 의원친선협회는 점차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의 기본방침을 결정함.
 - 이에 따라 수단 등 여타 국가와의 의원친선협회 추가 결성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12.10. 외무부에 공식 통보함.

한·구주의회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33 / 19 / 1-208

한·구주의회,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93.5.22.~28. 그리스 및 구주의회를 방문함.

1. 국회 의원단 구성

- 민자당: 박명근 의원, 이재환 의원, 강신조 의원
- 민주당: 김영배 의원, 장재식 의원
- 무소속: 김정남 의원

2. 방문 일정

- 그리스 아테네(5.22.~24.)
 - Frangos 국회 부의장 면담,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면담
- 구주의회(스트라스부르, 5.25.~27.)
 - Klepsch 구주의회 의장 예방, 한·구주의회 친선협회 합동회의
 - 한·구주의회 친선협회장 주최 오찬, 구주의회 외교위원장, 대외경제관계위원장 면담 등

3. 구주의회 방문 의의

- 한·구주의회 의원친선단 결성(1986년) 이래 최초의 한국의원단 방문
- EC(구주공동체) 집행위가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다방면에 걸쳐 한·EC 관계 발전을 EC 이사회에 건의한바, 이번 방문이 한·EC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 1993년 1분기 구주의회 측 답방 예정

4. 참고자료

-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및 한·구주의회 의원친선협회 해외방문 보고서(1993.10월, 대표단)

아시아·태평양 의원포럼(APPF) 창립총회. 동경, 1993.1.13.-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33 / 20 / 1-51

1993.1.13.~15. 도쿄에서 APPF(아시아·태평양의원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됨.

1. 참가국

- 일본, 미국, 중국, 아세안 5개국(말레이시아 제외), 호주,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 15개국

2. 결과

- 도쿄선언 채택
 - 아·태지역 의원들이 독자적 시각으로 결속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공헌
- 캄보디아 문제 관계국들의 파리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3. 평가

- 일본을 중심으로 의회 차원에서 아·태지역의 결속을 강화
-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정치력 확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측면 지원

김갑현 정무 제2장관 중국 방문, 1992.12.3.-8.

생산연도 1992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3 / 21 / 1-42

김갑현 정무 제2장관이 1992.12.3.~8. 중국을 방문함.

1. 경위

- 정무 제2장관실 정무실장이 방중하여 중국 측과 김갑현 장관의 방중 건을 협의한 결과, 중국 측이 진모화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국전국부녀연합회 주석의 초청장 송부를 약속
- 1992.11.23. 김갑현 장관은 장정연 주한 중국대사와 접촉, 방중 계획을 설명한바, 동 대사는 성공적인 방중을 위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함.
 - 방중 희망 일정: 한·중국 여성친선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강택민 총서기 등 중국 지도자 예방, 여성단체 등 방문 희망
- 1992.11.30. 정무 제2장관실은 외무부에 방중을 위한 고위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승인 신청서 제출
- 1992.12.24. 중국 측은 진모화 중국부녀연합회 주석 명의의 초청장 발송

2. 주요 활동

- 노태우 대통령의 양상곤 중국 주석, 강택민 총서기 및 이봉 총리 앞 친서 전달
- 주요 일정
 - 소년활동중심 방문, 진모화 중국부녀연합회 주석 초청 만찬 참석
 - 오문혁 중국방직공업부장 면담, 전국부녀연합회 방문
 - 오학겸 부총리 예방
 - 베이징 북해유치원 방문
 - 천진 시 방문, 이성립 천진 부시장 면담

3. 방문 결과

- 중국 측과 양국 여성계 간 협력에 관한 4개항 협의
 - 여성권의 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 상호교류, 여성지도자 간 상호교류 정례화, 여성계 간 교류친선의 정치 및 경제 방면으로의 확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송정숙 보건사회부장관 헝가리 방문, 1993.4.28.-5.1.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33 / 22 / 1-97

송정숙 보건사회부장관의 1993.4.28.~5.1. 헝가리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경위

- 주헝가리대사관은 1993.4.16. Surjan 헝가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송정숙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헝가리 방문 초청 서한 접수

2. 주요 일정

- 헝가리 응급치료 본부 및 병원 방문
- 국립종양학암센터 및 헝가리 최대 의약회사인 Gedeon Richter사 방문
- 헝가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및 양국 간 보건·의료 합의를사록 서명

3. 방문 결과

- 양국 장관 면담 시 양측은 응급치료 행정, 종양학 연구, 의약 분야 연구, 신약 개발 및 합작투자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합의를사록 서명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
- 헝가리 측은 헝가리가 제약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한국 제약업계 대표단을 헝가리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

한·일본 주요인사 교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33 / 23 / 1-173

1993년 중 한·일본 주요인사 교류 관련 내용임.

1. 이시이 하지메 자민당 국제국장 방한(1993.2.10.~12.)

- 쌍용그룹 초청
- 이시이 국장은 7선 의원으로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사정상 불가

2.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 AERA지 회견(1993.6.14.) 기록(비공식)

- 신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한·일본 양국 국민 간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됨.

3. 제3회 세계평화 연대 시장회의(1993.8.4.~9.,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 동서냉전이 끝난 후 지역대립, 민족분쟁, 환경파괴 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을 도모하는 세계 자치단체장 회의임.

러시아 총선 참관단 파견, 1993.12.9.-1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33 / 24 / 1-79

정부는 1993.12.9.~13. 정재문 외통위원장 및 강신조 의원을 러시아 총선 참관단으로 파견함.

1. 경위

- 1993.10.8. 열린 러시아 대통령은 12.12. 연방의회 선거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에 선거 참관단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1993.10.9.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동 성명서를 외무부에 전달

598

2. 주요 일정

-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내정자와 오찬
- 이그나텐코 타스통신 사장 면담 및 타스통신과의 인터뷰

3. 방문 결과

- 참관단은 1993.12.12. 모스크바 중심에 위치한 선거구에서 선거참관을 하였으며, 라보프 선거 관리위원장과 면담 후 개표 상황실을 방문하여 개표 진행상황을 지켜봄.
- 참관단은 KBS, MBC, SBS 및 동아일보 등 모스크바 주재 특파원들과 선거 관련 인터뷰를 가짐.

정종욱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미국 방문, 1993.6.18.-2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3 / 25 / 1-10

정종욱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의 1993.6.18.~23. 미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미국 측 주요 면담 인사

- Tarnoff 국무부 정무차관
- Gallucci 차관보
- Lord 차관보
- Lak NSC 안보보좌관
- Joseph Nye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
- Wisner 국방부 정책차관
- Robb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 및 Ackerman 하원 아태소위원회 위원장

2. 미국 측 언급내용

- 제1차 미·북 접촉 성과 평가
- 미·북 접촉 관련 계획
- 남북대화
- 북한의 태도 불변 시 대책

Madame Khin Win Shwe 미얀마 모성 아동복지협회 공동서기 방한, 1993.6.20.-7.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33 / 26 / 1-46

Khin Win Shwe 미얀마 모성 아동복지협회 공동서기(제1서기 부인)가 1993.6.20.~7.8. 방한함.

1. 방한 목적

- 제7차 여성지도자 가족계획 훈련과정(1993.6.24.~7.7.) 참가 목적
 - 동 훈련과정은 KOICA에서 관할하며, 대한가족계획협회 및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에서 참가 인원을 선발
 - 참가 대상은 아태지역 국가 여성지도자 12개국 20명으로 국한
 - 훈련 내용은 여성개발, 지역사회개발, 가족계획 등으로 강의, 전체회의, 분임토의, 실습 등 21개 교육과정 및 현지 견학으로 구성

2. 특이사항

- Khin Win Shwe 제1서기는 미얀마가 민정으로 이양할 경우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에서 거론되던 인물

Lamer, Antonio 캐나다 대법원장 방한, 1993.9.9.-1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1 / 1-81

Antonio Lamer 캐나다 대법원장이 1993.9.9.~15. 방한함.

1. 방한 목적

- 대전 엑스포 'Canada Day'(9.11.) 행사에 캐나다 정부 대표로 참석
- 한국 법조계 현황 파악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국회의장, 대법원장 직무대행 예방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면담
- 국립묘지 방문
 - 국립묘지에 안장된 Frank Scofield 박사 묘역 참배

3. 방한 결과

- 양국 법조 협력 방안과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서광적 중국 상하이 상무부시장 방한, 1993.7.15.-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4 / 2 / 1-129

서광적 중국 상하이시 상무부시장이 1993.7.15.~22. 방한함.

1. 경위

- 1993.1월 중국 상하이시는 서광적 상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하이시 대표단의 방한 희망을 주중국대사관에 알려오면서 아래와 같이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 희망 시기: 7~8월 중 1주일 이내
 - 경비 부담: 항공료는 자부담, 체재비는 한국 측 부담 희망
 - 초청 명의: 상하이시와 대등한 부산시 부시장 명의 초청도 고려할 수 있으나, 중국 내에서 상하이의 위상을 고려해 한국 정부 명의(주중국대사 명의도 가능) 초청 희망
- 외무부는 동 대표단의 초청 명의 관련 부산시, 서울시 및 상공부 측과 협의함.
 - 주상하이총영사관은 동 총영사관 개설 이래 최초의 상하이시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자 중국 최대 상공도시로서 경제협력 측면을 고려하여 상하이시 측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건의
- 1993.5.27. 외무부는 한국 정부 명의 초청은 어려운 관계로 주중국대사 명의로 방한 초청할 것을 지시함.
 - 방한 체재비는 상하이에 진출한 삼성, 현대, 대우, 선경, 포철, 상업은행 등 7개 한국 업체가 공동부담할 예정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예방
-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예방
- 삼성물산, 상업은행, 포철, 대우자동차, 효성물산 등 기업체 예방 및 시찰

3. 방한 결과

- 서울시장은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문화재로 보호 요청
- 포철 부사장과 TP 공장 부지 선정 문제 관련 협의
- 부산시장은 상하이시와 자매결연 체결 준비 관련 협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중국 투자 및 무역 확대 방안을 협의

주목지(朱穆之) 중국·한 우호협회 회장 방한, 1993.9.12.-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4 / 3 / 1-27

주목지(Zhu Muzhi) 중국·한 우호협회 회장이 1993.9.12.~2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3.8월 박성용 한·중국 우호협회 회장(금호그룹 회장)과 문예진흥원의 공동 방한 초청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동아일보 회장, 상공회의소 소장 등 면담
-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올림픽주경기장 등 시찰, 대전 엑스포 등 참관

3. 특이사항

- 중국·한 우호협회는 1993.6월 창립된 민간단체로서 중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회원
- 주목지 회장은 신화사 사장, 문화부장 및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 등을 역임한 중국 정계 원로로서, 한·중 양국 간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중국 등박방(鄧撲方) 및 등용(鄧榕) 방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4 / 4 / 1-153

1993년 중 등소평 자녀들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등림 여사(등소평 장녀)(1993.9.12.~26.)

- 방한 배경
 - 코오롱 상사와 아·태 경제문화연구소 측 초청
- 방한 일정
 - 언론 인터뷰, 서화전(1993.9.12.~23.) 개막식 참석(예술의 전당)

604

2. 등박방(등소평 장남)(1993.11.5.~14.)

- 방한 배경
 - 양국 장애인 단체 간의 실질 협력 증진
- 방한 일정
 - 장애인 복리기금회 예술단 공연 참관

3. 등용 여사(등소평 차녀)(1993.11.9.~14.)

- 방한 배경
 - 등용 여사의 저서인 '나의 아버지 등소평' 국내 번역 출판회 참석
- 방한 일정
 - 국내 번역 출판회 참석, 국회의장 예방, 기자회견

중국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34 / 5 / 1-182

1990~93년 중 중국 주요인사들의 방한 관련 문서임.

1. 중국 국무원 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전문가 방한(1990.9.4.~13.)

-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의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으로 방한 초청
- 방한 초청 목적: 외교안보연구원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간의 협력관계 형성 및 동인들과 동북아 정세, 한반도 문제 등을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방한 인사
 - 서담: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담당 부소장으로 일본 전문가
 - 조세공: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동아연구실 부주임으로 한국문제 전문가
- 주요 일정
 -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9.7.)
 -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9.11.)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아·태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1990.6.21.~22.) 참석

- 푸산(Pu Shan): 세계경제·정치문제연구소 소장
- 동인의 1990.5월 전직 수반협의회(InterAction Council) 참석 차 방한 시 주요 발언 내용
 - “한·중 국교수립은 남북한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본다.”
 - “영사처 개설여부는 양국 실무자들에 의해 발전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본다.”
 - “중국은 남북한 관계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또 측면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3. 등소평의 아들 등질방 및 왕진의 아들 왕지, 삼성물산 초청으로 방한(1990.5.28.~6.5.)

- 등질방: CITIC 연구원으로 희토자석(브라운관 및 신소재 자료)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한바, 삼성이 동 기술 도입을 위한 상담 및 영향력 있는 인물 연계 확보 목적으로 초청
 - 1989.12월 삼성 베이징사무소에서 동인 접촉 시 동인의 방한 희망 표명에 따라 초청
- 왕지: 국무원 향천 공업부 산하 Great Wall Computer Group 사장으로 중국 측이 반도체, 컴퓨터 분야에 관심이 있으므로 등질방의 제의에 따라 함께 방한 초청

4. Yuan Ming 베이징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한(1993.4.1.~4.)

- 방한 경위: 북태평양안보협력회의(1993.3.21.~24., 밴쿠버) 참가 후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홍콩 경유 방한
- 외무부장관 면담(4.3.)

Erwin Teufel 독일 Baden-Wuerttemberg주 수상 방한, 1993.9.26.-2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2과

MF번호 2023-34 / 6 / 1-88

독일 Baden-Wuerttemberg주의 Erwin Teufel 수상이 1993.9.26.~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아주순방의 일환으로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 순방 계획

2. 방한 목적

- 한·독일 경제관계 강화, 독일 산업무역센터(서울) 설립,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 교류

3. 방문단 구성

- Teufel 수상 외 Baden-Wuerttemberg주 경제인 약 30명

4.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상공부장관 면담, 쌍용자동차 방문, 산업시찰
- 수행 경제인은 반월 중소기업진흥공단 훈련센터, 대기산업, Festo사 방문 및 문화탐방

5. 주요 협의사항

- 한국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독일 ICE 참여 관련 의견 교환
- 독일차량 수입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요청

Sheikh Salem AL-SABAH 쿠웨이트 전쟁포로위원회 의장 방한, 1993.10.16.-2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34 / 8 / 1-111

Al-Sabah 쿠웨이트 전쟁포로위원회 의장의 1993.10.16.~21.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및 파키스탄 등 아시아 6개국 순방

2. 방한 목적

- 이라크 억류 쿠웨이트 포로 문제(600여 명)에 관한 쿠웨이트 입장 설명 및 지지 요청

3. 주요 일정

- 국무총리, 국회의장, 민자당 대표위원 및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외무부차관 등 면담

4. 국무총리 면담(10.20.) 요지

- Al-Sabah 의장
 - 쿠웨이트·이라크 분쟁 관련 국경 획정 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타결되었고, 피해보상 문제도 타결을 보고 있으나, 포로송환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인바, 한국이 적절한 기회와 경로를 통해 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바람.
 - 한국의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양국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국무총리
 - 포로송환 문제에 가능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외무부 제1차관보와 주한 쿠웨이트대사 채널뿐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도 적극 협조할 것임.
 - 또한 한국 정부는 쿠웨이트가 빠른 시일 내 재건이 가능하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건설 분야 등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 발전을 기대함.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나미비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1993.2.12.-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34 / 9 / 1-195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의 1993.2.12.~22. 나미비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나미비아(1993.2.15.~17.)

- 방문 목적
 - 나미비아 정부 인사와의 정무 협의
- 방문 결과
 - Guiber 나미비아 외무차관 면담: 양국관계, 남부아프리카 정세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
 - 남부아프리카지역 공관(잠비아 및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과의 업무 협의

608

2. 남아프리카공화국(1993.2.17.~20.)

- 추진 경위
 - ANC(아프리카국민회의) 측은 1993.1.12. 요하네스버그에서 1993.2.19.~21. 개최되는 ANC 주최 International Solidarity Conference에 외무부 중동아국장 초청 서한 발송
- 방문 목적
 - ANC 주최 국제회의 참석
 - 남아공 정무 및 ANC 관계관 접촉(주남아공대사관 개설에 즈음한 한국 입장 설명)
- 주요 일정
 - ANC 주최 국제회의 참석 및 Saloojee ANC 사무국장 면담
 - Evans 외무부 사무차관 및 Grobler 외무부 남부아프리카 국장 면담
 - Evans 사무차관 주최로 상공부 사무차관 및 광물·에너지부 사무차관과 오찬 등

Mikitayev, Abdukhal Kasbulatovich 러시아 공민권 위원장 방한, 1993.10.18.-2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러시아·CIS과

MF번호 2023-34 / 10 / 1-99

미키타예프 러시아 공민권 위원장의 1993.10.18.~24.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초청 목적

- 북한 인권문제 관련 국제적 여론 형성 선도
- 러시아 내 친한 여론 조성 및 홍보기반 구축
- 신한국 이미지 등 한국 실상 홍보

2. 주요 일정

- 공보처장관, 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등 주요인사 면담
-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외무부장관 등과 오·만찬 간담회
- 프레스센터 초청 강연회 및 KBS 출연 등

3. 성과

- 재러시아 한인 복권 문제, 시베리아 벌목장 내 북한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대통령실 미키타예프 위원장이 방한하여 정·재계, 학계 주요인사들과 한·러시아 간의 개혁 전망, 한반도 통일 문제, 대통령 러시아 방문, 재러시아 고려인 문제, 시베리아 벌목장 노동자 인권문제 등 논의
- 시베리아 벌목장 내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 등 북한 실상을 알림.
- 대전 엑스포, 산업 시찰 등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러시아 내 친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

Solovyov, Nikolay Nikolayevich 러시아 외무부 아·태총국장 방한, 1993.11.27.-12.5.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34 / 11 / 1-63

Solovyov 러시아 외무부 아·태총국장이 1993.11.27.~12.5. 방한함.

1. 경위

- 1992.7월 외무부 구주국장 명의 Solovyov 총국장 내외에 대한 방한초청장 발송
- 항공료 및 체재비 한국 측 부담
- Solovyov 총국장은 외교안보연구원과 IMEMO(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 간의 제3차 학술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 희망

610

2. 주요 일정

- 외교안보연구원과 IMEMO 간 공동주최 세미나 참석
- 민족통일연구원 강연
- 외무부장관 예방, 제1차관보 예방, 제1차관보 주최 만찬

3. 방한 결과

- Solovyov 총국장은 한·러시아 양국관계가 짧은 수교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는 데 만족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군축·안보·지역문제(북한 핵 문제 포함) 등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평가
-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한·러시아 양국관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
- 제1차관보와의 면담 시, 차관보가 북한 측의 핵 문제 관련 의도에 대한 러시아 측의 평가를 문의한바, 동 총국장은 북한이 핵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본다고 대답

스웨덴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34 / 12 / 1-107

1989~93년 중 스웨덴 주요인사의 한국 방문에 관한 문서임.

1. Bergstrand Finn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1989.4.20.~24.)

- 경위: 도쿄 개최 스웨덴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참석 계기 방한, 양국 현안 협의
- 주요 일정: 외무부 국주국장 면담, 차관보 주최 만찬, 김대중 평민당 총재 예방, 판문점 방문
- 협의사항: 외무부장관 스웨덴 방문, 한국 입양자 관련 등 현안문제

2. Kjell Larsson 수상실 차관 방한(1989.5.16.~18.)

- 방문단 구성: Larsson 차관 외 상공부차관보, 기업가 등 9인
- 방한 목적: 한국 경제·산업 장래 전망 연구(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도 방문 예정)
- 주요 일정: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차관 예방, Tetra Pak 공장 방문, KDI, KARI 등 방문

3. 국회상공위원단 방한(1992.9.24.~26.)

- 방문단 구성: Anita Gradin 상공위 부위원장 등 의원 7명, 수행원 1명
- 경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순방 일환
- 주요 일정: 국회부의장 예방, 금성사 공장 시찰, 판문점 방문

4. Bjarne Kirsebom 교육과학부 차관 방한(1992.10.4.~7.)

- 방한 목적: 교육부, 과학기술처 등 방문 및 한국의 과학·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 조사
 - 한국 내 산업과 대학 간의 관계, 한국산업의 전문 인력 수급전략, 한국 내 기초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등에 관심
- 주요 일정: 교육부, 과학기술처 차관 예방,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방문

5. Odell Mats 교통체신부 장관 방한 추진(1993.3.25.~27.), 취소

6. 스톡홀름 시의회 직원 10명 방문(1993.12.5.~8.)

- 방한 목적: 한국 생물공학개발 및 주요 연구소 현황 파악, 공동연구 가능성 협의
- 주요 일정: 보건사회부 관계자 면담

CHULABHORN Didyasarin Mahidol 태국 공주 방한, 1993.3.30.-4.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34 / 13 / 1-31

Chulabhorn 태국 공주가 1993.3.30.~4.3.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목적

- 일행(21명)과 카이스트 방문 등

2. 주요 일정

- 카이스트, 주식회사 진양, 롯데월드, 동아실크 상가 방문, 주한 태국 상사주재원 접견 등

3. 특이사항

- 한국 정부는 태국 왕실 요인임을 감안하여 경호·사이드카 지원 및 출입국 편의 제공
- Chulabhorn 공주 관련 특기사항
 - 제16차 태평양 과학 총회(1987.8월) 참석 차 공식 방한 경력
 - 유기화학 분야 박사 소지자로 다수의 연구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미 다수의 논문 발표 사례

SURIN Pitsuwan 태국 외무부 장관 방한, 1993.10.7.-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34 / 14 / 1-117

Surin Pitsuwan 태국 외무부 장관의 1993.10.7.~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한·태국 간 돈독한 우호 협력관계에 입각하여 경제·통상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는 등 양자관계 강화차원에서 방한을 추진함.
- 태국은 1993.7.~94.7월 아세안 상임위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아세안 PMC(확대외무장관회의) 및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가 관련 긴밀한 협조대상국으로 한국 측 고위인사의 태국 방문 횟수에 비해 태국 측 고위인사의 방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도 고려됨.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과 회담 및 오찬
- 대전 엑스포 시찰, 삼성전자 시찰, 한국 동남아학회 포럼 참석 연설 등

3. 주요 결과

- 태국 측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통상장관 회담의 매년 개최 및 한국기업의 태국 투자 증대 등 협의
- Chuan 수상의 방한 문제, 한·아세안 관계, 아·태 다자 간 안보협력 문제 등 현안 협의

터키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구주2과

MF번호 2023-34 / 15 / 1-43

1991~93년 중 튀르키예의 주요인사 방한 초청 추진 내용임.

1. Atilla Mutman 국회 외무위원장 일행

- 1993.2.10. 정재문 외무통일위원장 명의로 초청
- 동 건은 1991.3월 처음 제기된 이래 튀르키예 측 사정으로 수차례 조정 후 추진하기로 확정됨.

2. Cengiz Tuncer 교통부장관

- 1991.4.1. 동 장관은 주튀르키예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방한 초청을 요청함.
- 양국의 교통조직 비교연구, 한국의 교통시설 시찰 및 교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관계 모색을 위함.
- 5월 교통부장관 명의로 동 장관 초청
- 6.23. 튀르키예 정부 조각 관련, 동 장관이 국무장관(사이프러스 담당 책임 장관)으로 이동하면서 동 초청 계획은 취소됨.

3. Fisunoglu 지상군사령관 대장

- 육군본부 초청으로 1992.4.7.~12. 방한 초청 계획
- 육군참모총장의 튀르키예 방문(1991.10.13.~16.)에 대한 답방 형식
- 군 주요인사 예방, 육군본부 및 육군부대 방문, 튀르키예군 참전비 및 유엔군 묘지 참배 등 추진

우간다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34 / 16 / 1-78

1991~93년 중 우간다 주요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Ruhakana Rugunda 우간다 건설교통체신장관(1992.7.22.~25.)

- 체신부장관, 한국통신사장 면담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현대자동차 방문

2. John Switzer Bakayana Kityo 외무부 아주국 부국장(1993.3.16.~19.)

- 방한 경위
 - 일본 정부 초청으로 1993.2.23.~3.16. 일본을 방문한 후 방한 추진
- 주요 일정
 -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 및 만찬
 - 주한 명예영사인 윤영석 (주)대우 부회장 면담
 -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시찰

Abramowitz, Morton I. 미국 카네기재단 회장 방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17 / 1-86

1992~93년 중 Morton I. Abramowitz 미국 카네기재단 회장 방한 관련 내용임.

1. 제1차 방한(1992.3.12.~14.)

- 냉전 이후 세계 속의 미국 역할에 관하여 심층 연구할 목적으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일본,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방문 일정
- 이상옥 외무부장관, 김종휘 외교안보수석, 장만순 제1차관보 등 면담
 -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세계와 한반도, 미국의 역할 등 의견 교환

616

2. 제2차 방한(1992.12.12.~13.)

- 냉전 이후 미국의 역할에 관한 동 재단 발간 보고서 관련 토의를 위하여 아시아 순방길에 방한하여 한·미 문제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참석
-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주최 만찬

3. 제3차 방한(1993.12.16.~20.)

- 서울 포럼(1993.12.17.~18.) 초청
- 한승주 외무부장관, 통일부총리, 외교안보수석 면담

Branstad, Terry E. 미국 Iowa 주지사 방한, 1993.10.6.-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18 / 1-63

Terry E. Branstad 미국 아이오와 주지사가 1993.10.6.~9.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과 아이오와 간의 무역 및 투자증진 목적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차관 예방
- 한·미국 친선협회장 주최 조찬, 샘표 회장 주최 오찬
- 현대상사 사장 면담, 한라그룹 부회장 주최 만찬
- 기아자동차 회장 면담, 풍산그룹 주최 만찬

Ferraro, John 미국 Los Angeles 시의회 의장 방한, 1993.11.27.-12.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19 / 1-56

John Ferraro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의장이 1993.11.27.~12.1. 부산 시의회 의장 초청으로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로스앤젤레스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 시의회 의장 초청으로 방한
 - Ferraro 의장은 1993.4월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한인사회의 복구 및 발전 지원
 - 1966년 이래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을 역임한 원로 정치인으로 시 조례 입법 등 교민사회에 영향
 - 방한 일정에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교민회장이 동행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및 문화체육부장관 예방,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오찬
- 서울시장, 서울 시의회 의장 예방
- 부산시장 및 부산 시의회 의장 예방, 부산 시의회 연설

3. 방문 결과

- 한국 측은 Ferraro 의장이 로스앤젤레스지역의 한인사회 발전과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한인사회 재건을 위해 노력해온 데 감사를 표하고, 한인사회가 미국 시민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Gregg, Donald 전 주한 미국대사(Korea Society 회장) 방한, 1993.5.14.-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20 / 1-19

Donald Gregg 전 주한 미국대사의 1993.5.14.~1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골드만삭스사 업무, Korea Society 재정 문제 및 운영 방향 등에 관해 국내 관계인사들과 협의
- 그레그 대사는 1989~93.3월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으며, 당시 Korea Society 회장 신분

2. 주요 일정

-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면담
- 손주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외무부장관 참석)

Hickel, Walter J. 미국 Alaska 주지사 방한, 1993.5.19.-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21 / 1-72

Walter J. Hickel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의 1993.5.19.~2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 경제기획원장관, 상공자원부장관 예방
- 한국가스공사 방문

620

2. 방한 결과

- 대통령 예방
 -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 측의 적극적 참여 요청
 - 알래스카 자원, 산림 개발 등과 관련한 한·알래스카 간 경험 희망
- 상공자원부장관, 가스공사사장 면담
 - LNG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산림 개발 등 협의
- 한·미 경제협의회
 - 투자 증대 및 경제인 방문을 통한 교역 증진을 위한 민간경제협력협정 체결
- 구평회 회장 주최 오찬
 - 한국 경제계 인사 접촉

Manatt, Charles T. 미국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방한, 1993.3.24.-2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22 / 1-34

Manatt 미국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의 1993.3.24.~27.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배경

- 김종필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초청
- 대전 엑스포 관련 사전답사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부차관, 경제기획원, 상공부장관 면담
- 김종필 대표최고위원 및 무역협회장 주최 만찬

3. 한국 측 관심사항

- 미국 신정부 출범
- 안보 및 통상 증진
- 북한 핵 문제

Solarz, Stephen 전 미국 하원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23 / 1-121

Stephen Solarz 전 미국 하원의원(아·태 소위 위원장)이 1993년 중 3회 방한함.

1. 제1차 방한(1993.1.26.~29.)

- 방한 배경
 - 한국교류재단 초청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세 파악의 일환으로 방한 후, 동남아 인접 국가도 방문
- 주요 일정
 -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예방,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면담,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참석
- 방한 결과
 - 한국의 민주화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국 관계 현황 및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
 - Aspin 국방장관의 조기 방한 및 7월 클린턴 대통령 방한 실현을 위해 노력

2. 제2차 방한(1993.4.12.~15.)

- 방한 목적
 - 개인 사업 관계
- 주요 일정
 - 노태우 전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예방, 정종욱 외교안보수석 면담, 김경원 전 주미국대사, 이동복 특보 면담, 보건사회부, 국세청 관계자 면담
- 방한 결과
 - 북한 핵 문제 관련 중국, 미국, 일본의 대응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 클린턴 대통령 방한 관련 협조

3. 제3차 방한(1993.9.1.~4.)

- 방한 목적
 - 주인도대사 부임 전 한국 국내 정세 파악 및 아시아 정책에 관한 협의
- 주요 일정
 - 김영삼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예방
- 방한 결과
 - 북한 핵 문제, 김일성 사후 남북 관계 전망, 한·인도 및 미국·인도 관계 등 관련 의견교환

Watts, William 미국 Potomac Associates 대표 방한, 1993.5.16.-2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24 / 1-30

Potomac Associates(미국의 공공정책연구소) William Watts 대표의 1993.5.16.~20.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공보처 초청으로 주요 인사 및 대학, 연구소, 언론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 한·미 관계 활성화, 한·미 및 미·일 통상 문제, 클린턴 대통령 방한 등 주제로 대화
- 해외공보관장 주최 만찬, 외교안보수석 예방

Wilder, Lawrence Douglas 미국 Virginia 주지사 방한, 1993.10.13.-1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25 / 1-41

Lawrence Douglas Wilder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의 1993.10.13.~1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및 목적

- Wilder 주지사는 독일, 러시아 방문 후 일본(오사카), 중국(상하이, 베이징), 홍콩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여 한·버지니아주 간 통상 및 투자 등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관해 협의하기를 희망함.

2. 주요 일정

- 김영삼 대통령, 외무부장관 예방
- 한국 주요기업 관계자 면담(한·미 경제협의회, 현대상선, 조양상선, 금성사, 한진해운 등)

3. 외무부장관 면담

- 한·버지니아주 간의 경제협력 문제, APEC(아태경제협력체), 남북한 통일, 독일의 통일 이후 경제 현황 및 러시아 사태 등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 Wilder 주지사는 버지니아주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합작투자 주선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무역뿐 아니라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한다고 피력함.

미국 국무부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4 / 26 / 1-78

1993년 중 미 국무부 인사들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Holbrook 전 동아·태 차관보

- 1993.2.7.~9. 방한
 - 사적 방한
 -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한전사장 및 산업은행장 면담 등
- 1993.6.30.~7.3. 방한
 - 사적 방한
 - 외무부장관 예방

2. Hubbard 동아·태 부차관보(1993.3.15.~17.)

- 관할지역(한국 및 일본) 정세 파악 및 외교 관계자 면담
-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제1차관보 주최 오찬, 외교안보수석 및 제2차관보 면담, 외통위원장 주최 오찬 등

3. Clark 전 동아·태 차관보(1993.10.10.~15.)

- 외교안보연구원·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참석
- 통일부총리, 정무장관 예방

베트남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34 / 27 / 1-55

1993년 중 베트남 주요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Phan Luong Cam 하노이공과대학 교수(Vo Van Kiet 수상 부인)(1993.11.3.~10.)

- 포항공과대학 초청
- 주요 일정
 - 대전 엑스포 참관
 - 포항공과대학 및 포철 등 방문

626

2. Ho The Lan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 겸 공보국장(1993.12.8.~13.)

- 친한 인사 초청사업의 일환
- 주요 일정
 - 외무부 차관보 면담
 - 판문점 및 주한 베트남대사관 방문
 - 경주 방문 및 울산 산업시설 시찰

Al-Arashi 예멘 내각담당 국무장관 방한, 1992.12.23.-28.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34 / 28 / 1-105

Al-Arashi 예멘 내각담당 국무장관의 1992.12.23.~28. 방한 관련 내용임.

1. 초청 경위

- 예멘 통합과정 관련 한국 현지 조사단의 출장(1991.9.1.~6.) 후 통합 경험과 교훈을 얻고자 통일원 산하 이병용 민족통일연구원장이 Al-Arashi 수상실 당 국무장관(전 북예멘 통일장관) 등 3명 초청
 - 항공료를 제외한 공식 방한기간 중 체제비 한국 정부 부담 조건

2. 주요 일정 및 방문 결과

- 청와대 예방
 - 노태우 대통령은 남예멘지역에서의 사유재산제 실시 문제, 예멘 통일 추진작업 진행 상황 등 문의
 - Al-Arashi 국무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에 경의 표시, 노태우 대통령의 예멘 방문 초청
- 최영철 부총리 예방
 - 원유, 공업, 건설 등 부문 양국 간 협력 요청
 - 아덴 자유무역지대 한국 업체 투자 요청
 -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희망
- 판문점 시찰
- 민족통일연구원 강연
 - 주제: 예멘 통합의 정치·사회적 문제
 - 남북예멘의 5단계(부문별 통합특위 구성, 헌법초안 최고위 구성, 남북자유왕래조치, 통일 선포, 국민투표) 통일 추진과정 설명
- MBC 기자회견 및 합동 기자회견

잠비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34 / 29 / 1-146

1988~92년 중 잠비아의 주요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잠비아 축구대표팀(1988.6.14.~23.)

- 추진 경위
 - 제17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참석
- 방문 목적
 - 양국 간 체육 교류 및 관계 개선

2. Chibesakinda B. Kankasa 주케냐 잠비아대사(1991.7.3.~9.)

- 추진 경위
 - 1990.9월 한·잠비아 간 외교관계 수립 시 동 대사는 잠비아 측 교섭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1990.10.26. 주케냐대사는 주케냐 잠비아대사를 오찬에 초청하고, 방한 초청 서한 전달
- 주요 일정
 -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참석(주제: 한·잠비아 간의 협력 관계 강화방안)
 - 중동아국장 대리 및 외무부차관 예방, 산업 시찰(대우중공업, 대우통신)

3. Michael Sata 잠비아 지방정부·주택장관 방한 추진

- 한·잠비아 간 수교를 위해 노력한 친한 인사로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방한 불성사

4. Ronald Penza 잠비아 상공장관(투자사절단) 방한 추진

- 잠비아 투자유치사절단(상공장관을 단장으로 정부대표 8명, 기업계대표 16명 등으로 구성)의 일본, 대만 방문 후 방한 추진
- 1992.10.13.~15. 방한 추진 중 잠비아 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한이 취소됨.

강근택 주피지대사 Ganilau, Penaia Kanatabatu 피지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93.12.24.-2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과

MF번호 2023-34 / 30 / 1-11

강근택 주피지대사가 1993.12.24.~29. Penaia Kanatabatu Ganilau 피지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함.

1. 대통령 서거 경위

- 1993.12.16. 신병 치료차 미국 워싱턴 D.C. 체류 중 서거
- 주피지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조전 발송 건의

2. 주요국 조문사절 인사

- 호주, 뉴질랜드(총독), 파푸아뉴기니(외무장관 또는 각료), 미국, 말레이시아(각료급 인사), 일본(국회의원), 중국, 이스라엘(현지대사), 영국(각료급 인사 또는 현지대사) 등

안응모 특사(전 내무장관) Rawlings 가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3.1.4.-1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35 / 1 / 1-121

안응모 특사가 Rawlings 가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993.1.4.~12. 가나를 방문함.

1. 주요 일정 및 결과

- 대통령 취임식 참석
 - 가나 제4공화국 출범
 -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 국회 개원식 참석
 - 1981년 쿠데타 이후 11년 만에 민선 국회 개원
- Asamoah 가나 외무장관 면담
 - 양국 유대강화 방안 논의
- 양국 경험 사업현장 시찰
 - 1992.4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1,300만 달러 규모 원유저장시설 착공(선경건설)
- 교민대표와의 만찬 및 격려

2. 평가

- 특사 파견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 특히 가나 신정부가 사회주의 노선을 탈피하여 실리 추구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큰 의미가 있음.

김덕룡 특사(정무 제1장관) Wasmosy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3.8.11.-2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35 / 2 / 1-262

김덕룡 대통령 특사가 와스모시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1993.8.15.) 참석과 1993.8.11.~24. 남미 3국(브라질, 파라과이, 페루)을 순방함.

1. 브라질(상파울루)(1993.8.13.~14.)

- 한인상가 시찰, 한국 화학섬유 생산기업 전시회 관람 및 격려(8.13.)
- 한인회관 방문 및 한인대표 면담(8.13.)

2. 파라과이(1993.8.14.~16.)

- 와스모시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8.15.) 및 면담(8.16.)
 - 와스모시 대통령은 경축사절 파견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
 - 김 특사는 8천여 명의 한국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요청
- 마르띠네스 외상 면담(8.16.)
 - 동 외상은 가까운 시일 내 자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한국 포함) 의사 피력 및 한국 동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

3. 페루(1993.8.16.~19.)

-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면담(8.18.)
 - 동 대통령은 과거 방한 시 한국 대통령이 베푼 후의에 감사하며 안부 전달을 요청
 - 김 특사는 후지모리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한·페루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희망
- 델라 푸엔테 수상 겸 외상 면담, 한국공단 후보지역 및 한·페루 의료센터 시찰(8.18.)

4. 평가

- 순방한 남미 3국은 한국을 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들로 한국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지역임.

최상덕 특사(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스와질랜드 독립 25주년 기념식 참석, 1993.9.4.-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35 / 3 / 1-34

최상덕 특사(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가 1993.9.4.~8.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독립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함.

1. 목적

- 1993.9.6. 개최되는 에스와티니 독립 및 국왕 탄신 25주년 경축행사 참석

2. 주요 활동 내용

- 독립 및 국왕 탄신 25주년 경축행사 참석
- 에스와티니 국왕 및 외무장관 면담
 - 공관 철수에 대한 에스와티니 측 이해 희망
- 주에스와티니대사관 업무 인계인수

Ackerman, Gary L.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김영삼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1993.2.24.-2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5 / 4 / 1-117

Gary L. Ackerman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1993.2.24.~2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김영삼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국회 초청

2. 방문단

- Gary L. Ackerman 미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및 아·태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명

3. 주요 일정

- 김덕룡 의원 초청 조찬, 대통령 취임식 참석, 외무부차관 초청 오찬
- 기아자동차 회장 면담, 박정수 의원 초청 만찬
- 대왕그룹 회장 주최 조찬, 선경(주) 회장 면담
- 청와대 예방(클린턴 대통령 친서 전달), 한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 등

4. 방한 결과

- Ackerman 위원장은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직후 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간의 격차를 좁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함.
- 청와대 예방은 Ackerman 위원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청와대 측은 동 면담 후 축하 메시지 전달 사실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발표함.

강영훈 특사(대한적십자사 총재) Baudouin 벨기에 국왕 장례식 참석, 1993.8.5.-1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35 / 5 / 1-79

강영훈 특사(대한적십자사 총재)가 Baudouin 벨기에 국왕 장례식 참석차 1993.8.5.~10. 벨기에를 방문함.

1. 파견 목적

- Baudouin 벨기에 국왕 장례식(1993.8.7.) 참석
 - Baudouin 국왕, 1993.7.31. 휴가지 스페인에서 사망
 - 8.2. 김영삼 대통령 명의 조전 발송

634

2. 강영훈 특사 파견 배경

- 벨기에에는 한국의 정부수립(1948.8.15.) 당시 첫 번째 승인 국가이며, 6·25 참전국 중 하나로서 1962.5월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이래 국제사회에서 줄곧 한국을 지지해옴.
- Baudouin 국왕은 제5대 벨기에 국왕으로 42년간 통치하였고, 1992.10월 한국을 공식 방문함.
- 강영훈 특사는 국무총리 재임 중인 1990.7월 벨기에를 공식 방문
- 동 장례식에는 강영훈 특사 외에 일왕 내외,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국왕, 영국 필립공 등이 조문사절로 참석

3. Albert 2세(Baudouin 전 국왕의 동생)는 1993.8.9. 벨기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서하고 새 국왕으로 즉위함.

- 김영삼 대통령 명의 축전 송부

김명운 민자당 총재 상임고문 Ozal, Turgut 터키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93.4.2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35/6/1-78

김명운 민자당 총재 상임고문을 대표로 하는 조문사절단이 외질 튀르키예 대통령 장례식 (1993.4.21.) 참석차 1993.4.20.~22. 튀르키예를 방문함.

1. 파견 경위

- 외질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등 인근국을 순방하고 귀국 다음날인 1993.4.17. 심장마비로 서거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Cindoruk 대통령 서리 앞으로 대통령 명의 조전을 발송하고, 6·25 전쟁 참전국이며 중근동 회교권 내 중심국인 튀르키예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2. 사절단 구성

- 김명운 민자당 상임위원(단장), 문동석 주튀르키예대사, 이원영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

3. 사절단 주요 활동

- 1993.4.21. 튀르키예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참석하여 애도 전달
 - 독일, 카자흐스탄 등 15개국 국가원수 등 50여 개국 조문사절 참석
- Cindoruk 튀르키예 대통령 권한 대행 등 주요인사 면담 계기에 한·튀르키예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의견 교환

북한·CIS(독립국가연합)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35 / 7 / 1-11

1991~93년 중 북한과 CIS(독립국가연합)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 CIS 통합군 참모총장, 북한 방문(1992.3.2.)
 - 군사협정 체결 목적차 방문
 - 러·북한 간의 기체결 조약의 이행문제
 - 군축 문제 및 핵 문제 등에 관해 북한 측과 협의 예정
 - 1992~93년간 CIS 통합군과 북한군간의 협력 계획에 관해 토의 예정

북한·방글라데시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35 / 8 / 1-31

1993년 중 북한과 방글라데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고위급 인사 교류

- 1992.12.22.~26. Hossain 방글라데시 동자부장관, 북한 방문
 - Zia 수상의 친서를 김일성 주석에게 전달
 - Madhyapara지역 경석 채굴사업 양해각서 체결, 북한 측이 소요자금 중 1억 6천 5백만 달러 제공 약속
- 1993.11.11.~16. 장철 북한 부총리 겸 문화예술부장, 방글라데시 방문
 - 수상 예방, 문화부장관 회담

2. 외교관계 동향

- 1993.1.26. 장원식 신임 북한대사 부임
 - 2.11. Biswas 방글라데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11월 방글라데시 북한 겸임대사 교체
 - 사피샤미 주중국 방글라데시대사(북한 겸임)의 후임으로 Mustafiz Rahman 현 주러시아 방글라데시대사 발령

3. 교역 현황

- 방글라데시의 대북한 수출(1991.7.~92.6월)
 - 금액: 122만 4천달러
 - 주요 품목: 섬유제품, 카펫, 가죽제품
- 방글라데시의 대북한 수입(상기 같은 기간)
 - 2,479만 5천달러
 - 주요 품목: 원면, 원단, 철강, 기계류

4. 기타 교류

- 1993.10.8. 북한 유도코치, 방글라데시 도착
- 11.1.~3. 방글라데시 개최 WHO(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보건장관 회의 시 김용익 북한 부부장 참석

북한·불가리아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35 / 9 / 1-54

1993년 중 북한과 불가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불가리아 정부, Yordan Moutafchiev 전 국방장관을 주북한대사로 내정(1993.2월)

- 1993.6.18. Moutafchiev 주북한대사 부임
- 1993.7.17. Moutafchiev 주북한대사는 김일성에게 신임장을 전달

2. 고려민항 취항관계(1993.8.2.)

- 북한은 1985년부터 불가리아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1989년 말부터 고려민항(구 조선민항)을 소피아에 월 1회 취항
- 1991.11. 양측 간 항공기 취항에 관한 의정서 체결
 - 1991년 말~92년 초까지 고려민항은 주1회 소피아 취항
 - 1992년 초부터 고려민항은 소피아에서의 취항 빈도를 월 1회로 재조정, 매월 마지막 월요일 도착하도록 민항 취항
-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 이용객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결항 원인 추측

3. 북한 선박사고(1993.9.8.)

- 북한 선박 평천호는 9.1. 불가리아 흑해 연안의 바르나항에 입항 중 강한 서풍으로 정박 중인 선박 3척을 파손시키는 사고 야기
- 언론에 따르면 피해액이 73만~182만 달러로 추정됨.
- 현재 평천호는 항만 당국에 억류 중이며, 손해배상에 대한 보장을 받은 후 출항 허용 예정

북한·브라질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23-35 / 10 / 1-62

1993년 중 북한과 브라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노동당 대표단, 브라질 방문(1993.6.27.~7.7.)

- 방문단
 - 단장: 이봉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 주요 일정
 - Lucena 상원의장, Alfredo Campos 상원 외교 분과 위원장, Serra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수교 제의,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브라질 의원단 방북 문제, 의원친선협회 구성 문제 등 협의

2. 김경호 주페루 북한대사, 브라질 방문(1993.9.11.~16.)

- PMDB(브라질 민주운동당) 전당대회 참가
- 주요 일정
 - Sarney 상원의원, Serra 아주국장 면담

북한·카메룬 관계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35 / 11 / 1-47



1990~93년 중 북한과 카메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제2차 북한·카메룬 합동위 개최(1990.11.12.~14., 카메룬)

- 3개 협정 체결 서명
 - 상품교환협정(시멘트, 커피·카카오), 보건협정(침술, 약초재배), 기술협정(도자기 전문가 파견)

2. 북한·카메룬 교류 동향

- 제87차 IPU(국제의원연맹) 북한대표단, 카메룬 방문(1992.4월)
- 북한대사관, 김일성 생일기념 리셉션 개최(1993.4월)
- 주중국 카메룬대사, 북한 방문(1993.5월)
- 한국전 종전기념일(조국해방전승기념일) 제40주년 행사에 방북 초청(1993.6월)

3. 카메룬 외무부 부장관, 제3차 합동위(1993.2.28.~3.1., 평양) 참석차 북한 방문

- 주요 협의사항
 - 제2차 합동위 합의사항 이행 촉구
 - 경제협력, 과학·기술·문화협력 문제: 북한 의사 3명 파견, 양어 및 도자기 기술자 양성, 광물자원 전문가 파견, 양수기 지원 등
 - 경제·과학 및 기술에 관한 협정 서명

북한·캐나다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5 / 12 / 1-57

1993년 중 북한과 캐나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캐나다·북한 간 민간 수준 교류

- Shreyer 전 캐나다 총독, 방북
 - 캐나다 외무부 측은 1992.11월경 Shreyer 전 총독의 방북은 개인자격이며, 북한 금강산그룹과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관한 의향서 체결 등 방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
- 1993.1.7. 캐나다 외무부 담당관이 미국 시민권자인 북측 인사 등과 면담한 결과, 북한은 캐나다 측에 20만 톤 이상의 소맥과 CANDU 원자로 4기 구매를 희망함.
 - 캐나다 측은 캐나다·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정부 입장을 강조한 후 교역에는 제한이 없고 캐나다 정부도 전혀 관여하지 않으나, 핵기술이나 원자로 같은 민감 품목의 대북한 수출은 허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소맥 수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신용제공을 요청한 데 대해 미수교국이고 신용도가 낮은 북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 북한 체육선수단, 캐나다 체류
 - 1993.7월 미국 버팔로 유니버시아드대회 시 일부 캐나다 분산 개최 종목(여자축구 등) 참가 등

2. 캐나다·북한 간 외교관 접촉(1993.2.22., 베이징)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요청
 - 북한 측: ① 서구 언론의 북한 핵에 대한 거짓보도는 북한에 대한 고의적인 적대행위이며, 북한 측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의 독립과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용인하지 않을 것임. ② 어떤 국가나 IAEA가 북한 측에 특별사찰을 강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따라서 서방측은 동 요구를 중단해야 함.
 - 캐나다 측: ① 핵확산 방지 및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는 캐나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임. ② NPT 서명국은 동국들의 핵 문제와 관련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NPT를 이행하는데 완전히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는 협조를 제공해야 함. ③ 캐나다는 북한 측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1992.5월 Blix IAEA 사무총장 방북 시 북한 내 어떤 핵시설 및 장소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환영함. ④ 캐나다 측은 북한 내 핵시설 방문 관련 IAEA가 현재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함.



- 캐나다 측 평가

- 금번 북한 측 접촉 요구는 캐나다 및 호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IAEA의 핵심우방국에 북한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3. 캐나다·북한 간 참사관 접촉(1993.3.16., 베이징)

- 경위

- 캐나다·북한 참사관급 접촉은 1990.7월 최초 접촉 이래 지난 1993.2.19.까지 17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금번 접촉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응하여 캐나다 측이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하기 위해 요청

- 메시지 요지

- 캐나다는 금번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
- 캐나다는 2.25. 북한 핵 문제에 관한 IAEA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함.
- 한·미국 간 팀스피리트 훈련 등 미국의 호전적 군사작전 재개가 북한의 NPT 탈퇴의 사유가 된다는 북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캐나다는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의 재고를 강력히 요구하며 NPT 규정 제10조에 따라 캐나다를 포함한 가맹국에게 북측 결정내용을 통보해 주기를 요청함.

북한·체코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35 / 15 / 1-50

1993년 중 북한과 체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원자력 협력

- 1993.6.29. 체코 관영통신 “북한과의 원자력기술 교류 부인” 제하 보도
- 1989.5월 체코·북한 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의정서 체결

2. 외교 관계

- 1993.4월 북한, 주북한 체코대사관 직원 12명 추방 조치
- 체코, 1993년 말까지 주북한 체코대사관 폐쇄

북한·에콰도르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35 / 16 / 1-71

1993년 중 북한과 에콰도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요원 동향

- 1993.2.10. 주에콰도르대사 보고에 의하면 북한대표단 일행(김형우 당 국제부 부부장, 박경선 수행원, 한보영 주페루 북한대사관 참사관, 이강세 참사관)의 에콰도르 입국
 - 1993.2.4.~5. 개최된 “중남미 사회주의당 건설 경험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문 채택

644

2. 기타 첩보

- 북한, 1993.3~4월경, 과야킬대학 중남미 주체사상 세미나와 수공예품 전시회 개최 기획 중
- 북한, 에콰도르에 중남미 주체사상연구소 본부 건축계획
 - 과야킬, 8층 복합건물(인쇄소, 회의장, 숙소 등)
- 북한, 7.27. 북한 승전기념일 전후 Jacob Bucaram 국회 부의장 등 10~15명 주요인사의 방북 초청
- 8.27. Laba Chavez 과야킬대학 부총장 가족 방북
- 10.22.~23. 에콰도르 조자통위원회, 고려연방국 창설 제안 연대지지의 달을 맞이하여 친북행사 개최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35 / 17 / 1-68

1993년 중 북한과 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에티오피아 간 방문 교류

- 이종욱 북한 부주석, 에티오피아 방문(1993.6월)
 - 김일성 친서 전달
- Lule Selassie Temamo 에티오피아 문화부장관, 북한 전승 제40주년(휴전) 기념일 행사 참석차 북한 방문
- 북한 관개 기술자, 에티오피아 파견

2. 주에티오피아 북한대사관 활동

- 김일성 생일 축하 리셉션 개최(1993.4월)
- 북한 상품전시회(6월/10월)
- 제45차 9·9절 기념 리셉션 개최
- 북한·에티오피아 간 언론 의정서 서명(12월)

3. 에티오피아 언론에 게재된 북한 관계 기사

- 북한 핵 문제, 북한·미국 대화, 북한 상품전시회 개최 등

북한·EU(유럽연합)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3-35 / 18 / 1-27

1993년 중 북한과 EU(유럽연합)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상업외채 상환 동향

- 주프랑스대사는 1993.2.4. 서방채권 은행단 운영위원회 측의 최근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92.8월 파리에서 개최된 운영위와 북한 대표 간 합동회의 이후, 북한 측은 운영위 측의 외채상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북한 측 경비부담 조건으로 채권은행 대표의 방북을 제의함.
 - 운영위 대표인 ANZ 은행 측은 원칙적으로 방북제의를 수락하나, 사전에 북한이 누적 외채 규모에 대한 공식 인정과 1차 상환분의 지불 확약을 요구한바,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상기 요구가 운영위 대표의 방북 전제조건일 경우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ANZ 은행 관계자의 방북이 실현되고 있지 않음.
 - 현재 운영위 측은 북한으로부터 외채상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성의로 수년째 일체의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한바, 북한 측이 이러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운영위 대표의 방북도 별다른 의미가 없음.

2. EPC 아주국장 회의(1993.2.4.) 결과

- 주영국대사는 1993.2.5. 동 대사관의 최 참사관이 Morris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대리를 통해 파악한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반도 정세 관련, EC(구주공동체)는 북한 핵사찰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진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기로 하였음.
 -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 한국의 민주화가 순조로운 발전을 하고 있으며,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정책 우선목표가 경제중시와 정치민주화에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 중국 관계는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천안문 사태 이후 EC의 대중국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와 티베트 인권문제 등이 토의됨.

북한·독일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35 / 19 / 1-184

1993년 중 북한과 독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인사 교류

- 1.29. 김계관 북한 외교부 순회대사 및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방독
 - Zeller 독일 아주총국장 면담
- 3.22. 뒤셀도르프 상공회의소, 북한 경제 세미나 개최
 - 북한 측 인사 3명 참석
- 5.15.~20. 독일 저명 신경과 의사 방북
 - 북한 국방장관 진찰
- 10.14.~23. 북한요원 4명, 북부독일지역 연수 차 독일 방문
 - 목적: 투자 촉진, 시장 개척, 경영, 금융 및 컴퓨터 통제
 - 후원 단체: Carl Duisberg사 아시아태평양부

2. 주독일 북한 이익대표 교체

- 신임 주독일 북한 이익대표로 김종모 북한 대외통상부 부부장 겸 북한 노동당 대외통상위 부위원장 내정
 - 독일·북한 간 외교관계는 없으며, 주독일 중국대사관이 독일 내 북한 대행

북한 선박에 대한 온두라스 임시국적증명서 발급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35 / 20 / 1-18

1992~93년 중 북한 선박에 대한 온두라스 임시국적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관련 내용임.

1. 사실 확인

- 1993.1.6.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은 주한 온두라스대사를 초치하여 확인
 - 북한선박 청진호에 온두라스 임시선적증명서 발급 경위를 문의
 - 주한 온두라스대사는 문제의 선박이 북한에서 건조한 마카오선박으로 국명 오기가 발생했다고 설명

648

2. 협조요청 사항

- 1993.1.6. 면담 시, 외무부 심의관은 북한선박이 불순한 의도로 임시선적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지적
- 주한 온두라스대사는 북한선박에 대한 임시선적증명서 발급이 없도록 협조 약속

북한·인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35 / 21 / 1-51

1993년 중 북한과 인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고위급 인사 교류

- 1993.1.30.~2.5. 정태화 북한 순회대사, 인도 방문
 - 인도 외무차관 면담 등
 - 인도 측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등에 관한 북한 입장 설명
- 2.2.~5. 북한노동당 대표단(단장: 지재룡 부부장) 인도 방문
 - 인도 내 공산계열 정당 접촉
- 이종욱 북한 특사(부주석), 인도 방문(3월)

2. 북한 공관 활동

- 1993.3.9. 류태섭 주인도 북한대사는 북한 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북한의 준전시 선포 설명 및 동 훈련을 북침을 위한 핵전쟁 연습으로 비난
- 10.17. 류태섭 대사 귀임 및 차봉주 신임 대사 임명

3. 기타 교류

- 북한 사민당 대표단, 인도 방문(11.20.~24.)
 - 인도 Congress 당의 초청으로 김병식 중앙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하여 라오 수상 면담

4. 북한·인도 교역 현황(1992.4~12월)

- 대인도 수출: 8,520만 달러
- 대인도 수입: 1,450만 달러
- 대인도 수출 주요 품목: 생사, 철강, 섬유류 등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5 / 22 / 1-59

1993년 중 북한과 인도네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요 인적 교류 동향

- 정태화 외교부 부부장, 인도네시아 방문(1993.2월)
 - 인도네시아 외무부장관 예방, 정무차관보와 회담
- 북한 경제대표단(단장: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인도네시아 방문(3월)
 - UNDP(유엔개발계획) 지원으로 Batam 종합경제특구에 대한 비교연구 목적
- 김영남 외교부장 인도네시아 방문(5월)
 - 북한 핵 문제 관련 비동맹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지지 요청, 수하르토 대통령 방북 초청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문(9월)
 - 수하르토 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비동맹운동, 연방제 통일방안, 북한 핵 문제 등 거론
- 김기룡 공보부장 방문(11월)
 - 비동맹국 간의 언론매체 기술이용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참석 목적

2.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 동향

- 김정일 생일 기념 행사 개최(1993.2월)
- 김일성 생일 기념 리셉션 개최(4월)
- 전승(종전) 4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7월)
- 9·9절 기념 리셉션 개최(9월)

북한·이란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5 / 23 / 1-151

1993년 중 북한과 이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이란 간 인적 교류

- 1992년
 - 2월 Karrubi 이란 국회의장, 북한 방문
 - 12월 북한·이란 경제공동위(테헤란 개최)
 - 12월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이란 방문
- 1993년
 - 1.11.~12. 이란 혁명수비대 사절단, 북한 방문
 - 1.25.~30. 김학섭 북한 체신부장, 이란 방문
 - 2.2.~8.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이란 혁명기념행사 참석
 - 4월 이란 군사사절단, 북한 방문
 - 4월 이성대 북한 대외경제위원장, 이란 방문
 - 4.15. 이란 외무부 사절단, 북한 김일성 생일 축하행사 참석
 - 6월 이란 문화종교장관, 제4차 비동맹 공보장관회의(평양 개최) 참석
 - 7.27. 이란 외무차관, 북한 종전기념행사 참석

2. 북한·이란 간 협력

- 직통 통신시설 건설
- 미사일 개발 협력
 - 이란은 미사일 개발자금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이란에 인도하고 있다고 해외언론은 보도
 -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과 석유를 상호 교환한다고 동유럽권이 첩보 제공
 - 북한이 이란에서 미사일 개발 실험을 한다고 다수 외신이 보도
- 북한 핵개발 옹호
 - 1993.4월 북한을 방문한 이란 외무부 아주국장은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적 조치라고 옹호
- 북한제 소형잠수정, 이란 수출

북한·이스라엘 관계. 전2권 (V.1 1992-93.6.20.)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동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5 / 24 / 1-115

1992~93.6.20. 중 북한과 이스라엘 간 관계 동향임.

1. 이스라엘 대표단, 북한 방문(1992.10.31.~11.3.)

- 단장: Eitan Bentsur 이스라엘 외무부 차관보
- 방문 경위
 - 평양 거주 미국인 중개에 의한 북한 측 초청
- 방문 목적
 - 북한 금강산 개발 타당성 조사
 - 양국 간 수교문제 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외무부 중동아심외관, Naim 주한 이스라엘대사 면담(1992.12.15.)

- Naim 대사는 이스라엘 외무부 북미담당 차관보의 북한 방문(북한·이스라엘 제1차 접촉) 관련 상세사항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자 면담함.
- 이스라엘·북한 접촉은 북한의 제의(초청)로 이루어진바, 금광개발 채산성 조사를 위한 금광 현지 조사와 관계자를 면담한 내용이며, 정치 관련 협의는 하지 않음.
 - 이스라엘 외무부는 채산성 조사보고서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중으로(완성 시기는 모른다고 답변) 그 결과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임.
 - 상기 방문 후에 다시 북한을 접촉한 일은 없음.

3. 이스라엘·북한 접촉 보도

- 1993.6.7.자 TIME지: Peres 이스라엘 외무장관 방북 초청, Tarnoff 미국 국무차관의 이스라엘에 대한 북한 접촉 중단 권유설 등 보도
- 6.14.자 외신: Peres 장관이 북한의 대이란 미사일 판매 중지 설득 차 북한 방문 계획이라고 보도

북한·이스라엘 관계. 전2권 (V.2 1993.6.21.-8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중동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5 / 25 / 1-143

1993.6.21.~8월 중 북한과 이스라엘 간 관계 동향임.

1. 북한·이스라엘 제2차 접촉(1993.6.25., 베이징)

-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와 NPT(핵확산금지조약) 문제 협의

2. 북한·이스라엘 제3차 접촉(1993.8.11., 베이징)

- 이스라엘 외교관들과 북한 대사관원들 간 접촉

3. 1993.8.16. 주한 이스라엘대사, 이스라엘 정부가 당분간 대북한 접촉 중단을 결정했다고 외무부에 통보

- 미국 주도의 대중동 미사일 확산 방지 노력 주시
- 미국의 상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
- 이에 따라 이스라엘·북한 간 접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

북한·말레이시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5 / 27 / 1-55

1993년 중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요 인적교류 동향

- 북한 경제시찰단(단장: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말레이시아 방문(1993.2월)
 - 수상실, 경제기획청, 중앙은행 등 방문, 자유무역지대 시찰, 말레이시아의 외국투자유치 정책 파악 및 투자유치 등
 - 말레이시아 외에도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을 순방
- 김기룡 노동당 공보위원장, 말레이시아 방문(4월)
 - 1992.5월에 기 합의된 정보교류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 방송교류 협의
 - 마하티르 수상 및 가파르 부수상 예방, 방북 초청장 전달
- Ghazali 말레이시아 전 외무부장관, 수상 특사 자격으로 북한 방문(8월)
 - 김일성 면담 및 마하티르 수상 친서 전달
 - 보스니아 사태 관련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한 협의 목적
- 가파르 부수상, 북한 총리 초청으로 북한 방문(10월)
 - 김일성, 강성산 총리 면담, 친선훈장 1급 수여, 양국 간 친선 및 경제협력 방안 협의
- 1992년도 북한·말레이시아 무역동향
 - 대북한 수출(38만 말레이시아 달러), 수입(8,876만 말레이시아 달러, 통신·전기·기계류 등)

2.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동향

- 유재한 북한대사 이임(1993.5월)
- 주명팔 신임 북한대사 부임(8월)
- 9·9절 계기 중국어 신문에 정치특집 광고 게재(9월)
-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아세안 PMC-SOM(확대외무장관회담-고위실무회의) 및 ARF(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참여 관심 표명(10월)

북한·네팔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36 / 1 / 1-24

1993년 중 북한과 네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요 인적교류 동향

- 지재룡 등 북한 사절단, 네팔 공산당 전당대회 참관 차 네팔 방문(1993.1월)
- 이종욱 북한 부주석, 김일성 특사 자격으로 네팔 방문(3월)
 - Koirala 수상 면담
- 북한 사회민주당 사절단 네팔 방문(11월)
 - 제1차 국제사회주의 아태지역위원회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2. 주네팔 북한대사관 동향

- 안희정 북한대사 이임(1993.4월)
- 임해성 신임 북한대사 부임(6월)
- 네팔·북한 친선협회 휴전(전승)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북한정권 수립 45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9월)
- '유엔사무총장의 제3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앞 서한' 관련 기자회견 개최, IAEA 비난

북한·노르웨이 관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36 / 2 / 1-23

1991~93년 중 북한과 노르웨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염경식 신임 주노르웨이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1992.4.23.)

- 스웨덴 상주대사로서 노르웨이 겸임
- Vindenes 노르웨이 외무부 사무차관, 외무부 의전실장, 정부국 및 경제국 관계자, 주재국 외교 단장, 무역공사의 아시아담당 관계자 등 면담 예정

656

2. 노르웨이 공산당 당수 방북(1993.2.7.~19.)

-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Iverson 노르웨이 공산당 당수 일행(20명)이 북한 방문
 - 평양 체류 시 김일성과 면담·오찬, 판문점 시찰, 금강산 관광 등 일정
 - 김일성은 동 면담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폐지에 관해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남북한 회담은 불가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

북한·네덜란드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36 / 3 / 1-72

1993년 중 북한과 네덜란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프랑스 북한대표, 네덜란드 방문

- 주네덜란드대사는 1993.4.23. 박동춘 주프랑스 북한대표가 통역 최창훈을 대동하여 4.23. 네덜란드 외무부의 Hoekema 국장을 면담,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거부 및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에 관한 입장 설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동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의 최근 조치는 현 상황(남한 1천개 이상의 핵탄두 보유, 팀스피리트 훈련 계속, 남북한 휴전상태 등)을 적절히 분석하여 내린 결정으로서, 이는 북한의 주권 및 생존을 위한 방어조치임.
 -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으며, 또한 현 경제사정에 비추어 무기개발을 추구할 입장이 아니며 언제나 IAEA의 일반사찰을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음.
 - 그러나 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2개 군사지역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의 정치적·사회적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 국제사회는 핵사찰에 있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한 예로 과거 남아공에 대한 115차례의 핵사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바, 이는 강대국이 비밀리에 남아공의 핵 개발에 협조한 결과로 봄.
 - 현 상황의 유일한 타결책은 미국·북한 간 대화뿐이며, 이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은 미국·북한 간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네덜란드의 협조를 부탁함.

2.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립계획에 관한 자료

- 주네덜란드대사관은 박동춘 북한대표가 1993.4.21. NCH(네덜란드 민간 무역진흥위원회) 방문 시 제공한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립 계획에 대한 아래 자료를 외무부로 송부함.
- GOLDEN TRIANGLE RAJIN-SONBONG
 - Present state of and prospects for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 Legal status of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laws

북한·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36 / 4 / 1-88

1993년 중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요 인적교류 동향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파키스탄 방문(1993.1월)
 - 이샤크 칸 대통령, 와심 사자드 상원의장, आयु브 칸 하원의장 예방
 - 양형섭 방문 시, 북한·파키스탄 핵협정 체결설 언론 보도(워싱턴 발)
- 와심 사자드 상원의장 등 의원사절단 북한 방문(4월)
 - 최고인민회의 의장 면담
- 상원 공보위원회 위원장, 평양 개최 비동맹 공보장관회의 참석(6월)
- 평양 주재 파키스탄대사관 폐쇄 검토
- 부토 파키스탄 총리, 북한 방문(12월)
 - 중국 공식 방문 계기에 인접국 방문

2. 주파키스탄 북한대사관 동향

- 최수일 북한대사, 김일성 신년사 선전을 위한 기자회견(1993.1월)
- 카라치 주재 북한총영사관 밀수 관련 현지 언론 보도(3월)
- 최수일 북한대사, 핵 문제 관련 미국·북한회담 결과에 관해 기자회견(6월)
- 북한 '조국해방전쟁 승전 40주년' 기념 선전광고 게재(7월)
- 북한 정권수립 45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9월)
- 최수일 북한대사,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날조된 유엔사무총장 서한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자회견(10월)

3. 북한·파키스탄 경제협력

- 북한기업, 카슈미르 정부 수력청 발주 수력발전소 설비 및 기술용역 제공 계약 체결(1993.7월)

북한·포르투갈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6 / 1-43

1992~93년 중 북한과 포르투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노동당 중앙위 국제부 김형우 부부장, 포르투갈 방문(1992.8.28.~9.5.)
 - 포르투갈 공산당 주최 AVANTE 행사 참석
 - 동 행사는 포르투갈 공산당의 결속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임.
2. 황건중 신임 북한대사, Soares 포르투갈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1992.11.13.)
3. 북한 김용순 공산당 국제담당 비서, 포르투갈 방문(1992.12.3.~6.)
 - 제14차 포르투갈 공산당 대회 참석
4. 한반도 통일 관련 세계대회 개최(1993.5.30.~31., 리스본)
 - 조평통 국제연락위원회, 포르투갈 평화협력위원회 및 포·조 친선협회 공동 주관
 - 주한미군 및 핵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및 북한 인민과의 연대성 강화 등을 요지로 하는 결의문 채택

북한·카타르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36 / 7 / 1-57

1992~93년 중 북한과 카타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대카타르 수교 움직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 1992.6월 주카타르대사는 Al-Mohmoud 카타르 외무차관을 면담
 - 금후 북한으로부터 관계개선 교섭이 제기될 경우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큼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남북대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때까지 수교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
- 카타르 측 언급요지
 - 북한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 시도가 있었으나,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이를 거부해 옴.
 -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계획이 없으며, 한국 측의 입장을 유념하겠음.

2. 카타르·북한 수교(1993.1.11.)

- Muftah 카타르 외무부 정무국장, 주카타르대사에게 카타르·북한 수교 결정 사실을 통보
 -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는 불변이며, 북한과 상주공관 교환계획은 없다고 설명
- 한국 정부는 1992.10월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간 국경분쟁 이후 카타르의 독자 외교노선 추구, 가스석유 시장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과 수교에 이른 것으로 추정
- 한국 정부는 주한 카타르대사 및 주카타르대사 채널을 통해 카타르 측에 강한 유감 전달
 - 대북한 미 수교 GCC(걸프협력회의)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에 대한 북한의 수교책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3. Al-Mohmoud 카타르 외무차관, 1993.1.18. 주카타르대사 접견 시 대북한 수교 배경 설명

- 1991.2월 주한 카타르 상주대사관 설치 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대북 관계격상 접촉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더 이상 고립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국이 바라는 남북대화 진전 및 핵 문제 해결에도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수교를 결정함.
- 북한과의 수교 자체에 큰 뜻은 없으며, GCC 국가들과의 사전협의도 없었음.

북한·러시아 관계. 전3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8 / 1-112

1993년 중 북한과 러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동향 파악

- 주러시아 및 주미국대사관의 접촉 활동, 외신 보도 등을 통해 북한 동향 지속 파악
 - 북한 내부 및 북한의 러시아 내 동향 등을 탐문 파악
- 전반적으로 북한 내부는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러시아 관계는 소원한 상태
 - 러시아는 대북한 관계를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시키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설득 지속

2. 북한·러시아 간 관계

-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북한 방문(1993.1월)
 - 상호원조조약 개정, 대러시아 차관, 핵 문제, 남북관계, 화학무기금지협정 가입
- 러시아 핵 및 미사일 전문가들의 북한 무기개발 참여 가능성 존재
 - 북한 입국 기도 적발 사건 발생
- 하바롭스크주에는 북한의 합작 기업이 활동하며, 주종인 원목사업 외 식품, 의약 등 취급
-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및 주나훗카 북한총영사관은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 개최
 - 러시아 TV는 북한의 김일성 생일 행사 보도

북한·러시아 관계. 전3권 (V.2 5-8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9 / 1-94

1993년 중 북한과 러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동향 파악

- 러시아 주재 공관의 접촉 활동, 내외신 보도 수집 등을 통해 동향 파악 지속
- 전반적으로 북한 내부는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러시아 관계는 소원한 상태

2. 북한 동향

- 대외 활동
 -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
 -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국과의 교류 자제
 - 이종욱 북한 부주석, 1993.5월 모스크바 경유 아프리카 순방
- 국내 상황
 - 북한 정부는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주재 외교관 및 거주 외국인의 활동도 통제
 - 김일성 일가의 건강 이상 증후 포착

3. 북한·러시아 간의 관계

- 관심사항
 - 러시아·북한 외무성 고위인사 교류,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 폭행 사건, 동해 핵폐기물 투기 문제, 시베리아 벌목 노동자, 러시아·북한 상호원조조약 개정 등
- 북한의 비공식 경제사절단, 러시아 방문(1993.8.6.~16.)
 - 단장: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러·북한 간 투자보장, 관세협정 및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 협의
 - 북한의 나진항 합작개발사업 계약 체결 및 경제협력 정상화 협의
 - 실질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러·북한 양국 간 관계 정색 돌파구 마련 시도

북한·러시아 관계. 전3권 (V.3 9-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10 / 1-92

1993년 중 북한과 러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동향 파악

- 러시아 주재 공관의 접촉 활동, 내외신 보도 수집 등을 통해 동향 파악 지속
- 전반적으로 북한 내부는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러시아 관계는 소원한 상태
 - 러시아는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에 경사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

2. 북한 동향

- 북한은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위해 활발한 교섭활동 전개
 -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이 러시아(1993.8월), 홍콩(9월)을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 전개
 - 두만강지역개발계획 회의(1993.9.20.~24., 베이징) 시 북한은 동 사업에 대해 적극적 희망 표시
- 북한 노동자는 시베리아 이외 캄차카 등 여러 지역에 진출

3. 북한·러시아 관계

- 관계 일반
 - 러시아 주재 북한 공관, 9·9절 리셉션 개최: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참석
 - 러시아 외무차관과 주러시아 북한대사 간에 외무부 간 교류 의정서 체결(1993.9.23.)
 -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조·소 수교 45주년 기념행사 개최(1993.10.12.)
 - 러시아 과학기술사절단, 북한 방문(1993.11.22.~26.)
 - 러시아 임업위원회 부위원장, 북한 방문(1993.11.23.부터 10일간)
 - 러시아·북한 어업회담 개최(1993.12.15.~22., 블라디보스토크)
- 관심사항
 - 러·북한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러·북한 상호원조조약 개정
 - 시베리아 벌목 노동자 관련 협정 체결 추진
 - 외교관 활동 제한 완화

북한의 대러시아 50마일 군사수역 침범 항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11 / 1-32

1993년 중 북한의 대러시아 50마일 해양 경계선 선포 시도 관련 내용임.

1. 북한의 시도

- 1993.4.17. 북한 인민무력부,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무관을 초치하여 50마일 해양 경계선 설치를 통보
 - 북한 영해 12마일 외곽으로 50마일 지점이 해양 경계선
 - 북한의 단독 주권행사 구역으로 허가 없이 들어온 외국선박에 대한 발포권 보유 주장

664

2. 사태 파악

- 북한이 통보한 해양 경계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77.8월 선포한 50마일 군사수역
 - 러시아선박들이 동 수역을 수시 침범함에 따라 러시아 측의 시정을 요구
 - 북한 측은 1990년대 들어 재차 선언하면서 러시아어선 및 민간선박 8척 나포

3. 진전사항

- 1993.4월 하순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요지의 공한을 북한 외교부에 발송

북한·스웨덴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12 / 1-48

1992~93년 중 북한과 스웨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염경식 주스웨덴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스웨덴 정부는 1991.10월 중순 동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 부여
- 1992.2.6. 신임장 제정

2. 평양 주재 스웨덴 공관 철수 검토(1992.11월)

- 스웨덴 정부는 예산적자 및 경기침체 등 이유로 10여개 재외공관 철수 및 외무부 인원 감원을 검토, 평양 주재 공관(대사대리급이 상주)도 대상에 포함
- 다만, 스웨덴 정부는 현 시점에서 공관 철수를 결정할 경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가능성과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북한과의 대화창구 유지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좀 더 관망하겠다는 입장

3.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 스웨덴 방문(1993.3.25.~29.)

- 3.26. 알렘미르 스웨덴 국회 제1부위원장, 국회 외교위원회 대표단 면담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의 당위성과 팀스피리트 훈련 반대 입장을 설명
- 3.29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하여, 동 연구소 발간 책자(1992년도 세계 플루토늄 및 농축 우라늄 inventory)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고 항의
- 이외에 공산주의자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 좌경 정당들과의 회담에서는 NPT 탈퇴 관련 지지를 요청

북한·스리랑카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36 / 13 / 1-56

1993년 중 북한과 스리랑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요 인적교류 동향

- 북한 경제시찰단(단장: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스리랑카 방문(1993.3월)
 - UNDP(유엔개발계획)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대 시찰, 외국인투자유치정책 파악 등 목적
 - 스리랑카 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순방
- 김영남 외교부장 명의 스리랑카 외무부장관 앞 서한 송부(3월)
 - 제4회 비동맹 공보장관회의(1993.6월, 평양) 초청 및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 스리랑카·북한 문화협정 체결(4월)
 - 베이징 주재 스리랑카대사(북한 겸임)가 평양에서 협정에 서명

2. 인도 뉴델리 상주 북한대사관 동향

- 스리랑카·북한 친선협회 및 스리랑카 주체사상연구회, 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는 서한을 스리랑카 주재 한국대사 및 미국대사 앞으로 송부(1992.12월)
- 유태섭 주인도 북한대사(스리랑카 겸임), 스리랑카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1993.2월)
 - 정부인사 예방, 친북한 인사 면담
 - 현지 대사관 재개, 문화협정 조인, 북한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문제 협의
- 주인도 북한대사관 직원, 북한선박(운봉호, 약 6천톤) 콜롬보항 억류 문제 협의차 방문(7월)
 - 동 선박은 스위스 소맥분 수출회사에 의해 콜롬보 법원에 제소됨.
- 1992년도 북한·스리랑카 무역현황
 - 대북한 수입(약 13만 미국 달러), 수출은 전무

북한·스페인 관계

생산연도 1988-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36 / 14 / 1-60

1988~93년 중 북한과 스페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Mirapeix 스페인 외무부 아주국장, 주스페인대사 면담(1989.7.20.)

- 동 국장은 1989.7.14. 주포르투갈 북한대사를 접견, 동 대사는 북한의 통일정책 및 한반도 정세를 설명한 후 북한·스페인 간 수교를 제의해 왔다고 하고 이에 동 국장은 스페인 정세 설명에 이어 대한반도 정책에 변경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과 수교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전달함.

2. UNWTO(세계관광기구) 북한 상주대표부 설치

- 대표부 개설
 - 1990.12.18. 유창운 북한대표의 신임장 제정 후, 동일자로 대표부 개설 공고
- 개설 경위
 - 북한은 1987.9월 UNWTO 가입 이후 미수교국인 스페인 진출을 위해 7명 규모의 UNWTO 대표부를 마드리드에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해 줄 것을 요청
 - 스페인은 1988.1월 북한의 UNWTO 업무량을 감안, 2명 규모의 북한대표부 설치를 허가하겠다고 통보
 - 1990.5월 3명의 창설 준비요원의 스페인 도착, 사무실 및 주거지 구입 후 귀국

3. 제2차 조평통 지지 국제청년회의 개최(1992.2.1., 마드리드)

북한·스위스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36 / 15 / 1-52

1992~93년 중 북한과 스위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결정 유보 관련 기사

- 주스위스대사는 1993.6.15. 스위스의 주요 일간지들이 6.14. 북한의 NPT 탈퇴 결정 유보에 대해 아래 요지의 논평기사를 게재했다고 보고함.
 - Neue Zürcher Zeitung지(뉴욕발 특파원): 북한의 NPT 탈퇴 결정 정지는 미국·북한 뉴욕협상 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 입장과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조치의 비현실성을 감안하여 미국 측에서 북한과 타협한 결과 가능하게 되었음.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조치 결정시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수차례 걸쳐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됨.
 - Tages Anzeiger 및 Der Bund지(도쿄발 특파원): 북한의 NPT 탈퇴 의사표명 및 동 결정 연기 등 일련의 조치는 NPT 활용,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개시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제고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됨.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이란, 우크라이나, 한국, 일본 등 제3국에서도 북한의 예를 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스위스 곡물상, 북한 화물선 압류

- 외무부는 1993.8.6. 아래 내용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전달함.
 - 7.23.자 조선일보는 북한이 스위스 곡물상인 로막사와 캐나다산 소맥 6만 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선적 분 2만 4천 톤을 인도 받았으나, 대금 410만 달러 중 319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자, 로막사는 콜롬보항에 자주 드나드는 운봉호에 대한 압류처분을 콜롬보 지방법원에 제출, 운봉호를 압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주스위스대사관이 상기 로막사를 접촉한 바에 의하면 국제곡물거래상인 로막사는 3년 전부터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대북 곡물 중계무역을 해오다 작년에 처음으로 대북 직접거래를 시작함.
 - 로막사는 1993.7월 콜롬보 지방법원에 운봉호에 대한 압류처분 신청을 한 것은 밀린 소맥 대금의 조속 결제를 위한 대북 압력수단으로 취해진 것이며, 현재로서는 동 사건이 언제 해결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함.

북한·태국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36 / 16 / 1-129

1993년 중 북한과 태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태국 인사교류

- 지재룡 북한 노동당 중앙위 국제업무담당, 태국 방문(1993.1.25.~26.)
 - 태국 국영석유공사의 초청
 - 태국 공업부 부장관 면담 및 북한 연근해 석유탐사 공사의 참여 문제 협의
- 장광선 북한 외교부 아주국장, 태국 방문(2.7.~11.)
 - 1992.6월 태국 외무부 아주국 동북아담당 부국장 등 3명이 방북한데 대한 답방
 - 동 계기에 2.8. 정책협의회 개최, 북한 측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문제 등에 관해 북한 입장 설명
- 태국 국회의장 등 19명의 국회대표단, 북한 방문(4.26.~5.1.)
- 왓치랏롱콘 태국 왕세자, 북한 방문(6.18.~23.)
 - 6.19. 김일성 면담 및 관광
 - 태국 정부는 동 방북이 태국 정부의 의도가 아님을 기 설명
- Vijit Sookmark 태국 국방장관,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초청으로 방북(9.18.~21.)
- 양협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태국 방문(10.9.~17.)
 - 태국국왕 예방 등
- 장청 북한 문화예술부장, 태국 방문(11.4.~9.)
 - 추안 태국수상 예방, 김일성의 방북 초청장 전달

2. 북한·태국 간 경제관계

- 1993.3월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강정모 부위원장의 태국 방문 및 태국산 미곡 대북한 수출 계약
 - 2년 신용 조건으로 태국산 미곡 도합 10만 톤 북한 수출
 - 6.8. 태국 정부는 추가로 15만 톤 대북한 수출을 결정하고 북한산 비료와 구상무역으로 10만 톤 정식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태국은 신용장 개설 지연을 이유로 계약 파기
- 북한 조선민항 측은 1993.4월부터 주1회 평양-방콕 운항 개시
 - 매주 월요일 일류신 62 기종 운항 및 태국 여행사 북한관광상품 판매 추진
 - 3.18. Prosong 태국 외상과 이도섭 주태국 북한대사는 방콕에서 항공협정 서명
 - 4.5. 최초 취항 이후 운항 중지하다가 6.14. 두 번째 운항
- 1992년도 태국의 대북한 교역은 761만 4천달러 수출, 175만 6천달러 수입



3. 기타 동향

- 1993.8.25. 이도섭 주태국 북한대사, 태국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참석
- 태국과의 관계,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관계 등 설명

북한·터키 관계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36 / 17 / 1-48

1990~93년 중 북한과 튀르키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노동당 대표단, 튀르키예 방문(1991.7월)

- 김형우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튀르키예 방문
- 제2차 튀르키예 사회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고, 평양 개최 제85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했던 여야 일부 국회의원을 면담
 - 튀르키예 외무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보장 차원에서 사회당이 요청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 튀르키예 입국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설명

2. 튀르키예 정부의 대북한 관계에 대한 입장

- 1991.8월 Ozdem Sanberk 튀르키예 외무차관, 김내성 주튀르키예대사 접견 시 언급요지
 - 대북한 기존 정책(불승인 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관계개선 의사가 없음.
 - 다만, 국제회의(SI 등) 및 국제스포츠행사 참가 등의 교류는 허용하고 있음.

북한·영국 관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36 / 18 / 1-102

1992~93년 중 북한과 영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영국의 대북한 제한적 접촉 허용 방침

- 1992.3월 영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 측의 요청이 있을 시 기존의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접촉 이외에 외무부 내 2개 북한 관련 부서(극동과 및 핵확산금지과)의 과장급 이하에 한하여 북한 관리 접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국 정부에 설명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영국 측 방침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와 관련 한국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요청하고, 런던 주재 북한 IMO(국제해사기구) 대표부의 영국 외무부 정무과 접촉 허용 여부를 문의 - 영국 측은 허용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만 의전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

2. '신 국제질서 하의 북한' 학술회의(1992.10.31.) 개최

- 영국 케트대학교, 울버햄튼대학교, LSE 및 런던 시립 폴리테크닉 공동 주관
- 영국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외무성 등 관계자 60여명 참석
-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대북한 투자환경 및 북한의 주체사상과 문화 등에 대해 12명이 주제 발표
 - Morris 영국 외무성 극동국 부국장: 영국의 대북한 정책
 - 박진 뉴캐슬대학교 교수: 냉전 이후 국제질서 하에서 북한의 데탕트 추구 노력
-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던 북한 사회과학원 학자 3명은 회의 개최 2주일 전 불참을 통보

3. 북한 연수단, 영국 내 연수 실시

- 북한 대외경제연구소 8명, 국제정치대학 3명, 국가경제대학 2명, 국제기구협력국 1명 등 총 14명 대상
- Int'l Trade Center for UNCTAD & GATT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제무역 연수과정 참가
 - 연수는 베이징 1주, 제네바 2주, 영국 10일 일정으로 구성
 - 영국에서는 국제 마케팅, 금융, 재정 등이 주요 연수분야이며, 은행, 보험, 무역 등 유관기관 및 업체 방문 시찰

미국 국무부의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36 / 19 / 1-124

1993년 중 미 국무부의 남북한 관련 인권보고서(1993.1.19.) 내용임.

1.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1992.12.18.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30여 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 대통령을 선출함. 동 선거는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쳤으나 폭력사태는 없었고 동 선거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찾아볼 수 없었음.
- 친북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비폭력적 표현의 자유, 집회 또는 여행의 자유 등이 저해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87년 이전의 비민주적 관행을 완전 일소하지는 못하였음.
- 학생 데모는 현격히 줄었으나 폭력적 양상은 계속되었으며, 반면에 한국 경찰은 학생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원칙 고수를 보여 주었음.

2. 북한 관련 주요 내용

- 북한 정권은 지극히 탄압적이고 국민들을 철저한 통제 하에 종속시키고 있음.
- 북한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부정하고 있으나, 2천 명 이상의 재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방북은 허용해옴.

미국·북한 관계. 전3권 (V.1 1-3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20 / 1-135

1993.1~3월 중 미국과 북한 간의 소통 관련 동향임.

1. 미국의 북한 평가

- J. Laney 에모리대학교 총장
 - 북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문호개방이 불가피하며, 인권개선과 군비 축소와 함께 유일한 살길은 한국과의 협력분임.
- Oberdorfer 워싱턴포스트 기자
 -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유인책 제공 등 국제적 노력 필요

674

2. 북한의 대미국 화해 제스처

-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긍정적 반응, 한국전 실종 미군 문제에 협조적 자세 견지 등
 -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유지
-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북한 투자설명회' 개최 시도
- 주유엔 북한대사는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1993.2.3. 워싱턴 개최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

3. 북한 관련 동향

- 1993.1월 NIKO사의 대북한 식량수출 허가 2년 갱신
- 3월부터 주유엔 북한대표부·평양 간 전화회선 개설
- 3.19. 베이징에서 미국·북한 참사관급 접촉
-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 외교관을 초청한 가운데 한반도 세미나 개최
-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은행이나 미국 내 은행 이용 또는 달러를 통한 국제결제 금지 유지

4. 미국 주요인사의 방북 시도

- 카터 전 대통령
 -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의 1993.2.16. 카터센터 방문 시, 방북 초청 의사 전달
 - 주미국대사는 남북 당사자 간 협의 우선, 남한을 통한 방북, 북한 핵 문제 진전 등에 대한 고려 요청

미국·북한 관계. 전3권 (V.2 4-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21 / 1-136

1993.4~7월 중 미국과 북한 간의 소통 관련 동향임.

1. 미국의 대북한 조치

- 1993.4.21. J. Woolsey CIA 국장, 상원 법사위에서 북한을 6대 테러국가로 지정 유지 천명
- 미국 재무부의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북한의 동결 금융자산이 280만 달러임.

2. 미국·북한 간 교류

- 미국의 대북한 접촉
 - 베이징에서 미·북 간 참사관급 접촉 지속
 - 고위급 미·북 접촉 재개 검토
- 북한의 대미국 접촉
 - 북한은 대미국 비난을 자제하는 경향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전직 관료, 의회, 학계, 경제계, 종교계 등 다양한 미국 인사 접촉을 시도
- 미국 인사의 방북
 - CNN 사장 및 카터 전 대통령 등 방북 추진
- 북한 인사의 방미
 - 버클리대학교 동아센터 주관 세미나(1993.5.3.~5.), 미시건주립대학교 주관 세미나(1993.7월), 조지메이슨대학교 개최 북미 기독교학자 연차총회(1993.7.22.~24.) 등 참석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결과 별무

3. 참고사항

- 언론 보도
 - NYT 1993.4.8.자 기사에서 북한·이란 간 원유 및 미사일 교환 거래 보도
 - 비밀해제 1955~57년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전 이후 미국은 핵무기의 배치를 검토

미국·북한 관계. 전3권 (V.3 8-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22 / 1-154

1993.8~12월 중 미국과 북한 간의 소통 관련 동향임.

1. 미국의 대북한 조치

- 1993.1월부터 상무부는 2년간 12억 달러 상당 곡물의 인도적 차원 대북 수출 허가를 갱신
 - 개별적으로는 1월과 8월 2회에 걸쳐 15억 5천만 달러 상당 대북 곡물 수출 허가
 - 적성국교역법에 의거, 제재조치는 1년 연장
- 11.7. 클린턴 대통령은 NBC TV에 출연하여 북한 핵 개발 불허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

676

2. 미국·북한 간 교류

- 미국의 대북한 접촉
 - 고위급 미·북 접촉: 1993.6월, 7월, 8월 실시
 - 참사관급 베이징 접촉: 8월, 9월 실시
 - 기타: 8월 실종미군 유해송환 MOA 합의
- 북한의 대미국 접촉
 - 8.17. 주유엔 북한대사는 D. Gregg 'Korea Society' 회장 방문
 - 11.16.~18. 주유엔 북한대사는 카네기재단이 초청한 세미나에 불참
- 미국 인사의 방북
 - Ackerman 하원 아태 소위원장이 방북하여 김일성 면담
 - 아태 포럼/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장 A. Jordan 박사 방북 초청
 - John Lim 오레곤 상원의원의 주도로 의회 지도자 및 동포사회의 방북 추진
 - Claremont McKenna 대학 사회과학연구회 소속 교수 3명 북한 방문

북한의 미국제 쾌속정 구입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36 / 23 / 1-56

1993년 중 북한의 미국제 쾌속정 구입 문제 관련 내용임.

1. 러시아 일간지 Kommersant Daily 미국 무기 판매 관련 기사 보도(1993.4.28.)

- 미 국무부는 1992 회계연도에 한국에 대해서 정부 경로로 26억 4천 1백달러, 비정부 경로로 9억 달러 규모, 북한에 대해서 비정부 경로로 5억 9천 9백만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
- 주러시아대사관에서는 외무부에 보도 관련 확인 사실 요청

2.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의 대북한 무기판매 관련 보도 문의(1993.4.30.)

- 박인국 서기관은 미국의 대북한 상업베이스 무기판매 계획 보도와 관련, Quinones 국무부 북한 담당관에게 hamilton 하원 외무위원장의 추가 의사록을 제시하고 설명 요청
 -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북한에 대한 무기판매는 있을 수 없으며, 의회 측 실무진의 오타 내지는 실수 가능성 언급
- 김형진 서기관이 Poloyac 하원 외무위원회 전문위원에게 확인한 바, 국무부와 국방부의 컴퓨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여 한국에 속하는 통계의 일부가 북한 측 통계로 잘못 분류되었으며, 북한 측 통계는 모두 0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

북한·베네수엘라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36 / 25 / 1-40

1993년 중 북한과 베네수엘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동향 파악

- 베네수엘라 외무부 및 각계 인사 접촉을 통해 북한대사관의 활동 탐문
- 베네수엘라 언론보도를 수시 검색하여 북한 동향을 파악

2. 북한의 활동

- 1993.1.12. 주베네수엘라 북한 통상대표는 일간지 Golbo 신문사 방문
 -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며, 기계 및 비단 수출에 관심 있다고 언급
- 1992년부터 북한 통상대표부는 상주대사관으로 승격을 위해 외무차관 면담 등 교섭 활동 전개
 - 베네수엘라 외무부 아시아국장은 북한의 시도가 있었으나 거절했다고 확인
- 북한 통상대표는 1993.1.10.~22. 쿠바를 방문, 쿠바·베네수엘라 석유 중개무역 협의
- 북한 통상대표부 차석은 일간지 티 Nacional 신문사 방문
 - 2.16. 김정일 생일 계기 한반도 문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실패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이 3.4. 보고타에서 베네수엘라로 입국
 -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거쳐 입국했으며, 3.9 쿠바 향발
- 북한 측은 R. Caldera 상원의원의 4.9.~19. 중국 방문 중 북한 방문을 초청
 - Caldera 상원의원은 북한 미 방문
- 쿠바 상주 신임 북한대사는 4.30. 베네수엘라에 도착하고, 5.3. 신임장 제정
- 북한 통상대표는 5.15. 및 5.22. 공보장관을 면담하고, 6월 평양개최 비동맹 공보장관회의에 초청
 - 베네수엘라 공보장관은 참석 불가를 통보
- 북한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일행이 6.23. 입국하여 공산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6.29. 브라질 향발
 - 베네수엘라 공산당은 6.23.~27. 제9차 전당대회에 북한을 비롯한 각국 공산당 대표를 초청
 - 북한 최고인민회의 사절단은 7.7. 재입국하여 7.10. 쿠바 향발
-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11.2.~4. 베네수엘라 방문 후 쿠바 향발

북한·아프리카지역 국가 관계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아프리카1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36 / 26 / 1-81

1990~93년 중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외교사절단, 아프리카 순방(1993.4.10.~5.4.)

- 사절단
 - 김용일 외교부 부부장 등 3명
- 순방국
 - 세네갈,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베냉,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잠비아 등 8개국
- 순방 목적
 -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입지 탈피와 아프리카 공관 재정비에 따른 외교력 저하 만회 등

2. 북한 외교사절단, 아프리카 순방(1993.5.22.~6.13.)

- 사절단
 - 이종욱 부주석 등 7명
- 순방국
 - 기니, 부르키나파소,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7개국
- 순방 목적
 - 순방 대상국이 비동맹 주요국으로 친북 사회주의권임을 고려 시 핵 문제 지지 교섭뿐만 아니라, 비동맹 공보장관회의(1993.6월, 평양) 및 제29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1993.6월, 카이로)와 더불어 향후 제3세계권과의 이념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분석

북한·아주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2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36 / 27 / 1-70

1993년 중 북한과 아시아 국가 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몽골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몽골 친선협회 부위원장, 몽골 방문(1993.2월)
 - 김일성 생일 시 몽골예술단을 방북 초청
- 북한 해운대표단, 몽골 방문(6월)
 - 몽골·북한 해운합작회사 설립, 몽골 구리광물 수입 및 제련 후 재수출 문제 협의

2. 미얀마

- 특이 동향 없음.

3. 싱가포르

- 북한 경제사절단(단장: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싱가포르 방문(1993.2월)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싱가포르 방문(10월)
 - 국회의장 등 면담

4. 필리핀

- 특이 동향 없음.

5. 호주

- 주태국 및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 호주대사관 접촉 관계개선 탐색(12월)

6. 홍콩

- 북한 경제사절단(단장: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홍콩 방문(1993.9월)
 - 두만강개발계획 참여요청 및 대북한 교역확대 방안 논의
- 북한선박 억류(11월)
 - 능라도호가 채무문제 불이행으로 빅토리아 항에 억류되었다가 출항

북한·중동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1과 / 중동2과

MF번호 2023-36 / 28 / 1-97

1993년 중 북한과 중동 국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시리아 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의정서 조인(1993.4.25., 평양)

- 이성대 북한 대외경제위원장과 알스베이 시리아 국무상 간 조인
 - 조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그간 군사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제협력 강화를 노린 포석으로 분석되며, 특히 이를 통해 1992.5월 시리아 측이 북한에 대해 요청했던 관개사업협력 관련 북한기술자 파견 및 장비지원 등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

2. 한·이집트 간 수교 관련 이집트의 입장 변화(1993.7월)

-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통일 시까지 대한민국 수교를 자제해 달라고 이집트 측에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
- 다만, Mussa 이집트 외무장관과 El-Baz 대통령 정치외교 특보 등이 한국과의 수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대한민국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무바라크 대통령은 북한의 대이란 미사일 수출 보도 및 이스라엘의 대북한 접근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 결국 한·이집트 수교 문제는 이집트 측의 김일성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시기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

북한·구주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동구2과

MF번호 2023-36 / 29 / 1-50



1993년 중 북한과 구주 국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그리스 관계

- 리철 주제네바 북한대사, 그리스 방문(1993.6.2.~5.)
 - NPT(핵확산금지조약) 관련 북한 입장 설명 및 양국관계 개선 가능성 타진

2. 북한·루마니아 관계

- 북한 도서 및 수공예품 전시회 개최(1993.5.20.~29., 부쿠레슈티)

3. 북한·벨기에 관계

- 주프랑스 북한대사관 직원 일행, 베네룩스 3국 방문(1993.3월)
 - 북한 정세 및 NPT 탈퇴에 관한 북한 측 기존입장 설명

4. 북한·오스트리아 관계

-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대리, 오스트리아 아태국장 면담(1993.1.29.)
 - 팀스피리트 훈련 발표 관련 북한 외교부 성명 및 김일성 신년사 수교
-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 오스트리아 아태국장 면담(5.10.)
 - 김일성 10대 강령 지지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

5. 북한·이탈리아 관계

- 김용순 북한 당 비서, 이탈리아 방문(1993.4.1.~4.)
 - NPT 탈퇴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관련 북한 입장 설명

북한·중미 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미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6 / 30 / 1-82

1993년 중 북한과 중미 국가(수리남, 에콰도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수리남

- 1993.4.20. 수리남·북한 친선협회는 김일성 제81회 생일기념 행사를 주가이아나 북한대사관의 지원으로 개최

2. 에콰도르

- 북한 대외문화위원회 중남미협회장 등 2명, 에콰도르 방문(1993.2월)
 - 국회 방문, 키토(평양과 자매결연 도시) 시장 면담, 문화협정 체결 협의 등
-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에콰도르 국회의장 방북 초청(1993.2월)
- 북한 사회과학원 대표단 3명, 에콰도르 방문(1993.4월)
 - 과야킬대 부총장 면담, 친북인사 접촉 등
- 과야킬대 부총장, 북한 주체과학원 초청으로 방북(1993.8.27.)
- 과야킬주 고등교육관 2명, 방북(1993.10.12.~30.)
- 에콰도르 사회당 대표단, 방북(1993.10.18.~11.10.)

3. 자메이카

- 한봉구 주자메이카 북한대사, 주재국 국회의장 예방(1993.5.4.)
 - 수력발전 분야 협력사업 제의 등
- 주자메이카대사는 현지 최유력 일간지 The Gleaner의 친북적 논조 시정 활동 수행
- 10.20.자로 주자메이카 북한대사관 폐쇄 및 대사 등 인원 철수

4. 코스타리카

- 북한의 대코스타리카 접근 시도에 대해 코스타리카 정부의 북한, 쿠바 및 중국에 대한 거부 방침 확인(1993.2월)
- 북한 요원 3인, 코스타리카 방문(1993.5월)
 - 국회의장 예방, 북한 친선협회 방문 등

5. 트리니다드토바고

- 하원의장의 방북 초청 거절 및 겸임국 도미니카연방의 Eugnia Charles 수상의 방북(1993.9월)

6. 파나마·북한 친선문화협회의 북한서적 전시회 개최(1993.3.19.~21., 파나마 노조연맹회관)

북한·남미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36 / 31 / 1-177

1993년 중 북한과 남미 국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볼리비아

- 1993.2.3. Marcos Domich 산안드레스국립대학 교수, 페루 개최 친북 세미나 참석
- 비동맹 공보장관회의(1993.6.15.~18., 평양), 볼리비아 공보부장관 참석
 - 비동맹국 간 정보교환 원활화 방안 협의

2. 우루과이

- 1993.2.14.~23. 우루과이 극좌단체 '26 De Marzo' 대표자 2명, 북한 방문
- 1993.10.20.~27. 조선노동당 대표 2명(김영범, 허섭), 우루과이 극좌단체 '26 De Marzo' 초청으로 우루과이 방문

3. 페루

- 1993.2.16. 페루 국방장관 일행, 북한 방문
 - 김정일 생일 축하, 무기 및 부품 구입 교섭 가능성
- 4.19. 북한 학계사절단, 페루 개최 중남미 주체사상 세미나 참석

4. 콜롬비아

- 1993.2.24. 북한 대외문화위 부위원장, 콜롬비아 방문
- 1993.10.27.~11.2.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영범 및 허섭, 콜롬비아 공산당 중앙위 초청으로 콜롬비아 방문
 - 북한 상주공관 설치 지원, 의회 내 친북의원 단체 결성 요청

5. 아르헨티나

- 1993.9.14.~17. 최흥희 ITF(국제태권도연맹) 회장, 아르헨티나 방문
 - 태권도 승단 심사 및 특별지도

6. 칠레

- 북한,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칠레 통상사무소 개설 추진
- 북한, 칠레에서 서적 및 수공예품 전시회 개최 추진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아주, 중동, 구주 순방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남아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 / 1-58

1993년 중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아주, 중동, 구주 순방 관련 내용임.

1. 남아시아 및 중동 순방(1993.1.29.~2.20.)

- 파키스탄(1.29.~2.2.)
 - 아우브 칸 파키스탄 하원의장 초청
 - 이샤크 칸 파키스탄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등 예방
 - 외무차관 면담: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북한 측 입장을 주로 설명
 - 라호르 방문, 편집 주지사 및 주의회 의장 예방
 - 신드 주지사 예방, 카라치 주재 북한총영사관 방문
- 이란(2.2.~8.)
 - 나테그 누리 이란 국회의장 초청
 -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면담 등
- 요르단(2.12.~18.)
 - 아라비아트 요르단 하원의장 초청
 - 후세인 요르단 국왕, 하원의장, 상원의장, 총리 등 예방, 외무장관 면담
- 시리아(2.18.~20.)

2. 동남아 순방(1993.9.24.~10.20.)

- 동남아 5개국 국회의장 초청
- 인도네시아(9.24.~10.1.)
 - 수하르토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등 면담
- 싱가포르(10.1.~5.)
 - 국회의장 면담 등
- 라오스(10.5.~9.)
- 태국(10.9.~17.)
 - 부미폰 태국 국왕 예방, 하원의장 면담 등
- 스리랑카(10.17.~20.)
 - 위제통가 스리랑카 대통령 예방
 - 국회의장, 교통장관 등 면담

이종옥 북한 부주석 서남아 및 아프리카 순방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남아대양주과 / 아프리카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2 / 1-81

1993년 중 이종옥 북한 부주석의 1993.3.25.~4.3. 서남아 및 아프리카 순방 관련 내용임.

1. 서남아지역

- 인도(3.25.~27.)
 - Rao 수상 면담내용
 - 이종옥 부주석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설명하고, 한·미 간의 틴스피리트 훈련이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요구의 부당성,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결정 등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 입장을 설명함.
 - 동 수상은 북한의 NPT 가입과 탈퇴는 북한의 주권사항이므로 인도가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님을 지적하고 동 조약의 차별적 성격 때문에 당초부터 동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인도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과 상이하다는 점을 설명함. 또한 1995년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현 NPT 조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과 같이 범세계적, 비차별적인 조약으로 개정되어 지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힘.
- 방글라데시(3.31.~4.3.)
 - Zia 수상 면담내용
 - 동 수상은 국제사회는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의 감축 등 군축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과 주재국의 헌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과 유엔 헌장 준수와 완전한 군축을 지향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NPT 탈퇴결정을 재평가할 것을 권유함.
- 네팔
 - Koirala 수상 면담내용
 - 양국 간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
 - 북한 측은 한·미 양국의 틴스피리트 훈련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 생산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의 폐지 필요성을 역설함. 이에 동 수상은 네팔은 NPT 당사국으로서 NPT상의 권리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북한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으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함.

2. 아프리카지역

- 부르키나파소(5.27.~30.)
 - 대통령 면담(김일성 친서 전달), 수상 및 국회의장 면담



- 가나(5.30.~6.1.)
 - 대통령 예방(김일성 친서 전달, 대통령 방북 초청), 부통령 주회 오찬 면담
- 에티오피아(6.1.~3.)
 - 김일성 친서 전달
- 우간다(6.3.~6.)
 - 대통령 예방
- 탄자니아(6.6.~9.)
 - 대통령 예방(김일성 친서 전달), 제2부통령 공식회담
- 모잠비크(6.9.~12.)
- 순방 목적
 - 국가원수 예방 및 김일성 친서 전달 예정
- 평가
 - NPT 탈퇴 선언은 1993.6월 중 평양 비동맹 공보장관회의 등과 연계한 북한의 주요 외교 기반인 비동맹 외교로 관측
 - 특히, 휴전협정 체결 40주년(7.27.) 계기 아프리카권의 고위사절단 방북 파견 건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

북한 노동당 대표단 남미 및 구주 순방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2 / 1-81

1993년 중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남미 및 구주 순방 관련 내용임.

1. 1993.1.15. 주페루대사는 김형우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일행이 2월 초 남미 순방 예정이라는 첩보 입수

- 김형우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일행이 1993.1.4. 페루 주재 주재국 대사관을 통해 1개월간의 입국 비자를 신청함.

688

2.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 일행, 유럽 방문

- 스웨덴(1993.3.26.~29.)
 -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당위성 및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북한 측 입장 설명에 주력
 - 스웨덴 국회를 방문하여 외교분과위 소속의원 및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국제평화연구소(SIPRI) 방문 등
- 이탈리아(1993.4.1.)
 - Piccoli 이탈리아 상원위원 면담 등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4 / 1-47

1993년 중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 관련 동향임.

1. 김일성의 제81회 생일행사 동향

- 대내 행사(1993.4.15.)
 -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제1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최: 미국 WLC(선교단체) 등 다수국가 예술단 참가
 - 경축영화 상영회, 사진 전람회 및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등
- 대외 행사
 - 캄보디아 시아누크, 시리아 부통령 등이 축하사절로 방북
 - '국제 김일성 상' 이사회 결성(인도)
 - 북한 재외공관은 리셉션 및 영화 감상회 등 개최

2. 김일성, 본인 생일날(1993.4.15.) 이인모 문병

- 동 문병을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 다분
 - 김일성은 해방 직후 제작된 노동당 당원증을 수여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조국해방 전쟁 승리 40돌 기념 열병식장에 나서자'고 언급하면서 이인모의 향후 군중대회 동원계획을 시사

북한 재외공관 및 공관원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5 / 1-105

1993년 중 북한 재외공관 및 공관원 관련 주요 동향임.

1. 1992년 중 외교망 재정비 동향

- 아프리카지역 공관 4개(수단,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토고) 폐쇄
 - 이 외에 알바니아, 아프가니스탄, 비엔나 국제기구대표부(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관 통합) 등 3개 공관 폐쇄
- 중남미지역 5개 공관(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설치를 추진 중이나 아직 미실현
 - 한편, 쿠웨이트, 오만,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는 상주 공관 또는 통상대표부 개설 추진
- 1992년 말 현재 북한은 아주 16개, 미주 7개, 구주 22개, 중동 11개, 아프리카 23개 등 총 79개 해외 상주공관 운영 중
 - 평양 주재 외국공관은 아주 8개, 미주 2개, 구주 12개, 중동 7개국, 아프리카 2개 등 총 31개

2. 1993년도 지역별 공관장회의 개최 동향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1993.5.17.부터 1주일간, 쿠바)
 - 방콕, 모스크바, 하바나, 카이로 등에서도 지역별 공관장회의 개최 움직임 파악
 - 경비절감 일환으로 1993년도 북한의 전 재외공관장회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

북한 휴전기념일 40주년 행사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6/1-107

1. 북한의 휴전기념일 40주년(1993.7.27.) 행사 동향

-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및 1백만 명 군중집회 개최
 - 김일성 부자, 이인모, 시아누크, 아라파트 등 참석
- 중앙보고대회 개최
 - 강성산 총리 보고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옹호 고수 및 김정일 중심으로 일치단결' 강조
- 노병대회 개최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제막식 및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등 개최

2. 중국 측 사절단 참석 동향

- 후진타오 정치국 상무위원과 초하오텐 국방부장을 단장, 부단장으로 하는 고위사절단 파견
 - 김일성 예방, 기념행사 참석, 대성산 혁명열사능 및 중·조 우의탑 헌화 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의 밀입북 시도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7 / 1-82

1. 북한, 제2차 범민족대회 준비회의(1991.6.29.~30., 베를린) 결과 보도
 - 8.12.~18. 서울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2차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북측과 해외에서 각각 대표 300명, 참관인 700명 참석
2. 북한 측, 윤기복 범민련 북한 측 의장의 통일원 장관 앞 편지 공개(1991.8.12.)
 - 남북 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 전대협 대표 박성희, 성용승을 체포·구속할 경우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엄중한 결과 경고
 - 6.24. 박성희, 성용승, 평양 방문 목적 출국
 - 7.30. 밀입북
 - 동 전대협 대표에 대한 구속령 즉각 철회 및 서울로의 무사귀환 보장 요구
 - 남한 측이 전대협 대표를 구속하고, 1991년 서울 범민족대회와 8·15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을 무산시킬 경우 북한 인민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
3. 외무부, 1991.9.5. 박성희, 성용승의 여권 무효 조치
4. 박성희, 성용승은 1991.11.13. 독일에 망명 신청한바, 1992.1.20. 현재 동인들에 대한 망명 심사가 진행 중임.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8 / 1-66

1.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위한 제2차 남북 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및 조국 통일 범민족청년 학생연합 결성식 성사를 위한 제1차 실무회담

- 참가자: 전대협대표, 조선학생위대표, 해외동포 청년학생 대표 등
- 회의일정
 - 5.20.~21 예비회의, 범청학련 결성을 위한 해외 준비위원회 발족식(1992.5.20.~21.)
 - 5.22. 실무회담 본회의 및 기자회견(1992.5.22.)
- 실무회담 내용
 - 범청학련 해외건준위 발족
 - 합의서 요지: 통일대축전과 범청학련 결성식을 1992.8.12.~17. 서울에서 공동주최로 개최하되 7.15.까지 서울 개최가 불가능하면 판문점에서 개최 예정, 제2차 실무회담은 1992.7.15. 서울에서 개최

2. 북한,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명의 연방제 제안 및 클린턴 미 대통령 앞 편지 발표(1993.8.15.)

- 연방제 제안
 -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명의이긴 하나, 북한 당국의 입장으로서 기존 연방제 통일방안과 대동소이
 - 전민족회의에서 통일헌법 제정
 - 통일정부군 조직 운영 등
- 클린턴 대통령 앞 편지 요지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요구
 - 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대남 핵우산 공약 폐기
 -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 포기 등

북한 인권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9 / 1-70

1993년 중 북한의 인권문제 주요 동향임.

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 입장(1993.3월, 공관 보고)

-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1993년도)에서 러시아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
 - 이는 동 회의 수석대표인 코발료프 러시아 최고회의 인권위원장의 개인적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임.
- 주모스크바 북한대사관은 이러한 러시아 측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인권이 자유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협약 가맹국의 책무임을 들어 반박
- 한편, 러시아 중앙정부는 재러시아 북한인 벌목공의 열악한 급식과 주거 여건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임업협력협정 파기를 종용하는 입장이나, 지방 정부들이 반대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에 이은 임업협정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694

2. 세계인권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 고발(1993.6월)

- 세계인권회의의 NGO 행사에 참석 중인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이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자료 배포
 - 북한의 전체주의적 인권탄압 실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탈북민 강철한 사례 및 북한 형법 소개 등

1992년도 북한 대외교역 현황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0 / 1-101

1992년도 북한의 대외교역 현황 관련 내용임.

1. 교역 대상국

- 아시아
 -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
- 유럽
 -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 아중동
 - 이집트, 케냐, 가봉
- 중남미
 - 브라질, 칠레, 페루

2. 특이사항

- 중국, 일본, 홍콩 등 소수 국가와의 교역량은 1억 달러를 상회하나, 나머지 국가는 교역량 미미
- 선진국을 상대로 원료와 광물 및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중화학공업 제품 및 사치품은 수입
- 개도국을 상대로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원료 및 생필품 등은 수입

김정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준 전시상태 선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1 / 1-56

1993년 중 김정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준 전시상태' 선포 관련 내용임.

1.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북한군 최고사령관 명령 하달(1993.3.9.)

- 전 인민군과 인민경비대, 노동적위대에 '준 전시상태' 돌입 및 전투 동원 태세 준비 명령 하달
-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 때마다 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해온 점에 비추어, 이번에도 국제 핵사찰 압력 및 체제 위기의식에 따른 내부단속 강화책의 일환으로 분석

696

2. 강성산 북한 총리, 팀스피리트와 남북대화 관련 담화 발표(1993.3.12.)

-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이 진실로 문민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선임자들이 팀스피리트 훈련 재재에 합의했더라도 민족자주 입장에서 이를 재검토하고 중지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

3. 북한, 준 전시상태 해제 발표(1993.3.24. 정오)

-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실전 단계가 끝난 것과 관련, 준 전시상태를 해제한다'는 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고, 전군과 전민이 경제건설에 힘쓸 것을 강조
- 북한이 '준 전시상태' 해제 명령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종래는 해제 명령을 대내적으로만 발표)임.

북한 경제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2 / 1-153

1993년 중 북한의 주요 경제 동향임.

1. 북한, 외국 투자유치 관련법 추가 채택(1993.1.31.)

- 주요 내용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공정한 세금부과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관해 규정
 - 외환관리법: 외화 수입 증대, 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을 위해 외화 거래 및 반출입 원칙 규정
- 분석
 - 당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및 남한 기업인들의 대북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2. 북한의 1992년도 경제 지표

- 국민총생산: 전년 대비 30% 감소된 126억 원(북한 화폐)
- 철강생산: 200만 톤(전년 380만 톤)
- 석탄생산: 2천만 톤(전년 3천 9백만 톤)
- 미곡생산: 290만 톤(전년 350만 톤)
- 에너지생산: 280억 KWH(전년 320억 KWH)

3. 1993년 상반기 북한의 교역 동향

- 북한·중국 간 교역 총액
 - 4억 3천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여 대중국 의존도 심화
- 북한·러시아 간 교역 총액
 - 2억 2천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임.

북한 동향. 전3권 (V.1 1-7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3 / 1-154

1993.1~7월 중 북한의 주요 동향임.

1. 제8차 사로청 대회(1993.2.18.~22.)

- 개최 동향
 - 제7차 대회 개최 이후 12년 만에 개최
 - 김정일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 위주의 토론회 개최
- 김일성은 현 정세를 난국으로 규정하고 김정일 중심의 단결 촉구 서한 발송
- 분석 및 평가
 - 북한이 12년 동안이나 개최하지 않고 있던 사로청 대회를 김정일 생일 직후에 갑자기 개최한 것은 대내적으로 김일성·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김정일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회는 사회주의 사상의 퇴조라는 국제적 현실에서 주민들의 사상 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회 성격도 띄고 있음.
 - 김일성이 북한의 현 난국을 '그 심각성이나 엄혹성 면에서 유례없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 지도층도 현 정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주중국대사 최근 북한정세 보고(1993.4.13., 4.19.~20.)

- 김정일의 선전 업무 관여
 - 노동신문을 당의 한 개 부서로 격상
 - 김정일은 매일 노동신문 최종인쇄 직전 내용을 직접 검열하고 인쇄 시작
- 나진, 청진항 개발
- 김일성 건강상태
 - 3월 중 김일성의 건강은 상당히 좋지 않으나, 간헐적 외부활동을 할 정도의 건강은 유지
- 김정일 동향
 - 금년들어 신년행사, 자신 생일행사,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생일행사 등 중요행사 모두 불참석
 -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에 따라 권력 승계 작업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임

북한 동향. 전3권 (V.2 8-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4 / 1-152

1993.8~12월 중 북한의 주요 동향임.

1. '식량 파동에 따른 북한 내부 정세 불안' 워싱턴포스트지 보도(1993.8.19.)

- 최근 정세 보고
 - 북한 주민들이 절망적일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 식량 폭동이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1일 2식' 권장 벽보가 도처에 산재
- 현 북한 식량 사정
 - 매년 평균 2백만 톤 가량 부족, 연 생산 450만 톤, 연 소요 650만 톤
 - 그 중 1백만 톤 가량은 외국에서 수입, 나머지 1백만 톤은 주민들에게 절약 강요
- 평가
 - 식량 부족은 잘 알려진 상황이나, 다수 지방 폭동설 등은 현재로서는 첩보차원의 것으로 확인 불가

2.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교체

- 관계기관 입수정보에 의하면 1993.11월 중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최태복에서 황장엽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짐.
- 평가
 - 전임 최태복에 비해 황장엽은 국제적 안목이 높고, 김정일과 가까운 핵심적인 사상 이론가임.
 - 최고인민회의(1993.12.9.)에서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

북한 동향. 전3권 (V.3 일일 보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5 / 1-47



1993년 중 북한의 주요 동향임.

1. 북한 정세 일일 보고(1993.11.9.)

- 북한방송 주요 사항
 - 한·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 비난(11.8., 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일성,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단 접견, 오찬(11.8.)
 - 북한·중국 간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조인(11.8., 평양)
 -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1993.1.7.~8.) 폐막

700

2. 북한 동향 일일 보고(1993.12.1.)

- 북한방송 주요 사항
 - 김영삼 대통령, 방미 보고 국회 연설 비난(12.1., 중앙방송, 시사논평)
 - 김정일 중심 단결 호소 노동신문 논설(12.1., 중앙방송)
 - 미군 유해 인도 관계(12.1., 중앙방송)
- 북한 관련 주요 언론보도
 - 앤서니 레이크 미 백악관 보좌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위협 의미 축소(11.30., 워싱턴발 로이터통신)

3. 북한 동향 일일 보고(1993.12.29.)

- 북한방송 주요 사항
 - 문민정부 업적 비난 노동신문 사설 보도(12.28., 평화방송)
 - '한·미 간 대북 화학전 준비강화' 주장 시사 논평(12.28., 중앙방송, 평화방송)
 -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수상 12.29. 평양 도착 예정(12.28., 중앙방송, 평화방송)
- 북한 관련 주요 언론보도
 - 하타 일본 외상,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중재역할 옹의 표명(12.28., 도쿄발 연합통신)

북한 최고 인민회의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6 / 1-248

1993년 중 북한 최고 인민회의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주요 동향임.

1.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 북한의 김정일 군 최고사령관(원수)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1993.4.9.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3일째 회의
- 분석
 - 김정일은 1991.12월 군 최고사령관 취임에 이어 이번에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모든 군부 요직을 장악, 사실상 북한의 최고통치자로 등장하였으며 김일성 생전의 권력세습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주석직은 김일성이 계속 유지, 현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그의 권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국방위원회는 1992.4.9. 개정된 신헌법상 주석 다음의 최고 실권기관으로 무력사용과 군 인사권 보유 등 최고 군사지도기관임.

2.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3차 7개년 경제계획 성과 보고

- 북한은 1993.12.8.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1987~93년) 성과 보고 시 일부 분야의 계획 달성이 실패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
- 주요 요지
 - 제3차 7개년 계획은 대내외 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첨예한 시기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진행되어 여건상 예정대로 수행될 수 없었음.
 - 앞으로 2~3년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력 제일주의' 전략으로 나갈 것임.
- 분석 및 평가
 - 북한이 당 중앙위 보고를 통해 경제개발 목표 미달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북한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회의에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무역 제일주의'를 천명한 것은 중국식 대외개방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주목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 통일 관련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국민2과

MF번호 2023-37 / 18 / 1-152



1. 해외 종교인·학자 통일문제 회의(1993.12.15.~17., 베를린)

- 참가자: 구주·미주 종교인, 학자, 교민 지도자 등 약 45명
- 회의 주제
 - 새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와 원칙
 -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 독일 통일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과 과제
 - 조국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 지도자들의 역할

702

2. 기타 세미나 및 간담회 결과보고서

- 통일문제 전문가 간담회(1993.5.26.)
 - 의제: 북한의 정상회담 교환 제의에 관한 대응책
- 통일문제 전문가 간담회(7.31.)
 - 의제: 미·북한 회담결과와 우리의 대응책
- 민주평통정책심의분과위원회 회의(10.7.)
 - 의제: 북한 핵 문제의 국제적 처리 전망과 우리의 대책
- 통일문제 전문가 간담회(11.6.)
 - 의제: 새 국면의 남북관계와 우리의 대응책

북한 관련 관계부처 간 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19 / 1-175

1992~93년 중 국방부 주관 북한정세 간담회 관련 내용임.

1. '92 4/4분기 북한정세 간담회 계획

- 일시: 1992.7.14.
- 목적: 북한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대남 위협을 평가, 한국의 대비방안 발전
- 참가자: 국방부 정보본부장, 국방부,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관계자
- 북한 전문가 초빙 및 발제

2. '93 북한정세 전망 간담회 계획

- 일시: 1993.4.1.
- 목적: '93 북한의 대내외 정세 전망과 대남전략의 변화전망 분석, 한국의 대비방안 발전
- 참가자: 국방부 정보본부장, 국방부,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관계자
- 북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표, 북한문제 연구기관·부대 관계자 등 초빙 및 발제

3. '93 하반기 북한정세 간담회 계획

- 일시: 1993.9.9.
- 목적: '93 하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세 전망과 대남전략의 변화전망 분석, 한국의 대비방안 발전
- 참가자: 국방부 정보본부장, 국방부,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관계자
- 학계 및 관계기관 대표, 북한문제 연구기관·부대 관계자 등 초빙 및 발제

통일관계 장관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20 / 1-114



1993년 중 개최된 통일관계 장관회의 관련 내용임.

1. 제8차 회의(1993.2.3.)

- 안건: 1992년 남북관계 평가와 1993년 전망(북한정세, 남북교류협력, 남북대화)
- 의장: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 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등 17명
- 원내: 통일원 간부 등 6명

704

2. 제9차 회의(1993.3.10.)

- 안건: 통일 및 남북관계 현황, 북한 핵 문제의 현황

3. 제10차 회의(1993.4.20.)

- 안건: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및 최고인민회의 동향 관련 정부의 종합대책 방향

4. 제11차 회의(1993.6.22.)

- 안건: 북한 핵 문제 관련 향후 대책방향 등
- 참고자료: IAEA(국제원자력기구)·북한 간 핵 문제 현황 및 대책(1993.8.18., 외무부)

5. 제14차 회의(1993.12.1.)

- 안건: 북한 당 중앙위·최고인민회의 결과

통일외교 추진 대책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21 / 1-151

1. '통일외교' 추진 방향(1993.12월, 외무부)

- '통일외교' 개념 정의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통일외교' 세 가지 추진방향
 - 분단 상황 관리 외교: 북한 핵 해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추진 등
 - 통일 획득 외교: 주변 4강의 협력 확보 등
 - 통일 이후 대비 외교: 북한의 대외개방 지원, 아태지역 협력에 북한 참여 유도,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한 관심 제고

2.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1993.12.9.)에서 상기 문서에 대한 토의 진행

- 북한 핵 문제 논의에 집중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 추가 양보 없는 조속한 해결 및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 등 강경론이 주류

남북 평화통일 심포지움, 제2차. San Francisco(미국), 1993.4.16.-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22 / 1-123

미국 종교계가 남북한을 초청하는 제2차 남북 평화통일 심포지움이 1993.4.16.~17.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주최: 루터 교회의 G. Schultz 목사 주선
- 주제: 한국에서의 냉전종식
- 주요 일정: 전야제(통일기원 연극, 음악행사) 및 심포지움
- 참가자
 - 한국 측: 박형규 목사, 길정우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명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양영식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조두현 서울대 총학생회장
 - 북한 측: 이형철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허혁필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김완수 조평통 서기국 위원, 윤명철 조평통 위원

706

2. 한국 측 참가자 발표 논문

- 박형규 목사: 화해협력 시대의 민족주의
- 한명숙 공동대표: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 운동
- 조두현 서울대 학생회장: 전환기의 청년학생 운동
- 양영식 자문위원: 화해협력 시대의 통일정책

3. 북한 및 미국 측 주요 인사 언급 내용

- 김완수 북한 조평통 위원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10대 강령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형철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은 핵 관련 기존의 북한 입장을 반복하면서 미국·북한 간 직접 협상 필요성을 강조
- 초청인사인 워싱턴대학의 J. Pales 교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을 먼저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이 북한의 유엔가입을 승인한 이상 북한과 정식 수교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움, 제9회. 동경, 1993.1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7 / 23 / 1-92

1993.11.9. 도쿄에서 일본 환태평양문제연구소 주최 제9회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됨.

1. 회의 진행방식

- 아래 5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하타 외무상의 인사
 -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의 유산
 - 한국의 신경제 정책과 남북경제협력
 - 한반도 군사정세
 - 일본의 한반도 정책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2. 참가국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3. 발표 및 토의 중 특기사항

- 와다 하루키 교수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는 늦었지만 긍정적이며, 한국 개인·단체의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일본, 일본·북한 수교를 통한 경험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핵 수단 완전 포기는 기대하기 어려움.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 통일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력 문제에 관한 인식변화가 생기면 미국이 Honest Broker 역할을 고수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됨.
- 기타
 - 러시아는 한반도의 균형 관계를 중시하며,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1국 2체제의 연방형 모델임.
 - Soft landing을 위해 북한의 개혁을 동반한 개방정책이 매우 중요함.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미국·일본 국제심포지움. 동경, 1993.5.21.-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1 / 1-190

1. 한·미국·일본 한반도 문제 워크숍(1993.1.8.~9., 서울)

- 한국 민족통일연구원,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일본 NIRA(종합연구소) 공동 개최
- 북한의 경제 및 대외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강력한 이념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공통 인식 확인
 - 향후 남북관계 추진과 관련, 한국 측은 북한의 핵 개발, 대남노선 불변 등이 장애요인임을 거론한 반면, 미국·일본 측은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근본적 유인책 제공 필요성을 강조
- 미국 측 Alan Romberg CFR 연구원은 당장 미국·북한 간 대화 격상(차관보급)을 주장
- 일본 측은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통상관계 수립에 큰 흥미가 없으며, 한반도 안정 및 통일에 제한된 역할 밖에 없다고 주장
 - 한편, 일본 측 Hajime Izumi 시즈오카대학 교수는 한반도 통일비용을 일본이 부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

2.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미국·일본 국제심포지움(1993.5.21.~22., 도쿄)

- 한국 측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점진적 확대 발전을 강조
 - 일본 측은 한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대북 배상과 경험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남북한 평화공존 및 통일 이후 비용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
 - William Brooks 미국 국무부 일본과장은 한국이 통일비용(1조 달러 규모)을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며, 미국·일본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한국 측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국·일본 3국간 대북전략 조율 필요성을 강조
 - 세이자부로 사토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북한 핵 해결 및 도발 방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측 협조가 긴요하며, 태평양지역 미군 철수에 따른 역할수행 차원에서 일본의 Power Projec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
 - Robert Scalapino 미국 버클리대학 명예교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으나, 중국은 남북한 어느 쪽 입장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통일 대비 정책연수단 독일 방문, 1993.6.20.-7.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2 / 1-163

통일 대비 정책연수단이 1993.6.20.~7.3. 독일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독일의 통일 전략 파악
- 통일 후 통합 경험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관련 자료 수집

2. 연수단 구성

- 통일원 등 13개 관계부처 4~5급 직원 13명

3. 주요 일정

- 연방 재무부, 총리실, 경제부, 교육부, 건설부, 외교부, 법무부, 체신부 등 10여 개 부처 방문
- 구 동독 총리, 국회의원, 사민당 의원, 독일 협회 임원 면담

4. 후속조치

- 통일원은 1993.7.16. 통일 대비 정책연수단 최종 평가회의(1993.7.20.) 개최를 알리면서 각 부처 참가자들이 해당 연수과제 결과보고서, 사진 등을 지참하여 참석하도록 지시함.
 - 회의 내용: 연수 과정 및 내용 평가, 결과보고서 종합·발간, 향후 계획 수립문제 등 토의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3 / 1-115



1993.1~4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 한국 정부 대응 동향
 - 1993.4.3.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한국 측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재구성 관련 외무부 위원 1명이 새로이 포함되었음을 통보하고 적절한 인사 추천 요청
 - 외무부 외교정책실 심의관 1명 추천 검토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2 5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4 / 1-187

1993.5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1.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남북대화 관련 담화 발표(1993.5.18.)

- 남북대화 재개 의향 공개 표명

2. 강성산 북한 총리, 한국 측 제안에 대한 답신 송부(1993.5.25.)

- 양측 최고 당국자가 임명하는 특사(부총리급) 교환 제의
 - 양 특사는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문제와 남북 현안 타결을 위한 최고위급의 중대한 뜻을 전달하는 임무 수행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3 6.1.-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5 / 1-206

1993.6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1. 황인성 국무총리, 남북 실무대표 접촉(6.5.) 제의(1993.6.2.)
2. 강성산 북한 총리, 한국 측이 제의한 실무대표 접촉 거부 및 특사 문제 협의(6.8.)를 위한 실무자 접촉 역제외(1993.6.4.)
3. 황인성 국무총리 명의 대북 전통문으로 판문점에서 특사교환 문제 등을 포함한 실무접촉(6.8.) 제의(1993.6.7.)
4. 강성산 총리 회신문을 통해 당초 북측 제의대로 특사교환 문제만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제의 (1993.6.8.)
5. 한국 측, 특사교환 문제를 포함한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1993.6.10.)
6. 북한 측, 특사교환 문제 협의만을 위한 실무접촉 재제외(1993.6.11.)
7. 총리 주재 통일관계 장관 전략회의 개최(1993.6.12.)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4 6.14.-2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6 / 1-179

1993.6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1. 강성산 북한 총리 명의 대남 전통문 발송(1993.6.15.)

- 특사교환 문제 협의만을 위한 실무접촉 재차 촉구

2.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담화 발표(1993.6.18.)

- 미·북한 회담 결과 공식 논평
- 미·북한 간의 적대관계 해소가 핵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고 지적
 - 금후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잔류 문제를 계속 협상카드로 활용할 의도

3. 북한 조평통, 한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 비난 담화 발표(1993.6.21.)

4. 강성산 총리, 특사교환제 무산 관련 담화 발표(1993.6.26.)

- 한국 측이 북한 측의 특사교환 제의를 거부하였다고 비난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한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함.

5. 강성산 총리 담화에 대한 정부대변인 담화 발표(1993.6.26.)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요청
-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문 항시 개방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5 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7 / 1-122



1993.7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1. 북한 대남 비난

- 북한 노동신문 논평(1993.7.2.)
 - 한·미 간 핵 공조 관련 대남 비난
 - 미·북한 2단계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한 채 한국 대통령 및 정부 인사들의 대북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
 - 대내외적으로 민족자주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한·미 간 공조체제 비난
- 북한 평양방송(7.7.)
 - 한국 외무부장관의 '신외교' 연설 중 통일 관련사항 비난 보도

714

2. 한국 정부 대응

- 통일관계 장관회의 개최(1993.7.29.)
 - 향후 남북대화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 협의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6 8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8 / 1-106

1993.8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1. 북한 노동신문의 제네바회담 후속조치 관련 논평(1993.8.2.)

- IAEA(국제원자력기구) 북한 핵사찰 협상 진척 여부는 IAEA의 불공정성 시정 여하에 달려 있음.
-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 강조

2. 황인성 국무총리 명의 전통문 발송(1993.8.4.)

- 8.10. JNCC(핵통제공동위) 개최 제의
- 남북대화에 있어 핵 문제 우선 협의라는 원칙하에 남북 간 실질적인 토의가 긴요

3.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 측 대변인, 남북 JNCC 개최 거부 담화 발표(1993.8.9.)

4. 한국 정부, 통일관계 장관회의 개최(1993.8.18.)

- 필요시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대화 추진
- IAEA와 북한 간의 핵 협상 재개 시 남북대화 전향적 추진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7 9.1.-1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9 / 1-178

1993.9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1.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제의(1993.9.2.)
2. 강성산 북한 총리 명의 전통문 발송(1993.9.6.)
 - 한국 측이 핵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표시할 경우, 9.10.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제의
3. 황인성 국무총리 명의 전통문 발송(1993.9.8.)
 - 북한 측이 특사교환을 목전에 두고 실무대표 접촉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 표명
 - 조건 없이 실무대표 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
4. 북한 평양방송, 1993.9.10. 예정된 남북 실무접촉 사실상 거부 보도(1993.9.9.)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8 9.11.-10.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10 / 1-150

1993.9~10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1. 북한 대남 비난 방송

- 1993.9.14. 북한 중앙방송, 김영삼 대통령 미국 CNN 방송 회견 비난
 - 북한 특사교환 제의 관련 대통령 언급사항에 대해 비난 보도
- 9.16. 북한 평양방송, 남한 당국자의 3단계 조·미 회담 발언 관련 비난
- 9.17. 남북 고위급회담 한국 측 대변인,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 조건 없이 호응해 올 것을 촉구
- 9.19. 고위급회담 북한 측 대표단 성명 및 9.20. 조평통 부위원장 담화
 - 남한 측이 9.16. 북한 영해에 간첩선을 침입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
 - 남북 특사교환을 무산시키고 미·북한 회담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 9.21.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 측 대변인 담화 발표
 - 특사교환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연기, 9.30.까지 2가지 전제조건(핵전쟁 연습 중지, 국제 공조체제 포기)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
- 9.25.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 한국 측 인사 발언 비난, 북한 평양방송 논평에서 한국 외무부장관 비난
- 9.26. 북한 평양방송 논평에서 한·일 외무장관회담 비난

2. 정부 대응

- 대북 전략기획단 회의 개최(1993.10.2.)
- 황인성 국무총리 명의 대북 전통문 발송(10.4.)
 - 북한 측이 실무대표 접촉에 호응해온 것을 환영
 - 10.5. 북측이 제의한 회담에 동의

남북대화(접촉). 전11권 (V.9 10.5.-1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11 / 1-165

1993.10월 중 남북대화(접촉)의 주요 추진 동향임.

1. 제1차 남북 특사교환 관련 실무대표 접촉

- 북한 측: 특사는 고위급으로 하며, 핵전쟁 연습 중지 및 핵 문제에 관한 국제 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기를 요구함.
- 한국 측: '남북사이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 북측의 요구사항은 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 어려운 일이며 실무접촉에서 토의된다면 특사교환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고 언급

718

2. 북한 측 비난 보도

- 북한 평양방송(1993.10.11.)
 - 동족을 배척하고 외세와 야합하는 문민 반역 집단
- 북한 중앙방송(10.12.)
 - 원자력공업부장, 유엔사무총장 서한 관련 담화 발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실천계획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14 / 1-67

1. 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주도로 남북화해공동위 재개에 대비한 부처별 실천 및 추진계획 작성 추진(1993.2월)

2. 외무부 기본계획(안)

- 군사정전협정의 이행·준수 방안
 -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정상화 역점
-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방안
 - 북한의 ADB(아시아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진출 협조, KOICA를 통한 대북 경험 추진, 양측 대표부(뉴욕, 제네바, 비엔나 등) 간 협의 정례화 등
- 해외동포 권익옹호 및 화해 도모 방안
 - 대일 전후보상 문제 공동대처, 전쟁 및 강제징용 희생자에 대한 공동 위령사업, 동북 3성에 남북합작투자기업 설립, 민족경축일 등 공동행사 개최 등

남북교류 협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15 / 1-53



1993년 중 남북교류 협력 관련 내용임.

1. 1993년 남북교류 협력 사례

- 6~7월 일본 시모노세키 민단 및 조총련 간 8·15 기념 계기 동포 친목행사 개최 협의
- 1993.8.29.~30. 베이징 개최 국제고려학회 주관 학술회의에 남북한 학자 참가
- 연해주 고려인협회의 1994.8월 남북한 및 해외동포 참가 경제문화교류 축전 개최 추진
- 1993.11.30.~12.2. 쿠웨이트 개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 시 북한 태권도 관계자 접촉

720

2. 한국 측 기본입장 및 주요 결과

- 기본입장
 - 북한 핵 개발 관련 또는 정치적 성격의 행사 참가나 교류는 자제
 - 경제문화 분야 일반교류는 예전과 같이 진행
- 주요 결과
 - 8·15 기념 계기 시모노세키동포 친목행사는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여 중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16 / 1-51

1993년 중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련 내용임.

1. 남북협력기금

- 근거: 1990.8월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 목적: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

2. 1992년도 결산

- 총 기금은 681억 9천 700만 원이며, 이 중 8억 2천 100만 원 집행
 - 8·15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5억 5천 1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사업은 무산

3. 1993년도 계획 수정 및 1994년도 계획

- 남북관계 경색으로 1993년도 사업 지원이 축소되어 이월액 증가
- 1993년도 이월액 증가로 1994년도 기금 증대
 - 1993년도 이월액 279억 원, 1994년도 정부출연금 400억 원

남북한 기상협력사업 추진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38 / 18 / 1-30



1. 제11차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 일시 및 장소: 1991.5.1.~23. 스위스 제네바
- 대표단: 박용대 기상청장, 박광준 기상청 기획국 국제기상협력과
- 총회 결과
 - WMO의 과학기술계획 회의 결과: 기후변화 감시 및 연구에 최우선권 부여, CO₂ 및 오존 관측과 미래상태 추정을 위한 전 세계 대기 감시, 기상정보 개선을 위한 세계기상센터 및 지역 기상센터 업무개선 등
 - Dr. Obasi 사무총장 및 Zou Jingmeng 의장 유임
 - 대표단은 사무총장을 예방하여 1993년 아태지역 기상강사 훈련 세미나 한국개최 결정, WMO 주재관 파견에 대해 사무총장 동의
 - 북한 대표들과의 접촉 기회: 5.22. 북한 대표들은 한국 대표에게 남북 기상자료에 관한 협의 용의가 있음을 밝힘.

2. 남북한 기상자료 교환 제안

- 제11차 WMO 총회 계기, 북한 측은 남북한 기상자료 교환 제안
- 이에 대해 기상청은 '남북 기상협력 사업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외무부에 의견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이견 없음을 회보함.
- 1993.5.21. 주제네바대사는 Abe WMO TCP(열대성저기압) 과장이 7.12. 한국 기상청을 방문하여 남북한 간 기상교류 협력에 관해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 측은 1992년 태풍위원회 가입까지는 WMO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나타냈으나, 태풍위원회 가입 후 아무런 동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함.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통상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8 / 19 / 1-78

1.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방지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1992.8월)

- 1988.10월 한국 정부의 대북 교역 허용 및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조치 이후 중국산 등 제3국 물자가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되는 경우가 증가
 - 1991년 7건(약 80억 원 상당), 1992.5월 현재 1건(약 24억 원 상당)의 북한산 위장반입 검거
 - 김달현 북한 부총리도 서울 방문 시(1992.7월) 자신이 허가한 대남 반출물자 규모가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언급함으로써 위장반입 가능성을 간접 시사
- 주요 방지대책(안)
 - 북한산 물자에 적용될 원산지규정 조속 제정
 - 남북연락사무소 내 원산지증명서 확인 창구 마련을 북한 측에 제의
 - 동 확인 창구 설립 이전 단계에서 관세청의 북한산 물자 원산지 확인 강화, 중국 측에 북한산 물품의 단순 경유사실 확인 요청 등

2.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방지대책 추가 협의(1993.3월)

- 통일원이 관세청과 협의하여 교역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산 원산지확인규정 제정
- 관세청은 위장반입 물품을 몰수 또는 반송조치하고, 업체는 고발하는 등 관세법에 의거 제재조치
- 위장반입 가능성이 큰 일부 자동승인 품목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제한승인 품목으로 전환 여부 결정

한반도 군비통제 학술협의회. 서울, 1993.4.7.-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39 / 2 / 1-74

1993.4.7.~9. 서울에서 개최된 한반도 군비통제 학술협의회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요

- 주관: 국방연구원 국비통제연구센터, 미국 RAND 연구소 공동 주관
- 주제: 대북 군비통제 협상 전략 개발을 위한 군비통제 협상게임

2. 참가자

- 국방연구원, RAND 연구소, 외무부, 통일원, 국방부, 연합사 등 45명

3. 목적

- 남북한 군비통제 주요 이슈에 따른 군비통제 협상안 수립 및 최적의 협상 전략 개발

4. 진행방식

- RAND 측이 준비한 상황 부여에 의거하여 각 팀별로 협상 전략 개발
- 대면협상은 남북 간 협상으로 하되 필요시 한·미 협상을 통제단을 통해 진행

핵사찰 관련 의정서 및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39 / 3 / 1-81

1992~93년 중 핵사찰 관련 의정서 및 자료가 수록됨.

1. 언론보도

- 한반도 핵 문제 관련 세계일보 연재 기사(1992.3.13.~20., 총 8회)

2. 해외출장 결과보고서(1993.3.25.)

- 작성자: 전성훈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출장 내용: 제9회 오타와 검증 심포지엄(1992.3.8.~16., 캐나다 외무부 주최)에 참석하여 본인의 논문 “Verifying A Denucleated Korean Peninsula: Current Negotiating Agenda” 발표

3. CFE 특별사찰, CWC 사찰에 관한 절차, INF 검증체제, 특별사찰 절차 비교(남북 상호사찰 규정, IAEA 안전조치협정 규정) 등(한국어)

4. 영문자료

- The INF Basing Countries Agreement
- Non-Paper on International Arrangements for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등

북한 미사일 문제. 전2권 (V.1 1-7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39 / 4 / 1-90

1. 주중국 북한대사 기자회견(1993.6.17.)

- 주창준 주중국 북한대사는 중국 주재 외신특파원을 대사관 내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한국 기자들은 초청 제외)
 - 노동 1호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 여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실험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답변
 -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 핵사찰 수락 여부

2. 주중국 북한대사 기자회견(1993.7.3.)

- 동 대사는 6.29.자 NHK 라디오 보도(무토 일본 외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전달을 위해 독자적으로 북한 측과 접촉했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내용)는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하였는 바, 북한대사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6.24. 주중국 일본대사관의 마키다 공사가 북한대사관에 전화로 접촉을 제의해 왔음.
 - 일본 정부는 미·북한 접촉이 끝난 다음에도 북한 핵 문제를 공격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북한 측은 접촉을 거부함.
 - 이후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접촉했다”고 날조하였으며, 이는 일본 외교의 무례함을 보여 주는 것임.
 - 북한은 일본과 같이 믿을 수 없는 상대와 대화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은 과거의 죄악을 사과해야 함.

3. Woolsey 미국 CIA 국장 하원 청문회 증언(1993.7.28.)

- 동 국장은 하원 외무위 국제안보·국제기구·인권소위 개최 개도국 핵무기 개발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 북한 핵 문제 및 미사일 개발 문제에 관하여 아래 요지로 증언함.
- 북한 핵 문제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보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사태 진전은 북한과 IAEA 간의 협조에 달려 있음.
- 북한 미사일 문제
 - 북한의 최근 미사일(노동 1호) 발사 실험 사실 확인
 - 북한의 미사일 대외 판매 시도를 주요 안보위협 요인으로 지적
- 평가
 - 동 국장은 2.24. 상원 증언 이후 전개된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을 표시
 - 지금까지의 미·북한 접촉 결과를 긍정 평가
 - 북한의 미사일 대외 판매를 핵 문제에 이어 주요 안보위협 요인으로 강조

북한 미사일 문제. 전2권 (V.2 8-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39 / 5 / 1-121

1. 무기확산 문제 관련 미국 하원 청문회(1993.9.14.)

- 하원 외교위 국제안보·국제기구·인권소위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사일 전문가 Joseph Bermudez Jr.는 북한과 중국의 무기개발 및 수출활동에 관해 증언한바, 북한 관련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87.7~88.2월까지 북한제 스커드 B형 100기 가량이 이란에 인도된바, 북한은 이란의 스커드 B형 미사일 생산시설 설립에도 지원 제공
- 1991.1월부터 북한은 이란으로 스커드 C형 미사일 약 100기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됨.
- Lantos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질의한바, 동 전문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으로 이미 충분한 양의 핵 물질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폭탄제조를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바, 따라서 핵분열 물질만 확보하고 있다면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함.

2.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에 관한 미 CIA 보고서(1993.12.29.)

- 미 CIA 보고서 요지
 -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4개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리비아를 제외한 3개국이 15년 내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보유
 - 북한은 향후 10년내에 생·화학탄두 장착 ICBM을, 10~15년 이내에 핵탄두장착 ICBM을 각각 개발할 기술적 잠재력이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ICBM 개발 가능성은 희박
- 평가
 - 상기 4개국이 ICBM을 개발중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며, 향후 개발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
 - 북한과 중동국가 사이의 미사일 기술 협력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예상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 1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6 / 1-59



1993년 중 북한의 핵 문제 및 한·미 간의 실무협의 내용임.

1.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거부

- Lehman 미국 군비통제처 처장은 1993.1.5. Foreign Press Center에서 Start II 및 북한의 CWC(화학무기금지협약)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진바, 북한의 CWC 가입 전망 및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기자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북한이 아직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원 조약국으로 가입하게 되기를 희망
 -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 계속 우려를 갖고 있음.
 - 미국은 남북협상의 정체에 매우 실망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IAEA 수용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2. 한·미 실무협의(1993.1.26., 워싱턴 D.C.)

- 미국: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대북 압력을 계속할 입장
- 빠른 시일 내 외무장관회담을 갖기로 함.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 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7 / 1-130

1. NYT 북한 핵 보도 및 미 국무부 브리핑(1993.2.1., 주미국대사관 보고)

- NYT지는 2.1.자로 북한이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팀의 영변지역 2개 핵폐기시설 방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계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IAEA에 대한 시금석이 됨과 동시에 클린턴 미 행정부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

2. 클린턴 신행정부 NSC 인사들의 대북정책 입장 방향 등에 관해 주미국대사관에서 파악한 내용 보고(1993.2.4.)

- 북한 핵 문제
 - 신행정부팀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유엔을 통한 다자 간 접근방식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북한 핵 문제도 예외가 아닐 것임.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 NSC 인사
 - 핵확산 문제를 전담할 Senior Director에는 Panoman이 내정되어 있는바, 핵 전문가로서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3.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1993.1.29.~2.1.)

- 쿠나제 외무차관은 옐친 러시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 김영남 외교부장,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 면담

북한 핵 문제. 전30권 (V.3 3.1.-1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8 / 1-147

1. 주미국대사는 1993.3.4. NSC Wiedemann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Patterson 아시아담당 보좌관, Poneman 핵확산 및 수출통제담당 선임보좌관을 초청, 아래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
- 한·미 고위급 핵 문제 협의
- 미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 재검토
 - Wiedemann 보좌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핵확산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 관련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 우라늄 농축 문제, 플루토늄 비축 문제, 핵물질 수출통제 문제, 관련 기술 이전 문제 등은 단순한 규제위주의 정책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세계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바, 입안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도 협의 예정이라고 함.

2. Frank G. Wisner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 미 상원군사위 청문회 언급(1993.3.4.)

- EASI(동아시아전략구상) 변화 가능성
 - 미국 자체 방위와 역내 안정을 위해 전진배치전략의 계속 유지 필요
 - 기존 EASI 구상의 기본 구도 계속 유지(EASI 제1단계(1990~92년) 중 미군병력 15,250명 기감축)
- EASI 제2단계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대한 지지 여부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거부 등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재개 시기 예측 곤란
- 아태지역 다자안보체제 구축 필요성
 -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다자안보 대화 지지
 - 아태지역에 다자안보체제가 출현하기는 아직 시기 상조
 - 다자안보대화는 양자 간 안보 협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도적 역할 수행 필요

3. 공로명 외교안보연구원장, 미국 방문(1993.3.7.~11.)

- Clark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및 Winston Lord 신임 차관보 면담(3.8.)
 - 공 원장은 한국의 대북한 정책 관련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 경험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아울러 북한 핵 문제 및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미국, 일본 및 여타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
 - 또한 공 원장은 JNCC(핵통제공동위원회)가 미국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 정치 선전장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었으나, IAEA 특별사찰 문제 타개를 위해 JNCC 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방안을 제시함.

북한 핵 문제. 전30권 (V.4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 3.12.-16.)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9 / 1-216

북한은 1993.3.12.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최고이익 수호조치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함.

1. 북한의 NPT 탈퇴(1993.3.12.)

- 선언 내용
 - 북한의 최고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로 NPT 탈퇴가 불가피
 - NPT 탈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관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
 - 북한 입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IAEA 사무국이 독립 및 공정성 원칙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불변할 것임.

2. 주미국대사, Clark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1993.3.12.)

- 미국 측은 미국 측이 구상하고 있는 대응 방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북한의 탈퇴 결정 반복, IAEA 절차 수락을 설득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IAEA와의 협조관계 계속 유지,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등을 구상하고 있음.
- 동 대사는 현 상황에서 공로명 원장의 미국 방문 시 미국 측과 협의한 바 있는 JNCC(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제의에 쉽게 응할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현 단계에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힘.

북한 핵 문제. 전30권 (V.5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 3.17.-2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10 / 1-202

- 북한의 NPT 탈퇴 관련 보고(1993.3.17., 외무부)
 - IAEA(국제원자력기구), 1993.3.12.자 블릭스 사무총장의 대북한 전문에 대한 북한 측 회신 (3.16.)
 - 동 사무총장이 제의한 사찰단 접수 불가
 - 모든 사태는 동 사무총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기인함.
 - 한·미·일 3자 협의회 개최(1993.3.16., 비엔나)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관련 사태 추이 검토 및 문제의 심각성에 공동 인식
 - 3.18. 특별이사회 대책 논의
 - 북한 핵 관련 한·미·일 3자 협의회 개최 문제
-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최근 안보리 및 IAEA에서의 신속한 사태 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제의

북한 핵 문제. 전30권 (V.6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I, 3.23.-3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11 / 1-191

1. 북한 핵 관련 미국 정부의 차관급 관계부처 회의(1993.3.18.) 개최 보고(1993.3.23., 주미국대사)

- 참가자
 - Tony Lake NSC 보좌관, Tarnoff 국무부 정무차관, Lynn Davis 국무부 국제안보차관, Wisner Jeremiath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CIA 부국장, Wiedemann NSC 아주담당 보좌관 등
- 협의 내용
 - 북한 핵 문제 처리 관련 미국의 목표 설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강화, 북한의 IAEA 특별사찰 및 상호사찰 수락
 - 주요 원칙: 북한 핵 문제의 국제화 추진, 북한에 대한 압력이나 조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행사,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 향후 대책: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쓰지 않고 외교적 노력과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며 북한 측의 반응에 따라 유화책 사용 문제 검토

2.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93.3.24. CBS에 출연, 북한 핵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북한이 IAEA 사찰을 거부하고 NPT 탈퇴 의사를 통보해 온 것은 핵무기 확산을 억지하려는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실수임.
- 북한의 NPT 탈퇴는 미국과 한국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북한 핵 문제에 과잉 대응하고 싶지는 않으며, 북한은 아직 탈퇴조치를 철회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함.

3. 북한 핵 문제 대처(외무부장관의 미국 방문)(1993.3.30., 주미국대사보고)

- 외무부장관은 금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대처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체로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고어 부통령,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에스핀 국방장관, 레이크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신 행정부 고위 외교, 안보 인사들은 물론 의회 상원 및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을 접촉하여 양국 간 교감 확대

북한 핵 문제. 전30권 (V.7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V, 4.1.-1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12 / 1-236

1. 외무부장관의 미국, 유엔, 일본 방문(1993.3.23.~4.2.)

- 유엔(3.23.~25.)
 - 갈리 유엔사무총장, 유엔안보리 의장국 및 상임이사국 대사 면담
- 미국(3.25.~30.)
 - 외무장관회담
 - 고어 부통령, 에스핀 국방장관 등 행정부 주요인사 면담
 - 브레진스키 전 안보보좌관, 솔라즈 전 하원의원 등 학계, 언론계 인사 면담
- 일본(3.31.~4.2.)
 - 외무장관회담
 - 미야자와 수상 예방
 - 오와다 외무차관, 가토 전 관방장관 등 정계인사 면담

2. 안보리, 안보리 상임이사국, 주요국 협조 동향

- 1993.4.1. NPT(핵확산금지조약) 기탁국(미국, 영국, 러시아)의 북한의 NPT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 P-5 회의(1993.4.2.)
 - 중국을 제외한 4개 상임이사국(P-4)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에 대한 안보리의 public acknowledgement가 필요함을 중국 측에 설명 및 설득하였으나, 중국 측은 기존입장 반복
- 전체이사국 비공식 협의회(1993.4.5.)
 - 중국을 제외한 모든 발언국은 블릭스 사무총장으로부터 브리핑 청취를 희망함.
- 주미국대사 보고(4.6.)
 - 북한 핵 문제 관련 4.4. 주베이징 미국대사관 간부가 우다웨이 중국 아주국 부국장과 이빈 한국 과장을 접촉한바, 중국 측은 김일성 생일 행사에 즈음하여 중국 고위급 사절을 파견하여 김일성에게 핵 문제 해결의 메시지를 전할 것임을 시사
 -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4.6. 안보리 P-5 비공식 협의회에서 의장성명 초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

3. 안보리의장 성명 채택(1993.4.8.)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 NPT 준수의 중요성 강조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 북한 핵 검증 문제 해결을 위한 IAEA·북한 간 협의 계속 권장

북한 핵 문제. 전30권 (V.8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 4.14.-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13 / 1-202

1. 미·북한 접촉 가능성

- 워싱턴타임스는 1993.4.14. Tomas Graham 미 군축처 처장대리와의 회견내용을 근거로 미·북한 고위접촉 가능성을 보도
 -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Roy 주중국 미국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미·북한 접촉 계획을 통보 예정임을 설명

2. 주미국대사는 1993.4.28. Winston Lord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접촉하여 북한 핵 문제 대책 협의 관련 미국 측의 견해와 입장을 타진함.

- 미국 측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남북대화 재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측이 판단할 성격의 문제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함.
- 또한 한국 측의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나 구체적인 대화재개 시점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735

대한민국외교부서자료

북한 핵 문제. 전30권 (V.9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 5.1.-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14 / 1-147

736

1. 미·북한 고위접촉과 남북대화 추진 문제(1993.5.1., 외무부)

- 미·북한 고위접촉 전망
 - 미국 측은 미·북한 접촉에 앞서 안보리 1차 결의 추진 예정
 -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반대 입장 견지
- 남북 접촉 추진 필요성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의심장소 접근 거부 등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유지
 - 제반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한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북한 측에 재확인
 - 북한의 의도 파악 및 한국 입장의 분명한 전달
- 중국 외상 방한 활용
 - 중국 외상 방한 시 한·미 양국의 최종 평가 및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의 결정적 역할 촉구

2.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93.5.10. 주미국대사관에 연락, 북한 측 제의로 제33차 미·북한 베이징 접촉이 개최되었음을 밝히고 동 접촉에서 북한 측은 미·북한 직접대화 제의를 수락한다는 뜻을 간략히 전달하였고, 미국 측은 아무런 추가적 언급 없이 북한 측 메시지를 청취하였다고 언급함.

3. 유엔안보리는 1993.5.11.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안보리 결의(제825호)를 채택함.

- 찬성 13, 반대 0, 기권 2(중국, 파키스탄)
- 결의 요지
 - 북한에 대해 NPT 탈퇴 결정 재고 및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
 -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
 -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이 결의에 호응하도록 권유할 것을 촉구
 -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4. 신기복 제1차관보의 미국 방문(1993.5.9.~13.)

- Tarnoff 정무차관, Sam Berger NSC 부보좌관, Wiedemann 선임보좌관, Wisner Hubbard 동아태국 부차관보 등 면담
 - 미·북한 및 남북 접촉 대비 등 북한 핵 문제 협의
 - 미국 측은 현 단계에서 효과적인 한·미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미국 측은 한국 측의 구상과 계획을 존중하는 입장 표시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0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I, 5.17.-3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15 / 1-177

1. 제2차 미·북한 실무접촉(1993.5.21., 뉴욕)

- 참가자
 - 미국 측: Kartman 한국과장, Samore IAEA(국제원자력기구) 과장, Quinones 북한담당관
 - 북한 측: 김종수 대사, 동경철 서기관
- 북한 측 김종수 대사는 서두 발언으로 금번 미·북한 고위급 접촉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북한 측 수석대표는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인 강석주가 될 것이며 대표단은 5월 말 또는 6월 초 뉴욕에 도착예정이라고 함.

2. Shire 주유엔 미국대표부 담당관의 주유엔참사관 접촉(1993.5.28.)

- 미국 측은 P-5 회의에서 미·북한 회담의 목적을 설명하고 미·북한 및 남북한 대화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P-5가 2차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하는 바는 아니나, 북한이 끝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위협을 실행하거나 5MW 원자로 연료 교체 시 IAEA의 참관을 거부하거나 또는 추가적 재처리 작업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데 대해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미국은 제재 결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추가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1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II, 6.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39 / 16 / 1-138

1993년 중 개최된 미·북한 간 고위급 회담(Gallucci 미 국무부 차관보,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관련 내용임.

1. 1993.6.2. 회담

● 오전 회의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 상대방 입장에 이해를 표하는 제스처가 많았으며 북한 측은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북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함.
- 회의는 Gullucci 차관보 제의에 따라 북한 측 입장 설명으로 시작, 북한 측은 북한 핵 문제의 모든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비핵화 달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오찬 회의

- 미국 측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잔류 문제의 중요성을 중점 강조하였는바, 북한 측 강석주 부부장은 자신이 NPT 잔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함. 다만 남북한 핵협상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IAEA(국제 원자력기구)에 대한 협조문제에 대해서는 핵 문제 전반에 관한 일괄협상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세로 관측되면서도 유보적 자세로도 해석됨.

2. 미·북한 실무접촉(1993.6.7.)

- Quinones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북한대표단의 이영호 간 실무접촉에서 이영호는 미·북한이 아래 4가지 항이 포함된 미·북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는 조건으로 NPT 탈퇴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옴.
 -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지원
 - 내정불간섭
 - 자위 경우를 제외한 무력 불행사
 -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2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X, 6.8.-1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1 / 1-200

1993년 중 개최된 미·북한 간 고위급 회담(Gallucci 미 국무부 차관보,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관련 내용임.

1. 1993.6.11. 회담

- Gallucci 차관보 브리핑 내용
 - 공동발표문 채택을 통해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잔류 확보를 기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2개 미신고지역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이룩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NPT에 잔류하게 됨에 따라 5MW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계속 사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개 지역 특별사찰 문제는 추후 접촉을 통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 차관보는 금번 접촉 시 NPT에 대한 북한의 깊은 편견을 불식시키고 NPT 체재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부각시키는데 노력하였다고 설명함.

2. 미·북한 공동성명 발표(1993.6.11.)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함.
- 전면적인 안전보장 장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음.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
-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NPT 탈퇴효력을 일방적으로 일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함.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3 6.19.-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2 / 1-138

1. 강석주, 공식 논평 발표(1993.6.19)

- 북한은 중앙방송 보도를 통하여 미·북한 회담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평함.
 - 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발단된 것으로 적대관계 해소가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언급하고, 미·북한 간 상호존중과 불가침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채택을 희망함.
 -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효력 임시 연기는 미·북한이 합의한 공동성명 정책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계속 토의하기 위해서임. 북한 측은 회담에서 NPT 복귀 문제는 논의대상도 되지않는다고 주장함.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문제는 IAEA의 불공정성이 문제임.
- 최초의 공식 논평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NPT 체제 잔류 문제를 계속 협상카드로 활용, 미·북한 관계 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2. 제2단계 미·북한 접촉 관련 한국 측 조치

- 임성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Kartman 국무부 한국과장 면담(1993.6.24.)
 - 제2단계 접촉 시점 및 관련 평가, 시한 설정, 언론 발표, IAEA 공정성 확보, 러시아 측 입장 등 보고
- 외무부는 제2단계 미·북한 접촉 결과 파악 및 대미 협의를 위하여 임성준 참사관을 제네바에 출장하도록 지시(1993.6.25.)
- 마이니치신문 시계무라 특파원, 임성준 참사관에게 허종 북한대사와 전화 통화한 내용 제보 (NPT 체제 밖에서 핵안전조치에 협조하는 방안) 보고(6.25.)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4 7.1.-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3 / 1-145

1.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방한(1993.7.10.-11.)

- 방한 의의 및 평가
 - 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
 - 확고한 한·미 안보 협력관계 확인
 - 다차원적 경제협력관계 출범
 - 양국 정상 간의 협력관계 형성
- 주요 협의 내용
 - 한·미 동맹·동반 관계의 발전
 - 양자 안보 협력: 주한미군은 현재 규모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
 - 북한 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한·미 양국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목표와 원칙 견지 합의
 - 한반도 통일: 자유롭고 민주적인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확인
 - 남북한 관계: 남·북 관계 진전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됨을 재확인
 - 양자 경제·통상협력: 미래지향적, 다원적 경제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합의
 -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태평양 국가로서의 미국 역할 계속 확인 및 한·미 동맹·동반관계가 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새로운 안보 대화 증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 확인
 - 김영삼 대통령 방미 초청: 연내 방미 실현 노력

2. 미·북한 제네바 접촉(1993.7.14.)

- 갈루치-강석주 간 뉴욕에서 여러 차례 접촉 이후, 미·북한이 제네바에서 7.14. 다시 만나기로 함에 따라 한·미 양국이 협의 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됨.
- 제네바회담(1993.7.14.)에서 미국은 영변 2개 의심 장소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IAEA 공정성 확보방안도 검토)
 - 미국 측은 9월 IAEA 이사회 개최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
- 남·북한 간 핵 관련 협의는 6.26. 강성산 북한 총리 담화로 무산
- 미·북한 제네바회담에 대한 한국 측 대응방안
 - 한·미 간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정종욱 외교수석, 장재룡 미주국장 방미)
 - 북한 측이 특별사찰에 성의를 보일 경우 T/S 훈련 중단 등 대북 유인책 제시
 - 북한 측이 특별사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안보리 제재 등 예정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5 7.14.-2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4 / 1-211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미·북한 접촉 관련 내용임.

1. 1993.7.14. 회의

- 북한 측은 클린턴 미 대통령의 북한 종말 관련 발언 및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안보리 제재 관련 발언을 구체적으로 거론함. 또한 1993.6.11. 미·북한 성명에 포함된 합의사항을 이해하는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측 희망사항을 제시함.
- 북한 측은 실질 문제 토의에 응하면서 6.11. 미·북한 성명의 이행 문제 관련 NSA의 양자적 문서 보장, 핵무기 불배치 선언, T/S 및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북한 테러리스트 삭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을 요구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공정성 문제를 되풀이함.
- 미국 측이 IAEA 문제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북한 측은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언급함.
- 미국 측은 북한이 핵 재처리 금지 이행,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시 IAEA 사찰단 임석 허용, 특별사찰 문제 해결을 위한 IAEA와의 협상 개시 등을 수락한다면 8월 초 접촉이 가능함을 전달함.

2. 1993.7.16. 회의

- 오전 회의
 - 북한 측: 일괄 타결방안 제안
 - 미국 측: IAEA 사찰 수용, 한반도 비핵화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개시 강조
- 협의 결과 요지
 - IAEA 사찰 관련 협상 난항, 양측은 협의 결과를 본국 정부에 보고한 후 1993.7.19. 회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3. 1993.7.19. 회의

- 북한 측: 핵안정협정 이행을 위해 IAEA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함.
- 미국 측: 북한이 보유한 기존 원자로를 핵무기 제조에 부적절한 경수로로 교체하도록 지원을 합의
- 양측: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6 7.21.-3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5 / 1-154

1. 북한 외교부 대변인, 제네바회담 관련 기자회견 요지(1993.7.23., 중앙방송)

- 이번 회담에서 경수로 도입을 제안한 것은 핵 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의 최대 의지를 보여준 것임.
- 경수로 도입 방안을 외면하고 순수 사찰방식 일면에 치중하거나 법률·재정적 이유로 그 실현을 늦춘다면 그것은 핵 문제 해결의 자세가 아님.
- 남북대화의 성과는 남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 있음.
- 경수로 도입 문제를 포함, 조·미 간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으로 앞으로의 조·미 회담이 잘 진척될 것으로 생각됨.

2. 반기문 공사, Stanley Roth 미 국방부 부차관보 면담(1993.7.27.)

- Roth 부차관보는 북한이 경수로 지원 등을 받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언급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7 8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6 / 1-179

744

1. 북한, 제네바 후속조치 관련 노동신문 논평 발표(1993.8.2.)

- 남북관계
 - 남북대화 진행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임.
 - 특사교환이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질 때,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문제 등 여타 문제 해결 가능
 - 남측이 특사교환을 외면하고, 실무접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사가 없는 것임.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사찰 문제
 - 제네바회담에서 IAEA와의 협상 용의를 표명한 것은 특별사찰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IAEA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 IAEA와의 협상 진척 여부는 IAEA의 불공정성 시정 여하에 달려있음.
- 대미 촉구사항
 - 미국은 핵 불사용에 대한 법적 담보 및 핵무기 불배치 담보를 해야 하며, T/S 훈련을 종식시키는 등 자기의무를 실행해야 함.
 - 또한 경수로 제공 용의를 표시한 이상 전제조건 없이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평가
 -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통해 한국 측 양보 기대
 - IAEA와의 협상 난항 예상
 - 조건 없는 경수로 제공 촉구 등

2. 임성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카트만 한국과장으로부터 관련 정보 청취 보고(1993.8.6.)

- 8월 말이나 9월 초 미·북한 간 접촉 예상
- 특별사찰 이외 중간목표 설정 필요성, 경수로 문제 등
- IAEA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제3단계 미·북한 간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 명의의 메시지를 강석주 앞으로 송부

3.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1993.8.13. 뉴욕 주재 김차웅 동아일보 특파원 접촉, 8.17.

Korea Society(Gregg 회장, 김태웅 사무국장)를 방문하여 아래 언급

- IAEA와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8.18. IAEA 사무총장을 평양에 초청함.
- 북한은 특사교환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



4. Gregg 대사,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면담 결과 전문 보고(1993.8.17.)

- 허종 대사는 북한 정부가 IAEA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하여 핵시설 사찰 협의를 위한 본격적 협상 재개를 금일 결정했다고 언급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8 한·미국·일본 3자 협의, 8.11.-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7 / 1-129

1. 한·미·일 3자 협의 관련 3국 간 조율

- 1993.8.11. 한·미 양자 간 실무협의
- 1993.8.12. 한·미·일 3자 간 협의

2. 주미국대사,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과 면담 보고(1993.7.26.)

- 한·미·일 3자 협의
 - 회의 의제: 대북한 핵 문제 해결정책에 대한 토의 및 향후 이행 방안, 경수로 문제
 - 회의 개최지: 워싱턴 D.C.로 고려 중, 7.29. 관계부처 실무 협의회에서 재협의 희망
- 갈루치 차관보 오찬회견(7.22.)
 - 8월 말경 남·북한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북한 간 대화현황을 종합 점검한 뒤 제3단계 미·북한 접촉 여부를 결정할 것

3. 한·미·일 3국 실무협의회(1993.8.12.)

- 제2단계 미·북한 접촉(1993.7.19., 제네바) 이후의 상황 진전과 IAEA 팀의 최근 북한 방문 검토
- 향후 대응방안 의견 교환
- 제3단계 미·북한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3국 모두 동의

북한 핵 문제. 전30권 (V.19 9.1.-1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8 / 1-170

1. 북한방송의 미·북 3차 회담 관련 논평

- 방송 논평 요지
 - 1993.9.5. 중앙방송: 한반도 핵 문제는 미·북 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
 - 9.7. 평양방송: 미·북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관계되는 일임.
-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과 남북대화 진전이 미·북 3차 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
- 미·북(국제원자력기구) 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 강조

2. 미·북한 실무접촉(1993.9.13., 뉴욕)

- Quinones 미 정치군사국 비확산과장,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허종은 IAEA의 추가협약의 제의에 대해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9월 말 IAEA 사찰팀의 방북을 수락할 것이라고 함.

3. 반기문 공사, 미 백악관 NSC Kent Wiedemann 아주담당 선임보좌관 면담(1993.9.14.)

- 중동평화 협상
 - 한국 측: 9.13. 이스라엘·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 평화협정 서명 축하 및 김영삼 대통령 축전 전달
 - 미국 측: PLO를 대화상대기구로 인정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있을 예정,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반적인 중동평화 협상의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
- 북한 핵 문제
 - 한국 측: 북한이 남북대화 관련 한국에 핵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두 가지 전제 조건 제시 상황에 대한 설명, 9.13.자 W.P. Robert Novak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설명
 - 미국 측: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 서명과 같이 한반도에도 긍정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조 언급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0 Gallucci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 9.9.-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9 / 1-208

북한 핵 문제 관련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의 1993.9.9.~13.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일정(안)

- 9.9. 도착
- 9.10.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실무 협의, 이동복 특보,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면담, 제1차관보 만찬
- 9.11. 외교안보수석 조찬, 대통령 예방, 미국 측 주최 만찬(행정부, 국회, 언론, 학계 등)
- 9.13. 통일부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기자회견

748

2. 갈루치 차관보의 방한에 대한 기자회견 주요 요지

- 제1, 2단계 미·북한 간 접촉의 배경과 성과 설명
 - 현재로서는 제3단계 미·북한 간 접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남북대화가 무조건 재개되어 제3단계 미·북한 간 접촉이 개최되고, 핵 문제 해결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기대
- 제3단계 접촉 시한 설정을 위한 2차 접촉 시 '2개월 이내 재접촉' 하기로 했으나 제3단계 접촉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님.
 -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대화가 중단되고 문제는 유엔안보리에 다시 회부될 수밖에 없음을 북한도 충분히 인식
- 미·북한 수교를 통한 핵 문제 해결방안
 - 미·북한 정치 관계는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협의될 수 있다는 것이 한·미 간의 확고한 입장이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음.
-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문제
 -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북한은 재처리 능력이 있고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으며, 상당한 능력의 미사일을 생산, 핵무기를 제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임.
 - 북한 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그간 생산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과 그 처리에 있음.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2 10.1.-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11 / 1-161

1. 최우진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Hubbard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접촉(1993.10.7.)

-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1993.10.5. Brown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면담 주선 요청
- 허종은 평양으로부터 중요한 메시지 전달이 면담 목적이라고 하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에 관한 북한 입장 전달 암시
- 동 면담 신청에 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이의 없음을 통보하고, 북한이 IAEA, 남북대화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도록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함.

2. 김대중 전 대표의 Korea Society 주관 조찬 연설(1993.10.6.)

- 북한 핵무장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됨.
- 당근과 채찍 정책을 기조로 일괄협상
 - 핵개발 완전 포기, IAEA 특별사찰 및 남북 상호사찰 수용, 휴전선 군사력 재배치(방어적 배치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유인책으로 서방국가의 북한 승인, 대북한 무역 및 경험, T/S 훈련 영구중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4 11.1.-1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13 / 1-157

1. 제25차 한·미 SCM(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채택안

- 한반도 내 안보정세 평가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 표명
- 북한 핵 문제 해결 공동노력 재확인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 긴밀 협의 합의
 - 북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및 남북 상호핵사찰 수용 촉구
-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 한반도 유사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의 신속 지원 확약 및 핵우산 계속 제공
- 한·미 연합방위체제 평가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 재확인
 - 북한 핵 문제 해결시까지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계속 유보
- 평시작전통제권
 -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양국 합동군사훈련의 필요성 재확인
- 방위비 분담 합의
- 장기적 한·미 안보협력방안
 - 통일지향적 안보협력 구도 추진
 - 다자안보대화 필요성 공동 인식

2. 박인국 주미국대사관 서기관의 Quinones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 관련 미 국무부 내 동정 청취(1993.11.4.)

- 미·북한, 북한·IAEA 대화 현황 및 평가
 - 10.27. Hubbard·허중 접촉을 끝으로 더 이상 접촉이 없는 상황임.
 - 현 시점에서 북한 내 핵 문제 정책 결정은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이며, T/S 훈련 중지에 대한 공식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관측됨.

3. 미·북한 실무접촉(1993.11.9., 뉴욕)

- Quinones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허중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IAEA 통상사찰 관련, 북한은 아래 2가지 방안을 미국이 선택하도록 제시
 - '94 T/S 중단 발표 시 필요한 범위(모호)의 IAEA 사찰 수락 용의 전달
 - IAEA가 8월 수준의 사찰활동을 수행하되 동 사찰 활동 수행기간 중 미·북한 접촉 진전이 있을 시 사찰활동 범위 확대('94 T/S 훈련중단 발표가 없다는 전제하의 방안)
 - 최근 한국 국방부장관 도발 발언으로 특사교환 진전이 어려우나, '94 T/S 중단 발표 시 남북 특사교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시사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5 11.11.-1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0 / 14 / 1-193

1. 북한 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1993.11.11., 외무부)

- 현 상황 평가
 - 3방향에서 핵 문제 해결 난관 봉착
 - IAEA(국제원자력기구)·북한 간 사찰 재개 협상 교착
 - 북한 측의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일방 연기
 - IAEA 사찰 불능 및 남북대화 중단으로 미·북한 3단계 협상 개최 계속 지연
 - 11.1. IAEA 사무총장 보고 계기 유엔총회 결의 채택
 - 국내외 언론 보도 급증 및 강경여론 대두
- IAEA에 대한 북측 반발, 비난 계속
 - 제한된 범위의 사찰은 가능하다는 입장, 미국을 통한 협상 모색
- IAEA 입장
 - 제한적 사찰 제의 수락 불가 입장
 - 대북한 사찰 협상의 완전 결렬은 불원
- 미국 입장
 -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 견지, 안전조치가 훼손 중이나 당분간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
- 한국 측 대응 방향
 - 단기적으로는 IAEA 사찰문제의 해결을 통한 돌파구 모색
 - 중·장기적으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적절한 관리 필요

2. 북한 중앙방송(1993.11.15.)

- 북한 IAEA 특별사찰 수용과 남북대화를 촉구한 김영삼 대통령의 SBS 기자회견 및 외무부장관의 11.13. 언급 내용 비난

3. 카네기재단 미·북 관계 세미나(1993.11.16.)

- 김태우 국방연구소 박사
 - 핵 에너지 주권론: 미·북한 간의 북한 핵 문제 협상과정에서 한국이나 북한 핵에너지 주권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임.
- 갈루치 차관보
 - 북한 핵 문제는 아·태지역 안전에 위험요소임.
 - 북한 미사일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라는 미국의 전세계적 정책목표에도 위배됨.



- Harrison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서 북한이 미국에 어떤 정치·경제적 대가를 언제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함.
- Manning PPI 연구원
 - 북한이 미국이 핵 폐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협력을 거부할 시 중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Kanter 전 국무부 정무차관
 - 다자적 해군기동훈련 및 서울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합동훈련 실시 필요
- Hayes 해양연구소
 - 북한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 핵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의 관심 필요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6 11.19.-3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 / 1-200

1. 북한 핵 문제 진전 동향(1993.11.20., 외무부)

- 현 상황 평가
 -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 실패시 안보리 조치 등 대안을 추진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대화 노력 계속 방침
 - 제반 핵 문제 교착 타개의 관건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문제 진전 모색
- 한·미 간 대응 협의 및 미국 측의 기본 대응방안(NSC 논의 내용)
 - 북한의 IAEA 통상사찰 수용 및 남북 특사교환 합의 시 미국은 3단계 접촉일자 확정 및 '94 T/S 훈련 중지에 관한 한국과의 협의계획 발표('94 T/S 훈련 중단 발표는 북측 특사 서울 방문 시 통보)
 -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및 남북한 특사교환 합의 시 3단계 접촉 가능'이라는 한·미 양국 간의 기존입장 견지
- 제3단계 미·북 접촉에서는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도모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영구 잔류, IAEA 사찰 의무의 완전한 이행 및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의 실천 확보

2. 미·북한 실무접촉(1993.11.24., 뉴욕)

- Hubbard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북한 측에 정상회담 합의 내용 전달
- 대북 메시지 요지
 - 북한이 아래 조치를 취할 때 제3단계 미·북한 대화 개최, 제반 현안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통보
 - 안전 조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사찰 활동에 대해 IAEA와 합의 도달
 - 특사교환 절차에 대해 한국과 합의 도달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7 12.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2 / 1-137



1. 북한 핵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11.30)

- 한·미 정상회담 시 북한 핵 문제 협의 결과 설명 및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2. 미·북한 간 실무접촉(1993.12.3.)

- 북한 측 입장
 - 7개 사찰대상 중 5개 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 2개 시설 사찰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상 용의
 - 상기 사찰 허용을 위한 사전동의 요구: 사찰단 북한 방문과 동시 남북한 실무접촉 개시, '94 T/S 훈련 중단 발표, 특사교환 실시

3. 북한 제의(1993.12.3.)에 대한 한·미 정부 입장

- 한국 정부 입장
 - 북한이 IAEA 사찰 관련 일부 긍정적 요소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한국 측 요구에 미흡
 - 특히 '94 T/S 훈련 중단을 앞당겨 결정 및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락하기 어려움.
- 미국 정부 입장
 - 북한 측 제안에 대해 전면 수락, 전면 거부, 부분적 협상 진행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여 대부분 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구체적 내용을 정한 바는 없음.
 - 장관급 회의(1993.12.5.)에서 미국 측 입장 결정 예정
 - 장관급 회의 결과를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가 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 협의할 예정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8 12.6.-1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3 / 1-133

1. 반기문 공사, Hubbard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면담(1993.12.6.)

- 한국 측
 - 북측 제의(사찰관 면제)에 대한 한국 측 기본 평가와 대응방향 설명
 - 북한 측 특사의 서울 방문시 T/S 훈련 중지 발표는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사항인 만큼 양보는 없음을 강조
 - 과거 경험상 구체적 실무 준비 없이 특사교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 측
 - IAEA(국제원자력기구) 측은 북한 측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
 - 한국과 북한의 특사 방문 순서 문제는 남·북한 간 실무교섭에서 해결할 사항
 -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제3단계 미·북한 접촉 이전에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한국 측과 협의하고자 함.
 - 미국 측 대응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한국 측과 추가 협의하고자 함.

2. 미·북한 실무 접촉(1993.12월)

- 1993.12월 중 6차례 접촉 진행
- 북한 측 입장
 -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유보한 상황에서 IAEA가 요구하는 완전한 임시, 일반사찰은 수용 불가
 - 제3단계 미·북한 대화 일자와 '94 T/S 훈련 중단 발표 요구
 - 제3단계 미·북한 접촉 이전에 특사교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한국 측 입장
 - IAEA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시, 일반 사찰 수락 재촉구
 - 북한의 IAEA 사찰 수락과 핵 문제에 관한 실질적 남북대화(특사교환)가 있어야 제3단계 미·북 접촉이 가능하다는 기본입장 견지
- 향후 대처 방향
 -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도모
 - 상황의 진전에 따라 안보리에서의 대처 등 적절한 대처방안 검토

북한 핵 문제. 전30권 (V.29 12.11.-2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4 / 1-123

756

1. 북한 핵 문제 관련 한·미 협의 결과 및 대책 방향(1993.12.11., 외무부)

- 북측 제의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은 IAEA가 요구한 7개 대상 시설 중 5개 대상에 대한 완전한 사찰과 2개 시설에 대한 부분적 사찰 허용 제의
 - '94 T/S 훈련 중단 및 제3단계 미·북 접촉일자의 조기 발표 요구
- 한·미 간 대응 방향 협의
 - 12.7. 김영삼 대통령·클린턴 대통령 전화 협의: 원칙은 확고히 견지하되, 전술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데 합의
 - 북한 측이 IAEA 임시·일반 사찰을 완전하게 수용, 이를 실시하고 남북 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제3단계 미·북 접촉을 갖도록 한다는 기본 전략 견지
 - '94 T/S 훈련 중단 여부 바로 이전에 북한의 이행 요건 명시
 - 북측이 2개 선행조건을 충족치 않을 경우, '94 T/S 훈련 준비 진행 및 제3단계 미·북 접촉 불개최
- 향후 대책 추진 방향
 - 미·북 실무접촉을 통해 한국 측 입장 전달
 - 실질적 남북대화 진전 확보
 - 북측이 한국 입장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검토 병행

2. 북한 핵 관련 강연회(1993.12.13., 시카고 외교협회)

- 참가자
 - 정치, 언론, 학자 등 150여 명 참석
- 강연 요지
 - 북한은 1965년부터 핵개발에 착수하여 현재는 거의 완성단계
 -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의 미 전술핵은 모두 철수됨.
 -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므로, 미국이 한국·일본·중국과 협력해야만 함.
 -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경제제재도 중국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한 제재조치가 논의될 경우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기습 탈퇴로 국제법 준수의무를 피하려고 할 것임.
 - 북한은 군사충돌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일본과 외교관계 개선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

북한 핵 문제. 전30권 (V.30 12.22.-3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5 / 1-115

1. 외무부장관, 갈리 유엔사무총장 면담(1993.12.22.)

- 주요 협의사항
 - 한국과 유엔과의 협력
 - 북한 핵 문제
- 한·유엔 협력
 - 한국 측: 유엔활동 참여 강화 의지 표명
 - 유엔 측: 소말리아 파견 한국군의 역할 높이 평가
- 북한 핵 문제
 - 한국 측: 대화에 의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나, 실패시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북한 지도부에 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우려를 전해주도록 요청
 - 유엔 측: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1995년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임. 요청한대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 측에 전하고 북한의 강박 관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나, 신뢰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제안 없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평가
 - 유엔 측은 신뢰 제고 방안 및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배려 필요성을 언급
 - 대화를 통한 해결 추구가 바람직하다는 양측의 인식 표출

2. 미·북한 접촉(1993.12.29.)

- 반기문 공사가 Hubbard 부차관보로부터 청취한 추가 파악 내용 및 부차관보의 평가
- 전반적 평가
 - 북한 측의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노력이 보였음.
 - 체면을 살리는 문제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북한 측이 대부분의 여타 주요 이슈에 대해 큰 반발을 하지 않은 점이 특이함.
- 뉴욕에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북한 간 협의
 - Blix 사무총장이 협의 장소로 뉴욕을 제의하였으며, 미국로서는 중립적 장소로 적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
- T/S 훈련 중지 및 제3단계 미·북한 접촉 문제
 - 북한 측: 미 측이 제3단계 미·북한 접촉을 위해 조건을 붙일 경우 북한 측도 조건을 붙일 것임.
- 차기 접촉 문제
 - 내년 초 북한 측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으로 예상됨.

북한 핵 문제: 북한 동향 및 자료. 전3권 (V.1 북한 공관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1 / 6 / 1-163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주요 동향임.

1. 북한의 외국인 통제 강화

- 주중국대사는 1993.3.13. 북한 당국이 3.12. 오후 외교부 공한을 통해서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과 외국인 전문가에게 평양 이외 지역 방문과 평양 주민 접촉 금지를 통보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반도 정세는 팀스피리트 핵전쟁 연습으로 극히 복잡함.
 - 북한은 준 전시상태이므로 안전상 이유로 모든 외국인은 기존의 북한규정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해 주시길 바람.
 - 모든 외국인은 공식허가 없이는 다른 도시 방문을 금지하고, 만약 허가된 평양 부근의 3개 지역(남포, 태성 수원지, 소감 유원지) 방문 희망 시에도 적어도 3일 전에 허가신청 바람.
 - 준 전시상태에서 모든 외국인은 사전허가 없이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없음.
 - 외국인은 사전허가 없이는 북한 주민들과 만나거나 비즈니스 등 행위를 할 수 없음.

2.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각국 반응

- 주우간다 북한대사 기자회견
 -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절연하는 것이지 기타 전세계 국가와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님.
 -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것임.
 - 북한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미국으로 인해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태임.
-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과 박동춘 북한 일반대표부 대표 면담 시 북한 대표 언급내용
 - 외부세력이 북한 핵사찰을 강요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도발을 할 경우 북한은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음.
 - 전쟁 위험 가능성 언급
- 이란 외무부 아주국장과 주이란 북한대사 면담 시 북한대사 언급내용
 - 미국이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후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 IAEA의 북한 내 2개 군사기지는 사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김유순 루마니아 주재 북한대사 기자회견
 -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 일촉즉발 전의 초긴장 상태임.
 - 북한 NPT 탈퇴결정은 북한 내 군사시설을 강제 사찰하려는 IAEA의 압력에 대한 대응조치임.

북한 핵 문제: 북한 동향 및 자료. 전3권 (V.2 북한 관련 자료, 3-4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1 / 7 / 1-211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자료임.

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1993.3.12.)

- 북한은 1993.3.12.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최고이익(Supreme Interest) 수호조치로 NPT 탈퇴 선언을 함.
- 선언 내용
 - 북한의 최고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로 NPT 탈퇴가 불가피
 - NPT 탈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관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
 - 북한 입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중지하고 IAEA 사무국이 독립 및 공정성 원칙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불변할 것
- 대책
 - 대북한 설득 노력을 통한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철회 유도
 - IAEA 특별이사회 조기 소집,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 상정이 불가피한바, 유엔안보리 대책 수립 시행

2. 김일성 주석의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제의 분석(1993.4.8.)

- 10대 강령 내용 분석
 - 남북한이 합의한 조국 통일 3대 원칙(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에 명기)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가운데 민족 대단결 원칙을 특별히 강조
 - 기존의 고려연방제 통일 계속 주장
 -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연관('공존, 공영, 공리의 도모'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3대 기조에 대한 화답의 성격)
- 종합 분석
 - 북한이 여사한 통일강령을 발표한 것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우방국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국제적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의도
 - 전반적으로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표현과 주장을 지양함으로써 한국 신정부의 우호적 반응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

북한 핵 문제: 북한 동향 및 자료. 전3권 (V.3 북한 관련 자료, 5-11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1 / 8 / 1-126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자료임.

1.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 문제 관련 기자회견 시 조·미 회담 촉구(1993.5.2., 중앙방송, 평화방송)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1993.5.1.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함.
 - 조선반도에서의 핵 문제가 조·미 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임.
 - 우리는 조·미 사이의 결실 있는 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음.
 -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이 마련되면 조선반도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토의하자는 것임.
 - 그런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금 내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온당치 못한 결의 초안이 채택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로 최근의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아 경솔하게 처신할 경우, 그것은 유엔의 명성에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게 될 것임.

760

2.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 주미국대사관은 1993.9.29. 미 의회 조사국 연구원을 접촉,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이 200MW 규모의 원자로를 완성하고 재처리 시설을 갖추게 될 경우 연간 최대 10개의 핵폭탄 제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으며, 50MW 원자로까지 완성할 경우, 연간 최대 15개 핵폭탄 제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
 - 따라서 북한이 200MW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완성한다는 가정 하에 1995년까지 연간 최대 10개의 핵폭탄 제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한바, 15~20개 핵폭탄 생산 가능성이 언급된 9.15.자 보고서는 다소 과장된 감이 있어 조만간 수정할 계획임.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1 일일보고, 3.13.-2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9 / 1-62

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일일보고(1993.3.13.)

- 확인 및 조치사항
 - 북한, 안보리에 NPT 탈퇴 공식 통고(NPT에 규정된 탈퇴 절차의 일환)
- 주유엔대사, 3.12. 오후 안보리 의장 면담
 -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입장 설명 및 추후 안보리 협의 시 한국이 그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
- 외무부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 구성

2. 북한 요청에 의한 미·북한 베이징 접촉

- 미국은 북한 측 요청으로 1993.3.19. 베이징에서 접촉을 가졌으며, 북한 측은 3.17. 접촉 시 미국 측이 통보한 입장에 대해 아래 반응을 보임.
 - 북한 당국은 미국 측 입장이 기존입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으로 평가
 - 현 사태 책임은 미국 측에 있다는 북한 입장 반복

3. 유엔군축회의, 북한 NPT 탈퇴 문제 논의

- 1993.3.18. 유엔군축회의 본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표들은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NPT 및 핵안전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4. 북한의 NPT 탈퇴 관련 보고(1993.3.24.)

- 한·미국·일본 3국 고위 실무협의회 개최(1993.3.22., 주유엔 미국대표부)
 - 한·미국·일본 3국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을 번복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
 - 북한이 핵 개발 계획 의심 제거에 협력할 경우, 각국은 대북한 문호를 계속 개방할 것임.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2 일지)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0 / 1-119

762

1.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일지

- 북한 NPT 탈퇴 이전
 - 1985.12월 북한, NPT 가입
 - 1991.11.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 12.14.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
 - 12.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사용금지
 - 핵통제공동위 구성 및 비핵화검증을 위한 상호 동시사찰
 - 1993.2.25. IAEA(국제원자력기구) 2월 이사회, 대북한 특별사찰 수락 촉구 결의 채택
- 북한 NPT 탈퇴 이후
 - 3.12. 북한, NPT 탈퇴 선언(정부 성명)
 - 3.18. IAEA 특별이사회 결의 채택
 - 3.24.~25. 외무부장관, 유엔 방문
 - 유엔사무총장 및 유엔 주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뉴질랜드, 파키스탄대사 면담
 - 4.1. IAEA 특별이사회,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 4.1. 블릭스 사무총장, 최학근 북한 원자력공업부장관 앞 전문 발송
 - 5.11. 안보리 결의(제825호) 채택

2. NPT 탈퇴를 전후한 북한 동향 관련 일지

- 1993.2.15.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기자회견
 - IAEA 특별사찰 강행 시 핵안전협정 폐기 가능 언급
- 3.12. 중앙인민위원회 회의에서 NPT 탈퇴 결정 및 정부 성명 발표
 - T/S 훈련 재개와 IAEA 특별사찰 강요에 대한 자주권 행사
 -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NPT 탈퇴 관련 기자회견
- 3.17. 미국·북한 베이징 접촉
 - 미국은 Non-Paper 형태로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 전달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3 자료 I, 2월-3.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1 / 1-116

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 발표
 - 1993.3.12.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성명을 통해 NPT 탈퇴 선언
- 대책
 - 한국 정부는 동일 오후 중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
- 조치 현황
 - 전 재외공관에 사실통보 및 각국 반응 보고 지시
 - 유엔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및 주요 이사국 반응 보고 지시
- 향후 계획
 - 북한 탈퇴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 IAEA 사무국 및 우방 이사국과 IAEA 차원의 조치계획 협의

2. 북한의 NPT 탈퇴에 관한 법적 검토

- 북한 선언의 법적 성격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
 - 북한의 NPT 탈퇴는 NPT 제10조에 의해 가능하나, 북한의 일방적 선언이 NPT 제10조에 따른 정식통고인지 여부는 확인 필요
- 북한의 NPT 탈퇴 시기
 - 북한의 NPT 탈퇴는 정식통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가능

3. NPT 탈퇴 관련 북한 성명 요지(1993.3.12. 도쿄발 로이터 보도)

- 북한의 국가주권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상황이 발생함.
 - T/S 훈련 재개와 IAEA 특별사찰 요구
- T/S 훈련 재개는 북한을 준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했으며 한반도 상황을 극히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음.
-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더 이상 NPT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NPT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함.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4 자료 II, 3.20.-3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2 / 1-101

764

1. 방미 관련 검토 필요사항 논의 결과(1993.3.20., 외무부장관 주재 협의)

- 군사제재 문제
 - 군사조치 배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양론
 - 미국에게는 군사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
 - 탈퇴 결정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시 가능
 - 북한이 명분상의 성과로 타협할 의사가 있다면 T/S 훈련 중지, IAEA(국제원자력기구)·북한 간 타협 정도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핵 불사용 보장 및 T/S 훈련 영구 폐지' 등과 같은 실제적인 성과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만 태도를 바꿀 것임.
- 한국의 대응 문제
 - 북한의 상기 성과 추구에 대해 북한 핵의 투명성 요구
 - 사찰은 상호사찰이든 IAEA 사찰이든 관계없으나 성역 없는 사찰 확보 필수

2. 북한 핵 문제 관련 예상되는 Course of Action

- 시나리오 1: IAEA 차원에서의 해결(최선의 방안)
- 시나리오 2: 안보리의 권고적 조치(안보리 차원에서의 최선의 방안)
- 시나리오 3: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치(유엔헌장 제7장)
- 시나리오 4: 안보리의 군사제재 조치(유엔헌장 제7장)

3. 북한 핵 문제 안보리 대책

- IAEA 조치 전망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IAEA 특별이사회 결의 채택(1993.3.18.)
- 안보리 회부 문제
 - IAEA 특별사찰 불이행 사실을 안보리 보고 형태로 제기 예상(3.31. 이후)
 - 현재 안보리는 NPT 탈퇴 문제 자체에 관해 비공식 협의 진행 중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5 자료 III, 4.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3 / 1-83

1. 외무부장관의 유엔 방문(1993.3.23.~25.) 결과(1993.4.1., 외무부 유엔1과)

- 주요 일정
 - 유엔사무총장 면담
 - 유엔안보리 주요 이사국 대사 면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
- 방문 성과
 - 북한 핵 문제 관련 한국의 기본입장 설명 및 협조 당부, 안보리에서의 처리 문제 협의
 - 한국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UNOSOM II(소말리아평화유지군)에 한국의 공병 파견 의사를 알리고 유엔 측의 협조 당부
 - 유엔사무총장 방한 초청
- 북한 핵 문제 안보리 처리 전망
 - 1993.4.1.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가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을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기로 결정, 북한 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됨.
 - 안보리는 4.5. 시작하는 주부터 협의를 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

2. 안보리에서의 북한 핵 문제 처리 전망(1993.4.1.)

- 비공식 협의 단계
 - IAEA 보고 접수 후, 안보리는 우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비공식협의를 통해 관련국의 입장 파악 및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교환 예상
 - 의장과 핵심 상임이사국 간, 상임이사국 간(P-5 회의), 비상임이사국 포함 전체 안보리 비공식협의, 의장 또는 상임이사국의 대북한 접촉
- 의제 채택 및 토의
 - 문제를 공식화하는 단계로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음.
 - 안보리 의제는 사무총장이 안보리 의장 승인을 받아 작성함.
- 안보리의 대북한 조치
 - 상기 비공식협의 및 토의결과에 따라 아래 요지의 결의 추진 예상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철회 및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
 - 사무총장의 결의 이행 위한 협조활동 요청
- 한국의 입장
 - 북한 핵 문제가 국제 현안인 동시에 남북한 현안임에 비추어 안보리 토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6 자료 IV, 4.16.-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4 / 1-136

766

1.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중국 외무장관 협의 요지(1993.4.22.)

- 양측의 기본인식
 - 한국 측,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희망 표명 및 중국의 역할 중요성 강조
 - 중국 측,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아래 기본 입장 재확인
 - 한반도에 핵무기 존재 불원
 - 한반도 비핵화 정착 기대
 - 한반도 긴장완화는 통일 및 세계평화에 중요
- 미국·북한 접촉과 중국의 역할
 - 중국 측, 미국·북한 대화 가능성에 적극 환영의사 표명
 -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틀 속에서의 해결 가능성이 없는지 타진
-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문제
 - 한국 측, 문제해결을 위한 안보리 1차 결의 채택의 중요성 강조
 - 중국 측, 안보리에서의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 표시

2. 통일관계 차관회의(1993.4.29.) 결과

- 남북대화 추진 문제
 - 필요성
 - 한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기회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명분 고려
 -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남북회담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
 - 시기: 유엔 안보리 1차 결의 통과 직후
 - 의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한 문제도 포함 검토
- 미·북 접촉
 - 한국의 역할 과시를 위해 한·미 간 협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7 자료 V, 5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5 / 1-150

1. 북한 핵 문제 관련 동향

● 유엔안보리

-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결의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 협조 중
 - 북한의 결정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
 - 북한에 대한 설득 및 압력의 준거 제공
- 현재 상임이사국 간 협회가 진행 중인바, 한국으로서는 문제의 연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결정 철회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수락 촉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북한과 IAEA 등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이나,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음.

● IAEA·북한 간 협의

- IAEA·북한 간 그간 수차례의 전문교환을 통해 사찰단 파견 문제 논의
- 금번 북한 측의 사찰단 수락은 IAEA 특별이사회의 안보리 보고 결의(1993.4.1.) 채택 이후 IAEA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에 비추어 일단 긍정적이나, 현재로서는 이를 북한 측의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려움.

2. 유엔안보리 대북한 결의 채택(1993.5.12.)

● 결의 취지

- 북한에 대해 NPT 탈퇴결정 철회 및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
-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
-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

● 표결 결과

- 찬성 13, 반대 0, 기권 2(중국, 파키스탄)

북한 핵 문제: 일지 및 자료. 전8권 (V.8 자료 VI, 6-11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6 / 1-166

1. 미·북 공동성명(1993.6.11., 뉴욕)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전면 안전조치의 공평한 적용, 주권 상호 존중 및 상대방 국내 문제 불간섭
- 한국의 평화통일 지지

2. 미·북 공동발표문에 대한 주요 반응

- 미국
 - 클린턴 대통령 성명(1993.6.11.)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중단을 이끌어낸 성공적 회담 결과 환영
 - 핵무기 확산방지는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임.
- 북한
 - 미·북 공동발표문 및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기자회견 내용을 논평 없이 사실 보도(6.12.~13., 평양방송)
- 중국
 - 외교부 대변인 논평(6.12.)
 - 초보적인 진전 환영 및 양국의 그간 노력에 찬사
 -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미·북 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는 물론, NPT 보편성에도 기여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진

북한 핵 문제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1 / 17 / 1-50

1.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회 결의안 채택(1993.5.18.)

● 주요 내용

-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한 1993.5.11.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
- 북한은 1991.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 상호사찰에 응하는 한편,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
- 정부는 유엔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
- 전 세계 평화애호 국민들이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에 따른 핵의혹 제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호소

2. 국회 사무총장의 서한 발송 의뢰

- 국회 사무총장은 1993.5.26. 제161회 제10차 본회의(1993.5.18.)에서 의결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촉구안' 관련하여 유엔, IPU(국제의원연맹), APPU(아시아의원연맹)에 국회의장 명의의 서한(동 결의안 포함)을 발송하고자 한다면서 협조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상기 요청 관련, 외무부는 해당 기구가 있는 한국대사관에 국회의장 서한을 전달하면서 동 서한을 해당 기구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3. 국회 외통위, 아래의 결의안 채택(1993.10.20.)

- 북한의 IAEA 사찰 촉구 결의안
-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 중지 촉구 결의안

북한 핵 문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 전2권 (V.1 3-4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8 / 1-110

1993.3~4월 중 국제사회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 관련 문서임.

1.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

- 북한 경제 현황
 - 1980년대 들어 북한 경제의 성장세 현저히 둔화, 19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 기록
 - 1990년까지 최대 교역국은 구소련이었으나, 1991년부터 중국(25%) 및 일본(19.2%)으로 전환
 - 1991년 GNP 대비 대외의존도는 11.8%이나, 식량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원유는 전량 수입
- 경제제재 대상 분야 및 효과
 - 대북 금수, 해로 봉쇄, 방문 금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이 잠재적 제재조치
 - 중국의 동참 가능성이 낮고, 이미 악화된 경제사정과 낮은 대외 의존도로 인하여 효과는 미미
 - 제재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외환부족 및 원자재 어려움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 가능
 - 특히 광물성 연료(28.7%), 기계 및 운송설비(18.9%), 농산물(11%) 등 수입비중을 감안, 타격 상당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동지역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원유도입을 시도할 가능성 농후

770

2.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동참 검토

- 진전되고 있는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사태는 불원
- 그럼에도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불가피할 경우 단계별 조치 이행 필요
 - 1단계: 임가공 교역 중단
 - 2단계: 임가공 교역 및 직교역 중단
 - 3단계: 모든 교역 중단
 - 4단계: 모든 교역 및 인적교류 중단

3. 대북한 경제제재 효과 검토 보고서

- 외무부, KD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에서 다양한 분석 보고서 작성

북한 핵 문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1 / 19 / 1-222

1993.5~12월 중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 검토 관련 문서임.

1. 대북 경제제재 관련 국내법적 고려사항 검토

- 검토 필요성
 - 유엔안보리는 1993.5.1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철회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 동 결의에서 필요시 추가조치 검토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경제제재 조치가 결의될 경우 국내법적 고려사항 검토
- 경제제재 예상 내용
 - 의약품 및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자 금수조치
 - 모든 수송수단 제공 금지
 - 외환거래 및 신규차관 등 재정지원 금지
 - 제재위원회 설치
 - 과학·문화·학술·체육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 금지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재조치 관련 현행 법 조항
- 검토사항
 - 제재위원회 설치: 통일원 및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 새로운 법률 제정문제: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 등을 포괄하는 '경제제재 관련 법규' 제정문제 검토 필요

2.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분석 보고서

-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성과 한계(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 미국의 대북한 제재 현황(외무부 미주국)

북한의 대시리아 미사일 수출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1과 / 중동1과

MF번호 2023-42 / 1 / 1-161



1992~93년 중 북한의 대시리아 미사일 수출문제 관련 문서임.

1. 북한 미사일 수출 설 보도

- 1992.2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
 -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하는 스커드미사일을 적재한 '대응호'가 2월 초 북한을 출발하였다고 보도
- 3.5. 매케인 미 상원의원 외 19명의 상원의원은 북한 '대응호'의 미사일 수출과 관련한 결의안 제출

772

2. 공해상 북한선박에 대한 미국의 임검권(Right of Visit) 행사 문제

- 문제 제기
 - 미국 정부는 스커드미사일을 적재하고 페르시아 만으로 향해 중인 북한선박 2척에 대한 임검권 행사를 고려
- 미국의 임검권 행사의 타당성 여부
 - 유엔안보리 결의 제665호의 적용 가능
 - 단, 동 안보리 결의는 대이라크 경제제재 조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미국이 북한의 대시리아, 대이란 무기 수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임검권을 행사한다면 국제적 비난 사유가 될 것임.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 1월-3.1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2 / 1-106

1. IAEA(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의 북한 핵 관련 2개 미신고시설 방문 문제 관련 협의 진행상황(1993.1월)

- IAEA는 북한 측에 1992.12월과 1993.1월초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IAEA 관리 방문 요청
 - 북한은 2차례 모두 거부
- 북한의 거부와 관련 IAEA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IAEA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북한 측과 협의를 가졌으나, 재차 거부하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가능성을 시사
- IAEA는 특별사찰 실시 요청 및 특별이사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은 당·정 고위 사절단이 파견 중인 국가 중 IAEA 이사국에 대해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측 지지를 위해 외교선전 책동을 전개함.

2. IAEA 북한 핵 문제 관련(1993.2월)

- IAEA 이사회, 대북 핵사찰 결의 채택(1993.2.25.)
 - Blix 사무총장은 2.26.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및 최학근 원자력부장 앞으로 2.25.자 결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전문 발송
 - 전문에서 3.13.부터 제7차 대북한 임시사찰단 파견을 제의하고 동 사찰단 방문기간 중 사찰단에게 문제의 2개 장소에 대한 접근 허용을 함께 요청
 - Blix 사무총장은 2.26. 유엔사무총장에게도 2.25.자 IAEA 이사회 채택 결의안 내용 전문 발송

3. 제1위원회 속개회의(1993.3.8.)

-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의 기초연설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작년 IAEA와 핵 안전조치 협정을 타결, 6차에 걸친 임시사찰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었음.
 - 그러나 미국은 “2개의 의심스러운 장소”가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세우면서 IAEA 사찰을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함.
 - IAEA 이사회는 사찰 수용 결의를 채택함.
 - 제반 사실은 북한이 핵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인위적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 미·일 대표 발언: 북한의 발언내용은 금일 의제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임.



- 주유엔대사 발언: 북한의 발언 내용은 금일 의제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1991년 비핵화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 및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에 담겨진 한국의 정책 및 사후조치에 변화가 없음. 따라서 한국에 관한 북한 발언은 모두 근거가 없음을 밝힘.
- 북한 대표(이성진 참사관): 답변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남한 내 미군기지 개방 및 미군 핵무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변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2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 3.12.-3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3 / 1-251

1993.3.12.~31.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

1. 북한의 NPT 탈퇴 선언

- 1993.3.12. 북한,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NPT 탈퇴 선언
 - T/S 훈련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의 불공정을 이유로 탈퇴 선언
-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동 탈퇴 사실 공식 통보

2. 안보리 대책

- 1993.3.12. 유엔총회 제1위원회 속개회의
- 1993.3.17. 안보리 비공개 협의회 개최
- 1993.3.18. IAEA 특별이사회 결의안 채택
 - 한·미국·프랑스 등 22개 이사국이 공동제안하여 결의 채택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국제기구가 취한 최초의 대응조치

3. 한·미국·일본 3국 고위 실무협의를(1993.3.22., 뉴욕)

- 북한의 국제 핵비확산 공약에 대한 의무이행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대응조치 문제
 - 3국 모두 북한의 도전이 전세계적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인식함.
- 북한의 IAEA 사찰거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임.
- 3국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북한 NPT 탈퇴결정을 번복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함.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3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 4.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4 / 1-172

1993.4.1.~9.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4.1. 갈리 유엔사무총장, 평양에 특사 파견 의사 표명
- 1993.4.1. NPT 3개 공동 수탁국(미국, 영국, 러시아) 공동성명 발표
- 1993.4.6. 안보리, 북한 핵 문제 비공식 협의회 개최
 - Blix 사무총장, IAEA(국제원자력기구) 결의 관련 보고(북한 핵 문제 안보리 공식 회부)
- 1993.4.8. 안보리, 비공개 협의회 개최

776

2. 북한 핵 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1993.4.9.)

- 요지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 NPT 준수의 중요성 강조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 북한 핵 검증 문제 해결을 위한 IAEA·북한 간 협의 계속 권장
- 경위
 - 미국·일본 등 우방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 채택 주장과 중국의 안보리 토의 반대 입장 간의 타협
- 의의
 -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 최초의 공식입장 표명
 - 안보리에서의 단계적 처리를 바라는 한국 입장과 조화
 - 중국의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금후 추가적 조치에 중국을 개입시킬 기반 마련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4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I, 4.11.-3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5 / 1-178

1993.4.11.~30.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4.11. 북한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의장 성명 관련 담화 발표
 - NPT 탈퇴의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북한 간 양자협상이라는 평소의 주장 재 반복
- 1993.4.23. 북한, 유엔사무총장 특사 파견 거부 통보
 - 유엔 특사의 평양 방문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핵 문제는 미국·북한 간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방침 재확인

2. 한국 외무부 입장

- 유엔안보리 1차 결의가 차후 대북한 설득 및 압력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판단하에 안보리 1차 결의 채택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3. P-4(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한·일본 등 6개국 실무회의(1993.4.29.) 결과

- 결의안 초안 내용 수정
 - 한국 측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국 측 안 대로 1992.1월 안보리 정상회담 선언문을 상기하는 내용을 전문 3항으로 추가
- 결의안 추진일정
 - 4.29. 미국 측은 중국 측에 상기 수정안을 제시
 - 4.30. P-5 회의에서 미국 측은 중국 측의 성명 채택 용의에 사의를 표하면서 P-4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이 확고함을 밝힘.
 - 5.3. P-5 회의 개최, 결의안 내용에 대해 협의
 - 5.4. 비상임이사국에게 그룹별(비동맹국 및 기타국)로 결의안을 제시, 설명한 후 동일 안보리 비공개협의회를 개최하여 동 결의안을 정식 논의 등
- 미국의 대중국 설득
- P-4의 비상임이사국 설득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5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V, 5.1.-1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6 / 1-157

1993.5.1.~10.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5.7. 안보리 비공개 협의회 개최
 - 주유엔 영국대사, 안보리 결의안 제안
- 1993.5.10.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
 - 1993.5.11. 본회의에서 결의 채택 합의

778

2. 북한의 NPT 탈퇴 발효 시한 연장 문제 검토 의견

- 탈퇴 통고의 유보 불인정 사유
 - 탈퇴 통고의 유보에 대해서는 어느 조약에서도 불규정
 - 이를 인정할 경우 탈퇴 통고기간 및 탈퇴 통고의 철회 등 명시적 조항이 그 목적과 실효성을 상실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6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 5.11.-3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7 / 1-258

1993.5.11.~30.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5.11. 유엔안보리 본회의 개최
 - 유종하 주유엔대사 및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발언
 - 북한 핵 문제 관련 결의안(제825호) 채택
- 1993.5.11.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 5.12. 외무부 대변인,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 채택 관련 성명 발표
 - 5.12. 북한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 채택 관련 성명 발표

2. 유엔안보리 대북한 결의 채택

- 요지
 - 북한에 대해 NPT 탈퇴 결정 철회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수락 촉구
 -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
 -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
- 의의
 -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 현안임을 확인
 - 북한 핵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 천명
 - 안보리 추가 조치 언급을 통한 대북한 압력
 - 안보리의 북한 핵 문제 처리에 대한 중국의 참여 기반 확보

3.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제재조치 채택문제 검토

- 외무부 조약국은 1993.5.15.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제재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외무부 국제기구국에 송부함.
-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6.12. 이후에도 안보리에 의한 대북한 제재가 가능함.
 - 조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는 조약의 탈퇴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 내지 국제관습법임.
 - 유엔안보리는 IAEA의 보고를 기초로 채택, 북한의 NPT 상의 의무와 핵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5.11. 채택하였는바, 6.12. 이후에는 동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대북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음.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7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I, 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8 / 1-99

1993.6월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6.11. 북한, NPT 탈퇴 유보 결정
 - 미국·북한 제4차 접촉 후 결정

2. 북한의 NPT 탈퇴 유보 선언의 법적효력 검토

- NPT 제10조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미국·북한 공동성명 문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타 당사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타 당사국들이 적어도 3개월 전에는 북한의 탈퇴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8 7-9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9 / 1-84

1993.7~9월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7.19. 미국·북한 접촉 후 대언론 발표문 합의
 - 6.11. 미국·북한 공동발표문의 원칙 재확인
 -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의 완전하고 공정한 적용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 재확인
 - 흑연 감속로 및 연관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한다는 북한 측 구상에 대한 원칙적 지지
 - 향후 2개월 이내 미국·북한 재접촉
- 1993.9.17. 안보리 결의 제825호에 의한 IAEA 사무총장 제출 보고서 배포

2. IAEA 총회(1993.9.27.~28.) 결과

- 운영위원회, 북한 핵 문제 관련 아래 사항을 총회에 권고하기로 만장일치
 - 북한 핵 문제를 전체위원회 토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서 토의
- 핵심우방국 회의
 - 표결 시 중국 기권 유도위해 문안협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국과의 접촉 추진 합의
 - 추가 의제채택 관련 표결 시 압도적 다수확보를 위해 핵심우방 9개국 교섭대상국 분담, 지지교섭 착수 결정
- 결의안 추진 관련 문안 및 전략 협의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9 10.2.-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10 / 1-163

1993.10.2.~27. 중 북한 핵 문제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추진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10.12.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에 관한 북한 원자력공업부장 명의 담화 발표
- 1993.10.13. 안보리 결의 제825호에 의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추가보고서 (10.11.자) 제출
- 1993.10.13.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기자회견

782

2. 북한 핵 문제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추진

- 1993.11.1. IAEA 이사회 의장단, 유엔총회에서의 IAEA 연례보고서 심의 후 결의안에 북한 핵 문제 포함 준비
 - 동 결의안에 포함될 북한 핵 관련사항은 IAEA 총회 결의와 유사한 것으로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 표명과 동 이행 촉구
- 결의안 추진 필요성
 - 유엔총회의 중대 현안 거론 당위성
 - 대북한 압력 및 한국 입지 강화 수단
 - 북한의 IAEA 협상거부 구실 차단
 -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 미약
- 문제점
 - 미국·북한 접촉의 현 단계에서 유엔총회 결의 채택이 북한에 의해 또 다른 협상거부 구실로 이용될 가능성
 - 중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 필요성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0 10.28.-1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북미1과

MF번호 2023-42 / 11 / 1-250

1993.10.28.~11.2. 중 북한 핵 문제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11.1. 제48차 유엔총회,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 관련(의제14) 결의안 채택
- 1993.11.2. 유엔총회 결의에 대한 외무부 대변인 논평

2. 결의안 채택

- 요지
 -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근 불이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 표명
 -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즉시 IAEA와 협력할 것을 촉구
- 표결 결과
 - 유효 투표한 150개국 중 찬성 140, 반대 1(북한), 기권 9로 결의 채택
- 의의
 - 유엔총회에 의한 최초의 북한 핵 문제 처리
 - 북한의 국제적 의무 불이행 확인
 - 대북한 관계에서 IAEA 입장 강화
 -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1 11.3.-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12 / 1-206

1993.11.3.~12월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토의 동향임.

1. 경과

- 1993.11.4. 북한 외교부 대변인, 유엔 대북한 결의안 채택을 배격하는 담화 발표

2.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1993.12.2.~3., 비엔나) 결과

- 사무총장 보고
 - 10월 총회 이후의 북한 핵 문제 진전사항
 - 안전조치 상황의 악화 계속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전면사찰 이행 필요성 강조
 - “북한 핵이 평화적으로만 이용된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다”라는 안전조치 계속성의 단절 선언에 가까운 경고
- 평가
 -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 전달
 - 미국·북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전조치 계속성의 단절 선언에 가까운 경고
- 향후 전망
 - 북한 측이 계속 임시 및 일반 사찰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IAEA는 필요 시 특별이사회 소집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 계속성의 단절을 선언하고 안보리에 북한 핵 문제 회부 전망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3 안보리 회의 및 총회 관련 지지 교섭, 4.12.-6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14 / 1-182

1993.4.12.~6월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및 총회 논의 관련 문서임.

1. 북한 외교부, 안보리 의장 성명 관련 담화 발표(1993.4.11.)

- 미국·북한 간 직접 협상에 의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문제 해결 다시 주장

2. 외무부, 안보리이사국 주한 대사(미국, 중국, 세네갈, 예멘 제외) 대상, 북한 핵 문제 안보리 대책 관련 현황 설명 및 협조 요청(1993.4.27.~28.)

- 한국 대책 방향 설명, 한·중국 외무장관회담(1993.4.21.) 결과 설명, 안보리 논의 현황 설명
- 안보리 결의 필요성 설명 및 지지 요청

3. 북한 핵 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1993.5.11.)

- 북한에 대해 NPT 탈퇴 결정 철회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수락 촉구
-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
-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4 안보리 회의 및 총회 관련 지지 교섭, 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2 / 15 / 1-169

1993.9월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및 총회 논의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8.3.~10.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 방북
- 1993.8.31.~9.4. IAEA 협의팀 방북
- 1993.9.10.~13.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786

2. 제48차 유엔총회 시 북한 핵 문제 언급 교섭 문제

- 검토 사항
 - 긍정적 측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유지, 대북한 압력 효과 및 양자 차원의 해결 노력 측면 지원
 - 신중 고려 측면: 북한의 반발(국제공조체제 비난)이 양자 차원의 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고려 및 과도한 대북한 압력 행사에 대한 미국 측의 유보적 태도
- 총회 계기
 - 각국 기조연설
 - 제1위원회(군축, 안보) 기조연설 및 의제 토의
 - IAEA 보고서 토의
- 추진 방향
 - 총회 기조연설 및 관련 의제 토의 시 북한 핵 문제 거론 교섭
 - 언급 내용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유도

3. 외무부, 주요국 공관에 제4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해 주도록 교섭 지시 (1993.9.25.)

-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절한 대북한 압력 유지 목적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5 안보리 회의 및 총회 관련 지지 교섭, 10-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3 / 1 / 1-144

1993.10~12월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및 총회 논의 관련 문서임.

1. 유엔총회(1993.11.1.)에서 표결 채택된 북한 핵 문제 포함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결의안 투표 결과 분석

- 전체 결의안 및 북한 조항 분리 투표 시 기권국(9개국)
 - 중국, 베트남, 쿠바, 이라크, 앙골라, 가나, 기니 등
- 전체 결의안 찬성, 분리 투표 시 기권국(19개국)
 - 인도, 파키스탄,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리비아 등
- 전체 결의안 찬성, 분리 투표 시 불참국(14개국)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2. 외무부 조치

- 상기 기권·불참 국가 중 친북 성향이 강하거나 북한과의 과거 관계상 찬성이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와 과거보다 투표태도가 호의적으로 선회한 국가를 제외한 주재 또는 검임공관에 대해 배경 파악 지시
- 각국 공관은 기권 및 불참에 대한 해명을 보고함.
 - 벨라루스는 본국의 지시·건의 없이 현지에서의 독자적 행동으로 기권한 것으로 평가됨.
 - 불참국들은 예멘(북한과의 전통관계 고려), 요르단(이라크 조항에 불참하여 모든 분리투표 불참) 등을 제외하고, 전체 결의안 찬성이 중요하며 현지 사정상 불참한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 달라는 반응을 보임.

3. 평가 및 조치

- 아프리카지역 비동맹국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섭 필요
- 아세안 4개국에 대하여는 보다 진지한 설명 노력이 필요
- 우발적으로 기권한 나라들에 대해 적절한 교섭 필요

북한 핵 문제: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전16권 (V.16 주제네바대표부(CD 등) 교섭활동)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3 / 2 / 1-76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주제네바대표부의 교섭 활동에 관한 문서임.

1. 주제네바대표부 교섭활동

- 1993.3.15. 이철 주제네바 북한대사,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결정 관련 기자회견
 - T/S 훈련 영구중단 등 북한 측 요구가 실현된다면 NPT 복귀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 북한의 NPT 탈퇴 관련 CD(제네바 군축회의) 교섭 활동
 - 주제네바대사, 3.16. 및 3.17. 양일간 Shanon CD 의장 및 Berasategui CD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NPT 탈퇴가 핵확산금지 체제 및 한반도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
 -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재고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2. CD 본회의(1993.3.18.) 시, 이철 북한대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10여 개국 대표들이 북한 핵 문제 관련 기조발언을 함.

- 주제네바대사
 - 북한의 NPT 탈퇴는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사회의 여망을 저버린 행위임.
 -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결의 등 제반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함.
- 미국(Ledogar 군축대사)
 - 북한의 탈퇴이유는 Supreme National Interest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북한이 결정을 재고, 이를 철회하고 조약의무를 다하기를 바람.
- 영국(Weston 군축대사)
 - 북한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가짐.
- 프랑스(Ererra 군축대사)
 - 북한의 행위는 전체 국제사회에 관련된 문제인바, 프랑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 비난 (Condemn)함.
- 러시아(Batsanov 군축대사)
 - NPT 수탁국으로서 NPT 체제 손상에 무관심할 수 없음. 북한은 자신의 행동이 야기할 결과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이에 비추어 탈퇴 결정을 재고해야 함. NPT의 무조건적 준수가 북한의 이익은 물론 한반도의 안전에 도움이 됨.



- 루마니아(Neagu 대사)
 - 우려를 표명하며 개탄함. NPT 체제 강화가 논의 되고 많은 나라가 NPT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임을 주목함. 북한이 결정을 재고하고, NPT 및 IAEA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함.
- 불가리아(Deyanov 공사)
 - 전례 없는 행위로서 NPT 체제 및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임. 지역 안보 및 국제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3. 주제네바대사는 상기 각국 대표의 기초발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미국, 영국 등은 분명하고 강한 경고를 하면서도 비교적 절제된 어휘를 사용하였음.
- 프랑스가 서구 국가 중 가장 강한 톤으로 발언하는 점이 눈에 띄.
-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강경한 어조로 비난 발언을 하는 것이 주목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 1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3 / 3 / 1-138

1993.1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시설 사찰 추진 동향임.

- 북한 핵 문제 전개 상황
 - 1985.12월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 1991.12.3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 1992.1.30. 북한, IAEA와 핵안전협정 서명
 - 1992.3.19. JNCC(남북핵통제공동위) 발족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
 - 1992.4.10. 북한·IAEA 핵안전협정 발효
 - 1992.7.10. 북한·IAEA 보조약정 일반사항 발효
 - 시설부록은 협상 지속
 - 1992.5~12월 북한은 IAEA 임시사찰 5차례 수용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2 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3 / 4 / 1-286

1993.2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시설 사찰 추진 동향임.

1. 북한 외교부 대변인 인터뷰(1993.2.7.)

- 부당한 내정간섭이나 압력을 통해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 대미·일 관계를 개선하지는 않을 것
- IAEA 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으며, 미신고 대상도 없음.
- 군사시설물은 IAEA 사찰대상이 아님.
- 군사·정치적 목적에서 부당한 조치가 강요된다면 이에 대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 인터뷰 분석
 - 북한이 IAEA의 핵사찰 일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대응 반응
 - 특별사찰이 실시되더라도 응하지 않을 자세임을 사전에 밝히면서 자위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제적인 핵사찰 압력강화에 대비, 강경한 입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대미·일 관계개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임.

2. 북한 특별사찰 관련 보도자료(1993.2.11.)

- 북한은 IAEA의 제6차 임시사찰 시 2개의 시설에 대한 방문 요구를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 이에 따라 IAEA는 최초의 특별사찰을 강행하기로 확정하고 북한에 특별사찰 수용을 공식 요구함.
- IAEA 사무총장의 특별사찰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별이사회를 통해 사찰 수용이 다시 한 번 촉구될 것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수 있음.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4 2월 이사회 I: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3 / 6 / 1-260

1993.2월 중 북한 핵시설 사찰 논의를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동향임.

1. 북한의 특별사찰 요구 관련 보도자료(1993.2.23.)

- 2.22. 북한은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영변 핵단지 인근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
- 북한 외교부 순회대사는 IAEA 이사회에서 동 시설들이 북한의 군사시설이며, 이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792

2. IAEA 대북 특별사찰 실시 촉구 결의(GOV/2636)(1993.2.25.)

- 결의안 관련 각 이사국 표결 입장
 - 결의안 공동제안국(22)
 - 결의안 공동제안 비가담국 중 지지 입장 사전표명국(5)
 - 사전 지지 입장 불표명국 중 지지국(4)
 - 결의안 기권 입장 표명국(4)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7 북한의 NPT 탈퇴 I, 3.12.-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3 / 9 / 1-133

1.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1993.3.12.)

-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
- 미국이 핵 위협을 중지하고, IAEA 사무국이 공정성 원칙으로 복귀할 때까지 입장 불변

2. 한국 정부 대응조치

- 외무부 성명(1993.3.12.)
 -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고, IAEA의 핵의혹 불식 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8 북한의 NPT 탈퇴 II: 특별이사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3 / 10 / 1-175

1993.3월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에 따른 IAEA(국제원자력기구) 대응임.

1. IAEA 특별이사회 개최(1993.3.18.)

- 22개 이사국이 공동제안한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
 -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취한 조치 지지
 -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여전히 유효
- 북한의 NPT 탈퇴 철회 요청 및 특별사찰 수락 촉구 발언이 다수
- 북한은 이사회 결의에 입각한 어떠한 조치도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사찰도 거부

794

2. 의의

-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국제기구가 취한 최초의 대응조치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 전달 효과
-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및 사무국의 대북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NPT 탈퇴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9 북한의 NPT 탈퇴 III: 3.18.-3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3 / 11 / 1-152

1.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종료

- 팀스피리트 '93 야의 기동훈련(1993.3.9.~18.)이 3.18. 성공적으로 종료됨.
- 유사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작전 개념의 훈련으로 북침을 위한 핵 공격 훈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 선전공세임을 입증

2.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내외신 기자회견(1993.3.23.)

- 러시아의 최근 정세에 관한 평가
 - 러시아는 중국의 인접국이므로 최근 러시아 사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타국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대외정책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당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희망
 - 러시아에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중국은 평화 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
- 이붕 중국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중 중국은 서방국가와 공통이익이 되는 분야를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어떤 공통이익인가?
 - 가장 큰 공통이익은 경제, 무역방면에서의 협력이며, 두 번째는 적절한 협력방안을 찾아내어 지역 및 세계 평화를 확보하는 것임.
 - 일부 국가의 특수한 문제는 그 국가 자신의 문제이므로 국가 간 상호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중국은 한국 및 일본 주둔 미군의 철수를 희망하는지
 - 원칙적으로 중국은 어떠한 강대국이라도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찬성하지 않음.
 -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는 문제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한 중국 입장
 - 인내심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
 - 만일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간다면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인바, IAEA 범주 내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0 북한의 NPT 탈퇴 IV: 특별이사회 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3 / 12 / 1-97

1993.3.31. 개최된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논의를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 결과임.

1. 회의 결과

- 21개 공동제안국 명의로 결의안 제출
- 1993.4.1. 안보리 결의 채택
 -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사실 확인 및 시정을 촉구하고, 유엔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 결정
 - 찬성 28개국, 반대 2개국(중국, 리비아), 기권 4개국(인도, 시리아, 베트남, 파키스탄)
 - 중국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규정 및 유엔안보리 보고에 동의 불가 천명
- 3개 NPT 기탁국(미, 영, 러)는 자국 수도에서 북한의 NPT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2. 한국 외무부 성명 발표(1993.4.1.)

- IAEA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그간 대북한 협의 및 설득 노력을 감안하여 당연한 결과로 평가
-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 NPT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IAEA 사찰 수락 촉구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2 북한의 NPT 탈퇴 VI, 4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3 / 14 / 1-172

1.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전망

- 1993.2.25. IAEA 이사회, 대북한 특별사찰 수락촉구 결의 채택
- 1993.3.12.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 1993.3.16. 북한,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사찰단 파견제외(2.26., 3.10., 3.12.) 거부 회신
- 1993.3.18. IAEA 특별이사회, 2.25. 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사무국 조치 지지 결의 채택
- 1993.4.1. IAEA 특별이사회,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의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 표결 결과: 찬성 28, 반대 2(중국, 리비아)
 - 블릭스 사무총장, 결의내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발송

2.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요지

-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사실 확인 및 협정 불이행의 시정 촉구
- IAEA 헌장 및 핵안전조치협정 규정에 따라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을 유엔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 북한의 협정 불이행을 위해 IAEA 사무총장에게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 요청 및 북한 핵 문제를 IAEA에서 계속 다루기로 결정

3. 전망

- 유엔안보리는 IAEA 보고를 근거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방안 논의 전망
 - 특사 파견 등 대북한 설득 방안
 - IAEA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촉구 및 NPT 탈퇴 철회 촉구 결의 채택 등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5 8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4 / 2 / 1-152

- 북한 핵 관계 일지(1993.4~6월)
 - 4.4. 미·러 벤쿠버 정상회담 공동성명, 대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철회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 의무의 완전이행 촉구
 - 4.5. 북한 외교부, IAEA 이사회 결의(4.1.) 비난 성명 발표
 - 4.6. 유엔안보리, 북한 핵 문제 비공식 협의회 개최
 - 4.8. 유엔안보리, 북한 핵 문제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 4.9. 북한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 관련 담화 발표
 - 4.16.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대북한 사찰단 접수 요청 전문 발송
 - 5.10.~14. IAEA 사찰단 방북, 안전조치 장비 교체 및 정비 실시
 - 5.11.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제825호) 채택
 - 5.12. 북한 외교부 대변인,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규탄 성명 발표
 - 6.2. 제1차 미·북한 고위급 회담 개최
 - 6.3. 북한, 원자력 공업부 비망록 발표
 - 6.4. 제2차 미·북한 고위급 회담
 - 6.10. 제3차 미·북한 고위급 회담
 - 6.11. 제4차 미·북한 고위급 회담, 미·북한 Joint Press Statement 합의,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및 위협 불행사 보장
 - 6.16. IAEA, 북한과의 사찰 협의 재개 모색 보도자료 발표
 - 6.17. EC(구주공동체), 북한 핵 관련 성명 발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17 10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4 / 4 / 1-149

- 제3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1993.10.1.)
 - 총회 결의 채택
 - 북한의 비협조에 대한 우려 표명, 안전조치협정의 완전 이행을 위한 IAEA와 협력 촉구
 - 북한 핵 문제를 차기 제38차 총회 의제로 채택 결정
 - 참가국 85개국 중 찬성 72개국, 반대 2개국, 기권 11개국(중국, 인도 등)으로 채택
 - 외무부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10.2.)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20권 (V.20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4 / 7 / 1-128

1993년 상반기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내 북한 핵 문제 논의 및 협의 과정에서 발표된 연설문과 관련 자료임.

1. 주요 내용

-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을 둘러싼 관련국 및 IAEA 사무국의 입장 발표
- 학술회의 시 발제 내용 등

800

2. 자료 목록

- IAEA 이사회 북한 대표 연설문(1993.2.22.)
- IAEA 이사회 결의문 및 북한 대표 연설문(2.25.)
- IAEA 이사회 한국 대표 연설문(3.18./3.31.)
- IAEA 이사회 각국 대표 발언(4.1.)
- 유엔안보리 및 총회 앞 IAEA 보고서(4.12.)
- 배포된 북한 원자력부 비망록(6.3.)
- 오타와 개최 세미나 발표 논문(10.25.)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JNCC) 재개 추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4 / 11 / 1-192

1993년 중 JNCC(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개 관련 동향임.

- 남북 간 협의 시도
 - 1.11. 북한 측은 제9차 위원 접촉(1.15.) 및 제14차 JNCC 회의(1993.1.20.) 개최 제의
 - 1.13. 한국 측은 3차례 위원 접촉(1.15./18./21.) 및 JNCC 회의(1993.1.28.) 개최 제안으로 회신
 - 1.25. 제1차 JNCC 위원장 접촉이 어렵게 성사되었으나, 기존 주장 반복으로 진전 별무
 - 8.4. 한국 측은 JNCC 회의(1993.8.10.) 개최 제의
 - 8.9. 북한 측은 JNCC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최고위급 특사교환 제의
 - 8.14. 한국 측은 우선 유감을 표하고, 성실한 회담 기대 표명
- 한국 측 대책 협의
 - 4.30.~5.1. 대덕 원자력연구소에서 JNCC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 개최
 - 8.27.~28. JNCC 위원 월성 원전 및 대덕 원자력연구소 시찰

남북한 군축, 군비통제 대책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44 / 12 / 1-223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과 검증 문제’에 관한 논문 발췌 요약(한국어)(1992.3월, 자료조사 담당관실)이 수록됨.

- 원제: Verifying Conventional Force Reductions and Limitations
- 원저자: Andrej KarKoszka 폴란드 국립국제문제연구소 박사
- 내용
 - 검증 수단
 - 인공위성
 - 항공기
 - 지상배치 감응장치
 - 개별장비에 대한 인식장치
 - 특정지점 감시포스트
 - 현지 사찰
 - 무기의 파괴 및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에 대한 검사
 - 무기 생산에 대한 검사
 - 단위부대에 대한 검사
 - 불시검사
 - 유럽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 방법
 - 병력·무기·지원장비의 일정부분에 대한 감축
 - 분야별 상한선 설정
 - 군사력의 일정부분에 대한 보유취득 금지
 - 지역별 군사력의 해체를 통한 잠재적 공격 가능성의 축소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1 북한의 NPT 탈퇴 관련 각국 성명, 논평)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4 / 13 / 1-169

1993년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각국의 반응임.

1. 정부 성명 발표(17개국)

- 이탈리아, 독일, 멕시코, EC(구주공동체),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캐나다, 호주, 불가리아, 튀르키예, 몽골, 볼리비아, 니카라과, 크로아티아, 러시아

2. 외무부 성명 또는 논평 발표(15개국)

- 일본, 중국, 스웨덴,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몽골,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루마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노르웨이

3. 기타

- 클린턴 미 대통령 기자회견
- 미 하원 외무위원장 성명
- 일본 사회당 서기장 담화
- 국제민주연합 공동성명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2 아주지역 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4 / 14 / 1-174

1993년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각국의 반응임.

1. 유엔안보리 비공식 협의 시(1993.3.12.) 발언 국가

-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조치 필요성 주장(6개국)
 -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헝가리
- 북한의 NPT 탈퇴 재고 촉구: 러시아
- 중국: 현 단계에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동 건을 다루어야 하며, 유엔안보리가 다루게 되면 사태 악화 소지가 있다는 입장

804

2. 유엔안보리 비공개 협의 시(1993.4.8.) 의장 성명 채택

- 미국, 일본 등 우방 이사국들의 결의 채택 주장과 중국의 안보리 토의 반대 입장 간의 타협 결과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 NPT 및 NPT 가입국의 동 조약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 북한 핵 검증문제 해결을 위한 IAEA·북한 간 협의 지속 권장

3.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 북한 핵 문제의 다자·양자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자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양자 차원의 노력을 보완적이라는 인식에서 대북한 압력 강화에 주력
 - 유도책 마련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모색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3 아주지역 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4 / 15 / 1-99

1993년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아주지역의 반응임.

1. 파키스탄(1993.3.14.)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관련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이나 논평 발표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 파키스탄이 NPT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키스탄의 핵 정책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북한과는 전혀 다른 입장임.

2. 인도(1993.3.15.)

- 인도는 자국의 NPT 불가입이 핵확산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북한이 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상 조약상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
- 인도와 북한의 입장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처리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입장

3. 북한 특사(이종욱 부주석) 인도 방문 시 관련 동향

- 1993.3.25.~27. 인도 방문 시 이종욱 부주석은 Rao 인도 총리를 예방하고 김일성 친서를 전달
- Rao 총리는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이 남북한 간 대화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기를 희망
 - 북한의 NPT 탈퇴와 가입은 북한의 주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님을 지적하였으나, 동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인도와 북한의 입장은 상이하다는 점도 설명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4 미주지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1 / 1-120

1993년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미주지역의 반응임.

1. 멕시코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사찰 지지
- 북한의 NPT 탈퇴 규탄성명 발표(1993.3.16.)
- 북한의 NPT 탈퇴는 세계 비핵화 운동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806

2. 페루

- 페루 정부는 1993.3.29. 아래 요지의 메모랜덤을 리마 주재 북한대사관에 전달
 - NPT 목적 및 회원국 확대 지지
 - 핵무기 개발 가능 국가에 대한 정기적인 핵사찰 지지
 - 범세계적 핵확산 금지 노력 지지
 -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우려를 표명하며, 동 탈퇴 결정 재고를 촉구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5 구주지역 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2 / 1-172

1993년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구주지역의 반응임.

1. 이탈리아(1993.2.24.)

-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이탈리아 입장은 EC(구주공동체) 및 서방 국가와 동일함.
- 이탈리아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신뢰하며, 북한은 IAEA의 요청을 수락해야 함.
- 북한이 이탈리아를 포함한 서구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모든 IAEA 사찰 및 남북한 동시사찰 수용을 통해 핵개발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함.

2. 스웨덴(1993.3.11.)

- 북한의 NPT 탈퇴는 IAEA 협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음.
- 또한 매우 불행한 사태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바, 북한 당국은 재고해 주길 바람.
- 스웨덴 정부는 NPT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 건은 유엔안보리에서 해결되어야 함.

3. 오스트리아(1993.3.16.)

- 북한의 NPT 탈퇴는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고무적인 긴장완화 추세와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됨.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의 재고를 요청함.

4. 네덜란드(1993.4.23.)

-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 및 NPT 탈퇴 선언은 국제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임.
- 현재 국제사회 어떤 나라도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IAEA의 사찰은 공개·투명성을 위한 것임.
- 따라서 북한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안보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NPT에 머물면서 평화적 이용 연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 부합할 것임.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6 구주지역 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3 / 1-103

1993년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동구지역의 반응임.

1. 헝가리(1993.2.1.)

- 북한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함.
 - 이런 견지에서 북한·IAEA 간 대립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폴란드(1993.3.15.)

-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지역안보 및 전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조치일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제반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및 그간의 관련 성과를 훼손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움.
- 폴란드 정부는 NPT와 IAEA 핵안전협정을 지지하며, 북한의 NPT 탈퇴 재고를 희망함.

3. 불가리아(1993.4.9.)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해 우려함.
-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해 NPT 및 IAEA 핵안전협정의 철저한 준수를 희망함.
- 불가리아는 IAEA 이사국으로서 IAEA의 제반활동 및 동 이사회의 북한 관련 최근 결의(2.25./3.18./4.1.)를 신뢰하고 지지함.
- 북한이 IAEA와 계속 대화하고 핵안전협정 이행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NPT 탈퇴 결정의 재고를 희망함.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7 중동·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4 / 1-170

1993년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중동·아프리카지역의 반응임.

1. 예멘(1993.3.15.)

-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예멘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국제 비확산체제가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정이 가는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재고하여 남북한 간 긴장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임.

2. 코트디부아르(1993.4.1.)

- 북한의 NPT 탈퇴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 사전 계획된 성격이 강하며, 냉전 종식 후 화해·협력의 신 국제질서 조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북한의 고립을 몰고 올 것임.

3. 이란(1993.4.16.)

- 북한의 IAEA에 대한 협조 및 대처는 옳다고 보는바, 북한 측은 IAEA 요청에 따라 핵시설 사찰을 6회 허용했고, IAEA는 원하는 지역을 사찰하였음.
- 북한 측은 IAEA의 추가 사찰 요구가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이므로 불법적이라는 것임.
- 당연히 모든 국가는 그러한 사찰에 대해 예민하며 북한의 NPT 탈퇴 이유도 그 때문임.
- 북한에 대한 어떠한 성급한 결정도 북한의 강력한 반응을 초래할 소지가 크며 군사적 대결까지 갈 수 있음.

4. 이집트(1993.12.28.)

- 이집트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을 받음으로써 핵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점을 북한 측에 계속 밝히고 있음.
- 다만 군사적 조치 등 강경수단 동원은 북한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큰 만큼 가급적 피해야 할 것임.

북한 핵 문제: 각국 반응. 전8권 (V.8 기타)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5 / 1-91

1993년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관련 국제사회의 반응임.

1. S.I.(사회주의인터내셔널)의 북한 핵 문제 관련 입장 표명(1993.4.5., 런던)

- 북한의 NPT 탈퇴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거부는 조약 위반이며, 한반도에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음.
- S.I.는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위해 남북한에 조사단 또는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

810

2. IDU(국제민주연합) 총회(1993.4.12., 도쿄) 공동성명 발표

- 29개국 34개 정당대표 참석
- 북한에 대해 IAEA 사찰 수용 및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를 촉구함.
- 북한의 NPT 체제 복귀를 위해 유엔안보리가 제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3. G7 외무장관회의(1993.4.14., 도쿄) 결과

-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불응할 경우 유엔안보리에서 경제제재 조치 검토를 개시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

4. 제19차 CARICOM(카리브공동체) 외무장관회의(1993.5.14.) 공동성명

- 한반도에서 불안이 점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남북한 당국이 신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요망함.
- 북한의 NPT 탈퇴 결정 재고를 촉구함.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1 2월-3.1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6 / 1-159

1993.2월~3.15.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

1. 일본 주요 언론(1993.3.12.)

- 마이니치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배경으로는 중국,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멀어지는 등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김일성 부자체제의 유지라는 지상과제에 대한 강한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니혼게이자이
 -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하여 현 비확산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2. 러시아 Pravda(1993.3.13.)

- 각 주권국가는 어느 조약에 가입하거나 안할 권리가 있는바, 국제사회는 북한의 NPT 탈퇴 이유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될 것임.
- 왜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찰을 요구하지 않는가

3.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1993.3.15.)

- 북한의 갑작스러운 NPT 탈퇴에 대해 주요 관련국들이 보인 당혹감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고도로 무장된 북한을 합리적인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선택의 폭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반증하고 있음.
-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는 국제압력이나 제재의 효과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꿈이라고 언급함.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2 3.16.-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7 / 1-190

1993.3.16.~20.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

1. 미국 Christian Science Monitor(1993.3.15.)

-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핵사찰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나, 북한의 경제적 고립 및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비추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음.
- 북한의 이러한 처사는 향후 대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상에서의 타협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아시아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일본에게 핵무장 구실을 줄 우려가 있음.

812

2. 독일 Handelsblatt(1993.3.16.)

- 1992.10월 북한 미사일 100기가 이란으로 선적된 바 있으며, 시리아, 리비아 등이 북한 무기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더 이상 동북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님.

3. 홍콩 명보(1993.3.18.)

- 서방권에서는 중국이 과거 여러 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 것처럼 이번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위기에도 개입하여 화해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이 다시금 북한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양국 간 악감정이 생기고 화해가 어려워 질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 외교통로를 통한 대북한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음.

4. 인도 Times of India(1993.3.19.)

- 북한의 IAEA 특별사찰 거부 및 NPT 탈퇴 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가 임박하다는 서방권의 의심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3 3.21.-3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8 / 1-136

1993.3.21.~31.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

1. 독일 Der Spiegel(1993.3.22.)

- 북한은 핵무장을 하는데 있어 장차 성가신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며,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아시아에서 핵 강대국 간 핵무기 경쟁보다 훨씬 위험한 핵 군비 경쟁의 불길한 징후가 일고 있음.
-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NPT 탈퇴의 이유라고 하나, 세계는 북한이 NPT를 어겨가며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2. 인도 Hindustan Times(1993.3.25.)

- 1990.9월 소련과 한국의 관계정상화 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사를 사실상 인정하였음.
-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로 인한 핵계획 탄로를 우려하여 NPT 탈퇴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북한은 핵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bargain chip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시의 계산된 행위임.
- 북한의 핵 개발은 장기적으로 재래식 분야에서 한국의 대북한 우위입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3. 독일 헤센 평화 및 분쟁연구소 보고서 요지(1993.3월 말)

- 1992.5월 이후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이 6차례 실시됨.
 -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은 IAEA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임.
- IAEA 이사회가 특별사찰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자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것임.
 -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강력 대응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 NPT 및 대량살상 무기 제한을 위한 규정의 무실화, 유엔안보리의 무력화 등 위협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임.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4 4-5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9 / 1-150

1993.4~5월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

1. 프랑스 International Tribune(1993.4.16.)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남아공의 핵무기 폐기, 남미 핵확산방지협정 체결 등 그동안 NPT 성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일본, 대만이 핵보유를 고려하게 될 것임.
 - 또한 북한 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체제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바,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북한 핵 위협 저지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임.
- 북한 핵 위협이 팀스피리트 훈련 폐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국제사찰 수락 여부가 문제임.
- 미국 주도 하에 유엔안보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전면적 사찰 요구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첫 단계로서 석유 및 교역 금수조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파키스탄 The News(1993.5.13.)

- 파키스탄은 북한·IAEA 간 협상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NPT 탈퇴 관련 결의안 채택에 기권함.
 - NPT 가입국은 동 조약의 탈퇴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3. 일본 니혼게이지(1993.5.13.)

-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 온 중국이 북한 NPT 탈퇴 관련 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것은 북한의 자존심과 자주권이 침해되는 것을 배려한 결과임.
 - 그럼에도 북한이 강경자세를 계속 견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은 불가피해질 것임.

4. 독일 Der Welt(1993.5.14.)

- 북한은 IAEA 핵사찰 허용을 주권문제와 연계시키고 IAEA가 핵사찰하려는 곳이 군사기지라고 강변한바 있으나, IAEA·북한 간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임.
 - IAEA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연료로부터 추출된 내용물과 관련 시설에 대해 사찰을 요청하는 것일 뿐임.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5 6-9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10 / 1-112

1993.6~9월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

1.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1993.6.12.)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보류 결정으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핵 문제 협상에서 초보적인 진전을 얻은 것을 환영함.
-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미국·북한 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NPT의 보편성 확보에도 유리할 것임.
 - 중국은 줄곧 직접 관련 당사자 간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절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관련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임.

2. 미국 NYT(1993.6.12.)

- 클린턴 행정부는 능숙한 외교로 마지막 순간에 북한이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데 성공함.
 - 또한 한국의 문민정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바, 북한을 고립시키는 과거의 전략에서 벗어나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함.

3. 미국 Washington Post(1993.6.12.)

- 미국·북한 간 대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으나, 미국·북한 양측 간의 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2개 장소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4. 일본 요미우리(1993.6.12.)

-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금후 본질적인 핵 문제 해결에 북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해 올 지는 의문임.
 - 북한에 대한 양보를 놓고 구구절절 역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
- 미사일(노동 1호) 문제도 동북아 신질서 구축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북한 핵 문제: 언론 반응. 전6권 (V.6 10-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5 / 11 / 1-149

1993.10~12월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

1. 프랑스 Le Figaro(1993.11.9.)

-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내 모든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 강경파: 클린턴 행정부가 평양의 술수에 놀아나고 있다고 보고 대북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주장
 - 온건파: 경제제재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을 초래할 소지가 크며, 중국의 협조가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유효하지 못하다고 주장

816

2. 러시아 Izvestiya(1993.11.12.)

- 현재 김일성은 김정일에 대한 조용한 권력 이양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으며, 김정일은 핵무기 사용 또는 전면전 발발 시 그가 집권 기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
- 공갈배는 대개의 경우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와는 언제든 타협이 가능함.
 - 김일성은 미국과의 연락 채널 유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외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3. 영국 The Times(1993.12.7.)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유엔안보리 보고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미국은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야 함.
 -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렵다면 일본이 재일 조총련의 대북송금(연 6억 달러 규모)을 중단시키는 방안이나 북한이 이란 등과 진행하고 있는 원유수입 목적의 무기 수출을 차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북한 핵 문제: 우방국 협조 및 동향. 전11권 (V.8 기타 우방국 1: 영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6 / 2 / 1-128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한·영국 협의 동향 내용임.

1. 외무부·주영국대사관 간 소통

- 한국 정부 기본입장 및 북한 동향 등을 수시 전달
 - 계기별 정부 입장, 외무부 교섭 진전사항 포함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유엔안보리 논의 등 진전사항을 수시 공유

2. 주영국대사관 활동

- 영국 외무부 등과 협의
 - 외무부 비확산과장, 극동국장 대리, 아태 담당 국무장관 등 접촉
 - 영국 입장 파악 및 한국 정부 입장 전달 및 협조 요청
- 영국 주재 외교단 접촉
 - 주영국 중국대사관과 접촉하여 동향 탐문 및 중국 입장 파악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등 영국 언론 동향 수시 점검 및 보고
 - 북한 핵 문제, NPT 탈퇴 선언, 북한 내부 상황 등

북한 핵 문제: 우방국 협조 및 동향. 전11권 (V.9 기타 우방국 2: 독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6 / 3 / 1-73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한·독일 협의 동향 내용임.

1. 외무부·주독일대사관 간 소통

- 한국 정부 기본입장 및 북한 동향 등을 수시 전달
 - 계기별 정부 입장, 외무부 교섭 진전사항 포함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유엔안보리 논의 등 진전사항을 수시 공유

818

2. 주독일대사관 활동

- 독일 외무부 등과 소통
 - 한국 담당 과장, 핵 문제 담당 과장 등 접촉
 - 하원 외교위 전문위원과 소통
 - 한국 정부 입장 전달 및 협조 요청
- 관련 동향 탐문
 - 3.24.~25. 독일 비공식 방문한 IAEA 사무총장, 하원 외교위 군축소위 의원 면담
 - 4.26. EC(구주공동체) 핵확산방지 담당관회의 브뤼셀 개최
 - 5.22. 베를린 개최 북대서양의회기구 과학기술위원회, 북한의 핵 문제 해결 협조요청 성명 채택
- 북한 핵 문제 관련 각종 논의 동향 수시 파악 및 보고

3. Kinkel 독일 외무장관, 핵확산 금지 강화 정책 발표(1993.12.15.)

- 핵무기의 확산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
- 북한의 핵통제 거부는 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새로운 핵 보유 국가로 부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독일 측 우려 표명
- 독일 정부의 핵확산 금지 강화 정책 10개 조항
 - ABC- 무기(핵, 생·화학무기) 확산 금지와 관련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촉구
 - 1995년 NPT의 무조건, 무기한 연장 추구
 - 핵 “전염” 방지 전략
 - 대외통상 규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 핵실험 금지 강화 등

북한 핵 문제: 우방국 협조 및 동향. 전11권 (V.10 기타 우방국 3: 프랑스 및 EC)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6 / 4 / 1-139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한·프랑스 및 한·EC(구주공동체) 협의 동향 내용임.

1. 주프랑스대사관 및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 활동

- 프랑스 외무부 및 주요인사 접촉
 - 외무차관, 외무부 아시아국장
- EC 집행위원회 등 접촉
 - 유럽의회 의장, 정치협력국 직원 등
- 관련 동향 탐문
 - 4.22. 유럽의회는 북한 핵 문제 관련 결의 채택

2. EC 및 프랑스 입장

- 1993.3.12.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의 NPT 탈퇴를 비난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
- 3.17. EC 및 회원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성명 발표
- 6.14. 프랑스 외무부는 6.11. 미·북 접촉 결과에 만족하는 성명 발표
- 6.16. EC 및 회원국은 6.11. 미·북 접촉 결과에 대한 성명 발표

북한 핵 문제: 우방국 협조 및 동향. 전11권 (V.11 기타 우방국 4: 호주 및 캐나다)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6 / 5 / 1-198

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한·호주 및 한·캐나다 협의 동향 내용임.

1. 외무부, 주호주대사관 및 주캐나다대사관 간 소통

- 한국 정부 기본입장, 계기별 입장, 외무부 교섭 진전사항 및 북한 동향 등을 수시 전달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유엔안보리, 핵심우방국 논의 등 진전사항을 수시 공유

2. 주호주대사관 활동

- 1993.3.12. 호주 외무장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
- 3.19. 주한 호주대사,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고 호주의 조치 설명
 - 주중국 호주대사관을 통해 북한대사관을 접촉하여 우려 전달을 지시했다고 설명
- 6.16. 호주 외무부, 6.11. 미·북 접촉 결과를 환영한다는 성명 발표
- 7.22. 주한 호주대사,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고 미·북 접촉에 대한 한국 입장 청취

3. 한·호주 간 협의: 한국 입장 지지

- 세계인권회의 계기, 한·호주 외무장관회담(1993.6.14.) 개최
- 한·호주 외무장관회담(1993.7.28.) 개최

4. 주캐나다대사관 활동

- 1993.2.22. 캐나다 외무부, 2.18. 북한 외교관 접촉 결과를 주캐나다대사관에 설명
 - 캐나다는 베이징에서 북한과 접촉을 지속해 왔으며, 북한의 반복적 입장 설명을 청취
- 3.12. 캐나다 외무부 아태차관보는 주캐나다대사에게 북한 핵 문제 진전 동향 및 캐나다 측 입장 설명
 - 북한의 강경 발언은 레토릭으로 평가
- 3.12. 캐나다 외무장관, 북한의 NPT 탈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 3.23. 캐나다 외무부, 3.24. 북한 외교관 접촉 결과를 주캐나다대사관에 설명
 - 캐나다 외무장관 성명 등 북한 핵 관련 입장 전달했으나, 기존의 강경한 북한 입장을 청취
- 3.31. 캐나다 외무부 국제안보국장,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경우 해군력 동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 미국이 주도하고 캐나다 및 호주가 참가하는 형태 예상

5. 한·캐나다 간 협의: 한국 입장 지지

-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1993.7.26.) 개최

북한 핵 문제: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6 / 7 / 1-117

1993.1~4월 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동향 관련 내용임.

1. 미 상원 정부문제위원회, 청문회 개최(1993.2.23.)

- 올시 신임 CIA 국장의 증언
 - 북한은 이미 시리아와 이란에 스커드 C형 미사일을 판매한 바 있으며, 리비아와도 미사일 판매에 합의한 것이 분명함.
 - 북한은 이미 핵폭탄 하나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핵물질을 제조하고 나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하여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영변의 2개 원자로는 플루토늄 제조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보고 있음.

2. 에크만 미 하원 외무위 아태 소위원장,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1993.3.12.)

-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면 이는 그간의 북한 주장이 상투적인 거짓이었음이 드러남.
- 북한은 NPT 상 의무를 존중하여,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해야 함.

3. 해밀턴 하원 외무위원장, 북한의 NPT 탈퇴 철회 촉구 성명 발표(1993.3.15.)

- 북한의 NPT 탈퇴 발표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만 가중시키는 것임.
- 북한이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IAEA 사찰 허용을 촉구함.

4. 로브 미 상원의원 외 4인, 북한 핵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결의안 제출(1993.4.2.)

- 북한의 NPT 탈퇴 규탄
- 미국 등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사찰을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핵 문제: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2 5-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6 / 8 / 1-100

1993.5~7월 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동향 관련 내용임.

1.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북한 핵 문제 관련 청문회 개최(1993.5.26.)

- 갈루치 차관보 발언
 -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수락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토의조차 불가능함.
 - 북한이 NPT 복귀 거부 시 미국은 안보리에서 추가조치를 강구할 것임.

822

2. 미 상원 본회의, 로브 의원 결의안(북한의 NPT 탈퇴 규탄 결의안) 채택(1993.5.27.)

3. 미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제재 관련 법안 통과(1993.7.15.)

- 법안 내용
 - 미국의 대북한 상품 및 기술교역과 대북한 여행 금지
 - 북한이 NPT 조약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허가

북한 핵 문제: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3 9-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6 / 9 / 1-72

1993.9~12월 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동향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 FY94 국방수권법안 심의 시 북한 핵 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Pete Srtt 의원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채택(1993.9.13.)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수락 거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미 대통령과 미 우방국,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최단시간 내 IAEA 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함.
- 북한이 핵 문제를 명확히 할 때까지 미국 및 우방국은 무역·금융·기타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

2. 미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안보·국제기구·인권소위원회, 청문회 개최(1993.9.14.)

- 북한 관련 증언 내용
 - 1984년 북한은 이집트의 스커드 B형 미사일과 발사대를 들여와 이를 역순으로 개발하여 스커드 A형 완성
 - 1990년대 후반 북한은 이란과 새로운 협정을 맺어 스커드 C형 미사일의 대이란 공급 및 이란 내 스커드 C형 미사일의 조립, 제조를 위한 기존시설 개조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1991.1월 부터 약 100기의 스커드 C형 미사일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
 - 북한은 우라늄 농축으로 이미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3.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회, 한국 관계 청문회 개최(1993.11.3., 증언 요지)

- 미 의회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당근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압력을 행사해야 함.

4. 미 하원 외무위원회, 비확산 정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1993.11.10., 증언 요지)

- 최근 북한의 IAEA 사찰 요청 거부 등에 대한 태도는 실망스러움.
- 북한이 이미 1~2개 핵폭탄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재처리 했을 가능성이 있음.

5. 로브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북한 핵 관련 언론 보도문 발표(1993.11.19.)

- 북한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이해해야 할 것임.

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 탈출 노동자 문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46 / 10 / 1-193

1993년 중 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 문제 관련 내용임.

1. 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 운영 현황(1993.1.3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보고)

- 1992년 기준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9개 작업장에 총 8,493명, 아무르주 탄다 인근 7개 작업장에 8천 명의 북한인 벌목노동자
- 북한과의 협약에 따라 북한 측은 노동력만 제공, 생산량의 35%는 북한 측에 제공
- 러시아 현지의 노동력 부족으로 북한에 의존하여 목재 생산·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824

2. 벌목장 탈출 북한인 망명 사태

- 상기 벌목 수용소의 열악한 내부생활 조건, 인권침해 및 자연환경 훼손 등 문제 야기
- 북한 노동자 일부가 벌목장을 탈출하여 주러시아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귀순, 또는 러시아 현지 거주 허가 취득 협조 요청 사례 빈발(연간 1백여 명)
- 북한 벌목공들의 귀순 및 협조 요청에 주러시아대사관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러시아 당국에 협조 요청

3. 북한 벌목노동자 보호 관련 활동

- 주러시아대사는 1993.2.9. 미키타예프 러시아 공민권위원장과의 북한 벌목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 협의
- 벌목노동자 보호를 위해 한국 국적 부여 방안 검토(3.7.,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보고 등)
 - 4.14. 외무부 내 동 문제 검토회의에서 북한인 망명 허용 문제 검토 결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 통일 추진
 - 외무부 검토를 거쳐 주러시아대사관 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동 북한인에 대한 신변보장 및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러시아 당국에 협조 당부
- 외무부는 시베리아 북한 벌목장 내 인권침해 문제 작성(1993.7월, 외교정책실), 북한 망명자 수용 문제에 관해 검토
- 북한·러시아 간 임업계약 갱신 관련 인권조항 추가 추진 등 상황 개선 동향 파악
 - 이와 관련 11.19. 주러시아대사관 측의 러시아 외무성 인권국 면담 등

남북관계 및 북한관계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46 / 12 / 1-232

1992~93년 중 남북 관계 및 북한 관계 자료 관련 내용임.

1. 한·중국 수교 이후 북한 동향

- 주중국대사는 1992.8.29. 동 대사관 김하중 참사관이 8.28. 장정연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한·중국 수교 발표 이후 북한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중국 측의 평가를 문의한바, 동인의 반응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이 한·중국 수교에 대해 커다란 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남북한 유엔가입과 남북 상호 간의 기본합의서 서명 등 남·북한 간의 관계 변화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해 한·중국 수교의 필요성을 성실히 설득하여 왔는바, 이러한 중국 측의 꾸준한 설득 노력도 주효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북한은 상금 한·중국 수교 사실을 주민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수교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동요로 내부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동 수교 사실은 각급 기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보임.
- 김 참사관은 북한 측의 침묵 이유에 대해 일부 언론이 중국이 한·중국 수교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해 식량과 석유 원조 또는 김정일 방중 초청 등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장 부국장은 중국은 한·중국 수교 대가로 북한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한 바 없다고 강조함.

2. 중·북한 관계

- 외무부는 1992.9.5. 한·중국 수교 전후로 후쿠다 하지메 일본사회당 의원이 북한과 중국을 방문, 김용순 국제부장 및 강택민 총서기 등과 면담한바, 9.3. 동인이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접촉 시 알려준 중·북한 관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주중국대사관에 통보함.
 - 한·중국 수교에 대한 북한 반응: 8.23. 김용순 국제부장은 지난 4월 양상곤 국가주석 방북 시 연내 한·중국 수교 원칙에 대한 시사가 있었으며, 수교 일자를 통보해 온 것은 수교 약 1주일 전이었다고 밝힘.
 - 김일성 방중 추진: 동 의원이 북한 노동당 간부 및 중국 공산당 간부와 면담 시 감지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의 10.1. 국경절이나 11월 공산당대회를 전후하여 김일성의 방중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3.6.1.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1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46 / 13 / 1-208

1993년 중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관련 내용임.

1. 베트남 여행 자유화 조치

- 외무부는 1993.3.4. 한국 국민의 베트남 여행을 3.8.부터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베트남 주재 교민들에게 주지시커 줄 것을 주베트남대사관에 지시함.
 - 베트남은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상 국민의 특정 국가 여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으로 신고 등 절차가 필요 없게 됨.
 - 다만, 베트남인의 한국 입국사증 발급은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차질 없길 바란다고 부연 설명(동 제도의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

2. 북방교류지침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4.1.)

- 경위
 - 1989.5월부터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효율적인 관계 개선,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출입국, 경제협력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규제: 중국, 러시아 등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베트남 등 17개 국가가 규제대상
 - 국내외 여건 변화, 출입국 신고허가제에 따른 경제·통상교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동 지침 전면 재검토 필요성 대두
- 회의 결과
 - 동 지침 중 통상·경제교류 규제항목 삭제
 - 러시아 등 CIS 국가, 베트남을 지침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등 4개국만 규제대상
 - 중국은 중국동포 불법체류, 관광수지 적자 및 안보상 문제 등을 고려, 당분간 지침 적용대상으로 유지
 - 중국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규제 해제방안 마련
- 조치사항
 - 상기 회의 결과에 따라 동 지침 개정 추진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제4차. 평양, 1993.6.15.-18. 전2권 (V.1 2월-6.1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6 / 14 / 1-173

1993.6.15.~18.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관련 내용임.

1.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 외무부는 1993.5.20. 제4차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가 1993.6.15.~18.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아래 사항을 주파키스탄대사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등 19개 공관에 전달함.
 - 주재국의 회의 참가 여부 및 대표단 구성, 북한의 대주재국 회의 참가 교섭 동향 등 관련사항 파악 보고
 - 북한이 회의에서 핵 문제 관련 선전책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바, 주재국이 평양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여사한 회의에서 핵 문제 거론이 적절치 않다는 점과 거론되는 경우 한국 입장을 유념하여 대응해 주도록 요청
 - 아울러 남북한 간 소모적 대결 외교 지양을 위해 비동맹회의에서의 한반도 문제 불토의 및 최종문서에 한반도 조항 불포함이 한국의 기본입장임을 주재국 측에 적절히 전달

2. 북한 작성 최종문서 관련 외무부의 대처

- 외무부는 1993.5.26. 상기 19개 공관에 추가적 지시를 아래와 같이 전달함.
 - 북한이 작성한 최종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한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need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struggle of the Korean peopl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ful unification and great national unity.”
 - 이와 관련, 외무부의 기본입장은 한반도 조항 채택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균형적 입장에서 투쟁(struggle)이 아니라 노력(efforts)을, 그리고 통일 3원칙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 표제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북한이 직접 선언문을 작성하고 채택을 주도할 것임에 비추어, 한국 입장을 반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나, 가급적 한반도 문제 불토의와 한반도 관련 조항 불포함 입장을 주재국 측에 설명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제4차. 평양, 1993.6.15.-18. 전2권 (V.2 6.15.-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46 / 15 / 1-201

1993.6.15.~18.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결과임.

1. 회의 성격 및 연혁

- 1983년 제7차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정보·통신체계에서의 선진·개도국 간 불균형 시정 및 비동맹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옴.
- 전 비동맹 회원국이 참가대상이나, 1993년 회의에서는 55개국이 참가함.
 - 아주(10), 미주(4), 중동아(39), 구주(2)

2. 회의 결과

- 한반도 조항
 - 최종 선언 중 한반도 조항은 북한 측의 Draft Declaration 중 struggle이 efforts로 수정된 아래 조항이 채택됨.
 -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need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ful unification and great national unity."(64항)
- 북한 핵 문제 등 북한 태도
 -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며, 여타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비교적 타협적인 자세를 보임.

3. 각국 한반도 관련 언급내용

- 대부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한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으나, 짐바브웨, 라오스, 탄자니아가 북한의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지지를 표명함.

4. 평가

- 북한이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Draft Declaration 한반도 조항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여론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동 회의가 선언적 내용보다는 예산·조직 등 실질적 문제에 관심을 주로 보여 최근 비동맹 운동의 변화 양상을 반영함.

비동맹 상임 각료위원회, 제2차. Bali(인도네시아), 1993.5.10.-1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46 / 16 / 1-129

1993.5.10.~13.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차 비동맹 상임 각료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37개 회원국 중 북한, 알제리,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35개국
- 북한 측은 김영남 외교부장 등 총 7명의 대표단 파견

2. 회의 의제

- 남북대화 활성화 방안
- 남남협력 증진 방안
-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정상회의 개최 문제
- Ad-hoc Group of Eminent Persons for Development Issues 설치 문제

3. 회의 결과

- 전반적으로 비동맹이 냉전체제 하에서 선진국에 대해 대결적 태도를 보여 온 자세를 탈피하여 상호의존 및 공동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타협적 자세를 보임.
- 비동맹 의장국(1992~94)인 인도네시아가 G7 정상회의(1993.7.7.~9., 도쿄) 참가를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비동맹의 대선진국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4. 평가

- 비동맹과 77그룹 등 기타 개도국 경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함으로써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등 비동맹 내 개혁 추구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됨.

한·미국 안보협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3-46 / 17 / 1-164

1993년 중 한·미국 안보협력 정책 관련 내용임.

1. 한·미 안보협력 평가 및 구상

- 국제환경 변화 평가
 - 구소련 몰락으로 전통적 안보위협 감소
 - 경제·통상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 부각
 - 대량파괴무기 확산 및 지역분쟁 가능성 증대
 - 환경, 마약, 밀수, AIDS 등 준 안보적 문제 부각
 - 국제정치의 세력구조 변화 및 재편성 진행
-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
 - 대외 정책 기조: 경제우선주의, 민주주의 신장, 절충노선 추구
 - 국방·안보 정책: 신 국제질서에 따른 전략 추구, 국방비 삭감 및 동맹국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전력구조 개편과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 추진, 재충전 능력 유지로 미래위기 대처
- 미국의 대아태지역 안보 정책
 - 안보 정책 전망: 아태지역의 중요성 재평가, 적정군사력 유지, 지역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 증대, 주둔미군 감축 및 역할 변경 추진, 다자안보 협력 모색
 - 한반도 정책 전망: 기본구도 유지, 기존 정책 수정 가능,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다원적 방안 도모,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우려
- 한·미 안보협력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유지
 - 지속 협의사항: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방위비 부담에 대한 원만한 합의, 기존 안보협의 채널 활성화,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 및 대일본 정책 추진에서 공동보조, 북한의 돌발상황 공동 대비, 한국의 균형외교에 대한 미국의 이해 유도

2. 참고자료

- 클린턴 행정부 하의 한·미 안보협력(1993.2월,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 한국 방위의 연합군 체제와 미국의 확고한 공약 - 과거, 현재와 미래(9.27., Gary E. Luck 유엔군/한미연합군/주한미군 사령관)
- 북한 핵 개발 관련 RAND 연구소 Simulation(11월, 미주국 북미2과)
- 한반도 분쟁 발발 가능성 검토(RAND 연구소 보고서)(12월, 미주국 북미2과)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3-47 / 1 / 1-109

1. 일본 방위백서

- 1993.7.30. 일본 국무회의는 199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
- 주요 내용
 - 군사정세: 세계 군사정세, 아·태 군사정세, 한반도 군사정세, 미국의 국방정책, 러시아 군사정세, 중국 군사정세
 - 일본의 방위 정책
 - 자위대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2. 1993.8.24.자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사

- 일본 방위청은 내년 가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보장 문제 논의를 위한 군 관계자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당사국들과 합의를 시작함.

미국의 국방정책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7 / 2 / 1-136

1993년 중 미국의 국방 정책 관련 내용임.

1. 동향 파악

- 각종 보고서 및 인준 청문회 등을 통해 국방 정책 동향 파악
 - 인준 청문회: Aspin 국방장관, Shalikashvili 합참의장
 - 보고서: 하원 군사위 보고서, 연례 국방보고서, 국방예산연구소 보고서,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 언론보도: 병력, 함정, 군사기지 등 동향 보도

832

2. 주요 동향

- 상황 평가
 - 핵 확산 위협 증대
 - 각종 분쟁 가속화
 - 구소련의 개혁 실패 가능성
 - 미국의 경제력 약화
- 정책 기조
 - 군사력 개편 필요, 국방예산 및 인원 감축
 - 동맹국의 국방 역량 강화 및 방위비 분담 증대
 -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미군 주둔은 필요

미국의 신 군사전략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7/3/1-148

1993년 중 미국의 신 군사전략(Win-hold-win Strategy) 관련 내용임.

1. 신 군사전략 배경

-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는 군사전략 불가피
 - 구소련 붕괴로 인한 탈냉전 시대 도래
 - 새로운 안보위협 대처 방안 강구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군사전략 필요
 - 국방예산의 감축 및 효율적 사용

2. 신 군사전략 요지

- 2개 전장 동시 승리를 위한 전략 구상
- 적정 수준의 해외주둔 미군 유지
 - 유럽 및 동북아 각 10만 명 규모 병력
- 무기 현대화
- 전략적 핵전력 유지
- 1999년까지 군사력 재편 추진

3. 신 군사전략 평가

- 미국의 국내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된 군사전략의 청사진
- 당초 1개 전장 중심에서 2개 전장 동시 승리 전략으로 현실적 수정
-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재확인

미국의 전쟁 수행 권한 논의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47 / 4 / 1-68

1990~93년 중 미국 내 전쟁 수행 권한 논의 관련 내용임.

1. 미 의회의 전쟁 권한 결의(W.P.R.: War Powers Resolution) 논의(1990.9월)

- 입법 배경
 - 월남전 당시 닉슨 미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재량권 확대와 대의회 협의회가 소홀해지자 미 의회는 1973.11월 W.P.R.을 통과시켜 미 의회의 통제 강화를 도모
- W.P.R. 내용
 - 대통령의 대의회 협의 및 보고 의무
 - 군사력 사용 중지: 미 의회가 군사력 사용 보고 접수 후 60일 이내 선전포고 결의나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

2. 클린턴 미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및 전쟁 권한에 관한 논쟁(1993.10월, 외무부장관 보고사항)

- 배경
 -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위기 대처의 일관된 모델이 미정립되어 미 의회 일각에서 불만 제기
 - 전쟁 수행에 관한 미 의회의 권한 강화 움직임은 대통령의 해외파병과 그 임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남.
- 상원 국방예산 세출법안 심의 관련, 제출된 주요 수정안 내용
 - Bird 수정안, Dole 수정안
- 미 의회의 전쟁 권한에 대한 입법화 움직임
 - 입법 추진은 의회 내에서 미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의회의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외교정책 수립과 관련한 의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의, 제25차. 서울, 1993.11.3.-4. 전3권 (V.2 공동성명서 문안교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7/8/1-95

- 공동선언 문안 교섭(1993.11.3., 국방부)
 - 참가자
 - 한국 측: 신기복 제1차관보, 박용욱 국방부 군비통제관 외 6명
 - 미국 측: Thomas Hubbard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 교섭 결과
 - T/S 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T/S 훈련이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필요하다는 선에서 언급
 -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위협에 대비, 역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단호한 입장 강조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의, 제25차. 서울, 1993.11.3.-4. 전3권 (V.3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47 / 9 / 1-213

1993.11.3.~4. 서울에서 개최된 제25차 한·미국 SCM(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권영해 국방부장관
- 미국 측: Les Aspin 국방장관

2. 회의 결과

- 한·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전환기적 군사위협 실상 공동 인식
- 양국 신정부 간 한·미국 안보협력 관계의 공고성 재확인
- 전시 연합사령관의 미 7함대 작전통제 개념에 상호합의
-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 공동보조 재확인
- T/S 훈련 실시 문제 입장 조율
-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1994.12.1.부 전환 합의

한·미국 정책검토위원회(PRS) 회의, 제16차. Honolulu, 1993.8.2.-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7 / 10 / 1-153

1993.8.2.~5.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16차 한·미국 PRS(정책검토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한국 측: 장성 국방부 정책실장 외 9명
- 미국 측: 로스 국방부 부차관보 외 19명

2. 회의 결과

- 방위비 부담 문제
 - 특별협정 개정안 합의
- 전환기적 안보 위협 공동대처
 - 북한 내 돌발 사태 발생 시 구체 대비책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미국 무기 구입
 - 미국 측은 한국의 비미국제 무기구입 경향에 우려 표명

3. 평가

- 방위비 부담 등 주요 현안을 타결하여 발전 기반 강화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47 / 11 / 1-145

1993년 중 주한미군 철수 논의 관련 내용임.

1. 위스너 미 국방부차관 내정자,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답변(1993.3.4.)

- 답변 요지
 - EASI(동아시아전략구상) 변화 가능성: 전진배치 전략의 계속 유지 필요
 -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재개시기 예측은 곤란

838

2. 미 국방부, 해외 미군기지 폐쇄 및 축소계획 발표(1993.5.9.)

- 한국 내 기지 감축현황 및 전망
 - 주한미군 기지는 3회 폐쇄 또는 기 축소
 - 1992년 말로 추가 10개 기지에 대한 폐쇄 또는 축소 조치 완료
- 추진계획
 -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3개 군으로 구분, 통합 운영

3. 페리 미 국방부 장관, 미 상원 증언(1993.5.20.)

- 주한미군 감축
 -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최소 3만 명의 주한미군 유지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전4권 (V.1 1992.6월-11.1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47 / 15 / 1-103

1992년 중 한·미국 간의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협의 및 동향임.

1. T/S 훈련 관련 북한, 연합회의 개최(1993.10.27., 평양)

- 북한은 10.27. 평양에서 당·정·단체 연합회의를 개최
-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시 모든 대화와 접촉을 동결할 것이라고 선언
- 동 훈련 저지를 위한 범민족운동 전개

2. T/S 훈련에 관한 정부 입장

- 외무부는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수립, 주요 공관에 통보하여 북한의 선전 책동 시 북한의 허위 주장 반박 및 한국 입장 설명자료로 활용 추진
 - 팀스피리트 훈련은 1976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통상적인 방어적 성격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등을 감안하여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상 법적 의무인 남북 상호 핵사찰 실시에 대해 회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임.
 -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실시를 위한 준비 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함.
 - 한국은 북한이 하루속히 IAEA 사찰 분 아니라 남북 상호 사찰도 수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전4권 (V.2 1992.11.14.-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7 / 16 / 1-111

1. 팀스피리트 훈련 국내 언론 보도(1992.11.14.)에 관한 국방부 입장

- 제24차 SCM(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미 합의한대로 북한이 남북 상호핵사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T/S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중임.
- 합참의 '93 합참 지휘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내년도 T/S 훈련 방법으로 보도된 '기동훈련은 한국군, 미국은 지휘소 훈련만 한다'는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까지 발전시킨 사실이 없음.

840

2. 북한, T/S 훈련 불중지시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위협 관련 문건(1992.11.16., 외교정책기획실 특수정책과)

- 주러시아 및 주중국 북한대사 기자회견
 -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기자회견 및 발언(10.29. 및 11.14.):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시 남한과 모든 대화 접촉을 동결할 것
 - 주창준 주중국 북한대사 기자회견 발언(11.2.): T/S 훈련을 감행한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들이 좌절당할 것
- 주러시아 북한대사, 러시아 외무부 아·태 국장 방문 및 T/S 재개 반대 입장 표명
 - 러시아 외무부 아·태 국장은 주중국대사 접촉(11.13.) 시 T/S 훈련 재개 시 북측 태도의 예측 불가능함에 대한 우려 표명
 - 동 국장은 T/S 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
- 평가 및 전망
 -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1992.12.21.~24., 서울)도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당국자 간 대화는 동결되더라도 정당, 단체 및 민간인들의 대화와 접촉은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음.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전4권 (V.3 1993.1-4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8 / 1 / 1-28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협의 및 동향임.

1.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및 훈련 실시 발표

- 훈련기간: 1993.1.21.~4.20.(미 증원부대는 1.9. 본토 출발, 1.27. 부산 상륙, 4.20. 본토 귀환)
- 훈련규모: 한국군 약 6만 6천 명, 미군 2개 군단 및 4개 사단 약 5만 4천 명, 1개 항모전단
- 한·미 양측은 1월 후반 실시 예정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대북 핵사찰 분위기 등을 고려해 1.26.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 및 동시 발표
 - 이와 관련, 훈련 통보 경로로 한·미 간에 기 합의된 바에 따라 기본적으로 한국이 북한에 통보하도록 하되,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 기도를 감안하여 정전협정상 군정위를 통해서 통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 1.27. 북한 외교부 훈련 재개 비난 성명 및 1.2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의 비난 성명 발표, 유엔안보리 공식문서 내지 외교망을 통한 비난 성명문 배포 등 북한 측은 훈련 재개 저지 활동을 광범위하게 실시
- 3.11.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동 훈련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여하한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도 반대해온 바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안정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요지로 답변

2. 북한의 훈련 재개 관련 비난 및 한·미 간 대응

- 1994년도 훈련 실시 문제와 미·북한 핵 접촉 관련 1993.8.30.자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 한·미 양국은 훈련 실시 여부에 관해 아직 아무런 결정 없음을 언론 설명자료로 배포함.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전4권 (V.4 참관단 초청)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8 / 2 / 1-109

1993년 중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관련 제3국 참관에 관한 내용임.

1. 대북한 통보 및 참관 초청

- 1982년부터 훈련의 방어적 성격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 제고 차원에서 북한 및 유관국에 통보
 - 1991년부터 대북한 통보는 정전협정하 군정위를 통해 시행
- 대북한 통보 관련, 동 훈련의 한국영토 실시에 따른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과시 차원에서 한국 측이 담당 추진
 - 군정위를 통한 황원탁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 전달을 추진하되, 북측 거부 시 공동일직 장교 회의에서 구두 낭독
 -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 연락사무소장 명의 전통문 전달(1993.1.26.)

2. 유관국 통보 및 참관 초청

- 대상국가
 - 중국 및 중립 감독 위원회 4개국(체코,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군정위 및 외교경로로 통보 및 참관 초청
 - 러시아: 외교경로로 통보 및 참관 초청
- 각국 2인 이내 참관단이 야외 기동훈련 참관
- 외무부는 동 훈련 실시 대외발표(1993.1.26.) 즈음 상기 6개국 측에 통보 및 참관 초청

3. 훈련 실시 통보 및 참관 초청에 대한 반응 등

- 폴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참관 동의 표명
 - 싱가포르 참관 신청
- 중국은 참관 불참 결정
- 주한 무관단 28개국 42명 참관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8/3/1-74

1.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 관련 문제

- 1992.10.8. 제24차 한·미 SCM(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말 이전에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
- 리스카시 연합사령관은 동 이양이 유엔군사령관의 위상 약화와 유엔사 권한 및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 의견 개진
 - 외무부는 현 유엔사 기능을 보장하고, 정전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유엔사와 한국 합참 간의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 등 보완방안 검토
- 외무부는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주일본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
 - 1978년 한·미 연합사 창설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관에서 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면서 유엔사는 정전 업무만을 수행하는 유엔의 보조기관 성격으로 존재하므로, 유엔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엔사 후방사령부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2. 내부 검토자료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1993.1.28., 외무부 북미2과)
 - 작전통제권의 개요, 한·미 간 협의 배경 및 합의사항, 미 측 우려사항에 대한 한국 입장 등

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SOP) 검토. 전4권 (V.2 1992.11-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8 / 5 / 1-66

1. 기관 간 약정 체결 관련 실무협의 자료(1992.11.12., 외무부 조약국)

- 토의사항
 - 기관 간 약정의 운용실태
 - 기관 간 약정 체결 업무의 개선방안
- 기관 간 약정의 운용실태
 - 운용 취지, 체결 절차, 관련 문제점
- 기관 간 약정체결 업무의 개선방안
 - 관계부처에 대한 체결 절차 관련 주의 환기, 외무부의 지도기능 재고

2. 통합검증체제 구축방안(핵사찰 중심)

- 대원칙
 -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이행은 반드시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
 - 현장사찰은 검증의 한 수단
 - 핵 관련 정책수립, 협상과 사찰은 동시에 병행 추진되어야 함.
- 결정적 고려요소: 검증의 목적과 대상, 부수 달성목적, 정보의 출처
- 남북 상호 핵사찰
- 통합 검증체제 구축방안
 - 핵사찰 관련 정책·협상·집행과정 분석
 - 통합검증체제의 필요성
 - 통합검증체제 구축방안
 - 사찰 결과 처리과정
- 결론
 - 핵사찰의 정책, 협상, 집행의 관련 부서별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되 검증 집행은 국방부 주관으로 단일화된 통합검증체제를 유지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비태세 확립

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SOP) 검토.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8 / 7 / 1-187

1. 실내 사찰 모의훈련

- 목적
 - 불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찰팀이 전 과정을 경험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 필요
- 1993.6월 현장사찰 준비를 위한 실내 훈련 매뉴얼 발간
 - 테이블 위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 전 과정을 이해하고, 사찰을 계획하고, 미 예측 상황에 대처 준비
 - 사찰 요원이 하나의 팀으로서 체계적 분업을 통해 전 과정을 경험하고 사찰을 진행
 - 현장사찰 구성요소 및 과정, 이에 필요한 장비 운용 및 기술적 조치 등을 모의훈련으로 교육

2. 참고자료

- Conducting a Tabletop Simulation and Elements of an On-site Inspection(June 1993)

용산가족공원 부지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부지 사용문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8/8/1-30

1.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가족공원으로 이전하는 문제 토의

- 국방부차관 주재, 용산계획 실무위원회 개최(1993.10.11.)
 - 국민여론 수렴·집약 과정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청회, 전문가 토론 등 실시
 - 동작대교 연장도로의 가족공원 관통 문제 검토 필요
 - 국립박물관과 가족공원의 조화 문제: 대규모 주차장 건립 관련 상충 측면 해소 필요
 - 고속전철역을 용산역으로 할 경우 용산계획 전체와의 조화 문제 검토 필요

2. 상기 실무위원회 결과를 기초로 1993.10.13. 국무총리 주재 용산계획위원회(조찬회의) 개최 예정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48 / 9 / 1-75

1993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 관련 내용임.

1. 동구권 국가들의 NATO 가입 추진 동향

- 동구권 국가들의 NATO 가입 추진 움직임 관련,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4개국 지도자에게 보내는 1993.9.30.자 서한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옐친 대통령 서한 요지
 - 독일문제의 최종 종결에 관한 협정(1990.9월)을 상기, 동구권 국가들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러시아 및 NATO가 동구 안보를 공동 보장할 필요 주장
- 동구권 국가의 NATO 가입 추진 동향
 -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는 3개국 정상회담 공동성명(1991.10월)을 통해 NATO 가입을 공식 선언한 이후 줄곧 NATO 가입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 옐친 대통령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동구 3국 순방 시(1993.8.24.~26.) 동구권의 NATO 가입 불반대 입장 표명 이후 동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국제적인 관심 고조
- 분석 및 평가
 - 금번 서한은 지난 8월 말 옐친의 동구 순방 시 발언을 반복한 것임.
 - 동구권의 NATO 가입 문제는 NATO 개편 문제와 함께 맞물려 장기간 쟁점화 예상

2. NATO 외무장관회의 및 NACC(북대서양협력위원회) 회의(1993.12.2. 및 12.3., 브뤼셀)

- WEU(서구동맹)과의 협조 방안 및 NACC 국가의 NATO 가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
- 회의 결과
 - 구주동맹조약 발효 축하 및 WEU의 NATO 군사 자산 사용 잠정 승인
 - 동구권 국가의 NATO 가입 희망과 관련, 미국이 제안한 Partnership for Peace 계획 승인
 - 분쟁해결, 평화유지를 위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역할 강조
 -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및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평가 및 전망
 - 그간 동구권 국가의 NATO 가입 조건충족을 요구해 온 미국이 동구권 국가와의 NATO 가입 전 협조단계를 규정한 Partnership for Peace 계획을 제시하고 기타 NATO 회원국이 동의함으로써 조만간 NATO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서구2과

MF번호 2023-48 / 10 / 1-80

1993년 중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CSCE 경제포럼(1993.3.16.~18., 체코)

- 주제
 -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 특히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르는 문제점 검토
- 회의 결과(체코 경제장관의 개회사 요지)
 - 개혁정책의 근간은 사유화, 민영화임.
 - 외국인의 대체 투자는 특별한 우대조치 때문이 아니라, 체코의 정치·경제적 안정 때문에 유입되고 있음.

2. CSCE 특별이사회(1993.4.28., 프라하)

- 주제
 - CSCE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사무총장 선출 건
- 회의 결과
 - Silhelm Hynck 주스웨덴 독일대사가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됨.

3. 제4차 CSCE 이사회(1993.11.30.~12.1., 로마)

- 참가자
 - 총 53개 회원국 중 52개 회원국의 외무장관 참석(유고 제외)
- 회의 결과
 -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CSCE의 역할 강화
 - CSCE 조직 및 기구 강화: CSCE 사무국을 비엔나로 이전하고, 정무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로 상설위원회 설치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3.5.20.-21. 전4권 (V.1 개최구상 및 준비 I(1-3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48 / 11 / 1-170

1993.5.20.~2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를 위한 1993.1~3월 중 개최 구상 및 준비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최 구상

- 1993.1월 싱가포르, 아세안을 대표하여 아세안 측 제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
 - 1993.5월 또는 7월 중 2일간 개최
 - 당장 민감한 현안보다는 주로 장기적인 문제 중심으로 대화상대국 제안에 따라 결정
 - 정례화 여부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결정
 - 회의 대표는 외무차관 레벨
- 대화상대국 입장
 - 일본: 적극 찬성
 - 호주, 뉴질랜드: 환영
 - 미국, EC(구주공동체), 캐나다: 긍정 반응
- 한국 정부 입장
 - 1992년도 아세안-PMC에서 역내 안보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국·일본 등 여타 대화상대국의 참가가 확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고위관리회의의 참가를 긍정 검토

2. 아태지역 안보대화에 대한 한국 측 기본입장(1993.3월,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 탈냉전 시대 역내 추세에 부응하는 아태지역 안보대화를 환영하며 적극 참여
 - 역내 공동안보 관심사를 아세안-PMC 및 고위관리회의 차원에서 우선 논의하고, 지역분쟁은 이해당사국 해결 원칙하에 일정한 역내 신뢰구축이 확보된 이후 거론
 - 양자적 안보체제와의 상호보완 원칙, 점진적·단계적 추진, 민감한 양자 안보이슈 또는 지역분쟁은 당사자 간 직접 해결, 이해관계국의 동등참여 원칙, 비교적 논의가 쉬운 문제부터 대화 추진 등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3.5.20.-21. 전4권 (V.2 개최구상 및 준비 II(4-5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48 / 12 / 1-167

1993.5.20.~2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를 위한 1993.4~5월 중 개최 구상 및 준비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권병현 외교정책기획실장
- 여타 6개국: 외무차관 또는 차관보

850

2. 한국 측 기본입장

- 다자지역 안보대화는 역내 국가 간 쌍무적 안보협력력을 기축으로 하는 기존 안보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역내 다양한 안보현실과 다자지역 안보협력 경험의 부재 등을 감안, 초보적 수준의 신뢰 구축 조치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지역 안보대화로 발전 유도
- 역내 모든 국가의 동등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국가의 역내 패권 추구는 불인정
- 역내 미해결 지역분쟁은 그 사안의 민감성에 비추어 직접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간주
- 기존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과의 양자적 대화·협의를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역내 안보협의 포럼 구상을 신중히 추진
- 지나친 아세안 중심의 지역 안보대화 운영 견제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3.5.20.-21. 전4권 (V.3 회의개최 및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48 / 13 / 1-210

1993.5.20.~2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의 개최 및 결과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아세안과 7개 대화상대국(한국,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고위관리

2. 주요 결과

- 동남아 문제
 - 캄보디아 신정부 정통성 인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미얀마 인권문제 등
- 동북아 문제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우려와 복귀 희망, 중국의 군비증강 문제 검토
- 안보협력
 - 아태 역내 미국의 지속적인 존재 필요성, NPT 연장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필요성 등 확인
- 현행 PMC 체제 개선
 - 중국, 러시아의 PMC 참가 필요성 확인

3. 동 회의 참석 계기에 수석대표인 권병현 외교정책기획실장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수석대표와 개별 면담을 가짐.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 제1차. Singapore, 1993.5.20.-21.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48 / 14 / 1-150

1993.5.20.~2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의 관련 자료임.

1. 본회의 참가 관련 자료

- 회의 조직 및 운영 관련사항
 - 아세안-PMC SOM(고위실무회의)의 조직과 운영 문제
 - 아세안 PMC의 형식과 의제 검토
 - 아세안-PMC SOM의 장래 작업계획
- 정치·안보분야 예상의제에 대한 대응방향
 - 지역정세(동남아/동북아) 평가
 - 역내 당면 안보위협 요인: 북한 핵 문제, 캄보디아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얀마 인권 문제 등
 - 새로운 지역질서의 양태 모색
 - 새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조: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역할, 유엔 및 지역기구의 역할, 역내 신뢰 구축 문제, 역내 안정과 발전,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방향 등

2. 아세안-PMC SOM 전야 비공식만찬 시 거론 예상분야

- 정치·안보분야 구체적 토의사항 선정
 - 지역정세 진단 및 공통인식 도출
 - 현존하는 지역안보 위해요인 적시 및 해결방안 논의
 - 장래 바람직한 지역질서의 양태 및 이를 위한 방법론 논의
- 회의 조직 및 운영 관련사항
 - Summary Record 작성 및 Press Release 발표 문제
 - SOM 의장직 문제
 - 개최 빈도
- 기타
 - 아세안 PMC의 형식과 의제 검토
 - 중국, 러시아 등 비PMC 국가의 SOM 참여 문제 등

동북아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전2권 (V.1 1992)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8 / 15 / 1-166

1992.9.22.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계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이해관계국 대화’ 제의 관련 내용임.

1. 노태우 대통령, 1992.9.22. 유엔총회 연설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이해관계국 대화’ 제의

- 1988.10월 유엔총회 시 노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 개최’ 제의와 유사하나, 1988년 제안이 당시의 냉전 구조를 감안한 것인데 반해, 1992년 제안은 역내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

2. 제의 배경

-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화해와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구소련의 팽창위협 종식, 미국의 역내 군사적 역할 감축 가능성, 중국의 개혁·개방, 일본의 정치적 역할 증대
- 러시아의 정치적 표류, 일본·중국 등의 군사력 증대 추세, 일본·러시아 간 북방영토 이외에도 남사군도 문제, 캄보디아 문제 등 지역분쟁과 더불어 과거 역사에 연유된 역내 갈등요인 상존

3. 지역안보에 대한 각국 입장

- 미국: 기본적으로 아태지역 다자 간 안보에 소극적
 - 신 군사전략에 의거한 해외 군사력 점진적 감축 전망에 비추어 적절한 안보협력 논의는 수용
- 일본: 미국과의 안보협력, 북방영토 등으로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전향적으로 방향 선회
- 중국: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소극적 입장 견지 하에 학계에 의한 연구차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
- 러시아: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이던 구소련의 연장선이나, 국내 문제 복잡성으로 원칙론만 강조
- 아세안: 회원국 간 안보대화를 추진하나 새로운 형태의 대화에는 소극적

4. 한국 정부의 추진 방안

- 양자적 안보체제와의 보완 원칙
- 점진적 추진 원칙
-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방지 원칙(남북한 직접 당사자 간 해결 원칙)
- 이해관계국의 동등한 참여 원칙
- 참가국: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포함

동북아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전2권 (V.2 19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MF번호 2023-48 / 16 / 1-161

1992.9.22.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총회 계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이해관계국 대화'를 제의 관련, 1993년까지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에 관한 관련국 입장 등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의 관련 제의

- 1992.9.22. 유엔총회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동북아 이해관계국 다자대화' 제의
- 7월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담) 시, 이상옥 외무부장은 역내 다자안보대화 개시 시기 도래 언급
- 1993.5월 한승주 외무부장은 장기적 과제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형태의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 제시

2. 제1차 아세안-PMC SOM(고위실무회의) 개최(1993.5.20.~21., 싱가포르)

- 참가국: 아세안 6개국, 역외 대화상대국 6개국 및 EC(구주공동체)
- 주요 논의 및 회의 결과
 - 캄보디아, 남중국해, 미얀마 인권 등 동남아 문제
 - 북한 핵, 중국의 군비증강 등 동북아 문제
 - PMC를 지역안보 협의체제로 전환, 1994년 PMC-SOM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초청

3. 한국 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 방안

- 사전 조율
 - 주요 우방국과 사전조율
 - 아세안-PMC, PMC-SOM 등 기존 협력기구 및 메커니즘을 통한 안보대화 적극 참여
 - 비정부 차원의 대화포럼 추진 및 지원
- 기반 조성
 - 중국·러시아와의 양자 안보대화 채널 구축
 - 대북한 대화 활성화
- 동북아 지역안보대화 추진
 - 원칙적으로 남·북한, 주변 4국
 - 양자 협의를 통해 협의 가능 의제 추출, 공동 안보 관심사
 - 지역안보대화의 협력체제화 추진

동북아협력대화(NEACD), 제1차. San Diego(미국), 1993.10.8.-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48 / 17 / 1-185

제1차 NEACD(동북아협력대화)가 1993.10.8.~9.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무부 및 국방부 고위관리 및 민간 연구소 간부 25명
 - 한국: 권병현 외정실장, 박용욱 군비통제관, 김인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봉근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
 - 러시아: 과학원 안보전략연구소 부소장
 - 북한: 불참하였으나 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요지의 김종수 주유엔대표부 북한대사 명의 전보 발송

2. 주요 결과 및 성과

- 중국, 러시아를 포함 모든 국가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추진을 희망
- 중국이 평화 5원칙, 군비축소, 비확산 등을 동북아 다자안보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각국이 동 원칙을 선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
- 구체적인 방안으로 투명성 제고, 불신 해소,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방법론으로 국방 백서, 군사 데이터 발표 등 용이한 것부터 시작, 점진적으로 확대
- 북한의 참가가 중요하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도 Track II 계속 추진
- 북한 참가 유도 방안 협의
 - 특정 국가, 특정 핵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을 다룸.
 - 차기 회의를 북한이 참가하기 용이한 중국, 일본, 샌디에이고에서 개최
- 1994.4월 제2차 회의 개최에 합의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잠정적으로 주최 용의 표명
 - 각국 외무부가 접촉점이 되어 차기 회의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함.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전2권 (V.1 2-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48 / 18 / 1-135

1993.2~4월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관련 내용임.

● 핵심 요지

- 지역 정세 유동성에 비추어 지역안보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며, 한국 정부도 정부 간, 비정부 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과 주한미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안보협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
- 지역안보대화의 지역적 구분 관련, 범아태지역 대화,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대화와의 상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 입장 발전
- 각종 지역안보대화를 겨냥하여 한반도 문제 중 국제적 논의가 가능한 부분 추출
- 지역안보 논의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신뢰 구축 논의에 주력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전2권 (V.2 5-10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49 / 1 / 1-112

1993.5~10월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관련 내용임.

1. 지역안보대화에 대한 주요국 입장(1993.9월)

- 미국
 - 역내 국가 간 전통적 양자 동맹관계 저해 가능성 우려로 아태지역 다자안보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었으나, 해외 주둔 군사력의 점진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지역 안보 협력 논의 수용 경향(1993.7월 클린턴 대통령 방한 시 국회 연설에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 발표 등)
- 일본
 - 미국과의 안보협력,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다자 간 지역안보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지역안보 협력 논의에 전향적 자세
 - 현 시점에서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의)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안보체제나 기구의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 중국
 - 공식적 입장 표명은 없으나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학계 연구차원의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
 - 1993.5월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당장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안보대화체제를 만들기에는 시기가 미성숙이라고 발언
- 러시아
 - 구소련 정책의 연장선에서 지역안보 협력을 제기하고 있으나, 원칙론을 거론하는 수준
- ASEAN
 - ASEAN-PMC 등을 활용하여 대화상대국과의 지역안보 문제 협의를 실현하는 한편, 아세안 회원국 간 안보대화 추진에 적극적

2. 한국의 지역안보대화 대응 방향

- 아태지역의 유동성 및 기타 안보의 위해 요인 논의 등 역내 평화유지 및 안보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
- 기존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계속 긴밀히 유지해 나가되,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을 중장기 목표로 추진 노력
 - ARF를 통한 아태 광역차원의 논의에 참여하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별도의 틀 태동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우선 한·미·일 안보협의회 개최 추진)
- 초기 단계에서는 역내 신뢰 구축 조치 마련에 역점

제7차 아시아·태평양 Roundtable 및 비공식 정부 간 안보대화.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3.6.7.-1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49 / 2 / 1-81

제7차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비공식 정부 간 안보대화가 1993.6.7.~10.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참가 현황

-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태지역 22개국 287명 참가(전체회의 5회 및 Workshop 9회)
- 비공식 정부 간 안보대화: 아·태지역 20개국 75명 참가(전체회의 3회 개최)
- 남·북한 회의 참가자
 - 한국 측: 비정부 학자(김달중, 안병준, 정인영, 백진현 교수), 정부(김영지 제2정책심의관, 김명진 안보정책과장, 장철균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참사관, 최원선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참사관)
 - 북한 측: 배상학 평화군축연구소 전문가, 최성호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참사관

2. 회의 결과

-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에 대해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국가 간 이해 제고
 - 관련국 모두 참여(Inclusivity), 대화 습관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지역안보 협력의 다자화(Multilateralization)에 공감
- Wanandi 인도네시아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의장, CSCAP(아·태안보협력이사회) 창설에 관한 합의문 발표(1993.6.9.)
 - 그간 한국 등 10개국 지역안보문제 민간연구소 간 협의를 거쳐 비정부 차원의 지역안보협력기구로서 CSCAP을 설치하기로 합의, 1993년 말까지 사무국 설치 예정임을 발표

3. 주요 관찰사항

- Two Track 안보협력을 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시도로서 라운드테이블 회의(비정부간 회의)에 참가한 국가의 정부관리들 간 회의가 별도로 개최
 - 이번 정부 간 안보대화는 1993.5월 싱가포르 개최 아세안-SOM(고위실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정부관리 간 지역안보 협의라는 점에 의의

4. 건의 사항

- 이번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계기로 CSCAP이 창설됨으로써 향후 지역안보대화의 Two Track 추진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 CSCAP National Committee 구성에 따른 협조 및 지원 제공

OPANAL(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금지기구) 회의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중미과

MF번호 2023-49 / 3 / 1-102

1. 제7차 OPANAL(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금지기구) 회의 결과(1992.8.26., 멕시코시티)

- 제6차 회의 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3국이 틀라텔롤코조약(Tlatelolco Treaty, 중남미 비핵지대화 조약)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동 일부 조항 수정을 승인
 - 동 수정은 핵무기 통제제도에 관한 장치(특별보고 및 특별사찰제도 확립)를 마련한 것으로서 틀라텔롤코조약상 의무 이행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습득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채택
- 중남미 20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유엔 등 26개국 또는 국제기구 참가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공동선언을 통해 틀라텔롤코조약 비준 등 가입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

2. 틀라텔롤코조약 개요

- 1969.4월 발효, 중남미 27개국 가입
- 당사국은 핵무기 실험, 사용, 제조, 생산, 취득, 반입, 저장, 설치, 배치 또는 보유 금지
- 제2의정서(핵보유 5국이 조약 당사국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하지 않도록 규정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장치 미비)
- 가입국의 절반 정도만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49 / 11 / 1-42

1992~93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임.

1. KFP(한국전투기사업) 관련 비세출자금기관 이용 문제

- 외무부는 1992.3.19.자 아래 요지의 공문을 국방부에 송부함.
 -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인 Ronald Fogleman 공군 중장은 동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외무부 미주국장) 앞 3.10.자 서한을 통해 KFP와 관련하여 1991.10.24.자로 한·미국 간 체결된 F-16 전투기 생산계약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General Dynamics사와 United Technologies Pratt and Whitney사 직원 및 가족이 주한미군 영내 비세출자금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SOFA 합의의사록 제13조에 의거,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상기 직원 및 가족의 비세출자금기관 이용 필요성 관련, 미군 매점은 지방 거주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미국물자 제공 측면에서, 군사우편은 비밀문서의 신속 발송 및 접수 측면에서 필요
 - SOFA 합의록 제13조는 한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개인과 기관은 비세출자금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상기 두 회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 정부가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외무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상기 요청 관련, 국방부는 3.26. 상기 두 회사 가족의 주한미군 영내 비세출자금기관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2. 대전 엑스포 참가 미국대표단의 APO(미군사우체국) 사용 문제

- 외무부는 1993.7.9. 아래 요지의 공문을 재무부와 관세청에 발송함.
 - SOFA 합동위원회 Caroll B. Hodges 미국 측 간사는 서한을 통해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는 미국대표단이 개인용 우편물 수발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주한미군 AP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이와 관련, 외무부에서는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은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제한되며, 또한 상기 요청 수락 시 타국에 대한 형평성 및 선례화 우려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 상기 관련, 재무부와 관세청은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는 미국대표단에게 APO 및 비세출자금기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회신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9 / 12 / 1-302

1993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설치 및 활동 관련 내용임.

- SOFA 산하 환경분과위원회 설치
 - 국내외 언론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심각 보도
 - 1992.11.30.자 US News & World Report 보도 이후 심각성 대두
 - 1993.3.24. 환경처 주관 회의에서 주한미군 SOFA 담당관 참석 하에 주한미군 기지 환경 문제를 담당할 협의체로 SOFA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 설립 추진에 합의
 - 환경처 동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작성, 외무부 송부
 - 7.16. 한·미 SOFA 합동위원회 대표인 장재룡 외무부 북미국장과 Howel M. Estes 장군이 동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동위원회 의사록에 서명, 공식 발족
 - 환경처 환경정책조정과장과 주한미군 공병참모(대령)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환경문제 전반에 대하여 제기된 사항의 대책 및 해결방안 협의, 합동위원회에 권고 담당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 이전 문제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9 / 15 / 1-253

862

1. 한·미 항공 현안 관련 회의(1991.2.7.)

- 참가자: 교통부 항공국장, 국제항공과장, 항공시설과장 및 외무부 담당 사무관, 한국공항관리공단 운영이사, 대한항공 전무이사, 아시아나항공 부사장 등
- 의제: 한·미 항공 현안 관련 미측 요구사항 중 김포공항 내 화물면적 추가 확보
- 결과
 - 화물청사 건립주체: 한국공항관리공단
 - 화물청사 건립 위치 및 추진단계
 - 화물청사 건립 재원
 - 화물청사 건립 관련 담당 등 협의

2. 한·미 항공회담 결과보고(1991.6월, 외무부 통상국)

- 협정개정 내용
 - 미국 내 추가운수권 확보
 - 제3국 이원권 확보
- 평가
 - 한·미 항공관계의 불균형 구조 개선
 - 한국 민간항공 발전의 전기 마련
- 관련자료: 김포공항 내 미 항공사 전용 화물청사 건립 추진계획(1991.6월, 교통부 항공국)

3. 한·미 항공협정 후속조치 대책 회의(1991.7.3., 외무부 통상국)

- 주요 합의 내용
 - 미국 내 추가운수권 확보
 - 제3국 이원권 확보
 - 화물청사
 - CRS
 - 통관 문제
 - 대책반 설치

미국·일본 SOFA(주둔군지위협정) 운영실태 파악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49 / 16 / 1-52

외무부는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개선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일본 SOFA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윤순구 북미2과 사무관을 1993.12.6.~9. 일본 도쿄에 출장 조치함.

1. 출장 목적

- 미국·일본 SOFA 운영 현황 파악 및 협의
- 관련 자료 수집 등

2. 주요 일정

- 주일본 미국대사관 직원 면담
- 일본 외무성 일·미 안보조약과, 방위청 방위정책과 등 접촉 협의

3. 출장 중 파악한 미국·일본 SOFA 운영 실태에 관한 주요 내용

- 북한 미사일 문제 및 일본의 TMD(전장미사일방어체제) 추진 동향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를 주요한 안보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방위계획에 TMD를 어떻게 도입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 미국 측은 일본 측 보다도 TMD 구상에 적극적이며 미국·일본 안보관계 실무회담(1993.12.15., 하와이) 시 미국 측이 구상하고 있는 TMD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임.
- 미국·일본 SOFA 협정 운영 현황
 - 현행 미국·일본 SOFA 협정은 미국·일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60.6월 체결·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존속
 - 미국·일본 SOFA는 외무성 산하에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합동위원회 산하에 20개의 정규 분과위가 있음.
- 형사재판 관할권 상세
 - 일본 측이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죄 유형별 기준은 없으며, 이에 관해 미국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음.
 - 일본 측은 재판권 불행사 결정시 미군 당국에 통보함. 미군 당국은 일본 측에 제1차적 재판권 행사 포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일본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형사 피의자가 미국 측 수중에 있는 경우 일본 당국이 기소 때까지 미국 측이 계속 구금



- 한·미 SOFA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무죄 판결 또는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 상소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미·일 SOFA에는 해당 규정이 없음.

- 환경 문제

- 일본 측은 1976년부터 환경분과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3.12.6. 제20차 회의 개최
- 1992.3월 Ray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미 군부대의 환경 문제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 관심 증대
- SOFA 상 환경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주재 미군에 대하여는 일본 환경법이 적용되지 않음.
- 일본 측은 미군기지의 특정 환경 문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미국 측은 미국 비용으로 조사한 후 결과를 일본에 제공
- 미군 측은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PCB, PCP 등 유해폐기물은 예외 없이 자국으로 운송, 자국 비용으로 처리(1992.8월 합의사항)
- 미군기지 폐쇄 또는 이전 후 기지 내 환경 문제 해결 및 비용은 일본 측이 부담
- 최근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소음공해 및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일본은 민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미군의 행위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가 우선 배상 후 SOFA 규정에 따라 미·일 간 배상비용 분담

한국전 휴전 40주년 기념사업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49 / 19 / 1-107

1993년 중 한국전쟁 휴전 40주년을 맞아 미국 및 캐나다에서 개최된 기념행사 관련 내용임.

1. 한국전 휴전 40주년 기념행사(1993.7.27.,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 구자춘 의원 등 한국전 참전의원 친목회 대표단(3명), 한승수 주미국대사, Perry 미 국방부 부장관 등 700여 명 참석
- 행사
 - '무명용사 묘' 헌화, 추모식 등
 - 주미국대사관 무관부 및 자선단체 No Greater Love 주최 한국전 전사자 가족 초청 오찬
 -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예정지 시찰

2. 미국 내 여타 기념행사

- 시애틀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1993.7.24.)
 - 미국 워싱턴 주정부 추진
 - M. Lowry 워싱턴 주지사 및 양창식 국회의원, 한국전 참전용사 및 그 가족·친지, 참전국 대표 등 약 2천 명 참석
- 매사추세츠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7.27.)
 - 보스턴 인접 Charlestown Navy Yard 소재 Shipyard Park
 - 주정부 고위인사, 참전자 및 참전 가족, 한인 동포 등 1천여 명 참석
 - 매사추세츠 출신 1,600여 명의 한국전 전사자를 위해 1991.6.25. 공사 시작, 완공 기념행사 개최
- 한국전 박물관 개관 관련 김영삼 대통령 메시지(8.27.자 서한) 송부
 - 뉴욕주 버팔로시 소재 군사공원 내 전시된 유도탄 순양함 Little Rock호 선실 내 박물관 설치

3. 캐나다 한국전 휴전 40주년 기념행사(1993.7.29.)

- 구자춘 의원 등 한국전 참전의원 친목회 대표단, 캐나다 오타와 방문
 - 캐나다 의회 시찰, 캐나다 한국전 재향군인회 오찬 등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전3권 (V.1 1992)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50 / 3 / 1-105

1992년 중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관련 내용임.

1. 현황

- 1992.7.17. 슬로바키아공화국 주권 선언 채택
- 7.20. 하벨 체코슬로바키아연방 대통령의 연방 대통령직 사임 발표 등으로 연방 분리 가속화
- 양 공화국은 연방 분리 형태에 관해 9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하고, 각기 연방 분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

866

2. 문제점

- 체코연방 분리에 따라 중감위의 일원인 체코가 이탈할 경우 중감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 연방 해체는 그간 중감위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온 북한이 중감위 및 유엔사 해체의 구실로 이용할 가능성

3. 한국 정부 대책

- 북한 측이 체코연방 중감위 대표단의 철수를 공식 요청하기 이전에 체코 또는 슬로바키아 중 어느 한 국가가 중감위 대표단 지위를 승계하도록 외교 노력 경주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전3권 (V.2 1993.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50 / 4 / 1-224

1993년 중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관련 내용임.

1. 진전 동향

- 1992.12.30. 체코 외무부, 연방 해체(1993.1.1.)로 인한 중감위 지위 승계 통보
 - 체코 및 슬로바키아 양 공화국 간 합의에 입각하여 1993.1.1.자로 체코공화국이 중감위 승계국으로 된다는 내용의 공한을 관계 국가에 발송
- 1993.1.12. 북한, 체코의 중감위 대표 법적 자격 상실 및 철수 요구
 - 3.10.까지 체코대표단 철수계획 제출 요청

2. 북한 측 입장

- 체코연방의 소멸로 체코공화국은 중감위 위원국으로서의 법적 자격 없음.
- 체코를 대체할 국가를 지명하는 것은 북한 자체의 고유 권한임.

3. 한국 측 대처방안

- 한국 측 기존 입장(체코공화국의 중감위 지위 승계 방침)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
- 유관국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의하 추진
- 체코의 중감위 지위 승계라는 법적 측면과 함께 정전협정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 대처

4. 유엔사 입장

- 체코의 중감위 대표 승계 희망
- 북한이 체코대표단을 철수시키고자 할 경우 대체 국가를 조속히 지정하여 유엔사에 통보
- 제3국 지정 시까지는 현 체코대표단이 중감위 대표직 수행

5. 체코 정부 입장

- 체코는 중감위 활동 계속 용의
- 모든 당사자 간 합의에 의거, 체코를 제3국으로 교체할 경우 이를 수락할 것
- 체코대표단에 대한 북한 측의 비우호적이고도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적 도의상 비문명적 처사이며, 체코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특정 조치를 취할 권리 보유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전3권 (V.3 1993.3-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3-50 / 5 / 1-217

1993년 중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관련 내용임.

1. 진행 동향

- 1993.2.12. 북한, 체코대표단의 철수계획 제출 요청
- 3.2. 북한, 체코의 조치(승계) 거부

2. 체코 정부 대응

- 1993.3.5. 체코, 중감위 대표단의 4.10. 철수 결정 및 체코 주재 북한대사관원 철수 요구 발표
- 4.10. 중감위 체코대표단 철수

3. 추후 동향

- 1993.4.13. 중감위 3개국 대표(폴란드, 스위스, 스웨덴), 공동 결의문 채택
 - 체코의 대체국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코대표단이 강요에 의해 철수된 것은 정전협정에 위배
 - 체코대표단 후임을 지체 없이 지정할 것을 촉구
 - 새로운 대표단 선정 시까지 3개국 대표단이 중감위 직무 계속 수행
- 4.22.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명의 답신 발송
 - T/S 훈련에의 중감위 국가 참관 초청은 쌍방 간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 군정위 유엔사 측 수석대표 임명은 유엔사령관 고유 권한
 - 체코대표단 후임의 지체 없는 임명 촉구

UNC(유엔군사령부) 연례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0 / 6 / 1-62

1. 1993.4.8.자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브리핑 내용
2. 1992년 UNC(유엔군사령부) 보고서

UNC(유엔군사령부) 현황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3-50 / 7 / 1-89

1989년 중 UNC(유엔군사령부) 현황과 문제점 등 관련 자료임.

1. 창설 경위

- 1950.6.25. 유엔안보리 결의 S-1501 및 S-1511
 -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파괴 요인으로 간주
 - 북한의 계속적인 무력 공격 격퇴를 위해 전 유엔 회원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
- 1950.7.24. 미국, 유엔군사령부 창설
 - 초대 사령관에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 임명
- 1953.7.27. 정전협정 발효

870

2. 유엔사의 구성 및 기능

주한미군 사령관 교체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50 / 8 / 1-30

1990~93년 중 주한미군 사령관의 교체 관련 문서임.

1. 1990.4.17.자 Robert W. RisCassi 주한미군 사령관 임명

- Menetrey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은 본국 귀임 후 퇴역 예정이며, 교체식은 1990.6.26. 예정

2. Gary E. Luck 주한미군 사령관, 1993.4월 발령 내정으로 1993.7~8월 경 부임 예정

3. Ridgeway 장군 별세

-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 및 주한 유엔군 사령관 역임
- 노태우 대통령 명의 조전 송부

한·러시아 군사 교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구1과

MF번호 2023-50/9/1-116

1993년 중 한·러시아 간 군사교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양국 간 해군함정 교류

- 1993.3월 한국 해군함정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이 한반도 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연기됨.
- 8.31.~9.4. 러시아 해군함정, 부산항 방문
- 9.20.~27. 한국 해군함정,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872

2. 인사 교류

- 1993.9.5.~12. 이양호 합참의장, 러시아 방문
 - 국방장관, 총 참모장 등 군부 인사 면담
 - 모스크바 관구, 태평양 함대 사령부 방문
- 12.16.~22. 국방부 정책실장, 러시아 출장
 - 출장 목적: 향후 양국 간 군사 교류 계획 내용 확정
 - 총 참모장, 총 정보국장 등 면담

Ruhe, Volker 독일 국방장관 방한, 1993.10.31.-1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50 / 10 / 1-82

Volker Ruhe 독일 국방장관이 1993.10.31.~11.2. 방한함.

1. 방한 목적

- 안보 정책 공동관심사 논의 및 군 고위인사 상호교류 목적

2. 주요 일정

-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국방부 방문
- 대통령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 국방대학원장 주최 오찬
- 판문점 및 제1사단 방문

3. 외무부차관 면담(11.1.)

- 국제정세 및 주변 4강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4. 한·독일 국방장관회담(11.1.)

- 주요 의제
 - 한·독일 양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 증진
 - 한·독일 양국 간 방산협력
 - 북한의 위협, 특히 핵개발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체제에 대한 견해 일치
- 주요 언급내용
 - Ruhe 국방장관은 분단국으로서의 양국 간 공통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기술발전에 존경을 표시
 -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의사 표시
 -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양국 간의 전통적 협력관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방산기술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독일과의 거래량이 많다고 하면서 실질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양국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핵개발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 및 공동대처 필요성에 공감

요르단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중동1과

MF번호 2023-50 / 11 / 1-111

1990~93년 중 요르단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요르단 국방대학원생(1990.2.24.~3.1.)

- 고위 장교 총 8명
- 국방대학원, 국방조달본부, 외교안보연구원, 판문점, 멸공관, 도라OP, 제3땅굴 방문
- 대우중공업 산업 시찰
- 올림픽 공원 및 경기장, 경복궁, 63빌딩, 롯데월드 관광

874

2. 요르단 측 군 인사 방한 접수 현황

- 요르단 국방대학원 학생 일행(총 19명) 접수계획(1993.1.25.~31.)
 - 국방대학원장 예방, 한국 군사 관련 브리핑 및 국방대학원장 주최 오찬(1.26.),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한보철강 사장 주최 만찬(1.27.), 삼성전자 방문 및 민속촌 관광(1.28.), 이슬람 사원 방문(1.29.), 올림픽 경기장 및 KOEX 방문(1.30.)
- 요르단 Mutah 대학(사관학교) 총장
 - 1990년부터 방한을 희망하여 왔으나, 동인의 고등교육부장관 영전 및 요르단 측의 방한 조건 관련 상호주의 부적용 등으로 성사되지 못한 채 종결됨.

Bjorck, Anders 스웨덴 국방장관 방한, 1993.2.2.-4.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23-50 / 12 / 1-31

Anders Bjorck 스웨덴 국방장관이 1993.2.2.~4. 방한함.

1. 방한 경위

- 최세창 국방부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
- 스웨덴 국방장관으로서 최초의 방한

2. 주요 일정

- 주한 스웨덴대사 주최 뷔페 만찬
- 국립묘지 헌화
- 국방부장관 면담,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국회의장 예방

3. 국방부는 1993.1.21. 스웨덴 국방부장관의 방한 시 외무부장관 예방 및 오찬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예방자: 스웨덴 국방장관, 주한 스웨덴대사, 중립국 감시위원회 스웨덴 대표
- 일시(잠정): 1993.2.3.
- 목적: 국제적으로 비중 있는 인사로서 대북 관련 외교적 지원 협조

Derwinski, Edward 미국 원호장관 방한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2023-50 / 13 / 1-82

1990~93년 중 Edward Derwinski 미국 원호장관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90.1.22.~26. 방한

- 방한 경위
 - 업무 차 괄 방문에 이어 비공식 방한
-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상공부장관 주최 조찬, 민주당 총재, 평민당 총재 면담 등
- 동 장관은 재임 이전부터 하원의원(공화당)과 국무차관을 역임하면서 한국 측 입장을 백악관 및 행정부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서 한·미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특히 국무차관 재임 시에는 서울올림픽 관련 양국 정부 간 협조방안 협의차 2차례 방한

876

2. 1993.1.16.~20. 방한

- 방한 경위
 - 국가보훈처장의 초청
 -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친한 인사로서 동인의 공헌과 앞으로의 역할 가능성 등을 고려
- 주요 일정
 - 대통령,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상공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등 예방

Perry, William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 1993.5.9.-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50 / 14 / 1-65

William Perry 미국 국방부 장관이 1993.5.9.~12. 방한함.

1. 방한인사

- William Perry 국방부 장관 부부
- William Pendley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 대리
- Sandra Kristoff NSC 아시아과장
- Eden Woon 국방부 동아태 담당
- Dr. John Lewis Stanford대학 교수
- 기타 국방부, 합참 관계관 12명

2. 방한 목적

- 한·미국 안보협력 협의
- 북한 핵 문제 협의
- 주한미군 부대 시찰

3.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안보수석 등과 면담
- JSA 및 미 7공군 등 시찰

미국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50 / 15 / 1-27



1. Paul Wolfowitz 미국 전 국방차관 방한(1993.9.14.~15.)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면담
- 한승주 외무부장관 면담(9.15.)
 - 외무부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설명하고 향후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남북대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의가 없는 한 3단계 접촉은 불가함을 강조
 - Wolfowitz 전 차관이 통일 후의 한·미국 동맹관계 발전방안을 문의한 데 대해 외무부장관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동북아에서 미군의 balancer 역할을 평가

2. John Deutch 미국 국방차관 방한(1993.9.23.~24.)

- 주요 일정
 - 전방지역 시찰, 국방부장관 예방,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및 동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50 / 17 / 1-197

1.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신정책 발표(1993.9월)

-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핵확산 방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검토에 착수
- 주요 내용
 -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 동결: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국제조약 체결
 - 핵실험 중지: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체결 추진
 - 일반 무기 및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에 관한 규제 완화
 - 한반도, 걸프지역, 중남미, 남아시아 및 구소련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 방지에 주력
 - 각국의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적극 유도

2. Aspin 미 국방장관, 미국의 핵확산 대응 신정책 발표(1993.12.7.)

- 냉전 종식 후 미국의 4대 안보위협 제시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역분쟁, 구소련 국가들의 개혁 실패 가능성, 경기침체 등
 - Rogue States, 테러조직에 의한 핵확산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
- 핵확산 대응 신정책의 요지
 - 국방부 내 핵안보/핵확산 담당 차관보직 신설
 - 지하 핵시설 공격용 첨단 재래식 무기, 이동식 미사일 추적 수단, 사드 개발 등 추진
 - 지역분쟁에서 핵보유국과의 대치 상황까지를 상정한 새로운 군사전략 수립
 - 핵확산 대응 정보 수집능력 강화
 - 우방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각국의 핵실험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0 / 18 / 1-63



1992~93년 중 각국의 핵실험 동향임.

1. 유엔 제네바군축회의(1993.7.26.~9.2.)

- 1994.1월부터 전면 핵실험금지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1993.9월부터 핵실험 금지특위를 중심으로 구체적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

2.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당사국 비공식 협의(1993.10.2., 유엔)

- Alatas 인도네시아 외상 주재
-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단계적 핵실험 금지 관련 법안 서명
- 영국, 핵실험 모라토리엄 결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협정(Tlatelolco)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50 / 19 / 1-201

1.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핵안전조치 체제

- 양국 간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1991.12월 발효)
 -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제조, 생산 및 획득, 반입, 저장, 설치, 어떠한 형태의 보유 금지
 - 핵물질 계량 및 통제체제 수립
 - ABACC(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질 회계 및 통제 기구) 설립: 핵물질의 핵 무기화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 양국, ABACC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조치협정(1991.12월 서명)
 - ABACC 및 IAEA는 각각 독자적으로 사찰 실시
 - IAEA는 ABACC를 통하여 최초보고서 및 설계정보를 비롯한 안전조치 관련 제반 정보 획득
 - IAEA에 의한 수시사찰, 일반사찰 및 특별사찰 관련 조항은 IAEA 안전조치협정 표준문안과 동일
- 당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은 NPT(핵확산금지조약) 불가입국이며, IAEA 안전조치협정도 미체결

2.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핵안전조치체제의 한반도 적용 시 문제점(1993.6월, 외무부 외교정책 기획실 검토)

- 북한은 1993.6.2. 및 6.4. 미·북 접촉 시 동 문제를 제기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 사찰규정 운영과정에서 IAEA와의 Ad Hoc Arrangement를 통해 IAEA를 사찰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NPT 비회원국인바, 남북한이 유사협정 체결 시 NPT 가입국 자격, IAEA와의 관계 등 문제 대두 소지
- 공동 핵 정책, ABACC 등과 같은 기구 확충 등에 장기간 소요 예상
- 아르헨티나, 브라질 간 일부 시설에 대한 검증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 등 기술상 문제 대두 예상
- 남북한 간 상호 신뢰 구축 미흡, 동북아의 현 안보 여건 등 고려 시 현재로서는 추진이 부적절

중국의 핵실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0 / 20 / 1-71

1993년 중 중국의 핵실험 실시 및 그 반응에 관한 내용임.

1. 1993.10.5. 중국 지하 핵실험 실시

- 중국 정부 성명의 주요 내용
 - 중국이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위 목적
 - 전면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이 체결되면 이를 준수 예정

2. 한국 정부 대응

- 1993.10.6. 외무부 대변인 성명으로 한국 정부 입장 천명
 -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핵실험 재개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협상과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
 -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이 타결될 때까지 핵보유국들의 핵실험 자제 촉구
 -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 최소화 노력

3. 각국의 반응

- 미국(클린턴 대통령)
 - 깊은 유감 표시, 에너지성에 지하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 지시
 - 핵실험 재개에 관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 협상 진전 여부, 핵실험 모라토리엄 관련 핵보유국들의 협조 범위, 미국 핵무기의 안정성 등을 고려 결정
- 러시아(외무성 대변인)
 - 포괄적 핵실험 금지 협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유감 표명
 - 핵실험 재개에 대해 여타 핵보유국들의 반응 등 제반 요소 고려 결정
- 프랑스(외무성 대변인)
 - 중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 논평을 거부
- 일본(외무성 대변인)
 - 전면적 핵실험 금지를 지향하는 국제적 여망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조치
- 북한
 -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중국의 지하 핵실험에 관한 중국 정부 성명을 1993.10.7. 논평 없이 보도

일본의 핵 재처리 문제. 전2권 (V.2 Rand Institute 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0 / 22 / 1-122

1993년 중 일본의 핵 재처리 문제 관련 미국 RAND 연구소 작성 비확산 관련 보고서 내용임.

1. 작성 배경

- 1991년 이후 붕괴된 소련의 보유 핵무기 해체에서 나온 핵분열 물질의 관리 필요성 대두
 - 우려 단체 또는 국가에 의한 추출 핵분열 물질의 악용 차단 필요
-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추출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 농축에 대한 통제도 필요
- 핵무기 제조에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급증 문제를 검토하고 관리 방안 건의 추진

2. 건의 사항

- 지구상에서 플루토늄 생산 및 사용 관련 활동의 감축 또는 중단
 - 일본의 플루토늄 사용 고속증식로는 기존 2기로 제한
-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여 사용을 연장함으로써 신규 건설 억제
- 핵발전소의 우라늄 사용 효율 증대를 통해 플루토늄 생산 감소 유도
 - 해체 핵무기 추출 우라늄 포함, 핵보유국이 공급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혼합 사용
 - 구소련 핵물질은 가능한 한 서방국가가 구입하고, 시장 공급량도 조절하여 우라늄 가격안정 도모
- 플루토늄 사용 또는 우라늄 농축이 불가피한 경우 통제 가능한 국제체제 수립
 - 5대 핵보유국만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허용
 - 일본의 고속증식로 및 네덜란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예외 인정

미국·러시아 간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I, II) 동향. 전2권 (V.1 1991-92.7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0 / 23 / 1-185

1992.6월 개최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시 합의된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에 관한 내용임.

1. 미국·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감축 합의 개요

- 미국과 러시아는 1993.6.16. 정상회담에서 전략 핵무기의 추가 감축에 합의
- START 목표를 초과하는 역사적인 핵 군축 실현

2. 합의 내용

- 모든 지상배치 다탄두미사일 전면 폐기 합의
- 미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840기를 1,750기로 감축
- 전략 핵탄두 보유 수량은 양국 병력 구조에 따라 조정
- 범지구 미사일 방공체제 개념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에 합의

3. 평가

- 양국은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용 무기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핵전쟁 가능성이 대폭 감소함.

미국·러시아 간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I, II) 동향. 전2권 (V.2 1992.9월-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1 / 1-176

1992.9월~93년 중 미국·러시아 간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러시아 의회, START 비준(1992.11.4.)

2. 미국·러시아 정상회의(1993.1.2.~3.) 시, START II(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 서명

- 주요 내용
 - 양국의 전략핵을 2003년까지 2단계에 걸쳐 현 수준의 1/3선으로 감축
 - 양국 보유 다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전량 폐기 또는 단탄두화
- 평가
 - 다탄두 핵무기를 전량 폐기 또는 단탄두화 함으로써 핵무기의 불안정 요소를 감소시킴.
 -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 수준이 미국은 1960년대, 러시아는 1970년대 수준으로 복귀함.
 -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1993년 상반기 중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러시아 의회, START II 비준에 관한 청문회 진행(1993.3.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북미1과

MF번호 2023-51 / 2 / 1-98

1992~93년 중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탄도미사일의 확산 통제에 국제적 동향 관련 내용임.

1. MTCR에 관한 검토(1992.2월, 외무부 안보정책과)

- 1987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선진 7개국은 핵무기 운반 미사일 체계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장비 및 기술의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1988년 이래 4차례 회의 개최
 - 서방선진국 7개국을 포함 22개국 참여

2. MTCR 회의(1993.3.8.~11., 호주 캔버라)

- 한국 입장
 - 한국의 MTCR 가입 문제에 관해서는 한반도 정세, 향후 동 제도의 운용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 대처 입장
- 호주 측, 아르헨티나를 회원국으로 초청 결정 발표
 - 아르헨티나는 자체 개발한 Condor II 미사일의 해체를 위해 관련 미사일 부품을 스페인을 통해 미국에 인도하는 등 미사일 비확산에 기여 평가
- 1992년도 오슬로 회의에서 연장된 바 있는 “MTCR Guidelines for Sensitive Missile Relevant Transfer”가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요함을 재확인

3. 중국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

- 1993.3.25.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수출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 발표
- 미국은 미사일 비확산 활동 강화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MTCR 가입 권유 강화 예상
 - 한국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MTCR 가입 추진
 - 단기적으로는 MTCR에 가입하는 경우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 저해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 예상, 신중하게 대처

미국의 신전략방위계획(GPALS) 추진 동향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51 / 5 / 1-180

1991~93년 중 미국의 GPALS(신전략방위계획,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추진 동향 및 한국의 참여 문제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GPALS

- 제한적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전 세계적 범위의 복합적 탄도미사일 요격체제
- 레이건 미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존 SDI(전략방위계획)를 재조정된 신개념의 국지적 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위계획으로 총 460억 달러를 투입, 1990년대 중반까지 기본계획 완성 추진

2. GPALS 참여 문제

- 미국 측, 외무부 및 국방부 브리핑(1993.5.28.)
 - R. Wapole 국무부 부차관보 등 대표단 방한
 - GPALS 추진 배경, 조기경보체제 강화 등 구성요소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참여 요청
- 미·러시아 정상회담(1993.6.16.)에서 양국은 GPALS 개념을 GPS(범지구방위체제, Global Protection System)로 명명하고 협력하기로 함.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93.5.24.-6.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6 / 1-251

1993.5.24.~6.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1.9월 제3차 BWC 평가회의에서 협약의 검증체제 강화를 위해 검증 전문가그룹을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2차례 검증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 가능한 검증조치 파악 및 검토작업 진행

2. 참가자

- 42개 협약당사국으로부터 150여 명의 정부인사 및 전문가
 - 한국은 위성락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함경우 과기처유전공학연구소 선임연구부장 등 3명 참석
 - 북한 불참

3. 정부 훈령

- BWC 관련 CBM(신뢰구축조치) 이행에 적극 참여
- 생물학 연구기술 발전의 평화적 이용 장려
- 생물무기 비확산 대책 지지

4. 회의 결과

- 21개 검증조치별 평가보고서 채택
- 검증조치의 combination에 관한 평가보고서 채택
- 비공식회의에서 네덜란드, 캐나다 및 영국의 Trial Inspection 경험에 관한 두 개의 보고서 제출
- 비공식회의에서 스위스는 Sampling & Identification 장점을 예증하는 Q-Fever에 관한 연구 발표
- 비동맹 및 개도국들은 최종 결과에 대한 컨센서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검증조치들이 BWC 강화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5. 후속조치

- 1993.9.13.~24. 개최되는 제4차 회의 시 21개 검증조치가 최종 채택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이 받게 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정부 관계부처, 학계 및 연구소, 관련 기업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 각 조치별 한국 입장 정립 필요 건의
- 8.14. 외무부는 제4차 회의 대비 관련 공문을 관계부처에 발송, 회의 참가 및 검토 의견 요청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7 / 1-98

1993.9.13.~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의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정부부처 의견 제출(1993.9월)

- 보건사회부는 제4차 회의 참석인사 추천 및 검토의견 송부
 - 국내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 구성
 - 국제기구를 활용한 생물무기 사찰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과학기술처도 회의 참석 전문가 추천 및 의견서 송부
 - 21개 검증조치별 검토의견 송부, 특히 6번 및 16번 검증조치에 관한 의견 제시
- 국방부는 회의 참석 전문가 추천

2. 회의 참가 대표단 구성 및 훈령 시달(1993.9.7.)

- 대표단
 - 김명진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함경수 유전공학연구소 선임연구부장, 박기덕 국립보건원 미생물부장, 김지천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자문위원
- 정부 훈령
 - BWC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제 강화 지시
 - 실효적인 검증방안 마련 전까지의 잠정조치로서 CBM(신뢰구축조치) 강화 및 보다 다수국가의 참여 유도
 - 생물무기 및 원료물질의 수출 통제를 통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협력
 - 생물학 연구기술 발전의 평화적 이용 장려
 - 미가입국의 협약 가입 유도

3. 관련 자료

- 생물무기의 포괄적 금지(1993.9월, 외무부 외교정책실)
 - 생물무기 개요, 국제적 규제동향, BWC체제 강화 방안, 한국 입장 등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8 / 1-170

1993.9.13.~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의 관련 결과 내용임.

1. 회의 개요

- 성과
 - 1991년도 제3차 BWC 평가회의에서 생물학적 및 독소 무기의 생산, 비축, 개발 금지와 기존 보유무기의 파기를 의결한바, 과학기술적 견지에서 생물무기의 생산, 개발 및 비축에 대한 잠재적 검증 방법에 대하여 동 제4차 검증전문가 회의에서 최종보고서 채택
- 참가국
 - BWC 당사국 119개국 중 41개국 대표단
 - 북한 불참
- 회의 의장인 주스위스 헝가리대사가 주재한 가운데 18회 전체회의와 12회 비공식회의의 진행
- 최종보고서 작성에 요구되는 용어의 선택이 장시간 논의되었고, 서방그룹과 비동맹그룹 간에 논쟁을 조정하기 위한 그룹회의가 빈번하게 개최
- 검증조치 이행 시 기업의 비밀보장과 허용된 활동과 제한된 활동 간의 구별 문제, 각국 간의 기술수준 차이에서 오는 입장 차이에 따른 논쟁 빈발

2. 최종보고서 채택 내용

- 21가지 검증조치에 대하여 추후 시험평가를 위하여 현장검증(on site measure)와 비현장검증(off site measure)으로 나누고 7가지 구분으로 시행
 - 정보검색 점검, 데이터 교환, 원거리 감시, 관찰 등 검사, 교환 방문, 육안 등 검사, 지속적 점검
- 보다 효과적인 조합검증(measure in combination)의 예로서 5가지 조합검증조치 제안
- 생물무기에 적용될 대상 병원체의 종류와 양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더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추진

3. 건의

- 1996년 제4차 BWC 평가회의 이전에 생물무기 검증체제가 구축, 완성될 가능성이 강력히 예견되므로 한국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전문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종합 조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처 필요

BWC(생물무기금지협약) 신뢰구축조치(CBM) 이행보고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9 / 1-87

1992~93년 중 BWC(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른 CBM(신뢰구축조치) 이행보고서 제출 관련 내용임.

1. 제출 경위 및 준비

- 제2차 BWC 평가회의(1986.9월) 및 제3차 평가회의(1991.9월)에서 각 협약당사국이 동 협약의 이행 상황을 서로 통보하여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CBM 이행보고서를 매년 4.15.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결의
- 외무부는 1992년도 보고서 제출을 위해 국방부, 보사부 및 과학기술처에 제출 양식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도록 요청(1992.3월)
 - 국방부는 국가 생물 방위의 연구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등에서 없음으로 답변
 - 보사부는 전염병 발생과 독소에 의한 유사한 발병에 관한 정보 및 백신 생산 활동의 신고 관련 답변 제출
 - 과학기술처도 양식에 따른 답변 송부
- 1993년 보고서 제출을 위해 상기 관계부처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1993.4.16.)
 - 한편, 주한 대사관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측은 각각 BWC 기탁국으로서 동 보고서 제출 관련 적극 협조 요청

2. 보고서 제출

- 1992년도 보고서는 동년 4월 유엔에 제출
- 1993년도 보고서도 동년 5월 유엔에 제출
 - 한국은 WHO(세계보건기구) Laboratory Biosafety Manual 사의 P4 시설 미보유
 - 한국은 생물학전에 있어서 국가방위연구 또는 개발계획 미시행
 - 한국은 1991년 유례없이 113건에 달하는 콜레라 발병, WHO에 보고
 - BWC와 관련 없지만 병원체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연구·개발 방법론은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
 - 한국은 7개의 백신 관련 시설 보유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문가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군축원자력과

MF번호 2023-51 / 10 / 1-122

1993년 중 개최된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문가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OPCW 준비위원회 Working Group A 회의

- 일시 및 장소: 1993.3.1.~5. 헤이그
- 참가자: 홍승목 국제법규과 서기관
- 의제
 - OPCW 준비위원회 의사규칙
 - OPCW의 특권, 면제

892

2. OPCW 훈련 및 장비 관련 전문가회의

- 일시 및 장소: 1993.10.18.~22. 헤이그
- 참가자: 서우덕 군비통제관실 중령
- 의제
 - 화학무기 검증 전문가 양성 훈련 과정의 일반계획 및 시행지침 토의
- 주요 내용
 - 사찰관 양성 훈련 계획
 - 각국에서 개설한 NTP(연수교육과정)에 대한 인가 문제

3. 참고자료

- 외무부는 1993.8~9월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OPCW 전문가그룹 회의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면서 검토의견을 요청한바, 상공자원부 및 국방부는 검토의견을 외무부로 송부함.
- OPCW 화학산업시설 전문가그룹 회의(1993.7.19.~23.) 결과 보고서
- OPCW 사찰장비 전문가그룹 회의(1993.8.9.~13.) 및 사찰관교육 전문가그룹 회의 결과 보고서
- OPCW 화학무기 생산시설 전문가그룹 회의(1993.8.16.~20.) 결과 보고서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Hague(네덜란드), 1993.2.8.-12.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11 / 1-190

1993.2.8.~12.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차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의 사전준비 내용임.

1.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임인조 주네덜란드대사
-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실무자 및 화학분야 전문가 등

2. 개최 경위

- 1993.1.13.~15. 파리에서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
- 동 협약 이행기구인 OPCW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개최

3. 주요 의제

- 준비위원회 의장단을 비롯한 임시기술 사무국의 주요 간부 선출
- 준비위원회의 작업계획, 의사규칙과 예산 및 인사규칙 등 주로 준비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4. 훈령

- 임시기술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에 친한 인사가 기용되도록 분위기 조성
- 한국 화학산업 현황 홍보 등을 통한 집행이사회 진출 기반 조성
- 기술사무국에 한국 인력 진출 여건 조성
- 한국 화학산업의 현실에 맞는 OPCW 운영방향 제시
- OPCW의 적절한 규모 설정 및 형평에 입각한 재정분담이 실현되도록 여건 조성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Hague(네덜란드), 1993.2.8.-12. 전2권 (V.2 회의결과 및 사무국 고위직 선출문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12 / 1-189

1993.2.8.~12.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차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의 결과 및 사무국 고위직 선출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국 137개국 중 92개국

2. 주요 의제

- 준비위원회 잠정 의사규칙 및 인사, 재정 규칙
- 준비위원회 의장단 및 사무국 간부 선출, 임명
- 최초 3개월 활동계획 및 잠정예산, 서명국 분담금 비율 채택

3. 준비위원회 조직 구성

- 의장(6개월간): Azikiwe 나이지리아대사
- 임시기술사무국장: Kenyon 주제네바 영국공사

4. 평가

- 지역그룹별 논의에 역점을 둔 회의 진행
- 선진국·개도국의 협약기구 참여 경쟁 노정
- 향후 준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채택

5. 이스라엘의 OPCW 준비위원회 아시아그룹 가입문제

- 경위
 - 1993.2.11. 아시아그룹은 이스라엘 가입에 대한 컨센서스 미형성
 - 1993.3.11.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그간 중립적이던 중국과 일본이 이스라엘의 아시아그룹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화하였다고 한국 측에 통보
- 한국 입장
 -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에 비추어 아랍 국가들이 함께 동참하는 컨센서스 형성이 바람직

6. OPCW 준비위원회 분담금 문제

- 준비위원회가 배정한 1993년도 한국 측 분담금은 61,240달러, 1994년도 분담금 추정치 13만 달러



7. 준비위원회 사무국 고위직 및 의장단 선출

- 의장 및 부의장: 아주지역에서는 현재 이란이 유일 후보이므로 추가 후보가 없을 경우 이란 지지
- 사무국장: 영국, 헝가리, 러시아 후보 경합(한국은 영국 후보 지지)
- 사무차장: 인도,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후보 경합(한국은 인도 후보 지지)
- 검증국장: 호주, 독일 등 후보 경합(한국은 호주 후보 지지)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2차. Hague(네덜란드), 1993.4.19.-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13 / 1-211

정부는 1993.4.19.~22.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인조 주네덜란드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시행기구인 OPCW의 설립 준비

2. 참가국

- CWC 서명국 142개국 중 89개국

3. 회의 결과

- 주요 논의사항
 - 1993년도 작업계획, 예산 및 각국 분담률
 - 의사진행, 재무, 인사규칙 및 특권·면제협정 마련과 기구건물 준비
- 주요 결정사항
 - 1993년도 준비위원회 예산 및 각국 분담금 규모 승인
 - 1993년도 향후 작업계획 확정 및 Working Group별 임무부여
 - 의사규칙 채택
 - 임시기술사무국 간부 임명
- 회의 평가
 - 지역 그룹별 토의에 역점을 둔 회의진행
 - OPCW 참여 경쟁
 - 향후 준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작업계획 확정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3차. Hague(네덜란드), 1993.6.28.-7.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14 / 1-158

정부는 1993.6.28.~7.2.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인조 주네덜란드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79개국(제1차 회의: 92개국, 제2차 회의: 89개국)

2. 참가 목적

- 화학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위한 국제동향 파악 및 분석
- OPCW PrepCom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우방국과의 협조체제 구축

3. 주요 의제

- 행정(인사, 재무, 특권면제 등) 및 검증 분야(사찰 관련) 보고서 검토 및 채택

4. 회의 결과

- 향후 일정 확정
 - 제4차 회의: 1993.9.27.~10.1.
 - 제5차 회의: 1993.12.13.~17.
- 비회기 중 전문가그룹 임무 부여
 - 행정 및 검증 분야별로 기존작업의 보완 및 신규작업 개시

5. 향후 참가 방향

- OPWC 집행이사회 진출 및 기술사무국 인력 참여를 위해서는 전문가그룹 토의에 적극 참여 필요
- 이란, 일본에 이어 향후 기술사무국 아시아그룹 대표 입후보 추진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4차. Hague(네덜란드), 1993.9.27.-10.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15 / 1-122

정부는 1993.9.27.~10.1.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4차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인조 주네덜란드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82개국

2. 회의 목적

- OPWC 발족 및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검증 분야 준비사항 관련 논의

3. 주요 의제

- 행정 분야
 - OPCW 영구건물 확보, 자료처리체계, 재무규정, 인사규정, 특권 및 면제, 1994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 검증 분야
 - 화학무기 폐기·저장·생산시설, 사찰단 운영계획, 단일 소규모시설, 생산시설, 화학산업시설, 기술협력 지원, 검증 장비, 사찰관 교육, 강제 사찰

4. 회의 내용

- 비회기 기간 활동 보고
 - CWC 시행 준비 관련 보고서 작성, 건의안 전체회의에 상정
 - 임시기술사무국 직원 총원 등
- 행정 분야 준비사항 논의
- 검증 분야 준비사항 논의
- 기타
 - 한국 측이 제기한 북한 포함 CWC 미서명국 참여 문제 거론, PrepCom이 미서명국의 CWC 참여를 촉구하도록 함.

5. 한국대표단 활동

- 미서명국을 상대로 CWC 참여를 권유하도록 촉구
- 임시기술사무국 확대 시 한국 전문가 진출을 사무총장에 요청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제5차. Hague(네덜란드), 1993.12.13.-16.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1 / 16 / 1-96

정부는 1993.12.13.~17.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5차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인조 주네덜란드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안보 및 화학산업 관련 분야에서 한국 입장 옹호

2. 주요 의제

- 행정 분야 실무반 및 검증 분야 실무반의 보고사항 검토 및 조치

3. 회의 결과

- 미서명국 참여 유도 문제
 - 사무총장, 제4차 회의 결정에 따른 미서명국의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참여 유도 활동 보고
- 집행이사회 구성 문제
 - OPCW 집행이사회 구성 문제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 기타 사항
 - 일부 개도국은 향후 PTS 직원 총원 시 지리적 안배 강조
 - 중국은 강제 사찰 남용 가능성을 우려, 사찰단 구성 및 사용 장비 내용의 명확화 강조

4. 한국대표단 활동

- 미서명국의 CWC 참여 유도를 위한 사무총장의 활동에 사의, 지속적 노력 촉구
- 한국 전문가의 임시기술사무국 추가채용에 대한 지지 요청 및 1994년도 하반기 아주그룹 대표 (Coordinator) 입후보 의사 표명

한국인의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기술사무국(PTS) 진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2 / 1 / 1-226

1993년 중 한국인의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PTS(기술사무국) 진출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3.4월 기술사무국 사무총장 등 접촉, 홍대식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지 요청
- 1993.4월 이후 주제네바대표부 등 공관을 통한 지지 교섭 추진

2. 임용

- 1993.10.29. 한국 측의 임용추천에 대해 12.6. 기술사무국은 사무차장 명의 서한으로 임용 결정을 통보해 옴.

3. 전망

- 한국인의 동 기구 진출 최초 결실로 이후 조직적 진출 노력이 필요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국제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2 / 2 / 1-152

1992~93년 중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주요 국제 동향임.

1. 화학무기 폐기 관련 청문회(1993.1.20.) 시 러시아 대통령실 산하 생화학무기위원회 위원장 언급 요지

- 러시아가 금번 서명한 화학무기폐기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5억 달러를 부담해야 함.
 - 동 경비 조달방안이 상기 협약에 대한 의회 비준 신청 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러시아 외무성은 동 협약 가입국 중 국제감시단의 활동 참여국이 폐기비용을 부담하도록 교섭하여야 하며 화학무기 폐기 과정에 대한 비정부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 제정 등이 필요함.
-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4만 톤 규모의 화학무기는 7개 지역에 집중 보관되어 있는바, 동 화학무기는 타지역으로 수송 폐기하는 것보다는 보관 장소에서 폐기하고 동지역 거주민에 대한 보호 및 보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2.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확산에 관한 보고서(1993.2.23.자 군사위원장에게 제출) 관련 주요 내용

- 생화학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연방의 붕괴와 함께 생화학무기의 전세계적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기술발전예 따라 생화학무기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고 국제 정치환경이 불안정함에 따라 생화학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구소련연방 붕괴후 증대된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래 세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화학무기금지협정의 비준 및 시행을 강력 추진하는 한편 1972년 체결된 생물학무기금지협정에 대한 적절한 개정 추진
 - 생화학무기에 대한 강력한 방위체제 유지
 - 여타국의 생화학무기의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유지

한·호주 비확산 문제 협의. 서울, 1993.5.3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2 / 3 / 1-83

1. 한·호주 간 비확산문제협의회 개최 문제 제의

- 1993.4월 주한 호주대사관, 한국 측에 제의
 - 호주그룹 활동, CWC(화학무기금지협약),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역할, 비확산 등

2. 한·호주 비확산문제협의회(1993.5.31.,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영기 외무부 외교정책 제2심의관
 - 호주 측: Starr 외교통상부 군축국 부국장
- 한국 측 입장 요지
 - CWC 이행 및 관련사항 준비는 현재 추진 중
 - 생물·화학무기 비확산 협의체인 호주그룹 가입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 예정
 - MTCR, NSG(핵공급국그룹) 등 가입 문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나 충분한 검토 필요
- 호주 측 입장 요지
 - CWC 관련 국제 활동에서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협조 계획
 - MTCR은 통제범위를 확대중이며, 생물무기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BWC 검증체제 강화도 추진 중
 - 핵 비확산을 위해 핵군축이 중요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통상2과

MF번호 2023-52 / 4 / 1-216

1993년 중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COCOM 내 교역국(Intra-COCOM Trade) 지위부여 협의

- 1992.12.28.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여타 COCOM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에 COCOM 내 교역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의견 문의
 - 외무부는 상공부와 협의, 1993.7.1.부터 전략물자수출통제 시행 예정으로 일단 동 파리회의 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준비 현황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추진
 - 1993.1.16. 주프랑스대사관 측은 미국 COCOM 상주대표와 면담, 동 파리회의 시 일본에 의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소개

2. COCOM 관련 동향

- 1993.3.11.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내 월간지 Export Control News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 대해 홍보
- COCOM과 함께 NPT(핵확산금지조약),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등 비확산체제를 하나의 포괄적체제로 통합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2.20.자)에 따라 주일본대사관 확인 결과 일본 정부의 G-7 산하 실무자 레벨의 협의 추진계획 확인
 - 일본 내 언론은 3.17. 일본 정부의 한국 등 10여 개 아시아 국가의 수출관리통제 지원계획 보도
- 5.7. 미국 Inside US Trade지는 클린턴 미 행정부의 대러시아 관계 발전에 관한 성명에 입각, 미국 정부가 기존 COCOM을 개편해 냉전시대의 구소련을 대상으로 한 통제 위주 규정을 정비하여 러시아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 개편 추진 보도

3.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수립

- 1993.4.13. 상공부,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 및 4.20. 동 설명회 개최
 - 대외무역법 제24조의 3 규정에 따라 1993.7.1.자로 시행 예정인 동 시행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안) 제정 추진
 - 5.10. 제1차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 회의 개최, 동 주제 관련 한·미 연례협의회 준비 등 토의
- 5.20. 미 국무부 무기수출통제 전문단(4인)이 방한, 국방연구원 회의실에서 한국 당국자를 대상으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및 국제무기교역규정 소개 등 설명회 개최
- 6.11. 러시아 외무성 아태국장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규제대상국에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러시아대사관 측에 요청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통상2과

MF번호 2023-52 / 5 / 1-193

1993년 중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체제 운용

- 1993.7.31. 상공부
 - 중국은 COCOM에 의거 수출통제 대상 국가지만 행정 예외 내지 우호적 고려 적용을 받음.
 - 중국 정부가 수입된 전략물자를 민수용으로 사용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을 허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이 수출국일 경우 중국 정부의 보증서류인 최종용도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바, 중국의 최종용도설명서발급제도 및 사실 확인과 함께 향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략물자에 대하여 최종용도설명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중국 정부와 교섭을 요청함.
- 9.6. 한국 정부
 - 중국의 최종용도설명서 발급 거부만을 이유로 국내업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우선 미국 측에 기 전달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3조 2 다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받고 대중국 수출을 허가할 방침임을 미국 측에 통보
- 12.15. 과거처
 - 전략기술수출통제협의회 개최
 - 관계부처와 전략기술 수출 공고 개정안 등 협의

2. COCOM 관련 국제적 동향(Wassenaar체제 등장)

- 1993.7.20. 주미국대사관 보고
 - 7.16. 서방국 간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의 수출통제 협력 문제에 관한 협의 결과 북한 및 중동 국가 등 새로운 안보 위협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에 러시아 가입 허용 합의
-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완화 및 COCOM 개편 관련 기사를 10.1. Inside US Trade지에 보도
- COCOM 고위 실무급회의 개최(1993.11.16., 헤이그 Wassenaar)
 - 1994.3월까지 COCOM 체재의 점진적 해체(Phase-out)
 - 전략물자통제를 위한 새로운 통제체제 설립
 - 통제 리스트에 의거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물자수출통제 문제 협의
 - 수출허가와 관련 회원국의 재량권 확대
 - 러시아 및 CIS 국가들에 대한 참여 권유
- 주프랑스대사관은 12.14. COCOM 회의 시 한국에 대한 동 교역국 지위부여에 영국과 독일의 거부반응 보고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 관련 협력

- 1993.7.8. 러시아 외무성 과학기술협력국 부국장은 주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러시아 COCOM 규제 적용 재검토 요청
 -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시행은 한·러시아 간 문제라기보다는 COCOM의 대러시아 규제 해제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대응할 것을 주러시아대사관에 지시
- 7.15.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외무부에 한국의 COCOM 체제 도입에 따라 한국의 COCOM 내 교역국 지위를 차기 COCOM 회의 시 제의하겠다고 타진, 외무부는 미국과 함께 제의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과 협의
- 12.1. 미 국무부 측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 만족을 표하고, 미국 수출통제법상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을 원활하게 보장하는 지위인 5(K) 혜택을 한국에게 부여하고 COCOM 내 교역국 지위도 동시에 부여하도록 할 것임을 통보

무기 수출통제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2 / 6 / 1-72

1992~93년 중 국제사회의 무기 수출통제 관련 논의 동향임.

1. 유럽 동향

- EC(구주공동체)는 이중용도 품목을 EC 차원에서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 추진
- 독일 본 소재 ISSC는 1992.9.21.~22. 브뤼셀에서 “유럽 및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 세미나 개최

2. 일본 동향

- 일본 정부는 아시아지역 전략물자 수출통제 세미나를 1993.10.25.~27. 도쿄에서 개최
 - 이중용도 품목으로 수출통제 대상의 확대 추세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 제고 필요성 증대
 - 한국, 홍콩, 아세안 6개국 관계자 참석
 - 국제동향,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일본의 입법조치, 각국 사례 등 발표 및 토의

3. 미국의 1992년 이란·이라크 무기비확산법

- 주한 미국대사관은 하원을 통과한 “1992년 이란·이라크 무기비확산법”을 Non-Paper로 공유
 - 첨단무기 개발과 관련된 물품 및 기술을 이전하는 개인, 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 추진

4. 미 국무부 무기 수출통제 전문가그룹설명회

- 일시 및 장소: 1993.5.20. 국방연구원
- 참가자: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방산업계 관계자 20여 명
 - 미 국무부 무기교역통제과 부과장 포함 전문가 4명이 참석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
- 설명 요지
 - 무기거래의 상업적 성격 증대 경향 속에서 미국은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가 통제 업무 분담
 - 수출허가 물품의 목적지 및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진행되며,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 부과
- 한국 측 관심사항
 - 기 이전기술 활용 생산무기 수출, 기 허가 국가에 대한 수출, 까다로운 미국의 승인절차 등 제기
 - 미국 측은 사안별 처리를 추진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절차 진행을 권유

핵공급국 그룹(NSG).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2 / 7 / 1-126

1. 미국 측, 한국 정부에 NSG(핵공급국그룹) 관련 non-paper 전달(1993.2.5.)

-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이 외무부 안보정책과장을 면담하여 전달
- non-paper 요지
 - 미국 정부는 한·미국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회의 및 수출통제 협의 시 한국 정부가 NSG 및 Zangger Committee의 핵 수출 통제원칙 채택을 권유해 왔음.
 - 한국이 책임 있는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비확산을 위한 수출규제 관련 지침 채택이 중요
 -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는 일반 목적의 반도체, 컴퓨터 및 동 생산 장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님.
 - 미국 측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관리들과 만나 핵 비확산 수출통제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함.

2. 원자력수출통제제도 구축 자문회의(1993.3.9.) 결과

- NSG 가입 문제 관련, 아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가입의 타당성, 가입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 가입 후 수출통제 실행을 위한 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 등
- 미국 측이 제의한 한·미국 핵 수출통제 전문가 협의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 작업일정에 따라 1993.4~5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되 단순 의견교환으로 국한

3. 1993년도 NSG 정례회의(1993.3.30.~4.1., 스위스 루체른) 결과

-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 공급의 조건으로 핵 관련 활동에 있어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NSG 지침의 개정을 지지
- NSG 회원국 자격의 공식화 및 NSG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계획 채택
- 구소련 내 핵 비보유국들의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IAEA 안전협정 체결 및 효율적 핵 수출 통제 이행을 촉구
- 북한의 NPT 탈퇴 재고 및 의무이행 촉구

4. NSG 가입 관련 한국 정부 입장(1993.5월)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정부의 비확산 정책, 서방선진국과의 원자력 기술협력 증진, 서방선진국들의 우려 불식(제3세계에 핵기술 유출)을 위해 NSG 가입이 바람직
- 가입 여부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최종 결정

핵공급국 그룹(NSG).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2 / 8 / 1-128

1. 한국원자력연구소 자문회의(1993.7.22.) 결과

- NSG(핵공급국그룹) 가입 관련 정책적 판단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3.7~94.5월간 아래 연구 및 조사 추진
 - KOTIS(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수출실적 분석
 - 기업체와의 면담
 -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2. Kenneth Cohen 주한 미국대사관 과학기술 담당 참사관, 외무부에 아래 요지의 서한(1993.8.20.) 발송

- 한국의 NSG 및 Zangger Committee 가입문제를 2년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논의해 옴.
- 미국 정부는 한국의 상기 가입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한국 측의 긍정적 입장 표명을 기대함.

3.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NSG 의장 면담(1993.9.30.)

- NSG 의장 언급요지
 - NSG는 한국을 핵 물질 및 이중품목 수출 가능국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세계의 핵 비확산을 위하여 원자력 산업이 활발한 한국이 NSG에 가입하여 New Guidelines을 이행해 주기를 희망함.
- 이시영 대사 언급요지
 - 한국이 아직 NSG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NSG New Guidelines을 존중함.
 - NSG 가입에 대해서는 Part 1(핵물질)과 Part 2(이중품목)을 구분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호주 그룹(AG)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2 / 9 / 1-151

1. 호주그룹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관련 지역회의(1993.3.31.~4.2., 시드니)

- 참가국: 동남아 및 남태평양 21개 역내 회원 국가와 한국, 일본 등 옵서버 2개국
- 회의 결과
 - 참가국들은 역내 화학무기 부재를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화학무기 보유국의 CWC 서명 및 기존 화학무기와 생산시설의 폐기 촉구
 - 1995.1월부터 CWC 발효를 전제로 협약 비준 및 기타 국내 준비 절차 중점 토의

2. 호주그룹 회의(1993.6.2.~10., 파리)

- 참가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25개국 및 EC(구주공동체)
- 회의 결과
 - 생물·화학무기 비확산을 위한 각국의 관련 품목 통제 조치의 조화를 도모하는 기술적 측면을 중점 논의
 - 생물·화학무기 관련 수출통제를 위해 합의된 효과적 허가제도를 기초로 각국의 수출통제 효과성 제고방안 논의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약,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통상2과

MF번호 2023-52 / 10 / 1-175

1993.6.7.~9.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약의 관련 내용임.

1. COCOM 동향

- 1949.11월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수출 또는 유출 통제를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
- 1991년 구소련 붕괴 및 냉전 종식에 따라 규제 완화 및 체제 개편 논의 대두
 - 통제품목 축소 및 규제대상 국가 조정을 거쳐 점차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으로 중점 이동

2. 한·미 간 COCOM 협력

- 한·미 간에는 1987.9월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협의 시작
 - 미국은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실시를 위한 법령과 통제품목에 대한 사전협약에 관심
 - 1989.5.11. 양해각서 발효
- 한국은 1993.7.1.부터 수출통제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미국 측 대우 격상을 희망
 - 미국의 5K(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및 COCOM 전면협력국으로 격상 추진

3. 한·미 COCOM 실무협약(1993.6.7.~9., 호놀룰루/1993.11.1.,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외무부 통상2과장
 - 미국 측: 국무부 COCOM 과장
- 주요 결과
 - 미국은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현황에 만족하고, 연말부터 5K 혜택 부여 약속
 - 여타 COCOM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의하겠다고 약속
 - 한편, 미국은 한국의 3대 비확산체제(NSG(원자력공급국그룹), 호주그룹, MTCR(미사일기술 통제체제) 가입 요청

4. 기타 관련 동향

- 1993.4.19.~26. 미국 상무부 담당관이 방한하여 관련 업체 점검
- 5.20. 미 국무부 무기수출통제 전문가대표단이 방한하여 미국의 제도 설명회 개최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약,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V.2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통상2과

MF번호 2023-52 / 11 / 1-183

1993.6.7.~9.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약의 관련 참고자료임.

1. 한국 정부 관심사항

- 미국의 수출관리법상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및 COCOM 전면협력국 지위 획득
 - 이를 위해 1993.7.1.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출통제제도 시행 설명
- 전략물자수출통제로 인한 한국 업계의 대외교역에 대한 지장 최소화

2. 양국 간 관심사항 협상을 위한 검토자료

- 한·미 간 체결 양해각서, 부속서 및 관련 문서
- 수출입통제 절차 관련 자료
 - 전반적인 통관 절차
 - 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 발급 절차
 - 미국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절차

한·바레인 군사협력

생산연도 1986-1993

생산과 중동과

MF번호 2023-52 / 12 / 1-215

1986~93년 중 한·바레인 군사협력 동향임.

1. 바레인 국방성 공군 장교단 방한(1986.12.10.~15.)

- 목적
 - 한국과 공군조종사 훈련 및 항공기 부품, 장비 구입 등 협력 문제 협의
- 토의 내용
 - 조종사 교육, 정비/기술교육, 기술인력 지원, 방산품 구매, 항공기 창정비 및 개조, 정밀측정, 실험소 설치, 연례회의 개최 등 협의

912

2. F-5 전투기 훈련과정 참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교섭

- 바레인 국방부 요청에 따라 1992.9월 이후 F-5 전투기 훈련 과정 참석 희망
 - 한국 측이 양해각서 초안 제시 희망
- 국방부, 바레인 측과의 양해각서 교환 희망
 - 바레인 공군조종사 비행훈련 위탁교육 요청을 수락하며, 교육 시기는 1992.9월 이후, 인원은 총 4명으로 하되 2명씩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
 - 동 교육에 따른 세부사항(입과 자격, 훈련비용, 안전사고 및 보안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한국 공군본부와 바레인 담당부서 간에 협의, 사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 희망

3. F-5 전투기 훈련과정 참석을 위한 양해각서 무산

- 1992.5월 외무부, 바레인 공군 조종사 수탁훈련 합의각서(초안) 송부
- 6월 바레인 측 수정안 접수
- 1993.2월 바레인 방위군 사령부는 1993년 중에는 훈련생 파한이 어렵다고 통보

한·이집트 군사협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2과

MF번호 2023-52 / 14 / 1-47

1993년 중 이집트 군사절단 및 군 인사의 방한 동향임.

1. 이집트 군사절단 방한(1993.5.11.~22.)

- 경위
 - 1993.1.17. 이집트 국방부, 4월 또는 5월 중 이집트 군사절단 파견 예정임을 통보
- 파견 목적
 - 한국의 군수장비(각종 무기 및 차량 등) 수리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군 전문요원을 위한 기술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시찰
 - 양국 간 군 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 기술훈련 분야 협력 가능성 타진
- 파견자
 - 이집트 육군소장 및 해군준장
- 주요 일정
 - 국방부 제2차관보, 군수국장 예방
 - 육군 교육사 시찰
 - 공군 군수사, 육군 군수사, 해군 군수사 시찰
 -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삼성항공 시찰

2. Abdel Wahad 이집트 군 병원장 방한(1993.8.28.~9.3.)

- 국제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제19차 세계대회 참석
- 한국군 수도통합병원 방문

3. Farouq 소장(군기술학교장) 및 Salem 중령 방한(1993.12.12.~18.)

- 목적
 - 한국군의 기술훈련 제도 및 컴퓨터, 의료기기 등 보수유지 훈련을 포함한 관련시설 시찰

핀란드 SISU사 군 장비 구입 문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52 / 15 / 1-23

1991~93년 중 핀란드 SISU사 군 장비 구입 관련 내용임.

1. 구입 경위

- 1991.12월 주핀란드대사, 한국이 구입 및 제조 예정인 수륙양용차 입찰 관련 핀란드의 군 특수 장비 제조업체인 SISU-AUTO사에 입찰 기회를 주도록 건의

2. 진행 동향

- 1992.1월 국방부, 동 장비(NA-140)는 단순한 인원 수송용 차량으로 한국 측 요구 불충족
- 국방부, 동 장비는 박격포 탑재용으로는 한국 실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시험 평가 대상 장비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

한·프랑스 군사협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구주1과

MF번호 2023-52 / 16 / 1-139

- 대한민국 국방부와 프랑스 국방부 간 과학기술자료 및 과학기술자 교환에 관한 약정서 (1993.5.17.)
 - 목적: 양국 국방부 내 기관 간의 협력체제 수립
 - 원칙: 양국 간 협력 증진
 - 범위: 과학기술정보의 교환, 과학자 및 기술자의 교환, 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시설 및 시범 장비 분야에 대한 협력, 상호 관심대상 무기체계·장비와 이에 대한 개발·생산계획, 관련 용역에 대한 정보교환
 - 시행 책임관
 - 한국 측: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 프랑스 측: 국방부연구개발기관 관장
 - 국방연구기술공동조정위원회
 - 지적재산권
 - 책임
 - 보안: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름.
 - 분쟁의 해결: 3자 개입 불허
 - 효력 및 기간: 서명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

한·일본 안보협력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동북아1과/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2 / 17 / 1-88



- 아시아지역 전략물자수출통제 세미나(1993.10.25.~27., 도쿄) 개최
 - 참가자: 한국, 아세안 6국, 홍콩 외무성·통산성·관세청 소속 관계관
 - 주요 의제
 - 수출통제제도의 필요성과 국제안보 정세 개관
 - 다자간 수출통제 REGIME 설명
 - 국내적 수출통제제도의 수립과 시행
 - 사례 발표
 - 산업계의 협력과 기업의 내부수출 통제
 - 각국의 발표 및 토론
 - 결과
 - 동 세미나는 선진국에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가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출통제대상이 무기 관련 범용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비확산체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됨.
 - 비확산에 관심이 높은 일본, 미국, 호주가 경제발전에 따라 상기 범용품 생산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물자수출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둠.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올곡사업) 문제 한·미국 간 협조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2023-52 / 19 / 1-225

1993년 중 올곡사업(한국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한 한·미국 간 협조 관련 내용임.

1. 올곡사업 감사 협조 요청

- 1993.7.1. 감사원은 올곡사업 감사를 위해 재외공관에 감사자료 확보를 요청
 - 목적: 사업 대금이 계약업체에 정당하게 입금되는지와 동 업체의 수수료 약정액이 정당인지 확인
 - 요청자료: 계약업체의 수령대금, 동 업체가 국내에 지급한 각종 경비, 각종 증빙서류 등
- 7.3.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올곡사업 감사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 타진을 지시
 - 미 국무부의 협조 의사에 따라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계약 업체 및 사업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
 - 10개 사업의 GAO(회계감사원), SEC(증권관리위원회), 국무부, 국방부, 해당 업체 등 자료 요청

2. 올곡사업 감사 결과

- 1974~93년간 시행된 전차, 군함, 전투기, 탄약 등 23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 무기체계 및 기종 결정, 조달계약 및 이행, 무기획득 운용 및 방산업체 관리, 국산화 추진 등 분야 총 118건 지적
 - 조치 내역: 금품수수 혐의자 고발(6명), 비위 관련자 징계 및 인사조치(53명), 업체 부당이익 회수 등 시정(249억 원(28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등 통보(36건)

Abshire, David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방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53 / 1 / 1-122

1991~93년 중 David Abshire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장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91.3.22.~28. 방한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프레스클럽 연설, 국방연구원, 한화그룹, 럭키금성 등 방문
- 외무부장관 면담(3.25.) 시 주요 언급요지
 - Abshire 회장은 걸프전 당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CSIS가 주관하고 있는 동북아협의회(Northeast Asia Council) 의원교류 사업이 한국 안보상황에 대한 미 의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
 -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한국 농업의 특수성과 국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이어서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평가

2. 1991.11.1.~6. 방한

- 방한 목적
 - 국방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 참석
- 주요 일정
 - 노태우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면담 등

3. 1993.5.16.~19. 방한

- 방한 경위
 - 국제교류재단 주선
- 주요 일정
 - 노태우 전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면담, 프레스센터 강연 등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류 협력 및 한국위원회 운영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53 / 2 / 1-88

1993년 중 영국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류 협력 및 한국위원회의 운영 현황임.

1. IISS 개요

- 설립
 - 1958년 전략연구소 설립
 - 1969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로 개칭
- 조직
 - 영국 런던에 본부 소재
 - 세계 주요국에 국내위원회 설치
- 목적
 - 특정 국가의 이익을 옹호, 대변하지 않고 완전한 독립연구기관으로서 안보전략 문제 연구
 - 전략 문제의 군사적 측면 외에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측면도 아울러 연구

2. 인사 교류

- John Chipman 신임 소장 방한(1993.11.23.~27.)
 - 홍순영 외무부차관 오찬, 안기부장 및 국방부장관 예방, 동아일보 인터뷰

3. 회의 일정

- IISS 한국위원회 임시총회(1993.8.19., 서울)
 - 임원 개선 및 정관 개정
- 제35차 IISS 총회(1993.9.9.~12., 브뤼셀)
 - 주제: 냉전 이후의 유럽 안보
 - 약 400여 명 회원 참가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NPCSD). Vancouver, 1993.3.21.-2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53 / 3 / 1-35

1993.3.21.~24.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NPCSD(북태평양안보협력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캐나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1개국 관리, 학자 등 50여 명

2. 주요 논의사항

- 북태평양 안보 논의 동향 및 방향
- 안보협력을 위한 학계와 정책입안자 간 연계성 제고

3. 북한 참가 문제

-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소속 2명의 인사가 참석 의향 표명
- 1993.3.15.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측을 통해 불참 통보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에 따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구 등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측면을 부각할 의도로 평가

4. 회의 결과

- 역내 정부 간 다자대화의 방향과 속도(한국 측 주제발표), 아세안-PMC(확대외무장관회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등 동북아에서의 정부 간 협의를 구성 문제, 학계의 다자대화에 관한 협의, 국방 관계자의 다자대화 참여 문제 등 토론
- 2년간 회의 개최로 북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대화의 필요성과 인식 확산, 대화채널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11차. Washington D.C., 1993.11.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23-53 / 4 / 1-95

1993.11.1.~2.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1차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관련 내용임.

1. 학술회의 토의 내용

- 동북아 다자 간 안보체제 모색을 위하여 동북아 경제협력, 북한 핵 문제 및 동북아 4강 간 관계 등 논의
- Selig Harrison 카네기재단 연구위원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한 간 평화조약 체결, 연락사무소 설치, 주한미군 철수 등 10개항에 걸친 양보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패키지 어프로치를 제시하였으나 참가자들은 부정적인 반응
- Georgia Tech John Endicott 교수가 북한 핵 및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1,200마일 반경의 '제한적인 비핵지대(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대만, 몽골 일부 포함)' 추진을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이 동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
- 북한 핵 문제 포함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는 미·일본 관계, 미·중국 관계 등 양자관계 개선 및 다자 간 안보협력체제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참가자들이 대체로 공감

2. 주요기관 방문

- 학술회의 계기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은 미 국무부, 미 의회연구소(CRS), 미 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재단 및 카네기재단을 방문하여 미국의 관계기관 및 연구소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등에 관한 의견 교환

3.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 연구기관 간의 국제학술회의(동북아) 개최현황

- 1982.7월 미 조지타운대학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매년 미국 측 공동주관 기관과 서울 또는 워싱턴 D.C.에서 번갈아 개최
 - 미국 측 공동주관 기관은 Pacific Forum,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버클리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조지워싱턴대학 중소문제연구소,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Atlantic Council 등임.

UN NRS(국가전문인력충원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워크숍. 북경, 1993.5.16.-3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3 / 5 / 1-180

정부는 1993.5.16.~31.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경제기술교류중심 및 유엔경제사회개발국 주관 유엔 NRS(국가전문인력충원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워크숍에 정재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개최 목적

- 아·태지역 소재 개도국 중 아직 NRS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NRS 현황 및 운영 사례 소개

2. 한국 대표 활동

- 유엔 관계관에게 한국의 NRS 설치 및 적극적인 유엔 활동 참여 필요성 강조
- 유엔 DDMS와 1994년 하반기 한국에서의 공동 워크숍 개최 협의
- 중국 정부 관계자와 1994년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문제 협의
- NRS 관련 자료 송부 요청

UN NRS(국가전문인력충원기구) 회의, 제13차. Cairo, 1993.3.29.-4.2.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3 / 6 / 1-142

정부는 1993.3.29.~4.2.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 NRS(국가전문인력충원기구) 회의에 유태현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성격

- 유엔이 시행하는 각종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할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는 기구

2. 참가 목적

- 유엔의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 전문가 및 컨설턴트의 진출방안 강구
- 각국의 NRS 운용 현황 파악 및 한국 내 NRS 설치 여부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3. 회의 결과

- 사무국 협력 사업과 관련된 사무국 개편
- 건의서 만장일치 채택

4. 건의사항

- 한국 내 NRS 설치 적극 검토

UNDP(유엔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진출 추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3 / 7 / 1-151

1993년 중 UNDP(유엔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진출 추진 동향임.

1. 입후보 경위

- UNDP 사무국의 아·태지역 국장이 1993.10월 중 퇴임 예정
- 한국 측 입후보자로 박을용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교류협력센터 소장 천거

2. 선발 절차

- 각국 후보자 중 UNDP 행정처장이 적임 후보자를 선발, 유엔사무총장이 최종 임명
- 현 Draper 행정처장은 1993.7.15. 퇴임 예정으로 Speth 신임 처장이 7~8월 중 국장 인선을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
- 입후보 현황
 - Valdepnas 필리핀 전 개발장관, Sovan 방글라데시 전 유엔대사

3. 동향

- 1993.6.9. 주유엔대사, 현 Draper 처장에게 외무부장관 명의 추천 공한을 전달하고, 호의적 고려 요청
- Speth 행정처장, 최종 후보자와 2~3일간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면서 최적임자를 선정 한다는 입장
 - 한국, 필리핀, 태국, 인도 후보 등 유력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 한국인 진출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53 / 8 / 1-115

1. 유네스코 수습직원 대상자 선정

- 1991.6월 유네스코 수습직원 프로그램(Probationers' Programme)에 한국인 김문정(24세, 이화여대 졸업)이 대상자로 선정됨.
 - 한국은 유네스코 사무국 근무자가 한 사람도 없는 Non-represented Country로서 1991.4월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 중 1명이 대상자로 선정된 것임.
 - 1991년 현재 유네스코 사무국에는 3명의 북한인이 정식직원으로 근무 중

2. 1993년 현재 유네스코 사무국 내 한국인 진출 현황

- 1993.7월 이완희, 한준희 등이 주유네스코대표부의 노력으로 진출에 성공
 - 유네스코 사무국 한국인 근무자는 총 4명으로 증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제도 검토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53 / 9 / 1-168



1992~93년 중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제도 관련 내용임.

-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 및 국제기구 파견 실적(1992.8월)
 - 총계: 직원 139명, 파견 55명
 - 유엔산하기구(3개): 직원 10명, 파견 8명
 - 유엔전문기구(10개): 직원 17명, 파견 18명
 - 무역개발기구(3개): 직원 5명, 파견 8명
 - 국제금융기구(5개): 직원 103명, 파견 11명
 - 정부·준정부간기구(9개): 직원 4명, 파견 10명

농림수산부 직원 국제기구 파견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53 / 10 / 1-166

1991~93년 중 농림수산부 직원의 국제기구 파견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농림수산 분야 대외협력 증대 및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에 따른 준비 차원에서 국제기구 파견 추진
 -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

2. 파견대상 국제기구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과장급 2명(1명 수산 분야)
 - 농림수산부, FAO 야태사무소 이명수 서기관의 FAO 본부 이전 근무 추진
 - 1991.9.19. FAO 측, 이명수 서기관의 이전 근무 허용 결정 통보
 - 1992.6.1. FAO 측, 아·태 사무소 이명수 서기관의 후임자(농림수산부 추천) 채용 결정 통보
 - 12.21. 이명수 서기관의 FAO 본부 후임자 접수 결정 통보
- WFP(유엔세계식량기구): 국장급 1명
 - WFP 측은 고위직 접수 문제를 예외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극적 입장
 - 1991.10.18. WFP 사무국은 고위직 수용 불가 입장 통보
-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과장급 1명
 - 손찬준 서기관의 부이사관 승진 후 FAO 파견 추진
 - 1991.10.11. IFAD 측은 2년 임기 취업 결정 통보
 - 12.30. 손찬준 부이사관 부임

3. 협의 절차

- 농림수산부, 직원의 국제기구 채용 및 파견으로 인한 비용 부담
- 외무부와 농림수산부, 채용 및 파견 등에 관한 행정절차 협의
- 외무부, 주이탈리아대사관을 통해 FAO 측과 이전, 채용, 파견 접수, 승급, 후임 등 협의

재무부 직원 유엔 다국적기업관리국(TCMD) 파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3 / 11 / 1-77

1993년 중 재무부 직원의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산하 TCMD(다국적기업관리국) 파견 관련 내용임.

1. TCMD 파견

- TCMD 측은 1993.3.27.자 파견이 만료되는 김성진 서기관의 후임자 파견 요청
- 재무부는 김 서기관 후임자를 1993.6.15.부터 1년간 파견 추진
 - 김성진 서기관 파견 근무는 그때까지 연장
- TCMD 측은 제네바로 이전함에 따라 후임자는 유엔사무국 경제사회정보 및 정책분석처에서 근무 조치
 - 1993.10.1.~94.6.30. 근무

2. 참고사항

- TCMD 직원 파견에 따른 경비는 신탁기금 기여로 처리
- 1993.9.15. TCMD 연구정책분석과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 협의
 - 외무부 경제기구과장,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과기처 기술협력2과장 면담

체신부 직원 UPU(만국우편연합) 전문가 파견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53 / 12 / 1-86

1991~93년 중 체신부 직원이 UPU(만국우편연합) 본부에서 연수함에 따라 외무부와 체신부 간에 직원 파견, 임기 연장, 보수 지급 등을 협의함.

1. 체신부 직원 파견 경위

- 제20차 UPU 총회(1989.11월, 워싱턴)에서 제21차 총회(1994.10월)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
- UPU는1994년 서울(개도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 체신부 직원 4~5명을 파견국 경비부담 조건으로 서울 총회 준비 연수차 UPU 본부에서 2년간 연수하도록 함.

2. 체신부 파견 직원 및 파견기간

- 신명휴 서기관: 1991.3.12.~92.12.31.
- 후임: 임종태 서기관(1993.1.1.~12.31., 연장가능)
- 박종석 행정사무관: 1991.3.12.~92.12.31.
- 후임: 전성배 행정사무관(1993.1.1.~12.31., 연장가능)
- 이형우 부이사관: 1991.7월~92.6.30.
- 최재유 행정사무관: 1991.3.1.~92.8.31.
- 강영철 행정사무관: 1992.9.1.~94.8.31. 등

유엔총회 산하 주요기관 선거 및 입후보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3 / 13 / 1-139



1993년 중 유엔총회 산하기관의 선거 관련 내용임.

- 행정예산자문위원회
 - 러시아, 카메룬, 쿠바, 스웨덴, 미국 당선
- 기여금위원회
 - 브라질, 중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벨기에, 러시아 당선
- 회계감사단
 - 가나 당선
- 투자위원회
 - 미국, 영국, 일본 당선
- 행정심판소
 - 이스라엘, 우루과이 당선

한국의 유엔 산하기구 이사국 진출

생산연도 1991-1992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3 / 14 / 1-92

1991~92년 중 한국의 유엔 산하기구 이사국 진출 관련 내용임.

1. 주유엔대사, 유엔 산하 주요기구 이사국 진출 통보(1992.1.29.)

- 아시아그룹 의장 레바논대사 앞 공한을 통해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DP(유엔개발계획), 여성지위위원회 및 범죄예방 위원회 이사국 선출의 한국 입후보 결정을 공식 통보

2. 한국 정부, 범죄예방위원회 이사국 선출 피선(1992.2.6.)

- ECOSOC 조직회의에서 범죄예방위원회 이사국 선출에 이사국으로 피선, 3년 임기
- 표결 결과
 - 아시아(9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란, 스리랑카, 한국, 사우디, 오만, 요르단
 - 서구(7개국): 이탈리아, 불란서,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 동구(4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유고
 - 아프리카(12개국) 및 중남미(8개국): 그대로 인준

3. 한국 정부, 유엔 산하 주요기구 이사국 진출

- 한국은 1992.4.29. 개최된 1992년도 ECOSOC 조직회의 속개회의에서 4개의 유엔 산하기구(UNDP, 인권위원회, 계획조정위원회 및 공보위원회) 이사국으로 각각 선출됨.
- 이사국 진출은 1991.9월 유엔가입 이후 한국의 대유엔 외교가 본 궤도에 진입한 것을 의미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53 / 15 / 1-232



1992~93년 중 한국의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현황임.

1. UNEP(유엔환경계획)

- 1993년도 기여금 15,000달러 납부(예년 수준)

2. UNCHS(유엔인간정주위원회)

- 1993년도 자발적 기여금 18,500달러 납부

3.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 1993년도 분담금 4,943,533페세타(PTS) 납부

4.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위원회)

- 1993년도 분담금 4만 달러 납부

5. APDC(아태개발센터)

- 1992년도 분담금 10만 달러를 납부하였으나, 1993년도는 예산 부족으로 미납

6. APCTT(아태기술이전센터)

- 1992년도 분담금 1만 달러 납부

7. CCC(관세협력이사회)

- 1993/94년도 분담금 3,088,000BF 납부

8.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송금) 내역 수록

한국의 유엔 정규 및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납부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3 / 16 / 1-221

1. 한국의 유엔 분담금 현황(1993년도)

- 한국은 1991년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92~94년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0.69%, PKO(평화유지활동) 경비 분담률 0.138% 수준
 - 이 분담률에 따라 1992년도 한국은 정규예산 분담금 680만 달러, PKO 분담금으로 200만 달러를 청구받아, 이 중 각각 570만 달러와 100만 달러 납부
- 유엔 분담률은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 외채 수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3년 단위로 재조정되는 만큼 1995년 이후 한국의 분담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

2. 한국의 유엔 분담금 납부 실태 및 개선방안(1993.8월, 외무부)

- 한국은 유엔가입 이래 예산 사정으로 분담금을 당해연도에 완납하지 못하고 있음.
 - 1993년도에는 전년도 미납분을 포함하여 2,900만 달러를 청구받았으나, 배정 예산은 2,500만 달러로 연말까지 약 400만 달러 부족 예상
 - 결국 차년도 예산으로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미납액 누증으로 차년도 예산에 부담가중이 불가피
- 유엔 분담금은 2년분을 초과할 경우 총회 투표권이 정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예산책정 시 전액 반영 필요
 - 특히, 유엔 분담금은 연초에 납부하게 되는바, 예산배정 시 전액을 조기 배정할 필요가 있음.

유엔개발 활동 기여금 납부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3 / 17 / 1-172



1. 유엔의 인도적 구호 활동에 대한 한국의 지원 규모(1992년도)

- 남부 아프리카 한발 피해
 - 정부 5만 달러, 민간 22만 달러
- 소말리아
 - 정부 18만 달러, 민간 70만 달러 및 쌀 500톤

2. 유엔 인도적 긴급구호기금 관련 한국 입장(1993년도)

- 한국 정부는 재난과 기근으로 시달리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긴급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입각한 신외교 구상을 실현한다는 입장임.
 - 최초 연도에 150만 달러로 시작하여 2~3년 내 300만 달러로 증액 검토
 - 추후 매년 10~20% 증액 고려

3. 1994년도 유엔 서약 분담금 증액 필요성 검토

- 동서 냉전 종식을 계기로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역할 강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유엔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 출연 규모의 매년 일정을 증액을 요청
- 외무부는 유엔개발 활동 관련 한국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약 분담금의 점진적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이와 관련 1994년도 예산 가운데 UNFPA(유엔인구기금), UNFPA(유엔노인신탁기금), 유니세프,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 여성향상기금 예산은 경제기획원 조정안에서 평균 20~30% 증액 요구

유엔사무국 개편. 전2권 (V.1 1991-92)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3 / 18 / 1-231

1991~92년 중 유엔 경제·사회 분야의 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 동향임.

1. UNDP(유엔개발계획) 본부 이전

- 미국 뉴욕에서 독일 본으로 이전하는 방안 협의

2.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 체제 개편(의제 56)

- 배경
 - 1990년 이후 탈냉전 시대를 맞아 유엔 내 경제·사회 분야 개편 및 강화 문제 부각
 - 세계 개발 및 인류복지 증진을 위한 유엔체제의 노력은 제도, 운영상의 결함으로 문제점 노정
 - 정부 간 기구(총회,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 개편과 유엔사무국 개편의 두 차원에서 추진
- 정부 간 기구(총회, ECOSOC 및 산하기구) 개편 문제
 - 제45차 총회 결의 45/264는 유엔의 경제·사회 및 관련 분야의 재편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채택
 - 총회 및 ECOSOC의 기능 분담 및 활성화
 - 개발을 위한 실행 활동 강화
- 사무국 개편 문제
 - 갈리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래 적극 추진
 - 사무국 고위직 감소, 유사기능 부서의 통폐합(16개 부서 감소),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 활동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사회 부서 확대 개편

유엔사무국 개편. 전2권 (V.2 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1 / 1-202

1993년 중 유엔 경제·사회 분야의 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 동향임.

1. 유엔 비엔나사무소의 기능 일부 조정

-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비엔나사무소 내 CSDHA(유엔사회개발센터) 기능 중 사회개발 및 여성 부문의 뉴욕 이전과 뉴욕 소재 COPUOS(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의 비엔나로의 상호 이전 제안

936

2. 유엔 경제·사회 분야 체제 개편 결의안 채택

- 경위
 - 유엔개발활동의 자원확보 방법, 사업 시행 주요 기구의 집행이사국 수 축소 문제 등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의견 절충으로 채택 성공
- 개편 요지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구조조정 및 활성화
 - 총회, ECOSOC 및 유엔개발기구 간 업무 분장 및 상호 보완성 강화
- 평가
 - 총회, ECOSOC 및 그 산하기관 간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책임소재 수립
 - 집행기구의 규모 축소 및 비집행이사국의 회의 참가 제한으로 선진국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 될 전망

각국의 유엔가입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4 / 2 / 1-314

1992~93년 중 각국의 유엔가입 동향임.

1. CIS(독립국가연합) 8개국 및 산마리노의 유엔가입 결의안 채택(1992.3.2.)
 -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안보리는 1993.1.21.~2.20. 가입 권고 결의
 - 한국은 8개국 유엔가입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2.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의 유엔가입 결의안 채택(1992.5.22.)
3. 조지아(구 그루지야)의 유엔가입 결의안 채택(1992.7.31.)
4.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유엔가입 결의안 채택(1993.1.19.)
5. 모나코 및 에리트레아의 유엔가입 결의안 채택(1993.5.28.)

마케도니아(FYROM) 유엔가입, 1993.4.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54 / 3 / 1-139



1993년 중 마케도니아의 유엔가입 관련 내용임.

1. 가입 경위

- 1992.7.30. 마케도니아, 유엔가입 신청
- 1993.1.4. 그리스 외교장관은 주그리스대사에게 마케도니아의 유엔가입 신청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
 - 외무부는 EC(구주공동체)의 절충 또는 그리스·마케도니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해결되기 전에는 마케도니아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그리스에 통보

938

2. 유엔안보리는 마케도니아 유엔가입 결의안 채택(1993.4.7.)

- 표결 없이 유엔안보리 결의 제817호로 채택

3. 유엔총회, 마케도니아 유엔가입 결의 채택(1993.4.8.)

- 국명: '구유고마케도니아공화국'를 잠정 국명으로 가입
 - 181번째 유엔 회원국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4 / 4 / 1-100

1993년 중 개최된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1993.1.13. 회의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각종 기구에 그룹 후보 추천 문제 협의(지속가능개발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다국적기업위원회, ECOSOC 아주지역 부의장 직위 등)

2. 1993.1.18. 회의

- 아주그룹 회의 실질 문제(선거 이외 문제) 협의 가능성 논의
- 이스라엘의 '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아주그룹 가입 문제 검토
- 키르기스스탄의 아주그룹 가입 희망 관련 검토

3. 1993.3.22. 회의

- 키르기스스탄 신규 가입 등 협의

4. 1993.4.23. 회의

- 유엔 공보위원회 의장 추천, 유니세프, UNDP(유엔개발계획) 및 인권위 후보 조정 등 협의

5. 1993.5.14./5.27. 회의

- 유엔 50주년 기념행사 협의
- 선거관계는 차기 회의로 연기, 유니세프 부의장(레바논) 추천, UNEP(유엔환경계획) 입후보(중국) 표명 등

6. 1993.6.24. 회의

- 제48차 총회 의장단 선거 문제 등 협의

7. 1993.7.12./7.16./7.22. 회의

- 차기 아주그룹 의장국으로 인도 선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국) 입후보 문제 협의
- 6개 위원회 의장 선출 방식 협의



8. 1993.8.26. 회의

- 총회 의장단 추천 관련 협의
- 한국의 제48차 총회 부의장 피선

9. 1993.9.10./9.17. 회의

- 제48차 총회 주요 위원회 의장단 선거관계 협의

940

10. 1993.10.18./10.28. 회의,

- ECOSOC 선거, 기여금위원회 선거,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선거, 안보리 개편 문제 등 협의
- 기여금 서약회의 의장, 유엔 군축위 의장단 선거 등 협의

11. 1993.11월 회의

- JIU 후보 조정 및 UNDC(유엔군축위원회) 부의장 추천

12. 1993.12.16. 회의

- UNDP 집행이사국, 인권위, 여성차별철폐위, 인종차별철폐위 입후보 문제 협의, 카자흐스탄 제의 Agenda for Peace 검토를 위한 특별회의 개최 결의안 초안 배포 등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 기본대책 및 의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5 / 1-114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의 기본대책 및 의제 관련 내용임.

1. 기본대책

- 외무부장관 유엔 방문 추진
- 총회 운영
 - 한국이 총회 부의장국으로 피선,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총회 운영 등 관여
- 실질 토의 대책
 - 안보리 개편 등 유엔 강화,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활동 효율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핵실험 금지 등 핵심 의제 중점 토의 참여
 - 총회 산하 각 위원회별 의제 및 활동계획 수립

2. 미국 및 북한 동향

-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제48차 유엔총회 관련 미국 측 관심사항을 외무부에 전달(1993.7.29.)
 - 유엔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
 - 평화지속 분야
 -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 민주화 및 인권
 - 안보리 개편, 유엔 재정 문제, 인도적 구호활동
 - 중동문제 관련 결의 처리 연기
- 북한대표단(10.2. 뉴욕 도착)
 -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 주창준 주중국 북한대사, 최우진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등 6인

3. 주요 의제 및 토의

- 추가 의제로 부룬디 정세, 르완다의 사회경제재건 및 긴급원조 포함 총 172개로 확정
- 총회 의제 44호(인도적 구호) 토의 시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연설
 - 한국은 구호기관들 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조정, 개발과 구호를 결합하는 정책 등 발언
- 벨라루스 측 요청으로 체르노빌 복구 관련 총회 결의안에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 의장단 및 대표단)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6 / 1-118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의 의장단 및 대표단 관련 내용임.

1. 의장단 구성

- 총회 의장에 지역별 순환 원칙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카리브지역 순번으로 동 지역그룹의 추천을 받은 Samuel Insanally 주유엔 가이아나대사가 선출됨.
 - 한국은 동 대사가 한국 겸임 대사임을 감안하여 지지 통보
- 총회 부의장으로 아주그룹에 5석 배정, 한국이 부의장으로 아주그룹 지지 확보 및 피선
 - 총회 개막을 앞두고 아주그룹은 내부 협의를 통해 총회 의장단, 산하위원회 기관의 의장, 부의장, 보고관 등 아주그룹 배정 임원국 추천 조정 시행
- 1993.9.21. 제48차 총회 개막 및 의장단 선출
 - 제1위원회(독일), 특별정치위원회(스리랑카), 제2위원회(베냉), 제3위원회(슬로바키아), 제5위원회(알제리), 제6위원회(우루과이) 등 산하기관 임원 선출

2. 한국대표단

- 대표단 구성
 - 대표 5명, 교체대표 5명 및 자문
 - 대표단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의원 및 여성계 인사 포함 검토
- 수석대표
 - 한승주 외무부장관, 유종하 주유엔대사(교체수석)
- 한승주 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계기 안보리 이사국, 유엔 내 영향력 행사국 대표 등과 면담 추진
 - 유엔사무총장, 총회 의장 등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3 기조연설 I: 일정교섭/각국 연설문)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7 / 1-362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시 한국 기조연설 일정 및 각국의 기조연설 관련 내용임.

1. 한국 기조연설 일정 조정

-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전제하에 기조연설 일정을 1993.9.28. 오전으로 잠정 확정
 - 추후 김영삼 대통령 참석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동 일정 취소
- 한승주 외무부장관 기조연설을 9.29. 오후로 확정

2. 주요국 기조연설

- 미국(클린턴 대통령)
 -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확산, PKO(유엔평화유지활동)의 효율성 등 강조
- 일본(호소카와 수상)
 - 일본의 과거 행적 후회 및 세계평화 기여 다짐, NPT(핵확산금지조약) 무기 연장, 북한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등
- 중국(전기침 외교부장)
 - 냉전 이후 다극화된 질서하에 상호 간의 존중 및 평등 인정 중요,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지지 및 핵실험 완전금지 지지 등
- 북한(송원호 외교부 부부장)
 - 자주성 원칙에 입각한 대내외 정책 강조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및 유엔사 해체 주장
 - 핵 문제의 미·북한 간 정치적 해결 강조 및 제37차 IAEA 총회 결의를 정치적 음모로 비난
 - 전 세계적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의 폐기, 한반도 및 주변 국가의 핵무기 철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 부인

3. 각국 기조연설(1993.9.27.~10.15.)

- 총 176개국
 - 국가원수급 28명, 왕자 2명, 수상급 13명, 외무장관급 122명 등
- 공통 내용
 - 유엔의 예방외교 활동과 경제개발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 강조
 - 유엔의 개혁을 통한 유엔 활성화
 - 군축, 인권, 환경 등 국제적 관심사 관련 입장 표명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4 기조연설 II: 우리측 문안작성)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8 / 1-209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시 한국 외무부장관의 기조연설문 작성·시행 및 총회 참석 활동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장관 기조연설

- 1991년 유엔가입 이래 두 차례 대통령 기조연설 이후 최초의 외무부장관 기조연설 추진
- 주유엔대표부 기조연설 문안 건의(1993.8.20.)
 - 국제정세 개관, 유엔의 역할 강화,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국제안보 및 군축, 북한 핵 문제, 국제경제 문제, 사회 문제, 한국 정부의 신외교, 아태지역 정세, 남북한 관계 등으로 구성
- 외무부 기조연설문 초안 작성 및 주유엔대표부 송부(9.20.)
 - 다원적 국제질서, 국수적 민족주의 및 저개발 문제, 유엔사무국 개편, 개발 협력, 환경 문제 포함
- 연설문 일부 수정
 - 총회 의장인 주유엔 가이아나대사가 주한 가이아나대사를 겸임하는 사실 적시, 유엔의 재정 문제 및 창설 50주년 언급 등 포함
 - 연설 시행 직전까지 일부 문안 계속 수정, 최종 확정(9.27.)
- 한승주 외무부장관 기조연설 시행(9.29.)
 -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지지 및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촉구
 - 북한에 대해 남북한 관계의 걸림돌인 핵 문제 해결 촉구
 -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의 신외교 천명
 - 안보리 관련 제3의 그룹 신설을 통한 개편 지지 및 한국의 안보리 진출 희망

2. 외무부장관 총회 참석 계기 활동

- 유엔총회 의장, 멕시코·헝가리·알제리 외무장관 면담
- 부의장국(한국)의 수석대표로서 기조연설 직후 총회 의장 대행으로 총회 주재
- APEC(아태경제협력체) 외무장관을 위한 미 국무장관 주최 조찬 참석 및 워싱턴 D.C. 방문
 - 미 의회 및 행정부 주요인사 면담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5 외무장관 참석 I: 사전준비(5-8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9 / 1-154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시 사전준비 관련 내용임.

1. 제48차 유엔총회 참석(1993.9.25.~10.2.) 계기 행사 검토

- Asia Society 한국축제 참석
- 미국 외교협회 조찬 또는 오찬 간담회 추진
- 뉴욕타임스 논설위원, 한국 특파원 등 언론 간담회 추진

2. 유엔 주요 인사 면담 및 행사

- 유엔사무총장 및 총회 의장 면담 추진
- 유엔사무총장 주최 오찬 참석

3. 외무장관회담 개최 추진

- 고려 기준
 - 한국과 중요한 양자 현안이 있는 국가
 - 유엔 내 영향력 행사국
 - 최근 한국과 외무장관 접촉이 없던 국가
- 한국 측 제의 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스페인, 헝가리,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집트, 오만
- 상대측 제의 국가(9개국)
 - 회담 수락 결정: 모잠비크, 이스라엘, 튀니지, 칠레, 슬로베니아(수상), 에리트레아(대통령)
 - 회담 여부 검토: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스리랑카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6 외무장관 참석 II: 사전준비(9-10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10 / 1-188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관련 사전준비 관련 내용임.

1. 외무장관회담 추진

- 총 26개국과 회담 또는 면담 추진 검토
- 특히 한국의 안보리 진출(1996~97년 임기) 관련 아주그룹 주요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에 면담 제의
 - 동 안보리 진출 시 경합이 예상되는 스리랑카와 회담 개최

2. 외무부장관의 각종 행사 일정 추진

- 한·칠레 외무장관회담 의제 검토
 - 칠레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입후보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 가입, Cimma 외상 방한, 칠레산 신선과일 수출 문제 등
- 한·멕시코 외무장관회담 의제 검토
 - Salinas 대통령 방한,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문제, 멕시코의 APEC 가입 등
-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 면담 일정 추진
 - 이와 별도로 Tarnoff 미 국무부 차관의 외무부장관 예방 요청
 - 9.30. 동 장관 초청 조찬 행사에 외무부장관 및 주유엔대사 참석
- 9.27. 루마니아 외무장관 주최 만찬 참석 추진
 - 총회 의장, 안보리 의장, 법률담당 사무차장, 동구권 및 CIS(독립국가연합) 외무장관 참석
- 9.30. 워싱턴 D.C. 방문, Foley 미국 하원의장 면담
 - 동일 Lake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면담 추진
 -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 및 동 위원회 민주·공화당 간사 면담 추진
- 10.1. 워싱턴 D.C. 개최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 지원회의 참석

3. 외무부장관 유엔 방문(1993.9.25.~10.2.) 계기 일정 최종 확정

- 9.26.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Weymouth 면담, 아시아소사이터티 한국축제 개막행사 참석
- 9.27. 스페인, 튀니지, 슬로베니아 외무장관 면담 및 루마니아 외무장관 만찬 참석
- 9.28. 라트비아 및 에리트레아 대통령 면담, 아르헨티나, 칠레, 이스라엘, 호주 외무장관 면담
- 9.29. 멕시코, 알제리, 헝가리 외무장관 면담 및 총회 기조연설
- 9.30. 미 국무장관의 APEC 외상 초청 조찬 행사, Foley 미 하원의장 예방 등 미 의회 인사 면담
- 10.1. 미 국무부 개최 중동평화 지원회의, 미국 외교협회 오찬 간담회 참석 등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7 외무장관 참석 III: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11 / 1-194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시 외무부장관 참석 결과 관련 내용임.

1. 유엔총회 참석 계기 일본 방문(1993.9.23.~24.)

- 호소가와 총리 예방: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 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원칙 합의
- 외무장관회담
 - 양국 간 사할린 동포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협력자세 확보,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재확인

2. 유엔총회 참석 및 활동(1993.9.25.~30.)

- 갈리 유엔사무총장 면담
 -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한국 기여 확대 희망

3. 워싱턴 D.C. 방문(1993.9.30.~10.1.)

- 폴리 하원의장 예방, 해밀턴 하원 외무위원장 및 롬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면담 등
- 팔레스타인 지원 국제회의 참석
 - 46개국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유엔, 세계은행 등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8 외무장관 참석 IV: 개별 면담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12 / 1-202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계기 외무부장관의 유엔 방문 일정에 따른 면담자료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의 유엔 방문(1993.9.25.~10.2.) 일정 및 면담자료(외무부 국제기구국 작성)

- 유엔 방문 일정
 - Asia Society 한국축제 참석, 이집트 외무장관, 유엔사무총장 등 방문

948

2. 면담자료

- 개별 면담자료
 -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모잠비크, 짐바브웨, 에리트레아, 영국, 스페인, 헝가리, 러시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외무장관

3. 워싱턴 D.C. 방문 관련 자료

- 폴리 미국 하원의장 면담 대화자료
 - 한·미 관계 평가, 대통령 방미 관련사항, 미국 내 정세 관련사항 등
- 리 해밀턴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 면담 대화자료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9 외무장관 참석 V: 유엔 현안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4 / 13 / 1-166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계기 유엔 관련 현안 및 참고자료임.

1. 유엔 관련 주요 현안(외무부 국제기구국 작성)

- 안보리 개편, 유엔평화유지상비군,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소말리아 정세와 UNOSOM II (소말리아 유엔사령부) 활동 현황, Agenda for Peace 논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문제, 총회 활성화 결의, 유엔 재정 상황, 유엔경제사회 분야 체제 개편, 세계인권회의 후속조치, 사회 개발, 한국인 유엔사무국 진출 등
- 각 주요 현안별 한국 입장 및 주요국 입장

2. 외무부장관 유엔 방문 참고자료(외무부 국제기구국 작성)

- 세계 정세
 - 미국 주도하 안보 질서 유지, 국제경제질서가 구조적으로 개편될 전망
- 동북아 정세
 - 미국의 참여 및 안보 유지 역할 지속, 일본의 정치적 역할 증대, 중국의 개혁·개방 지속, 러시아의 혼미는 당분간 계속되고, 역내 다자안보대화가 활성화될 전망
- 한반도 관련 정세
 - 남북대화 현황, 대북 경험, 한국의 통일정책, 한반도 군축, 북한의 최근 정세 등
- APEC(아태경제협력체)
-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
 - 범아태지역 18개국 외무장관 간 ARF(아세안지역포럼) 개최 등 역내 국가 간 신뢰 증진 노력 등
- 유엔사 해체 문제 등 휴전협정 체제
- 기타 주요 국제문제
 - 캄보디아 정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중동평화회담, 소말리아 사태, 아파르트헤이트 문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태, 국제 군축 동향, 환경 등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0 본회의 I: 의제 및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1 / 1-138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시 본회의 의제 및 결과 관련 내용임.

1. 운영

- 의제 배분
 - 의제 41(아프가니스탄 원조) 등 총회 산하 제2위원회 할당
 - 의제 45(니카라과 원조) 등 본회의 심의
- 의제 추가
 - 조지아(구 그루지야), 라이베리아, 우간다, 르완다 및 아이티의 유엔감시단 재정 문제
 - 부룬디 정세
 -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채택 등

950

2. 활동

- 캄보디아와 니제르의 유엔 투표권 회복(분담금 미납금 일부 납부)
- 남아프리카 경제 및 원유 제재조치 철회 결의안 총회 상정 및 만장일치 채택(1993.10.8.)
- 라이베리아의 기초연설을 끝으로 일반토의 종결, 사무총장 보고서(의제 10), ICJ(국제사법재판소) 보고 등 심의(10.13.)
- 한국, 지뢰 제거 지원 관련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에 동의
- 발틱 국가로부터의 외국군 철수 문제 토의(11.15.)
 - 러시아는 동 지역 거주 러시아인에 대한 인권보장과 철군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부인하면서, 철군 협상 시 인권문제 거론 입장 표명
-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및 남아공 교육연수지원 사업 토의(12.13.~15.)
 -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공사의 본회의 연설 시행, 한국의 대남아공 유엔정책 지지 의사 표명
- 무기금수조치 해제 촉구조항을 포함한 보스니아 사태 관련 결의안 채택(한국 불참)(12.20.)

3. 결과

- 총 184개 회원국 중 175개국 기초연설 시행
- 총 175개 의제 상정 및 토의, 12.23. 휴회
- 속개회의에서 The Sovereign Military Order of Malta에 대한 옵서버 지위 부여
 - 한국은 이탈리아 제안 옵서버 지위 부여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1 본회의 II: 중동/팔레스타인문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2 / 1-196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시 중동 및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내용임.

1. 중동/팔레스타인 문제 동향

- 가자지구 유엔 고위대책반 구성(1993.9.9., 유엔대변인 발표)
 - 유엔은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가자지구의 경제사회개발 문제를 담당
- 이·팔 평화회담 등 중동정세 변화에 주목, 주유엔대표부는 외무부 훈령에 따라 유엔 내 팔레스타인 및 중동 관련 동향 보고(9.24.)
 - 평화협상 타결 시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등 유엔의 역할, 사회경제개발 지원,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 조정 등
 - 주유엔 이스라엘대표부는 9.23. 공한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채택되어 온 팔레스타인 및 중동 관련 시대착오적 결의안이 지양되도록 한국 측의 협조 요청
 - 또한, 동 대표부는 이·팔 평화협상 진전에 따라 신중동 결의안을 추진하며, 이에 한국 측이 공동제안국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

2. 한국의 팔레스타인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여부 검토

- 외무부(아중동국)는 한국의 대중동 정책이 친이스라엘로 급진전화 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비난 결의안 및 팔레스타인 지원 결의안 지지 입장을 유지
- 중동정세 관련 예루살렘에 관한 결의안 및 골란고원 이스라엘군 철수 요청 결의안 지지
- 다만,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인티파다 관련 결의안은 기권

3. 중동/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 심의 결과

- 중동평화협상 관련 결의안 채택
 - 한국 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 예루살렘 및 골란고원 관련 결의안 표결 채택
-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 권리,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5개의 관련 결의안 표결 채택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2 본회의 III: 마약문제 특별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3 / 1-90

1993.10.26.~28.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시 마약문제 특별회의 관련 내용임.

1. 한국대표단

- 주경식 보건사회부차관 등 5명

2. 참가국 및 발언국

- 82개 회원국 기조연설 시행

3. 개최 경위

- 제47차 총회에서 결의 제47/99로 제48차 총회 회기 중 마약 관련 고위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제48차 회기에서 International Drug Control 의제하에 본회의에서 토의

4. 토의 내용

- 약물남용과 불법 거래 억제 관련 유엔헌장 및 국제법 원칙 준수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생산, 판매 및 배분 억제 국제협력 상황 검토
- 약물남용과 불법 거래와의 투쟁을 위한 국제 활동

5. 회의 결과

-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마약 퇴치를 위한 7년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마약 문제가 AIDS, 환경 및 빈곤 문제와 더불어 범세계적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연대로 대처 필요 강조
- 각국 대표는 마약의 수요, 공급 및 법 집행 측면에 대해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와 국제적 공동 대응 노력 강조
- 한국 대표는 마약 퇴치를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원칙과 각국의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 등 강조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3 본회의 IV: IAEA 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4 / 1-156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총회 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IAEA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에 관한 결의안 교섭 및 채택 관련 내용임.

1. IAEA 보고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 작성

- 1993.10월 비엔나 주재 IAEA 이사회 의장단(호주, 헝가리, 인도네시아)이 주요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결의안 초안 작성

2. 결의안 채택

- 총회는 동 결의안을 찬성 140표, 반대 1표(북한), 기권 9표로 채택
 - 전문 및 본문 4개항에 대한 분리투표가 시행된 결과 모두 가결
- 동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수 개도국을 포함하는 52개국 참가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4 제1위원회 I: 1993.8-10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5 / 1-149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운영 및 일반토의 관련 내용임.

1. 제1위원회 운영 개요

- 총회 의장은 1993.9.27. 회람 공한으로 동 위원회 할당 의제 통보
 - 유엔군축위원회 보고(대량파괴무기 신규 개발 금지) 등 27개항 의제안 할당
- 동 위원회 일반토의(10.18.~28.) 개최, 결의안 심의 및 채택(11.1.~25.)
 - 생화학 무기, CTBT(포괄적핵실험금지), 남아시아 비핵지대, 군비 투명성, 과도 유해한 재래식 무기 금지 등 주요 이슈 토의 예상
 - 11.23.~25. 남극 문제 토의 예정

2. 일반토의 결과

-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NPT(핵확산금지조약) 존재를 평가하고, 미가입국 가입 촉구 및 1995년 검토회의를 거쳐 무기한 연장 의견 대세
 - 다만, NPT 불평등성에 대한 상당한 지적 도출
- CTBT 조기 타결에 대한 강한 기대감 표출, 10.15. 중국의 핵실험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의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 화학무기금지협약 체결이라고 평가
- 재래식무기 감축 노력 관련, 모든 국가들이 무기이전등록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참여 촉구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5 제1위원회 II: 1993.11-94.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6 / 1-320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결의안 채택 및 후속 이행 관련 내용임.

1. 주요 결의안 협의

-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및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관련 결의안 각각 발의
 - CTBT의 조속 시행 지지,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 대인지뢰 수출유예 결의안
 - 미국 측의 한국 공동제안국 가담 제의 및 동 제의에 대해 한국의 안보 상황 관련 신중한 자세 견지
- 독일 주도의 국제 안보, 군축 및 관련 분야 과학기술의 역할 결의안에 대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 파키스탄 주도 남아시아 비핵지대 결의안
 - 인도가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 한국은 찬성 발언을 통해 핵 비확산 저지의 원칙적 입장 설명
- 화학무기 결의안에 대한 이란의 수정안 제출로 논의 격화, 채택 실패
- 핵무기사용금지협약,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국제안보 강화 선언 등 비동맹 주도 결의안 다수 제출

2. 결의안 채택

- 1993.11.1.~19. 결의안 심의 및 채택 완료
 - 46개 의제에 49개 결의안 제출, 심의 결과 44개 결의안 채택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발칸 국가 간 우호협력, 무기불법거래방지책, 재래식무기 군축, 대인지뢰 수출유예, 제1위원회 합리화 등 신규 6개 결의 포함
- 주유엔대표부는 제1위원회 결의안별 제안국, 남북한의 표결, 공동제안국 참여 등 자료 보고

3. 제1위원회 결의 후속 이행 등

- 유엔사무총장은 제48차 총회 결의 48/72(군비투명성) 관련 재래식무기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1994.4.30.까지 제출 요청, 한국 정부는 1994.5월 무기 수출입 실적 등을 유엔사무국에 제출
 - 또한, 기타 군사비 감축, 지역 군축, 대인지뢰 수출유예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제출 요청
- 제1위원회 속개회의(1994.9.7.~9.), 동 위원회 의제 합리화 문제 협의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6 제1위원회 III: 기조연설/참가보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7 / 1-178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기조연설 및 참가 보고 관련 내용임.

1. 기조연설

- 한국(1993.10.25.)
 - 유종하 주유엔대사, 외무부와 주유엔대표부 간 협의로 작성된 기조연설 시행
 -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지역 군축과 신뢰 구축 중요성 등 강조
 - 북한 핵 문제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 의무 불이행 우려 및 핵의혹 해소 촉구
- 120여 개국(10.18.~28.)
 - 대부분 국가들이 핵군축 문제에 중점,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조속 체결 및 NPT(핵확산 금지조약) 연장 등 지지
 - 호주, 멕시코, 세네갈 등 15개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핵 비확산 맥락에서 발언
- 북한(10.22.)
 - 핵 문제 해결의 현실적 방안은 북·미 협상이며, 유엔사 해체 주장

2. 참가보고서

- 제48차 유엔총회 제1위 참가자료(1993.10월, 외무부)
 - 회의 일정, 의제 등 회의 참가 개요
 - 북한 핵 문제를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 유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 등 기본 지침 및 분야별 회의 참가 지침 설정
 - 핵무기 비확산 등 주요 이슈별 한국의 입장 및 관련자료 수록
- 유엔총회 제1위 참석 및 워싱턴 D.C. 방문 활동 결과 보고(1993.11월, 외무부)
 - 동 제1위원회 일반토의 및 군축주간 기념 심포지엄 참석 및 기타 활동 결과 보고
 - 미국 워싱턴 D.C. 방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핵 비확산 과장, 동아태국 지역총괄과장 및 핵무기통제국 부국장 등 면담 결과 보고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7 제2위원회 I: 8-10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8 / 1-228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2위원회(경제) 회의 및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의제 토의 일정

- 1993.10.8.~12. 각국 기초연설
- 개발과 국제협력(무역, 개발, 환경 등): 10.13./10.20.~22./11.11.~12./11.19.~23./12.3.
- 외채위기와 개발, 인적자원 개발,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인구, 빈곤퇴치 등 의제별 토의 일정 사전 확정

2. 각국 기초연설

-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와 협의하여 불안정한 세계 경제 평가와 전망,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통한 국제무역의 발전, 개발협력 관련 공여지원 확대,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 등 논지를 중심으로 기초연설문 작성
 - 10.12. 기초연설 시행(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 G-77(의장국 콜롬비아)은 빈곤퇴치, 개발 협력, 무역자유화, 외채 문제, 환경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균형적인 선진국들의 협조 촉구
- 미국은 동 위원회 의제가 너무 많고 중복되므로 건설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지속적 개발, 인도적 구호, 건강 및 아동 생존, 경제적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논의를 제의
- EC(구중공동체, 벨기에 대표)는 우선 과제로 절대빈곤 퇴치, 지속가능개발, 인간개발을 강조하고, 동 위원회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조정과 아프리카 개발 등에 관한 관심 촉구

3. 주요 사안 토의

- UNIO(유엔잠정사무소): 구소련연방 7개국에 설치되어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담당
 - G-77(개도국 그룹)은 동 사무소 기능 확대에 반대
- 외채위기 문제
 - G-77,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은 선진국의 외채 탕감 폭과 대상국 확대를 요구, 관련 결의안 제출
 - 선진국들은 채무국들의 경제사회 안전화와 구조조정, 책임분담 강조
-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 체제 개편, 인적자원개발, 개도국 간 기술협력, 니카라과 재건지원 등 토의
- 최빈개도국 지원 및 개도국 간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결의안 등 의제 관련 결의안 협의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8 제2위원회 II: 11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9 / 1-243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2위원회(경제) 회의 및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주요 토의내용

- 1993.11.3. 경제성장 및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의제 일반토론 시 북한 발언
 - 북한 정부는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하에 두만강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소개
-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1993.11.4.~5.) 관련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중국 등 67개국 발언
 - 인구와 빈곤, 저개발, 환경 간의 상호 연관성 속의 인구문제 중심성과 인구문제가 범세계적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 강조
- UNIO(유엔잠정사무소)의 정치적 조정기능 확대에 관한 기능적·절차적 측면의 문제점 부각, 한국도 발언을 통해 신중한 입장 견지
- 유자망 조업중단 이행실적 보고서 배포, 한국 관련 내용 포함
- 유엔의 개발 실행 활동 관련 한국은 개발협력이 수혜국 입장에서 추진될 필요 강조
 - 유엔개발담당 사무차장, UNDP(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 유니세프 및 UNIFEM(유엔여성개발 기금) 대표 출석 및 발언
- 개발과 국제협력 의제하에 무역과 개발, 개발을 위한 과학과 기술, 기업가정신 및 재난 피해국 지원방안 토의
- 환경 의제 일반토의 시 한국 포함 48개국 발언
 -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후속조치를 소개하며 사막화방지협약안을 제시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한 인간 정주 문제 해결의 중요성 강조
 - 유자망조업 중단을 위한 국제압력 유지, 환경 및 개발 문제에 대한 유엔의 적응성 제고 등 논의
-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일반토의 관련 미국, 덴마크, 방글라데시 등 발언 해소책 논의

2. 주요 결의안 협의

- G-77의 인적자원 및 경제성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결의안 초안 제시
- 국제무역과 개발 결의안 협의 개시
 - 환경 문제 포함 여부가 쟁점
- 세계인구개발회의의 주최국 이집트가 G-77을 대표해 결의안 발의
- 미국 주도 기업가정신, 르완다 재건지원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19 제2위원회 III: 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10 / 1-181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2위원회(경제) 회의 및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결의안 협의 및 채택

-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결의안에 대한 협의 계속
 -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이 철회를 요구한 정치·경제적 강압 수단으로서 경제조치와 이스라엘 정착촌의 경제·사회적 영향, 외채위기 및 개발 등
 - 기업가정신과 민영화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쿠바 등 계획경제 국가들이 우려 표명
- 체르노빌 참사 관련 국제협력, 구유고 안보리 제재 이행국가 피해 지원, 예멘·레바논·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르완다·앙골라·엘살바도르 지원, 중미경제협력 결의안의 경우 간단한 수정 후 컨센서스 채택
- 아프리카지역 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정보체계 발전강화 등 아프리카 관련 4개 결의 컨센서스 채택
- 구소련지역 국가들의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UNIO(유엔잠정사무소) 관련 결의안은 사무소 명칭을 Field Office로 하고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하게 하는 수정을 가한 후 문안에 최종 합의
- 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결의안 등 9개 결의안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통한 문안 합의, 최종 컨센서스로 채택
-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 관련 결의안 일부 수정 후 컨센서스로 채택
 - 한국은 어족의 연안국과 조업국 간의 균형된 입장 반영 주장
- 1993.12.13. 결의안 처리 종료 및 동 제2위원회 소관인 총 52개 결의안을 12.21. 본회의 상정 및 의결

2. 주요 토의

- Agenda for Development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 유종하 주유엔대사는 1993.12.6. 연설을 통해 개도국은 자조의 정신으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증가로 국제협력의 정신을 진작하고, 충분한 재정확보와 개발단계에 따른 기술이전 필요성 강조
 - 미국, 일본, 중국, 핀란드(북구 대표), 콜롬비아 등 발언을 통해 개발 과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3. 종합 평가

- 대부분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통과되는 반면, 경제 문제에 관한 선진·개도국 간 의견 차이 노정
- 선진·개도국 대립 구도에서 러시아 등 전환기 경제 국가군의 등장으로 한정된 유엔의 개발재원 확보 경쟁과 함께 개발 우선순위 및 접근방식 이견 해소 필요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0 제2위원회 IV: 환경회의의 참가)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11 / 1-113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2위원회(경제) 환경 의제 일반토론(1993.11.19.~23.) 관련 내용임.

1. 토의 의제

- 개발과 국제협력 의제하 환경, 사막화 및 한발
-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결정 및 권고 이행 의제하 사막화방지협약 성안, 군소도서 개도국 지속개발 세계회의, 공해상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사용 및 보전(경계 왕래 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960

2. 참가자

- 정해욱 외무부 과학환경과장 등 3명

3. 토의 내용

-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후속조치의 이행 진전 관련 선진·개도국 간 이견 조정
 - 특히,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불만족
- 대규모 원양 유자망 어로
 - 한국 및 일본의 유자망어업 중단을 높이 평가하고, 지중해에서의 위반에 대해 비판
- 군소도서 개도국 지속개발 세계회의
 - 다수국가들이 1994.4월 바베이도스 회의에 앞서 작성된 실천계획 초안의 재검토 사전회의 개최 지지
- 사막화 및 한발
 - 사막화방지협약은 1994.6월 최종회의에서 채택 예상 및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고려 평가
- 공해상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보존
 - 경계 왕래 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의 관련, 다수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결과 기대

4. 회의 결과

-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의 발언
 -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후속 이행을 위한 각국의 의지 및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
 - 사막화방지협약의 구조, 실질 행동 지향적 사업계획, 재정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한국 입장 설명
 - 한국은 1992.11.30.자로 대규모 원양 유자망어로 완전 중단 설명, 유엔어족회의의 관련 해양법 협약과 합치 필요 강조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1 제3위원회 I: 8.27.-11.1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5 / 12 / 1-371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사회, 인도 및 문화) 소관 사안 및 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일정

- 기간: 1993.10.11.~12.3.
- 논의 주제: 인종차별 철폐, 자결권, 사회개발, 형사사법, 마약통제, 난민, 여성 지위, 인권, 경제 사회이사회 보고 등
- 결의안 채택: 1993.12.3.

2. 주요 논의내용

- 카슈미르 인권문제
 -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인권문제의 유엔총회 제출 관련, 주한 인도대사 및 파키스탄대사는 각각 외무부에 자국 입장 지지 요청
 - 한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 불표명
- CHR(인권고등판무관직) 신설
 - 선진국 및 대부분의 개도국은 찬성하였으나 중국, 쿠바, 미얀마, 리비아 및 인도네시아는 총회 차원의 위임 필요 주장
- 인종차별 철폐 및 자결권
 - 남아공 및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진전을 환영하면서, 보스니아 인종청소 규탄 및 현대적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확산 우려
- INSTRAW(여성권익증진연구훈련소)/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의 통합 문제 제기
- 사회개발
 - 일반토의 시 한국 대표(소병용 차석대사)는 발언을 통해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 적극 참여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 분야 개발을 위한 입장을 발표함바, 각국의 발언도 이와 유사
- 자결권과 관련된 자치 문제가 토의된바, 다수국가들은 동 의제 논의에 반대
- 난민문제 해결은 분쟁 원인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개발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의견

3. 결의안 협의

- 장애인 문제, 아프리카 범죄예방기구, 외국인 밀입국 방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사회개발정상 회의에 관한 결의안 제출, 난민문제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 용병 사용, 아파트헤이트 범죄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지위, 민족자결권의 보편적 실현, 자치를 통한 자결권 실현, 약물남용 등 결의안 추가 제출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2 제3위원회 II: 11.11.-3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1 / 1-302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사회, 인도 및 문화)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요 사안 토의

- INSTRAW(여성권익증진연구훈련소)/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 통합 문제
 - 상당수 국가들이 신중한 입장이며, 미국, 중국 등은 사무국과 전자지구 소재국인 도미니카 간의 협의사항이라고 판단, 도미니카 및 일부 중남미 등 개도국은 동건 검토 연기를 주장
- 인권문제
 - 인권 분야 기준설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후는 이행의 문제에 초점이라는 의견 대두
 - 이라크, 아프간, 남아공, 쿠바, 아이티, 이란, 미얀마 등 국별 인권상황 보고 및 토의
 - 미국, 스웨덴, 벨기에는 구유고, 소말리아, 아이티, 쿠바, 이란과 함께 중국의 인권침해 지적
 - 한국은 1993.11.26. 발언을 통해 CHR(인권고등판무관직) 신설 지지 표명,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이 상호 의존적이며 국가적 특수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반대한다고 발언
- 여성지위 향상 문제
 -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등
- CHR 신설 문제
 - 미국 등 서구 선진국, 중남미, 아프리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중국, 이라크, 쿠바, 인도네시아 등은 기존 제도 활용 주장

2. 결의안 협의

- 쿠바 주도 용병 사용 결의안에서 남아공의 용병 사용 관련 사태 진전의 미반영을 이유로 한국은 기권
- 유엔사무국 내 여성지위 향상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 1993.11.12. 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 관련 결의안 등 8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
 - 용병 사용 등 3개 결의안 표결로 채택
- 인종차별 철폐 제3차 10년대, 난민 문제 관련 회의 개최, UNHCR(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확대, 아제르바이잔 난민 상황 등 관련 결의안 제출 및 설명
- 주한 이란대사는 외무부에 자국 외상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란의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 표결 시 반대 입장 요청
- 파키스탄이 추진한 카슈미르 인권문제 결의안은 파키스탄 측이 상정 포기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3 제3위원회 III: 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2 / 1-162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사회, 인도 및 문화)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요 사안 토의

- 라트비아/에스토니아, 몰도바 동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인권상황
 - 러시아 측의 발틱국가 내 러시아어 사용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 및 에스토니아 측의 반박
 - 몰도바의 분리주의지역 내 인권남용 상황 비난

2. 결의안 채택

- 여성지위 향상 관련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등 8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
 - INSTRAW(여성권익증진연구훈련소)/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의 통합 문제에 관한 결의안은 동 문제에 관한 검토를 차기 총회로 연기
- 쿠바, 이라크, 이란, 수단 등 국별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된바, 한국은 이란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고 모두 찬성 투표
 -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구유고, 소말리아 인권상황 관련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
- 기타 인권의 효율적 향유방안 등 인권 관련 결의안 20개 표결 없이 채택
- 라트비아/에스토니아 인권상황은 러시아와 타협이 이루어져 표결 없이 채택
- 미국 주도의 CHR(인권고등판무관직) 신설 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채택
 - 1994.1월 이전에 고등판무관 임명 추진

3. 활동 평가

- 총 14개 의제하에 70개의 결의안과 6개 결정 채택
- 주요 성과로 CHR 신설로 인권증진 및 보호에 새로운 전기 마련
- 동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미거론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4 제4위원회 I: 10.6.-11.1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3 / 1-191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4위원회(특별정치·탈식민지) 활동 관련 내용임.

1. 일반 토의

- 비자치지역 문제
 - 괌, 지브롤터, 서부사하라 및 뉴칼레도니아 대표들이 자기 지역 상황 설명
 - 중국, 벨기에, 인도, 영국, 러시아 등은 비자치지역 내 외국군대의 주둔과 외국기업 활동에 관한 발언, 서부사하라 대표의 독립 관련 모로코의 비협조 언급에 대한 모로코 측의 반박 등 논의 전개
- 핵방사선 영향 문제
 - 중국의 핵실험 재개에 관해 호주 등 유감 표명
- 정보 문제
 - 유엔공보국 개편 및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설치 관련 조속 이행 논의
 - 77그룹은 선진국의 정보독점 관련 유엔에 의한 객관적인 정보의 적기 보급 필요 강조
 - 유엔개발프로그램과 유엔정보센터 간의 통합 관련 절차 논의, 개도국은 동 통합은 사무국 차원이 아닌 회원국들과 협의를 위해 동 센터 논의 필요 강조
 - 한국 대표는 발언을 통해 대개도국의 정보 능력 및 보급 강화, 언론의 독립 및 다원성 강조
 - 북한 대표는 정보 분야 불균형 및 불공평 문제와 비동맹 공보장관회의(1993.6월, 평양) 성과 언급
-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문제
 -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 회원국 증원 추진 및 제3차 UNISPACE 개최 검토
 - 동 위원회 증원 시 아주지역은 카자흐스탄, 구주지역은 포르투갈 및 튀르키예가 가입 희망
-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관련 재정 문제
 - 실무작업반 보고서에서 1994년도 기여금 확대지원 요청

2. 결의안 협의 및 채택

- 1993.10.28. 비자치지역 현황 보고, 서부사하라, 지브롤터, 뉴칼레도니아, 아메리칸 사모아, 괌 등 10개 비자치지역 문제에 관한 옴니버스 결의안 등 통과
-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결의안
 - 외기권 발사물체 등록 관련 인공위성명 표기 방법 협의
-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결의안
 - 호주 등 서구권과 별도로 비동맹 측도 준비하고, 노르딕 국가는 지휘 및 통제 강화에 관한 결의안 준비
 - 외무부는 결의안 초안의 중복 조항을 통합하여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 PKO 요원의 안전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조항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동 결의안 협의 대처 지시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5 제4위원회 II: 11.12.-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4 / 1-145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4위원회(특별정치·탈식민지)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요 의제 토의

-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 우주폐기물 문제를 외기권 환경보호 차원에서 외기권의 평화적이용위원회 산하 법률소위원회에서 논의 추진 및 동 위원회의 위원국 증원 시 한국도 가입 추진 필요 건의
- 이스라엘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의제 토의 시 이스라엘 점령지에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적용 논의
-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1993.11.29. 한국 대표 연설, 안보리 수권의 명확화, 요원 안전 강화 등 언급
 - 동 의제 토론 시 북한 대표가 유엔사 해체를 주장
 - 한국 측은 즉각 답변권을 행사하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 시까지 유엔사는 존속 당연 언급

2. 결의안 협의 및 채택

- PKO
 - 결의안 관련 비공식 협의를 통해 문안 조정
 - 요원 안전 문제, PKO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 문제 해결, 상비군(stand-by forces) 설치 등 협의
-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관련 결의안 10개 상정, 채택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동 기구 자문위원회 참여 문제 협의
- 이스라엘 점령지 내 인권침해 조사특위 보고 관련 4개 결의안 표결 채택
- 총 14개 의제에서 29개 결의 및 7건의 결정 채택
 - 이스라엘·PLO 간의 잠정자치 합의로 UNRWA 등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 채택이 다소 수월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6 제5위원회 I: 199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5 / 1-383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5위원회(행정·예산) 활동 관련 내용임.

1. 유엔 재정 문제 개선 추진

- 1993.2월 포드재단에서 발표한 효율적인 유엔 재정보고서 요지
 - 1992년도 유엔 총예산: 52억 달러(정규예산,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각종 기여금 포함)
 - 정규예산, PKO 예산 및 자발적 기여금 개선책 건의
- 갈리 유엔사무총장, 8.26. 제5위원회 속개회의 시 재정위기 호소 및 사무총장의 제48차 총회 제5위원회 개회 발언 시 재정 심각상황 설명
- 유엔재정 상태 개선 및 유엔의 재정위기, 유엔 PKO 재정·행정 문제 의제하에 만성적인 재정 상태 개선 문제 협의
- 분담률 산정기준을 주요 의제로 제48차 총회 기간 중 새로운 분담률 산정방식 결정 추진

2. 주요 의제 및 결의안 토의

- 분담금 산정기준 토의
 - 소득 개념 및 산정 통계 기간, 환율, 분담률제한제도 폐지 여부 등 각종 적용기준 토의
 - 개도국은 일인당 소득 개념을 중시하고, 선진국은 국민소득만을 고려하자고 주장
 - 협의 결과, 개인 국민소득은 7년간의 평균과 8년간의 평균소득의 평균치로 하고, 분담률제한 제도는 2개 회계연도에 걸쳐 폐지
- 유엔합동감사단 보고, 유엔연금제도, 유엔일반제도 의제하에서 감사제도, 연금산정방식 등 토의
 - 또한, 회계감사 의제에 관한 일반토의(11.17.~23.) 진행 및 미국은 감사총장실 신설 제안
 - 벨기에는 감사총장실 제안에 대해 사무총장과의 관계에서 반대하는 의견 제시
-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1995 예산안 제출: 2,749,064,000달러 정규예산, 1% 순증
 - 상기 예산안에 대해 유엔행정예산문제 자문위원회는 186,473,000달러 삭감 권고
- ICSC(국제공무원위원회) 보고서 토의 시 봉급 인상 수준 등을 포함한 결의안 토의
- 유엔연금제도에 관한 결의안에서 일반직의 연금산정 대상을 복무기간 중 받은 보수기준 제시
- 합동감사단, 연금제도, 유엔공동제도, 재정보고서에 관한 4개 결의안 채택(12.4.)
- PKO 재정 토의 시 기여금 분담률 산정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 그룹별 분류 검토
 - 평화유지 예비기금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서는 속개회의 시 검토로 결정
 - 비공식 협의를 통해 경비 분담률 관련 국가별 그룹 배정 문제의 협의를 위한 작업반의 임무를 연장해 계속 토의 결정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7 제5위원회 II: 1994(속개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6 / 1-288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5위원회(행정·예산) 결과보고와 1994년도 동 위원회 속개회의 관련 내용임.

1. 제48차 유엔총회 제5위원회 참가보고서(1994.2월)

- 1993.9.29.~12.22. 총 46회 공식회의
- 유엔 산하기구 재정보고서 등 총 31개 의제 토의, 17개 결의 및 24개 결정 채택
 -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이 유엔의 행정 및 운영에 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예산안 작성 방식의 개선, 자원 및 인력의 효율적 사용 필요성, 유엔 조직개편 작업에 대한 회원국과 사전협의 등 강조

2. 제5위원회 속개회의

- UNOMOSA(유엔남아공감시단) 예산안 심의(1994.2.10.)
 - 동 감시단 운영예산과 관련해 정규예산 사용 관련 논란 제기
- PKO(유엔평화유지활동)를 위한 유엔사무총장의 지출 권한을 1994.3.1.~31. 중 5개 PKO 활동에 대해 승인
 - UNAVEM(유엔앙골라진상조사단) 등 15개 PKO 활동 예산 승인
- 구유고 전범재판소 예산 문제
 - 일부 개도국들은 PKO 부담률을 적용 주장한 데 대해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서구권 국가들은 정규예산으로 충당 주장 대립, 사무총장의 1,1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권한 인정
- PKO 예산 부담률 조정 문제(1994년도 각국의 PKO 예산 부담률 보고)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자국의 부담률이 큰 데 대해 불만 표시, 다양한 기준을 포함한 조정을 시도한 데 대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 제기
 - 한국은 부담률 그룹상 C그룹에서 B그룹으로 상향될 경우 3배 부담률 상승 우려
- 유엔의 행정·재정기능 효율성 검토(미국의 감사총장직 신설 제안)
 - 미국은 기존 감사실을 기초로 임명 시 회원국 2/3 동의, 총회보고 등 포함한 새로운 제안 제시
 - 유엔 내 새로운 감사기구로 유엔감사실(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 설치 결정, 동 기구 책임자는 사무차장급으로 사무총장의 지휘 수용
 - 초대 감사실장으로 독일 외무부 인사행정국장 출신의 Karl Theodor Pashke 임명
- 기타 PKO 병력 제공국 경비상환 등에 관한 결정안, PKO 지원계정에 관한 결의안 채택 등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8 제6위원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7 / 1-101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6위원회(법률)의 1993.9.27.~11.26. 개최된 회의 관련 내용임.

1. 토의 의제

-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 국제법위원회·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보고, 테러리즘, 신 국제경제 질서 관련 국제법 원칙 발전, 유엔헌장 특위, 유엔 및 요원의 안전, 유엔행정법원 등

2. 주요 토의내용

- 급증하는 유엔요원에 대한 공격 책임 문제 관련, 외교관을 포함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사에 관한 협약을 성안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행, 그 논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에 합의, 향후 구속력 있는 다자조약으로 추진하자는데 대체적 의견 일치
- ICC(국제형사법원) 설립규정 초안 검토
 - 유엔과의 관계, 재판관할권 문제 등 쟁점 협의
 - 한국 대표는 다자조약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법원 형태의 ICC 추진 필요성, 물적 관할권 등에 관한 입장 표명
- 국가책임법 초안
 - ILC(국제법위원회)가 검토한 조문 초안에 대해 토의한바, 특히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 국제범죄에 따른 결과책임 문제에 관해 집중 토론, 초안 토론이 완결되면 전권대표회의를 통해 다자협약 채택 추진
- 인도는 국제테러리즘 근절에 관한 결의안 추진, 이를 위한 포괄적 테러방지협약 추진 제안
- ILC가 검토한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에 따른 국제책임 초안 및 국제수로의 비항행 목적의 사용 초안 토론

3. 결의안 채택

- 1993.11.22.~23.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 보고서, 유엔요원 공격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없이 채택
- 11.29. ILC 보고, 국제법 연수 지원계획, 유엔헌장특위 보고, 국제법 신년대, 신 국제경제 관련 국제법 원칙 발전, 유엔행정재판소, ICJ 권고적 의견 요청 등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
- 국제테러리즘 관련 결의안 토의 시 자결권 문제에 관한 인도와 파키스탄 대립, 테러리즘의 개념 관련 회교권 입장 고수 등으로 결의안 미채택, 대신 제49차 총회에서 재논의 결정 채택

유엔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V.29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8 / 1-156

1993.9.21.~12.23.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결과 보고 및 총회 산하 각 위원회 소관 주요 결의에 관한 정보 관련 내용임.

1. 주유엔대표부의 제48차 총회 결과 종합 보고(1993.12.23.)

- 비동맹권 대서구·동구(정치문제), 또는 선진·개도국 간 대립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이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실질적 성과 추구 경향, 유엔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대한 관심 표출
- 군축 분야에서 CTBT(포괄적핵실험금지협약) 체결을 위한 군축특별위원회 활동 지지 결의안, 대인지뢰 수출 모라토리엄, CHR(인권고등판무관) 설치, 유엔체제 개혁 차원의 안보리 개편 실무 작업반 설치, 유엔 예산에 대한 독립적 감사기관 설치, 남아공 아파트헤이트 공식 철폐 확인 등 성과 거양
- 한국대표단 활동
 - 유엔 외교기반 확보 차원에서 주요 문제 논의 적극 참여, 33개 결의안에 공동제안, 총 33회 발언
 - 총회 부의장국, 자발적 기여금 서약회의 의장직 수임

2. 제48차 유엔총회 주요 결의 기본정보 수록

- 식민지 독립부여 선언 이행(결의 48/52) 등 총 143개 결의 골자, 각국 및 한국 입장, 표결 결과 등이 기본정보란으로 구성된 1페이지 분량의 도표로 정리

유엔총회 제1위원회/국제안보문제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6 / 9 / 1-86

제46차 유엔총회(1991.11.21.~27., 뉴욕) 중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의 논의 내용임.

1. 지중해지역의 안보 및 협력 강화

- 1981년 제36차 유엔총회 시 ‘국제안보강화 선언’ 의제 하에서 지중해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이래 매년 총회에서 결의 채택
 - 몰타가 9개 공동제안국을 대표하여 발의하였으며, 표결 없이 채택
- 사전 비공식 협의 결과
 - 서방국가와 공동제안국(유고 포함) 간의 비공식 협의 시 일부 유럽 국가들이(특히 발트3국) 현재 유고 사태에 임하는 유고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유고가 지중해 평화협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 채택된 문안보다 훨씬 악화된 문안(“Expresses Satisfaction” 대신 “Notes” 로 대체 등)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The Mediterranean States”에서 “The”를 빼는 선에서 타협된 것임.

2. 국제안보강화 선언 이행 검토

- 미·소련 간 냉전시대에 소련 측 주도과 비동맹 지지로 1970년 국제안보강화 선언 채택
- 과거에는 동 의제 표결과정에서 동서대결 양상이 강하였으나, 탈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질서 구축 문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 지역분쟁 문제 및 유엔의 역할 강화 등이 부각됨.
- 유고가 11개 공동제안국을 대표하여 발의하였고, 표결 없이 채택

3.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의 발언요지

- 한반도에서 군사대결구조의 평화구조로의 대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이행의무,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불가침 선언 채택,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

4. 주유엔대표부 관찰

- 결의안 문안 자체는 예년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냉전적·선전적 요소가 잔존하는 등 문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반면 서방 측의 지적사항도 다소 기술적인데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음.

유엔총회에서의 남극 문제 토의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56 / 10 / 1-242

1990~93년 중 유엔총회에서의 남극 문제 토의 관련 내용임.

1. 1990년도

- 주호주 유엔대표부, 제44차 유엔총회 시 채택된 남극조약 관련 유엔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유엔사무총장의 서한에 대해 각 당사국 의견을 반영한 답신 송부(1990.4.11.)
- 주호주 유엔대표부, 호주 초안 송부(4.20.)
- 유엔총회 제1위원회, 남극관계 2개 결의안 표결 채택(11.28.)
 - 실질 문제 결의안, 아파트헤이트 관련 결의안

2. 1991년도

- 유엔사무총장, 제45차 유엔총회 남극관계 결의와 관련 한국 정부의 견해 요청(1991.2.27.)
- 유엔정치안보 담당 사무차장, 남극기지 설치운영과 관련된 질문서 송부(4.17.)
- 제16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 준비회의(1991.4.15.~18., 독일), 제11차 남극조약 특별회의 당사국회의 속개회의(1991.4.22.~30.) 한국 참가
- 남극조약 당사국 관계자 회의, 사무총장 앞 공동회신 문안 합의(5.28.)
- 유엔총회 제1위원회, 남극 문제 관련 말레이시아 결의안과 가봉 결의안 채택(11.20.)

3. 1992년도

- 남극조약 당사국 대표부 회의(1992.2.11.)
 - 남극 환경 문제 부각 관련 협의
- 유엔사무국,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남극 환경 관계에 관한 의견 조회
- 제4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남극 문제)에 관한 결의안(L.54) 표결 채택

4. 1993년도

- 제48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남극 문제)에 관한 결의안 표결 채택
 - 남극 문제는 제40차 유엔총회에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남극조약체제의 보다 개방적인 운용을 촉구한 이래 매년 남극조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온 사안이며, 한국은 여타 남극조약 당사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표결에 불참

유엔공보위원회, 제15차. New York, 1993.5.10.-2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6 / 11 / 1-84

1993.5.10.~13. 뉴욕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공보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주요 결과

- 유엔공보실의 조직 개편: 기존 5개국에서 4개국으로 정비
- 유엔공보센터 기능 확충 및 UNDP(유엔개발계획) 사무소와의 통합 검토 필요성
- 개도국 정보능력 제고: 유네스코가 실시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평가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유엔 Radio의 시급한 설치 필요성

972

2. 결의안 주요 내용

- 개도국 통신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정보 흐름의 불균형 시정
- 언론인의 자유롭고 효과적인 활동 보장
- 국제평화와 안전, 군축,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인권, 여성지위 향상 등 제반 유엔활동의 홍보 계속 등

3. 평가 및 건의

- 한국이 동 위원회 신규가입국으로서 처음 참가
- 후속회의 참가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의 공보 문제에 대한 포괄적·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전문성 강화 필요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출범 준비. 전2권 (V.1 1991-93.4월)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12 / 1-103

1. '세계 가정의 해(1994년)' 관련 준비

- 1989년도 유엔총회 결의(44/82)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가정의 해(1994년도)' 지정
-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사무국, 1992.4월 공한을 통해 동 행사 준비를 위해 한국 정부의 준비위원회 구성 및 유엔사무국과의 연락기관 지정을 요청

2. 한국 정부, 상기 관련 추진현황을 유엔사무국에 제출(1993.2월)

- 해당 국제부담금 확보
- 유엔사무국과의 연락기관 지정
- 관련 연구과제 선정
- '세계 가정의 해' 관련 홍보계획 및 실적
-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출범 준비. 전2권 (V.2 1993.5-12월)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6 / 13 / 1-187

1. '세계 가정의 해(1994년)' 아태지역 준비회의(1993.5.24.~28., 베이징)

- 수석대표: 김기업 보건사회부 가정복지심의관
- Sokalski '세계 가정의 해' 준비위원장, 관련 준비사항 소개
- 아태지역의 가족 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발표
 -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가 가정의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하고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부정적 역할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책임이 크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
- '세계 가정의 해' 준비 관련 각국마다 접근법이 다르며 정형화된 방안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국제적 경험 교환의 중요성에 공감
- 52개 권고안 채택
 -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 수립,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가정에서 장애인 재활 기회 부여, 가정에서 노인 부양 기능 강화 등

2. '세계 가정의 해(1994년)' 기념사업 추진 실무협의회(1993.12.7.)

- 참가자
 - 보건사회부(주재),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건설부, 체신부, 공보처, 정무2장관실 등 관계관
- 회의 결과
 -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계획 기초(안) 확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전3권 (V.1 논의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7 / 1 / 1-246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 관련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일본·독일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 1993.1.25.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부 직원과 상견례에서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 이에 대해 메이저 영국 수상은 1.26. 인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안보리의 효율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 소극적 입장 표시
- 1993.2.15.~19. 일본을 방문한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등 안보리 개혁 문제에 관해 민감한 영국과 프랑스를 배려,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 다만, 일본, 독일, 브라질 등의 보다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답변
- 킨켈 독일 외상은 그간 적극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나, 6.15. 기민당 경제위원회 연설에서 유엔의 신규 상임이사국으로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아를 거명
- 6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독일 등의 안보리 가입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 견지

2. 안보리 개편 관련 국제적 논의

- 제47차 유엔총회 시 유엔 회원국에게 안보리 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1993.6.30.까지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 요망
- 7.6. 북한 및 일본이 유엔에 안보리 개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바, 북한은 안보리 개편을 적극 강조하는 비동맹·제3세계 시각을 표명하고, 일본은 안보리에서 책임을 다할 용의 표명
- 7.14. Volpicelli 주한 이탈리아대사는 제1차관보를 면담, 안보리 개편 관련 이탈리아 제안을 설명
 - 현행 안보리이사국에 20개 준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방식
- 8.20. 당가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 외무부차관과 만찬 시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회원국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 표명
- 9월 라오 인도 총리가 중국 방문 시 안보리 개혁 및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표한 데 대해, 이봉 중국 총리는 유엔헌장 개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
- 9.29. Rasmussen 덴마크 수상은 성명에서 Petersen 외상이 9.28. 유엔총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의석을 EC(구주공동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공식 부인
- 주유엔 싱가포르대사는 10.19. 자국 대표부에서 계획하는 안보리 개편 관련 비공식 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을 초청하고, 주유엔 캐나다대사가 주재하는 Working Group 회의 개최에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전3권 (V.2 우리 의견서 제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7 / 2 / 1-290

1993년 중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에 관한 한국의 입장 및 관계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안보리 개편 관련 한국 의견 작성

- 제47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안보리 개편에 대한 한국 입장(1993.6월, 외무부 국제기구국)
 - 안보리 개편은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사국 증원 및 거부권 폐지·제한 검토
 - 주유엔대표부도 최대 25개국 이내의 안보리 이사국 수 증대 원칙에 대한 찬성 등 한국 입장에 수렴에 필요한 의견을 수차례 건의
- 1993.7.16. 외무부장관, 유엔안보리 개편에 관한 한국 입장 재가
 - 안보리 개편 필요성 인정 및 현 상임이사국체제 유지
 - 임기, 지위, 권한 등 논의가 필요한 제3의 안보리이사국제도 도입
 - 비상임이사국 확대 및 장기적으로 거부권제도 개선방안 논의 희망

2. 안보리 개편 관련 한국 의견 유엔 제출

- 1993.7월 외무부 국제기구국 및 주유엔대표부는 유엔 제출 문안으로 '안보리 개편에 대한 한국 입장' 영문안 작성
- 8.3. 외무부는 상기 한국 입장을 유엔 측에 제출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8.4. 제출 완료
 -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평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국 수 확대 바람직
 - 상임이사국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제3의 이사국 군을 신설하고, 비상임이사국 수 확대 등 의견 표명
- 8.3. 외무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상기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의견 제출은 특정국의 상임이사국 진출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본 등 특정국의 상임이사국 진출 여부는 안보리 개편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진 후에야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한·일본 외무장관회담(1993.9.24., 도쿄)에서 하타 외상은 한국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지지 의향을 보인데 평가
 -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한국 의견에 포함된 거부권이 없는 제3의 카테고리이사국제도 등 설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전3권 (V.3 언론보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7 / 3 / 1-130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내용임.

1. 국내언론 보도

- 일본 및 독일 상임이사국 진출 동향 보도
 - 1993.1.27. 조선일보 등: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국무부 직원과 상견례에서 1946년이 아닌 1993년 상황으로 상임이사국 선출을 추진할 의향이라고 발언
 - 1.28. 한국일보: '과거사 미 청산 등의 이유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지할 수 없다' 제하 사설
 - 1.30. 한국일보: 영국과 프랑스의 안보리 개편 반대 입장
 - 2.5. 서울신문: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일본은 개헌을 통해 국제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
 - 2.8. 동아일보: 한국 정부는 외교실익 상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반대하지 않는다.
 - 2.9. 조선일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정부의 지지여부 아직 미정
 - 2.18. 세계일보: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점차 가시화
 - 4.15. 한겨레: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거론할 때 아니다.
 - 6.10. 중앙일보: 미국은 일본·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를 위한 헌장 개정안을 월내 제출
 - 7.9. 조선일보: 독일·일본, 안보리 상임 공동추진, 양국 외상 정례 협의 합의
 - 8.3. 동아일보: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두자" 정부안 곧 유엔 제출
 - 9.18. 한겨레: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1995년 실현
 - 11.12. 한국일보: 유엔안보리 확대 결의안 마련
- 1.30. 경향신문: 러시아는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입장
- 7.4. 한겨레: 영국·프랑스 상임이사국 확대에 소극적, 미국, 일본·독일 거부권 제외 내세워 설득

2. 해외언론 보도

- 1993.1.27. Reuter: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대 관련 미국의 계획에 반대
- 1.29. AFP: 러시아,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2.5. 요미우리: 미국 차기 국무차관, 일본·독일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2.1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유엔의 일본에 대한 상임이사국 유혹
- 3.8. New York Times: 일본은 세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지 사설
- 6.10. 요미우리: 올브라이트 주유엔 미국대사, 현실에 대응해 일본·독일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7.6. 아사히: 일본 정부는 안보리 개편 관련 유엔에 의견 제출 시 상임이사국 진출 의욕 표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1993.10.29.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7 / 4 / 1-135

1994~95년 임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동향임.

1. 입후보 지지 동향

- 아주지역: 오만 단독 후보, 한국 측 오만 지지
- 중남미지역: 온두라스의 입후보계획 철회로 아르헨티나 단독 입후보 국가
 - 한국 측, 아르헨티나 지지
- 동구그룹: 체코와 벨라루스 모두 지지 요청
 - 한국 측, 체코 지지
- 아프리카지역
 - 한국 측, 나이지리아와 르완다 지지

2.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1993.10.29., 뉴욕)

- 선출국
 - 오만, 체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생산연도 1985-1993

생산과 동북아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7 / 5 / 1-189

1985~93년 중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관련 내용임.

1.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관련 대응 방침 요청

- 주일본대사는 1992.9.30.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의 각종 연설기회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의욕을 시사하고, 일본 언론도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대사관에 문의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동 건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 내지 대외적인 대외방침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2.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 북한은 1993.1.30. 아래와 같이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임 반대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함.
 - 지금까지의 조일회담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외교에서 아무런 자주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설사 유엔의 권좌에 올라왔다고 해도 초대국의 눈치나 보면서 그 장단에 맞추어 꼭두각시 놀음이나 할 것이 뻔한 일이므로 일본은 결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음.
 -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대한 용납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수천만 국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세계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

캄보디아 사태/유엔 논의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7 / 6 / 1-261



1993년 중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논의 동향임.

1. 안보리 결의 제792호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1993.2.13.)

- 캄보디아에 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의안 이행
- UNTAC(유엔캄보디아잠정위원회)에 관한 3차 진전 보고서

2. UNTAC의 원조국 검토회의(1993.2.25., 프놈펜)

- 원조공여자문회의에 한국 초청
- 한국기업도 광석, 보석 채광 및 수출에 대한 유예 요청

3. 캄보디아 상황에 관한 안보리 의장 성명 및 결의안 문서(1993.4.5.~6.14.)

- 캄보디아군의 UNTAC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이의 중지를 요청하는 성명
- 제안 결의안에서는 캄보디아 총선 결과 환영 및 평화적인 정부 이양에 대한 협조 촉구

4. 유엔 공보처 발간 UNTAC 관련 자료(1993.4월)

- 1992년 발족된 UNTAC 임무
- 1992.3~93.2월간 8개 분야에서의 진전사항 설명

사이프러스 사태/유엔 논의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서구2과

MF번호 2023-57 / 7 / 1-135

1992~93년 중 사이프러스 사태 협상 및 평화유지군에 관한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임.

1. 사이프러스 사태 관련 동향

- 1991.8월 유엔사무총장 중재하의 양카라회담
 - 양계(bicommunal), 양 지역(bizonal) 연방체 설립 추진, 연방 내 양 공동체의 정치적 평등 추구
- 1992.4월 유엔안보리, 2개 정치체제를 가진 단일주권의 1개 국가 개념의 사이프러스 지지
- 7~8월 유엔사무총장, 사이프러스 대통령, 튀르키예계 지도자와 뉴욕에서 개별 및 3자 합동회담
- 11.25. 유엔안보리, 사무총장 주선에 따른 사이프러스 대통령과 튀르키예계 지도자 간의 뉴욕협상 결과보고서 승인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양 지도자 간에 기 합의한 일괄 해결책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양측 간의 신뢰구축 조치 촉구
- 1993.1월 유럽의회, 튀르키예에 사이프러스 점령군 철수 촉구
- 6월 Denkas 북사이프러스 대통령, 남북사이프러스회담에 불참 선언

2. UNFICYP(유엔사이프러스평화유지군) 철수 논의 동향

- UNFICYP 활동
 -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핀란드 등 7개국 2,141명 파견
 - 11개 평화유지군 중 유일하게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분담금제도로 전환 또는 UNFICYP 역할축소 요구
- UNFICYP 운영 예산 부족(1992.12월 현재 1억 9천 7백만 달러)
 - 1992.12월 덴마크 전 병력(341명),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일부(362명) 철수
 - 캐나다, 1993.6월부터 사이프러스 파견군인 575명 철수 결정
- 러시아, UNFICYP에 대한 주둔비용을 유엔분담금 형식으로 변경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유엔안보리의 대아이티 제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중미과

MF번호 2023-57 / 8 / 1-95

1993년 중 유엔안보리의 대아이티 제재 및 한국 정부의 이행 관련 내용임.

1. 유엔의 제재조치 배경

- 1991.9월 아이티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및 Aristide 아이티 대통령 축출
- OAS(미주기구)는 아이티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의했으나, 효과는 미미
- 미국은 OAS 결의를 확대한 제재조치를 유엔 차원에서 추진

982

2. 유엔의 대아이티 제재조치

- 1993.6.16. 유엔안보리는 대아이티 제재조치 결의 채택, 6.23. 발효
 - 제재조치: 석유 및 무기 금수, 해상봉쇄, 해외자산 동결
- 8.27. 유엔안보리는 제재조치 정지 결의 채택
 - 아이티 정파 간 휴전이 성립되고, 의회에서 총리 인준 등 진전
- 10.16. 유엔안보리는 제재조치 재개 결의 채택, 10.19. 발효
 - 아이티 군부가 휴전 이행과 민주화에 비협조

3. 한국 정부 조치

- 1993.6.25.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유엔제재조치 시행 요청
 - 수출 및 통관 금지: 상공자원부, 국방부, 관세청
 - 진입 금지: 해운항만청, 교통부
 - 해외자산 동결: 재무부
- 8.31. 외무부는 유엔제재조치 정지 결정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

유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폐기 특별위원회(UNSCOM) 활동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7 / 9 / 1-126

1993년 중 UNSCOM(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유엔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내용임.

1. 유엔안보리 결정

- 1991년부터 유엔안보리는 수차례 결의 채택을 통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폐기 추진
 - 이라크 내 생화학무기,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의 폐기 및 무력화 추진
- 유엔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해 UNSCOM를 구성하고 권한 부여

2. 진전 사항

- UNSCOM 사찰 및 관련 조치를 통해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핵연료 등 제거
 -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성과 별무
- 이라크 측은 UNSCOM 활동에 비협조적인 자세 견지
 - 특히, 미사일 시험발사시설에 감시카메라 설치 거부
- 유엔 측은 UNSCOM 사찰 진전을 위해 이라크 측과 유엔의 경제제재 완화 협상
 - 이라크 측은 석유수출 금지 일부 해제조건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허용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7 / 10 / 1-103

1993년 중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부과 및 해제 동향 관련 내용임.

1. 유엔의 경제제재조치

- 1990.8.6. 유엔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제재 부과
 - 의약품 및 인도적 목적의 식료품 제외
- 이후 식료품 및 민간 필수품에 대한 금수조치 점진적 해제
 - 인도적 목적의 수입을 위해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일부 허용

984

2. 이라크의 안보리 결의 위반사례 지속

- 이라크·쿠웨이트 국경선 획정 논의 불참
- 쿠웨이트 전쟁포로, 억류자, 실종자, 제3국민 등 귀환에 비협조
- 탈취해 간 쿠웨이트 정부와 민간 재산 반환 거부 및 불인정
- 전쟁배상금 마련을 위한 제한적 석유 수출 거부

3. 진전 사항

- 유엔안보리는 60일 마다 이라크의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 점검
 - 1991.4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무력화 및 개발 포기 이행조건으로 제재 해제 가능
- 1993.11월까지 이라크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제재 계속 결정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조치 국내 이행. 전2권 (V.1 1992.11-93.5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57 / 11 / 1-224

1992~93년 중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조치의 국내 이행 동향임.

1.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 결의

-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1991.9.25.)
 - 결의 이행을 위한 제재위원회 설치
- 신유고연방(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대한 제재(1992.5.30.)
 - 교역, 자금 이전, 문화·체육 교류, 항공교통 정지 및 공관원 감축
- 기존 제재조치 강화(1992.11.16.)
 - 신유고연방계 선박의 운항 금지를 위한 용선 금지, 입항 금지 및 강제 억류
 - 아드리아해 및 다뉴브강 봉쇄
- 기존 제재조치 강화(1993.4.17.)
 - 제재 대상지역 확대, 해외자산 동결, 선박 억류 및 몰수, 해안 봉쇄
 - 제재 이행조치 및 위반사항 보고

2. 한국 정부 조치

- 1992.6.4.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부처별 이행조치 시행 요청
 - 관계부처 회의 전후로 외무부는 유엔 제재조치 내용을 수시로 전달하고 협조 요청
- 12월 주유고슬라비아대사 소환

3. 미국 및 EC(구주공동체) 측 요청사항

- 1993.3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사실 확인 요청 및 혐의 선박 명단 통보
 - 신유고연방 연루 선박 3척의 입항 확인 및 억류 요청
- 3월 EC 집행위는 대우정밀의 사냥용 권총 수출 확인 요청
- 5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업체의 거래계약 해지 요청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조치 국내 이행. 전2권 (V.2 1993.6-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구2과

MF번호 2023-57 / 12 / 1-171

1993년 중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조치의 국내 이행 동향임.

1. 한국 내 유관기관 간 소통

- 유엔 제재조치 동향 및 관련국 요청사항 수시 전파
- 국내 유관기관의 제재조치 이행 상황 수시 접수 및 보고

2. 제재조치 관련 민원 해소

- 세르비아계 축구선수 고용: 포항제철 축구단, 현대 프로축구단 등
 - 외무부는 선수 고용은 제재조치와 무관하다고 회신
- 신유고연방에 대한 성경 무상지원: 대한성서공회
 - 외무부는 유엔의 수출허가 절차 완료
- 신유고연방 연루 선박 여부 확인
 - 연루가 추정되나, 자체적으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

3. 특이 동향

-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유엔의 제재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국제적 경제지원 요청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1 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3-57 / 13 / 1-222

1993년 중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3개 민족 정파 및 국제사회 동향임.

1. 보스니아 사태 개요

- 1991.4월부터 보스니아 내 3개 민족 간 내전 지속
 - 무슬림(44%, 194만), 세르비아(31%), 크로아티아(17%)
 - 1992.3.2.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독립 선언으로 사태 악화
- 제네바 평화회담 개최로 해결방안 모색
 - 1992.9.3. 밴스 및 오웬은 조정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중재안 제시
 - 1993.1.12. 3개 민족 정파는 9개항의 헌법 원칙에 합의: 10개 자치주, 헌법위원회, 국제적 보장 등
- 무슬림계와 세르비아계는 10개 자치주 구성에 지속적으로 이견 노정

2. 유엔안보리 논의

- 1993.1.30. 제네바 평화협상이 결렬되어 유엔안보리로 이관
 -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이 주목의 대상
- 2.8. 밴스·오웬 중재안 포함한 사무총장 보고서 안보리 제출

3. 참고사항

- 1993.1.12. 제네바 합의: 헌법 원칙 9개항
 - 정부 구성: 3개 민족대표로 중앙정부 구성, 10개 자치주 분할
 - 중앙·지방 분쟁 해결: 3개 민족 간 합의, 3개 민족대표 + 비보스니아계 참여 헌법위원회
 - 국제적 보장: 선거, 이동 자유, 비무장화, 인권보장, 국제감시기구 유지
- 밴스·오웬 중재안
 - 9개항의 헌법 원칙, 10개 자치주, 7개 군사적 평화 조치
 - 다민족 중앙정부 및 3대 민족의 분포지역을 기준으로 10개 자치주
- 세르비아 유조선의 다뉴브강 운항 문제
 -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는 세르비아 유조선 다뉴브강 운항에 대해 문제 제기
- 3.1. 미국 주도 보스니아 무슬림 대상 구호물자 공수작전 시작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2 3-4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3-57 / 14 / 1-213

1993년 중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3개 민족 정파 및 국제사회 동향임.

1. 유엔안보리 전환 논의 이후 진전 사항

- 1993.3.3. 무슬림계는 군사적 평화조치 중재안 수용
- 3.25. 무슬림계 대표(보스니아 대통령)는 10개 자치주 경계 중재안에 서명
 - 이에 따라 무슬림계 및 크로아티아계는 밴스·오웬 중재안을 전면 수용
- 세르비아계만 밴스·오웬 중재안 전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적 압력 가중
 - 3.30. 유엔안보리, UNPROFOR(유엔평화유지군) 임무를 6.30.까지 연장
 - 4.16. 유엔안보리, 세르비아계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
 - 4.17. 유엔안보리, 세르비아계 설득 유도를 위해 신유고연방에 대한 제재 강화 결의 채택
 - 4.29. 유엔총회, 신유고연방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출석 금지 결의 채택
- 5.2. 아테네 평화협상에서 세르비아계 지도자는 자체 의회 비준 조건으로 중재안에 서명
 - 잠정적으로 보스니아 3개 민족 정파 모두 밴스·오웬 중재안 전면 수용

2. 한국 정부 조치

- 1993.4.17. 각종 계기에 입장 표명하는 방향으로 전환
 - 중재안에 입각한 사태 해결 지지,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국제사회의 적극적 노력 경주
 - 이전에는 미국 측의 정부 성명 발표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처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3 5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3-58 / 1 / 1-123

1993년 중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3개 민족 정파 및 국제사회 동향임.

1. 1993.5.2. 중재안 수용 합의 이후 진전 사항

- 5.5.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의회는 중재안 비준을 거부하고 주민투표에 회부
 - 5.15.~16. 세르비아계 주민투표는 평화중재안 거부
 - 3개 민족 정파 모두의 평화중재안 수용은 무산
- 5.6. 유엔안보리, 보스니아 내 안전지대 확대를 지정하는 결의 채택
- 5.10. 유엔안보리, 크로아티아계에 대한 휴전 합의 및 기존 평화중재안 준수 촉구 결의 채택
- 5.25. 유엔안보리, 구유고 임시 전범재판소 설치 결의 채택

2. 특이 동향

- 1993.4.27. 세르비아 제재 관련, 불가리아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는 결의 채택
 - 유엔의 세르비아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면서 보상 조치 마련 요구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4 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3-58 / 2 / 1-195

1993년 중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3개 민족 정파 및 국제사회 동향임.

1. 1993.6월 이후 진전 사항

- 6.4. 유엔안보리, 보스니아 안전지대 설치 결의 채택
 - 6개 안전지대에 평화유지군 증원 배치
 - 폭격이나 무력 침입의 경우 평화유지군의 무력 사용 권한 부여
- 6.18. 유엔안보리, 보스니아 사태 관련 결의 채택
 -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경제적 지원 요청 심의 임무 부여
 - 안전지대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및 추가 병력 증파 건의 승인
- 6.30. 유엔안보리, 평화유지군 임무를 9.30.까지 연장하는 결의 채택
- 8.3. 유엔안보리 신유고연방제재위원회, 제재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 권고
 -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에 기술·재정·물질지원 제공 권고 결의 채택
- 12.20. 유엔총회, 회교권 41개국이 공동 제안한 보스니아 사태 관련 결의 채택
 - 구유고연방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에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를 제외하도록 안보리 검토 촉구
 - 신유고연방의 구유고연방의 자동승계 불인정 협조

2. 특이 동향

- 1993.5월 하순부터 무슬림계와 크로아티아계 간 전투 재개
- 신유고연방은 자국 관할 다뉴브강을 통과하는 제3국 선박에 통행료 부과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세미나 참석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3 / 1-89

1993년 중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세미나 참석 관련 내용임.

1. 캐나다 PKO 브리핑팀 방한

- 브리핑 기간 및 장소: 1993.2.22.~23. 국방부
- 주관: 국방부
- 브리핑팀: 캐나다 국방부 PKO 담당관(대령) 외 2인
- 참가자: 외무부, 국방부, 합참, 각 군의 PKO 업무 담당자 총 20명

2. 호주 PKO 세미나(1993.3.21.~24., 캔버라)

- 주최: 호주 정부
- 주제: UN PKO At Crossroads(특히 캄보디아 사태 논의)
- 참가자
 - 황용식 외무부 국제기구국 심의관 및 신일순 국방부 정책기획실 차장(대령)

3. 캐나다 PKO 심포지엄(1993.3.21.~24., 오타와)

- 주최: 캐나다 요크대학
- 주제
 - Peacekeeping: Norms, Policy and Process
- 참가자
 - 김종재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 주요 토의내용
 - 과거 PKO 활동 평가
 - Agenda for Peace에 대한 평가
 - PKO 법률 및 재정적 문제 등

PKO(유엔평화유지활동)/Agenda for Peace. 전3권 (V.1 안보리 본회의 및 비공식 실무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4 / 1-240

1992~93년 중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안보리 본회의 및 비공식 실무그룹 회의 내용임.

1. 본회의(1993.1.28.)

-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Agenda for Peace” 관련, 아래 요지의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함.
 - 안보리는 지역협의체 및 기구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며, 유엔과 동 지역기구 간 상호협력 필요성을 인정
 - 안보리는 각 지역기구가 유엔헌장 8장의 틀 내에서 당해지역 특성에 맞고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각 지역기구의 기능 강화 방안 및 유엔과 각 지역기구 간의 협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유엔에 제안하여 줄 것을 장려

2. 비공식 실무회의(1993.3.5.)

- 사무국이 작성한 작업계획과 관련된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토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결의안을 제47차 회기 내 총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초안 마련을 위해 가능한 한 일주일에 1회씩 회의를 가짐.
- ICJ(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권고사항은 현장강화특위 회의(1993.3.1.~19.) 종료 후, 평화유지 및 요원의 안전 문제는 1993년 봄 PKO 특위 회의 종료 후에 각각 심의하기로 함.

3. 유엔사무총장의 “Agenda for Peace” 보고서에 대한 논의 동향

- 작성 배경
 - 1992.1월 안보리 정상회의는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예방외교, peace-making 및 peace-keeping 관련 유엔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청
 - 6월 갈리 사무총장은 Agenda for Peace 보고서 제출
- 논의 경과
 - 안보리는 1992.10월 이래 사무총장 보고서를 논의해 온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
 - 총회는 실무그룹 회의 및 관련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 중

PKO(유엔평화유지활동)/Agenda for Peace. 전3권 (V.2 PKO 특별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5 / 1-140

1993.4.19.~5.19. 유엔에서 개최된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의장단

- 위원장: 주유엔 나이지리아대사
- 부위원장: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 캐나다대사(차석), 일본대표부 1등서기관, 폴란드대표부 1등서기관
- 보고자: 주유엔 이집트대표부 1등서기관

2. 회의 일정

- 조직회의: 1993.4.5.
- 본회의: 1993.4.19.~23./5.19.
- 실무회의: 1993.4.26.~5.13.

3. 각국 대표의 본회의 발표내용 분석

- PKO 세부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의견 개진이 많았는데, 이는 PKO 특위가 PKO 활동의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반영
- PKO 활동이 양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전통적인 PKO 개념에서 선거 지원,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인권보호 감시, 국가건설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추세
- PKO 요원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PKO의 양적 증대 및 Mandate 강화로 안전 위해요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

PKO(유엔평화유지활동)/Agenda for Peace. 전3권 (V.3 평화유지상비군 설치 추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6 / 1-196

1992~93년 중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평화유지상비군 설치 추진 내용임.

1. 유엔유지상비군 설치 추진 관련 유엔 측 설명회의

- 1993.4.16. DPKO(평화유지활동국) 주관으로 아래 요지의 유엔상비군 설치에 관한 유엔 측 계획에 대한 회의가 개최됨.
 - 사무총장 주도로 계획수립단(구성원은 주로 PKO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회원국의 군사전문가)을 설치, 1월부터 준비작업에 임함.
 - 동 계획수립단은 안보리의 Mandate에 의거한 유엔의 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 요청 시 기존 합의기간 내 PKO 부대 전체 또는 일부 부대로 1994년도부터 세계 어느 곳이든지 파병할 수 있는 상비군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상비군을 설치하는 임무를 수행함.
 - 동 계획수립단이 작성한 리스트를 참조, 각 회원국이 자국의 기여 가능 분야를 약속하면 유엔은 이를 종합 관리하면서 PKO 조기 파견 사태 발생 시 각국이 약속한 부대 중 필요한 부대를 차출, 파견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함.

994

2. 유엔평화유지군 창설 추진단 방한(1993.11.8.~9.)

- 방한 인사 및 주요 일정
 - 방한 인사: Akbar 중령(파키스탄) 및 Adu-Amanfoh 중령(가나)
 - 주요 일정: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및 국방부 정책기획관 방문, PKO 상비군 추진 현황 브리핑 (외교안보연구원)
- 한국에 대한 요청 및 향후 조치계획
 - 요청사항: 동 상비군 추진단은 작전 부대(보병, 기계화 보병, 폭발물 탐지 및 지뢰 제거 등)와 근무지원 부대(공병, 항공 및 해상 수송, 이동 의료 등)에서 한국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
 - 향후 조치계획: 주요국 반응 파악, 관계부처 회의 소집(경제기획원, 국방부, 청와대), 대국회 및 언론 설명, 유엔과 MOU 체결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1 1992.9-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7 / 1-244

1992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의료단 소말리아 파견 문제

- 유엔, 1992.9.18. 한국군 의료단의 소말리아 파견 여부 타진
- 유엔 측 타진 내용(공식 요청 아님)
 - 72명 규모의 군 의료단 소말리아 긴급 파견
 - 의료 장비뿐 아니라 통신장비, 급식, 연료 등 자체 완비 요망(자급자족형 야전병원)
- 건의 사항
 - 준비 관계상 이번 소말리아 파견의 어려움을 유엔 측에 적절히 설명
 - PKO 파병에 대비한 준비 착수

2. 소말리아 사태 관련 외무부 당국자 설명(1992.12.22., 유엔1과)

- 소말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허용한 유엔안보리 결의 제794호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회원국에 '희망회복작전'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 유엔은 1992.4월 설치되었으나 '희망회복작전' 개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UNOSOM의 확대 개편, '희망회복작전' 종료 후 소말리아 내 평화유지 임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
- 소말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 활동에 대해 한국의 지원 가능성과 지원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정부 관계부처 간 검토를 하게 될 것임.

3. 소말리아 사태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 유엔안보리 결의 제794호에 따라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현 통합군 활동(희망회복작전) 현황과 향후 통합군으로부터 임무를 인계받을 UNOSOM의 활동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 (아래는 특기사항)
 - 통합군 활동 관련 기금조성
 - 소말리아 정치안정을 위한 준비회의 개최
 - 통합군에서 UNOSOM으로의 임무 이양 문제 등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2 1993.1월-2.10.)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8 / 1-176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유엔의 소말리아 활동 지원(1992.1.8., 재외공관 설명자료)

- 정부 결정 내용
 - 정부는 소말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 활동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UNOSOM에 대한 군 파견을 검토하기로 함.
 - 상기 결정은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요청에 의거, 12.30. 관계부처 장관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루어짐.
- 의의
 - 소말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하여 한국의 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
 -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제고함.

2. 소말리아 미군 철수 개시

- 현황
 - 미군은 25,000여 명의 병력으로 20개국에서 파견된 다국적군(11,000명)과 합동작전을 통해 소말리아 중부 및 남부 8개 도시를 거점으로 군사활동 중
 - 소말리아 주둔 미 해병 제9연대 3대대 병력 850명이 관할지역을 호주군에 인계하고, 1993.1.19.~20. 철수 개시
- 전망
 - 미국 측이 다국적군을 UNOSOM으로 조기 대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유엔이 평화 정착 전망의 불투명과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평화유지군으로의 인계는 점진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
 - 다국적군 참여 또는 참여 약속을 한 29개국 중 19개국이 평화유지군으로 잔류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은 비전투 병력 5,000명을 잔류시킬 의사 표명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3 1993.2.11.-28.)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9 / 1-130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보도자료(1993.2.12.)

- 정부는 1993.2월 초 유엔이 UNOSOM II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의사와 참여할 경우, 그 분야 및 규모 등을 알려줄 것을 희망해 옴에 따라 한국의 참여 문제에 대해 검토함.
1993.2.12.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는 PKO(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확인함.
- UNOSOM II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경우, 우선 이를 유엔 측에 통보하고 유엔과 파병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 그 결과에 따라 유엔이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을 해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임.

2. UNODOM II 참여 문제 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1993.2.12.)

- UNOSOM II에 의료단 파견 추진
- 경비 문제를 감안, 가급적 부수 인원을 배제하고 의료 요원 중심으로 구성
- 파견 기간은 우선 1년으로 함.
- 국방부의 잠정 추정치인 1년치 파견 비용 200억 원(2,500만 달러)은 일견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유엔으로부터 전액 보전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 전에 유엔 측과 세부 사항 협의

3. UNOSOM II 참여 관련 현지답사 및 유엔 출장계획(1993.2.18.)

- 임무
 - 소말리아: 현지 정세 파악 및 UNITAF(유엔다목적군) 및 UNOSOM의 의료부대 견학, 지휘 및 통신체제, 군수지원체제 파악 등
 - 유엔: 장비시설 수송 관련 경비 보전의 범위 및 시기 파악
- 출장자
 - 신승철 아프리카 2과장, 황준국 유엔1과 서기관, 국방부 4명 등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4 1993.3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10 / 1-174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소말리아 현지답사 및 유엔 출장 결과(1993.3.6.)

- 군 의료단 파견 관련 관찰(문제점 등)
 - 유엔 측에서 한국의 야전병원 파견을 절실히 바라지는 않는 듯함.
 - 환자가 별로 없어 모가디슈 내 스웨덴 및 미군 야전병원의 1/3만 가동 중
 - 현지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공식·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국가가 7개국에 달함.
- 대안: 건설공병부대 파견
 - 현재 유엔 측이 가장 절실히 참여를 요망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공병부대 및 수송부대임 (이 분야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러시아분임).
 - 한국의 경우 수송부대는 항공수송을 제공할 사정이 못되므로 건설공병부대가 적절
- 향후 조치계획
 - 가능한 빨리 참여방침과 분야, 규모를 결정하여 유엔에 통보

2. 관계부처 실무회의(1993.3.15.)

- 참석 부처: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 협의 결과
 - UNOSOM II에 200~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 파견 추진(파견 기간은 우선 1년으로 함)
 - 현지답사 등 필요한 검토를 거쳤고, 유엔에서 정부 입장의 조속 통보를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능한 한 빨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입장 결정
 - 대통령 재가 후 유엔 통보 시부터 파병 준비 및 국회 동의 준비

3. 유엔안보리 본회의(1993.3.26., 소말리아 사태 관련)

- 아래 요지의 안보리 결의 제81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 유엔안보리는 사무총장에 대해 소말리아의 국민적 화해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재건 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
 -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 유엔안보리는 UNOSOM II의 임무를 일차적으로 1993.10.31.까지로 결정하고,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UNITAF(유엔다국적군)에서 UNOSOM II로의 임무 교대가 단계별로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함.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5 1993.4-5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11 / 1-305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UNOSOM II 참여 관련 보도자료(1993.4.7.)

- 정부는 1993.2월 초 유엔으로부터 UNOSOM II에 대한 참여 의사를 타진, 그간 소말리아 현지 답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약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를 1년간 파견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그간 의료단, 보병 등도 참여 분야로서 검토해 왔으나, 소말리아 현지답사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유엔 측 수요 및 장비시설의 준비에 따르는 예산 문제, 기어 효과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공병부대 파견으로 결정함.
- 앞으로 유엔과 세부 사항 협의 후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게 되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 후 파병을 확정 지을 계획임.

2. 국무회의 상정

- 1993.4.15. 정부는 한국 공병부대의 “UNOSOM II” 참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동 참여안 내용
 - 소말리아 현지답사 및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약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를 1년간 파견하기로 정부 방침 결정(4.3. 대통령 재가)
 -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동 방침을 4.7. 유엔 측에 통보, 4.8. 유엔으로부터 공식 파견 요청
 - 4월 말 소집이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받아 파병 확정 예정

3. 국회 동의 절차

- 1993.5.13. 국회 외통위는 공병부대의 UNOSOM II 참여 동의안을 심의, 가결함.
 - 동 외통위 심의 시 위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은 경비보전 문제와 한국 부대원의 안전 문제임.
- 5.18. 국회 본회의는 UNOSOM II 참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6 1993.6.1.-20.)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12 / 1-188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북한, 한국의 UNOSOM II 참여 비난

- 북한 중앙방송, 1993.5.22. 한국의 UNOSOM II 참여 강력 비난
- 중앙방송 논지
 - PKO(유엔평화유지활동)의 간판 아래 남조선 괴뢰군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남조선의 해외파병 속셈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전략된 정치적 지위 제고, 유엔을 이용한 대북한 압력 가중, 유사시 미 제국주의자들과 유엔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는데 있음.
- 평가 및 분석
 -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의 PKO 참여 문제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번 비난 방송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 상투적인 대남선전 책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UNOSOM II를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소말리아 교전 상태 발생 대책

- 유엔평화유지군은 1993.6.5.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소말리아 군벌과의 교전 사태로 유엔평화유지군 30년 역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음(26명 사망, 50여 명 부상).
 - 이와 관련, 6.9. 유엔사무차장은 UNOSOM II 참여국에게 여사 사태에 대비하여 충분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어 줄 것을 요청함.
- 정부는 소말리아에 먼저 파견되는 연락장교와 현지 사령부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경비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3. 소말리아 정세 및 공병부대 파견

- 정세
 - 미국과 UNOSOM II, Aidid파(소말리아 군벌)에 대한 응징 작전 계속
 - 수도 모가디슈 일원에서 일부 민심 동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타 지역은 특이 동향 없음.
- 조치계획
 - 일단 예정대로 추진(1993.6.24. 선발대, 7.14. 본대 출발)
 - 현지 사령부 및 한국 공병부대 배치지역에 보병을 파견한 국가(이탈리아)는 특별경비와 긴급시 지원 출동 등 안전 확보방안 협의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7 1993.6.21.-7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8 / 13 / 1-226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김정호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소말리아 방문(1993.6.30.~31.)

- 방문 목적
 - 소말리아 정세 파악 및 한국 공병부대 안전 문제 협의
- 주요 일정
 - Montgomery UNOSOM II 부사령관 면담
 - Howe 사무총장 특별대표 면담
 - Loi 이탈리아 여단장 오찬(한국 주둔지역 관할국)
 - Bir UNOSOM II 사령관 면담
- 한국 공병부대 관련사항
 - Balad지역은 무장 파벌 활동권 밖에 위치
 - 이탈리아 공수대대(500명 규모)와 군수지원대대 사이에 한국부대 주둔
 - 한국부대가 보수할 도로는 소말리아 내 2개 간선도로 중 하나로서 향후 UNOSOM II 북부 지역으로 임무 확대 시 주요 보급로로 이용될 계획

2. 한국 공병부대 선발대 활동 현황 및 안전 문제

- 활동 현황
 - 선발대(60명)는 2개 소대로 나누어 주둔지(발라드)에서 숙영지 설치작업과 모가디슈항에서 화물 하역작업 병행 중(7.14.경 하역 완료 예상)
- 안전 문제
 - 장비는 하역되는 대로 발라드로 수송하고 있으며, 수송 시 이탈리아군 소대(장갑차 6대)와 미국 신속대응군의 공중엄호를 받고 있음.

3. 한국 공병부대 파견 관련사항

- 선발대 활동
 - 숙영지 공사 90% 이상 완료
 - 본대는 예정대로 1993.7.30. KAL 전세기편으로 현지 향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8 1993.8월-10.10.)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9 / 1 / 1-201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소말리아 정세 및 UNOSOM II 활동 현황(한국 공병부대 관련사항)

- 활동 현황
 - 숙영지 편성 완료 후 장비 점검, 자체 경비경계 훈련 계속
 - 1993.9.14.경 작업 개시 예정
- 안전 문제
 - 주둔지인 Balad는 소규모 절도, 강도사건 외에 무장 파벌로 인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 시 이탈리아군이 외곽경계 제공 예정
 - 국방부는 경장갑차(APC) 4대 보강계획 검토 중

1002

2. 소말리아 사태 관련 클린턴 미국 대통령 성명 발표(1993.10.7., 주미국대사관 보고내용)

- 클린턴 대통령은 1993.10.7. 백악관에서 최근 소말리아 사태 악화에 따른 미국의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성명을 직접 발표하였고, 이어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Aspin 국방장관, Jeremith 합참의장 대리가 각각 정치·외교적·군사적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함.
- 성명 요지
 - 미군의 추가 파병: 미군 1,700명과 104대의 전차를 소말리아에 추가 파견, 항공모함 1대와 2개 대대 3,600명의 해병대를 소말리아 해안까지 진주
 - 추가 파병군 임무: 소말리아 주둔 미군과 기지 보호, 유엔군의 활동에 긴요한 통신, 항구 및 도로 안전 확보
 -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등 주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의 사태 해결 노력 장려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9 1993.10.11.-25.)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9 / 2 / 1-166

- 미국의 소말리아 병력 증파 요청 관련 발표문 발표(1993.10.19.)
 - 주요 내용
 - 클린턴 미 대통령의 우정 어린 친서에서는 소말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조치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소말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현재 소말리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 공병부대가 소정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확인함.
 -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전투 병력 파견은 제반 국내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뜻을 전달

1003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국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10 1993.10.26.-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9 / 3 / 1-239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소말리아 주둔 유엔군 철수 추진 동향

- 유엔군 철수 동향
 - 미국이 1단계로 1993.12.17. 2,500명의 철군을 개시하고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군이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군의 재편이 추진되고 있음.
- 평가
 - 미군 철수에 따른 유엔의 소말리아 주둔군 재편 추진은 1994.3월 미군 철수 완료 이전 30개국군 3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으나, 각국의 소극적 태도로 성과가 부진한 실정
 -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 및 서구 국가의 철군 추진으로 파병 명분이 약화되어 있고, 소말리아 정파 간 화해협상(1993.12.8.~12.) 결렬 등으로 소말리아 사태의 조기 수습이 불투명해진 데서 기인됨.
 - 앞으로 유엔의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은 미국 및 서구 국가의 철군에 따라 유엔군의 역지력이 약화되면서 정전감시 등 소극적 평화유지활동에 국한되는 가운데 아프리카·회교국 중심으로 재건 지원 등 최소한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큼.

1004

2. 상륙수부대 조기 철수 문제(1993.12.28., 외무부 유엔과)

- 철수 문제 검토 필요성
 - 현재의 소강상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UNOSOM II 주력 국가의 철군 완료 시 소말리아 내전 재연 가능, 특히 1994.3월 말 예정인 이탈리아의 철수는 상륙수부대 안전 문제와 직결됨.
 - 미군 철수에 따라 1994년 초부터 미국 용역회사인 Brown & Root사가 UNOSOM II 군수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나,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 여부는 불투명
- 건의
 - 상륙수부대 안전 및 군수지원상 큰 문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조기 철수는 명분이 약하며, 특히 이번이 한국의 첫 PKO(유엔평화유지군) 참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상륙수부대가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추진(국방부, 1993.12.28. 상륙수부대 잔류 방침 결정)
 - 상륙수부대의 안전과 군수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안보리의 UNOSOM II mandate 조정 방향 등을 파악, 1994.2월 중 철수 문제 재협의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11 재정지원 및 부대교체)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9 / 4 / 1-233

1992~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재정지원 및 부대교체 내용임.

1. 유엔, 대소말리아 병력 파견 관련 재정지원 요청계획(1992.12.18., 주유엔대사 보고)

- 유엔사무총장은 소말리아에 병력을 파견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 회원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우디, 쿠웨이트 등 아랍 국가에 특별 협조요청 서한을 금명 간 발송 예정이라고 함.
 - 개도국 병력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재 약 4억 달러로 예상되나, 병력 파견국이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증액될 것으로 봄.

2. 유엔의 소말리아활동 지원 관련 보도자료(1993.1.4.)

- 유엔에서 소말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결정하며, 회원국의 재정적 기여를 요청함.
- 이에 정부는 소말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활동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재정지원은 “희망회복작전”에 참여하는 개도국들의 파병경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전12권 (V.12 유엔 및 각국의 지원)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9 / 5 / 1-126

1992~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유엔 및 각국 지원 내용임.

1. UNOSOM II 파견국 회의(1993.5.3.~5.)

- 회의 요지
 - 유엔사무국 측으로부터 UNOSOM II 구성 배경, 소말리아 정세 및 소말리아 내 인도적 구호활동 관련 브리핑 청취
 - 회의에서는 UNITAF(유엔다목적군)에 기파견 중인 병력을 UNOSOM II에 잔류시키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UNOSOM II 신규 참여국들이 주로 참석함.
 - 5.4. UNITAF에서 UNOSOM II로 관련 업무가 정식 이관됨.
 - UNOSOM II 총 참여국 수는 30개국이나, 보병 4천 명을 파견하기로 한 인도가 현재까지 파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아직도 공병부대와 헬기부대가 전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2. 각국의 지원현황

- 재정지원 및 UNOSOM II 파병 요청 접수국
 -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브라질, 뉴질랜드
- 재정지원 요청 접수국
 - 호주,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 재정지원 규모(1993.1.6. 현재)
 - 일본: 1억 달러
 - 사우디아라비아: 1,000만 달러
 - 한국: 200만 달러
 - 덴마크: 100만 달러
 - 핀란드: 70만 달러
 - 아일랜드: 115,400달러
 - 싱가포르: 25,000달러
 - 태국: 6천달러
 - 필리핀: 5천달러

UNTAC(유엔캄보디아임시행정기구) 선거 요원 파견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59 / 6 / 1-280

1992~93년 중 UNTAC(유엔캄보디아임시행정기구) 선거 요원 파견 관련 내용임.

1. 파견 경위

- 1992.2월 UNV(유엔봉사단)은 UNTAC 선거 관련 요원으로 한국인 5명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
 - 국제협력단이 상기 요청을 접수하였는바, UNV 측은 가능하면 공공행정 분야 5명을 포함하여 10명 정도 파견을 희망
 - 파견 경비는 UNTAC 예산에서 총당

2. 파견 추진

- 정부는 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여 한국인 8명을 선발하여 1992.5월 UNV 측에 추천
- UNV 측은 8명 중 5명 최종 선발
- 5명의 출국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은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사무소가 담당하는바, 정부는 동 업무를 측면지원
- 상기 5명은 7월 중 캄보디아에 도착, UNTAC에 소속되어 캄보디아 총선에 대비한 홍보 및 교육, 유권자 등록, 선거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
 - 상기 선발에서는 학력, 외국어 구사력 등 외에 캄보디아의 어려운 생활환경에의 적응력과 봉사 정신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함.
 - 이들은 유엔으로부터 월 729달러의 보수와 숙소 및 의료보험, 생명보험이 제공됨.

3. UNV의 추가인력 파견 요청

- UNV 측은 1992.11.30. 현재 진행 중인 UNV의 UNTAC 지원활동 관련 TV 및 비디오 수리 전문가 3명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
- 상기 관련, 적격 희망자가 없어서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UNV 측에 통보함.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 Geneva, 1993.6.28.-7.30. 전3권 (V.1 3-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9 / 7 / 1-168

1993.6.28.~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의 참가 대표단, 의제 등 관련 문서임.

1. 회의 일정

- 고위급회의: 1993.6.28.~30.
- 기타회의: 조정회의(7.1.~6.), 개발 실행활동 회의(7.7.~9.), 경제위원회 회의(7.12.~23.), 사회위원회 회의(7.7.~22.)

1008

2. 대표단 구성

- 고위급회의(수석대표): 허승 주제네바대사
- 기타 회의(수석대표):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3. 회의 참가 목적

- ECOSOC 이사국 피선 후 최초로 참가하는 회의로서 경제·사회문제 주요 의제 토의에 적극 참가
 - 인권, 사회개발, 여성, 환경, 무역, 지역협력, 인구문제 등
- ECOSOC 부의장국으로서 산하 사회위원회 의장직 수행을 통해 ECOSOC 회의 실질참여 강화
- 고위급회의 주요 의제인 '1995년 사회개발 정상회의 개최와 유엔의 역할'에 대한 한국 입장 표명
- 주요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및 결의안 채택 참여

4. 참고자료

- 회의 의제(범죄예방, 인구, 마약남용, 사회개발정상회의, 여성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취합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 Geneva, 1993.6.28.-7.30. 전3권 (V.2 7.1.-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9 / 8 / 1-184

1993.6.28.~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 결과에 관한 문서임.

1. ECOSOC 고위급회의(1993.6.28.~30.)

- 참가자
 - ECOSOC 이사국(54개국), 세계은행,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 의제 및 회의 방식
 - '사회개발 정상회의와 유엔의 역할'을 주요 의제로 각국 기초연설 형식으로 토의
- 토의 요지
 - 각국은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와 동 회의 핵심주제(빈곤안화, 고용확대, 사회통합 제고) 선정을 적극 지지
 - 경제발전 토대 위에 사회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개도국 입장과 사회개발이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입장 간의 대립 상존
 - 미국 대표는 예방외교의 일환으로 안보리와 ECOSOC 간의 정기협의 제안
 - 유엔 및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의 산발적인 대처 노력을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체계화 필요
 - 사회개발정상회의(1995.3월, 코펜하겐) 준비회의 개최 문제 논의

2. 조정회의 토의사항

- '인도적 지원문제'와 '말라리아, 콜레라 등 예방 및 구제활동'의 2가지 주제를 다룸.

3. 본회의 주요 토의사항

- 인도적 지원문제(의제 2a)
 - 긴급재난 방지를 위한 예방기능 강화 및 긴급구호 활동이 재활과 개발로 연결 필요성
- 개발실행 활동(의제 3)
 - 유엔의 실행활동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촉구 등
- 지속개발(의제 9)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2개 실무그룹 설치 결정
- 지역협력(의제 14)
 - 지역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및 제50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개최지 결정
- 개발 및 국제경제협력(의제 15)
 - 팔레스타인 피점령지역 내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결의



- 사회개발(의제 20)
 -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각료급 세계회의 개최 권고 등
- 마약(의제 21)
 - 마약위원회 특별 속개회의 12월 개최 결정 등
- 총회에 아래 사항을 선포하도록 권고
 - 유엔 관용의 해(1995년), 세계 언론자유의 날(5.3.), 제3차 인종차별철폐 10주년, 국제노인의 해(1999년)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 Geneva, 1993.6.28.-7.30. 전3권 (V.3 7.22.-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9 / 9 / 1-183

1993.6.28.~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회의 결과에 관한 문서임.

1. 회의 평가

-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 개편안에 따라 1992년부터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하고 고위급회의와 조정 회의 및 본회의로 구분하여 정책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토의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회의 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
- ECOSOC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래 입장 대립
 - G-77은 ECOSOC 역할강화를 목표로 주요 문제에 대한 활동 확대 추진
 - 반면 선진국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활동 증대에는 반대 입장 견지

2. 한국대표단 활동

- 허승 주제네바대사가 고위급회의 수석대표로 사회개발정상회의 관련 기조연설
-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ECOSOC 부의장으로 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 여성지위, 마약, 인권, 지역협력, 개발 및 국제경제협력, 지속개발 등 대부분 의제에 대해 총 13회 입장 개진
- 주요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및 표결 시 한국 입장 적극 반영

3. 참고자료

- 회의별 진행 현황 보고(주제네바대표부), 한국대표 연설문, 결의문 초안
- '여성지위향상' 분야 회의참가 결과보고서(1993.7월, 외무부 정무2장관실)
- 1993년도 ECOSOC 참가 보고서(1993.9월, 외무부 국제기구국)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국가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59 / 10 / 1-118

1993년 중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에 제출할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관한 문서가 수록됨.

1. 유엔 정책조정 및 지속개발 담당 사무차장, 1993.8.12. 제2차 CSD 회의 제출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을 주유엔대표부로 송부
2. 지속개발위원회 국가보고서 작성 계획(1993.8월, 환경처)
3.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및 '의제 21' 각 장별 작성양식(1993.8월, 환경처)
4. 환경처는 1993.12.4.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에 CSD 국가보고서 상의 각 부처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기술이전 실무회의. Cartagena(콜롬비아), 1993.11.17.-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59 / 11 / 1-297

정부는 1993.11.17.~19.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기술이전 실무회의에 소병용 주유엔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개최국: 미국, 콜롬비아
- 초청국: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튀니지 등 18개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

2. 회의 개요

- 배경: 1993.6월 제1차 CSD 본회의에서 한국 측의 제의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목적: 1994.2월 개최 예정인 CSD 특별회의의 잠정의제 발굴

3. 회의 결과

- 폐기물 처리기술, 에너지 기술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사례 등을 토의했으나, 명시적인 정책 대안 권고 등은 채택되지 않음.
- 의장 요약보고에는 한국대표단이 제의한 아래 내용을 포함
 - Agenda 21 상의 '공공기관 소유기술'과 '공유권 하의 기술'에 대한 개념 구분을 위해 전문가 회의 개최 필요성 강조
 - 기술 수요국과 공급국이 공히 Inventory 등 작성할 필요성 제기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1 1992.5-8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9 / 12 / 1-140

1992.5~8월 중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의 구성 관련 논의 동향임.

1. CSD 사무국 소재지 관련 동향

- 스위스 정부의 CSD 사무국 제네바 유치 제안(1992.8월)
 - 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에 특사파견 계획(9월)
- EC(구주공동체) 회원국들은 제네바를 선호하는 반면, 일본, 뉴질랜드, 일부 개도국들은 뉴욕 선호
- 한국은 뚜렷한 이해관계가 없으나, 환경 관련 기구가 다수 존재하는 제네바가 업무수행에 편리하다는 입장

2. 사무국 지위 문제

- 유엔사무총장 하에 별도의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프랑스, 러시아 등이 지지
- 기존 DESD(유엔경제사회개발처) 산하에 설치
 - DESD 측 제안으로 일본, 중국 등이 지지
- 미국, 77그룹 국가들은 공식적 입장 표명이 없음.

3. CSD와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 개편

- 미국, 일본은 CSD 설치 시 기존 ECOSOC 산하 3개 위원회(과학기술위, 천연자원위, 재생자원 활용위)의 존속 문제 병행검토 입장
- 파키스탄 등 77그룹은 3개 위원회의 존속 필요 주장

4. 기타 주요사항

- CSD 위원국 구성 및 지역별 의석 배정, 운영 방식 등

5. 상기 문제에 대한 토의 동향

- 대부분 국가들은 CSD 구성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 간에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유엔사무국과 CSD 사무국 간에도 의견 대립
- 동 문제는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2 1992.9월-10.2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59 / 13 / 1-197

1992.9월~10.20. 중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의 구성 관련 논의 동향임.

1. 스위스 대통령 특사, 방한(1992.9.8.~10.)

- 특사명: 레우테르트 워그 외무부 국제기구국 부국장
- 한국 외에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방
- 방한 목적: CSD 사무국의 제네바 유치를 위한 지지 교섭
- 주요 일정: 외무부차관 예방 및 친서 전달, 환경처 조정평가실장 면담

2. CSD 관련 입장(1992.10월 현재)

- CSD 지위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로 구성하는데 다수국 의견 일치
 - CSD를 위한 별도의 Rules of Procedure 제정 여부는 미정
- CSD 기능
 - EC(구주공동체) 측은 Agenda 21에서 규정한 기능 외에 산림부문 등에 관한 추가기능 제안
- CSD 이사국
 - 53개국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역그룹 의석배정 방식에는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큼.
- CSD 사무국 지위
 - 미국, 일본은 CSD 사무국을 ASG(사무차장보)급을 책임자로 하여 DESD 산하에 설치 희망
 - 일부 개도국은 USG(사무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별도의 독립부서를 희망
- CSD 사무국 위치
 - EC, 미국은 제네바에 설치할 것을, 일본과 일부 개도국들은 뉴욕에 설치 희망
- CSD 설치와 ECOSOC 개편
 - 미국, 일본은 CSD 설치 시 관련 ECOSOC 산하 3개 기구와의 통폐합을 주장한 반면, 다수 개도국은 이에 적극 반대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3 1992.10.22.-11.6.)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1 / 1-234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논의된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의 구성 관련 동향임.

1. 제47차 유엔총회 환경회의(1992.11.2.~3., 뉴욕)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이재창 환경처장관
- 참가국(66개국)
 - 각료급: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5개국
 - 대사급: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호주 등 51개국
- 참석 목적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합의사항 및 향후 이행방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표명(기조연설) 및 주요국 환경 관계 고위인사와 교류
- 회의 동향
 - 1993년까지 CSD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동 위원회의 조직, 구성, 기능에 관한 논의가 주류 형성
 -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는 UNCED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진·개도국 간, 선진국 간 의견대립
 - 아프리카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해양 생물 및 산림 보존대책 추진 필요성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장
 - UNCED 시 서명한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조치 완료 촉구
 - EC(구주공동체)는 CO₂ 함유량에 비례한 에너지세 도입을 주장
- 수석대표 주요 일정
 - UNCED 후속사업 관련 본회의 기조연설, 일본, 인도, 네덜란드 장관 개별면담, 미국 환경처장, UNDP(유엔개발계획) 사무처장 면담, 뉴욕 인근 환경시설 시찰

2. CSD 설치 관련 동향(1992.11.4. 현재)

- CSD 관련 결정 시기는 예상보다 지연되어 1992.11월 하순 또는 12월 초 경으로 전망
- CSD 사무국 위치는 뉴욕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한다는 분위기 감지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4 1992.11.11.-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2 / 1-160

제47차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의 구성 관련 문서임.

1. CSD 설치 합의(1992.11.25.)

- 유엔총회 제2위원회의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후속사업에 관한 Ad Hoc 그룹은 CSD 설치에 관한 결의문 내용에 합의
- 결의문 내용
 - CSD 구성: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 53개국으로 구성, 지역별 의석배정
 - CSD 기능: 실천계획(Agenda 21)의 이행 진척사항 감시, 국별보고서 심의 등
 - CSD 회기: 매년 1회 2~3주간 개최, 조직회의 및 제1차 회의는 1993년 중 뉴욕 개최
 - CSD 사무국: 사무국장 직위(USG) 및 장소(뉴욕)는 추후 유엔사무총장이 결정

2. 유엔총회 제2위원회 UNCED 후속사업 관련 7개 결의안 채택(1992.12.16.)

3. 참고자료

- 제47차 유엔총회 환경회의의 참석 결과보고(1992.11월, 환경처)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전5권 (V.5 1993)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3 / 1-132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설치된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의 운영 관련 문서임.

1. CSD 설치 후 쟁점

- 고위급 자문회의: 제47차 총회의 CSD 설치 관련 결의안에서 사무총장을 보좌할 고위급 자문위원회 설립 승인에 따라 15~25명 규모의 자문위 후보자 추천
- NGO 참여 문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의 NGO 활동을 고려, CSD에도 NGO들이 참여하는 데 컨센서스 형성(단, NGO의 Status에 관한 원칙을 1995년까지 재검토하기로 함.)
- EC(구주공동체) 참여 문제: EC는 CSD 신설을 계기로 EC의 참여를 명문화하면서 Informal 협상에도 참여 가능하도록 요구하나, 미국, 일본, 77그룹은 반대

1018

2. CSD 조직회의(1993.2.24.~26., 뉴욕) 결과

- CSD 의장단 선출
 - 의장국: 말레이시아
 - 부의장국: 튀니지, 체코, 캐나다
 - 보고국: 미정
- CSD 본회의 잠정 의제(개요)
 - CSD 다년 작업계획 채택
 - CSD의 장래 작업에 관한 사항
 - 국가 차원에서의 의제 21의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 UNCED 권고사항을 국제기구의 활동 등에 구체화 시킨 진전 경과
 - 환경 청정기술의 이전 협력 및 능력형성 증진 진전 경과
 - 최초의 재정지원 공약, 재원의 Flow 및 조치
 - 제2차 CSD 회의 의제 채택
 - CSD 고위급회의에서의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 검토
- 다년 사업계획 및 회의운영 방식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 제1차. New York, 1993.6.14.-25.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0 / 4 / 1-256

1993.6.14.~25.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 준비 관련 내용임.

1. 회의 일정

- 1993.6.14.~22. 본회의 및 실무회의(뉴욕)
- 1993.6.23.~24. 고위급회의(각료급: 뉴욕)
- 1993.6.25. 최종보고서 채택, 폐회

2. 회의 개최 목적

- 의제 21 이행상황의 연차별 평가계획 작성·채택
- CSD의 장래작업방식 및 전반적인 업무 권한 범위 설정
- 재정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공약실천여부 검토
- 기술이전 및 능력 형성분야에 대한 실적 검토

3. 한국 정부대표단 임명

- 고위급회의
 - 수석대표: 황산성 환경처장관
- 실무회의
 - 수석대표: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4. 참고자료

- CSD 의제 21 이행상황 평가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 CSD 본회의 의제 관련 사무총장 보고서
- 관계부처 참가대표 추천 공문
- CSD 본회의 수석대표 연설요지(안)
- CSD 제1차 본회의 참가대책안(item 2 & 5)(1993.6.8., 대외경제연구원)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 제1차. New York, 1993.6.14.-25. 전2권 (V.2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0 / 5 / 1-229

정부는 1993.6.14.~25.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UN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에 황산성 환경처장관 및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일정

- 1993.6.14.~22. 본회의
- 1993.6.23.~24. 고위급회의
 - 6.25. 폐회

2. 참가국

- 53개 회원국 및 다수 비회원국(각료급 35명)

3. 정부대표단 훈령

- 기술이전 실무그룹회의에 적극 참여, 한국 측 입장 반영
 - 공공기술의 이전 보장을 위한 계획 제시 요구 및 기술이전에 관한 회기 간 실무그룹회의 설치
- 환경처장관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연설 및 각국 대표 접촉

4. 회의 결과

- 1993.6.14.~22. 본회의 및 6.23.~24. 고위급회의 토의결과를 7개 결정으로 채택
- 의제 21 평가계획, CSD 작업방식 및 국가보고서 등 조직·절차적인 사항과 재정·기술문제 및 고위급회의 결과 등 정책적 사항으로 대별
- 의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해결 모색보다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에 치중

5. 향후 전망

-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등의 의제 21 이행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및 평가보고서 작성 개시 예상
- 재원 및 기술이전 문제에 관한 회기간 실무그룹의 활동개시로 핵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기대
- 고위급회의의 실질적인 토의 및 정책사항에 관한 검토 유도를 위한 개선방안이 검토될 것임.
- 고위자문기구의 활동개시로 핵심사항에 대한 정치적 고려 검토 가능

한국의 UNCSO(유엔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 진출. 전2권 (V.1 1992.9-93.1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6 / 1-193

1. 한국의 CSD(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 입후보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계획 Agenda 21 이행상황을 감시·평가하고, 환경과 개발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로 제47차 유엔총회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기능위원회로 CSD 창설
- 한국 정부는 1992.11월 CSD 이사국 입후보 계획을 유엔 아주그룹 의장국에 통보
 - 아주그룹 내 입후보 조정을 통한 무투표 피선을 추진하되, 사전 조정이 어려울 경우 ECOSOC 투표에서 피선 추진
- 1993.1월 현재 아주그룹 내 입후보 의사 표명국가는 한국을 포함, 인도네시아, 중국, 사우디, 이란, 바누아투, 말레이시아, 요르단, 싱가포르, 필리핀 등 10개국

2. CSD 이사국 지지 교섭을 위한 Talking Point

-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선발개도국으로 각종 환경규제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지만,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옴.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1992.5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 폐기물 교역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 가입을 추진 중
 - Agenda 21 등 UNCED 합의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범정부협의회 운영 중
- UNCED 과정에서 한국은 Agenda 21, 특히 기술이전 분야에서 선진·개도국 간 원만한 타협을 유도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도 선진·개도국 간 다양한 입장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음.

1021

대한민국 인권발전연구원

한국의 UNCSO(유엔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 진출. 전2권 (V.2 1993.2-3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7 / 1-132

1. 한국의 CSD(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 피선

- 1993.2.16.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CSD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임기 3년의 이사국에 피선됨.
 - CSD는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결과로 창설된 유엔기구로 동 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계획(Agenda 21)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구임.
 - CSD가 유엔환경 분야 활동의 핵심기구인 만큼 한국은 동 이사국 진출로 인해 환경 분야에서 한국 입장 반영에 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 CSD 이사국 진출로 한국이 이사국 또는 위원국으로 진출해 있는 국제기구 수는 총 23개로 증가됨.

1022

2. CSD 이사국 진출 시 국별 득표 현황

- 3년 임기: 중국(50), 한국(47), 파키스탄(43), 인도네시아(42)
- 2년 임기: 싱가포르(49), 필리핀(46), 스리랑카(45), 바누아투(37)
- 1년 임기: 인도(51), 말레이시아(51), 일본(50)

HABITAT II(제2차 유엔인간정주위원회) 준비위 조직회의. New York, 1993.3.3.-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0 / 8 / 1-110

HABITAT II(제2차 유엔인간정주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조직회의가 1993.3.3.~5. 뉴욕에서 개최됨.

1. 회의 주요 결과

- 준비위원회 의장단 선출
 - 의장: Robert LLoyd Wenaman(캐나다) 대표
 - 부의장: 케냐,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대표
- 논의 내용
 - 실질 논의과제가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도서국, AID 등 주요사항 누락에 관하여 지적 발언이 있었음.
 - Habitat I 이행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준비인력은 기존 유엔기구 내 인력 활용함이 바람직
 - 77그룹 별도회의에서 NGO, 민간단체, 국제금융기구 참여 권장 제의
 - 제1차 준비위원회를 1994.4.11.~22.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결과보고서 수록
 -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 A/48/37, 9 March 1993

2. 제2차 인간정주회의 준비를 위한 행동계획안

- Habitat 사무총장은 1993.10.27.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HABITAT II 준비를 위한 행동 계획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11월 말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옴.
 - 또한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1994.4.11.~22.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 시 한국 정부가 작업 프로그램 관련 조치 사항 및 국내에서의 조치활동에 대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망함.

UNCHS(유엔인간정주센터) 상주대표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0 / 9 / 1-80

UNCHS(유엔인간정주센터) 상주대표회의가 1993.1.14., 3.26., 4.6., 9.8. 및 12.1. 케냐에서 개최된바, 주케냐대사관에서 송부한 회의 자료가 수록됨.

1. 1993.4.6. 회의

- 제14차 Habitat 회의에서 채택하게 될 아래 결정사항 초안 8개를 토의, 채택함.
 - 초안1. 서기 2000년까지의 지구주거전략
 - 초안2. 정부 및 비정부기구 간 협력
 - 초안3. 여타 기관과의 협력·조정문제
 - 초안4. 인간정주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 초안5. 주거, 고용 및 빈곤층 문제
 - 초안6. 주택 건축자재
 - 초안7. 도시관리 개선
 - 초안8. 유엔체제 내에서의 Habitat의 역할 및 위치

2. 1993.9.8. 회의

- 보고사항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제14차 Habitat 회의 결과 보고
 - 제14차 Habitat 회의 결정사항 후속조치
 - Habitat II(제2차 유엔인간정주위원회) 준비 경과
 - 2000년대 지구주거전략 시행경과
- 주요 토의내용
 - 제14차 Habitat 회의 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감독과 기타 현안의 토의 및 사무총장에 대한 자문을 위해 상주대표회의 하에 실무그룹 설치
 - 상주대표회의 의장단 재구성을 위해 각 지역 4그룹별로 후보자 추천

3. 1993.12.1. 회의

- 상주대표 실무그룹 구성
 - 제14차 인간정주위원회 결정사항 후속조치 검토·평가
 - 상주대표들이 제기하는 이슈의 검토·평가와 권고 또는 결정 초안 작성
 - 직원 현황, 프로그램 및 예산 관련사항
 - Habitat II 준비, 기관 간 인간정주 업무 조정, 지역 활동, Agenda 21, 지구주거전략, 적절한 주거의 권리, 여성과 주거개발 등



- Habitat II 준비 경과
 - 제14차 인간정주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 주제 선정
 - 1993.10.4. 뉴욕에서 준비위원회 사무국 공식 활동 개시
 - 준비를 위한 행동계획안 작성, 각국 송부

UNCHS(유엔인간정주센터), 제14차. Nairobi(케냐), 1993.4.26.-5.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0 / 10 / 1-119

정부는 1993.4.26.~5.5.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4차 UNCHS(유엔인간정주센터) 회의에 라원찬 주케냐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및 기구

- 83개국: 회원 48개국, 옵서버 35개국
- 국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 ILO(국제노동기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13개 기구
- 비정부기구: IAA(국제건축학회) 등 12개 기구

1026

2. 주요 의제

- Habitat(유엔인간정주센터) 활동
- 2000년대를 향한 지구주거전략
- Habitat II(제2차 유엔인간정주위원회) 준비
- Habitat의 역할 및 지위
- 상주대표회의
-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주거 요건

3. 회의 결과 및 건의사항

- 2년마다 개최되는 주택, 인간정주 전반에 관한 유엔총회로서 중요성이 부각됨.
 - 83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2000년을 향한 지구주거전략, 도시관리개선, 비용효과적 건축자재, 기술·이전 메커니즘, Habitat의 역할, Habitat II 준비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토의함.
- 다수의 개도국 대표들이 각국의 주거전략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원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른 자발적 기여금의 확대 및 증액을 촉구함.
- 건의사항
 - Habitat의 각종 프로그램, 활동에 한국 측 참여 확대 필요
 - Habitat II 적극 참여
 - 개도국들의 주택 건설 및 도시 관리 프로젝트에 양자관계로서 참여방안 모색
 - UNCHS 정회원국 가입 검토

4. 한국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는 '주택, 환경 및 개발'을 주제로 연설, 200만호 계획 추진으로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 노력 소개
- 건설부 주택국장은 향후 한국의 정책방향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장구조 개선임을 설명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9차. New York, 1993.4.5.-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11 / 1-63

정부는 1993.4.5.~15.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9차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에 소병용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의제

- 다국적 기업의 개도국에서의 직접투자 추세
- 중·동부유럽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
- 은행 포함 서비스 분야에서의 다국적 기업 동향
- 다국적 기업 관련 국제 협약 및 조약
- TCMD(다국적기업 관리국)의 활동

2. 결과 평가

- 동서 대립이 소멸된 상황이나 개도·선진국 간 논의는 전례를 답습하는 경향
-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 개편 관련, UNCTC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 재배치 검토 전망

3. 후속조치

- 유엔사무총장은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진행
 - 1993.10.30. 한국 정부는 답변자료 제출

UNCPC(유엔계획조정위원회), 제33차. New York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0 / 12 / 1-86

제33차 UNCPC(유엔계획조정위원회) 회의가 1993년 중 2차례 개최됨.

1. 제33차 CPC 1부 회의

- 기간 및 장소: 1993.5.10.~14. 뉴욕 유엔본부
- 한국대표단(대표): 황용식 외무부 국제기구국 심의관, 유태현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 주요 의제
 - 유엔의 인권분야 활동상황 평가
 - 장래 평가분야로서 사회개발, 평화유지, 환경문제 등 선정
 - 유엔과 다자간 금융기구와의 협조문제 분석 평가
- 참가 의의
 - 한국은 1992.4월 CPC 회원국(총 34개국)에 피선 후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2. 제33차 CPC 2부 회의

- 기간 및 장소: 1993.10.6.~22. 뉴욕 유엔본부
- 한국대표단(대표): 유태현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강철호 외무부 국제연합1과 사무관
- 주요 의제
 - 유엔의 행정·재정기능 강화방안 토의
 - 유엔의 1994~95년 사업예산 심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 및 위원국 선출. 전4권 (V.1 조직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13 / 1-87

1993년 중 개최된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 관한 문서임.

1. 1993.1.26. 회의

- 의장단 선출
 - 의장국: 칠레
 - 부의장국: 기니,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한국
-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한국은 앞으로 1년간 사회분과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부의장직은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수행

2. 1993.2.2.~12. 회의

- 주요 의제
 - 고위급회의 의제 선정, ECOSOC 연간 업무계획
 - CSD(지속개발위원회) 설치, 위원국 선거, 절차규칙 채택
 - EC(구주공동체)와 NGO의 CSD 참여 문제
 - 지속개발에 관한 고위급 자문위 설치
- 결과
 - CSD 지위 등에 관한 결정
 - CSD를 ECOSOC 산하 기능위원회로 결정
 - CSD 선거(1993.2.16.), 조직회의(1993.2.24.~26.), 본회의(1993.6.14.~25.) 개최 확정
 - CSD 의사규칙 관련 문제
 - NGO 참여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EC(구주공동체) 지위에 관한 사항은 미 타결
 - ECOSOC 본회의 관련 결정
 - 1993년도 ECOSOC 본회의 의제 확정
 - 산하기구 위원국 및 위원 선출
 - 사회개발정상회의 1995년 개최 의결(주제: 사회개발 정상회의와 유엔의 역할)
 - 고위급회의 일자(1993.6.28.~30.) 결정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 및 위원국 선출. 전4권 (V.2 산하기구 위원국 선출 I: 1992.7-93.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14 / 1-122

1993.4월 개최되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선출하는 산하기구 위원국에 입후보한 국가들이 1992.7~93.2월 중 한국 정부에 지지를 요청함.

1. 인권위원회 이사국(임기 1994~96년) 지지 요청 국가

- 페루, 엘살바도르,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튀르키예, 독일, 오스트리아

2.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 지지 요청 국가

- 트리니다드토바고

3. 한국의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임기 1994~97년) 입후보 검토 및 다른 입후보국의 지지 요청 국가

- 에콰도르
- 말레이시아

4.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스페인, 프랑스

5. 인간정주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아제르바이잔

6. 마약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일본, 스페인, 멕시코

7. INSTRAW(국제여성지위향상연구훈련원) 이사회 지지 요청 국가

- 레바논 Sonia Ibrahim Atiyah
- 스페인 Pilar Escario Rodriguez-Spiteri
- 태국 Amara Pongsapich
- 코스타리카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 및 위원국 선출. 전4권 (V.3 산하기구 위원국 선출 II: 1993.3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15 / 1-105

1993.4월 개최되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선출하는 산하기구 위원국에 입후보한 국가들이 1993.3월 중 한국 정부에 지지를 요청함.

1. 유니세프 집행위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레바논, 인도, 필리핀
2.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 지지 요청 국가
 - 영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아일랜드, 덴마크, 인도네시아
3. CSW(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바하마
4. CND(마약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스페인, 바하마, 멕시코, 러시아, 콜롬비아, 영국
5. 범죄예방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오스트리아,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모로코, 일본
6.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지 요청 국가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에콰도르
7. INSTRAW(국제여성지위향상연구훈련원) 이사회 지지 요청 국가
 - 레바논, 코스타리카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 및 위원국 선출. 전4권 (V.4 산하기구 위원국 선출 III: 1993.4-5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0 / 16 / 1-178

1993.4월 개최되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선출하는 산하기구 위원국에 입후보한 국가들이 1993.4~5월 중 한국 정부에 지지를 요청함.

1. 인권위원회 이사국(임기 1994~96년) 입후보 지지 요청 국가

- 체코, 자메이카

2. CSD(지속개발가능위원회)

- 말레이시아, 멕시코

3. 유니세프 집행이사회 이사국 지지 요청 국가

- 인도네시아, 폴란드, 레바논, 루마니아

4.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 지지 요청 국가

- 아일랜드, 일본,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레바논

5. CSW(여성의 법률적, 사회적 지위에 관한 위원회) 위원국

- 코스타리카

6. CND(마약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불가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스페인

7. 범죄예방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브라질, 콜롬비아, 파키스탄, 헝가리

8. INSTRAW(국제여성지위향상연구훈련원) 이사국 지지 요청 국가

- 이탈리아, 부르키나파소, 스페인

9. 유엔인구위원회 위원국 지지 요청 국가

- 체코, 자메이카

유엔사무총장 동정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0 / 17 / 1-82

1992~93년 중 유엔사무총장의 활동 관련 내용임.

1. 1992년

- 회원국 방문
 - 멕시코, 프랑스, 영국, 스위스(제네바),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미국(워싱턴 D.C.)
- 관심사항
 - 세계평화 유지, 개도국 경제개발, 약자의 지위 향상, 선진국의 기여 증대, 소련붕괴 이후 독립국 및 기존 유럽과 태평양 소국 등의 유엔 가입

2. 1993년

- 회원국 방문
 - 일본, 태국, 캄보디아, 미국(보스턴), 베트남, 벨기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우크라이나
- 관심사항
 - 평화유지를 위한 선진국의 기여 증대, 유엔·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 세계 인권 증진, 아프리카·동남아·발칸 등 지역정세 안정

1033

대한민국외교부
국제연합과

Ganev, Stoyan D. 유엔총회(제47차) 의장 방한, 1993.3.30.-4.4.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3-60 / 18 / 1-201

Stoyan D. Ganev 제47차 유엔총회 의장의 1993.3.30.~4.4.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한승주 외무부장관 초청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홍순영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및 주최 만찬 등
- 경희대 총장 면담 및 만찬, 유창순 유엔 한국협회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및 대우중공업 시찰, 국립박물관 및 창덕궁 관람, 제주지사 주최 만찬 및 제주도 관광 등

1034

3. 외무부장관대리 면담(3.30.)

- Ganev 의장은 북한 핵 문제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동 의장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조만간 중국 방문기회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얘기할 것임을 시사

Heitor Gurgulino de SOUZA 유엔대학 학장 방한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1 / 1 / 1-119

1989~93년 중 Heitor Gurgulino de Souza 유엔대학 학장 방한 관련 내용임.

1. 1989.6.12.~13. 방한

- 방문 목적
 - 도쿄 소재 유엔대학(UN University)과 한국 대학 간의 협력 증진방안 협의
 - 유엔대학의 국내 연구훈련센터 설립지원 요청
 -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모색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문교부장관 예방
 - KAIST 등 방문

2. 1993.9.20.~25. 방한

- 방문 목적
 - 경희대학교 부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 유엔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환경처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처차관 등 예방
 - KOICA, KAIST 방문

Ji Chaozhu 유엔 사무차장 방한, 1993.8.22.-2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1 / 2 / 1-139

Ji Chaozhu 유엔 개발원조 및 관리 담당 사무차장이 1993.8.22.~26. 방한함.

1. 방한 경위

- 유엔 관련 유력인사 방한초청 사업의 일환

2. 방한 목적

- 유엔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한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 유엔 주관 다자 간 기술협력문제 논의

3.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과기처장관 예방
- KDI, KOICA, 전경련 등 방문
 - 한국의 개발경험을 유엔의 대개도국 원조에 활용하는 방안 협의

4. 외무부장관 면담(8.25.) 시 주요 언급내용

- Ji 사무차장은 '개발원조 및 관리 담당' 업무는 개도국의 개발사업, 선거지원, 인력자원 및 자연자원 개발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
- 이상옥 장관은 한국 정부 후원으로 인력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두만강 개발사업 관련 북한 측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

Petrovsky, Vladimir 유엔 Geneva 사무처장 방한, 1993.9.21.-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1 / 3 / 1-48

Vladimir Petrovsky 유엔 제네바 사무처장의 1993.9.21.~2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경희대학 주최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2. 주요 일정

-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막식 기조연설, 외무부장관 면담, 경희대 총장 주최 만찬
-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최 만찬

3. 방한 결과

- 외무부장관 면담
 - 화학무기금지협약 성안 등 군축문제, 북한 핵 문제, 한국의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 참여 등 협의
- 상기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신국제 질서와 유엔의 개혁' 주제로 기조연설
- 기타 대전 엑스포 시찰, 조선일보 인터뷰 등

1037

대한민국외교기록관리사업

Li Zauxing(李肇星) 주유엔 중국대사 방한, 1993.7.28.-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1 / 4 / 1-48

Li Zauxing 주유엔 중국대사의 1993.7.28.~30.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중국 개최 공관장 회의 참석 후 귀로에 방한

2. 주요 일정

- 김우중 대우 회장 주최 만찬
-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및 오찬, 외무부차관 면담

3. 방한 결과

- Li 대사는 체한 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에 의한 해결 지지 등 중국의 기존입장 반복
- 안보리 개편 문제와 PKO(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중국 입장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으로 답변

Luck, Edward 미국 유엔협회장 방한, 1993.4.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1 / 5 / 1-23

Edward Luck 미국 유엔협회장의 1993.4.1.~2.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요 일정

- 세종연구소 방문, 정일영 세종연구소장 면담, 유창순 한국유엔협회장 주최 만찬, 외무부차관 예방

2. 외무부차관 예방

- 미국 유엔협회 활동 현황, 한국의 유엔 외교 현황 등 논의

유엔 한국협회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한 주요국가 현황 조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1 / 6 / 1-70

1. 외무부는 한국의 유엔가입 및 유엔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국가준비위 구성을 계기로 유엔 한국협회를 대유엔 외교측면을 지원할 전문 민간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함.

- 주요국 유엔협회의 활동 현황, 회원 규모, 예산 운영, 조직, 정관 등을 파악하도록 해당 공관에 지시함.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인도, 태국 등 국가의 유엔협회 현황 자료 수록

2. 유엔 한국협회와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연혁

- 유엔한국협회: 1947년 발족
- WFUNA: 1946.8.2. 설립

유엔 한국협회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1 / 7 / 1-39

1. 유엔 한국협회, 외무부에 사업예산 지원 요청(1991~93년)

- 제33차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총회 대표 파견을 위한 참가 경비
- 제4차 WFUNA 아태지역회의 유치 관련 초청 여비
- 제47주년 '유엔의 날' 기념 리셉션 경비
- 제34차 WFUNA 총회 대표 파견을 위한 참가 경비

2. 한국의 유엔가입에 즈음한 유엔협회의 지위에 관한 검토 문건 등 수록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23-61 / 8 / 1-271



1993년 중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의 동향임.

1. 제20차 정기회의(1993.10.22., 부산)

- 유엔의 날 기념식 개최
- 참가자
 - 김정호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위원회 소속 10개국 주한 대사
- 회의 결과
 - 1994년도 예산안 의결
 - 유엔기념묘지 주변 고철 야적장 이전 추진
 - 유엔기념묘지 초등 및 중등학교 교과서 게재 추진

1042

2. 소위원회

- 제50차 소위원회(1993.4.23., 서울)
- 제51차 소위원회(1993.9.10., 서울)

3. 운영 일반

- 주변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남구청 시행
 - 1992.5월부터 고물상, 도로, 불량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정비 대상으로 총 19개 대상 선정
 - 주변 화물 주차장, 고물상 등 8개 대상으로 정비
- 묘지 주변 무단주차 개선
 -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무단주차 금지 지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남태평양 신탁기금 지원

생산연도 1988-1993

생산과 경제지구과

MF번호 2023-61 / 9 / 1-87

1988~93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남태평양 신탁기금 지원 관련 내용임.

1. 지원 경위

- Kirbria ESCAP 사무총장은 1988.6.8.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제44차 총회에서 채택된 '태평양지역에서의 ESCAP 활동'에 관한 결의안 요청에 의거, 태평양 소재 회원국(8개국), 준회원국(9개국) 대표들이 제45차 총회(1989년)부터 ESCAP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들 국가들을 위한 합동사무소 개설 및 운영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기금 설립을 제의함.
- 사무국의 설명에 의하면 동 기금은 태평양 국가 대표들의 총회 참석 지원 65,000달러, 합동사무소 운영 43,000달러 등 매년 약 108,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엔 재정난을 고려해 볼 때 유엔 정규예산에 의한 지원은 불가하여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지원을 호소함.
- 외무부 검토 결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원하기로 결정

2. 주요 지원 국가 및 금액

- 1989년도
 - 일본 20,000달러, 호주 19,897달러, 프랑스 15,890달러, 한국 10,000달러, 네덜란드 10,000달러, 인도네시아 5,000달러
- 1990년도
 - 한국 10,000달러, 일본 및 미국 20,000달러, 중국 10,000달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170-179차. Bangkok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1 / 10 / 1-525

1993년 중 방콕에서 개최된 제170~17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70차 회의(1993.1.19.):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서기관 참석
2. 제171차 회의(1993.2.17.)
3. 제172차 회의(1993.3.19.)
4. 제173차 회의(1993.4.15.)
5. 제174차 회의(1993.6.1.):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서기관 참석
6. 제175차 회의(1993.8.11.): 김도형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참석
7. 제176차 회의(1993.9.2.)
8. 제177차 회의(1993.10.26.):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참석
 - Ahmed 사무총장 보고, 제50차 총회 준비 등
9. 제178차 회의(1993.11.30.):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참석
 - Ahmed 사무총장 보고, 총회 결의 48/2(총회 구조개편) 후속조치, 제50차 총회 준비, 1992~97년 중기계획 수정 등
10. 제179차 회의(1993.12.21.):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참석
 - 총회 결의 48/2(총회 구조개편) 후속조치 검토, 제50차 총회 준비, 사무국 업무계획 우선순위, 1994/95년 회의 일정, 개발계획국 및 무역국 업무, 제3차 지역경험운영위 회의 결과 등 검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APCTT(아시아태평양 기술이전센터) 집행위원회, 제8차. New Delhi(인도), 1993.11.18.-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1 / 11 / 1-36

정부는 1993.11.18.~19.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APCTT(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 집행이사회에 김선빈 과학기술처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동 기구에 대한 기여금 증대
- 동 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2. 회의 결과

- 1992년 APCTT 활동과 수행한 사업에 대한 TAC(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수정 없이 승인
 - APCTT 활동은 새롭게 우선순위가 앞선 분야에 주력해 주길 바라며 또한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민간 산업체와 직접적인 협력사업 전개를 제안함.
- APCTT 행정 및 재정 문제 토의
 - 500만 달러 규모의 기부금 확보를 위하여 선진국 또는 민간 분야 등 다각적인 방법의 노력이 요구
- 차기 집행이사회 개최장소 및 날짜 선정

3. 평가 및 관찰

- APCTT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금이 1989년까지 2만 달러에서 1990년, 1991년은 생략하고 다시 1992년부터 1만 달러씩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제2차 운영이사회에서 설정한 기준(1만 5천달러)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 및 역할 증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1989년까지 수준인 2만 달러 수준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뉴델리에서 새롭게 시작한 APCTT가 인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APCTT 사업에 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RNAM(농기계지역망 사업) 집행위원회 회의, 제15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3.12.9.-1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1 / 12 / 1-55

정부는 1993.12.9.~1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7차 TAC(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 최광재 농업진흥청 농업기계회연구소 연구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제17차 TAC 회의(1993.12.6.~8.)

- 참가국 및 관련 기구
 - 한국,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ESCAP, RNAM, IRRI, GTZ, JICA
- 주요 토의내용
 - 회원국 연구소 연구 인력의 능력 향상: TCDC(개도국간경제기술협력) 정신에 입각하여 필요한 기술연수는 적합한 초청국에서 제공하며, 해당기관의 능력범위 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 AAMMA(아시아농업기계제조업자연맹) 창설: RNAM 사무국에서는 각국 농기계 협회, 업체에 설문조사를 통한 설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함.
 - '농업기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종료: 미제출국은 조속히 완료하여 제출하도록 촉구 (한국은 1990년 제출)
- 평가
 - 한국은 RNAM 회원국 12개국 중 농업기계화 정책 농업기계생산기술 및 농업기계화 수준이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

2. 제15차 ESCAP/RNAM 집행위원회 회의(1993.12.9.~11.)

- 정부 훈령
 - 농업기계화 사업 분야에 관한 RNAM 회원국 및 선진국의 농업기계화 정책 및 현황 등 최신 자료를 입수하여 한국의 아태지역 농기계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
 - RNAM 측의 기여금 증액 요청 시 한국이 1994년도에 RNAM 기여금으로 2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힐 것
- 주요 의제
 - RNAM 향후 사업 추진계획 검토
 - RNAM의 재정 자립방안 검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26차. Manila(필리핀), 1993.11.2.-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1 / 13 / 1-141

정부는 1993.11.2.~8.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에 봉종헌 기상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신속한 기상관측 정보교환체제를 구성, 유지하도록 요청
-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기하고 정확한 관측자료 및 통계의 주기적 발간 도모
- 기상학을 항공, 항해, 치수, 농업, 기타 인간 활동에 응용하고 각국의 기상조사 및 훈련 촉진

2. 정부 훈령

- 세계의 기상사업을 조정, 표준화 및 개선하고 국가 간 기상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을 장려하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적극 참여 의사를 표명할 것
- 1993년 한국이 수행한 기상, 수문, 방재, 연구, 훈련 부문에 걸친 활동을 발표할 것
- 태풍위원회 지역협력계획의 일환으로 남북한 기상협력 사업계획이 성안되어 있는바, 필요시 유익성과 공익성을 언급할 것
- 지역협력계획에 의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 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 설치계획과 추진 실적을 언급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

1047

대한민국외교부서약장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공업개발 및 구조조정을 위한 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1 / 14 / 1-105

1993년 중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공업개발 및 구조조정을 위한 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성격

- 1991년 서울 개최 ESCAP 총회 시 한국 주도로 논의되어 채택된 “아·태지역 공업구조 재조정을 위한 서울행동강령”의 후속사업

1048

2. 기술주도 공업개발 및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전문가 회의(1993.10.26.~28., 방콕)

- 참가 목적
 - 제47차 ESCAP 총회 시 한국 주도로 채택된 아·태지역 산업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서울행동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검토될 예정인바, 서울행동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입장을 반영함.
- 주요 토의 예정사항
 - 아·태지역 경제통합 증진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
 -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촉진
 - 신기술 이전을 위한 문제점
 - 장기적인 산업개발 및 구조조정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구 설립 문제
-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석

3. 지속가능한 공업개발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역포럼(1993.12.6.~10., 쿠알라룸푸르)

- 한국대표단: 정기용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회의 의제
 - 경제통합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
 -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촉진
 - 신기술 이전 문제 및 신기술 적응을 위한 기능개발
 - 공업개발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형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제1차. Bangkok, 1993.12.13.-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1 / 15 / 1-196

정부는 1993.12.13.~1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회의에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7개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 7개 유엔기구, 15개 기관 등 49개 대표단

2. 회의 의제

- ESCAP지역 교통·체신 발전 검토
- 아·태 교통·체신 10년대 사업의 2단계(1992~96)
- 해운정책 기획 모델
- 경제성장 및 지역협력의 핵심수단으로서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관한 연구
- 인적자원 개발 등 교통·관광 부문 주요 이슈 등

3. 회의 결과

- 의장단 선출
 - A. R. M. Jayawardana 스리랑카 교통 및 고속도로부 장관을 의장으로 선출
- 각국 대표는 ESCAP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자국의 교통·체신·관광 분야 개발 현황 소개
- 10년대 사업에 회원국 및 준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 증진을 위한 ESCAP의 중요한 역할 인식 및 10년대 사업 2단계의 지역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지원활동 소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3.2.8.-11. 전4권 (V.1 사전준비 I (1992))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1 / 16 / 1-261

1993.2.8.~11.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의 관련 내용임.

1.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추진계획 장관보고(1992.7.28.)

- 개최 필요성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 확보
 -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 방지대책 협의
- 회의 개최계획
 - 일시: 1993.1월
 - 대상 국가: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 회의성격 및 목표: 정부대표와 환경전문가를 동시에 초청, 상설 정부 간 지역 환경협력기구 설립방안 협의
 - 개최 경비: KECF(한·ESCAP 협력기금) 20만 달러 활용
- 추진 일정
 - 기본계획 마련 후 1992.8월 말까지 ESCAP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계획 확정, 9월 중 관계국에 초청장 발송

2. ESCAP 주관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개최준비(장관 보고)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93.2.8.~11. 롯데호텔
 - 의의: 동북아 환경협력 논의를 위한 최초의 공식 정부 간 회의
 - 참가국: 한국, 북한(미정),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 ADB(아시아개발은행), WORLD BANK(세계은행)
- 회의 조직 및 의제
 - 조직: 본회의만 운영, 한국은 주최국으로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이 의장직 수입
 - 의제: 개회 및 의장단 선출, 의제 채택, 지역 환경여건 및 추세, 지역 환경협력 증진 전망 등
- 회의 일정(안)
- 연회 일정(안)
- 회의 준비 사무국 구성 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3.2.8.-11. 전4권 (V.2 사전준비 II(1993))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1 / 17 / 1-265

1993.2.8.~11.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의 관련 내용임.

1. ESCAP 주관 동북아시아 환경협력회의의 참가대표 임명(장관 재가)

- 정부대표
 - 수석대표: 권익혁 외무부 환경담당대사
 - 교체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대표: 정내권 외무부 과학환경과장, 하동만 경제기획원 대외총괄과장, 이광수 환경처 국제협력과장, 최석영 외무부 과학환경과 서기관
 - 전문가: 한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돈 중앙대학교 교수
- 정부 훈령(안) 개요

2.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의 참가계획(1993.1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 회의 개관
 - 회의 개요, 회의 일정 및 의제 개요, 주최 배경 및 의의, 토의 방향 및 협력 전망
- 회의 참가계획
 - 대표단 구성, 기본 입장, 의제별 입장, 권고안 초안
- 관련 자료 요지
 - 연설문 요지
 - 보도자료

3. 외무부 보도자료(1993.2.2.)

- ESCAP, UNEP(유엔환경계획) 및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주관하에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체제 마련을 토의하는 최초의 정부 간 회의로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개최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밀집으로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 내 환경협력 증진을 위한 최초의 정부 간 회의를 한국이 주최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역내 환경협력 논의에 있어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3.2.8.-11. 전4권 (V.3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2 / 1 / 1-160

1993.2.8.~11.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의 결과 내용임.

1. 참가자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역내 5개국 대표
- ESCAP, UNEP(유엔환경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ADB(아시아개발은행) 대표

1052

2. 주요 결과

- 정부 간 환경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합의
- 3개 우선협력 분야 합의
 - 에너지와 대기오염, 생태계 관리 및 능력 형성(정보교환, 훈련, 공동조사 등)
 - 회의 결과 및 합의 사항을 정리한 권고안 채택
 - 국제기구(ESCAP, UNDP, UNEP, ADB)의 적극적인 개정, 기술지원 촉구
 - 차기 회의 개최일시 합의: 1993년 4/4분기

3. 회의 성과

- 지역 환경협력을 위한 정부 간 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합의
- 3개 우선협력 분야에 합의함으로써 포괄적인 지역 환경협력의 구도가 작성되었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협의 예정
-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의사 확보로 향후 실질 사업 추진에 큰 진전 기대
- 중국으로부터의 이동성 대기오염 등에 대한 공동조사 및 감시를 강조하는 일본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희망하는 중국의 참여한 입장대립이 있었으나, 지역 환경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후속회의 개최 및 구체사업 추진에 합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93.2.8.-11. 전4권 (V.4 회의자료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2 / 2 / 1-163

1993.2.8.~11.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회의의 관련 자료임.

1. 회의 자료

- Tentative Programme
- Provisional Agenda
- Annotated Provisional Agenda
- Provisional List Of Participants
- Experience Of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me
- North-East Asian Regional Environmental Programme
- Institutional And Financial Implications 등

2. 언론 보도

- 동아일보 “지역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을” 제하 사설(1993.2.1.)
- 중앙일보 “중국 공해가 몰려온다” 제하 사설(2.1.)
- 조선일보(2.1.)
 - “동북아 5국 서울서 환경회의”
 - 8~11일 한·중·일·러·몽골 실천안 협의
- 중앙일보(2.8.)
 - “환경보호” 각국 간 공감대 형성
 - 미수교국 많아 이제까진 학술차원 논의, 공식대표 참가 통합 실천기구 구성 기대
- 서울신문(2.9.)
 - 생태계 공동보호 협의
 - 서해 오염, 황사 현상 대응책도 논의
- 동아일보(2.10.)
 - 환경협력 2개 우선과제 합의
 - 동북아 5국 회의, 연내 다자 간 공동사업 본격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빈곤경감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93.9.20.-2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2 / 3 / 1-247

정부는 1993.9.20.~2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빈곤경감위원회 회의에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24개 ESCAP 회원국, UNDP(유엔개발계획) 등 16개 국제기구, ICW 등 13개 비정부 간 기구 대표

2. 회의 의제

- 빈곤 현황 및 정책 방향
- 빈곤 경감을 위한 민간참여 유도 방향
- 향후 업무계획 등

3. 회의 결과

- 빈곤 경감을 위한 정부 및 ESCAP 역할에 대한 23개항의 권고문 채택
- 각국 경험을 볼 때 빈곤 경감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빈곤계층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빈곤계층의 능력배양을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 한국 대표(김도형 재무관)는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따른 절대빈곤의 감소 및 소득 불균형의 발생에 관한 경험을 설명하고, 빈곤 경감을 위해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화 각료회의. Bangkok(태국), 1993.10.27.-1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2 / 4 / 1-282

1993.10.27.~11.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화 각료회의의 관련 내용임.

1. ESCAP/도시화 문제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1993.3.30.~4.3., 스리랑카 콜롬보)

- 도시화 현황자료 및 통계 등 수정
- 사무국이 장관회의 선언문을 재작성하기로 함.

2. ESCAP/도시화 각료회의 고위실무회의(1993.10.27.~30., 방콕)

- 참가국
 - ESCAP 회원국 34개국 및 UNDP(유엔개발계획) 등 15개 국제기구
- 한국대표
 - 김창섭 건설부 도시계획과장, 권영대 외무부 사무관
- 회의 결과: 아래 주제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실천 계획안을 각료회의(1993.11.1.~2.)에 제출
 - 도시화 경향, 추세 및 영향
 - 도시 경제 및 생산성, 도시 빈곤, 도시 환경
 -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자원조달
 - 도시지역의 효과적인 조정, 개발, 계획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도시화에 관한 NGO, 지자체, 언론, 연구 및 훈련기관 심포지엄이 병행 개최됨.

3. ESCAP/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화 각료회의(1993.11.1.~2., 방콕)

- 참가자
 - ESCAP 회원국 34개국 및 17개 국제기구 대표 294명
- 수석대표
 - 홍성웅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회의 목적
 - 아태지역의 도시화 문제에 관한 공동 대처방안 논의 및 각료 선언문 채택
- 회의 내용
 - 의장단 선출
 - 아태지역의 지속적 도시 개발 및 경영을 위한 방콕 선언서 채택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대 회의. 북경, 1992.12.1.-5.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2 / 5 / 1-218

정부는 1992.12.1.~5. 베이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대 회의에 박청부 보건사회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국제장애인협회 아태지역 이사회는 제48차 ESCAP 총회(1992.4월, 베이징) 시 '아태지역 장애인 10년대' 결의안 추진
 - 1992.2.14. 아시로 회장은 결의안 제출에 대한 한국의 지지 요청
 - 한국 정부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명의 서한으로 호의적 검토 약속 및 현장에서의 협의 권유
- 중국 외교부장은 제48차 ESCAP 총회 결정사항 이행을 위해 추가 재정지원 요청 서한 배포
 -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KECF(한·ESCAP 협력기금) 사용 및 3만 달러 기여금 전달계획을 회신
- 7월 중 한국 정부는 ESCAP 사무국 요청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자료를 제출

2. 참가자

- 29개국(북한 포함), 9개 국제기구, 12개 민간단체 등 대표

3. 참가 목적

- '아태지역 장애인 10년대'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 부각 및 ESCAP 내 한국 위상 제고
- 주요 참가국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협의

4. 한국대표단 활동

- 중국 외교부장 및 ESCAP 사무총장, 중국 의약관리국장, 위생부 부부장 면담
-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 초청 만찬
- 중국 장애인 시설 시찰

5. 후속조치

- 외무부는 1993.12.13.자 송정숙 보사부장관이 서명한 '아태지역 장애인 선언문'을 주태국대사관에 송부하면서 ESCAP 사무국에 전달을 지시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환경 및 지속개발위원회, 제1차. Bangkok(태국), 1993.10.4.-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2 / 6 / 1-197

정부는 1993.10.4.~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환경 및 지속개발위원회에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ESCAP에 환경 및 지속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경제사회이사회 기능 강화

2. 주요 토의내용

- 의장단 구성, 지속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전략을 위한 의제 21 우선순위 설정
- 에너지 및 지속가능 개발, 자연자원의 개발과 관리
-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고려, 인구 증가와 분산의 환경에 대한 영향
- 자연재해 감소,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식

3. 평가 및 향후 대책

- ESCAP이 진행하는 주제별 3대 위원회 중 '환경 및 지속개발위원회'의 제1차 본회의
- 의제 21의 지역적 이행을 위하여 지역 내 우선순위 설정, 사업계획 수립, 이행이 위원회의 목표
- 에너지, 자원개발, 인구증가, 자연재해 등이 주요 문제로 언급되고, 일부 국가 간 이해상충 노정
- 1994년 개발을 위한 우주사용에 관한 각료회의(9월, 베이징)와 1995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1995년 발간 ESCAP 환경보고서 작성 관련 국가별 Focal point를 지정하기로 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제49차. Bangkok(태국), 1993.4.21.-29.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2 / 7 / 1-267

1993.4.21.~2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참가 목적

-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인 ESCAP 총회 참석을 통해 지역협력 문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함.
- 금번 총회 참석 계기 태국 및 중국 외무장관과 접촉, 한국과의 우호협력 강화를 논의함.

2. 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한승주 외무부장관(교체수석대표: 한탁채 주태국대사)
- 대표단(18명):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보사부, 교통부 등

3. 주요 의제

- 지역경협 및 개발증진 수단으로서 투자 및 역내교역 확대
- 유엔경제사회 분야의 개편 및 활성화 방안

4. 정부 훈령

- 투자 및 역내교역 증대방안 제시
- 아태지역 경협증진을 위해 RIIPS(아태투자정보센터) 설립 지지 결의안 추진
- 북한대표단 접촉 시 ESCAP 총회 의제 등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하며, 북한 측이 팀스피리트 훈련 및 핵 문제 등을 먼저 언급할 시 한국 입장을 설명함.
- 라오스, 캄보디아 등 미수교국과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제49차. Bangkok(태국), 1993.4.21.-29. 전3권 (V.2 대표단 및 의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2 / 8 / 1-257

1993.4.21.~2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 파견하는 대표단 구성 및 의제 관련 내용임.

1. 관계부처의 대표 추천 공문 송부

- 문화부, 정무장관, 상공자원부, 과기처, 건설부, 교통부, 통계청, 재무부, 경제기획원, 보사부, 농림수산부 등

2. 총회 의제

- 아태지역 경제협력 및 개발수단으로서 투자와 역내무역 확대(핵심의제)
- 투자 및 역내 무역확대에 대한 ESCAP 지역경제, 사회개발 정책 및 전망
-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유엔의 개편 및 활성화
- 각료회의 및 보조기관 관련 보고
- 총회 활동 분야 중 선정주제 및 지역기구 관련 보고
 - 1993~2002년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10개년 행동계획
 - 2000년 및 그 이후 ESCAP 지역사회 개발전략 이행 진척상황
 - ESCAP 지역 내 전환기 경제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
 -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 제2차 여성개발에 관한 아태 장관회의 준비상황
 - 아태 통계연구소
- ESCAP 기술협력활동 및 기여금 공표
- ESCAP/ACPR(상임대표자문회의) 활동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제49차. Bangkok(태국), 1993.4.21.-29. 전3권 (V.3 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2 / 9 / 1-244

정부는 1993.4.21.~2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 한승주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한탁채 주태국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53개 회원국 및 43개 국제기구 대표 등 600여 명

1060

2. 회의 결과

- 핵심의제인 지역경험 및 개발촉진 장치로서 투자 및 역내무역 확대 토의
- 회원국들은 유연경제사회 분야의 개편 및 활성화가 ESCAP의 기능 및 업무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ESCAP 등 지역이사회가 해당지역 관련 업무 처리 등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강조
- 한국 대표는 1993년도 기여금으로 총 47만 5천 달러 납부 의사를 표명하고, ESCAP의 지역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힘. 또한 한국 정부의 대ESCAP NRL 전문가 파견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임을 언급
- 회원국들은 ESCAP 사무국과 회원국 정부 간 상설협의체인 ACPR(상임대표자문회의)의 활동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부응하는 ESCAP이 되도록 ACPR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요망

3. 한국대표단 활동

- 본회의, 제1, 2위원회 및 결의안 기초위원회에 적극 참가하여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
 - 의제별 및 분야별로 총 30여 회 대표발언을 하고 6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
- 최빈·내륙개도국 및 태평양 도서국 문제 협의를 위한 비공식 회의 참가
- 금차 총회 시 RIIPS(아태투자정보센터)의 조속 설립 촉구 결의안 추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결의안(무역·투자 분야 지역경험 행동계획 이행 관련) 채택
- 방콕협정 비공식 실무회의(1993.4.27.)
 - 참가국: 협정가입 5개국(한국,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중국,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몽골, 파푸아뉴기니
 - 파푸아뉴기니의 동 협정 가입 문제, 양허협상 다자화를 위한 상임위 개최, 협정 회원국 간 교역증진 방안 등 논의



4. 한승주 외무부장관 기조연설 요지

- 아태지역 협력은 상호 보완성과 개방성 원칙에 따라 기능적이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신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 통상체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총회 핵심의제 관련 역내 전환기경제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 무역증진 및 기술이전을 위한 역내투자 증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조정 지속적 추진, 투자 및 무역증진을 위한 역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함.
- 역내투자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서울에 RIIPS 설립을 요청하고, 한·ESCAP 협력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KECF(한·ESCAP 협력기금)를 50만 달러로 증액하고자 함을 공표함.

5. 관찰 및 특기사항

- ESCAP 내 고양된 한국 위상 확인
- 무역과 투자 분야 지역경협 행동계획 채택
- 주제별 접근방식에 의한 회의 진행
- 북한의 총회 참가활동 동향
 - 1993.4.23. 수석대표 발언 종료 부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발언을 하여 정치문제 논의를 회피해 온 ESCAP 회의 분위기에 역행함.

6. 건의사항

- 수석대표 주최 연회활동
 - 한국의 ESCAP 내 위상을 감안, 내년도 인도 총회 시 한국 수석대표 주최로 적절한 형식의 연회 개최 검토 필요
- 제5차 지역경협운영위 서울 개최 검토
- KECF의 점진적 확대
 - 한국의 ESCAP 내 위상 강화 및 장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예정, ESCAP을 통한 대개도국 협력 강화를 위하여 KECF의 점진적 확대 필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제6차. Bangkok(태국), 1993.2.18.-19.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2 / 10 / 1-179

정부는 1993.2.18.~19. 방콕에서 개최된 제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에 문하영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1992년도 한·KECF 사용에 대해 ESCAP이 제시한 사업계획안 검토 및 사업 선정
- KECF 제5차 연도 사업 집행 결과 평가
- KECF 제7차 연도 사업 추진방향 및 우선순위 협의

1062

2. 정부 훈령

- 기존 사업 평가를 통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검토하고, 제6차 사업은 대개도국 협력의지가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KECF를 통한 실질협력 증진을 도모할 것
- ESCAP이 주제별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KECF도 주제별 접근방법에 따른 중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며, 특히 동북아지역의 경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배정한다는 한국 입장을 표명할 것

3. 회의 준비

- 사무국은 동북아 철도연결사업 타당성 조사(27만 달러) 등 13개 신규 사업(총 131만 달러) 신청
- 가용재원은 기여금 계정, 사업완료 계정, 이자 계정 등 총 468,588달러
- 외무부는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북아 철도연결사업 타당성 조사' 등 5개 사업(총 사업비 397,218달러)을 제6차 KECF 후보사업으로 내부 검토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제6차. Bangkok(태국), 1993.2.18.-19.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62 / 11 / 1-195

1993.2.18.~19. 방콕에서 개최된 제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간 연례회의의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문하영 외무부 경제기구조장
- ESCAP 측: Lafif 기술협력국장 직무대리

2. 회의 목적

- 제6차 KECF(40만 달러) 소요 프로젝트 결정
- 이미 시행 중인 사업 및 1992년 말 종료사업(총 90만 달러) 이행 결과 검토

3. 주요 결과

- 제6차 KECF 사업 선정(가용 자원 총 468,588달러 중 5개 프로젝트에 362,75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동북아 철도연결사업 타당성 조사(10만 달러)
 - 인접국과의 경제협력 및 역내 무역증진을 통한 전환기 경제개발(53,740달러)
 - 투자기회 제공 및 산업 재배치 원조(137,923달러)
 - 신흥공업화 경제의 초기 개발 경험 전수(41,087달러)
 - ESCAP 내 개도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각국별 및 집단적 자립도 제고(3만 달러)
- 주태국대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ESCAP 사무국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 ESCAP에 상공부, 교통부 전문가 2명 파견 추진 및 사무국 정규직원 진출 협조 요청

4. 평가

- KECF 기금은 아·태지역 개도국의 개발 노력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무국의 사업 집행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중임.

5. 후속조치

- 제6차 연례회의 시 합의에 따라 기술협력신탁기금 합의서에 서명
- KECF 사업으로 지원하는 워크숍, 세미나, 지역포럼 등 개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 제2-3차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63 / 1 / 1-321

1993년 중 개최된 제2~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2차 회의(1993.4.15.~16., 방콕)

- 수석대표: 주진업 주태국대사관 공사
- 정부 훈령
 - 무역투자 분야 지역경협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정안 토의에서 한국 입장 적극 반영
 - ESCAP이 주관하는 아태지역 협력은 자유와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 견지
 - KECF(한·ESCAP 협력기금) 사업을 비롯한 한국의 역내 개도국 경험 실적을 소개하고, 역내 경험에 대한 한국의 기여의지 표명
- 회의 결과
 - 무역 및 투자 분야 지역경협 행동계획 채택
 - 다수 대표들은 금번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사무국이 해줄 것을 요망
 - 사무국 측은 KECF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태 산업구조 재조정 포럼이 1993.12.6.~10.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언급

2. 제3차 회의(1993.10.12.~15., 도쿄)

- 수석대표: 문하영 외무부 경제기구조장
- 정부 훈령
 - ESCAP을 통한 지역경협 추진을 지지하되, 동 경제협력은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 견지
- 회의 결과
 - 1991년 서울 총회 이후 ESCAP은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관련 지침을 ESCAP 지역경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시행
 - 무역 및 투자, 기술이전, 인프라 개발 등 3개 분야 지역경협 활동계획 채택
 - 인프라 개발은 제50차 ESCAP 총회의 핵심주제로 선정, 다수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표명
- 관찰 및 건의사항
 - ESCAP 차원에서의 인프라 등 개발지역 경험 논의에 참여하면서 동 분야 진출 가능성 및 역내 역할 강화 등 모색
 - 중국, 인도, 일본 등 역내 주요국이 ESCAP 운영위 회의를 개최했음에 비추어 1994년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 개최를 검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Bangkok(태국), 1993.4.19.-2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2 / 1-73

정부는 1993.4.19.~20.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에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실질적인 지역협력의 요체인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주도적 위치 확보
- 아태지역 경험 관련 주요국 입장을 상세 파악하여 향후 한국의 정책 수립에 활용

2. 주요 의제

- 운영위 결과보고서
- 지역 경험 실천계획
- 무역과 투자의 연계
- 차기 회의 잠정 의제 및 개최일자

3. 정부 훈령

- 제1, 2차 지역경험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무역·투자 분야에서의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행동 계획' 채택이 논의될 예정인바, 동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지역경험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하도록 함.
- ESCAP의 지역경제협력 추진을 지지하며, ESCAP 주관 아태지역 협력은 자유와 개방 원칙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사업 집행에 있어서 역외국에 폐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함.
- 아태지역 경험은 역내의 다양성을 고려,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고 ESCAP의 범지역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도록 함.
- KECF(한·ESCAP 협력기금) 사업 및 KOICA를 통한 대개도국 원조사업 등 한국의 역내 개도국과의 경험 실적을 소개, 역내 경험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함.

4. 회의 결과

- Ahmed ESCAP 사무총장은 지역경험 행동계획 설명에서 서울에 아·태 RIIPS(투자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데 대해 적극적 관심을 표명한바, 한국대표단은 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금번 ESCAP 총회 시 아·태 RIIPS 설립 추진에 관한 결의안을 준비 중임.
- 싱가포르의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 유사한 기구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싱가포르의 역내 투자정보 독점을 우려하는 여타 국가의 견제로 실현되지 못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투자정보센터(RIIPS) 설립 추진. 전2권 (V.1 1988-92.3월)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3 / 1-142

1988.~92.3월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RIIPS(투자정보센터) 설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8.5월 방콕협정 확대회담 시 설립 제의 협의
- 1990.6월 타당성 검토를 위한 UNDP(유엔개발계획) 예산 배정
- 1992.2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센터 설립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요청
- 1992.5월 설립안 최종 검토 및 확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예정

1066

2. 주요 내용

- 동 센터는 1단계로 유엔지원을 받는 지역기구로 설립하고, 추후 회원국 참여 확대를 발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투자정보센터(RIIPS) 설립 추진. 전2권 (V.2 1992.4월-1993)

생산연도 1988-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4 / 1-206

1992.4월~1993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RIIPS(투자정보센터) 설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ESCAP/RIIPS 설립을 위한 전문가회의(1992.6.23.~25., 서울)

- 주관: ESCA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DP(유엔개발계획)
- 설립 제안서 검토 및 설립 타당성 검토
 - 주요 업무, 운영방안, 조직구조, 법적체계 등
 - ESCAP 총회에서 설립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결정

2. 설립 결의안 추진

- ESCAP 사무국과 협조하여 제49차 총회 시 동 결의안이 상정되도록 협조 요청
- 공동제안국 확보
-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동북아 전환기 경제국가 세미나. 길림성(중국), 1993.6.30.-7.3.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5 / 1-153

1. 참가국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6개국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2. 개최 목적

- 동북아지역의 정치와 경제 환경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

1068

3. 주요 논의사항(참가국의 주제발표 및 토론)

- 동북아지역의 신질서, 동 지역의 산업체계,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현황 및 전망, 유엔과 동북아권 개발 등
-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구상, 환동해 구상 등

4. 주요 결과

- 동북아지역 협력 논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처함.
- 북한 인사들의 참여를 통하여 북한의 개방 정책 내용 및 우선순위를 파악함.

5. 기타 사항

- KECF(한·ESCAP 협력기금)에서 사업경비 일부 지원
-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측과 ESCAP 간에 회의 참가자, 주제, 형식, 기간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외무부가 조정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세미나 및 기타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6 / 1-251

1993년 중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세미나 및 기타 회의 관련 내용임.

1. ESCAP 투자증진 및 민간 부문 역할 제고에 관한 세미나(1993.1.26.~30., 방글라데시 다카)
 - 한국 대표: 강석인 재무부 투자진흥과장, 이재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2. ESCAP/UNDP(유엔개발계획) 주관 아태지역 환경회의(1993.2월, 말레이시아)
3. 제1차 ESCAP 최빈·내륙개도국 특별기구 회의(1993.2.22.~24., 방콕)
 - 참가국: 30개 ESCAP 회원국 및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6개 국제기구
 - 한국 대표: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서기관, 김도형 재무관
4. 제2차 ESCAP 아·태 기후변화 세미나(1993.3.29.~31., 방콕)
 - 한국 대표: 김병선 기상청 응용기상국 기좌
5. ESCAP 도시화 문제 정부 간 전문가 회의(1993.3.30.~4.3., 콜롬보)
6. KECF(한·ESCAP 협력기금) 농촌 저소득층 고용전략연구 워크숍(1993.7.14.~16., 방콕)
7. ESCAP 식물성장 조정기술 워크숍(1993.9.27.~10.1., 베이징)
8. 제8차 ESCAP 통계전문가 실무 작업반 회의(1993.11.9.~12., 방콕)
 - 한국 대표: 강계두 통계청 사회통계과장, 허홍 통계청 자료관리과 사무관
9. ESCAP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지역 심포지엄(1993.11.12.~13., 뉴델리)
 - 한국 대표: 최성수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 비공식회의 및 양허세율 변경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7 / 1-194

1992~93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과 관련된 비공식회의 및 양허세율 관련 내용임.

1. HS 협약 품목분류의 수정과 한국의 기본관세율 인하에 따라 1992년도에 각 협정 회원국에게 적용할 한국의 양허관세율 개정내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양허표: HS 협약 품목분류 수정에 맞춰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세율 변동 없이 세 번만 '151930'에서 '151920'으로 변경
- GATT/TNDC(개도국간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양허세율: GATT/참가국위원회의 양허 가치 유지를 위한 양허표의 수정 촉구를 받아들여 양허세율을 1992년 기본관세율의 90% 수준 유지
- 방콕협정 양허세율: 기존 양허폭 유지를 위한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비례한 양허관세율의 인하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양허세율: 기존 양허폭 유지를 위한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비례한 양허관세율의 인하

2.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 타당성 조사단 방한(1993.5.18.)

- 수석대표: Huang Ru-feng 관세국장
- 방한 목적: 가입 타당성 조사 및 의견 교환

3. 제14차 방콕협정 상임위원회 회의(1993.12.20.~22.)

- 대표: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 주요 의제 및 결과
 - 파푸아뉴기니의 가입 문제: 파푸아뉴기니의 방콕협정 신규가입을 승인하고 파푸아뉴기니와 기존 회원국 간의 관세 양허안을 원안대로 다자화 함.
 - 중국조사단의 인도와 방한 보고서 검토: 중국의 협정가입과 관련하여 ESCAP 사무국이 중국 측과 계속 접촉하기로 함.
 - 아프가니스탄의 협정가입을 위한 협의: 협정가입 촉진을 약속
- 평가
 - 파푸아뉴기니의 방콕협정 신규가입은 방콕협정 창설 이래 최초의 신규 회원 가입으로 여타 잠재적 가입 후보국의 방콕협정 가입 가능성을 높이는 상징적 의미가 큼.
 - 제3라운드 협상의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허품목 및 양허관세율 조정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 제12차. Geneva, 1993.10.18.-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8 / 1-36

정부는 1993.10.18.~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에 이종화 제네바대표부 경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기술협력에 관한 자료 제출

- UNCTAD 사무국은 각국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수집해 국제표준규범을 성안하는데 참고하고자 1993.6.30.까지 한국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 또한 1992.11월 이후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 현황 요청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7. 한·일 공정거래위원회 연례회의 등 기술협력 현황 자료와 함께 한국의 공정거래 관련 입법 내용 및 설명 자료를 제공

2. 정부 훈령

- 시장경제 및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이 되는 RBP 규제와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한국의 노력 설명
- 제한적 거래 관행에 관한 연구, 표준경쟁법 및 입법핸드북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소개 등

3. 회의 결과

- 경쟁 정책 연구와 관련 시장지배력 집중문제 연구는 금차 토론으로 종결하고 동 자료를 공식 발간하기로 함.
-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구제조치 및 경쟁법 위반 시 벌금부과 기준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진행됨바, 제13차 회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
- 경쟁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국제 반독점규정안 토의
- 개도국과 시장경제로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 필요성 강조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9차(2부). Geneva, 1993.3.15.-26.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9 / 1-164

정부는 1993.3.15.~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2부 회의에 김삼훈 주제네바대사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TBD 134개 회원국 대표단

1072

2. 주요 의제

- 개도국 관련한 UR(우루과이라운드) 진전 및 이슈
- 무역정책
-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 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의 실천 진전 검토
- 지속가능한 개발

3. 정부 훈령

- UR 협상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방화와 국제화에 적극적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동 협상 타결을 희망하나, 특정국가의 특정산업이 이 협상의 결과로 붕괴되지 않아야 하는 등 다양한 그룹 간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개방화 속도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함.
- 선진·개도국 간 새로운 국제 협력관계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경제사회에서 한국 역할 강화
- 선진무역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주도적 역할 수행
- UNCTAD 회원국과 협력 강화

4. 회의 결과

-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아주그룹 회의(1993.2.18.) 및 집행위원회 회의(1993.3.5.)에서 투자 및 기술이전, 투자 흐름, 무역자유화, 개도국 간 경제협력 등 산하 각 위원회 토의보고서를 채택
- 개도국 인적자원개발 논의 시 박을용 KDI 박사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은 한국과 칠레를 성공사례로 평가
- 선진국의 비관세장벽 급증에 따른 시장접근 애로, 기술 분야 경쟁력 약화, 직접투자의 감소 등 문제점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
- 군축과 군사시설의 평화적 이용이 무역과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군비지출, 부채, 무역, 성장, 평화배당금 등 군축 관련 토의 범위에 관해 선진·개도국 간 이견 조정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40차(1부). Geneva, 1993.9.20.-10.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10 / 1-98

정부는 1993.9.20.~10.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0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1부 회의에 박창일 주네제바대사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상호의존 관련 거시경제 정책 및 이슈의 국제적 실행
- 지속적 개발에 대한 UNCTAD의 기여(무역과 환경)

2. 정부 훈령

- 급격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진·개도국 간 상호 동반자적 개발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노력함.
- 한국은 선진·개도국 간 중간적 위치로 당면한 주요 국제경제 문제 논의에 있어 선진·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실리를 도모함.
- 한국의 대개도국 경제 및 기술협력 노력을 소개하여, 대개도국 협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함.

3. 회의 결과

- 무역과 환경 간의 상호 연관이 지속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함.
 - 환경 문제는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무역제재로는 안됨.
 - 또한 환경표준과 규정이 개도국의 수출제한 왜곡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지역통합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나, 다자교역을 지원하는 외부 지향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비회원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외채 문제 해결은 우선 당사국의 노력이 중요하며, 향후 자원흐름이 외채축발을 피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1073

대한민국-외국간 무역협력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실무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11 / 1-172

1993년 중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실무그룹 회의(Ad Hoc Working Group) 관련 내용임.

1. 개도국 무역 확대 계기 실무그룹 회의(1993.10.4.~8., 제네바)

- 한국은 UNCTAD 사무국 요청으로 선발개도국으로서 경험사례 발표를 실시함.
 - 한국 경제발전 30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무역 정책, 환율 정책, 투자유인 정책, 수출자유공단의 역할 등 설명

1074

2. 무역능률화 실무그룹 회의(1993.11.15.~19., 제네바)

- 무역효율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선정
- TRADE POINT 설정: 개도국이 한국의 코트라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유엔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기로 함.
- 세계 심포지엄(각료급) 개최 절차 및 의제에 관해 협의를 1994.10.17.~21.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선출. 전2권 (V.1 1월-3.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12 / 1-191

1993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선출 관련 입후보 현황 및 지지 후보 검토 등 내용임.

1. 선출 경위(Siazon UNIDO 사무총장의 사임)

- Siazon 사무총장이 일신상 사유(주일본 필리핀대사로 임명)로 임기 만료 전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UNIDO의 각 지역그룹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3.1.22. 특별이사회에서 1.31.자로 사임을 허용함.
 - 이에 따라 사무차장 중 선임인 L. Alexandrenne가 직무대행으로 지정
- 동 이사회에서는 특별총회(1993.3.30.)에서 후임 사무총장을 선출하기로 함.

2.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 현황

- 입후보국은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 등 6개국인바, 압도적 지지 후보는 없음.
 - 멕시코(Campos 후보, 현 UNIDO 사무차장)와 베네수엘라가 적극적으로 한국 측에 지지 교섭 전개
 - 미국은 멕시코 후보를, 서구그룹은 아르헨티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탐문

3. 한국 입장

- 한국은 당선이 예상되는 후보에 대해 한국의 사무차장직 진출과 연계해서 지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선출. 전2권 (V.2 3.10.-4.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13 / 1-176

1993.3.29.~30.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0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회 속개회의 및 특별총회에서 Campos 멕시코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됨.

● 선출 경위

- 아시아지역 3개국(파키스탄, 사우디, 이란)과 중남미지역 3개국(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입후보, 지역 단일화 없이 선거에 임함.
- 투표 결과 이사회의 제1차 및 제2차 시리즈 표결에서 유효 득표(2/3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제3차 시리즈 표결 결과 Campos 멕시코 후보와 Haq 파키스탄 후보가 경합한 끝에 Campos 후보가 선출, 특별총회에 회부되어 최종 당선이 확정됨.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2.-23.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3 / 14 / 1-25

1993.4.12.~23.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 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운영

- 매일 2회 공식회의 개최 원칙
- 필요시 비공식협의회 개최

2. 주요 논의사항

- 개도국의 내부적인 과학기술 능력 배양
- 개도국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이전
- 과학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의 명확화
- 유엔의 과학기술 분야 담당 부서 및 기구의 개편
- 유엔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과학기술 개발 자원의 조달 문제 등

3. 향후 위원회의 기본활동 방향

- 유엔기구 내 과학기술 활동 조정
- 개도국의 과학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 제시
- 실천 가능하고 개도국의 실정에 적합한 보편성이 있는 2~3개 과학기술 개발 주제 선정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11차. Vienna, 1993.6.28.-7.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15 / 1-188

정부는 1993.6.28.~7.2.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1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회의에 조창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UNIDO 조직개편
- 기술 개발 및 이전,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 1994~99년간 중기계획 검토

1078

2. 정부 훈령

- 회의에서 UNIDO의 장래 및 우선사업 순위, 조직개편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 UNIDO 재선이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특히 77그룹 의장국으로서 결의안 초안 심의 등에서 그룹 내 의견조정 및 입장대변 등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3. 회의 결과

- UNIDO의 최대 현안인 조직개편 및 우선사업 순위에 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1993.10.28.~29. 제11차 속개이사회 개최 결정
- 제5차 UNIDO 총회는 1993.12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하기로 재확인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11차(속개). Vienna, 1993.10.28.-2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16 / 1-128

정부는 1993.10.28.~29.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1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속개회의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UNIDO 우선순위 재설정 및 조직개편 등에 관한 한국 입장 개진
- UNIDO/PBC(기획예산위원회) 한국 진출을 위한 이사국들의 지지 확보 노력

2. 주요 의제

- 제5차 UNIDO 총회 준비
- UNIDO 우선순위 재설정 및 조직개편

3. 정부 훈령

- 특히 77그룹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의견조정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

4. 회의 결과

- UNIDO의 최대 현안인 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조직개편 문제를 선진·개도국 간 협상을 통해 타결, 제5차 UNIDO 총회(1993.12.6.~10., 카메룬)에 상정함으로써 향후 개도국의 공업개발 지원을 위한 UNIDO의 활성화 기반 마련
- 각국은 UNIDO 개혁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새로운 UNIDO의 조속한 출범을 강력 희망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비공식협의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3 / 17 / 1-126

1993년 중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DB(공업개발이사회) 의장 주관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비공식협의회 및 PBC(기획예산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UNIDO 비공식협의회 회의(1993.4.15.~16.)

- UNIDO 중기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문제 토의

2. 제9차 UNIDO/PBC 회의(1993.4.26.~29.)

- 참가국
 - 23개 위원국 및 한국 포함 48개 옵서버국
- 주요 쟁점사항
 - 1994/95년 예산 UNIDO 분담률 책정 및 UNIDO 재정위기 등

3. 제2차 UNIDO 비공식협의회 회의(1993.5.10.)

- UNIDO의 장래 문제 및 1994~99년간 중기계획에서의 우선사업 분야 선정

4. 제3차 UNIDO 비공식협의회 회의(1993.6.8.)

- 의장보고서에 대한 회원국 간 토의가 있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보고서를 UNIDO 공식문서가 아닌 의장의 개인보고서로 제11차 IDB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북경사무소 파견 직원 기간 연장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4 / 1 / 1-134

1. 경제기획원은 1992.6.24.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와의 신탁기금설치협정(1990.7월)에 따라 2년 기간으로 파견 근무 중인 김탄일 과장(1990.7~92.7월)의 1년 연장 파견을 희망
 - 한·중국 간 관계 증진 기여 측면, UNIDO 베이징사무소를 통한 투자정보 입수 필요성, 남북 경제협력 창구 역할 필요성 등을 연장 이유로 제시
2. 외무부는 아래 이유로 동 파견 연장에 소극적이나, UNIDO가 제시한 신탁기금 내역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동 파견 연장에 조건부 동의함.
 - 한·중국 수교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의 접촉창구 의미 퇴색, 동 파견 연장 관련 과도한 신탁기금액 부담, 투자정보 입수와 관련 UNIDO 서울사무소를 통한 대체 가능, 국제기구 소재지 한국 측 상임 대표를 통한 남북 간접경험 추진 당위성 등 고려 필요
3.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를 통해 UNIDO 측 최초 신탁기금 제시액(293,800달러)에서 대폭 삭감한 194,270달러에 최종 합의하고, 상기 1년 파견 연장 문제를 종결함.

1081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연혁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국 공무원 파견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경제기과

MF번호 2023-64 / 2 / 1-190

1082

1.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전문가 신규 파견

- 한국 전문가의 UNIDO 파견 기간 연장 협의
 - 1993.6월부터 1년 파견 근무 후 1년 연장
- UNIDO 사무국 지역 및 국가연구과 전문가 지위(P-5 대우)
 - 동 파견 관련, 경제기획원은 1차 연도 신탁기금(35,980달러)을 UNIDO 측에 송금
- UNIDO의 1967.1월 창설과 동시에 한국은 회원국으로 가입 후 UNIDO 설립취지 및 기능이 개도국 공업의 개발·확대 및 현대화 지원에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대외 전문가 양성 필요에서 중견 간부의 파견에 역점
 - UNIDO 정규예산 가운데 한국은 0.68%(6만 7천 달러) 분담 중

2. UNIDO 사무국 파견 현황

- 이용희 경제기획원 과장(1985.5~88.5월)
- 이한억 경제기획원 과장(1988.5~91.5월)
- 김원택 경제기획원 과장(1991.5~93.5월)

3. UNIDO 지역사무소 파견 현황

- 워싱턴사무소: 정태신 상공부 과장(1988.5~90.2월)
- 바르샤바사무소: 박용오 재무부 과장(1989.4~90.4월)
- 베이징 공업협력진흥센터: 김탄일 경제기획원 과장(1990~92년)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40차. New York, 1993.6.1.-18.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4 / 3 / 1-185

1993.6.1.~18. 뉴욕에서 개최된 제40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UNDP 집행이사회 비공식협의회(1993.1.18.)

- UNDP 사무국 조직에 Office of Project Services 통합 문제, UNDP 본부 이전 문제 등 토론

2. UNDP 조직회의 및 집행이사회 특별회의(1993.2.16.~19.)

3. UNDP 아프리카, 중남미 현장답사반

- 이영현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중남미반 참가(1993.5.2.~15.,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4. 제40차 UNDP 집행이사회(1993.6.1.~18.) 사전준비

- 대표단
 - 수석대표: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 대표: 이영현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하찬호 국제연합2과 서기관, 유재홍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 * 한국은 1992.4월 UNDP 집행이사국(1993~95)으로 피선된바, 이사국 자격으로 참가하는 최초 회의
- 주요 자료
 - 수석대표 기초연설문
 - 제40차 UNDP 집행이사회 참가자료(1993.5월)

1083

대한민국외교부기록보존과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40차. New York, 1993.6.1.-18. 전2권 (V.2 회의 결과)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4 / 4 / 1-113

정부는 1993.6.1.~18. 뉴욕에서 개최된 제40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집행이사회 의장단

- 의장
 - Rabah Hadad(알제리)
- 부의장
 - Dr. Oscar Serrate Cuellar(볼리비아, SCPM 의장), Kees P. Rade(네덜란드, BFC 의장), R. Rysinski(폴란드, 결의안그룹 담당), Raza Ziaran(이란, 결의안그룹 담당)

1084

2. 주요 의제

- 1992년도 행정처장 연례 보고
- 특별지원계획
- 계획수립 및 이행
- UNFPA(유엔인구기금)
- 유엔기술협력활동
- 기타 기금 및 계획
- 재정, 예산 및 행정사항
- 개도국 간 기술협력
- 기타 의제(UNDP 집행이사회 개최장소, UNDP/UNFPA 본부 이전)

3. 회의 결과 및 관찰 평가

- 냉전 종식 후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개발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유지 비용 증대 및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UNDP 활동은 오히려 제한을 받아 UNDP의 역할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인식 팽배
- 선진공여국은 Global Issues에 관심이 많은 반면, 개도국은 지역문제에 더 관심, 대다수 국가가 사무총장의 사무국 개편 노력을 지지하고, 선진공여국은 UNDP 기구의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 UNDP 회의는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동시다발로 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성 배양과 인력배치 요망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국 입후보 및 한국 피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환경과학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4 / 5 / 1-62

1993년 중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국 입후보 및 한국 피선 관련 내용임.

1. UNEP 집행이사국 입후보(1994~97년 임기)

- 아태지역은 6개국에 배정되어 있는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시리아, 오만,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 입후보
- 지역 내 입후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1993.11월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

2. 분석 의견 및 대처방안

- 입후보국 현황을 볼 때 표결 시 한국의 당선 가능성은 높음.
- 동북아에 4개국이 입후보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조건이므로, 적절한 단계에서 외교적 생색을 내면서 사퇴하는 전략 고려도 가능
 - 그러나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기구 진출 강화 측면에서 한국의 UNEP 집행이사국 피선은 바람직하며, 아주지역 입후보국들의 피선경력 고려 시 입후보에 무리 없음.
 - * 한국은 1987~89년 피선된 반면,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은 1985년 이래 계속 연임
- 향후 추이를 보아 경쟁 강행 또는 입후보 철회를 주유엔대표부에 위임

3. 최종 결과

- 오만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입후보를 철회함에 따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시리아, 인도네시아가 피선됨.

UNEP(유엔환경계획)/UNCUEA(유엔긴급환경원조센터) 정부 간 자문회의. Geneva, 1993.11.22.-2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4 / 6 / 1-85

정부는 1993.11.22.~24. 제네바에서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UNCUEA(유엔긴급환경원조센터) 회의에 김기환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36개 국가, 8개 국제기구, 2개 NGO 대표

2. 주요 의제

- 환경재난 시 국제대응능력 제고 메커니즘 수립
- UNEP 산하 환경프로그램 간 조정 및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고
- UNEP, UNDP(유엔개발계획), 다자개발은행 등 공여기관의 각국, 특히 개도국의 환경재난 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등

3. 회의 결과

- 회의에서는 UNCUEA 기능을 상설화하여 환경재난 시 국제대응능력 제고방안을 협의
- 유엔 산하 재해원조 프로그램 상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환경재난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
- 환경재난 지원 방법 관련, 선진국·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 노정
- 구체적인 사고발생 시, 1차적인 대응집단인 현지 주민 및 관련 산업계의 조기 개입에 의한 신속 대응의 중요성 인식

UNEP(유엔환경계획)/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3차. Bangkok, 1993.11.10.-1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4 / 7 / 1-236

제3차 UNEP(유엔환경계획)/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가 1993.11.10.~12. 방콕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및 IMO(국제해사기구)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기구

2. 정부대표단

- 정해욱 외무부 과학환경과장, 환경처 및 한국해양연구소 등 관계관

3. 의제

- NOWPAP 실천계획 논의
 - 목표1: 지역차원에서의 정보·자료 수집체계 통합 및 역내 환경상태의 평가 실시
 - 목표2: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관리자의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관리시스템 형성
 - 목표3: 지역의 통합적 차원에서 연안 및 해양환경과 그 자원의 조화로운 사용·이용
 - 목표4: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육상 기인 폐기물 및 해상오염원에 대한 대책과 해양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협력 증진
 - 목표5: 역내 국가들의 환경법규의 조사·평가 및 해양환경자원의 보호관리, 긴급사태 지원, 핵폐기물 투기금지 등을 위한 지역협력 또는 의정서 채택
- NOWPAP 3개 결의안 논의
 - NOWPAP 사업의 우선순위, 제도적 장치,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4. 주요 결과

- 실천계획 확정
- 제1차 차관급 정부 간 회의 1994년 중반기 개최 합의
 - IMO 참가 문제 등에 이견 표출

5. 평가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체로서 정식 발족 계기 마련
 -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1994년 제1차 정부 간 회의 개최를 추진
- 지역협력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핵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실천계획에 포함

UNEP(유엔환경계획)/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3차. Bangkok, 1993.11.10.-12.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4 / 8 / 1-265

1993.11.10.~12.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UNEP(유엔환경계획)/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의 관련, 실천계획의 초안 검토 내용임.

1. 실천계획 초안 구성

- UNEP 및 NOWPAP 계획 설명
- NOWPAP 목적 및 목표 설명
- NOWPAP 목표에 따른 활동 및 과제 나열
- 제도적 및 재정적 장치 마련

1088

2. 검토 과정

- 1993년 중 외무부는 NOWPAP 실천계획 초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 요청
 - NOWPAP 실천계획 초안은 UNEP OCA/PAC 사무국에서 작성
 - 과학기술처, 환경처, 한국해양연구소 등에서 의견 회신
- 각 부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 정부 검토의견을 사무국 측에 제출

3. 초안 평가

- 2차례 실무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초안은 대체로 수용 가능
 - 기본요소인 환경평가, 환경관리, 환경입법, 제도적 장치 및 자원 등 포함
- 세부적으로는 추가 의견 제출
 - 차기회의에서 중·단기 5개 목표의 세부실천계획 중 우선사업 선정
 - 설치될 신탁기금(Trust Fund)의 성격 규정 필요
- 제1차 NOWPAP 정부 간 회의 서울 유치 희망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 간 위원회, 제1차. Geneva(스위스), 1993.10.11.-1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4 / 9 / 1-138

정부는 1993.10.11.~1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UNEP(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 이석조 주제네바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20개국, 80개 NGO, UNEP 등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후 제1차 당사국회의 이전까지 조치사항
- 재정체계, 기술이전, 생물다양성 이용 수혜 관련사항
- G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험방지 의정서 마련

3. 주요 결과

- 업무 분장: 2개 워킹그룹 및 4개 지역그룹
- 전반 평가: 선진·후진국 간 이견이 심하여 실질 문제에서 별 진전 없이 종료
 - 개도국은 최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받고자 하는 입장
 - 선진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도국 입장 수용한다는 입장
- 재정지원 대상: 제1차 당사국회의까지 서명한 개도국으로 한정, 기준은 사무국이 마련
-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체제: 사무국이 국제 메커니즘 사례를 검토 및 정리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대부분 국가가 의견 일치
- 임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소수 전문가 또는 희망국 모두에게 개방으로 이견 노정
- 생물안전성: 논의 불충분

UNEP(유엔환경계획) 주관 환경 관련 회의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4 / 10 / 1-71



1991~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 주관 국제회의의 관련 내용임.

1. 런던지침 이행에 관한 제2차 실무회의(화학물질 교역 관계)(1991.4.8.~12.)

- 참가자: 김종훈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 주요 내용
 - 제1차 회의 의장단 재선출
 - 런던지침 이행 현황 및 회의 목적 설명
 - 국내 모델법 초안 검토 및 모델법의 목적 적용 범위 설명
 - UNEP 사무총장에 대한 권고 채택

1090

2. 런던지침 이행에 관한 제3차 실무회의(화학물질 교역 관계)(1993.1.25.~29.)

- 참가자: 이건태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 주요 내용
 - 런던지침 시행 진척사항 검토 및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입법지침 검토
 - 런던지침의 법적근거 강화방안 검토 및 개도국 기술지원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제17차. Nairobi(케냐), 1993.5.10.-2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4 / 11 / 1-109

정부는 1993.5.10.~21.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7차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에 조병환 환경처 조정평가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의장단 구성
- 정책 의제
- 환경상태
- 조정
- 사막화 대책의 이행을 포함한 UNEP의 각종 프로그램 문제

2. 회의 결과

- UNEP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의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줌.
- UNEP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결정과 AGENDA 21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조직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됨.
- UNEP 사무국은 서비스 및 성과 지향적 기능 수행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주한 명예대표 임명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4 / 12 / 1-38

1989~93년 중 주한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명예대표 임명 관련 내용임.

1. 임명 요청

- Jean-Pierre Hocke 유엔 고등판무관은 1989.6.20.자 주제네바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UNHCR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김윤열 전 UNDP(유엔개발계획) 방콕사무소 대표를 한국 주재 UNHCR 명예대표로 임명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여 옴.

1092

2. 명예대표 역할

- UNHCR 관심사항인 난민문제에 관하여 관계 정부 당국자와 정례적으로 비공식 접촉 - 단, 한·UNHCR 간의 공식 접촉 및 공한 발송 접수는 한국 상주 UNDP가 행함.
- UNHCR 역할, 활동 및 세계 난민상황을 정부 및 관련 민간단체에 홍보
- UNHCR 기금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3. 명예대표 지위

- 외교 및 영사 특권·면제를 부여하지 않음.
- UNHCR은 명예대표의 활동에 필요한 소액 경비 및 UNDP 서울사무소 내 사무실 제공 검토 중
- 명예대표제도는 UNHCR 사무소가 없는 유고, 튀니지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4. 한국 정부의 임명 동의

- 외무부는 1993.11.9. 난민문제와 관련한 UNHCR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김윤열 주한 UNHCR 명예대표 임명에 동의하기로 결정함.

UNICEF(유엔아동기금) 각료회의. Manila(필리핀), 1993.9.27.-2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4 / 13 / 1-125

정부는 1993.9.27.~29. 마닐라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각료회의에 이성우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동아시아·태평양지역 17개국 대표, USAID(국제개발처),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등 원조기구, 유엔기구 및 유니세프 각국 대표 등 90여 명

2. 회의 결과

- Nyi Nyi 유니세프 특별고문가의 '1995년까지의 목표'에 관한 기초연설
 - 예방접종, 아동권리협약 가입 등 7개 주요 중간 목표 및 교육, 식수 문제 등 실천방안 설명
- 15개국 정부대표가 '1995년까지의 목표'에 관한 자국 이행 현황 소개
 - 이성우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한국이 모유수유 부분을 제외한 여타 목표의 달성, 1993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설립에 따른 한·유니세프 간 관계의 질적 변화, 아동 관련 국제적 활동에 한국의 적극 참여 입장 등 설명
 - 인도네시아 등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양자·다자 차원의 지원 확대 요청
- 이성우 원장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솔로몬제도 대표와 함께 부의장으로 선출

1093

대한민국 인권발전사 연구실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New York, 1993.4.26.-5.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4 / 14 / 1-321

정부는 1993.4.26.~5.7. 뉴욕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집행이사회에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의제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유니세프 활동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협력 의사 표명
- 개도국, 특히 최저개발국 지원 사업에 관심 표명 및 개도국과 유대강화
- 한국의 국제협력 실천계획, 아동보건 정책, 아동복지 정책 등 설명

1094

2. 회의 결과

- 북한에 대한 1994~98년간 사업계획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국가별 계획 승인
 - 북한에 대해서 동 기간 동안 매년 100만 달러씩, 총 500만 달러를 사업비로 배정함. 동 아태 지역 담당 국장은 국별 사업계획 설명 시 북한에 대한 유니세프 사업은 보건, 영양, 취학 전 아동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방 접종, 모유먹이기, 조기 교육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 설명함.
 - 미국 대표는 북한 예방접종 상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평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수해국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는 동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집행이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유니세프와의 향후 협조를 다짐하며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언함.
- 미주 및 카리브해 연안지역에 대한 국별 사업계획 승인
 - 한국 대표는 거리아동의 증가 및 이들의 매춘 및 마약밀매 행위 관련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빈곤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가 거리아동을 발생시키는 만큼 가정의 보호에 유니세프가 노력할 것과 '1994 국제가족의 해' 준비에 유니세프가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언함.

3.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1993.4.27.)

- 금년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설립 예상, 한국 정부의 유니세프에 대한 기여금 대폭 증액 등 언급, 전세계 아동원조를 위한 한국의 협조 다짐
- 아동정상회의 후속조치 관련 각국 NPA 국가개발계획에의 통합, 이행 감독 중요성 강조
- 예산 사용 시 우선순위 적용 필요성 언급
-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조
- 가족계획 및 유니세프와 WHO(세계보건기구)의 협조관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정규 초등 교육체제의 유용성 등 언급

UNICEF(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설립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4 / 15 / 1-113

1993년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설립 관련 내용임.

1. 설립 경위

- 주한 유니세프 폐쇄 이후 유니세프에 대한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한국위원회(순수민간단체) 필요
 - 유니세프 본부는 한국위원회 설립방안 검토
- 1993.5.4.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 오재경 전 문공부장관 등 30여 명
- 정관 작성, 채택, 정식 발족
- 1993.8.24. 창립총회
 - 창립위원 39명 중 현승종 박사(전 총리) 등 26명 참석
- 1993.12.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승인 기념식

2. 고려사항

- 정부 역할
 - 한국위원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
 - 한국위원회 설립 시 정부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
 - 주관부서 선정
- 유니세프와 한국위원회 간 승인협정 체결
-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치
 - 한국의 유니세프 기여금 확대 등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4 / 16 / 1-68



1993년 중 유엔기구 활동 관련 내용임.

1. UNFPA(유엔인구기금)

- 유엔 본부는 제7차 인구조사 설문서 작성 및 제출 요청
- 1993.6월 한국 정부는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회신

2.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회의(1993.6.28.~7.30., 제네바)

- 인구 문제 토의

3. 유엔인구상(UN Population Award)

- 유엔인구상위원회는 1994년 유엔인구상 후보 추천을 요청
- 1993.11월 한국 정부는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대한가족계획협회' 추천

4. ECLAC(중남미경제위원회)

- 중남미·카리브지역 인구개발회의(1993.5.3.~4., 멕시코)
 - UNFPA 후원
 -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지역행동계획 마련 결정
 - 주멕시코대사관 직원이 정부대표로 참석

한·UNV(유엔봉사단) 관계. 전2권 (V.1 1991-92.6월)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64 / 17 / 1-185

1991~92.6월 중 한·UNV(유엔봉사단) 간의 협력 관련 내용임.

1. 한·UNV 간 협력

- 1991.7월 KOICA, 1992년 중 개도국 국내 개발지원 프로그램에 UNV와 소수 봉사단 파견 합의
 - 12.23. UNV 관계자가 방한하여 협력방안 후속 협의
- 1992.6.17.~18. 하세가와 UNV 부행정조정관이 방한하여 한·UNV 간 협력 문제 협의
 - 한국 정부의 기여금 증대, 한국 측 신탁기금 잔여분 사용방안 등

2. UNV 전문가, 일본 나고야 파견

- 1991.6.14. UNV, 일본 나고야 소재 UNCRD(유엔지역개발센터)에서 근무할 한국인 2명 추천 요청
- 외무부는 1992.1.7. 한국 정부가 설립한 UNV 신탁기금을 사용하여 일본에 한국 UNV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대UNV 정책 및 UNV 신탁기금 설립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본다면 향후 UNV 사업 추진 시 파견대상국 선정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KOICA가 외무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시정을 요구함.

3. 선거지원 전문가, 캄보디아 파견

- 1992.2.12. UNV, 한국인 10명 파견 요청
 - 한국 측, 적격자 9명을 선발하여 파견하기로 결정

4. 1992년 중 기타 UNV 파견 협조 요청

- 여타 유엔기구로부터 수요 증대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 정부의 협력 요청
- 베트남 근무 양잠기술 전문가 2명 파견 요청
- 루마니아 근무 무역 정책 분야 전문가 파견 요청

1097

대한민국-외국관계-외교관계

한·UNV(유엔봉사단) 관계. 전2권 (V.2 1992.7월-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64 / 18 / 1-106

1992.7월~1993년 중 한·UNV(유엔봉사단) 간의 협력 관련 내용임.

1. 한·UNV 간 협의

- 1992.7.13. KOICA 부총재와 UNV/DDS 아시아지역 조정관 면담
- 7.23. KOICA 기술협력이사과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대표부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기획관 면담

1098

2. 한·UNV 신탁기금 활용방안 검토

- CIS(독립국가연합) 지원(10만 달러)
- 빈민구제사업 지원(10만 달러)
- 기존 형태의 기술협력활동 지원(10만 달러)

3. UNV 주관 국제회의

- UNV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1992.9.16.~18., 제네바)
 - 국별 담당기관 대표 참석
- UNV 자문회의(1993.4.21.~23., 제네바)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제16-17차

생산연도 1990-1991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 / 1-76

1990~91년 중 개최된 제16~17차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6차 WFC 각료회의(1990.5.21.~24., 태국 방콕)

- 참가자
 - 28개 회원국, 24개 옵서버국, 6개 국제기구 대표
 -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참석
- 주요 결과
 - 인류 생활 여건 개선이 경제발전의 주요 목표라는데 인식 공유
 - 식량안보 및 영양실조 해결을 위해 각국의 공동노력 필요성 강조
- 특이사항
 - 농산물 교역 촉진 관련,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교역협상의 조기 타결 희망
 - UR 농산물 교역협상 결과를 차기 WFC 각료회의에 보고 결정

2. 제17차 WFC 각료회의(1991.6.5.~8., 덴마크 헬싱외르)

- 참가자
 - 36개 회원국, 21개 옵서버국,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 대표단(수석대표)
 - 박상우 농림수산부 양정국장
- 결과 평가
 -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 각료급 인사가 다수 참석하여 과거에 비해 회의 비중 격상
 - 수출국은 시장개방, 수입국은 식량안보, 개도국은 식량증산, 동구권은 농업발전 등 강조
 - WFC 본연의 목적보다는 UR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경향
- 특이사항
 - 덴마크 주재 북한대사가 참석하여 한국 식량생산 동향에 대해 관심 표명

WFP(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 및 감사위원 선거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5 / 2 / 1-35

1991~93년 중 WFP(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 및 감사위원 선거 관련 내용임.

1. WFP 사무국장 선거

- 1992.4월 WFP 사무국장 임기 만료
- 후임으로 미국, 덴마크, 이탈리아 출신이 입후보하고, 유엔사무국 직원도 선거에 참여
-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덴마크대사관은 외무부에 자국 후보 지지 요청
 - 한국 정부, 미국 후보 지지
- 1992.4.5. 미국 농무부 차관보 출신인 Catherine Bertini가 신임 사무국장에 취임

1100

2. WFP 외부 감사위원 선거

- 제36차 WFP/CFA(식량원조정책계획위원회) 회의(1993.10.25.~29., 로마)
 - 외부 감사위원 선출
 - 42개 CFA 위원국이 투표하나, 통상 컨센서스로 선출
-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 3개국 출신 입후보
- 필리핀 감사위원회 의장은 한국 감사원장 앞 서한으로 자신의 입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
 - 외무부는 한국이 CFA 옵서버이므로 투표권이 없다고 감사원에 회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 항공항행회의, 제3차. Bangkok, 1993.4.19.-5.6. 전2권 (V.2 1993.4-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동북아2과 / 조약과

MF번호 2023-65 / 4 / 1-216

정부는 1993.4.19.~5.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 항공항행회의에 정중환 교통부 항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0개 회원국, 6개 국제기구

2. 회의 목적

- 지역 내 항공기 운항상 안전 및 효율성 제고

3. 회의 의제 및 결과

- 기본운영기준 및 계획기준에 대한 추가
- 정규공항 및 교체공항의 위치
- 공항계획
- 공항 업무
- 공역조직 및 항공교통 업무 기관
 - B212, B347, G589 구간 추가
 - B576 항로에 제주-서울 구간 추가
 - A586 항로 중 제주-서울 구간 삭제
 - B453 항로의 명칭이 G339로 변경
 - G597 항로에 서울-다렌-베이징 구간 추가
 - 상하이와 서울 간의 항로가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필요성이 구체화될 경우 ANP에 수록하기 위한 수정안을 한국과 중국이 공동회의를 통해 작성하기로 함.
- 지역항법 등 공역이용
- 수색 및 구조 업무
 - 구조조정센터의 명칭을 오산에서 대구로 변경
 - 목표에 "중거리 헬기가 있음(HEL-M)"을 추가
- 항공기상사무소와 그 기능 및 기상관측망
- 기상자료의 교환
- 항공교정 업무
 - 대구 ACC와 칭다오 ACC 간 관제직통전화를 추가
 - 대구 ACC와 평양 ACC 간 관제직통전화를 현재의 동경경유 교환방식(SW)에서 직접통신방식(DIR)로 변경



- 항공이동 업무
 - 제주공항 및 김해공항에 지상관제 및 공항정보자동방송(ATIS)용 주파수 필요성을 추가
 - 김포공항에 ATIS용 주파수 필요성 추가
 - 대구 ACC에 주파수 추가 3개 필요성 추가
- 항공무선항행 업무
 - 광주에 항로용 VOR 시설이 필요함을 추가
- 항공정보 업무 및 항공지도
- 이행계획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30차. Montreal(캐나다), 1993.5.25.-26.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5 / 1-81

1993.5.25.~26.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30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기존 ICAO 이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가 와해되어 이사국 1석의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이사국 보궐선거를 위한 특별총회를 소집
- 체코슬로바키아 분열 당시 체코공화국이 ICAO 이사국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동유럽 그룹 내 의견도 이에 동의하여 체코공화국이 입후보

2. 한국 입후보 검토

- 한국 정부, 제29차 ICAO 총회(1992.10월) 시 이사국 카테고리 2(주요 항공교통기여국)에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음.
- 동 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당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지리적 배분 카테고리인 Part 3에 출마하는 경우 한국의 국제항공계의 위상에 맞지 않고, 촉박한 선거 일정상 지지 확보에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출마 결정

3. 한국 입장

- 동유럽 그룹의 합의 및 체코공화국 측의 지지 요청을 유념하여 이를 지지

4. 회의 결과

- 체코공화국이 단독 출마로 당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 상주대표부 설치 및 활동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6 / 1-53

1992~93년 중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 상주대표부 설치 및 활동 관련 내용임.

1. 제29차 ICAO 총회(1992.9월) 시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검토

- 세계 12위에 달하는 국제민항 강국으로서의 한국 위상을 고려하여 국제민항 분야 정책을 주도하는 ICAO 이사국 진출을 추진

2. ICAO 상주대표부 설치 추진

- ICAO 이사국은 본부(몬트리올)에 별도 상주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ICAO 규칙(ICAO 결의 A4-1)에 의거, 이사국 진출 달성을 위해 외무부는 동 대표부 설치 검토
 - 또한, ICAO 상주대표부 업무를 수행하는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 ICAO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 검토
- 주몬트리올총영사를 ICAO 주재 상주대표로, 동 공관 차석을 교체대표로 지정해 ICAO 관련 업무 강화

3. ICAO 본부 이전 문제

- ICAO 본부 건물의 임차가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 임차 추진
- 만약 신청사로 이전하는 경우 임차료 상승으로 회원국 부담금 약 1.5% 상승 우려
- 동 ICAO 본부 소재국인 캐나다는 1993.11월 한국 측에 상기 사항을 설명하고 수락 여부를 문의한바, 한국 측은 이에 동의 표시

IMO(국제해사기구) 해난조사 보고 및 동향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7 / 1-234

1990~93년 중 한국의 해난조사 보고서 제출, IMO(국제해사기구) 분담금 및 납부 등 IMO 관련 내용임.

1. IMO에 대한 한국의 선박 해난보고서 제출

- 1990.10월 IMO 요청으로 한국선박 5척의 해난보고서 제출
- 1991.5월 남중국해 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한국 선박의 피해 현황 제출
- 1992.4월 한국 선박 해난보고서 제출

2. IMO 분담금 납부

- 1992년도 한국분담금 239,618파운드 납부
 - 한국분담금은 1991년 대비 6% 감액된바, 분담금 책정기준 중 선복량 기준 변경에서 연유
- 1993년도 한국분담금 252,070파운드 통보

3. 제15차 IMO 런던덤핑협약 당사국 자문회의(1991.11.9.~13., 영국)

- 참가자: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및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 파견 목적
 -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 현황 파악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덤핑협약 당사국 가입 가능성 파악

4. 세계해사대학 지원 문제 검토

- 1992.9월 동 대학의 재정난으로 미국 정부(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통해 한국 측에 자발적 기여금 납부 요청
- 한국은 이미 1992년도 자발적 기여금으로 5만 달러를 지원한 이래 예산 사정상 자발적 기여금 추가 납부는 불가 입장
- 향후에도 신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자발적 기여금 성격의 예산 확보는 극히 어렵다고 사료 되는바,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 납부 추세 및 세계해사대학의 한국 해사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 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제37차. London, 1993.1.11.-15.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8 / 1-109

정부는 1993.1.1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37차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 만재 흡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에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7개 회원국, 7개 단체, 옵서버 등
- 한국 측: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해운항만청, 수산청, 한국선급, 한라중공업 등 관계자

1106

2. 주요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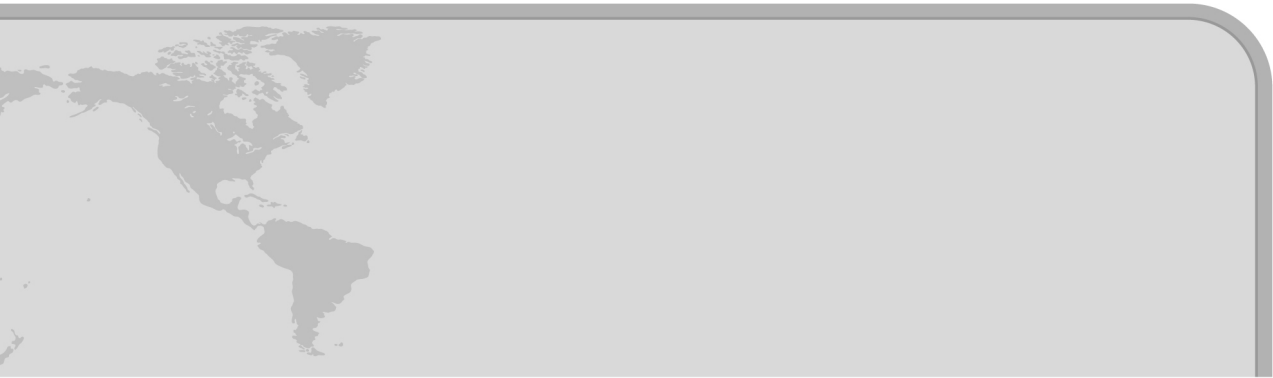
- 비손상 복원성
- 손상 복원성(여객선/화물선)
- IMO 문서의 손상 복원성 규정 완화
- 1966년 만재 흡수선 협약의 기술규칙에 대한 개정
- 소형어선의 선원을 위한 안전지침 개발
- 해양시추선을 위한 비손상 및 손상 복원성의 양자택일 기준 개정
- Open-Top 컨테이너선
- 톤수 측정에 대해 해석을 요하는 가축 운반선 및 기타 선박
- 대형 선박의 선체 균열
- 가상의 기름유출 변수에 대한 검토
- 동기 계절대역의 연장
- 신건조 유조선의 톤수 규정 등

3. 한국대표단 활동사항(어선 분야)

- IMO 사무국 및 각국에서 제출한 문서 및 정부 훈령을 토대로 한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특히 한국이 제출한 '77 토레모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의 첨부서류 3, 권고 5의 선수높이 계산방법에 대한 수정공식이 받아들여진 것은 동 회의의 큰 성과로 평가됨.

4. 회의 결과 및 한국대표단 종합 의견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77 토레모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금번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됨으로써 1993.3.22.~4.2. 스페인 토레모리노스에서 개최되는 외교회의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각종 작업, 외교회의 및 외교회의 직후 개최되는 차기 동아시아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비공식회의 참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모든 선박을 위한 비 손상 복원성 코드 채택과 관련, 차후 검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검토가 요망됨.
- 어선 및 어선원의 해난사고 수집 및 분석 관련, 한국의 어선해난사고 통계 및 분석자료를 IMO에 제출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임.
- 소형어선의 어선원을 위한 안전지침 및 안전훈련지침의 차후개발에 관해서는 '77 SFV 협약의정서 및 '78 STCW 협약의정서 채택 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차기 SLF회의 시 사무국이 제출할 개발작업계획을 주목해야 할 것임.

IMO(국제해사기구)/런던뎀핑협약 당사국회의, 제16차. London, 1993.11.8.-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5 / 9 / 1-180

정부는 1993.11.8.~12. 런던에서 개최된 제16차 IMO(국제해사기구)/런던뎀핑협약 당사국 회의에 이태식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57개국, 유엔 산하기구 및 NGO

2. 주요 결과

-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 향후 25년 이내 재검토
- 런던협약 개정 결의
 - 1996년 중 런던협약 개정회의 개최
 - 1994~96년간 협약 개정 전문가회의 개최
-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 1995.1.2.31. 이후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 폐기물의 해양소각 금지
 - 산업폐기물 및 하수오물의 해양소각 금지

3. 한국대표단 활동

-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 관련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노력
 - G7 비공식회의 참가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표 접촉
- 한국 국회 결의문 소개 및 회의 최종보고서에 반영

IMO(국제해사기구) 구명설비·수색 및 구조 소위원회, 제22-24차. London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0 / 1-182

1991~93년 중 런던에서 개최된 제22~24차 IMO(국제해사기구) 구명설비·수색 및 구조 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2차 회의(1991.2.18.~22.)

- 정부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생존정의 최대 탑재높이
 - 가속 시 보호를 포함한 자유낙하 구명정의 요건
 - 1979 SAR 회의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 관련사항
 - 건현이 큰 선박을 위한 수색구조작업과 구명장비와의 조화

2. 제23차 회의(1992.1.13.~17.)

- 정부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규정 개정: 구명장비 시험에 관한 권고와의 불일치 문제, 선박 내 통신 문제, 구명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훈련 소집 및 연습, 유자격 소방원의 요건 등
 - 가속 방지 요건을 포함한 자유낙하식 구명정 활용 방안
 - 1979 SAR 회의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문제
 - 건현이 큰 선박을 위한 수색구조작업과 구명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3. 제24차 회의(1993.2.15.~19.)

- 정부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SOLAS 구명장비에 관한 규정 개정
 - 구명장비의 시험에 관한 권고 지침안 개정
 - 표준 해사항해 용어의 확대
 - 구명장비에 대한 국제적 승인절차 개발 검토 등



- 의견

- 의제별, 문서별 구체적 연구를 통해 훈령(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SAR, DCS 코드, 기타 권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됨.
- 국제 승인절차에 대한 내용이 차기회의에서도 신중히 검토될 것이므로 사전대비 필요(한국은 기술교류 조건을 주장)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68-69차. London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1 / 1-143

1993년 중 제68~69차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68차 IMO 법률위원회(1993.3.15.~19.)

- 정부대표
 - 이완수 법무부 검사
- 주요 의제
 - 유해·유독물질 해상 운송 시 피해 보상에 관한 협약(HNS 협약) 검토
- 훈령
 - 협약 적용 대상 유해물질 확정: LNG 대량수입국이자 운송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LNG가 협약 적용 물질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불가능시 주요 위험 물질에 대해 물질별로 독립회계 방식이 채택되어 LNG 기금이 다른 물질에 의한 사고 보상기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선주강제보험 적용기준: 피해발생 시 선주의 보상책임과 관련, HNS 물질 운송 전용선과 비전용선 간에 강제 보험가입 전용선박의 크기를 하향하고, 비전용선의 크기를 상향하도록 교섭할 것

2. 제69차 IMO 법률위원회(1993.9.27.~10.1.)

- 정부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유해·유독물질 해상 운송 시 피해 보상에 관한 협약(HNS 협약) 검토
- 훈령
 - 협약 적용 대상 유해·유독물질: LNG가 포함되는 경우 수입가격의 상승요인이 되며, LNG의 사고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일본이 제안한 주요 대사항물에 대한 기금관리독립회계방식(IAS)을 지지할 것
 - 탁송위험물의 책임 범위: 일정기준의 위험물은 선주가 부담하되, 기준 이상의 위험물은 화주가 2차 보상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
 - 선주 강제보험 적용 기준: 전용선과 비전용선의 사고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강제보험 적용 기준을 달리해야 하며, 적용 대상 선박의 최저 톤수를 가급적 상향할 것
 - 방사성 물질의 운송책임: 방사성 물질은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 범위가 매우 크므로 협약 적용 대상물질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할 것
 - 1976년 해상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의 개정 검토: 선주책임 한도액 인상 및 책임 한도액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간소화에 관해 한국의 실정을 고려, 유보적 또는 반대 입장을 취할 것

IMO(국제해사기구) 산적화학물 소위원회, 제21-23차. London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2 / 1-187

1991~93년 중 런던에서 개최된 제21~23차 IMO(국제해사기구) BCH(산적화학물) 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1차 회의(1991.9.9.~13.)

- 정부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BCH 코드, IBC 코드(유해 화학물 해상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표준) 등의 개정 및 해석
 - MARPOL(해양환경보호협약) 부속서 규정의 개정 및 해석
 - MARPOL, BCH 코드 등의 요건 하에서 선적 운송되는 유해 액체물질 목록의 통합
 - 가스운반선 코드상의 화물탱크 적부 한계
 - 공해상 개입에 관한 1973년 의정서 하에서 개입에 관한 기술적 지침
 - 해상폐기물의 국경 통과
 -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등
- 의견
 - 금번 회의 결과 중 특기사항은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의제11)으로서 앞으로 MARPOL 73/78에 새로운 부속서로 삽입될 전망이며 연료유의 품질 향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대기오염을 감소 또는 거의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선용기관의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한국 측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제22차 회의(1992.9.7.~11.)

- 정부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BCH 코드, IBC 코드 등의 규정 개정
 - 화학물질의 해양오염 측면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MARPOL 부속서의 개정 및 해석
 - 액체 화학폐기물의 해도를 통한 국경 이동
 -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등



- 의견
 - 선박 대기오염 관련 한국 측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에 피해가 크다는 언급만으로는 호소력이 없으므로 차기 회의 시에는 새로운 규제의 조기성안, 시행을 주장하는 측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차기 회의 안건으로서 한국의 문서 제출이 요구됨.
 - 제33차 MEPC 회의에서는 동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유, 해운, 환경, 박용 기관 전문가의 참석이 요구됨.
 - (통신)작업반에서 앞으로 동 분야 핵심사항이 검토될 예정이므로 환경, 석유, 박용 기관 제조 관련 전문가를 선정, 참여 조치가 요망됨.

3. 제23차 회의(1993.9.13.~17.)

- 정부대표
 - 송성호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 주요 의제
 - 선박용 연료유의 질적 요건
 - 해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 하론가스, 프레온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처리
- 의견
 - 작업반(Working Group)에의 참석: MARPO 73/78 협약 신부속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검토될 예정인 다음 작업반에 한국 대표(상공자원부, 해운항만청)의 참석이 요망됨.
 - 상기 작업반에는 동일인이 일관되게 참여해야 하며 해운업체, 선박기관 제조업체 및 정유 업체 전문가들의 동참이 바람직함.
 - 상공자원부와 해운항만청에서는 국제협약의 동향을 관련 업계에 적극 홍보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IMO 회의 시 적극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계로 하여금 새로운 국제협약(부속서)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함.

IMO(국제해사기구)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 제24차. London, 1993.3.8.-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3 / 1-105

정부는 1993.3.8.~12. 런던에서 개최된 제24차 IMO(국제해사기구) 선원 교육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 회의에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정회원국(50개국), 준회원국(2개국), 관련 국제기구(5개 기구), 기타 비정부기관(15개 기관)

2. 정부 훈령

- 승무 인원 및 안전에 있어서 선원의 피로요인이 미치는 영향 등 검토
 - 선박 자동화 및 승무 인원 감소 및 정박시간 축소에 따른 선원의 피로 누적 및 사고 다발의 한국 현실을 감안하여 해난사고 방지대책 수립에 찬성하고 작업반에 적극 참여
- 화물의 적부와 고박에 관한 훈련
 - 부적합한 화물 적부와 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이므로 원칙적 찬성.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이들의 고용회사의 관리자로 한정하는 방안 지지
- 국제 시력기준에 관한 지침 검토
 - 선원에 대한 국제적인 시력기준이 미비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국제 시력기준을 마련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한국 선원이 탈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기구 미착용 시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표명
- 선내 전기장치의 수리 및 보수 관리 책임요원의 훈련 및 자격
 - 전기전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훈련된 전기전자 기사의 승무를 위한 자격요건 도입 검토에 대해 한국은 기관사도 전기전자 분야의 관리 보수능력을 갖추도록 훈련 및 양성이 가능하므로 별도 자격자의 승선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유지
- 특히, 작업반 회의록(Working Group Report) 및 참고문서(Information Paper)를 빠짐없이 입수하여 회의 참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3. 회의 결과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년 STCW 협약)의 전면 개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1993년 1회, 1994년 5회 개최하기로 결정함.
 - 주영국대사관은 동 협약은 선원교육과 해기사 면허제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동 협약의 개정 방향은 선박에서의 운항사제도 도입, 선원 훈련에 시뮬레이터 이용의 강제화 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운항만청, 학계, 연구기관, 해운업계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권고함.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기타). London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4 / 1-200

1993년 중 런던 IMO(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IMO 산하 소위원회 회의 관련 훈령 내용임.

1. 제32차 화물 및 컨테이너소 위원회 회의(1993.1.8.~12.)

-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 시 한국 입장 반영, 해사 관련 정보 수집 및 한국의 IMO 이사국 재입후보 대비 교섭 전개

2. 제36차 선박설계 및 설비 소위원회 회의(1993.2.22.~26.)

- 선박설계 및 설비 관련 최신 정보 취득, 한국의 이사국 재입후보 대비 교섭

3. 제1차 기국협약 준수 소위원회 회의(1993.4.19.)

-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정부 책임 문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제안에 찬성함.
- 기국의 권한을 대행하는 선급 및 단체의 최소기준에 관해 기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선급의 최소기준이 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제도 및 IACS(국제선급협회)의 품질보증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찬성하나, 위임기구에 관해서는 유보적 입장임.
- 선급 등 단체에 선박역류 권한 등을 대행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함.

4. 제38차 방화 소위원회 회의(1993.6.28.~7.2.)

- 격벽 및 갑판 등의 보조 방열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화재시험 절차의 확립문제에 대해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주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보고할 것
- 해상인명 안전협약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 모호한 표현의 개정에 동의함.
- 화재방지 안전시설 운용과 관련 SOLAS에 동 운용요건을 도입하자는 스웨덴안에 동의함.

5. 제39차 항해안전 소위원회 회의(1993.9.6.~10.)

- 유조선의 포괄적인 안전항해 체계 개선에 대해 전자장비의 상호 연계 등과 관련한 설치규정의 마련을 지지하고, 선교에 설치될 전자항해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조건부 지지함.
- SOLAS 제5장(항해의 안전)의 전면개정보다는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 조기시행이 우선 되어야 함.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70차. London, 1993.6.14.-1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5 / 1-81

정부는 1993.6.14.~16. 런던에서 개최된 제70차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에 전승규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 활동

- 이사회 참석 계기 노창희 주영국대사는 IMO 사무총장과 각국 대표 등을 면담하고, 한국의 IMO 이사국 재진출 계획을 설명

2. 회의 결과

- IMO 협약 및 기타 다자 간 국제조약의 조기 시행 지지
- 각 위원회 보고사항 검토
 -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정안(ISM Code)을 채택하고 총회에 회부
 -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 사고 시 피해보상에 관한 협약(HNS 협약)의 조기 채택을 위한 명확한 일정 제시를 법률위원회에 요청
 - IMO 각종 국제회의 결과보고 검토
 - IMO 규정의 적절한 채택 및 시행을 위한 조치방안 협의: 너무 빈번한 개정 및 신탁약 채택 자제
 - 세계해사대학 및 세계해사사범대학에 대한 지원을 회원국 정부에 요청
 - IMO 각종 규정의 전산화 노력 평가
 - 1992년도 세계 해사상 수상자 결정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6 / 1-157

정부는 1993.10.25.~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18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에 노창희 주영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한국이 IMO 이사국(카테고리 C)에 재선될 수 있도록 현지교섭 실시
- 주요 국제해운 현안 및 정책에 한국 입장 적극 반영

2. 한국의 IMO 이사국 재선

- 1993.10.19. IMO 총회 기간 중 실시된 선거에서 한국은 108개국의 지지를 받아 카테고리 C 이사국(지역별 해상운송 이해관계국 그룹) 피선
 - 1991년 최초 선출 이후 재선, 국제해운 분야 위상 및 해운 관련 산업 기반 강화 효과 기대

3. 회의 결과

- 각국은 기초연설을 통해 특히, 대형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IMO의 지속적인 노력 당부
 - 한국 대표는 서해 여객선 침몰 관련 인양 및 사고원인 규명에 한국 정부가 최선의 노력 중임을 설명
- IMO 이사회가 제출한 1994/1995 회계연도 예산(34,328,800파운드) 승인
- IMO 이사국 수를 확대하는 IMO 협약 개정 승인 및 3개 국제협약 개정 승인, 기타 결의/결정 채택
- IMO 이사국 선출
 - 카테고리 A(해상운송 최대 이해관계국 그룹) 8개국, 카테고리 B(해상교역 최대 이해관계국 그룹) 8개국 및 카테고리 C 16개국 선출
-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등 IMO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검토
- 한국 대표는 런던덤핑협약의 체약당사국 회의 결과 및 보고사항 청취 시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관련한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방사성 핵폐기물의 해상투기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2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및 지지 교섭 기본대책)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7 / 1-156

1993.10.25.~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18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시 한국의 IMO 이사국 입후보 및 당선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지표 확보를 위한 교섭활동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IMO 이사국 재선을 위한 입후보 결정

- 한국은 선박보유량 세계14위, 해상교역량 세계12위, 조선량 세계2위의 주요 해운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고려하고, 국제해상운송 분야에서 한국 이익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입후보 검토
- 한국은 최대 해상운송 및 교역국 그룹으로 구성된 카테고리 A와 B에 출마하는 경우, 기존 해운선진국과 일본, 중국 및 인도와 경쟁해야 하므로 지역별 해상운송관계국 그룹인 카테고리 C에 입후보 추진
 - IMO 대표부 역할을 맡고 있는 주영국대사관도 당선이 용이한 카테고리 C에 입후보해 경험을 쌓고, 추후 카테고리 A 또는 B 진출 모색 의견
- 외무부, 1992.2.1. IMO 이사국 입후보(카테고리 C) 공식 결정

2. 한국 정부, 지지 확보 활동 전개

- 외무부는 1993.2.23. IMO 회원국 주재공관에 1993.11월 제18차 IMO 총회에서 선출되는 1994~96년 임기의 이사국 입후보를 통보하고, 주재국에 한국 입후보 지지 교섭 시행 지시
 - 각 재외공관이 활용가능한 지지 요청 모델 공한(안)도 송부
 - 7.19. IMO 측에 주영국대사관의 공한으로 동 입후보 공식 통보
- 제18차 총회 기간 중 한국대표단 주최 리셉션 개최, 이사국 재진출 관련 회원국 협조 분위기 제고 추진
- 재외공관을 통한 회원국 지지 확보 현황 파악 및 교섭 추진
 - 8.10. 현재 IMO 이사국 진출 교섭 현황: 문서 지지 및 구두 지지 포함 17개국 확보
 - 10.29. 현재 동 교섭 현황: 문서 지지 및 구두 지지 포함 77개국 확보
 - 한국 지지에 대한 호의적 고려 및 미반응국을 중심으로 추가 교섭 적극 시행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3 국별 지지 교섭: 아주지역)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5 / 18 / 1-132

1993.10.25.~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18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시 한국의 IMO 이사국 입후보 및 당선을 위한 아시아지역 등의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아주(태평양도서국가 포함)지역 지지 확보 교섭 시행 및 결과

- 피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몰디브,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에 대해 지지 요청 공한 전달 및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실시
 -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네팔, 말레이시아, 피지, 뉴질랜드, 몰디브, 베트남, 바누아투, 태국, 스리랑카, 솔로몬제도: 한국 지지 확인
 - 파키스탄: 유엔 제5위원회 기여금위원회 입후보 지지와 교환조건으로 한국의 동 입후보 지지
 - 인도,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동 이사국 입후보 상호 지지

2. 한국 측에 자국의 동 이사국 입후보 관련 지지 요청 국가

- 싱가포르(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중국(카테고리 A 이사국 입후보)
- 일본(카테고리 A 이사국 입후보)
- 인도(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필리핀(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3. 동 이사국 입후보 관련 동향

- 한국은 제18차 IMO 총회 시 카테고리 C(지역별 해상운송관계국 그룹) 이사국 입후보 결정
- 동 카테고리의 경우 지역별 의석 배분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아주지역에서 4~5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4 국별 지지 교섭: 미주지역)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1 / 1-209

1993.10.25.~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18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시 한국의 IMO 이사국 입후보 및 당선에 관한 미주지역 등의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활동에 관한 내용임.

1. 미주지역 국가 지지 확보 교섭 시행 및 결과

- 미국, 칠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코스타리카, 수리남, 브라질,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 멕시코, 바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니카라과, 아이티 등 지지 요청 공한 전달 및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실시
 - 칠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진출 지지와 교환조건으로 한국 지지 확보
 - 파나마, 멕시코, 브라질: 동 입후보 상호 지지
 - 미국: 한국의 입후보에 대해 최대한 고려 약속, 최종적으로 지지 결정
 -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페루, 니카라과,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앤티가바부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벨리즈: 한국 지지 약속
 - 베네수엘라: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국 입후보 지지 조건으로 한국 지지 확보

2. 한국 측에 자국의 동 이사국 입후보 관련 지지 요청 국가

- 에콰도르(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파나마(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멕시코(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미국(카테고리 A 이사국 입후보)
- 캐나다(카테고리 B 이사국 입후보)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5 국별 지지 교섭: 구주지역)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2 / 1-205

1993.10.25.~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18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시 한국의 IMO 이사국 입후보 및 당선을 위한 구주지역 등의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활동에 관한 내용임.

1. 구주지역 국가 지지 확보 교섭 시행 및 결과

- 튀르키예, 노르웨이, 포르투갈,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스위스, 러시아, 아일랜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프랑스, 루마니아, 알바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영국, 조지아(구 그루지야), 덴마크, 모나코, 에스토니아, 몰타 등에 대해 지지 요청 공한 전달 및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실시
 - 불가리아, 루마니아, 조지아, 스위스, 모나코, 몰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알바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아일랜드, 러시아,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한국 입후보 지지
 -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노르웨이, 프랑스: 상호 지지 합의
 - 포르투갈: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진출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IMO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교환 지지 합의

2. 한국 측에 자국의 동 이사국 입후보 관련 지지 요청 국가

- 스페인(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이탈리아(카테고리 A 이사국 입후보)
- 그리스(카테고리 A 이사국 입후보)
- 네덜란드(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영국(카테고리 A 이사국 입후보)
- 독일(카테고리 B 이사국 입후보)
- 사이프러스(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6 국별 지지 교섭: 중동지역)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3 / 1-104

1993.10.25.~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18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시 한국의 IMO 이사국 입후보 및 당선을 위한 중동지역 등의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중동지역 국가 지지 확보 교섭 시행 및 결과

- 오만, 요르단, 이란, 수단, 사우디, 쿠웨이트, 이집트, 카타르, 모로코, 예멘, UAE, 바레인, 모리타니,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등에 대해 지지 요청 공한 전달 및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실시
- 국제기구 선거에 있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 오만 등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은 공동보조 입장임을 감안, 여타 GCC 국가의 한국 지지를 다른 GCC 국가의 지지 동참 유도 이용
 - UAE, 튀니지, 리비아, 오만, 예멘, 수단, 지부티, 요르단, 바레인, 모리타니: 한국 입후보 지지 통보
 - 쿠웨이트: 한국 지지를 적의 고려한다고 한바, 이는 관행상 한국 지지 약속으로 해석
 - 카타르: 한국 지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2. 한국 측에 자국의 동 이사국 입후보 관련 지지 요청 국가 및 상호 지지 추진

- 레바논, 이란, 사우디, 알제리(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레바논: 한국과 상호 지지 제안
 - 이란: 주이란대사, 외무부에 상호 지지 제안 검토 건의
- 이집트: 자국 입후보와 상호 지지 제안
- 사우디, 이집트, 알제리, 이란, 모로코: 상호 지지 합의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8차. London, 1993.10.25.-11.5. 전7권 (V.7 국별 지지 교섭: 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4 / 1-80

1993.10.25.~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18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시 한국의 IMO 이사국 입후보 및 당선을 위한 아프리카지역 등의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아프리카지역 국가 지지 확보 교섭 시행 및 결과

- 나이지리아, 가봉, 가나, 에티오피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베냉, 세이셸, 세네갈,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카메룬, 토고,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잠비아, 말라위, 나미비아, 앙골라, 감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탄자니아, 우간다, 모리셔스, 콩고공화국 등에 대해 지지 요청 공한 전달 및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실시
 - 국제기구 선거에 있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 오만 등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은 공동보조 입장임을 감안, 여타 GCC 국가의 한국 지지를 다른 GCC 국가의 지지 동참 유도 이용
 - 베냉,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세네갈, 감비아,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상투메프린시페, 탄자니아, 세이셸,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한국 입후보 지지 통보
 - 카메룬: 한국 지지에 이의 없으며, 다만 아프리카 국가와 경합하는 경우 재검토 예정 표명
 -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총회 현장에서 한국대표단이 자국 대표단과 협의, 교섭할 것 권고

2. 한국 측에 자국의 동 이사국 입후보 관련 지지 요청 국가 및 상호 지지 추진

- 가나(카테고리 C 이사국 입후보)
 - 한국과 상호 지지 제안
- 나이지리아: 상호 지지 합의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62차, London, 1993.5.24.-2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5 / 1-77

정부는 1993.5.24.~28. 런던에서 개최된 제62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64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2. 파견 목적

-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 관련 IMO 동향을 파악하여 해사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

3. 한국 측 관심사항

- 쾌속선 안전규정 제정
 - 국내 쾌속선 취항 및 건조 증가 경향에 따라 해운 및 조선 업계에 미치는 영향 우려
- 국제안전관리규정 제정
 - 구체적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선원의 피해가 우려되며, 실시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4. 주요 결과

- 국제안전관리규정 구체화 및 조기 시행
 - 항만국의 통제에 관한 구체적 지침 제정 요구 반영
 - 대부분 선진국은 1998.6.1.부터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기 시행을 주장
- 해난사고에 있어 인적요소의 중요성 강조
 - 향후 선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STCW(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논의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파견
 - 주요 사안별 작업반 회의에 대부분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제34차. London, 1993.7.5.-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6 / 1-149

1993.7.5.~9. 런던에서 개최된 제34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 선주협회, 한국선급, 현대중공업 관계자

2. 주요 논의사항

- 해양오염방지협약 현황 보고
 - 부속서 I & II(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 79개국 가입(한국 1984.7월 가입)
 - 부속서 III(포장오염물질 오염방지): 56개국 가입(한국 미가입)
 - 부속서 IV(생활하수 오염방지): 47개국 가입(한국 미가입)
 - 부속서 V(폐기물 오염방지): 61개국 가입(한국 미가입)
- 신건조 유조선 이중 선체구조 대체 설계기준 검토
 - 차기 회의 시까지 5천 톤, 6만 톤, 15만 톤, 28만 톤급 유조선 대상으로 대체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실시
- 선박 연료유에 대해 유황 함량치를 1.5% 이하로 규제하고 이를 2000년대에 시행하는 방안 관련, OCIMF(국제정유회사협회)는 정유시설 개선에 2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비용 발생 사실과 지역별 규제 필요성을 제기
- 총 톤수 500톤 이상 유조선에 대해 선박검사 강화
-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총회 결의서 채택
 - 지역항만국 통제체제의 설립 및 통제 강화
 - 노후 유조선의 원활한 해체를 위한 국제협력 등
- 오염사고의 신고의무 강화
- 방사능 핵물질의 안전 수송
- 밸러스트 배출에 의한 오염물질의 이동 규제

IOPC Fund(국제유류오염 손해보상기금) 총회, 제16차. London, 1993.10.4.-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7 / 1-177

정부는 1993.10.4.~8. 런던에서 개최된 제16차 IOPC FUND(국제유류오염 손해보상기금) 총회에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1993.3월 발효된 IOPC FUND 연차총회에 참가함으로써 유류오염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토론 시 한국 입장 반영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위원국 선거에 진출 노력

1126

2. 회의 결과

- 집행위원회 위원국에 피선(임기 1년, 연임 가능)
- 한국의 연차분담금 및 클레임 기금액 산정

IAEA(국제원자력기구) 행정예산위원회. Vienna, 1993.5.11.-1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8 / 1-149

1993.5.11.~14. 비엔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IAEA 행정예산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잠정 의제

- IAEA 재정 상황(현금 수지, 1993년도 정규예산 회원국 분담금 등)
- 장비 구입
- 외부감사 회계 검토 결과
- 1994년도 예산안
- IAEA 회계규정에 대한 검토, 인사 문제 등

2. 회의 결과

- 회원국의 조기 분담금 납부 촉구 및 IAEA 재정 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 촉구
- 1993년도 Forced Budget Saving에서 장비교체기금 총당에 관한 사무국 제안 지지
- 1994년도 예산안을 1993.6월 IAEA 이사회에 상정 등

3. 77그룹 관련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활동

- 주오스트리아대사, IAEA 이사회 부의장 면담, 행정예산위원회 의제 관련 비공식 협의(1993.4.29.)
 - 77그룹 의장 자격으로 77그룹 입장 설명
- 77그룹 IAEA Task-Force 회의(1993.4.20.) 참가
 - 행정예산위원회 사무국 자료 의제 2~5항 협의
- 77그룹 IAEA Task-Force 회의(1993.4.27.) 참가
 - Item 3~5 의제 토의
- 제4차 77그룹 본회의(1993.5.4.) 참가
 - Task-Force 토의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행정예산위원회 의제별 그룹 공동입장 정립 문제 협의
- 제5차 77그룹 본회의(1993.5.11.) 참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 1993.6.7.-11.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9 / 1-195

정부는 1993.6.7.~11.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에 이시영 주호 주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주요 의제(24개 의제)
- 북한 핵 문제(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1993.4.1.)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 및 토의)
- IAEA 사무총장 선출
- 1993~94년 당연직 이사국(13개국) 선출
- 안전조치제도 효과 및 효율성 강화
 -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방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문제 등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 1993.6.7.-11.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10 / 1-168

1993.6.7.~11.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관련 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의제별 보고 내용임.

1. 북한 핵 문제(의제 8항)

-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보고
 - 북한 핵 문제 안보리 상정 결의(1993.4.1.) 이후 IAEA 사찰 재개 및 협의를 위한 IAEA·북한 간 접촉, 사찰단 방북 등을 설명하고 북한 핵 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통한 신뢰 회복 촉구
- 북한 핵 문제 관련 23개국 발언, 22개국이 북한의 IAEA 이사회 및 안보리 결의 불이행에 유감 표명 및 이행 촉구 등 한국 입장 지지 발언
 - 중국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촉구
- 북한 대표는 IAEA의 불공정성 비난 등 종래 입장 반복 및 한반도 비핵화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 IAEA 이사회는 의장 요약문을 통해 이사회가 기채택한 3개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사무총장 및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촉구
- 또한 사무총장에게 동건 진전 상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

2. 핵폐기물 투기 문제

- 러시아 정부, IAEA에 구소련이 북극해 및 동해에 투기한 핵폐기물에 관한 정보 제출

3.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검토회의 문제

- IAEA, 제1차 준비회의(1993.5.10.~14., 뉴욕) 참가 및 향후 준비회의 일정 결정

4. 결론: IAEA 역할 확대 전망

- 과잉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국제관리체제 창설 필요성 등
- CTBT(포괄핵실험금지조약) 검증에 있어서의 IAEA 역할 기대 등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 1993.9.21.-24.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6 / 11 / 1-147

1993.9.21.~24.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9월 이사회 개요

- 회의 기간: 1993.9.21.~24.
- 회의 장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가 범위: 한국 등 35개 이사국, 북한 등 의제관련국 및 국제기구(옵저버)
- 의제 내용: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현황 등 14개 의제
- 대표단(수석대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1130

2. 훈령

- 의제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것
-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IAEA와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남북 상호사찰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및 주요 이사국들과의 공동협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 20여 년 동안 개정되지 않는 기구헌장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이 관심있는 국가들과 주도적으로 동 문제 해결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 1993.9.21.-24.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6 / 12 / 1-254

1993.9.23.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북한 핵 문제를 IAEA 총회 상정 추가 결의로 채택함.

1. 결의 요지

- IAEA 이사회 및 유엔안보리의 북한 핵 관련 기존 결의의 불이행 상태에 우려 표명
- 북한 핵 문제의 제37차 총회의 추가 의제 채택 요청
- 북한 핵 문제 관련 IAEA 사무총장의 대이사회 보고서 및 토의 기록을 총회에 전달 요청

2. 결의 채택

- 표결 결과, 35개 이사국 중 반대 없는 찬성 29로 결의 채택
 - 찬성: 29개국
 - 기권: 5개국(중국, 시리아, 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 불참: 1개국(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동 결의안은 35개 이사국 중 21개 이사국이 공동 발의

3. 분석 및 평가

- 북한 핵 문제가 IAE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의제로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
- IAEA 총회에서의 토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 및 국제 공조체제 강화에 기여

4. 전망 및 조치 계획

- 북한 핵 문제는 제37차 총회(1993.9.27.~10.1.) 시 의제로 본격 토의될 전망
- 북한은 이사회(총회) 결의 채택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가중된 압력에 대하여 필요시 NPT(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천명 가능성

1131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 1993.9.21.-24. 전3권 (V.3 지지 교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6 / 13 / 1-114

1993.9.21.~24.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관련 지지 교섭 내용임.

1. 협의 동향

- 1993.8.3.~10. IAEA 사찰팀(3인) 방북
 - 북한 측 비협조로 당초 목표의 2/3 정도만 수행
- 1993.8.31.~9.4. IAEA 협의팀 방북
 - 북한 측과 안전조치 및 관련 제반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점 불합의

1132

2. IAEA 9월 이사회 결의(1993.9.23.)

- 북한 핵 문제를 제37차 IAEA 총회(1993.9.27.~10.1.)의 추가 의제로 상정하는 결의 채택
- 결의 요지
 - IAEA 이사회 및 유엔안보리의 북한 핵 관련 기존 결의의 불이행 상태에 우려 표명
 - 제37차 총회 추가 의제로 북한 핵 문제 채택 요청
 - 북한 핵 문제 관련 사무총장의 대이사회 보고서 및 토의 기록을 총회에 전달 요청
- 분석 및 평가
 - 북한 핵 문제가 IAEA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의제로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
 -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 및 공조 체제 강화에 기여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Vienna, 1993.12.2.-3.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6 / 14 / 1-65

1993.12.2.~3.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준비 관련 문서가 수록됨.

1. 1993.11.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IAEA 12월 이사회 잠정의제 자료를 송부함.
2. 1993.11.26. 외무부는 아래 내용을 주오스트리아대사에 지시함.
 - 미국이사 교체 부임 이전 접촉하여 북한 핵 문제 관련 현황 설명 및 양국 간 공조체계 강화
3. 이호진 주필리핀대사관 참사관과 Lacañale 필리핀 외무성 국제기구국장대리 면담 (1993.11.26.) 시 주요 언급내용
 - 한국 측: 북한 핵 문제 현황 설명 및 한국 지지 이상의 적극적 협조 강조
 - 필리핀 측: 지지 강력 유지 중이며 이미 장관 재가를 받아 12월 IAEA 이사회 시 적극 지지 훈령 발송 예정

1133

대한민국외교부
국제기구과
1133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Vienna, 1993.12.2.-3.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6 / 15 / 1-253

1993.12.2.~3.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결과 내용임.

1. 주요 토의내용

- 사무총장 보고
 - 1993.10월 총회 이후 북한 핵 진전사항
 - 안전조치 상황 악화 지속에 대한 우려 및 전면사찰 필요성 강조
- 이사국 토의 후 의장 요약 채택
 - IAEA·북한 간 안전조치협정의 지속적 유효 확인
 - 북한의 선택적 통상사찰 허용 불허
 - 북한의 현재 입장 재고, 사무국 요청 사찰 수용, 협정 완전이행 촉구
 -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진전 동향에 관한 이사회 및 유엔사무총장 추가 보고 요청

1134

2. 주요국 입장 및 평가

- 입장
 - 미국은 북한이 IAEA 사찰을 거부하는 경우 미국·북한 간 대화는 불가하며, 안보리 회부도 불가피 강조
 - 북한은 사찰 장비 유지 목적의 제한사찰 및 일괄타결 주장
 -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설득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
- 평가
 - IAEA 사무총장은 미국·북한 간 대화 진전을 감안하면서도, 사실상 안전조치 지속성의 단절을 선언
 - 북한에 동조적인 중국, 인도, 리비아, 시리아, 쿠바 등이 발언을 자제한 것에 유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위원회(TACC) 회의. Vienna, 1993.11.23.-2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6 / 16 / 1-205

1993.11.23.~24.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TACC(기술협력위원회) 회의 보고서가 수록됨.

1. 의제별 토의 내용

- 모델 프로젝트
 - 회원국은 사무국이 제안한 모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지지함.
- 1994년 정책검토세미나
 - 1994.9월 개최를 지지, 1994.2월 이사회에서 토의 주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의하기로 함.
- 기술협력 사업
 - 저조한 기술협력 사업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77그룹 의장 자격으로 그룹 입장을 발표함.

2. 북한 관련 언급 내용

- 이탈리아는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국의 제안대로 1994년 대북한 기술원조를 50여만 달러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북한 측은 이탈리아 측 발언에 이의를 제기, T/C 사업은 안전조치협정 이행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북한은 IAEA 회원국으로서 현장규정에 따라 IAEA의 기술원조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협정 이행 문제에 관해서는 상세히 언급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함.

3. IAEA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보고 및 주오스트리아대사의 발표문이 수록됨(영문).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7 / 1 / 1-166

1993.9.27.~10.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참가 준비 관련 문서임.

1. 수석대표

- 김시중 과기처장관

2. 참가 목적

- 북한에 대한 IAEA 안전조치협정 완전 이행 촉구 분위기 조성
- 원자력 이용 및 관리에 대한 한국 입장 적극 반영

3. 기조연설 요지

- NPT(핵확산금지조약) 강화, IAEA 안전조치협정, 기술지원 협력,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장 개정, 한국 현황 소개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7 / 2 / 1-238

정부는 1993.9.27.~10.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김시중 과기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북한 핵 문제, 총회 추가의제로 채택

- 1993.9.27. IAEA 운영위원회는 북한 핵 문제를 추가의제로 채택하고 10.1. 토의할 것을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
 - 추가의제 채택을 위한 9.28. 총회 표결에 대비, 핵심우방 9개국 이 대상국을 분담하여 교섭

2. 주요 결과: 총회 결의 채택

- 추가의제 채택 교섭과 별도로 북한 핵 관련 결의 채택을 위해 핵심우방 9개국 이 교섭 실시
 - 초안을 2개 작성하고, 호주가 결의안 제1안을 중국 측과 협의
 - 총회에서 추가의제로 채택 후 결의안 문안을 재차 협의하여 9.29. 확정 추진
- 1993.10.1. 총회는 북한 핵 관련 한국 측 결의안을 '찬성 72, 기권 11, 반대 2'로 채택
 - 반대: 북한, 리비아
 - 기권: 중국, 인도, 파키스탄, 쿠바, 이란, 베트남,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짐바브웨, 시리아 등
- 총회 결의 요지
 - 북한의 임시 및 일반 사찰 거부로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 우려 표명
 -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 완전이행을 위한 IAEA와의 협력을 촉구
 - 북한 핵 문제를 차기 총회 의제로 채택

1137

대한민국외교부서약정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3 총회의장, 부의장, 이사국 선거)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7 / 3 / 1-42

1993.9.27.~10.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의 극동지역 이사국 선출 동향임.

1. 북한의 이사국 진출 저지 교섭

- 1993년 한국의 임기가 만료되는 극동지역 이사국 자리에 북한의 입후보 가능성 대두
- 한국 정부는 친한 성향의 필리핀 입후보를 권유하고 지원 추진
 - 1993.7.25. 한·필리핀 외무장관회담 시 필리핀의 입후보 권유

1138

2. 필리핀의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 문제

- 1993.8.16. 주오스트리아 필리핀대사는 자국의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
 - 8.25.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해 입후보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 입장 표명
- IAEA 극동그룹 회의(1993.8.25.), 비엔나 주재 아시아그룹 회의(1993.9.2.)에서 필리핀 입후보 확인
- 9.30. 북한의 철회에 따라 필리핀이 극동지역 이사국 후보로 확정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4 지지 교섭 1, 9.21.-2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7 / 4 / 1-156

1993.9.27.~10.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의 북한 핵 문제 관련 교섭활동 내용임.

1. 제37차 IAEA 총회 시 역점사항

- 북한 핵 문제의 추가의제 상정 결의 채택
- 추가의제 채택 시 총회 기간 중 토의

2. 한국 입장 지지 교섭 동향

- 외무부의 지지 교섭 지시에 따른 IAEA 회원국 주재 공관들의 교섭활동 전개
 - 다수 국가는 한국 입장을 지지하나, 일부 국가는 북한 자극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하겠다는 입장
 -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북한과의 관계 및 자국의 핵 정책에 따라 미온적 반응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5 지지 교섭 2, 9.29.-10.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7 / 5 / 1-167

1993.9.27.~10.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의 북한 핵 문제 관련 교섭활동임.

1. 진전사항

- 1993.9.28. IAEA 총회는 북한 핵 문제를 추가의제로 채택하고 10.1. 토의하기로 결정
- 동 총회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총회 결의 채택을 목표로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독려
- 9.30. 44개 공동제안국 명의로 한국 측 결의안이 IAEA 사무국에 제출됨.

1140

2. 1993.10.1. 북한 핵 문제를 토의하는 IAEA 총회 시 중국 대표의 주요 발언 내용

- 북한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
- 중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및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핵 보유국들의 핵위협 제거도 필요
- IAEA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IAEA·북한 간 2차 협의 개최를 촉구
- 총회 결의안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기권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7차. Vienna, 1993.9.27.-10.1. 전6권 (V.6 회의문서(IAEA))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67 / 6 / 1-292

1993.9.27.~10.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관련 IAEA의 배포 문서임.

1. 총회

- 1993.6.25. 배포문서
 - 잠정의제, 가입 신청국 현황(슬로바키아, 체코, 마셜제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사무총장 임명 승인, 이사국 선출, 안전조치 활동의 재원조달(비공식 W/G 보고서)
- 7.27. 배포문서: 대표단 사전 정보
- 8.13. 배포문서: 1994년 회원국 분담금 평가 기준
- 8.27. 배포문서: 프로그램, 예산, 회계문서의 조화
- 9.2. 배포문서: 휴대용 냉각수의 경제적 생산계획
- 9.6. 배포문서: 안전조치체제의 효과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사무총장보고서)
- 9.7. 배포문서: 개도국의 방사선조치 식품의 실질적 이용
- 9.9. 배포문서: 아프리카 비핵화(사무총장보고서)
- 핵안전 및 방사능으로부터 보호 관련 국제협력 강화조치
 - 6.29. 구소련 사례, 6.30. 교육훈련 프로그램, 7.28. IAEA 제공 안전조치 과정 전반, 7.28. 핵사고 조기통보협약 및 핵사고 지원협약의 지위 및 이행, 7.30. 핵안전협약 준비, 8.5. 동유럽 및 구소련 원전의 안전 관련 IAEA 활동

2. 이사회

- 1993.9.1. 배포문서: 이사회 잠정의제 - 인사문제
- 9.6. 배포문서: IAEA 안전조치의 중등 적용(사무총장 보고서)
- 9.7. 배포문서: IAEA 본 활동의 강화
- 핵안전 및 방사능으로부터 보호 관련 국제협력 강화조치
 - 8.20. 새로운 기본안전기준 준비, 9.1. 화물선 플라스크 내 방사선 처리 핵연료, 플루토늄,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운송규정

3. 회람문서

- 1993.7.1. 핵 물질, 장비, 기술 수출 지침 관련 회원국 배포문서
- 1993.7~8월 IAEA 뉴스브리핑, 9~10월 IAEA 뉴스브리핑
- 10.1. IAEA 공지사항

Blix, Hans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한, 1993.10.17.-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7 / 7 / 1-183

Hans Blix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1993.10.17.~1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과학기술처장관 초청

2. 방한 목적

- 차세대 원자로 국제심포지엄(1993.10.18.~22.) 개막식 참석
- IAEA 주최, 한국 정부 및 한전 후원

3. 주요 일정

- 심포지엄 개최식 참석 및 대전 엑스포 방문
- 대통령 예방
- 과학기술처장관, 외무부장관 면담, 외교안보수석 주최 조찬

4. Blix IAEA 사무총장 기자회견 요지(1993.10.19.)

- 북한의 경우 IAEA가 입수한 샘플 채취 결과, 신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양을 알 수는 없음.
- IAEA는 북한에 추가적 설명 요구 및 핵 재처리 시설로 추정되는 2개의 장소에 대한 사찰 요청
- 북한의 불수용을 유엔안보리에 보고하였으며, 안보리 결의의 일환으로 미·북 협상이 개시됨.
- IAEA는 안전조치협정의 불이행을 안보리에 보고할 뿐이며, 안보리 제재문제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검토회의, 제3차. Vienna, 1993.10.4.-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7 / 9 / 1-85

1993.10.4.~5.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차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검토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목적

- 한·IAEA 간 안전조치 상호 관심사항 및 현안문제 협의

2. 대표단

- 한국 측: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등 8명
- IAEA 측: 안전조치국장 등 9명

3. 회의 의제 및 결과

- 1992년도 안전조치 사찰 결과 보고
- 다목적연구용 원자로의 설계정보서 관련사항
- 경수로 발전소의 추가봉인 설치 및 조사 후 실험시설의 안전조치 이행 보완
- 변환시설의 안전조치 이행
- IAEA의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 참여
- 한국 전문가의 IAEA 훈련 등

IAEA(국제원자력기구) 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7 / 10 / 1-30



1993년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관련 내용임.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AEA 안전조치 문제

- Klerk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핵무기개발 관계 합동의회 연설 실시(1993.3.24.)
 - IAEA 사무국은 향후 포괄적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사찰단을 4월 중 남아공에 파견하여 안전조치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검증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
- 첨부자료: Klerk 대통령 연설문, Tlatelolco Treaty 개정에 관한 문서

1144

2. IAEA 핵비확산 활동기금 기부

- 서울 소재 박영덕 화랑은 '핵확산 금지, 전쟁,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1993.8월 개최하고, 판매 수익금을 핵비확산 활동기금으로 IAEA에 기부 및 미판매 작품의 IAEA 내 상설 전시를 희망
- IAEA 공보국장 방한(1993.10월) 및 해당 화랑 측과 협의
 - IAEA 측이 수익금(약 1,800만원) 및 미판매 작품 90여 점을 기증받기로 합의

WMO(세계기상기구)/WCP(세계기후계획)에 관한 정부 간 회의. Geneva, 1993.4.14.-16.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7 / 11 / 1-197

정부는 1993.4.14.~16. 제네바에서 개최된 WMO(세계기상기구)/WCP(세계기후계획)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 정을영 부산기상청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

- 국가기후계획 강화방안 및 국가 기후계획과 WCP과의 관계 정립
- WCP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 마련
- WCP 업무조정 및 지구 기후관측체계 등 기타 사업과의 관계

2. 참가 목적

- 한국의 국가기후계획에 관한 성명서 발표 및 각국의 기후계획 활동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보 수집
- WCP 사업 자원 마련에 대한 한국 측 입장 표명

3. 정부 훈령

- WCP과 관련된 사업의 활동을 조정, 검토 및 활동지원 기여방안을 모색하는 본회의의 목적과 활용성을 제고하여 대처하며, 토의내용 및 세부일정을 검토하여 적극 참여할 것
- 실무그룹 구성과 임원선출에 있어 가급적 한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선출 되도록 지원할 것

4. 회의 결과

- 영문자료 첨부

WMO(세계기상기구) 기후 전문위원회, 제11차. Havana(쿠바), 1993.2.15.-26.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67 / 12 / 1-102

정부는 1993.2.15.~26. 쿠바 하바나에서 개최된 제11차 WMO(세계기상기구) 기후 전문위원회에 김병선 기상청 예보국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

- WCP(세계기후계획)의 검토와 조정
- 국제기후계획 수립 문제 협의
- 기후 분야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토의 등

1146

2. 회의 결과(권고안 요지)

- 전문가 교육 및 컴퓨터 시설을 통한 기상 및 수리학 능력 제고
- 기후 변동성 감축 관련 데이터의 질적수준 제고
- 기후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역사적 기후 데이터 수집체계 확립
- 다년간 관측 역사를 가진 관측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국제협정 추진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기후 서비스 관련 지식 및 정보의 교환시스템 확립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선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7 / 13 / 1-109

1993년 중 유네스코 사무총장 선출 관련 내용임.

1. 유네스코 사무총장 선출

- 1993.11월 F. Mayor 사무총장의 6년 임기 만료
- 집행이사회(위원 51명)에서 후보를 지명하고, 1993.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

2. 입후보 동향

- F. Mayor(스페인)
 - 사무총장, 스페인 교육장관 역임
 - 아프리카, 유럽공동체, 중남미 등에서 지지
- Makagiansar(인도네시아)
 - 학술원 부원장, 유네스코 문화담당 차장보 역임

3. 선거 진전사항

- 1993.10.18. 제14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Mayor 후보 지명
- 11.6. 유네스코 총회는 Mayor 사무총장 재선출
- 11.10. 한국 정부는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발송

4. 한국 정부 입장

- 유럽 출신 사무총장이 연임하는 것이 향후 한국 출신 입후보에 유리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평화교육상 후보 추천 및 수상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7 / 14 / 1-79

1993년 중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후보 추천 및 수상 관련 내용임.

1.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 배경: 1980.9월 제11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결정에 의거 설치
- 목적: 유엔 및 유네스코 헌장에 입각하여 평화 수호를 위한 활동 촉진

2. 제11차 평화교육상(1991년도)

- 유네스코는 한국의 조영식 경희대 총장 등 30여 명 후보 추천 접수
- 미국인 F.L. Sivard 여사 및 세네갈 교육기관인 Cours Sainte-Marie de Hann가 수여

3. 제13차 평화교육상(1993년도)

- 1993.3월 한국 정부는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및 고려대 평화연구소 등 2개 기관 추천
- 7.22.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및 벨기에 Madeleine de Vits 여사 수상 결정 통보 접수
- 12.10. 시상식

4. 참고사항

- 1993.9.9. 경희대 측은 Charekha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에게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의 유엔 기구화를 제안하고, 9.10. 조영식 경희대 총장의 유엔사무총장 면담 시 이를 재차 거론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 집행위원 교체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7 / 15 / 1-55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구성원이 개인자격에서 집행이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무부는 한국 집행위원을 1993.11.17.자로 박상식 주유네스코 상주대표가 겸임하도록 함.

1. 유네스코 집행위원 교체 경위

- 1991.10월 제2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집행위원 자격에 관한 헌장 개정
 - 당초 개인자격으로 선출되는 51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헌장 개정으로 국가자격으로 선출되는 51개국으로 구성
 - 경과 규정에 의해 제26차 총회 시 선출된 집행위원은 제27차 총회(1993.10.25.~11.16.)까지 임기를 보유하되, 제27차 총회 후에는 집행이사국으로 교체됨.

2. 외무부는 각국의 사례 및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1993.11월 기준으로 한국 집행위원을 주유네스코 상주대표로 교체하기로 결정

- 제27차 유네스코 총회에는 현 집행위원인 함태혁 외무부 본부대사가 한국대표로 참가
- 제143차 집행위원회(1993.11월)부터는 박상식 주유네스코대사가 한국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조정

3. 집행위원 교체 절차

- 주유네스코 상주대표 명의 통보도 가능하나, 정부 훈령에 의한다고 명기가 필요하고 특별히 신임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총회, 제14차. Paris, 1993.10.5.-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7 / 16 / 1-60

제14차 유네스코/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총회가 1993.10.5.~8. 파리에서 개최됨.

1. 한국 측 참가

- 유네스코 측은 제9차 IPDC 이사회 권고에 의거하여 각 이사국 참가자 1인에 한해 항공료를 지급해 왔으나, 금년에는 예산사정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옴.
 - 이에 외무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고, 주유네스코대사관에서 동 회의 참석 후 결과 보고를 지시함.
- 정부대표: 박상식 주유네스코대사

1150

2. 주요 토의 내용 및 결과

- 제13차 총회 이후 IPDC 활동 보고 및 IPDC 재정 상황 보고
 - 재정적자 해결방안의 하나로 IPDC/IIP(정부간정보학위원회)/GIP의 통합과 IPDC 운영개선 방안 토의
 - 언론자유 신장방안으로 지역 언론인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언론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 토의
- IPDC 종료사업에 대한 평가, IPDC 자금지원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
 - 종료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업관리의 부실, 지원 장비의 지연 도착, 유네스코 자금의 방출 지연 문제 등이 제기
-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아·태 및 아랍지역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1993년도 IPDC-UNESCO Prize For Rural Communication을 the College of Mauritius에 수여하기로 결정
- 제15차 총회는 1994.11.14.~21. 파리에서 개최 예정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장관 회의, 제6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3.6.21.-2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7 / 17 / 1-152

정부는 1993.6.21.~24.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6차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장관 회의에 정희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각국의 교육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한국의 교육발전 현황 홍보
- 교육 분야에서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협력관계 증진 모색

2. 주요 의제

- 제5차 아·태지역 교육장관회의(1985.3.4.~11., 방콕) 이후 아·태지역의 교육발전 개관
 - 다양성, 교육환경의 변화, 주요 발전사항 및 동향
- '만인을 위한 교육' 강화 방안(문해교육, 기초교육)
 - 유아교육, 초등교육 등 기초교육 및 성인문해와 문해 이후 계속 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 등
-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강화(교육 분야 향후 과제 대응방안)
 - 주요 현안, 프로그램 및 시행 체계, 일반적 과제 및 주요 논의사항
- 국제적, 지역적 협력강화 방안
 -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한 국제 및 지역협력 노력 개관 및 새로운 기획
- 기타(기술직업교육 강화, 기초교육 지원국의 역할·책임, 교육발전에 있어서의 가치관)
 - 비공식 원탁회의 형식으로 토의

1151

대한민국 인권대사 업무연속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주관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캐나다), 1993.3.8.-1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67 / 18 / 1-67

1993.3.8.~11.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주관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62개국 259명의 공식 참가자와 14개국 18명의 옵서버 포함 총 300여 명
-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에서는 공식 참가자 없음.

1152

2. 회의 의제

-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책으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아래사항 검토
- 인권·민주주의 교육 방법 및 학습자료 개발
-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자료 전시회 개최 등
-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3. 회의 결과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서구, 미국과 캐나다, 아랍, 아시아·태평양 등 지역별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가 다루어졌으나, 한반도 문제 언급은 없었음.
- 다만, 태국의 Vitit Muntarbhorn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서 한국을 필리핀, 태국과 함께 거론하였던 점이 유감임.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41차. Paris, 1993.5.10.-2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1 / 1-258

정부는 1993.5.10.~28. 파리에서 개최된 제141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박상식 주유네스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본회의
 - 의사일정 채택, 신임위원 임명 및 분과위 의장 선출, 정책토론
- 사업 및 대외관계위원회
 - 유엔조직 내에서의 유네스코 관련사항
 - 1994/95 사업 및 예산안 유네스코 활동 등
- 재정행정위원회
 - 제140차 집행위 회의 이후 유네스코 활동 등
- 비정부 간 기구 위원회
 - 비정부 간 기구 분류 문제 등

2. 회의 결과

- 각국 집행위원들의 주요 토의 문제
 - Forum of Reflection, 21세기 교육위원회, 문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 등 지적협력을 위한 자문위의 역할 문제
 - 개정 헌장에 따른 집행위원 선거 절차 문제
 - 소수자 보호 문제
 - Culture of Peace 증진 및 이에 대한 유네스코 활동 문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42차. Paris, 1993.10.11.-2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2 / 1-198

정부는 1993.10.11.~22. 파리에서 개최된 제142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함태혁 유네스코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유네스코 집행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의 실질 활동에 적극 참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개도국 방송인 초청훈련 등 한국의 대유네스코 협력 사업을 적절히 홍보하는 등 유네스코 내 한국 지위 고양

1154

2. 주요 토의내용

- 인권 등 새로운 분야 활동
 - 유네스코는 인권전담위원회가 필요하며, 평화구축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등 인권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이 필요
- 유네스코체제 내 지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
 - 21세기교육위원회, 문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 Forum of Reflection 등과 협조 및 연계
- 사업 및 대외관계위원회 토의
 - 언론자유감시센터 설치에 대해 관심과 지원 당부, 유네스코정보센터를 강화하고 회원국에 대한 정보 제공망 구축
 - 9대 문맹국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인식, 구체적 문맹탈퇴 전략 노력 강화
 - 여성지위 향상에 관한 유네스코의 기여 방안 등

3. 평가

- 박상식 주유네스코대사는 인간문화재 제도 관련, Living human treasure, Living cultural properties 용어의 적정성 문제, World Heritage List와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7차. Paris, 1993.10.25.-11.16.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3 / 1-309

1993.10.25.~11.16. 파리에서 개최된 제27차 유네스코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정부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박상식 주유네스코 대표
 - 당초 오병문 교육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임명하였으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 대표: 외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담당관 외에 유성환, 홍기훈 등 2명의 국회의원 포함

2. 정부 훈령 역점사항

- 한국 정부의 대유네스코 협력 강화 노력, 특히 문맹퇴치 사업, IPDC(국제소통개발 프로그램) 개도국 방송인 초청 훈련사업, 세종대왕상 시상 기여 등에 대한 홍보에 주력
 - 이를 통해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발언권 제고를 도모
- 한국이 입후보한 제반 선거에서 여타 회원국들의 지지 확보

115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7차. Paris, 1993.10.25.-11.16.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선거)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4 / 1-191

1993.10.25.~11.16. 파리에서 개최된 제27차 유네스코 총회 결과보고 내용임.

1. 회의 결과

- 탈냉전 이후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를 모색하려는 유네스코의 노력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부상
- 한국이 제27차 총회 부의장국으로 피선
 - 유네스코 산하 5개 정부 간 위원회(문화재 반환, 정보학,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국제커뮤니케이션발전, 법률)에서도 이사국으로 피선
 - 북한은 제4분과위(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부의장국으로 피선
-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금지 및 반환 촉구
- 한국 인간문화재제도의 회원국 도입 결의
- 아·태지역의 생물권 보존지역 네트워크 설립 결의안 채택
- INFOYOUTH(국제청소년정보교류망)의 아·태지역 센터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정
- 각급 유네스코 회의를 한국과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
 - 성폭력에 관한 국제전문가회의(1994.9월)
 - 아·태 소지역 문화정책 고위당국자회의(1995년)
 - '유엔 관용의 해' 기념 지역 심포지엄

2. 한국의 향후 검토 과제

- 유네스코 활동 성격에 따라 남북한 유네스코위원회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모색
-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과 유네스코 활동 영역에서의 교류활동 강화
- 비정치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다자외교 및 다원적 국제협력 강화

한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IP 사업 지원. 전2권 (V.1 1988-90)

생산연도 1988-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5 / 1-193

1988~90년 중 한국의 유네스코 IIP(정부간정보화사업) 참여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유네스코 대개도국 컴퓨터 지원 사업 참여

- 한국은 유네스코 정부 간 정보사업위원회 이사국으로서 1989년부터 유네스코 신탁기금 형식으로 대개도국 컴퓨터 지원 사업에 참여
 - 이를 위해 1989.9.25. 주유네스코대표부는 유네스코 사무국과 각서 체결
 - 1989년도 20만 달러 기탁(코트디부아르, 세네갈을 수혜국으로 결정)에 이어 1990년도 20만 달러 기탁(중국, 스리랑카를 수혜국으로 결정)
- 동 지원은 현찰이 아닌 국산 컴퓨터 기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수혜국 컴퓨터 시장 진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 기대

2. 외무부는 1990.12월 동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1991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

- 주유네스코대사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 측에 동 사실 통보
 - 유네스코 사무국 측은 louchkiavitchious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담당 총장보 명의 서한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사의 표명

한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IP 사업 지원. 전2권 (V.2 1991-93)

생산연도 1988-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6 / 1-200

1991~93년 중 한국의 유네스코 IIP(정부간정보화사업) 참여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유네스코 대개도국 컴퓨터 지원 사업 현황

- 1989~91년간 유네스코 IIP 신탁기금 계좌로 매년 20만 달러씩 지원
 - 1989년도 수혜국: 코트디부아르(10만 달러), 세네갈(10만 달러)
 - 1990년도 수혜국: 중국(10만 달러), 스리랑카(7만 달러), 남태평양 국가(2만 2천 달러)
 - 1991년도 수혜국: 베트남(10만 달러), 아프리카 국가(10만 달러)

1158

2. 1992년도에 동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유네스코 측 요청으로 1993년 재개

- 한국 정부는 20만 달러 신탁기금 수혜국으로 알제리 등 마그레브 국가(10만 달러), 에콰도르(6만 6천 달러), 볼리비아(5만 달러)를 선정
 - 신탁기금 부족분 1만 6천 달러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여타국 신탁기금에서 조달하기로 정리
 - 당초 20만 달러 신탁기금 가운데 북한 제출사업(사업명: Establishment of Training Center for an Applied Informatics, 4만 5천 달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보류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개발도상국 방송인 초청 훈련사업

생산연도 1983-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7 / 1-126

1983~93년 중 정부가 유네스코/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협력사업으로 시행한 개도국 방송인 초청 훈련 사업 관련 내용임.

1. 개도국 방송 관계자 초청 훈련 사업계획(안)(1983.12.26., 외무부)

- 유네스코/IPDC에 대한 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과거 치 대외기술공여계획자금으로 1984년 중 10명의 개도국 방송관계자를 초청하여 방송 훈련 실시를 결정하고, 유네스코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
- 본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술훈련 과정 후보자는 당초 계획대로 선발하되, 프로듀서 과정의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정보사업 차원에서 모두 수용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비동맹 개도국과의 관계 증진
 -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 남남협력 정책 추진

2. 1991년부터 과거치로부터 외무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으로 이관

- 외무부는 1991.2.1. IPDC 개도국 방송인 초청 훈련 사업 담당기관의 이관을 알리면서 동 사업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아래 내용을 제12차 IPDC 회의(1991.2.11.~18.)에서 공표할 것을 주유네스코대사에게 지시함.
- 사업 규모
 - 초청 인원: 15인 이내
 - 훈련기간: 4주
 - 사업실시 예정시기: KBS 측과 추후 협의, 결정
- 한국은 1984년 이래로 72개국으로부터 142명의 방송인을 초청, 훈련한 바 있음.

3. 사업 실시 결과

- 1984~92년 중 11차에 걸쳐 98개국 171명 개도국 방송인 초청 훈련 실시 완료
- 제12차 초청 훈련 사업(1993.10.8.~11.12.(4주간))
 - 연수 인원: 14개국 14명
 - 장소: 방송연수원 강의실 및 TV 현업 부서
 - 내용: TV 프로그램 제작 이론 교육, 커뮤니케이션 이론 강의, 프로그램 제작 실습, 서울 근교 견학, 문화유적지 관광 및 산업 시찰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포럼. 서울, 1993.9.20.-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8 / 1-216

1993.9.20.~22.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포럼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2.3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동 회의의 주최를 제의하여, 유네스코 본부와 극동문제연구소가 각각 6만 달러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11월 개최하기로 합의
- 1992.5.20. Mayor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동 회의를 '세계 문화 및 발전위원회' 아주지역 회의와 연계 개최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1993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의
- 1992.10.8. Mayor 사무총장은 1993.9월에 한국 측 주최로 '문화와 발전에 관한 포럼'과 연계 하여 '세계 문화 및 발전위원회' 아주지역 회의 개최를 제의
- 1992.10.29. 외무부는 한국 측이 부담할 경비(19명 항공료, 숙박비, 오·만찬, 회의장 임대 등) 및 Mayor 재선에 대한 한국 정부 지지 입장 미정 등을 감안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주최 의사를 타진했으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1.6. 재정 여건상 한국 정부부처, 단체에서 경비가 지원되는 경우 제반사항에 협조하겠다고 답신
- 1993.3.7. 한국 측은 Mayor 사무총장 의사 불수락 결정, 통보
 - 교육부, 문화부, 국제교류재단 모두 예산 지원 불가
 - '세계 문화 및 발전위원회' 회의와 연계하지 않고 '문화와 발전에 관한 포럼'만 진행하기로 결정

2. 제2차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 예정

- 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유네스코 공동 주관
- 일시: 1993.9.20.~22.
- 참가자: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21개국 26명
- 의제
 - 문화와 발전 간의 관계
 - 문화정책의 발전정책에의 반영 전략
 - 문화와 발전: 한국의 경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일반 동향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9 / 1-65

1990~93년 중 유네스코 아주그룹 의장단 및 국제회의 지원 관련 내용임.

1. 유네스코 아·태그룹 의장단

- 1990년도
 - 2.22. 말레이시아(의장국), 방글라데시 및 한국(부의장국) 선출
- 1991년도
 - 2.12. 인도(의장국), 중국 및 필리핀(부의장국) 선출(한국은 재정 간사)
- 1992년도
 - 3.12. 중국(의장국), 인도네시아 및 파키스탄(부의장국) 선출
- 1993년도
 - 2.18. 인도네시아(의장국), 이란 및 한국(부의장국) 선출

2. 유네스코 지원 국제회의

- 유네스코 후원, 러시아연방 및 사하공화국 교육부 공동주관 국제회의
 - 민족교육 개념과 발전 전략회의(1993.3.16.~21., 사하공화국 야쿠츠크)
- 유네스코 및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회의
 -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포럼(1993.9.20.~22., 서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통상기구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68 / 10 / 1-347

1993년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의 관련 내용임.

1. WIPO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외교 회의(1993.5.10.~21.)

- 수석대표
 - 권영수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
- 주요 토의내용
 - WIPO 분쟁해결절차조약(안) 및 규칙(안)에 대해 조문별 심의

2. 제5차 상표법 및 통일화 전문가 회의(1993.6.7.~18.)

- 수석대표
 - 정양섭 주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주요 토의내용
 - 제4차 회의 결과 작성된 조약안과 새로 마련된 규칙안 및 관련 서식에 대한 토의

3. 제24차 WIPO 총회(1993.9.20.~29.)

- 수석대표
 - 서정현 특허청 기획관리관
- 주요 토의내용
 - 신임 WIPO 총회 및 운영기구 의장단 선출, WIPO 사업실적 평가, 특허법 통일화조약 및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조약 체결 관련사항 논의

4. 제27차 UPOV(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 총회 및 제33차 행정법률위원회(1993.10.27.~29.)

- 수석대표
 - 정양섭 주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주요 토의내용
 - 각 분야 위원회 활동보고, 1994 업무회기 및 1994/95 예산 심의, 각국의 현황 보고 등

국제식물유전자원 연구소 가입 문제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11 / 1-48

1993년 중 외무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쳐 IPGRI(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 가입을 검토함.

1. IPGRI 가입 검토

- CPGR(국제식물유전자원회의) 산하의 IPGRI로 재발족
 - 1991.9월 IBPGR(국제식물유전자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IPGRI 설립을 결정
 - 1992.12월 현재 서명국은 중국, 덴마크, 케냐, 스위스, 이탈리아 등 11개국임.
- 가입 필요성(농촌진흥청)
 - 세계 각국의 자원보호주의 심화 경향
 -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세계적 연구 동향, 현황 파악 및 자원 확보
 - 한국은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관련 기술 수준이 낮으므로 IBPGR이 IPGRI로 재발족하는데 적극 참여함이 바람직

2. 제3차 IPGRI 설립동의안 서명식(1993.3.26.)에 농업진흥청 관계자 참석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회의. Rome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12 / 1-119

1993년 중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6차 FAO/CCP 유지 유실류 회의(1993.4.13.~16.)

- 의제 및 회의 결과(영문) 첨부

2. 제25차 FAO/CCP 곡물회의(1993.5.25.~28.)

- 의제 및 회의 결과(영문) 첨부

3. 제36차 FAO/CCP 미곡회의(1993.6.28.~7.1.)

- 수석대표: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주요 의제
 - 92/93 쌀시장 동향과 전망
 - 세계 쌀시장의 중장기 전망
 - 쌀 관련 연구를 위한 공공기금 마련
- 한국대표단 발언
 - 한국 정부의 쌀시장에 대한 민간기능 활성화 노력을 소개하면서 쌀은 한국의 주곡으로 식량안보상 매우 중요한 품목임을 강조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20차. Rome, 1993.3.15.-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13 / 1-134

정부는 1993.3.15.~19. 로마에서 개최된 제2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에 이태식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총회에서 토의될 책임 있는 공해어업,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 문제 및 편의국적 어선 문제 등 국익과 밀접한 의제에 한국 입장 반영
- FAO 회원국의 수산정책 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

2. 주요 의제

- 1982년 UNCLOS(유엔해양법협약) 채택 후 10년간의 세계 수산업, 개도국의 수산 연구 조사의 필요성
- 공해어업,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

3. 회의 결과

-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시행규칙 채택 문제 토의
 - 사무국이 토의사항을 기초하여 제21차 FAO 수산위원회에 초안을 제시하기로 합의
- 어선 편의국적(Reflagging) 취득금지에 관한 협약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토의
 - 단일 협약 초안 합의에 실패했으나, 각국의 의견을 FAO 수산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함.

4. 평가 및 대책

- 어선 편의국적 취득금지 협정안이 조만간 체결될 것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모색
 - 어선 등록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 공해 어족자원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행 공해어업질서 변화에 한국 수산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적절한 지도 필요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11차. Rome, 1993.3.8.-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8 / 14 / 1-180

정부는 1993.3.8.~12. 로마에서 개최된 제11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에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83개 회원국, 12개 옵서버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2. 참가 목적

- 삼림 분야의 FAO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입장 반영
- FAO 회원국의 임업정책 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의 동 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3. 정부 훈령

- 각국의 산림, 임업 분야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활용
- FAO의 산림 분야 사업 활동,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 세계열대림의 보호 등 파악
- 대개도국 임업기술협력 상황 홍보

4. 회의 결과

- FAO 사무총장 기조연설에 이어 수단의 Nour 박사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산림자원의 평가, 산림과 영양, TFAP 등 관련 토의함.
- 한국 대표는 의제 발언을 통해 한국의 산림정책 수립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요청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산림자원 조사 및 평가 분야에 대한 FAO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함.
 - 북한은 이종혁 외 4명이 대표로 등록하였으나, 개회식 이외에는 참석하지 않음.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1 / 1-136

1993년 중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8차 FAO/CFS(식량안보위원회)(1993.3.29.~4.1., 로마)

- 정부대표: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주요 의제
 - 세계식량 안보 현황 및 정책개발에 대한 평가
 - 이란의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재편(유엔안보리와 유사한 권한 부여)에 관한 제언 검토
- 한국대표단 발언
 - 한국은 60% 이상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급격한 농업보조금 감축은 식량수입 개도국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곡의 자국 내 생산이 필요함을 역설함.

2. 제12차 FAO/COAG(농업위원회)(1993.4.26.~5.4., 로마)

- 정부대표: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주요 의제
 - 세계영양 선언문 및 행동계획 관련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국내 대책
 - 국내조사료 생산 시책
 -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교육 및 농촌지도 대책
 -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금융의 역할 증대 방안

3. 제18차 FAO/APPPC(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 총회(1993.8.23.~28., 베이징)

- 정부대표: 홍인식 국립식물검역소 농업부이사관
- 주요 의제 및 대표단 활동
 - 국별 식물보호 활동 상황 보고
 - 병충해 종합방제 및 식물검역에 관한 상임위 참석
 - 회의 참가국과 검역규제 관련 사안 개별 협의
 - 한·중국 간 식물검역 협력을 위한 협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103차. Rome, 1993.6.14.-25.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2 / 1-213

정부는 1993.6.14.~25. 로마에서 개최된 제10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천중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결과

- 한국 수석대표의 이사회 부의장 피선
- Flagging 협정 관련 기술위원회 개최
 - 책임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제정 및 공해 조업선 기국 문제의 논의 필요성 공감대 확장
- 1994~95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2.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이사회 부의장 수임 연설 계기에 농업 및 산림 분야 한국 정부 입장 설명
- 제27차 FAO 총회의 이사국 재임후보에 따른 지지 확보 활동
- FAO 사무총장 후보 주최 오·만찬 및 리셉션 참석 등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장래문제 협의 회의

생산연도 1987-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3 / 1-224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장래 문제 협의를 위한 런던회의(1990.10.18.~19., 런던)

- 참가국
 - 24개국
 - 이경우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참석
- 주요 의제
 - 유엔체제 내에서의 관련 기구 간 협력
 - FAO 운영 문제, 재정 및 예산 문제 등 당시 사무총장이 이끄는 FAO 체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
- 개최 배경
 - 영국 외무성 ODA(해외개발기구) 주도하 선진국 중심의 FAO 운영체제 개선방안 제시 목적으로 비공식으로 추진됨(선진공여국의 FAO 사무총장에 대한 불신 작용).
- 회의 결과
 - FAO 사무국 체제에 대한 비판 및 FAO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성 확인

2. FAO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푼타알라 회의(1991.9.30.~10.1., 이탈리아 푼타알라)

- 참가국: 27개국
 -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및 농무관보 참석
- 회의 결과
 - 회원국의 기구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특별예산 사업 제한, FAO 운영 및 재정 문제 등
 - FAO 사무총장 등이 동 회의에 회의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회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

3. FAO 장래 문제 협의를 위한 로마회의(1992.10.14.~15., 로마)

- 주요 의제
 - 유엔 체제 내 4개 농업 국제기구 간 관계 검토
 - 사무총장 선출 효율화 등 FAO 운영 문제
- 한국은 77그룹 국가들이 선진국의 의도를 반영하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의 비공식 회의라는 이유로 참가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현지에서 참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최종 불참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4 / 1-135

1993년 중 로마에서 개최된 제10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준비 관련 내용임.

1. 제104차 이사회(1993.11.2.~4.)

- 수석대표
 -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참가 목적
 - 제27차 FAO 총회의 이사국 선거 시 한국 피선을 위한 교섭 전개
 - FAO 이사국으로서 동 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필요

1170

2. 제27차 FAO 총회(1993.11.6.~25.)

- 대표단
 - 수석대표: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당초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참석 계획)
 - 외무부, 농림수산부, 주이탈리아대사관,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관계자로 구성
- 파견 목적(기본 훈령)
 - FAO 이사국 재진출을 위한 피선 교섭 활동 전개
 - FAO 이사국으로서 FAO와의 협력 기반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총회 시 제반 선거에 대한 세부 훈령 작성 및 통보
 - 사무총장 선거
 - 총회 의장단 선거: 의장 선출은 제104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
 - 지역별 이사국 선거
 - 이사회 의장 선거: 멕시코 지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5 / 1-186

1993년 중 로마에서 개최된 제10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결과 내용임.

1. 제104차 이사회(1993.11.2.~4.)

- 수석대표: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주요 결과
 - 공해상 조업 선박의 국제취득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최종 심의를 위해 별도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함.
 - 제27차 FAO 총회 의장 및 3개 분과위원회 의장 지명
 - Reflagging 협정 초안의 조문별 검토(나용선 문제 및 허가취소 선박 재허가 연한 제한 문제 등)
-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특히 농산물 수입국의 관심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요청
 - 제27차 총회의 이사국 선거 지지 요청

2. 제27차 FAO 총회(1993.11.6.~25.)

- 수석대표: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교체수석: 이기주 주이탈리아대사)
- 주요 결과
 -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임명
 - 신규회원국 가입승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
 - B.R.SEN 상 시상: 최상균(한국), Ms. F. Vellareal(필리핀)
 - 차기 사무총장 선거: Jacques Diouf 주유엔 세네갈대사가 6차 투표에서 90표를 얻어 차기 사무총장에 선출됨.
-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일본, 캐나다, 호주 대표 면담, UR 농산물 협상 관련 한국 입장 설명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3 각 의장 및 위원회 입후보 지지 요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6 / 1-63

1993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각 의장 및 위원회 입후보 관련 각국의 지지 요청 관련 내용임.

1. 제27차 FAO 이사국 독립 의장 선거 지지 요청 등

- Jose Ramon Lopez-Portillo 멕시코 후보
- Adam Ibrahim Issaka 가나 식량농업 장관

1172

2. 총회 의장 후보 지지 요청 등

- S. Mullings 자메이카 농업장관

3. 기타 위원회 후보 지지 요청 등

- 프로그램 위원회: C. D. Richardson 세인트루시아 농림성 사무차관
- 재정위원회: Ms. M. Castillo 필리핀 농업부 국장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4 한국의 이사국 재입후보)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7 / 1-236

한국은 1993.11.22. 로마에서 개최된 제27차 FAO(유엔농업식량기구)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국에 재선됨.

1. FAO 이사국 재입후보 검토(1993.1월)

- 재입후보 필요성
 - 1991년 이사국 피선 이후 강화된 한국의 대FAO 식량농업 활동 및 사업 참여 지속
 - 아시아지역 내 농업 분야 지도적 역할 수행
 - 국제기구 주요 직위 수임을 통한 다자무대 외교에서 한국의 지위 고양 등
- 아주그룹 이사국 입후보(9석) 현황
 - 전기 임기(배정 의석 3석, 1993.11~95.12월) 입후보국: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 후기 임기(배정 의석 6석, 1995.1~97.11월) 입후보국: 일본,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 1991년 이사국 선거 득표 현황: 일본(103표), 한국(102표), 중국(100표), 태국(99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순

2. FAO 이사국 선거(1993.11.22., 로마)

- 선거 개요
 - 임기 3년의 49개 이사국 중 32개국 개선
- 선거 결과
 - 후기 임기 이사국 6개국 선출에 6개국이 입후보하여 모두 116개국(127국 투표)의 지지 획득, 임기 3년(1995.1~97.11월)의 이사국으로 선출
- 이사국 재선 의의
 - 1987년 이사국 선출에 이래 3회 연속 이사국에 선출
 - 한국의 이사국 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긍정적 평가, 개도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효과,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 반영된 것으로 평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5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아주지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8 / 1-141

1993년 중 제10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관련 아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 추진 내용임.

1. 대상 회원국

- 아주지역 20개국, 남서태평양지역 9개국

2. 교섭 현황(중복 분류)

1174

- 문서 지지(6): 부탄,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통가, 피지
- 구두 지지(11):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호주, 뉴질랜드
- 호의적 검토(3): 중국, 일본, 파푸아뉴기니
- 검토 중(4): 스리랑카, 파키스탄, 사모아(구 서사모아), 쿡제도
- 미회신 및 미수교 국가(5국):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 한국의 상호지지 제외: 중국, 인도네시아
- 자국 지지 요청 국가(상호 지지 포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호주
- 한국 지지 결정(상호 지지 포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호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미주지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9 / 1-181

1993년 중 제10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관련 미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 추진 내용임.

1. 대상 회원국

- 북미지역 2개국
- 남미지역 33개국

2. 교섭 현황(중복 분류)

- 문서 지지(14): 멕시코,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브라질, 우루과이 등
- 구두 지지(10): 페루, 과테말라, 캐나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아이티 등
- 호의적 검토(5): 미국, 콜롬비아, 수리남,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검토 중(3): 칠레, 세인트루시아 등
- 미회신 및 미수교 국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하마, 쿠바
- 한국의 상호지지 제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 자국 지지 요청 국가(상호 지지 포함): 칠레,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등
- 한국 지지 결정(상호 지지 포함):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브라질

1175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기구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7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구주지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10 / 1-161

1993년 중 제10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관련 구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 추진 내용임.

1. 대상 회원국

- 유럽 38개국

2. 교섭 현황(중복 분류)

1176

- 문서 지지(13):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리투아니아 등
- 구두 지지(15): 그리스,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몰타, 이탈리아, 핀란드 등
- 호의적 검토(4): 프랑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 검토 중(4): 네덜란드,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 미회신 및 미수교 국가(2):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 한국의 상호 지지 제의: 프랑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 자국 지지 요청 국가(상호 지지 포함): 튀르키예, 폴란드
- 한국 지지 결정(상호 지지 포함): 영국, 불가리아, 폴란드, 독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8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중동지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11 / 1-94

1993년 중 제10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관련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 추진 내용임.

1. 대상 회원국

- 중동지역 18개국

2. 교섭 현황(중복 분류)

- 문서 지지(4): 이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카타르
- 구두 지지(8):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 호의적 검토(2): 예멘, 리비아
- 검토 중: 레바논
- 미회신 및 미수교 국가: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 한국의 상호 지지 제의: 없음.
- 자국 지지 요청 국가(상호 지지 포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 한국 지지 결정(상호 지지 포함): 이란,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1177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기구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9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12 / 1-112

1993년 중 제10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관련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 추진 내용임.

1. 대상 회원국

- 아프리카지역 48개국

2. 교섭 현황(중복 분류)

- 문서 지지(7):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세네갈, 기니비사우, 모로코, 탄자니아
- 구두 지지(17):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베냉, 잠비아, 상투메프린시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등
- 호의적 검토(11): 케냐, 기니, 콩고공화국, 니제르, 모리타니 등
- 검토 중(6): 부룬디, 코모로, 세이셸, 카보베르데, 말라위, 모리셔스
- 미회신 및 미수교 국가: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적도기니
- 한국의 상호 지지 제의: 탄자니아
- 자국 지지 요청 국가(상호 지지 포함): 세네갈, 카보베르데, 카메룬
- 한국 지지 결정(상호 지지 포함): 없음.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10 사무총장 선거)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13 / 1-122

1993.11.8. 실시된 제27차 FAO(세계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주유엔 세네갈대사인 Jacques Diouf 후보가 6년 임기의 차기 사무총장에 선출됨.

1. 입후보 현황

- R. Moreno(칠레, FAO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사무차장보)
- Bonte-Friedheim(독일, 전 FAO 사무총장보)
- G. Miller(호주, 1차산업 및 에너지부 차관)
- J. Diouf(세네갈, 주유엔대사)
- C. Politis(그리스, 주FAO대사)
- P. Cunningham(아일랜드, FAO 동물위생국장)
- G. Braks(네덜란드, 전 농림수산부장관)
- M. Muthoo(인도, FAO 산림국장)
- S. Ahmed(방글라데시, 주유엔대사)

2. 선거 결과

- 총 9명의 후보자 중 그리스 후보가 사전 사퇴한 가운데 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 실시
- 제1~5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가운데 세네갈 및 호주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세네갈 후보가 90표를 득하여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 호주 후보, 72표 획득

3. 세네갈 후보 선출 배경

- 아프리카지역 단일 후보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결속
- 인도, 칠레 등 후보 탈락 후 제3세계 국가들의 세네갈 후보 지지
- 77그룹 회원국들의 개도국 출신 사무총장 배출 희망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11 각국의 사무총장 이사국 지지 요청 (아주/미주지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14 / 1-268

1993.11.8. 로마에서 개최된 제27차 FAO(세계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차기 사무총장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아주 및 미주지역 국가에서 각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옴.

1. 아시아 국가 지지 요청

- Salauddin Ahmed(방글라데시, 세계식량계획 사무차장)
- M. K. Muthoo(인도, FAO 산림국장)
- Geoff Miller(호주, 1차산업 및 에너지부 차관)

1180

2. 중남미 국가 지지 요청

- M. E. Pineiro(아르헨티나, IICA 사무총장)
- G. Bula Hoyos(콜롬비아, 전 주FAO대사)
- Rafael Moreno FAO(칠레,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사무차장보)
- Augusto Blacker Miller(페루, 대외관계장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04차 이사회 및 제27차 총회. Rome. 전12권 (V.12 각국의 사무총장 이사국 지지 요청 (구주/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15 / 1-207

1993.11.8. 로마에서 개최된 제27차 FAO(세계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차기 사무총장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구주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에서 각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옴.

1. 구주 국가 지지 요청

- Constantin G. Politis(그리스, FAO 대사)
- G. J. M. Barks(네덜란드, 전 농림수산부 장관)
- Christian Bonte-friedman(독일, 전 FAO 사무차장보)
- Patrick Cunningham(아일랜드, FAO 동물위생국장)

2. 세네갈의 지지 요청

- Jacques Diouf 주유엔 세네갈대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헌장 및 법률위원회 입후보 검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69 / 16 / 1-13

1993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헌장 및 법률위원회 입후보 검토 관련 내용임.

1. 선거 일정

- 제105차 FAO 이사회(1993.11.26.)에서 임기 2년의 헌장 및 법률위원회 위원국 선거 실시 예정

2. FAO 헌장 및 법률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FAO 헌장(5조)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설치
- 구성: 임기 2년의 7개국 이하로 구성(의장 1, 부의장 1)
- 선출: 매 2년 총회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선출
- 회의: 연 2회 비공개로 개최
- 기능: 헌장, 규칙 및 재정 규칙의 적용 및 해석, 다자협약, 협정의 기초, 채택, 발효 및 해석 등

3. FAO 헌장 및 법률위원회 입후보 검토

-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 등 FAO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 수행
- FAO 제반 법률 심의단계에서의 한국 입장 반영 등 FAO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 국제법 학자인 지정일 교수를 정부대표로 하여 위원국 선거에 입후보 검토

4. 외무부 결정

- 현 위원국은 모두 로마 주재 대사관 소속 인사들이며, 지금까지 로마 상주가 아닌 자가 법률위원으로 활동한 사례는 1990~91년 체코 위원(체코 외무성 직원)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외무부는 1993.11.19. 상기 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결정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16차. Rome, 1993.1.20.-22.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 / 1-186

정부는 1993.1.20.~22. 로마에서 개최된 제16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에 이기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110여 개 회원국 및 18개 국제기구 대표

2. 참가 목적

- IFAD 사업계획, 예산, 각국 차관사업 심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입장 반영
- IFAD 및 회원국의 식량농업정책 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의 동 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3. 정부 훈령

- IFAD의 사업 활동, 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을 파악하고 한국의 물자지원, 용역진출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 타진

4. 회의 결과

- 신임 IFAD 총재 선출
 - 쿠웨이트 대표가 컨센서스로 피선
- 1993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5천 490만 달러)
- 아르메니아 등 3국의 신규가입으로 총 회원국은 150개국으로 증가
- 북한의 이사국 진출 실패
 - 한국의 이사국 재진출 방해 우려에 대한 대책 강구 건의

Al-Sultan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 방한, 1993.11.21.-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2 / 1-62

Al-Sultan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의 1993.11.21.~2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93.5.13. Al-Sultan 총재는 6월 중순경 중국 방문 계기 방한 희망
- 1993.9.24. 동 총재는 주이탈리아대사관에 11월 일본 방문 후 방한 희망을 재차 표명

2. 방한 목적

- 제4차 IFAD 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의 참여 요청

3. 주요 일정

- 외무부 제1차관보, 농림수산부장관, 국제협력단 총재 면담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거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3 / 1-96

1992~93년 중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출 관련 내용임.

1. 입후보 현황

- Nakajima(일본, 사무총장)
- Abdelmoumene(알제리, 전 사무차장)
- Ransome-Kuti(나이지리아, 보건장관)
- Martins(모잠비크, 주우간다 WHO 대표)

2. 선출 절차

- 집행이사회(이사 31명)에서 과반수 획득자를 지명
 - 제91차 집행이사회(1993.1월)에서 후보자 지명
-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이사회 지명 후보자 승인
 - 제46차 총회(1993.5월)에서 결정

3. 사무총장 선출

- 1993.1.20. 집행이사회 투표에서 일본 후보인 Nakajima 현 사무총장이 과반수 확보로 재선 추천이 확정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제44차. Manila(필리핀), 1993.9.13.-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4 / 1-235

1993.9.13.~17.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4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관련 내용임.

1.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선출

-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한상태 박사가 단독 입후보하여 재선 추진
- 제44차 WHO 서태평양지역 총회(1993.9.13.~17.)에서 한상태 후보 선출
 - 9.13. 실시된 투표에서 27개 회원국 전원 지지로 재선
 - 1994년 초 WHO 본부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향후 5년 임기(1994.2~99.2월) 사무처장으로 임명 예정

2. 마카오,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참가

- 한상태 지역사무처장은 1993.9.17. 마카오 정부가 차기 서태평양회의(1994.9.19.~23.)부터 동 회의에 참가 예정임을 사전 예고없이 공표함.
- 마카오는 1994년 WHO 서태평양지역회의부터 1999.12.20.까지는 “마카오”로, 그 이후에는 “마카오·중국” 명패로 동 회의에 참가 예정임.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6차. Geneva(스위스), 1993.5.3.-14.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5 / 1-225

정부는 1993.5.3.~1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송정숙 보건 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 집행이사회(1993.1.20.)에서 지명된 Nakajima 현 사무총장의 인준투표에서 총 151표 중 찬성 93표, 반대 58표로 재선이 확정
- 지역별 컨센서스로 10개 집행이사국 신규 선출
- WHO 조직 및 운영의 개혁, 예산 편성 및 합리화 등 추진 논의
- 중소 국가 및 비정부 간 기구 등 주도로 정치 문제 거론되어 표결까지 진행

2. 한국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의 의료 분야 발전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 설명
- 서태평양지역 26개 회원국 대표 초청 만찬을 개최하여 한상태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재선 활동 지원
- 기타 분야별 토의에 적극 참여
 - 세계환경회의의 후속조치인 'WHO의 환경과 보건에 관한 전략안' 검토 시 기술이전의 중요성 부각 필요성과 이의 강화를 지적, WHO 사무국이 한국 제의를 WHO 전략에 수용 반영하도록 함.
 - 흡연, 소아마비 등에 대한 한국 상황 및 입장 개진
 - WHO 예산 개혁안 등 주요 분야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WHO(세계보건기구)와의 정규협력 사업

생산연도 1987-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6 / 1-253

1987~93년 중 WHO(세계보건기구)와의 정규협력 사업 관련 내용임.

1. 1987~89년도

- 보건사회부, 1988.9월 및 1989.2월 WHO 1990~91년 정규협력 사업계획서를 외무부에 제출
- 과학기술처, 1989.2월 상기 사업계획서를 외무부에 제출

2. 1990~91년도

- 과학기술처, 1990.1월 WHO 1990~91 정규자금 사업계획 중 기제출한 환경청 소관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통보
- 과학기술처, 12월 제1차 WHO 보건의료료 적용한 도시지역 보건의료체계 훈련 참가 후보자 추가 추천
- 과학기술처, 12월 WHO 보건의료관리 정규 훈련과정 참가 후보자 추천
- 과학기술처, 1991.1월 WHO 도시개발의 보건환경에 관한 지역 실무회의 참가 후보자 추천
- 과학기술처, 2월 WHO 1991년도 지원 보건 장학금 지급 요청
- 환경처, 4월 WHO 1991.4월 정규사업 변경조치 통보
- 과학기술처, 9월 WHO 1990~91년 정규 해외기술 훈련과정 후보자 교체 추천

3. 1993년도

- WHO 사무국, 1993.3.1.자 주제네바대표부 앞 공한을 통해 제9차 AIDS 세계프로그램 관리 위원회가 1993.5.25.~27. 개최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대표단의 파견 요청
 - 과학기술처, 11월 공문을 통해 아태지역 결핵 워크숍 과정 참가 후보자 1명 추천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7 / 1-157

1992~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ILO 보건 및 의료서비스 기술위원회(1992.9.23.~10.1.)

● 회의 결과

- 보건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남녀 간 동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위한 개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역할의 중요성 증대
-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의 평등이 진전되어, 이전에 남성이 지배하던 보건 직업에 여성의 진출 기회 증가
- 여성이 거의 모든 나라 보건 및 의료서비스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보고서가 입증하듯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조건이 계속되고 있음.
- 완전한 기회 평등에 대한 장벽은 직장과 사생활에 있어서 문화·사회적 가치 및 규범에 기초하고 있는바, 동 완화 및 제거를 위해 각 국가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필요
- 고용, 직업개발, 성희롱 차단, 교육훈련, 작업구조 및 시간 등과 관련한 정부 역할이 중요

2. 제15차 ILO 국제노동 통계회의(1993.1.19.~28.)

● 파업, 직장폐쇄 및 기타 노사분규에 따른 행동에 대한 통계 관련 결의안 요지

- 각국은 국별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통계 사용자들을 위해 파업, 직장폐쇄 및 기타 노사분규에 따른 행동에 관한 종합적 통계 작성계획을 개발해야 함.
- 통계의 개념, 정의, 수집, 편집, 공표 방법을 디자인하거나 변경할 때는 노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포함한 통계 사용자들과 협의해야 함.
- 통계 관행이 국제적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국가 상호 간 통계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표하는 자료에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9차. Geneva(스위스), 1992.6.2.-23.

생산연도 1992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8 / 1-426

정부는 1992.6.2.~2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9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정동우 노동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한국의 ILO 가입(1991.12월) 이후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노동 정책 및 노동권 신장현황 홍보 및 한국의 대외이미지 쇄신 필요성
- 전노협 등 일부 국내노조의 한국 내 노동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 실상 홍보 및 ILO 사무국과 대처방안 협의
- 한국이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ILO 협약 및 권고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 실시
- 국제노동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방안 모색 등

2. 정부 훈령

- 수석대표 지휘하에 ILO 활동 방향 및 노동권 신장 동향 등을 파악하고, 현 국내법 및 관련 정책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할 것
- 한국의 노동 정책 방향 및 근로자 노동권 신장 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인식을 제고시킬 것
- 국제노동단체가 한국 노동 상황에 대한 비난 발언 시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
- 옴서버로 참석하는 북한 대표의 한국 비방 또는 관련 책동이 있을 경우 반박 발언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할 것

3. 회의 결과

- 포르투갈의 전 노동장관인 Mr. Rodriguez를 총회 의장으로 만장일치 선출
- Finance Committee가 채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바, 이에 따라 한국의 연 분담률은 1993년 까지 0.68%이며, 1993년도 분담금은 2,137,986스위스프랑으로 확정됨.
- 1992.6.22.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에 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의하고 이에 관한 찬반토론을 가진바, 미국,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고용주 대표 및 미국 대표는 동 협약 및 권고 내용이 파산 시 고용주의 기업희생에 장애가 되고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무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발언을 하였으나, 협약 및 권고문안은 컨센서스에 의해 원안대로 채택됨. 6.23. 이에 관한 재투표 실시 결과 협약 및 권고 채택에 필요한 투표자수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음.
 - 협약의 경우: 찬성(293), 반대(52), 기권(48)
 - 권고의 경우: 찬성(280), 반대(65), 기권(42)



-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년도 제80차 총회 시 이에 관한 협약 및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의제 상정 결의안을 채택함.
- 협약 및 권고적용위원회가 영국, 인도, 태국 등 21개국의 협약 및 권고 적용 문제를 검토, 작성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심의, 채택함.
- 결의안 채택
 - 조정 및 인력개발에 관한 결의안
 - 고용성장 및 고용창조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에 관한 결의안
 - 전반적 개발의 필수요소로서의 고용촉진에 관한 결의안
 - 이민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 및 촉진에 있어서 ILO 역할에 관한 결의안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80차. Geneva, 1993.6.2.-22. 전4권 (V.1 2-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9 / 1-174

1993.6.2.~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대표단 임명

- 정부대표: 이인제 노동부장관 외 11명(교체수석대표: 허승 주제네바대사)
- 근로자대표: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외 3명
- 사용자대표: 황정현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의 5명

1192

2. 파견 목적

- 국제 노동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대방안 모색
- 한국의 노동 정책 및 노동권 신장현황 홍보 및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등

3. 추가 대표단 임명

- 문봉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이순천 국제기구과 과장
- 위성락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4. 국제노동협의회 개최(1993.5.20., 노동부)

- 회의 의제
 - 제80차 ILO 총회 대책, 중대 산업사고 예방, 파트타임 근로
- 참석 대상
 - 국제노동협의회 위원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80차. Geneva, 1993.6.2.-22. 전4권 (V.2 6-7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0 / 1-82

정부는 1993.6.2.~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이인제 노동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허승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상설 의제
 - 이사회 및 사무총장 보고 등
- 기술 의제
 - 중대 산업사고 예방 등
- 기타
 -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보고, 아랍 점령지역 노동자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보고

2. 주요 결과

- 이사국 선출(1993~96년 임기)
 - 현 이사국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이사 18개국, 부이사 18개국을 신규 선출함.
 - 정이사국은 각 지역 그룹협의를 거쳐 컨센서스로 추천되어 18개 후보국에 대해 투표를 실시, 전원 변동 없이 선출됨.
 - 부이사국의 경우, 아주지역에서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여 파키스탄이 비밀 투표로 선출됨.
- 협약 및 권고 채택
 - 제79차 총회에서 1차 토의를 마친 '중대산업 사고예방에 관한 협약 및 권고'가 협약의 경우, 찬성 355, 반대 5, 기권 23표로, 권고의 경우, 찬성 351, 반대 4, 기권 19표로 채택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80차. Geneva, 1993.6.2.-22. 전4권 (V.3 참석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1 / 1-136

1993.6.2.~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관련 자료임.

1. 총회 의제(국문 및 영문)
2. 기초연설문(국문 및 영문)
3. 정부 훈령
4. 노동부장관 주요 일정
5. 신임장위원회에 대한 한국 측 답변서
6. NGO 등의 한국 노동상황 비판 시 대응 연설문
7. 결의안 및 결의안 검토내용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80차. Geneva, 1993.6.2.-22. 전4권 (V.4 이사국 선거)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2 / 1-104

1993.6.2.~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의 이사국 선출 관련 내용임.

- 이사국 수: 정부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4명, 사용자대표 14명 등 총 56명
- 임기: 3년
- 선출 방법
 - 총회에서 출석대표 과반수 찬성
 - 정부대표 28명 중 10명은 주요 산업국가인 회원국에서 임명, 나머지 18명은 총회에서 신규 선출
 -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는 각각 총회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에 의하여 선출
- 구성
 - 정이사국, 부이사국
 - 금번 총회에서는 정이사국 18명, 부이사국 18명 선출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Bern(스위스), 1993.4.26.-5.1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3 / 1-44

정부는 1993.4.26.~5.14.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에 권영수 체신부 감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0개 이사국 및 12개 국제기구

2. 참가 목적

- UPU 활동의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
- 1994년도 UPU 서울 총회 준비상황 보고, 국제사무국과의 업무 협조 등

3. 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 연구활동반 토의
 - 연합활동 관리, 국제우편 서식, 전자송신 표준, 도착국료, 우편안전 활동, 소포우편, 항공운송 기본요율, 우편발전 활동, 우취 심포지엄
- 위원회 토의
 - 인력관리, 재정, 일반사항, 통상우편, 요금, 항공운송, 소포우편, 우편 금융, 기술협력, 워싱턴 일반 정책지침 추진
- 관심 사항
 - UPU 조직 및 기능의 전면적인 개편, UPU 조약체계 개편, UPU 서울 총회 준비
 - 집행이사회 입법 활동, 연합재정, UPU 기술협력 사업, 워싱턴 일반정책지침 시행, 국제우편 서비스 질 향상, 소포우편의 확대 취급, 국제우편물 안전대책, 항공운송 요율 개정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제48차. Geneva, 1993.6.21.-7.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4 / 1-102

정부는 1993.6.21.~7.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8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에 이종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42개국 140명

2. 주요 의제

- ITU 전략정책 수립
- 개발부문 자원조달 문제
- ITU 재무규칙 개정 문제
- 1994년도 예산 및 1992년도 지출승인
- 이사회 업무 수행방법 개선보고

3. 회의 결과

- ITU 전략정책 수립 관련, 기본방향을 제48차 이사회에서 설정하고, 제49차 이사회에서 확정 후 1994년 교도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
- UNDP(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이 매년 감소 추세임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와 각국의 자발적 지원 강조
- ITU 재무규칙 개정문제 관련, 2년 단위 및 ITU 각 부문별 예산편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무관리시스템에 따른 재무규칙 개정

ITU(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통신회의. Geneva, 1993.11.8.-19.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5 / 1-75

1993.11.8.~19.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통신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참가 목적

- 전파통신 분야의 국제적 발전 동향 조기 파악
-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국제협력 강화
- 국내 전파통신 정책 수립 및 전파산업 발전에 기여

1198

2. 전파통신회의(1993.11.8.~16.)

- 대표단
 - 최명선 체신부 주파수과장, 기술과 통신사무관, 신동주 전파연구소 통신사무관, 강태신 주파수과 전송주사
- 회의 결과
 - 본회의 및 4개 위원회로 구성
 - study group별 연구 결과 조정
 - 전파통신 총회 및 연구반 작업 방법에 대한 규칙 채택
 - 연구반 구조조정
 - GCR(전파통신자문반), CPM(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 신설

3. 세계전파통신회의(1993.11.15.~19.)

- 대표단: 이성해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최명선 주파수과장, 김준호 전파기획과 행정사무관
- 회의 결과
 - 본회의와 5개의 위원회로 구성
 - 이사회에 권고할 의제 확정
 - 국제전파규칙
 - 이동위성 업무를 위한 주파수 대역의 조정 및 이용 시기

WTSC(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제1차. Helsinki(핀란드), 1993.3.1.-1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6 / 1-56

정부는 1993.3.1.~12.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1차 WTSC(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 임정재 체신부 전파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세계전기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2년 전체 조직을 개편하고 후속작업 진행
 - 1992년 전체 조직을 표준화, 전파, 개발 등 3개 분야로 개편
- 표준화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세계전기통신 표준화 회의를 설치하고 4년마다 개최

2. 참가국

- 65개국 및 7개 국제기구

3. 주요 결과

- 지난 회기 작성 권고안 승인: 465건
 - ISDN용 G3C FAX 표준 선정, 전화기 자판의 영문 알파벳 배열방식 선정, 범세계적인 통신을 고려한 개인별 고유번호 부여 등
- 다음 회기 연구과제 확정: 357건
- 표준화 업무처리 절차 및 조직개편
 - 신규 및 개정된 권고 승인 기간의 조정, 전기통신표준화 자문반 구성, 표준 및 전파 부문 간 조정그룹 신설
- 표준화 부문의 연구반 숫자 및 명칭 변경

4. 한국대표단 활동

- 전기통신표준화 자문반의 개방 참여 및 여타 표준화 기구와의 관계 강화 제의
- 대전 엑스포 참여 권유
- 한국 대표가 제3위원회 작업반 의장 및 제7연구반 부의장으로 선출

Tarjanne, Pekka Johannes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방한, 1993.9.22.-2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0 / 17 / 1-44

Pekka Johannes Tarjanne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이 1993.9.22.~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체신부장관의 TELECOM 1991 행사 참가 시, Tarjanne 사무총장 예방에서 방한 초청

2. 방한 목적

- 통신 관련 기관 방문 및 대전 엑스포 참관

3. 주요 일정

- 체신부장관 예방
- COMNET KOREA 1993 관람
- 대전 엑스포 방문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방문

4. 방한 결과

- Tarjanne 사무총장은 북한 방문(1993.9.18.~21.)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일성 주석은 현재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전기통신을 발전시켜 모든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고 언급
- 한국 측의 이사국 재선을 위한 협조 부탁에 대해, 동 사무총장은 자신이 이사국 선출 문제에 직접 관계하기는 곤란하나, 지역회의 및 관련회의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

UNDC(유엔군축위원회). New York, 1993.4.19.-5.10.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0 / 18 / 1-248

정부는 1993.4.19.~5.10. 뉴욕에서 개최된 UNDC(유엔군축위원회) 회의에 유종하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일정 및 의제

- 일정
 - 일반토의: 1993.4.19.~20.
 - WG 회의: 1993.4.21.~5.7. 제1WG(핵 군축), 제2WG(지역 군축), 제3WG(과학기술의 역할)
- 의제
 - 핵 군축 과정, 지역 군축, 과학과 기술의 역할, UNDC 보고서 검토

2. 주요 결과

- 핵 군축, 지역 군축, 과학기술 등이 군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원칙 및 지침의 문안 조정 논의
 - 지역 군축 의제에 관해서만 합의하고, 핵 군축 및 과학기술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
- 지역 군축에서 합의도출은 성과이나,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대한 지지 및 준거 문제로 대립함.
 - NPT 당사국과 비당사국, 서구 국가와 비동맹 국가의 입장이 대립하여 언급을 자제한 채로 채택
- 과학기술 분야 논의는 진전이 있었으나, 이전 문제 등에서 이견이 지속
- 핵 군축 분야 토의는 가까운 장래에 돌파구 마련이 난망
 - 포괄적 핵실험 금지 등에 관한 핵보유국의 근본적 정책 변화 필요

3. 한국대표단 활동

- 기조연설에서 3개 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NPT 탈퇴 철회를 촉구
 - 지역 군축 토의에서는 CSBM 검증 문제, 지역 군축의 이니셔티브 주체, 지역 군축의 방법 분류, 기타 수 개 문안 조정 방안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회의 참가 경험을 토대로 군축 분야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건의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전3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0 / 19 / 1-177

1993.1~4월 중 유엔 CD(제네바군축회의) 논의 동향임.

1. 1993년도 CD 및 관련 회의 일정

- CD 일정
 - 제1차 회의: 1993.1.19.~3.26.
 - 제2차 회의: 1993.5.10.~6.25.
 - 제3차 회의: 1993.7.19.~9.2.
- 관련 회의 일정
 - 유엔총회 제1위원회 속개회의: 1993.3.8.~12., 뉴욕
 - UNDC(유엔군축위원회): 1993.4.19.~5.10., 뉴욕
 - BWC 검증전문가 회의: 제3차 회의(1993.5.24.~6.4.), 제4차 회의(1993.9.13.~26.)

2. 제1차 CD 회의(1993.1.19.~3.26.) 동향

- 의제
 - CWC(화학무기금지협약) 타결 이후 공통 관심대상의 의제가 없어 기존 관행 유지가 대세
 - 개도국들은 핵 문제 부각을 희망하는 반면, 서구국가들은 새로이 부각되는 이슈에 소극적
 - 그럼에도 핵실험 금지, 군비 투명성, 비핵 국가 안전보장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
- 운영
 - 특위 설치에 대해 이견이 많았으나, 핵실험 금지, 외계 군비경쟁 방지, 비핵국가 안전보장, 군비투명성 등 의제에 대해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
 - 27개국이 가입 신청하여 CD 확대 문제가 쟁점인 가운데, 한국과 북한의 옵서버 참가를 승인
- 주요 동향
 - 냉전체제 붕괴 후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비확산체제 강화, 재래식 무기 등록, CD 회원국 확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 북한은 CD 문서로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북한 외교부 성명 배포를 시도하다 실패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전3권 (V.2 5-8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1 / 1 / 1-224

1993.5~8월 중 유엔 CD(제네바군축회의) 논의 동향임.

1. 제2차 CD 회의(1993.5.10.~6.25.) 동향

- 관심사항
 - 핵 관련 이슈: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CTBT(전면적핵실험금지), 북한의 NPT 복귀
 - CD 회원국 확대
- 주요국 동향
 - 1993.7.3. 미국 대통령은 1994.9.30.까지 핵실험 중지 선언

2. CTBT 논의 동향

- 논의 진전
 - 1962.3월 제네바 18개국 군축위원회에서 핵실험 금지 문제를 의제로 채택
 - 1963년 미국, 영국, 소련은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체결
 - 제46차 및 제47차 유엔총회에서 CTBT 결의 채택
 - 1993.8.11. CD 본회의는 핵실험 금지 특위에 CTBT 협상 권한 부여 결정
- 주요국 동향
 - CTBT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소극적이거나, 비핵보유국들은 압도적으로 지지
 - 1993년 신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은 CTBT에 대해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전3권 (V.3 9-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1 / 2 / 1-202

1993.9~12월 중 유엔 CD(제네바군축회의) 논의 동향임.

1. 제3차 CD 회의(1993.7.19.~9.2.) 결과

- 4개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 외계 군비경쟁 방지, 군비투명성, 비 핵국가 안전보장, 핵실험 금지 등
- 1994년도 회의 일정
 - 제1차 회의(1994.1.25.~3.31.), 제2차 회의(1994.5.16.~7.1.), 제3차 회의(1994.7.25.~9.7.)
- 회원국 확대
 - 비공식 협의 지속

1204

2. CTBT(전면적핵실험금지) 논의

- 핵실험 금지 특위 활동
 - 1993.10.11. 비공식 협의 시작, 향후 WG 포함 매주 3~5회 회의 개최 추진
 - 검증 및 법률·조직 등 2개 WG 구성에 합의
 - CTBT 적용 범위 및 초안 마련 시한, WG 활동 범위 등에 이견 존재
- 주요국 동향
 - 중국이 10.5.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의 핵실험 중지 및 CTBT 협의에 영향 우려
 - 러시아 의회는 미국 및 프랑스에 이어 핵실험 유예기간 연장조치를 10.21. 승인

3. 군축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외무부: 군축담당대사 임명 검토
- 국방부: CD 상주 연락장교 파견 검토
 - 현지 공관에서 부정적 의견 제시

UNDIR(유엔군축연구소) 기여금

생산연도 1989-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1 / 3 / 1-191

1989~93년 중 한국의 UNDIR(유엔군축연구소) 기여금 납부 관련 내용임.

1. UNDIR 기여금 공여

- 한국은 1988년 이래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하고, 유엔 군축기구와의 협조관계 유지 필요성 인식
 - 1989년 이래 UNDIR에 5천 달러 기여금을 공여
- 1991.9월에는 '소국의 안보' 특별연구에 2천 달러 기여금 공여

2. 세계군축캠페인 서약회의 참여

- 배경
 - 1982.6월 제2차 군축특총 결정 및 제44차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군축캠페인 서약회의 개최
 - 한국은 아태군축센터 주최 세미나 및 유엔 군축국 주관 연수에 참여하고 있어 서약회의 참여 필요성 대두
- 진전사항
 - 1990년: 세계군축캠페인 5천 달러 서약
 - 1991년: 세계군축캠페인 5천 달러, 아태 평화군축센터 2천 달러, 유엔군축연수계획 3천 달러, UNDIR 5천 달러 등 서약
 - 1992년: 세계군축캠페인 5천 달러, 아태 평화군축센터 4천 달러, 유엔군축연수계획 6천 달러, UNDIR 5천 달러 등 서약
 - 1993년: 세계군축캠페인 5천 달러, 아태 평화군축센터 4천 달러, 유엔군축연수계획 5천 달러, UNDIR 6천 달러 등 서약

1205

대한민국외교부
전·약·국·문·서·약·관

아시아 신뢰 구축 전문가 회의. Almaty(카자흐스탄), 1993.8.30.-9.1.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안보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1 / 4 / 1-115

1993.8.30.~9.1.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아시아 신뢰 구축 전문가 회의 관련 내용임.

1. 아시아 신뢰 구축 및 교류에 관한 회의(1993.3.29.~30.)

- 참가국
 -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1개국
 - 일본, 인도네시아 및 태국은 옵서버 참석
- 회의 결과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47차 유엔총회,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헬싱키 정상 회담 등에서 밝힌 아시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참가국들은 동 안보협력체제가 아시아 지역문제를 균형 있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대화의 장이라고 평가
 - 금년 8~9월경 알마티에서 제2차 실무회의를 소집하여, 다수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아시아 신뢰 구축 및 교류에 관한 회의를 외무장관급으로 개최하기 위해 회의 의제 및 절차 등 구체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2.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전문가 회의(1993.8.30.~9.1.)

- 참가국
 -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이란, 북한, 몽골 등 18개국
 -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 옵서버국
- 회의 결과
 - 회의는 아시아 다수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참가국 확보에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됨.
 -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회의가 CSCE와 같은 기구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 극복과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하였고, 아시아 내 신뢰 구축 문제를 다루는 포럼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평가함.
 - 그러나 회의가 지향하는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보다 명확한 추진목표 및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특히 추진방식에 있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Sub-Region 및 안보·경제 분야 등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유엔 군축국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세미나. Kathmandu(네팔), 1993.2.1.-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71 / 5 / 1-196

정부는 1993.2.1.~3.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유엔 군축국 후원 아태평화군축센터 주관 세미나에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실장과 이서향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25개국 정부 및 연구기관 대표 41명

2. 의제

- 아태지역 국가의 안보 및 신뢰 구축

3. 주요 결과

- 제기사항
 - 유엔 군축국장은 지역 국가의 군축 참여, 공개성과 투명성 제고, 다자대화 메커니즘 구축 강조
 - 일부 참가자는 헬싱키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동 세미나를 카트만두 프로세스로 간주
 - 아태지역 안보 및 군축 논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순회 개최, 국방 관계자 참여 필요성 등 제기
- 한반도 문제
 -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해결 상태인 북한 핵 개발이 안보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토의
 - 한국 대표는 남북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상호사찰 실현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방안임을 지적
 - 북한 대표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반대하며, 남북한 당사자끼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4. 참고자료

- 군비통제 개념(외교안보연구원)
- 유엔 아태지역 신뢰 구축에 관한 카트만두 지역회의 참가자료(외무부 외교정책실)
- 네팔 외무차관 예방자료(외무부 아주국)
- 태국 외무부 차관보 및 아세안국장 면담자료(외무부 아주국)

유엔 군축회의. 교토, 1993.4.13.-1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1 / 6 / 1-95

정부는 1993.4.13.~16.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군축회의에 양세훈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부실장과 서대원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정부대표단으로 파견함.

1. 참가자

- 37개국 정부 및 학계인사 87명 대표, 옵서버 8명

2. 의제

- 효과적인 국제통제를 통한 비확산
- 변화하는 세계에서 주권 개념
- 지역기구를 통한 대화 및 신뢰 구축 확대
- 지역안보 및 군축조치

3. 주요 결과

- 전체회의
 - 다수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의무 이행을 촉구
 - 한국대표단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가 긴요함을 강조
- 실무그룹 회의
 - 호주 참가자는 북한 핵 개발이 국가안보 및 김일성체제 유지가 동기라고 지적하고, 지역안보협력기구 부재 및 북한의 고립을 감안 남북대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강조
 - 참가자 다수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력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
 - 한국대표단은 정부 기본입장 및 대북한 유인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

재래 무기 이전 현황 유엔 등록 관련 아주·대양주지역 워크숍. 동경, 1993.1.26.-27.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1 / 7 / 1-279

정부는 1993.1.26.~27. 도쿄에서 개최된 ‘유엔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도’에 관한 아주·대양주지역 워크숍에 이병헌 외무부 유엔1과 서기관과 이영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조정관을 정부대표단으로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주·대양주지역 17개국
- 네덜란드, 유엔 군축국,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등
- 북한 불참

2. 정부 훈령

-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 평가: 신뢰 구축 및 군축에 기여, 문제점 제기, 각국의 참여 촉구
- 유엔 등록제 참여 추진: 한국의 정책 및 제도 소개, 남북한 신뢰 구축에 기여 기대, 의무 이행

3. 의제

- 군비투명성 제고방안과 유엔의 역할
- 유엔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 관련 세부사항
- 유엔 재래식무기이전확대 등 개선방안

4. 주요 결과

- 유엔 표준양식에 따라 재래식 무기 수출입 실적을 보고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개최
 - 매년 4월 지난 1년간 미사일 및 전투기 등 7종의 재래식무기 이전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다수 참가국은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가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표명
 - 한국은 유엔 등록제가 남북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보고서 제출을 약속
 - 일본 측 공동의장은 약 100개국 정도가 최초보고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

5. 참고자료

- 유엔 무기이전등록제도 검토(국방부)
- 유엔 측 배포 자료

국방부 직원 UNIDIR(유엔군축연구소) 파견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71 / 8 / 1-63

1992~93년 중 국방부의 UNIDIR(유엔군축연구소) 직원 파견 추진 내용임.

1. 추진 경위

- 국방부는 CD(제네바군축회의) 측에 군비통제관실 직원의 CD 회기 참관을 요청
- 1992.6.1. Berasategui 사무총장,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에게 참관 불가를 통보
 - 교육차원이라면 UNIDIR와 협의를 권유
- 1992.6.4. 외무부는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CD 측 입장 전달

2. 진전사항

- 국방부는 1992.9.3. 외무부에 제네바 출장 업무 협조 조치를 의뢰
 - 군비통제관실 직원의 1992.9.14.~21. 제네바 출장을 통해 CD 측과 직접 협의를 추진
 - 군축기구 및 UNCD(유엔군축위원회), UNIDIR 등 관련 연구소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주선 의뢰
 - 관심사항: 국제 군축 추세와 유엔 군축 관련 기관의 활동 등
- 국방부는 UNIDIR 측의 1992.12.5.~93.2.28. 객원연구원 자격 접수 동의를 근거로 파견 추진
 - 12.1. 한용섭 군비통제관실 사무관을 훈련 파견 발령하고, 외무부의 협조 요청
- 파견 중인 한용섭 사무관은 파리 개최 세미나 참석 계기 미국 군축처장을 접촉하고 12.16. 결과 보고
 - 주요 내용: 북한 핵 문제, 북한의 CWC(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 등에 관한 평가

3. 후속 파견 시도

- 이후 국방부는 UNIDIR 후속 파견을 시도하면서 외무부에 협조 요청했으나, 본인 사정으로 철회

유엔 군축훈련 과정 참가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71 / 9 / 1-80

1991~93년 중 유엔 군축훈련 과정 참가 관련 내용임.

1. 1992년도 유엔 군축훈련 과정 개요

- 목적: 군축 문제 전문가 양성
- 대상: 25~40세 25명
- 기간: 1992.7~11월
- 프로그램: 강의, 세미나, 현장실습
- 전례: 남북한은 1990년도 프로그램에 최초로 각 1명씩 파견

2. 참가자 선발 경위

- 1991.12.6. 유엔 군축국은 1992년도 과정에 후보자 1명 추천을 요청
- 1992.1.16. 외무부 총무과는 각 실국에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 모집
- 1992.3.16. 외무부 총무과는 이연수 문화협력1과 사무관을 선발
 - 훈련과정 이수 후 안보정책과에서 1년 이상 근무 조건
- 1992.4.6. 주제네바대표부는 유엔 군축국 제네바사무소에 이연수 사무관의 신청서 제출
- 1992.5.16. 유엔 군축국은 한국 지원자가 선발되었다고 회신하고, 5.20. 제네바 사무소도 확인
 - 훈련 일정계획: 1992.8.8.~10.30.

3. 진전사항

- 1993.1.18. 유엔사무총장은 공한을 통해 1993년도 유엔 군축훈련 과정에 한국 후보자 추천을 요청
 - 외무부 총무과에서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추천 중단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1 / 11 / 1-280



1. 유엔사무총장 명의 공한

- 1992.1.10.자 유엔 세계인권회의 최빈개도국 참가 관련 자발적 기금 요청
- 1992.10.23.자 Minority 보호 관련 '인권과 환경'에 대한 자료 요청
- 1992.11.12.자 Minority 보호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수단에 대한 의견 요청
- 1992.11.17.자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인, 집단, 사회조직의 권리·의무에 관련 선언문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 1992.11.25.자 인신매매 억제 관련 조치내역 제출 요청
- 1992.12.10.자 인권 위반 행위자에 대한 무징벌 문제에 대한 의견 요청
- 1993.1.18.자 Working Group on Indigenous Peoples 활동 관련 설문 응답 요청
- 1993.3.19.자 팔레스타인 점령지 실태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문 회람 등

1212

2.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 명의 공한

- 1991.12.23.자 토착민 인권에 관한 선언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
- 1992.4.9.자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관련 자료 요청
- 1992.4.13.자 유엔 인권위원회 2.21.자 결의 관련 용병 문제에 관한 자료 요청
- 1992.9.18.자 아동인신매매 문제 관련 자료 요청
- 1993.8.13.자 법의학 전문가 명단 제공 요청 등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1 1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1 / 12 / 1-256

1993.2.1.~3.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사전준비

- 제49차 유엔인권위 의제(1992.12.15., 주제네바대사 보고)
- 유엔 인권위 아주그룹 부의장 선거
 -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 경합 중 인도 철회로 인도네시아 선임
- 주한 미얀마대사, 1993.1.7.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제49차 인권위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호의적 입장을 기대하는 미얀마 외무장관 명의 서한을 외무부장관에게 전달
- 제49차 유엔 인권위 참가대책 부내 실·국 의견요청(아주국, 미주국, 구주국, 중동아국)
- 제49차 유엔 인권위 참가대책(1.15., 주제네바대표부)
- 제49차 인권위 참가대책(1.18.)
- 한국의 기본 대응방향에 관한 공관 의견 외무부 보고
- 인권회의 아주그룹 회의 결과보고(1.25., 주제네바대표부)

2. 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 대표: 문봉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정달호 국제연합2과장, 류국현 법무부 인권과장, 하찬호 국제연합2과 서기관, 조현동 서기관

3. 정부 훈령

- 한국의 유엔 인권위원국(1993~95 회기) 선임 후 최초 회의임을 감안, 주요 의제 3~4개 토의 시 한국 입장 발언(남아공 인권, 구금자 인권, 세계인권상황,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세계인권회의 등)
- 컨센서스, 표결 예상에 따라 각 사안별 대처 준비
- 한국 관련사항: 이인모 사건, 국내인권, 북한인권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2 2.1.-22.)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1 / 13 / 1-256

1993.2.1.~3.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49차 유엔인권위(1993.2.1.)

- 의장단 선출
 - 의장은 지역순번 관례에 따라 아프리카그룹의 튀니지(주유엔대사), 부의장(3명)에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칠레, Rapporteur에 폴란드를 각각 선출함.
- 의제 관련
 - 캐나다(서구그룹 대표)가 구유고지역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동 문제를 12항(국별 인권상황)이 아닌 별도 의제(의제명: 구유고지역 인권상황)로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제의, 컨센서스로 채택
 - 콜롬비아(남미그룹 대표)는 '유엔 국제원주민의 해' 기념으로 분리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캐나다가 이의를 제기하여 의장단 회의에서 재협의하기로 함.
- 유고 대표권 문제
 - 회의 초반에 독일(EC(구주공동체) 대표),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핀란드(북구 대표), 일본 등은 신유고연방(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 인권위에서 구유고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신유고연방 대표는 금일 회의에 불참함.

2.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구유고 관련 발언 지시(1993.2.4.)
-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호의적인 입장 표명(2.4.)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북한인권 관련 협의(2.5., 2.11., 2.17.)
- 남아공 인권에 관한 입장 paper, 쿠바 결의안 관련 입장(2.6., 2.9.)
- 팔레스타인 문제,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공동제안국 참여 초청(2.11.)
- 북한인권 문제 관련 미국, 호주, EC 등 거론 의사 없음을 확인(2.15.)
- 군대위안부 관련 IFOR(국제화해협회)가 회람문서 배포
- 외무부 공동제안국 참여 동의(인종차별 문제, 구유고지역 인권 상황)
- 외무부, 결의안 표결 시 각 사안별 외무부 입장(찬, 반, 기권)을 공관에 전달(2.19.)
- 정대협 신혜수 국제위원장, WCC 명의로 발언권을 얻어 위안부 문제 제기
- 의제12(국별 인권상황) 발언 요지, 고문 등 피구금자 인권문제 발언문
-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NGO)의 이인모 건 제기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3 2.23.-28.)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1 / 1-132

1993.2.1.~3.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관련 한국대표단의 주요 활동내용임.

1. 구유고지역 여성 인권문제에 공동제안국 참여
2. 이인모 관련 입장요지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1993.2.23.)
3. 티베트 문제(1993.2.23., 주제네바대사 보고)
4. 수단 및 쿠바 관련 결의안(미국 협조 요청)에 관한 외무부 지침 요청(1993.2.24.)
5. 의제 10항(고문, 구금, 실종) 토의 시 한국대표단 발언(1993.2.24.)
6. 카슈미르 인권문제(1993.2.4.)
7. 티베트 문제 외무부 지침 건의(1993.2.24., 주제네바대사 보고)
8. 인권위 결의안 외무부 지침 건의(1993.2.25., 주제네바대사 보고)
9. 외무부 지침 회시(1993.2.26.)
10. 공동제안국 참여 건의(1993.2.26., 주제네바대사 보고) 등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4 3.1.-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2 / 1-241

1993.2.1.~3.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관련 내용임.

1. 한국대표단 및 주요국의 활동

- EC(구주공동체) 대표(덴마크)는 중국, 미얀마, 쿠바, 수단 등 30개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인권 거론(3.2.)
- 미얀마(아웅산 수지 등), 동티모르 인권상황,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인권상황 등 토론 보고(3.2.)
- 외무부, 주제네바대표부에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의견 회보(1993.3.3.)
- 미국과 노르웨이 대표의 북한 인권상황 거론 및 북한 대표의 덴마크 대표에 대한 반박 발언(3.3.)
- EC 대표, 미국, 노르웨이의 북한문제 제기(3.4., 외무부장관 보고사항)
- 제49차 유엔 인권위 결의안 관련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에게 정부 입장 전달(3.9.)

2. 제49차 유엔인권위 채택 결의안

- 의제 17, 20, 22, 19, 10항에 관한 결의안
 - 의제17항: 국가승계와 인권협약
 - 의제20항: 소수민의 권리
 - 의제22항: 불관용 철폐선언이행
 - 의제19항: 현대적 형태 노예 피해자 기금/작업반 등
 - 의제10항: 사법행정, 표현의 자유 등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V.5 3.9.-7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3 / 1-159

1993.2.1.~3.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결과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53개 위원국 대표, 70여 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옵서버), 120여 개 민간 인권단체 대표

2. 주요 결과 및 동향

- 특정국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 증가 추세
 - 금년도 결의대상국이 19개국으로 1992년보다 4개국 증가
 -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수단, 쿠바, 남아공, 이스라엘 등 7개 국가 결의안은 표결을 통해 채택, 기타는 컨센서스로 채택
- 서방 측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중국관계 결의안은 1992년도에 이어 No Action 제안이 22:17:12로 채택됨에 따라 폐기(한국은 기권)
 - 1992년보다 중국 지지국이 5개국이나 감소되어 중국 입장 약화
- 개도국들은 서방측의 인권위 주도 움직임에 대하여 반대 공세로 적극 대응
 - 발전의 권리 관련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개도국 입장 강화
 - 쿠바, 이란 등은 유엔의 인권감시 업무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 제기

3. 남북한 관련사항

- 한국
 - 한국 인권상황을 언급한 정부 및 NGO 대표는 없었으며, 2개 NGO가 이인모 송환문제를 언급
- 북한
 - EC(구주공동체),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강제수용소 문제 및 인권규범 위반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
 - 일본은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과 관련한 북한의 비난 발언에 대하여 1,800여 명의 복송 일본인 처 문제를 제기
- 종군위안부 문제
 - 4개 NGO, 남북한 및 일본 대표가 거론



4. 한국대표단 활동

- 금번 회의에 위원국으로서 최초 참가하여 남아공, 팔레스타인, 구유고 등 특정국 인권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하여 총 5차례 발언
- 특정국 인권상황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통해 한국 입장 표명
 - 찬성: 이라크, 쿠바, 수단, 남아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 기권: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이란
- 주요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에 참여,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심 반영
- 한국의 표결 패턴
 - 미국, EC 등 서구국가들은 한국을 그들과 같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문제가 있는 국별 인권상황 및 유엔의 인권감시기능 관련 결의안에 대해 서구 측 입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는 한편 여러 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함.
 -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주그룹 국가 및 수단 등 여타 개도국은 같은 지역 국가 또는 개도국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자국 입장 지지를 기대함.

5. 향후 대책

- 유엔총회 및 인권위 등 다자차원에서 특정국 인권상황 등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재정립
- 세계인권회의(1993.6월, 비엔나)에 각료급 고위대표 파견, 한국의 관심과 입장 표명
- 향후 인권 관련 회의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관한 정부 입장 수립
- 세계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부처, 국회, 사법부 및 국내 민간단체의 관심 제고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일본 제출 인권규약 보고서 심의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4 / 1-107

1.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1993.10.27.~28., 제네바), 일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3차 보고서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

- 소수민족(특히, 한국인), 여성, 외국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상존
- 장기 구금, 경찰의 가혹행위, 재소자에 대한 처우 미비 등 사법제도상 흠결
-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 필요성
- 인권 관련 협약(특히 인권규약 선택의정서 및 아동권리협약 등) 가입 촉구
- 사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

2. 동 보고서 한국 관련사항

- 인권위원들은 최근의 개선사항을 평가하면서도 재일 한국인 지위 문제는 만성적인 문제로서 취업 불평등, 개명 압력 등 상존하는 차별의 철폐가 중요하다고 지적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991.11월 재일 한국인 지위에 관한 특별법 발효,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의 폐지 등 구체적 개선조치가 있었다고 주장

1219

대한민국 인권매거진 연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한국 최초보고서 제출, 1993.10.21.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5 / 1-220

1. 한국 정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최초보고서 제출(1993.10.21.)

- 동 보고서는 해당 규약에 규정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 현황 및 정부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 등 기술
 - 외무부, 법무부, 노동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및 과학기술처 작성
- 인권사무국 측은 1994.11.21.~12.9. 중 한국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

2. 보고서 주요 목차

1220

- 근로의 권리: 근로권의 보장 등
- 근로기준: 법정근로조건 보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등
- 노동 3권
- 사회보장
- 여성·아동 및 가정의 보호
- 인간다운 생활권
- 보건권
- 교육에 대한 권리
- 무상 의무교육
- 문화적·과학적 권리 및 보호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차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6 / 1-124

1. 한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협약'에 따른 제7차 보고서, 유엔 인권사무국에 제출(1992.3월)

- 주요 내용
 - 제6차 보고서 제출 이후 정부 조치사항
 -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내용
 -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별도의 입법 불필요 측면
 - 국내 외국인 거주 및 귀화 현황
 - 유엔 반(反)아파트헤이트(Apartheid) 기금에의 기여금 납부 및 반아파트헤이트 입장 견지
 - 최저임금제 등 노동권 보장제도
 - 인종차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제도적 구제조치
 - 외국인학교 현황 등

2.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심사(1993.8.3.)

- 주요 질의 또는 지적사항
 - 협약의 국내 이행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 구체적 입법조치 등 미비
 - 최저임금제도, 의료,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부
 - 경찰관 등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여부
 - 지역갈등 및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 여부
- 주재네바대사는 상기 심의에서 집중 거론된 본 협약의 국내 이행 문제(특히 협약 제14조) 관련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 검토를 외무부에 건의

1221

대한민국 인권매거진 1993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V.1 2.18.-5.2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7 / 1-213

정부는 1993.6.14.~25.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 한승주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유엔 및 전문기구 회원국 정부대표(180여 개국)
- 국제기구, 비정부간 기구 대표(옵서버 자격)

1222

2. 참가 목적 및 활동계획

-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높은 관심과 기본입장 표명
- 오스트리아 방문기간 중 세계인권회의에서의 기조 실현 및 여타국 주요 참가 인사와의 면담 추진
- 유럽 주요 우방국 공식방문 추진

3. 주요 의제

- 세계인권 선언 채택 이후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 평가 및 향후 진전에의 장애요인 제거방안 토의
- 발전, 민주주의와 모든 인권의 보편적 향유와의 관계 검토
- 취약계층을 포함한 남성 및 여성의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관한 현재 동향 및 새로운 도전에 관한 검토 등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V.2 5.23.-6.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8 / 1-226

1993.6.14.~25.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세계인권회의의 계기 면담 추진 현황

- 외무부는 1993.5.25.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외무부장관의 세계인권회의(비엔나) 참석 계기 미국, 일본, 파키스탄, 스페인, 인도네시아 외무장관들과의 양자회동을 추진하고자 각 주재국을 통해 교섭 중이라고 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도 해당 대사관과 접촉하여 면담 구체사항(시간, 장소 등)을 협의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 면담 시간대 관련, 6.15. 오전은 기조연설 사전준비 목적으로 비워두고, 그 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선 바란다는 지침 전달

2. 세계인권회의의 대책자료 작성

- 외무부는 1993.6.1. 주제네바대표부에 대책자료 작성에 참고하고자 한다면서 현재까지 회의 주요쟁점에 관하여 제기된 각국 주요 제안을 기초로 아래 쟁점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제안 문안(영문)을 작성, 보고하도록 지시함.
 - 보편성 문제
 -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와의 관계
 - 발전권
 - 민주주의, 발전, 인권향유 간의 관계
 - 유엔 인권활동 강화방안

1223

대한민국 인권매거진 연감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V.3 6.14.-10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9 / 1-138

1993.6.14.~25.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의 관련 내용임.

1. 한승주 외무부장관,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예방(1993.6.14.)

- 한승주 장관은 한국 정부 신외교 정책의 인권·환경·군축 등 보편적 가치가 현실외교 못지않게 중요하며, 외무부장관의 회의 참석도 이러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
 -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권회의 참석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 수석대표의 연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청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동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 방문 초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언젠가는 방문할 생각이나, 남북한을 같이 방문하고 싶으면서 군사분계선 통과에도 관심을 보임.

1224

2.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 한승주 장관은 1993.6.15. 아래 요지의 세계인권회의의 기조연설을 함.
 -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른 국제적 인권증진 노력 지지
 - 민주주의와 인권은 안보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필요로 하나, 국가적 특수상황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 인권문제에 대한 단순화되고 독선적인 태도는 역효과 발생 가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직 신설 지지

3. 세계인권회의의 폐막

- 세계인권회의는 1993.6.25.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설치 문제 등 주요 잔여 쟁점에 대한 문안작업을 모두 마치고, 세계인권회의의 최종문서(전문, 선언 및 실천계획)를 채택한 후 폐회함.
 - 제48차 유엔총회에서 우선적으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설치문제를 검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
- 국제인권재판소 관련, 다수 개도국들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국제인권재판소 표현 없이 인권위가 인권협약의 이행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해서는 ILC(국제법위원회)가 검토 작업을 계속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타결됨.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V.4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10 / 1-191

1993.6.14.~25.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의 참가 관련 참고자료임.

1. 외무부 보도자료

- 보도일시: 1993.6.1. 16:00
- 제목: 외무부장관 세계인권회의 참석 및 유럽 5개국 방문
- 내용
 -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1993.6.14.~25.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엔 주관으로 25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인권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인권 향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과 유엔 인권 분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천명할 예정
 - 동 장관은 또한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영국을 방문하여 이들 국가와의 외무장관회담 및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예방을 통해 정부의 통일 정책과 신외교 정책을 알릴 예정

2. 외무부 보도자료

- 보도일시: 1993.6.15. 18:00
- 제목: 세계인권회의
- 내용
 -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6.15. 기조연설을 통하여 인권은 인류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냉전종식에 따라 인간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류는 범세계적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세계인권 선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인권보장에 있어 다음 세대에 빛나는 유산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
 - 한국은 문민정부의 신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이러한 세계적 인권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3. 참고자료

- 세계인권회의의 참가 대비자료(외무부 국제기구국)
- 세계인권회의의 기조연설문(안)
- 세계인권회의의 장관 브리핑자료 등

유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회의, 제1-4차. Geneva. 전4권 (V.1 제1-2차)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11 / 1-215

1991~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인권회의의 준비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준비회의(1991.9.9.~13.)

- 수석대표
 - 이동익 외무부 본부대사
- 주요 의제
 - 세계인권회의의 의제, 의사규칙, 개최 일시, 장소, 대표단 구성 등
 - 차기 준비회의의 작업 일정 등
- 회의 결과
 - 각국의 기초연설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정 관련사항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보았을 뿐 세계인권회의의 의제, 의사규칙, 준비문서 작성 및 연구대상의 구체적 선정 등 실질적 사항에 대한 논의는 미진

2. 제2차 준비회의(1992.3.30.~4.10.)

- 수석대표
 -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 회의 결과
 - 지역그룹 간의 심각한 입장 차이에 따라 세계인권회의의 의제를 정하지 못한 것은 서방선진국 및 개도국들이 공히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과 민감성을 반영한 것임.
 - 제3차 준비위 회의는 세계회의의 의제를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유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회의, 제1-4차. Geneva. 전4권 (V.2 제3-4차)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12 / 1-162

1991~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차 유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3차 준비회의(1992.9.14.~18.)

- 수석대표
 -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 회의 결과
 - 제3차 준비회의의 핵심 주제인 세계인권회의 의제와 관련, 제2차 준비회의 이후 제3차 회의 종료 시까지 각 지역그룹별 및 그룹 간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아주그룹을 제외한 여타 4개 지역그룹은 내부적으로 단일 입장을 정리하고, 동 4개 그룹 간에도 거의 컨센서스에 가까운 의견 접근을 보.
 - 그러나 아주그룹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일부 국가의 양보로 외형상 그룹 입장을 만들어 냈으나, 여타 그룹과는 큰 차이가 있어 결국 의제 타결에 실패함.

2. 제4차 준비회의(1993.4.19.~30.)

- 수석대표
 - 김삼훈 주제네바 차석대사
- 회의 결과
 - 회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세계인권회의에 상정할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쟁점이 많은 항목은 실질 협상 없이 각국 제안을 모두 대안 괄호처리하는 방식으로 문안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여 일단 초안 작업을 마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주요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세계회의의 시 초안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유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회의, 제1-4차. Geneva. 전4권 (V.3 지역회의의 I : 아시아지역 준비회의(1991-92))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13 / 1-179

1991~93년 중 유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회의의 관련 아시아지역 준비회의의 내용임.

1. 아주그룹 실무회의

- 1991.10.30. 회의
 - 세계인권회의의 관련 문서 준비
 - 세계회의의 관련 모로코가 유엔총회에 제출할 결의안 토의
- 1991.12.12. 회의
 - 아주지역 준비회의는 1992.8.17.~21.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의견 수렴
- 1992.1.16. 회의
 - 아주지역회의의 준비를 위한 WG 구성에 합의
 - 아주지역회의의 참가 범위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각국이 본국 훈령이 없음을 이유로 추후 결정하기로 함.
- 1992.6.5. 회의
 - 의장(필리핀)은 세계인권회의의 준비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Blanca 사무총장의 서한발송 취지 설명
 - 일본, 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은 Blanca 사무총장의 서한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한국도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지지함.

2. 세계인권회의의 관련 유엔 결의안 참여 문제

- 경위
 - 그간 3차례의 준비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그룹의 반대로 회의 의제 미합의
 - 준비회의 의장국인 모로코 명의로 금차 총회에 서구국가 등 중심 107개국이 참여하여 결의안 제출
- 주요 쟁점
 - 모로코 결의안 참여국들은 인권 관련 일반적, 포괄적 의제를 주장하나, 아시아그룹 강경국들은 발전의 권리, 자결권, 아파트헤이트 철폐 등을 의제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
- 전망
 - 동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유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회의, 제1-4차. Geneva. 전4권 (V.4 지역회의 II: 아시아지역(1993) 및 기타지역 준비회의)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2 / 14 / 1-246

1991~93년 중 유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회의의 관련 아시아지역 및 기타지역 준비회의의 내용임.

1. 아시아지역 준비회의(1993.3.29.~4.2., 방콕)

- 수석대표
 - 신두병 외무부 국제인권문제 담당 대사
- 개최 목적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후 1968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이래 25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인권회의의 준비를 위한 아시아지역 준비회의
- 회의 결과
 - 금번 회의는 세계회의의 준비를 위한 지역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나, 아주그룹의 이질적인 구성 요인과 다수국가들이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그룹인 점에 비추어 당초부터 세계회의에 크게 기여할 인권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았으며, 결국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개입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선언문을 채택함.
 - 한국 측은 본회의의 연설 및 기초위원회 활동을 통해 아주지역에서 일본, 사이프러스와 함께 민주인정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심는데 기여하였는바, 특히 기초위원회에서 선언문 초안 심의 시에는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선언 내용 중 자국이익에 따라 삭제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한국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하거나 발언을 부탁하는 등 한국에 대한 기대와 인권국가로서의 인식이 커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음.
 - 아랍, 중국, 파키스탄, 아세안 일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한 등은 본회의의 연설 및 기초위원회를 통해 인권문제보다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정치압력 수단으로서의 사용 불가 등 선진국 및 NGO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데 일관함.

2. 기타지역 준비회의

- 아프리카지역 준비회의(1993.1.2.~6., 튀니지)
 - 유엔인권선언 및 인권에 대한 아프리카현장 내용 준수,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제도를 초월한 인권 우위성 강조, 사법부 독립 필요성과 정부의 인권보장기구 기능 보호를 강조한 튀니지 선언 채택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준비회의(1993.1.18.~22., 코스타리카 산호세)
 - 인도적 동지에서 제3국에 대한 간섭권 문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유엔 High Commissioner 설치 제안 토의
 - 최종 선언문인 산호세 선언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결의문 합의를 보지 못하여 1개 항목의 산호세 선언만 채택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 워크숍, 제2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3.1.26.-28.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3 / 1 / 1-56

1993.1.26.~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 워크숍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31개국 49명의 정부 대표 및 옵서버 대표 등
 - 김종훈 외무부 국제연합2과 서기관 참석

1230

2. 회의 의제

-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검토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시행
- 인권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국내기관의 활동
- 인권 관련 국내기관과 국가 간 관계 등

3. 회의 결과

- 초청 연사의 주제 발표 및 이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어, 각국 정부의 입장이 밝혀지기 보다는 인권보장을 위한 이론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인권 분야에서 지역 내 국가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동 회의의 유용성을 평가함.
- 세계인권회의 및 아주지역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어, 다수국가가 외무부 담당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대한민국 외교문서요약집

1993년(I)

인쇄 | 2024년 3월 15일

발행 | 2024년 3월 29일

발행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권기창, 권해룡, 김응중, 김홍수, 안성국, 이용일, 정태인, 전영욱
감수위원	권태면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